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61-12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961-1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나 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61-1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전화 044) 202-2117/ 129
팩스 044) 202-3910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목차

요약 1

Ⅰ. 서 론 29
1. 조사의 배경 31
2. 조사 목적 32
3. 조사 방법 33
4. 응답자 특성 51
5. 일러두기 54

Ⅱ.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57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59
2. 비용 지원 71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81
1. 인구학적 특성 83
2. 사회·경제적 특성 92
3. 시사점 123

Ⅳ. 영유아 양육 특성 127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129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47
3. 장애 영유아 양육 164
4. 추가 출산 의향 173
5. 시사점 176

Ⅴ.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179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 181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 185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 188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 205
5. 보육·교육기관 제공 서비스 ····· 215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 219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 227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 230

Ⅵ.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243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 245
2. 어린이집 이용비용 ····· 272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 282
4. 어린이집 특별활동 ····· 291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303
6. 연장보육과 취약보육 ····· 312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 327
8.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 330
9.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 336
10. 보육지원체계 개편 ····· 357
11. 시사점 ····· 362

Ⅶ. 유치원 이용 및 요구 365
1. 유치원 이용 특성 ····· 367
2. 유치원 이용 비용 ····· 397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 405
4. 방과후 특성화활동 ····· 410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420
6. 시사점 ····· 424

Ⅷ.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427
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 429
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요일 및 시각 관련 ····· 434
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 447
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 452
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기관 이용 만족도 ····· 454
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부모서비스 및 특별활동 ····· 455
7. 시사점 ····· 464

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467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 469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475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487
4. 시사점 ····· 496

Ⅹ.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499
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 501
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 504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 515
4. 시사점 ····· 525

Ⅺ. 육아정책 관련 인식 529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 531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 533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546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 547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 556
6. 시사점 ····· 570

Ⅻ. 정책적 시사점 573
1.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육지원 방향성 재정립 ····· 575
2. 취약가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 576
3. 영유아 부모 역량 강화 ····· 577
4. 코로나 등 위기상황 대처 보육 기능 강화 ····· 577
5. 보육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향성 ····· 578

참고문헌 581

부록 585
1. 가구조사 설문지 ····· 585
2. 아동조사 설문지 ····· 605

표 목차

〈표 Ⅰ-3-1〉 가구조사 내용 ····· 35
〈표 Ⅰ-3-2〉 아동조사 내용 ····· 36
〈표 Ⅰ-3-3〉 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1.6월 말) ···· 39
〈표 Ⅰ-3-4〉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지원유형별 수혜자 분포 (기준시점: 2021.6월 말) ····· 40
〈표 Ⅰ-3-5〉 지역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분포(기준시점: 2021.6월 말) ····· 40
〈표 Ⅰ-3-6〉 정부지원유형별 제곱근비례배분 결과(1차 층화) ····· 41
〈표 Ⅰ-3-7〉 정부지원유형별로 17개 시도별 제곱근비례배분(2안) ····· 41
〈표 Ⅰ-3-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제곱근비례배분시 목표 RSE ····· 42
〈표 Ⅰ-3-9〉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층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결과 ····· 43
〈표 Ⅰ-3-10〉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 44
〈표 Ⅰ-3-11〉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 44
〈표 Ⅰ-3-12〉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 45
〈표 Ⅰ-3-13〉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 45
〈표 Ⅰ-3-14〉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유형별 분포 ····· 46
〈표 Ⅰ-3-15〉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 48
〈표 Ⅰ-3-16〉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 49
〈표 Ⅰ-4-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 51
〈표 Ⅰ-4-2〉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 52
〈표 Ⅰ-4-3〉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 53
〈표 Ⅱ-1-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21) ····· 60
〈표 Ⅱ-1-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21) ····· 62
〈표 Ⅱ-1-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2018-2020) ·· 63
〈표 Ⅱ-1-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21) ····· 65
〈표 Ⅱ-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21) ····· 66
〈표 Ⅱ-1-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21) ····· 68
〈표 Ⅱ-1-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21) ····· 69
〈표 Ⅱ-1-8〉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21) ····· 70

〈표 Ⅱ-2-1〉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21) ····· 72
〈표 Ⅱ-2-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21) ····· 73
〈표 Ⅱ-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21) ····· 74
〈표 Ⅱ-2-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21) ····· 75
〈표 Ⅱ-2-5〉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21) ····· 76
〈표 Ⅱ-2-6〉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21) ····· 79
〈표 Ⅱ-2-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21) ····· 79
〈표 Ⅲ-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 84
〈표 Ⅲ-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 85
〈표 Ⅲ-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 86
〈표 Ⅲ-1-4〉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장애 및 질병 비율 ····· 86
〈표 Ⅲ-1-5〉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7
〈표 Ⅲ-1-6〉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 88
〈표 Ⅲ-1-7〉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 89
〈표 Ⅲ-1-8〉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 89
〈표 Ⅲ-1-9〉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 90
〈표 Ⅲ-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 90
〈표 Ⅲ-1-11〉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 91
〈표 Ⅲ-1-12〉 지역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 92
〈표 Ⅲ-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 상태 ····· 93
〈표 Ⅲ-2-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 94
〈표 Ⅲ-2-3〉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 95
〈표 Ⅲ-2-4〉 취업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 96
〈표 Ⅲ-2-5〉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 97
〈표 Ⅲ-2-6〉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토요일 근무여부 ····· 98
〈표 Ⅲ-2-7〉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 ····· 98
〈표 Ⅲ-2-8〉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 99
〈표 Ⅲ-2-9〉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 100
〈표 Ⅲ-2-10〉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 101
〈표 Ⅲ-2-11〉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 102
〈표 Ⅲ-2-12〉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가 직장 그만둔 경험 ····· 102
〈표 Ⅲ-2-13〉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모) ····· 103
〈표 Ⅲ-2-14〉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부) ····· 104

〈표 Ⅲ-2-15〉 부모의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시기 ····· 105
〈표 Ⅲ-2-16〉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 106
〈표 Ⅲ-2-17〉 육아휴직의 주 이유가 된 자녀의 육아휴직시기 ····· 106
〈표 Ⅲ-2-18〉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 107
〈표 Ⅲ-2-19〉 취업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 108
〈표 Ⅲ-2-20〉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 109
〈표 Ⅲ-2-21〉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 110
〈표 Ⅲ-2-22〉 소득 분위별 평균 ····· 111
〈표 Ⅲ-2-23〉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 112
〈표 Ⅲ-2-2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 113
〈표 Ⅲ-2-25〉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 114
〈표 Ⅲ-2-26〉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 115
〈표 Ⅲ-2-27〉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 116
〈표 Ⅲ-2-28〉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 117
〈표 Ⅲ-2-39〉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 118
〈표 Ⅲ-2-30〉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 119
〈표 Ⅲ-2-31〉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120
〈표 Ⅲ-2-32〉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 121
〈표 Ⅲ-2-33〉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 122
〈표 Ⅲ-2-34〉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형태 ····· 123
〈표 Ⅳ-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 130
〈표 Ⅳ-1-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 132
〈표 Ⅳ-1-3〉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3
〈표 Ⅳ-1-4〉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4
〈표 Ⅳ-1-5〉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5
〈표 Ⅳ-1-6〉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6
〈표 Ⅳ-1-7〉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7
〈표 Ⅳ-1-8〉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8
〈표 Ⅳ-1-9〉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39
〈표 Ⅳ-1-10〉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140
〈표 Ⅳ-1-11〉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 142
〈표 Ⅳ-1-12〉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 143
〈표 Ⅳ-1-13〉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 145

〈표 Ⅳ-1-14〉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 146
〈표 Ⅳ-2-1〉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 148
〈표 Ⅳ-2-2〉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 148
〈표 Ⅳ-2-3〉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 150
〈표 Ⅳ-2-4〉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 151
〈표 Ⅳ-2-5〉 부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전체10 기준) ····· 152
〈표 Ⅳ-2-6〉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 154
〈표 Ⅳ-2-7〉 지역규모 및 모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연령별 선호 양육형태 ····· 154
〈표 Ⅳ-2-8〉 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 156
〈표 Ⅳ-2-9〉 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 157
〈표 Ⅳ-2-10〉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 등 · 158
〈표 Ⅳ-2-11〉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 159
〈표 Ⅳ-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 160
〈표 Ⅳ-2-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 161
〈표 Ⅳ-2-1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162
〈표 Ⅳ-2-1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정보 ····· 163
〈표 Ⅳ-2-16〉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경험 ····· 164
〈표 Ⅳ-3-1〉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중복응답) ····· 165
〈표 Ⅳ-3-2〉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정도 ····· 166
〈표 Ⅳ-3-3〉 장애 진단 시기 ····· 167
〈표 Ⅳ-3-4〉 장애 진단계기 ····· 168
〈표 Ⅳ-3-5〉 이용기관, 이용 시간 및 만족도 ····· 170
〈표 Ⅳ-3-6〉 제 특성별 기관 미이용 이유 ····· 171
〈표 Ⅳ-3-7〉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 172
〈표 Ⅵ-4-1〉 추가 출산 관련 의견 비율 ····· 174
〈표 Ⅵ-4-2〉 추가 출산 계획 시기 ····· 175
〈표 Ⅵ-4-3〉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 175
〈표 Ⅴ-1-1〉 최초 이용기관 ····· 182
〈표 Ⅴ-1-2〉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 182
〈표 Ⅴ-1-3〉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 184
〈표 Ⅴ-1-4〉 사유별 최초 이용 월령 ····· 185
〈표 Ⅴ-2-1〉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 서비스(중복응답) · 186
〈표 Ⅴ-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 187

〈표 Ⅴ-3-1〉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 188
〈표 Ⅴ-3-2〉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여부 ····· 189
〈표 Ⅴ-3-3〉 유치원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 ····· 190
〈표 Ⅴ-3-4〉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 191
〈표 Ⅴ-3-5〉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 192
〈표 Ⅴ-3-6〉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 192
〈표 Ⅴ-3-7〉 현재 이용기관별 이용 지속기간 ····· 193
〈표 Ⅴ-3-8〉 현재 이용기관별 기관 선택 이유 ····· 194
〈표 Ⅴ-3-9〉 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 195
〈표 Ⅴ-3-10〉 토요보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195
〈표 Ⅴ-3-11〉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 ····· 196
〈표 Ⅴ-3-12〉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하원 시각 ····· 197
〈표 Ⅴ-3-13〉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 198
〈표 Ⅴ-3-14〉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 시각 ····· 199
〈표 Ⅴ-3-15〉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인식_시작 시각 ····· 200
〈표 Ⅴ-3-16〉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인식_끝나는 시각 ····· 201
〈표 Ⅴ-3-17〉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 시간 ····· 201
〈표 Ⅴ-3-18〉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 203
〈표 Ⅴ-3-19〉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어린이집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204
〈표 Ⅴ-3-20〉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 204
〈표 Ⅴ-3-21〉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 시간 ····· 205
〈표 Ⅴ-3-22〉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 시간 ····· 205
〈표 Ⅴ-4-1〉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 206
〈표 Ⅴ-4-2〉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 208
〈표 Ⅴ-4-3〉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 208
〈표 Ⅴ-4-4〉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 209
〈표 Ⅴ-4-5〉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 210
〈표 Ⅴ-4-6〉 영유아 연령별 및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 211
〈표 Ⅴ-4-7〉 지역규모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 212
〈표 Ⅴ-4-8〉 지역규모별 기관 이용 영유아 입소 비용(입학준비금,입학금) ···· 212
〈표 Ⅴ-4-9〉 보육료·교육비 부담감 인식 ····· 213
〈표 Ⅴ-4-10〉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 214
〈표 Ⅴ-5-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 215

〈표 Ⅴ-5-2〉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빈도 ····· 216
〈표 Ⅴ-5-3〉 반일제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 218
〈표 Ⅴ-5-4〉 반일제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만족+만족) 비율 219
〈표 Ⅴ-6-1〉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 220
〈표 Ⅴ-6-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이용 비율 ····· 220
〈표 Ⅴ-6-3〉 특별활동 이용 개수 ····· 221
〈표 Ⅴ-6-4〉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 222
〈표 Ⅴ-6-5〉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 222
〈표 Ⅴ-6-6〉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 비용 ····· 224
〈표 Ⅴ-6-7〉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 ····· 225
〈표 Ⅴ-6-8〉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 225
〈표 Ⅴ-6-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 226
〈표 Ⅴ-7-1〉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 227
〈표 Ⅴ-7-2〉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 228
〈표 Ⅴ-7-3〉 이용기관별 개선요구사항 ····· 229
〈표 Ⅴ-8-1〉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중복응답) ····· 230
〈표 Ⅴ-8-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 232
〈표 Ⅴ-8-3〉 국·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 233
〈표 Ⅴ-8-4〉 연령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 ····· 235
〈표 Ⅴ-8-5〉 지역별 연령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 ····· 235
〈표 Ⅴ-8-6〉 연령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이용 수요 ····· 236
〈표 Ⅴ-8-7〉 지역별 연령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이용 수요 ····· 237
〈표 Ⅴ-8-8〉 연령별 해당 개월의 기타 시설 수요 ····· 237
〈표 Ⅴ-8-9〉 2021년생(0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 238
〈표 Ⅴ-8-10〉 2020년생(1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 238
〈표 Ⅴ-8-11〉 2019년생(2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 239
〈표 Ⅴ-8-12〉 2016년생-2018년생(3-5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240
〈표 Ⅴ-8-13〉 출생연도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 241
〈표 Ⅴ-8-14〉 출생연도별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 242
〈표 Ⅵ-1-1〉 영유아 특성별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 ····· 246
〈표 Ⅵ-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 247
〈표 Ⅵ-1-3〉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 사항 ····· 249
〈표 Ⅵ-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 250

〈표 Ⅵ-1-5〉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 252
〈표 Ⅵ-1-6〉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 253
〈표 Ⅵ-1-7〉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 255
〈표 Ⅵ-1-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 (어린이집 도착 시각) ····· 256
〈표 Ⅵ-1-9〉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각) 257
〈표 Ⅵ-1-10〉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 (어린이집 출발 시각) ····· 257
〈표 Ⅵ-1-11〉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어린이집 출발 시각) ····· 258
〈표 Ⅵ-1-1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 259
〈표 Ⅵ-1-13〉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 260
〈표 Ⅵ-1-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관련 의견 ····· 262
〈표 Ⅵ-1-15〉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희망 등원 시각 ····· 263
〈표 Ⅵ-1-16〉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등원 시각 ····· 264
〈표 Ⅵ-1-17〉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희망 하원 시각 ····· 264
〈표 Ⅵ-1-18〉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하원 시각 ····· 265
〈표 Ⅵ-1-19〉 영유아 여부 및 연령별 희망 이용 시간 ····· 266
〈표 Ⅵ-1-20〉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이용 시간 ····· 267
〈표 Ⅵ-1-2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 268
〈표 Ⅵ-1-22〉 제 특성별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의 정보 교류 ····· 270
〈표 Ⅵ-1-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 271
〈표 Ⅵ-2-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비용 분포 ····· 272
〈표 Ⅵ-2-2〉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 273
〈표 Ⅵ-2-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 274
〈표 Ⅵ-2-4〉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제특성별 월평균 추가 비용(전체 영유아) 276
〈표 Ⅵ-2-5〉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비용 지불 영유아) ····· 277
〈표 Ⅵ-2-6〉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 278
〈표 Ⅵ-2-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 279
〈표 Ⅵ-2-8〉 어린이집 유형별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281
〈표 Ⅵ-2-9〉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282
〈표 Ⅵ-3-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 283
〈표 Ⅵ-3-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 286

〈표 Ⅵ-3-3〉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 286
〈표 Ⅵ-3-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 287
〈표 Ⅵ-3-5〉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 288
〈표 Ⅵ-3-6〉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 288
〈표 Ⅵ-3-7〉 부모참여 활동(운영위원회, 모니터링단, 자원봉사) 참여율, 도움정도, 참여의향 ····· 289
〈표 Ⅵ-3-8〉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 289
〈표 Ⅵ-3-9〉 부모참여가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 ····· 291
〈표 Ⅵ-4-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 292
〈표 Ⅵ-4-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 293
〈표 Ⅵ-4-3〉 영/유아 및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 293
〈표 Ⅵ-4-4〉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 294
〈표 Ⅵ-4-5〉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 295
〈표 Ⅵ-4-6〉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 296
〈표 Ⅵ-4-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 297
〈표 Ⅵ-4-8〉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 297
〈표 Ⅵ-4-9〉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여부 ····· 298
〈표 Ⅵ-4-10〉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 299
〈표 Ⅵ-4-11〉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 300
〈표 Ⅵ-4-12〉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 301
〈표 Ⅵ-4-1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 302
〈표 Ⅵ-4-14〉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 303
〈표 Ⅵ-5-1〉 어린이집 구성 요소별 만족도 ····· 304
〈표 Ⅵ-5-2〉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 305
〈표 Ⅵ-5-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 306
〈표 Ⅵ-5-4〉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307
〈표 Ⅵ-5-5〉 영유아 자녀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 308
〈표 Ⅵ-5-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 308
〈표 Ⅵ-5-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순위) ····· 309
〈표 Ⅵ-5-8〉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 310
〈표 Ⅵ-5-9〉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 311
〈표 Ⅵ-6-1〉 연장보육 이용 여부 ····· 313

〈표 Ⅵ-6-2〉 연장보육 이용 이유(중복응답) ····· 314
〈표 Ⅵ-6-3〉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 314
〈표 Ⅵ-6-4〉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비용 부담 ····· 315
〈표 Ⅵ-6-5〉 연장보육 시 월 기준 저녁 급간식 비용 ····· 316
〈표 Ⅵ-6-6〉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 (중복응답) ····· 317
〈표 Ⅵ-6-7〉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여부 ····· 318
〈표 Ⅵ-6-8〉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이용 어려움 여부 ····· 318
〈표 Ⅵ-6-9〉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 319
〈표 Ⅵ-6-10〉 취약보육의 이용 빈도 ····· 320
〈표 Ⅵ-6-11〉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 하는 요일 ····· 321
〈표 Ⅵ-6-12〉 취약보육 유형별 필요 빈도 ····· 322
〈표 Ⅵ-6-13〉 야간연장보육·야간12시간보육의 필요 빈도 ····· 323
〈표 Ⅵ-6-14〉 24시간보육·휴일보육의 필요 빈도 ····· 325
〈표 Ⅵ-6-15〉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 326
〈표 Ⅵ-7-1〉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건당 이용 시간 ····· 327
〈표 Ⅵ-7-2〉 시간제 보육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 328
〈표 Ⅵ-7-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정도 ····· 329
〈표 Ⅵ-8-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신청방식, 대기 기간 ····· 331
〈표 Ⅵ-8-2〉 입소 대기신청 기관 ····· 332
〈표 Ⅵ-8-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이유 ····· 333
〈표 Ⅵ-8-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 ····· 336
〈표 Ⅵ-9-1〉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 337
〈표 Ⅵ-9-2〉 공인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정도 ····· 338
〈표 Ⅵ-9-3〉 공인어린이집의 공보육 기관과 유사성 인식 ····· 339
〈표 Ⅵ-9-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영향 · 340
〈표 Ⅵ-9-5〉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한 인식 ····· 341
〈표 Ⅵ-9-6〉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 343
〈표 Ⅵ-9-7〉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인지 및 조회 경험 여부 ····· 344
〈표 Ⅵ-9-8〉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345
〈표 Ⅵ-9-9〉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추가 정보 요구 사항 ····· 346
〈표 Ⅵ-9-10〉 정보공개 포털 교사 관련 추가 요구 정보 ····· 346
〈표 Ⅵ-9-11〉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 347
〈표 Ⅵ-9-12〉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348

〈표 Ⅵ-9-13〉 어린이집 평가제도 인지 여부 ····· 349
〈표 Ⅵ-9-14〉 평가점수와 보육서비스 수준의 관계 인식 ····· 350
〈표 Ⅵ-9-15〉 CCTV 이용 관련 의견 ····· 351
〈표 Ⅵ-9-16〉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 352
〈표 Ⅵ-9-17〉 CCTV 열람 신청 사유 및 열람 시기 ····· 353
〈표 Ⅵ-9-18〉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기간 ····· 354
〈표 Ⅵ-9-19〉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이유 ····· 354
〈표 Ⅵ-9-20〉 어린이집 휴원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인식 ····· 355
〈표 Ⅵ-9-21〉 어린이집의 코로나대응 만족도 ····· 356
〈표 Ⅵ-9-22〉 긴급보육 제공의 돌봄 공백 해소 기여 여부 ····· 357
〈표 Ⅵ-10-1〉 이전 연도 '맞춤형 보육' 제도 운영 시 보육 이용 형태 ····· 358
〈표 Ⅵ-10-2〉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반과 연장반으로 운영) 정책에 대한 인식 · 359
〈표 Ⅵ-10-3〉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 ····· 360
〈표 Ⅵ-10-4〉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개선 정도 인식 ····· 361
〈표 Ⅵ-10-5〉 기본반/연장반 운영 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 ····· 362
〈표 Ⅶ-1-1〉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 367
〈표 Ⅶ-1-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형별 모취업 여부, 지역규모 특성 369
〈표 Ⅶ-1-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 370
〈표 Ⅶ-1-4〉 유치원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이유 ····· 371
〈표 Ⅶ-1-5〉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 372
〈표 Ⅶ-1-6〉 유치원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 373
〈표 Ⅶ-1-7〉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 374
〈표 Ⅶ-1-8〉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 376
〈표 Ⅶ-1-9〉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 377
〈표 Ⅶ-1-10〉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 378
〈표 Ⅶ-1-11〉 연령별 유치원 등원 시각 ····· 378
〈표 Ⅶ-1-12〉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 시각 ····· 379
〈표 Ⅶ-1-13〉 연령별 유치원 하원 시각 ····· 380
〈표 Ⅶ-1-14〉 유치원 유형·지역규모·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하원 시각 ····· 381
〈표 Ⅶ-1-15〉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 ····· 382
〈표 Ⅶ-1-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 383
〈표 Ⅶ-1-17〉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 385
〈표 Ⅶ-1-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 386

〈표 Ⅶ-1-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 387
〈표 Ⅶ-1-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 388
〈표 Ⅶ-1-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 389
〈표 Ⅶ-1-22〉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 ····· 390
〈표 Ⅶ-1-23〉 유치원 유형·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희망 이용 시간 ····· 391
〈표 Ⅶ-1-24〉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 392
〈표 Ⅶ-1-25〉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 393
〈표 Ⅶ-1-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 시간 ····· 394
〈표 Ⅶ-1-27〉 유치원 등하원 시 기관과 정보교류 정도 ····· 396
〈표 Ⅶ-1-28〉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 396
〈표 Ⅶ-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 398
〈표 Ⅶ-2-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유형에 따른 월평균 교육비 ····· 399
〈표 Ⅶ-2-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 400
〈표 Ⅶ-2-4〉 제 특성에 따른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 401
〈표 Ⅶ-2-5〉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 403
〈표 Ⅶ-2-6〉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부담 가능 비용 404
〈표 Ⅶ-3-1〉 제 특성별 유치원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 407
〈표 Ⅶ-3-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 비율 및 만족도 ····· 409
〈표 Ⅶ-3-3〉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 409
〈표 Ⅶ-3-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 410
〈표 Ⅶ-4-1〉 유치원 유형별 방과후 특성화활동 운영 비율 ····· 411
〈표 Ⅶ-4-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수 ····· 412
〈표 Ⅶ-4-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비율(중복응답) ····· 413
〈표 Ⅶ-4-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의무 이용 비율 ····· 414
〈표 Ⅶ-4-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 415
〈표 Ⅶ-4-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별도 비용 지불 비율 ····· 416
〈표 Ⅶ-4-7〉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 416
〈표 Ⅶ-4-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417
〈표 Ⅶ-4-9〉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 지불 현황 ····· 418
〈표 Ⅶ-4-10〉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5점 척도 ····· 420
〈표 Ⅶ-5-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 421
〈표 Ⅶ-5-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 422
〈표 Ⅶ-5-3〉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 423

〈표 Ⅶ-5-4〉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 424
〈표 Ⅷ-1-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 429
〈표 Ⅷ-1-2〉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 430
〈표 Ⅷ-1-3〉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431
〈표 Ⅷ-1-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기 및 기간 ····· 432
〈표 Ⅷ-1-5〉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 433
〈표 Ⅷ-1-6〉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434
〈표 Ⅷ-2-1〉 영유아 구분별 연령별 기타 반일제 기관 이용 요일 유형 ····· 435
〈표 Ⅷ-2-2〉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이용 요일 유형 · 436
〈표 Ⅷ-2-3〉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각 ····· 437
〈표 Ⅷ-2-4〉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각 ·· 438
〈표 Ⅷ-2-5〉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 시각 ····· 439
〈표 Ⅷ-2-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 시각 440
〈표 Ⅷ-2-7〉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 440
〈표 Ⅷ-2-8〉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441
〈표 Ⅷ-2-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관련 의견 ···· 442
〈표 Ⅷ-2-10〉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 ····· 443
〈표 Ⅷ-2-11〉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 444
〈표 Ⅷ-2-12〉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 ····· 444
〈표 Ⅷ-2-13〉 지역 및 모 취업여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 445
〈표 Ⅷ-2-14〉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 시간 ····· 446
〈표 Ⅷ-2-15〉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 시간 447
〈표 Ⅷ-3-1〉 기타 반일제 이상 월평균 비용 ····· 448
〈표 Ⅷ-3-2〉 기타 반일제 기관 연령별 월평균 학원 비용 ····· 448
〈표 Ⅷ-3-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비용 ····· 449
〈표 Ⅷ-3-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 450
〈표 Ⅷ-3-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 450
〈표 Ⅷ-3-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 452
〈표 Ⅷ-4-1〉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452
〈표 Ⅷ-4-2〉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453
〈표 Ⅷ-4-3〉 연령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 시간 ····· 453
〈표 Ⅷ-5-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만족도 및 5점 척도 ····· 454

〈표 Ⅷ-5-2〉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만족도: 5점 척도 ····· 455
〈표 Ⅷ-6-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 456
〈표 Ⅷ-6-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여부 ····· 457
〈표 Ⅷ-6-3〉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수 ····· 458
〈표 Ⅷ-6-4〉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실시 비율 ····· 459
〈표 Ⅷ-6-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 459
〈표 Ⅷ-6-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460
〈표 Ⅷ-6-7〉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460
〈표 Ⅷ-6-8〉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 461
〈표 Ⅷ-6-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 462
〈표 Ⅷ-6-10〉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 463
〈표 Ⅷ-6-11〉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 463
〈표 Ⅸ-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 470
〈표 Ⅸ-1-2〉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 471
〈표 Ⅸ-1-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 472
〈표 Ⅸ-1-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 473
〈표 Ⅸ-1-5〉 기관 이용 대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 474
〈표 Ⅸ-2-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 476
〈표 Ⅸ-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 477
〈표 Ⅸ-2-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 478
〈표 Ⅸ-2-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 480
〈표 Ⅸ-2-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 481
〈표 Ⅸ-2-6〉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 482
〈표 Ⅸ-2-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 483
〈표 Ⅸ-2-8〉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 484
〈표 Ⅸ-2-9〉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 ····· 485
〈표 Ⅸ-2-10〉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 486
〈표 Ⅸ-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 488
〈표 Ⅸ-3-2〉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 489
〈표 Ⅸ-3-3〉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 490
〈표 Ⅸ-3-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 491
〈표 Ⅸ-3-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 492

〈표 Ⅸ-3-6〉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 493
〈표 Ⅸ-3-7〉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 494
〈표 Ⅸ-3-8〉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 ····· 495
〈표 Ⅸ-3-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시 대처 ····· 496
〈표 Ⅹ-1-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 502
〈표 Ⅹ-1-2〉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 503
〈표 Ⅹ-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 505
〈표 Ⅹ-2-2〉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 506
〈표 Ⅹ-2-3〉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 시간 ····· 508
〈표 Ⅹ-2-4〉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 510
〈표 Ⅹ-2-5〉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 비용 ····· 511
〈표 Ⅹ-2-6〉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 512
〈표 Ⅹ-2-7〉 가구소득별 시간제 교육 월 평균 비용 ····· 513
〈표 Ⅹ-2-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 시간, 전반적 만족도 비교 · 513
〈표 Ⅹ-2-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 514
〈표 Ⅹ-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 514
〈표 Ⅹ-3-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 516
〈표 Ⅹ-3-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 517
〈표 Ⅹ-3-3〉 개별 교육 이용 개수 ····· 518
〈표 Ⅹ-3-4〉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 519
〈표 Ⅹ-3-5〉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 520
〈표 Ⅹ-3-6〉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비용 ····· 521
〈표 Ⅹ-3-7〉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 523
〈표 Ⅹ-3-8〉 개별 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 524
〈표 Ⅹ-3-9〉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 524
〈표 Ⅺ-1-1〉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532
〈표 Ⅺ-1-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 ····· 532
〈표 Ⅺ-2-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 534
〈표 Ⅺ-2-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 535
〈표 Ⅺ-2-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 537
〈표 Ⅺ-2-4〉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 539
〈표 Ⅺ-2-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 540
〈표 Ⅺ-2-6〉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알게 된 경로 ····· 541

〈표 Ⅺ-2-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 542
〈표 Ⅺ-2-8〉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 544
〈표 Ⅺ-2-9〉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 545
〈표 Ⅺ-3-1〉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관련 인식 ····· 546
〈표 Ⅺ-4-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548
〈표 Ⅺ-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 548
〈표 Ⅺ-4-3〉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 및 만족도 ····· 550
〈표 Ⅺ-4-4〉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 550
〈표 Ⅺ-4-5〉 정규적 보육료·교육비 외 지원 수혜여부 및 액수 ····· 552
〈표 Ⅺ-4-6〉 제 특성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및 적정 금액 ····· 553
〈표 Ⅺ-4-7〉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 ····· 554
〈표 Ⅺ-4-8〉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정책 만족 비율 ····· 555
〈표 Ⅺ-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 557
〈표 Ⅺ-5-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 560
〈표 Ⅺ-5-3〉 부모교육 경험 여부 ····· 561
〈표 Ⅺ-5-4〉 부모교육 경험 내용(복수응답) ····· 563
〈표 Ⅺ-5-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 564
〈표 Ⅺ-5-6〉 부모교육 필요 여부 ····· 565
〈표 Ⅺ-5-7〉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 ····· 567
〈표 Ⅺ-5-8〉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 568
〈표 Ⅺ-5-9〉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 ····· 569
〈표 Ⅺ-5-10〉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 570

그림 목차

[그림 Ⅰ-3-1] 가구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및 일정 ····· 34
[그림 Ⅰ-3-2] 지역별 아동 가중치 상자그림 ····· 49
[그림 Ⅰ-3-3]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 50

요약

1. 서론

가. 조사 목적

□ 영유아 가구의 자녀 양육실태를 파악하며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함.

□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파악함.

□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함.

나. 조사 내용

□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나누어짐.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가구당 1회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아동별로 아동조사를 실시함.

□ 가구조사는 가구원 특성, 아동부모 특성, 자녀양육 행동 및 정서, 각종 육아지원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보육정책 인지 및 수혜경험, 만족도, 가구 경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됨.

□ 아동조사표는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 각각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영유아의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학원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이용, 영유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등을 응답하도록 구성됨.

다. 조사 방법 및 표본 설계

□ 조사대상 및 규모는 전국 표본 읍면동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2,500가구이며 조사수행방식은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

임. 조사된 총 영유아 수는 3,471명임.

□ 표집틀은 2021년 6월 말(30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로 구성함. 층화 기준은 정부지원유형으로 1차 층화, 17개 시·도로 2차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임.

2.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 (가구특성) 지원유형별로 보육료 지원 가구 33.5%, 유아학비 지원 가구 28.0%,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27.4%, 그리고 복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11.1%로 나타남.

-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수령 가구가 각각 약 3%p 증가하였으며, 보육료와 다중복합지원 가구 비율은 낮아짐.

□ (가구규모) 가구원 수 3인, 4인 가구가 각 41.8%, 41.1%로 비슷한 분포를 보임. 5인 가구 12.5%, 6인 가구 3.4%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3인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 1인자녀 가정의 증가를 짐작케 함.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76.1%는 자녀가 1명이었으며, 2명은 22.6%, 3명 이상은 1.3%를 차지함.

□ (가구형태) 부부+자녀로 이뤄진 경우가 89.1%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부모+자녀 4.0%, 한조부모+부모+자녀 3.1% 순으로 나타남.

- 2018년도에 비해 부부+자녀의 가구형태 비율은 4.9%p 증가하였으며, 조부모 또는 한조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는 줄어들어, 2021년 조사에서 한부모/조손가정 등 수가 매우 소수로 포함됨.

□ (부모특성) 조사참여가구의 부-모 평균 연령은 각각 38.7세(SD=5.0), 36.1(SD=4.7)세였음.

- 부의 경우 유배우자 비율이 99.3%, 사별·별거·이혼 1.1%였으며, 모의 경우는 유배우자 비율 96.7%, 사별·별거·이혼 3.0%, 미혼모 비율이 0.3%였음.

-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졸 비율이 부 51.1% 모 48.3%임. 2018년에 비해 고졸이 적어지고 3년제이하/4년제 대졸 학력자가 많아짐.

- 어머니가 이주민인 가구 비율은 4.3%, 아버지가 이주민인 가구 비율은 1.0%로 2018년보다 이주민 가구 비율이 부는 동일한 수준이고 모는 2.5%p 줄어듦. 모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가 5.7%로 높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도 4%이상이어서 지역별로 고르게 이주민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특성) 조사참여 아동 중 남아 여아가 각 1,711명(48.8%), 1,793명(51.2%)으로, 여아가 2.4%p 더 많음.

-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아 59.2%, 둘째 33.2%, 셋째 6.8%, 넷째 0.8%의 순을 보임. 2018년도는 첫째아의 비율이 77.3%였고 둘째는 21.3%였음.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장애 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은 0.7%, 질병이 있는 비율은 0.5%, 장애 및 질병이 있는 비율은 0.1%로 나타남.

나. 사회경제적 특성

□ (부모 취업·근로) 부 취업률 95.2%(휴직포함), 모 취업률 54.1%(휴직포함)로 나타남. 2018년도 모 취업률 51.3%와 비교하여 취업모 비율이 상승함. 부의 경우 2018년에 비해 휴직중 비율이 증가함.

-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높아진 영향과 코로나로 인한 업무특성상 휴직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모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14.5%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에 51%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 미취업 비율이 2021년 45.4%로, 2018년(48.0%), 2015년(59.1%)와 비교하여 모의 높아진 취업률을 보여줌. 부모 직업은 모두 사무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부 34.9%, 모 23.2%),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기능 종사자(부 18.8%, 모 13.4%), 서비스 종사자(부 10.0%, 모 9.4%) 순으로 나타남.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영유아가구가 지원받는 '보육·교육비 지원 유형'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직종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다만 모의 경우 양육수당 또는 복수의 복합지원을 받는 경우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 부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 71.5%, 고용주/자영업자 21.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3%였으며, 모의 경우에도 정규직 임금근로자 68.9%, 고용주/자영업자 13.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7% 순으로 나타남.

-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부 90.0%, 모 60.6%로 가장 많음.
- (근로시간) 부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 46시간 24분, 1일 근로시간 평균 10시간 48분이었으며, 모의 주당 근로시간 38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36분으로 나타남.
- 부모 근로시간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부 근로시간 1일 평균 약 24분, 주당 평균 약 1시간 42분 감소). 주 52시간 근로 준수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근로시간 축소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단 2015-2018년 근로시간 감소와 비교하여 2018-2021년 근로시간 감소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주말근무) 취업부의 경우 토요일 휴무 60.3%, 매주 전일근무 17%, 격주로 전일근무 10.7%로 나타남. 취업모의 경우 휴무 74.6%, 매주 전일근무 10.4%, 격주 전일근무 5.5%였음.
- 취업부의 경우 일요일 휴무 83.0%, 매주 전일근무 6.6%, 격주 전일근무 5.6%로, 즉,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부는 17%로 나타남. 취업모의 경우 일요일 휴무 88.5%, 매주 전일근무 5.0%, 격주 전일근무 3.0%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부모 취업계획) 미취업모의 경우 향후 취업계획이 없다 44.0%,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35.2%로 나타남. 유아 모의 '현재 구직 중' 응답률이 영아 모에 비해 조금 많음.

- 미취업부의 경우 '현재 구직중'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교육·훈련중 15.7%,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 15.5%, 계획없음 13.2%로 나타남.
- 미취업모 중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 취업계획 시기가 3~5년이내 22.1%, 2~3년이내 20.5%, 1~2년이내 19.0%로 나타남.

□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48.8%, 아버지가 그만둔 적이 있다 0.8%로 나타남.

- 2018년에 비해 2021년 영유아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증가함(모: 40.3%→48.8%, 부 0.4%→0.7%, 부모 모두 그만둔적 없음: 59.1%→49.7%).

- (경력단절 이유) '모'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37.4%,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29.5%로 나타남. 그 외에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10.2%, '소득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 7.4%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 전담의 가치가 크다'는 모의 응답은 2018년보다 많아졌고(2018년 31.2%→37.4%),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감소세를 보임(2012년 48.7%→29.5%).

- '부'의 경우 '일보다 육아 전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46.3%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률이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7.8%→46.3%).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18.1%(25.0%→18.1%), '일이 육아에 지장이 됨' 11.1%로 나타남. 2018년에는 부의 경우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대리양육 비용이 더 크기 때문' 26.3%(26.3%→3.5%), 믿고 맡길곳 부재 25.0%(25.0%→18.1%) 였음.

□ (육아휴직 경험) 취업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 32.6%, 아버지 2.1%, 부모 모두 육아휴직 2.4%로 나타남. 2018년 모 26.0%, 부 1.1%와 비교하면 부-모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증가함.

- 육아휴직 기간은 모 평균 17.8개월, 부 평균 9.5개월로, 어머니의 사용시간이 약 8개월 긴 것으로 나타남. 대도시일수록 육아휴직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취업부모의 양육 어려움) 취업 중인 주 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과 긴급상황, 보육·교육 기관 부모참여 부담에서 5점척도 평균 3점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지도가 5점평균 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3.1점으로 나타남.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방식 갈등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음.

- 아이와의 의사소통이나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움으로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

□ (가구소득) 조사참여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505만 5천원**으로 나타남.

- 2018년 가구소득 평균 454만 1천원에서 약 51만원 증가함. 영유아가구 소득 평균은 2012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유지함.
-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72만 9천원보다 많고, 2/4분기 평균 소득 519만 8천원보다 적은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은 전체 1.3%임.
- 유아가구 소득(527만 9천원)이 영아가구(476만 8천원)에 비해 큼.
- 모 취업가구 소득 평균 624만 1천원, 모 휴직중 가구소득 481만 7천원, 모 미취업 가구 407만 1천원, 모 부재 가구 345만원으로, 모취업/휴직중 가구의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구소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단 4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인가구 평균에 비해 많음). 2인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2012년 이후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인가구의 경우 (적은 사례수이긴 하나) 2018년 월평균 가구소득 240만원 6천원에서 174만 8천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2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줌.
- 월 평균 근로소득은 부 385만 4천원, 모 106만 5천원으로 차이를 보임.

□ (가구지출) 조사참여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327만 6천원**으로 (가구소득 평균 505만 5천원 대비 약 64.8%)으로, 월평균 지출 300~349만원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음.

-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전국 가구 평균 지출 350만원보다 적은 수준임. 2012년 이후 증가하던 가구지출이 2021년에는 줄어듦.
-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지출수준을 보임.
-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구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유아가구 평균 지출 347만 9천원(유아가구 평균 소득 526만 5천원 대비 66.1%)이 영아가구 지출 302만 9천원(영아가구 평균 소득 476만 8천원 대비 63.2%)에 비해 크게 나타남.

- 201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영유아가구 지출이 (가구소득의 증가세와 달리) 2021년 결과 큰 폭으로 떨어져, 2015년 지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계 경제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인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지출이 월 154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모 취업가구 지출 평균 371만 3천원 모 휴직중 가구 지출 319만 4천원, 모 미취업 가구 지출 291만 9천원, 모 부재 가구 259만 1천원으로 모취업/휴직중 가구의 지출이 많음.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가구지출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와 부담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유아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평균 지출(387만 8천원)이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351만 8천원)에 비해 많음.
- 모취업 가구(77.0%)의 소득 대비 가구지출 비중이 미취업가구(71.7%)에 비해 큼.

□ (양육비 지출) 전체 양육비 지출 평균은 97.6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소득 505만 5천원 대비 19.3%, 가구지출 327만 6천원 대비 29.8%)으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경향을 보임.

- 2018년 86만 9천에서 2021년 97만 6천원으로 양육비 지출이 증가함.
- 영아가구 평균 양육비 지출 91만 8천원, 유아가구 평균 106만 7천원으로 유아가구 지출이 약 15만원 더 많음.
- 모 취업가구의 양육비 지출 평균 111만원, 모 휴직중 가구 98만 2천원, 모 미취업 가구 85만 8천원, 모 부재 가구 68만 1천원의 순으로 나타나, 취업모/모휴직중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큼.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20% 내외로 모 취업가구(17.8%)의 지출 비중이 미취업가구(21.1%)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4인가구 규모까지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 4인규모 가족의 양육비 지출 평균이 월 110만 4천원으로 나타남. (5인, 6인이상 규모에서는 4인가족 대비 자녀양육비 지출이 감소)

□ (주택유형) 아파트 거주 81.2%, 연립/다세대주택 10.6%, 단독주택 6.6%로, 2018년과 비교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18.6%p 증가함.

-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8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10.6%, 단독주택 6.6%로 나타남. 2018년과 비교하여 아파트거주 비율이 18.6%p 큰 폭으로 증가함.

3. 영유아 양육 특성

가.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 (낮시간 돌보는 사람, 기관이용)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 돌봄 41.4%로 나타남. 조부모 5.0%(외조부모 3.4%, 친조부모 1.6%), 육아전문인력 0.6%로 나타남.

- 2018년과 비교하여 기관이용과 모 돌봄 등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육아전문인력에 의한 돌봄이 다소 감소함(1.7%→0.6%).

- 영아의 경우 모가 돌보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60.9%, 모 돌봄 30% 내외로 나타남. 2018년 영아 모 돌봄 54.1%, 유아 기관이용 63.5%으로 나타남.

-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취업/모부재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69.1%, 63.8%로 나타났으며, 휴직중/미취업 모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31.2%, 39.7%로 40% 미만으로 나타남. 취업모의 비혈연돌봄인력/육아전문인력 이용이 각 1.3%, 1.1%로 다른 하위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 249만원이하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시간대별 이용률) 오전10시 기준 이용률이 어린이집 49.7%, 유치원 26.4%, 부모 18.9%, 반일제이상 학원 2.8%, 조부모 1.8%, 비혈연 0.4%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원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5시경이면 다수 하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하원 시간 분포를 보임.

- 저녁 6시이후 이용률은 어린이집 2.9%, 유치원 0.7%, 부모 84.8%, 사교육기관 1.3%, 조부모 8.8%로 나타남.

- 어린이집 아동 연령별 이용이 0세아 25.2%에서 1세아 80.6%, 2세아 88.3%를 보이다 3세아 43.6%, 4세아 37.9%, 5세아 37.1%로 줄어듦.

- 모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그리고 하원 시간은 늦은 시간분포를 보임. 저녁 6시이후 기준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돌봄이 취업모 각 2.9%, 84.8%, 미취업모 각 0.7%, 97.6%로 차이를 보임.

□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평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체 평균 7.9시간으로 2018년 평균 8.4시간에 비해 다소 감소함. 평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체 평균 4.0시간으로 2018년 평균 3.6시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4-6시간 부모-자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7~9시간 31.7%, 10시간이상 26.4%, 3시간미만 6.1% 순으로 나타남.

-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모와 보내는 시간이 길었으며, 취업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임.

- 유아보다 영아자녀, 읍면지역,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그룹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지내는 시간은 모 평균 13.2시간, 부 평균 11.6시간으로 2018년 모 12.6시간, 부 8.9시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부-모 간 시간 차이도 다소 줄어듦.

나.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부모 양육정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정서를 조사한 결과,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52.1%(그렇다+매우 그렇다) 과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혼란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2.6%로 응답됨.

-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44.8%,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18.6%로 응답됨.

- 2018년과 비교하면, 양육 시 혼란스러움(54.1%→52.1%), 귀찮고 짜증스러움(34.4%→18.6%), 자기계발 포기(50.1%→44.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자녀돌봄 참여 및 분담) 부모의 평소 자녀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적극+대체로) 참여함 부 60.6% 모 95.3%로 5점평균 부 3.8점, 모 4.7점으로 참여한다는 긍정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부-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참여하지 않음: 부 9.2%, 모 1.3%).

- 자녀양육 분담은 전체 10을 기준으로 모:부=7.1:2.9, 가사분담 모:부=7.2:2.8로 약 7:3의 비중으로 성별 격차를 보임.

- 모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자녀양육 분담에서 취업모가구의 경우 모:부= 6.6:3.4, 미취업모 7.1:2.9, 가사분담의 경우 취업모 6.6:3.4, 미취업모 7.6:2.4 로 미취업모 가구에서 모의 분담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남.

다.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형태) 1세미만과 1~2세미만은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 97.8%, 71.4%로 가장 많아, 2세미만 영아자녀의 경우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2~3세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27.3%와 어린이집이 71.3%로 기관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4세미만과 4~5세미만, 취학 전(5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선호가 6.8%, 1.8%, 0.3%로 줄어들어 3세이상 유아의 경우 기관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남.

- 3~4세는 어린이집 70.8%, 유치원 20.7%, 4~5세의 경우 어린이집 32.2%, 유치원 61.4%, 5세이상은 9.2%만이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유치원 선호 81.1%로 나타나,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기관이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취학 직전으로 갈수록 유치원 선호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

-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를 2018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2021년 선호도 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1세미만: 98.6%→97.8%, 1~2세미만: 85.9%→71.4%, 2~3세미만: 43.9%→27.0%, 3~4세미만: 11.9%→6.8%, 4~5세미만: 2.8%→1.8%).

- 영아기 자녀의 경우 취업모는 어린이집 이용을, 4세이상 유아의 경우 (특히

5세이상 취학직전) 미취업모가 유치원 이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리고 취업모가 사설기관 이용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지원자) 자녀돌봄, 경제적지원, 가사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은 41.2%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의 외조부모 32.8%, 친조부모 16.0%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됨.

- 자녀돌봄에 대해 도와주는 사람 '없음'이 취업모 28.6%, 미취업모 54.6%로 차이를 보임.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가구소득 249만원이하 54.9%).

- 2015-2018년도와 비교하여 도와주는 사람 없음 응답이 줄고(2018년 55.2% → 2021년 41.2%), 외조부모 도움(22.1%→32.8%)이 증가함.

- 경제적 지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음이 2018년 83.9%에서 2021년 70.3%로 줄어듦. 아이의 친조부모 14.6%, 외조부모 13.2%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지원 등 육아 외 집안일 도움에 대해 64.5%는 지원이 없다고 응답함. 2018년 74.6%, 2015년 73.7%와 비교하여 10%p이상 낮아짐. 특히 외조부모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18년 13.6%에서 '21년 23.4%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 (육아 관련 지식·조언) 영유아자녀 양육 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육아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동료 26.9%, 집안어른 13.9%, 그 외 서적, 형제자매, 전문가 등은 10% 이하로 나타남.

-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와 미취업모는 육아 사이트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해 친구/동료 또는 집안어른 등 인적자원을 이용해 육아 지식을 얻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영유아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가 38.4%로 2018년 43.4%에 비해 떨어짐.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자(N=978)의 개별 서비스 인지율은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율이 89.9%로 가장 높으며, 육아정보제공 84.5%, 놀이체험프로그램 82.4%의 순으로 높음.

- 자녀의 놀이가 아닌 부모 대상 상담 및 검사, 부모교육, 육아카페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낮은 편임. 그러나 이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서는 육아카페를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인지율이 증가함.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과반을 넘은 가운데, 서비스 인지율이 높은 경우 이용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3.8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와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응답이 5점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 대한 인지율 73.0%, (인지자 중) 이용경험 82.6%, 만족도 46.4%(3.5점)으로 나타남. 주로 어린이집 정보 이용(54.8%)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시간제돌봄에 대해 약 60%이상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간제돌봄 기준) 인지도 대비 이용경험은 8.1%에 불과하였으며,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 이용 4.7%,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은 0.8%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 시 만족한다는 긍정응답은 약 70~83%로, 특히 종일제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5점평균 4.3점).

□ (장애 영유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가구 중 장애영유아 수는 **24명**으로(유아 15명, 영아 9명),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34.5%), 청각장애(25.7%), 지적장애(18.6%), 지체장애(13.9%), 언어장애(12.7%)로 나타남.

-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55.1%, 유치원 33.7%로 어린이집 재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 영유아가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다니지 않음 23.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9%, 유치원 일반학급 8.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 유치원 특수학급 3.2% 순으로 응답됨.

-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N=6)로, 기타 61.6%를 제외하고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2.5%, '아이가 어려서' 5.9%로 응답됨.

-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N=18)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4.3%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등하원 시 불편 20.4%, 다른 부모의 편견 16.5%, 특수교사 부족 14.0%,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6.9%, 편의시설 부족 5.8% 순으로 응답됨.

- 2021년 조사결과, 특히 유아에서 다른 부모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30.1%), 특수교사 부족(17.7%),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12.7%)로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2018년 조사에서 어려움 없음 49.1%, 등하원 시 불편 21.7%, 특수교사 부족 15.2%으로 나타난 바 있음.

라. 추가출산 의향

□ (자녀 추가출산 계획) 추가출산 계획이 '없다' 74.5%, '있다' 12.9%, '생각중' 12.6%로 나타남.

-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영아부모, 휴직중인 모, 가구소득 200~400만원에서 좀 더 많았으며, '없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취업모,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N=291)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임신중' 26.0%, 2~3년이내 15.4%. 1년이내 14.8%, 잘 모르겠음 9.1%로 나타남.

-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14.2%,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1.1%,' 취학 후 교육비 부담' 9.7%, '부모 나이가 많아서' 9.4%, '직장생활로 바빠서 6.4%로 나타남.
- '양육·교육비 부담'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응답 외에,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응답이 많음은 1명이상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없는 특성을 드러냄. 1자녀 양육과 2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4.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가. 어린이집 이용 특성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 이용자가 44.8%, 국공립 29.1%, 가정어린이집 13.1% 등임.

□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 대리보호 22.0%, 사회성 발달 16.1% 순임.

□ 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변의 평판(12.7%), 프로그램(10.1%), 교사(9.6%)순임.

□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1%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함.

- 어린이집 다니기를 중단한 사유는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가 78.7%로 가장 많고 영아의 경우는 다른 기관을 보내려는 이유(39.5%) 외에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안맞아서(23.0%),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14.8%) 등 이유가 다양했음.

□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25.2개월 때부터였고 평균 재원 기간은 19.1개월이었음.

□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8:31~9:00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01~9:30이 29.8%임.

□ 영유아 전체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표준편차 1시간 22분)으로 나타났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7분이며, 유아의 이용 시간은 7시간 19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평균 이용 시간이 8시간 32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1시간이상 길었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7시간45분을 이용하고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6시간 47분임.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이용 시간이 약간씩 짧아진 경향임.

□ 15:01~16:00 하원 희망 비중 가장 높고, 취업모는 17:31이후 하원 희망함.

□ 영유아의 등원 방법은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기관 차량 이용 32.5%,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이 27.2% 순이었음.

나. 어린이집 이용비용

□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은 전체의 29.6%가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불하는 금액은 5~10만원 비용 지불이 24.3%를 차지함.

□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 비용 평균 지불액은 5만6,000원으로, 2018년 조사된 6만1,000원보다 5,000원 감소함. 차액보육료는 7,300원으로 2018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필요경비인 추가 비용이 4만8,700원으로 '18년에 비해 감소함.

□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82.4%였으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17.6%였음. 영아보다는 추가적 보육비용이 많이 드는 유아의 경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음. 5점 척도에서 2점~2.9점의 부담 정도를 보여 비교적 부담감의 크기는 크지 않음으로 짐작함.

□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이용 비용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0%임.

다. 어린이집 제공 서비스

□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면, 보육계획표는 대체로 매주 1회 제공이 66.2%이고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이 58.1%로,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가 69.4%였으나 매월 17.5%, 매일 11.6%로 다양하게 배부되고 있음.

□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등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부모들의 비율이 76~88% 수준임.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은 84.9%이고 받지 않음 14%, 잘 모름 1.%였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참여의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율은 10%대였고, 도움정도 및 참여의향은 40% 내외임.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율은 2015-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함.

라. 어린이집 특별활동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비율은 예능(미술, 음악)이 5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49.0%, 영어 42.6% 순이었음.

□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1.8개로,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임. 영아가 대부분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6%, 평균 이용 개수가 1.0개로 가장 적었음.

□ 특별활동 미 참여 시의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6.3%만이 잘 알고 있었음.

□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대략 65.4%~83.2%의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약 12,900원에서부터 20,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영어의 이용비용이 평균 20,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예능(미술, 음악) 18,300원, 체육 16,500원의 순서임.

마.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가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5점 척도에서 평균 4.10점의 만족 수준임. 응답분포를 보면 만족 이상에 응답한 부모가 79.0%,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 32.9%임.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불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5% 정도로 이전 연도 조사의 불만족 수준과 비슷함.

□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은 '교직원' 항목으로 4.27점이었고. 다음은 생활지도(4.20점), 안전관리(4.20점), 평상시 교육내용(4.16점) 순이었음.

□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2점으로 가장 높고, 협동어린이집 4.30점,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4.23점 순이었음.

□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23.6% 비율을 보인 보육 인력 증원이었음. 다음으로 인력의 질 제고, 노후시설 정비, 안전관리 강화의 순이었음.

□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현행보다 인상한다면 가정양육을 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서 '기관에 계속 다님'으로 응답한 비율이 85.7%였음.

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취약보육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게 됨. 연장보육 이용을 보면, 기본보육만 이용이 73.2%, 연장보육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26.8%임. 취업모의 경우 연장보육 이용비율이 42.9%임.

□ 취약보육(야간 연장 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야간 연장 보육'은 응답자의 3.3%가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활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 3회 이상'이 1.1%였음.

- 야간12시간보육은 2.8%, 24시간보육은 0.3%, 휴일보육은 2.9%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
- 야간연장보육은 이전 연도 조사들에 비해 이용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사. 시간제 보육

□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로,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1.2%, '1년에 1~2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0.6%였으며, 이용할 때 평균 이용 시간은 106.5분 정도임.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86.3%,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3.7%로, 2018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42.2%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졌음.

아.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7%로, 대기 기간은 '5~10개월미만'이 23.1%로 가장 많았고, '10~15개월 미만' 18.3%, '1개월' 18.2%, 순이었음.

□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6.9개월로 2018년도에 비해 약 0.7개월 정도 짧아짐.

□ 입소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43.1%, '가정' 어린이집 29.2%, '협동' 어린이집 13.6%, '사립 유치원' 6.0%, '국공립 유치원' 2.7%, '법인' 어린이집 2.5%, '민간' 어린이집 1.9%, '기타' 0.1% 순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5. 유치원 이용 및 요구

가. 유치원 이용 특성

□ 유치원 이용 아동은 3세 21.2%, 4세 38%, 5세 40.8%로 5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국·공립유치원 29.6%, 사립유치원 70.4%의 이용 비율을 보임.

□ 유치원 이용 아동 가구 중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46.8%이며, 휴직 중인 8.4%를 포함하면 55.2%로 취업모 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함.

□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7.5%,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22.5%,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12.7%의 순서임.

□ 유치원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준은 기관 '프로그램' 26.8%, '집과의 거리' 22.5%, '주변의 평판' 12.3%, '교사' 8.9%, '국공립 여부' 6.3%로 나타남.

□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는 평균 47.6개월이며, 국·공립 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50.1개월,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46.6개월임.

□ 유치원의 등원 시각은 오전 8:31~9:00시 사이 53%, 오전 9:01~9:30분 사이 22.1%, 8:01~8:30분 사이에 13.9% 순으로 나타났고, 하원 시각은 15:01~16:00시 사이 38.3%, 16:01~17:00시 사이 34.8%로 나타나 15시~17시 사이에 73.1%가 하원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유치원을 이용 유아는 하루 평균 7시간 4분 유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 이용 시간은 7시간 59분으로 55분 정도 길게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는 시작시간에 대해 전체의 92.2%,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83.4%가 만족한다고 답함.

□ 등하원 방법은 유치원 등원 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3.6%, '보호자와 걸어서' 22.8%, '보호자와 자가용 이용' 21.7% 순임. 하원 방법도 기관차량 이용 57.4%,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 22.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는 17.4% 순이며, 등원 시 소요시간은 평균 12.4분임.

나. 유치원 이용 비용

□ 유치원 이용 아동의 월평균 교육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188,7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교재비, 급간식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월평균 117,700원, 그 외 추가비용(부대비용)이 71,000원으로 조사됨.

- 국·공립유치원 총 교육비가 42,300원, 사립유치원 250,100원으로 대략 5.9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유치원 월평균 총교육비는 3세 211,000원, 4세 194,500원, 5세 171,600원으로 나타남.

□ 유치원의 월평균 추가 교육비는 특성화활동비 34,500원, 방과후과정비 9,500원, 급간식비 8,100원, 차량운행비 5,000원 순임.

□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부담 정도는 5점으로 볼 때, 환산 평균 2.9점 정도로, 이는 2015년 3.2점, 2018년 3.1점에 비해 감소 경향을 보임.

□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의사가 있다(49.8%)와 없다(50.2%)는 비율이 약 50%로 유사함.

-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보다 매월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평균 101,500원으로 조사됨.

다. 유치원 제공 서비스

□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비율은 교육계획표는 98.9%, 급간식 식단은 99.4%, 가정통신문 99.3%, 자녀발달 평가 72.3%, 부모상담 93.4%, 부모교육 자료 76.3%, 부모참여프로그램 60.7%, 양방향 알림장 70.7%임.

□ 유치원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평정한 결과, '교육계획표'와 '급·간식 식단 제공'은 평균 4.2점, '가정통신문'과 '양방향알림장'은 4.1점, '자녀발달평가'는 4점, '부모교육', '부모 상담',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3.9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 응답자의 73.7%이며, 3세 79.2%, 5세 73.6%, 4세 70.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치원으로부터 사전 안내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3%가 안내를 받았다고 답함.

라. 방과후 특성화활동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는 비율은 예능(미술, 음악) 67.1%, 체육 관련 66.8%, 영어 60.1%, 수학/과학 관련 45.9%,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5.4%, 기타 12.2%의 순서로 조사됨.

-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운영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높은 경향을 보임.

□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2.6개로 2018년 평균 2.9개 대비 다소 감소함.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별 이용 비율은 예능(미술, 음악) 56.8%, 체육관련 프로그램 56.5%, 영어 51.3%임.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횟수는 1주일 평균 5.2회로 최소 1회에서 최대 25회까지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1개라도 있는 경우, 그 이용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는 영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평균 24,20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프로그램 23,800원, 예능 18,100원 순임.

□ 유치원 이용 아동 중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 지출 비용은 2015년 75,400원, 2018년 83,600원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 57,700원으로 대폭 감소함.

-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변화로 보이며, 연령별로는 3세 66,000원, 4세 63,000원, 5세 48,100원임.

마.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 만족도 평균은 76.7%이며, 교직원(84.6%), 안전관리(82.2%), 생활지도(82.1%), 교육내용(평상시)(81.1%)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부모참여 및 교육’ 부분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62.2%에 그침.

□ 유치원 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교직원과 교육내용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비용과 급간식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내용 다양화' 30.8%, '인력의 질 제고' 17.6%, '인력 증원' 17.1%, '노후시설 정비' 11.2%, '비용 절감' 9.1%, 안전관리 강화 9%, 내부 환경 개선 5.3% 순으로 나타남.

□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유치원 이용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다님' 88.6%, '모르겠음'이 5.2%, '그만두고 집에서 봄' 3.2%로 조사됨.

6.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 현재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총 86명에 해당하며 이용행태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에서 최초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이 60.3%, 유치원 0.7%, 반일제 이상 학원이 39.0%로 나타났으며,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이 2018년(30.3%)에 비해 증가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위해서' 70.6%, '초등학교 준비' 15.2%, '특기교육' 9.3%,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3%, '사회성 발달' 1.0%, '놀이상대가 없어서' 0.7% 순으로 나타남.

-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프로그램' 71.6%, '교사' 6.8%, '주변의 평판' 5.5%, '기관 실내/외 환경' 5.0% 순으로 나타남.

-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33분을 이용하고 있으며, '6~7시간' 39.4%, '5~6시간' 39.1%, '7~8시간' 16.4%, '8~9시간' 2.8%, '9~10시간' 1.7%, '5시간까지' 0.7% 순으로 나타남.

- 이용 시작 시기는 자녀 월령이 '49개월 이상' 51.2%로 가장 많았고, 이용기간은 '12개월 이하' 42.9%로 가장 높음.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요일 및 시간,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평균적으로 약 5일 이었으며, 등원 시각은 '8:31~9:00' 44.2%, '하원 시각은 '15:01~16:00' 3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용 시작 시각 만족은 81.9%, 끝나는 시간 71.1%로 나타났으며,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시작 시간에 대해 '너무 늦다' 응답이 각각 16.5%, 15.7%로 조사됨.
- 희망 이용 시간은 '6~7시간' 39.6%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1세 '6~7시간' 100.0%, 2세 '6~7시간' 57.1%, 3세 '6~7시간' 66.6%, 4세 '6~7시간', '7~8시간' 모두 27.1%, 5세 '6~7시간' 38.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음.

- 월평균 이용비용은 119만 8,600원으로 항목별로는 순보육비 90만원, 추가 비용 29만 8,6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용 비율은 167.4%에 달함.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부담되는 편' 57.2%, '매우 부담됨' 22.4%, '적당함' 19.0%, '전혀 부담되지 않음' 0.9%, '부담되지 않음' 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3.4%를 보였으며,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평균 24만 4,300원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음.

- 등원 방법은 '기관 차량' 75.4%, '자가용' 16.4%, '보호자와 걸어서' 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원 방법은 '기관 차량' 74.3%, '자가용' 19.6%, '보호자와 걸어서' 6.1%순으로 나타남.
- 등원 시 소요시간은 '10분 이하' 41.7%, '11분~20분' 41.5%, '21~30분' 13.0%, '31분 이상' 3.8%로 나타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 정도는 전체 평균이 3.8점(5점 기준)으로 '교직원'과 '안전관리(위기시)' 각각 4.1점, '부모 참여 및 교육' 3.4점, '비용' 3.2점을 보임. 전반적으로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5.0%, '매우 만족' 28.6% '불만족' 13.2%, '매우불만족' 3.9% 순으로 나타남.

- '비용'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 14.8%, '만족' 16.4%로 나타났으며, '부모 참여 및 교육'의 경우도 '매우 만족' 16.8%, '만족' 28.4%로 조사됨.

□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및 특별활동은 다음과 같음.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은 '보육·교육계획' '매주 1회' 62.6%, '발달평가통지' '월 1회' 제공 36.2%, '급간식 식단' '월 1회' 제공 69.5%, '가정통신문' '매주 1회' 제공 54.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평균 특별활동 개수는 3.1개로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5개'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음. 특별활동은 '영어' 72.1%, '예능(미술, 음악)' 72.0%, '체육관련' 65.0%, '수학/과학 관련' 64.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2.7%, '기타' 17.2%로 나타남

-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은 31만 4,300원 이었으며,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영어' 평균 19만 7,600원, '기타' 평균 7만 5,300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만 6,000원, '예능(미술, 음악)' 평균 5만 5,500원, '수학/과학관련' 5만 400원, '체육관련' 3만 7,100원 순으로 나타남.

-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개선 요구 사항은 '인력의 질 제고' 27.1%, '교육내용 다양화' 17.3%, '비용 절감' 16.7%, '안전관리강화' 12.1%, '내부 환경개선' 9.8%, '노후 시설 정비' 8.7%, '인력 증원' 8.2% 순으로 나타남.

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11.5%이며 이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20.7%로 혈연(18.8%)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비혈연 지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84.9%)로 동거 조부모(11.9%)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자는 민간육아도우미(76.8%)로 공공아이돌보미(23.2%)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0세(76.5%), 1세(20.9%), 2세(10.1%) 순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은 감소함.

□ 개인양육서비스 제공 특성은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비율이 높고 제공자는 대부분 조부모에 해당함.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유는 아동이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 66.7%, '(기관)대기가 많아서' 9.8%, '(기관은)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하기 때문' 7.8%순으로 나타남.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혈연양육지원서비스의 주된 이용 시간대는 하원 후 퇴근 전(27.9%), 필요시에 이용(26.2%), 출근 후 등원전과 하원 후 퇴근 전(23.2%), 하루 종일(14.6%)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 집이 74.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유아 (76.9%), 영아(70.9%)로 나타남.
- 혈연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정기적 현금을 지불(39.6%)로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46.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지불 비용 평균 72.7만원. 비동거 외조부모(37.8%), 비동거 친조부모(34.7%), 동거 외조부모(33.7%)에게는 100만 원 이상 지불 비중이 높았으며, 비동거 친인척의 경우 100만 원 이상 59.6%로 조사됨.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음.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중은 민간육아도우미(45.1%), 공공아이돌보미(36.1%), 이웃과 지인(18.7%) 순으로 나타남.
-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는 인터넷(31.1%), 지인 소개(19.2%) 사설 인력 전문기관 소개(17.7%), 평소 알던 사람(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 교육 기관 이용 병행은 47.5%였으며 영아의 경우는 비혈연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36.5%로 유아와(0.0%)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비혈연 단독 이용의 비중이 가장 컸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과 병행이용이 증가함.
- 중소도시(67.6%), 모가 취업중(52.2%)일 경우 기관 이용과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하원 후 퇴근 전'이 25.2%, 불규칙한 경우가 22.1% 순으로 나타남.

- 대도시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이 35.6% 인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출근 후 등원 전’이 28.0%, 읍·면지역에서는 불규칙(57.5%) 이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이 지역별로 차이 나타남.
- 주당 이용 시간은 평균 19.6시간이었으며, 대도시(21.9시간), 중소도시(23.7시간), 읍·면지역(7.8시간)으로 조사됨.
-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는 아이 집이 95.2% 이었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100%가 아이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남.
-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78.5%로 나타났으며 지불 비용 평균은 84.8만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금액 79.1만원보다 증가함.
-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 시에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59.8%),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31.3%)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8.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가.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과 이용실태

□ 시간제 학원 이용 및 이용 비율

-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영유아 중 78.9%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할 경우 '1개' 이용 중인 경우가 11.3%로 가장 높았고, '2개' 4.7%, '3개' 3.2% 순으로 나타남.
-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 비율이 2018년도 22.3%였던 것에 비해 1.2%p 정도 감소함.

□ 시간제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에 있어서 각 프로그램별 부모의 부담 비용

- ‘영어’가 149.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26.7천원, '체육 관련' 124.8천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14.3천원, ‘기타’ 110.3천원, ‘수학/과학 관련’ 101.4천원 순

나. 개별교육 이용 실태

□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

- 영유아들은 대체로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거나 2개 이내로 이용하고 있음.

□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비용

- 개별교육에 대한 연령별 비용에서 가정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0세가 학습지와 교재교구 활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연령(1~5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18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그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지와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9. 육아정책 관련 인식

가.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일부 부담할 의사

-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가구의 49.5%로 절반에 해당
- '있다'는 응답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54.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부담 의사 증가
- '없다'는 응답이 2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7%
- 2018년과 비교하여 자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 응답 모두 증가

나.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 근거리에 보낼 보육교육 기관의 충분성

-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42.7%, 유치원 28.8%
- 2015년, 2018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불충분'의 응답이 모두 감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줄고 '잘 모름' 응답 증가

다.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

-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표준보육과정 16.5%, 누리과정 19.6%로 2018년(25.9%, 31.8%)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 표준보육과정 40.4%, 누리과정 36.2%로 2018년(28.6%, 23.8%)에 비해 증가

□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 전체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지 정도

- 가장 인지 비율이 높은 지원제도는 '가정양육수당(95.2%)'과 '0~2세 보육료(92.6%)'
- 유아가 해당되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도 약 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수당, 연장반 보육료 등도 비교적 인지율 높음.
-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인지 정도의 응답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보육료'나 '야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인지율 20~30% 수준

라.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인가를 설문

-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2.0% 수준
- 이외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2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양육수당 인상' 11.3%, '유연근무제 확대' 7.9%,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4.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8%순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과 2021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2018년에는 그 수치가 35.9%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22.0%로 감소함.

I

서 론

01 조사의 배경

02 조사 목적

03 조사 방법

04 응답자 특성

05 일러두기

Ⅰ. 서 론

1. 조사의 배경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法定) 실태조사로, 보육 분야의 연도에 따른 변화와 정책 시행의 효과를 국가 수준에서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해보는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8). 「영유아보육법」 제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3년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 본 조사 및 보고서는 영유아 가정양육 실태, 어린이집을 비롯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실태, 육아정책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과 요구 등에 집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5차 조사가 실시되었던 2018년 이후에 달라진 보육 정책, 특히 보육지원체계개편을 통한 기본반-연장반 운영. 시간제보육의 확대 등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확대 추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등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보육 정책에 따른 가구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요구 등을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그간 보육 사업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어떠한 정책보다도 빨랐다고 볼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2019년 이후 개정누리과정과 개정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었고, 어린이집 평가제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교사근무 환경 개선과 보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최근 실태조사였던 2018년만 보더라도 보육의 발전적 변화는 수치적으로 나타난다. 보육실태조사는 양적인 변동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질적인 변화의 영향까지 제대로 파악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정책 수립 및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이다.

보육실태조사는 2004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

년을 거쳐 2021년에는 여섯 번째 조사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조사에서 생산한 기본 데이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통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만큼 보육실태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보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등에서도 보육실태조사 자료의 활용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9년 제2차 보육실태조사가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책임 수행해오고 있으며, 2021년 조사 또한 정확하고 면밀한, 나무와 숲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썼다.

보육 정책은 실태에 관한 충분한 기초자료 토대 위에 추진하여야만 수요자들의 다양화된 보육·교육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다. 그 간의 정책들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정책은 부모 뿐 아니라 아동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율 증진 자체 보다는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 자체에 목적을 두어 자녀양육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양육지원 체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보육정책으로서 유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까지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자만이 아닌 모든 영유아에 대한 양육실태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며, 협소한 시각을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 목적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는 철저히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정책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보육사업 및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유아 가구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수립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를 파악하며, 특히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주요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현황, 만족도, 요구 등 수요자 지향적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이용, 비용 부담, 만족도, 요구 등 보육 관련 기초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아동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등 제 특성별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정부 정책이나 육아관련 각종 제도와의 연계 추진을 위한 수요자의 정책 평가, 요구 및 의견 등 기초자료를 생산한다.

3. 조사 방법

가. 조사 구성과 절차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나누어진다. 먼저 가구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사항 파악을 위한 가구조사를 가구당 1회 실시하고, 이어서 아동조사표를 사용하여 가구내 모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조사는 가구 내 포함된 영유아 수만큼 개별로 반복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조사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시간이 길어져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으므로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조사는 각 조사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유의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본 보육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표집을 실시한 후 해당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 내용

1) 가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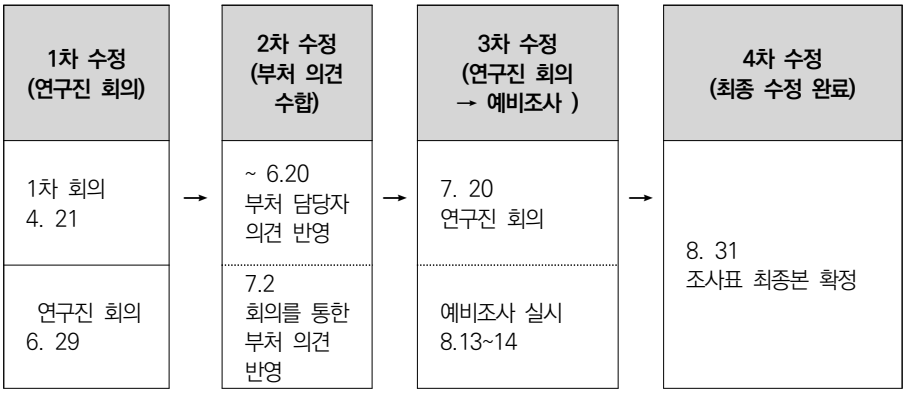
가구조사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조사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기가 주어지

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의 수가 없도록 구성하였다.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조사표는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세워진 조사표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체계적인 조사표 개발·수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실태조사'의 특성상 정책 개선에 반영될 여지가 적은 단순 의견 파악 위주의 문항은 삭제하는 등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가감하였다. 2018년도 조사 문항 중 조사결과의 활용도가 낮았던 문항, 보육정책 범위에서 개선 추진이 어려운 타 부처 사업의 만족도, 개선 요구 문항 등은 삭제하고, 이전 조사 이후 새로이 도입된 정책이나 변경된 정책에 대한 내용은 문항에 추가 반영하는 등 수정·보완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21년도에 보육실태조사 조사문항의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Ⅰ-3-1]과 같다.

[그림 Ⅰ-3-1] 가구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및 일정



연구진 및 관련 부처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한 수정·보완 이외에도 전문 조사원의 예비 조사와 영유아 부모 대상의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는 가구조사와 아동조사로 나누어지며, 가구조사는 응답자에게 1회 질문으로 가구의 현황파악이 가능한 부분, 즉 가구원 특성, 아동부모 특성, 자녀양육 행동 및 정서,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보육정책 인지 및 수혜경험, 만족도, 가구 경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조사표의 구성 장별로 제시한 조사 내용은 아래 〈표 Ⅰ-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Ⅰ-3-1〉 가구조사 내용

구분	내용
Ⅰ. 가구원특성	• 일반현황: 이름, 대상 아동과의 관계, 성, 연령(생년월) • 교육정도: 학교, 졸업여부 • 결혼상태 • 경제활동: 취업 여부, 활동 분야 • 동거 가구원수, 가족유형, 동거가구원 • 아동수: 36개월 미만 영아, 3세 이상 미취학 유아, 그 이상
Ⅱ. 아동 부모 특성	• 부모의 비동거 이유, 이주민 여부, 출신지 • 부모 취업 특성: 근로 형태, 종사상 지위, 토요일·일요일 근로 여부, 출퇴근 시각, 1주일 평균 근로시간 • 미취업 부모의 향후 취업 계획: 취업 계획 여부, 시기 • 부모의 경력단절 경험: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경력단절 경험 여부, 시기, 직장을 그만 둔 이유 •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 육아휴직 경험 여부, 육아휴직 시기, 기간 • 취업부모의 직장과 아동 양육의 어려움 • 이주민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
Ⅲ. 자녀양육	•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정서, 부부의 자녀돌보기 참여, 부부의 자녀양육과 가사분담 •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아동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 양육정보와 상담에 도움을 주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인지여부, 이용경험, 주로 이용하는 정보, 만족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
Ⅳ. 보육·교육정책	• 영유아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방향의 필요성 정도 •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 정부 비용지원 수혜 여부, 만족도 • 육아지원정책 선호도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향 여부
Ⅴ.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정책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기간, 이유, 휴원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인식 • 어린이집 대응에 대한 인식, 긴급보육 제공의 돌봄 공백 해소 기여 여부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만족도, 개선점 • 공인어린이집 인지 여부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탈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경험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의 정보공개포털에서 찾아본 경험 여부, 정보의 도움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참여 여부, 도움 정도, 참여 의향 •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 평가인증제도 인지 여부, 평가인증 점수의 보육서비스질 반영 정도

구분	내용
	• CCTV: CCTV의 아동학대 예방 효과,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 열람신청 방법 인지 여부, 신청 경험, 사유, 열람시기, 열람거부 사유 • 어린이집·유치원의 충분성 정도,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 유치원의 설치 수준 •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인지 정도 • 시간제보육 인지 및 경험 여부,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이용하지 않은 이유, 시간제보육 및 제공기관 인지 경로,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 및 지원액의 적정성 • 부모교육: 부모교육 받은 경험, 경험 내용, 경험 기관, 부모교육의 필요성 정도,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희망 방식, 희망하는 집합교육 실시 장소, 정부지원 연계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
Ⅵ. 기타	• 추가 출산: 추가출산 계획, 시기, 추가 출산자녀수, 미계획 시 이유,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보육교육 비용 부담 정도
Ⅶ. 가구 주택 및 경제적 특성	• 주택 소유 형태, 거주 주택 유형 • 가계경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월평균 가구 총소득, 월평균 근로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액, 영유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출액

2) 아동조사

아동 조사표는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 대상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동조사표는 가구 내의 모든 영유아 각각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영유아의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보육·교육 기관 이용과 요구, 특기교육학원 이용, 아동 개별·그룹 교육지도 및 학습지 이용, 영유아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등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Ⅰ-3-2〉 아동조사 내용

구분	내용
Ⅰ. 보육·교육이용과 지원 개요	• 출생순위 • 낮시간 주양육자 • 반일제 이상 기관 최초 이용 경험: 최초 이용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기, 이용 이유 • 연령대별 이용한 기관, 부모의 취업 상태 • 어린이집 중단 경험, 중단 이유 • 현재 받고 있는 비용 지원: 시간제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비용, 바우처 수혜 여부 및 지원 액수 • 양육수당 금액 만족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수준
Ⅱ. 미취학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 평일 아동 활동시간과 이용기관, 돌보는 사람 시간 단위 조사, 평일 및 주말 부모와 보낸 시간
Ⅲ.보육·교육	• 시설구분 및 이용 이유: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학원

구분	내용
기관 이용 실태	•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기관 이용 지속 의향 •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작시기, 선택 기준, 이용 요일 및 주당 정기적 이용 횟수, (어린이집) 토요보육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 • 현재 이용 기관 이용 시간: 하루 평균 이용 시간, 희망 이용 시간 • 어린이집 운영 시간 인지 여부 • 비용: 규모 및 부담 정도, 부가비용, 입학금, 비용 지출 시 기관 이용 의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불 가능 추가 금액 • 등·하원 방법 및 교류 정도, 차량 동승 여부 • 이용 기관 만족도: 교직원, 주변환경, 시설설비, 비용, 건강관리, 안전관리, 급간식 관리, 교육내용, 생활지도, 부모참여 및 교육 • 기관 제공 서비스 제공 빈도 및 만족도 • 특별활동 수, 선택여부, 비용, 횟수, 만족도, 대체프로그램 인지 여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 이용 기관의 개선 요구 사항 • 건강검진 관리 • 가정양육수당 인상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할 의사 및 인상 금액 •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 공공형 여부의 어린이집 선택 영향 정도,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 만족도 • 맞춤형 보육제도 운영시, 이용 보육유형, 연장보육 이용 여부,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여부, 이용 시 애로사항, 연장보육 이용 이유,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및 비용 부담, 월 기준 저녁 급간식 비용
Ⅳ. 미취학 아동 전체	•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전 대기경험: 여부, 대기기관, 대기 신청 방식,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개선사항, 만족이유 • 초등입학 전 이용하기 원하는 기관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희망 이유, 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 취약보육서비스의 필요성: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필요성 정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시간 • 긴급 돌봄 필요시 돌봐주는 사람: 긴급한 상황, 아이가 아플 때 • 시간제보육반 이용 경험: 이용주기, 평균 이용 시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이용시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Ⅴ.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 시간제교육기관 이용: 프로그램 수, 이용 시간, 비용, 만족도
Ⅵ. 교육서비스 이용	• 이용 개수, 이용 시간, 비용, 만족도
Ⅶ. 장애아동 양육 및 보육	• 등록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용 여부,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 시간, 만족도 • 기관 미이용 이유, 기관 이용시 어려움 • 장애 발견시기, 장애 진단의 계기
Ⅷ.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 개인양육서비스제공자: 혈연, 비혈연, 비혈연 인력의 구인 경로 •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 이용 행태: 서비스 제공자가 한번에 돌보는 아동수, 돌봄 장소, 돌보는 시간대, 1주일 총 이용 시간 • 비용: 지불 여부, 지불형태 및 금액 수준 • 평가: 비혈연 인력이 못오는 경우 여부 및 대처 방법

다. 표본추출 및 가중치

1) 표본 설계

가) 2021년도 표본 설계의 개요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는 영유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영유아보육법」제9조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정조사이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이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는 만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가구의 자녀양육 실태조사로 지역·아동연령·아동특성에 따른 보육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개 조사 즉 '가구 조사'와 '아동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및 규모는 전국 표본 읍면동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2,500가구이며 조사수행방식은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면접조사이다. 표집틀은 2021년 6월 말(30일)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로 구성하였다. 층화 기준은 정부지원유형으로 1차 층화, 17개 시·도로 2차 층화하였으며 추출방법은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이다.

2013년 전국의 거의 모든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무상보육·교육'이 실현되어 지원 아동의 DB를 활용하면 영유아 인구의 모집단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 2018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로 표본추출틀을 변경, 표본추출에 활용하게 되었다. 보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8년 보육실태조사부터는 정부지원유형으로 1차 층화하였고, 2차 층화는 각 정부지원유형별로 시도별 층화하고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배정하였다. 표본추출은 한 읍면동 당 10명의 가구를 배정할 수 있도록 250여개 표본읍면동을 추출하였으며, 모집단 대표성을 위해 읍면동별 아동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방식으로 읍면동을 추출하였다. 표본읍면동별로 내재적 층화변수(아동연령)로 정렬한 후 표본아동을 계통추출하여 아동이 속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로써 2018년 대비 영유아 가구 조사 성공률 및 조사효율성이 제고되어 목표 기간 내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나) 모집단

목표모집단은 전국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조사대상 전체의 집합적인 개념으로 2021년 현재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0-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조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모집단이다. 따라서 조사모집단은 2021년 6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에 구축된 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 DB를 표본틀로 구성하였으며, 아동DB에서 보육비와 유아학비, 보육비와 양육수당 등 2가지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2명은 표본추출틀에서 제외하였다.

〈표 Ⅰ-3-3〉 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1.6월 말)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 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1,105,185	582,326	511,322
서울	175,071	69,798	102,365
부산	57,906	38,885	31,408
대구	41,863	33,744	21,925
인천	60,721	35,553	30,257
광주	29,454	21,827	13,620
대전	28,611	21,179	13,044
울산	25,814	15,884	12,370
세종	14,770	6,977	5,843
경기	328,033	162,800	152,683
강원	32,401	13,714	12,707
충북	39,214	15,492	14,006
충남	52,059	24,143	19,435
전북	35,407	19,952	12,849
전남	40,884	17,627	13,976
경북	50,529	33,588	20,515
경남	71,158	44,914	28,717
제주	21,290	6,249	5,602

〈표 Ⅰ-3-4〉 지역규모에 따른 정부지원유형별 수혜자 분포(기준시점: 2021.6월 말)

단위: 명

구분	정부지원 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전국	1,105,185	582,326	511,322
대도시	400,417	223,936	216,456
중소도시	502,928	265,577	217,104
농어촌	201,840	92,813	77,762

〈표 Ⅰ-3-5〉 지역에 따른 연령별 영유아 분포(기준시점: 2021.6월 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
전국	252,763	291,010	321,467	350,156	391,498	433,615	158,324	2,198,833
서울	42,466	47,751	51,423	54,526	60,618	66,613	23,837	347,234
부산	13,912	16,485	18,449	20,721	23,184	26,098	9,350	128,199
대구	10,290	12,608	13,976	15,866	17,868	19,731	7,193	97,532
인천	14,471	16,746	18,795	19,917	22,551	24,905	9,146	126,531
광주	7,168	8,350	9,225	10,394	11,825	13,138	4,801	64,901
대전	7,005	8,099	9,117	9,963	11,442	12,543	4,665	62,834
울산	5,961	7,022	7,717	8,604	9,923	10,890	3,951	54,068
세종	3,271	3,659	4,209	4,500	4,764	5,289	1,898	27,590
경기	74,633	85,023	94,229	102,289	114,303	126,612	46,427	643,516
강원	7,311	8,350	8,566	9,320	10,172	11,038	4,065	58,822
충북	8,044	8,922	10,307	11,166	12,176	13,390	4,707	68,712
충남	11,013	12,838	14,012	15,251	16,949	18,787	6,787	95,637
전북	7,554	8,711	9,627	10,975	12,220	13,871	5,250	68,208
전남	8,694	10,118	10,656	11,436	12,485	13,933	5,165	72,487
경북	11,750	13,834	15,379	16,557	18,739	20,609	7,764	104,632
경남	15,517	18,156	20,844	23,285	26,424	29,606	10,957	144,789
제주	3,703	4,338	4,936	5,386	5,855	6,562	2,361	33,141

다) 모집단 층화기준

이 조사에서는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보육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차 층화변수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2021년 보육실태조사는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1차 층화하고 각 정부지원유형별·시도별로 2차 층화하였다.

1차 층화 및 2차 층화 표본배분은 지역별로 고르게 표본이 분포하도록 제곱근비례배분과 비례배분을 고려하여 17개 시도별 RSE값을 비교(1안, 2안 시도별 표본규모에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라) 시도별 표본규모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RSE 목표정도를 산출하여 비교해보았다.

2021년 6월 말 기준 아동 DB 표집틀의 정부지원유형(보육비,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따른 제곱근비례배분으로 1차 층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Ⅰ-3-6〉 정부지원유형별 제곱근비례배분 결과(1차 층화)

구분	2018년 조사		2021년 조사	
	가구수	RSE(가구소득)%	가구수	목표 RSE(가구소득)%
계	2,533	1.03	2,500	1.03
보육료	1,115	1.55	1,039	1.60
유아학비	702	1.95	754	1.88
양육수당	716	1.93	707	1.94

2차 층화는 17개 시도별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1안) 과 제곱근비례배분(2안)을 17개 시도별 RSE값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제곱근비례배분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도별 RSE가 더 안정적이므로 최종적으로 2차 층화는 17개 시도별 규모에 따라 제곱근 비례배분하는 2안으로 선택하였다.

〈표 Ⅰ-3-7〉 정부지원유형별로 17개 시도별 제곱근비례배분(2안)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국	1,039	754	707	2,500
서울	112	68	85	265
부산	63	52	48	163
대구	54	48	40	142
인천	65	49	47	161
광주	45	39	32	116
대전	45	38	31	114
울산	42	33	30	105
세종	32	22	21	75
경기	152	104	105	361
강원	47	31	30	108
충북	52	33	32	117
충남	60	41	38	139
전북	50	37	31	118
전남	53	35	32	120

정부지원유형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경북	59	48	39	146
경남	70	55	46	171
제주	38	21	20	79

〈표 Ⅰ-3-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제곱근비례배분시 목표 RSE

구분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가구	CV(가구소득)%	가구	목표 CV(가구소득)%
전국	2,533	1.03	2,500	1.03
서울	381	2.75	265	3.30
부산	139	4.03	163	3.72
대구	108	5.56	142	4.85
인천	135	4.24	161	3.88
광주	70	5.10	116	3.96
대전	73	4.66	114	3.73
울산	60	4.50	105	3.40
세종	25	9.12	75	5.26
경기	697	1.84	361	2.56
강원	71	7.17	108	5.81
충북	88	5.42	117	4.70
충남	128	4.19	139	4.02
전북	85	6.80	118	5.77
전남	105	4.94	120	4.62
경북	140	4.45	146	4.36
경남	192	3.64	171	3.85
제주	36	8.01	79	5.41

마) 층별 표본배정

3개 정부지원유형(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1차 층화한 다음, 17개 시도 지역으로 나누어 제곱근비례배분으로 2차 층화하고, 편의상 읍면동을 250여개 추출하여, 최종 확정된 표본규모를 표본읍면동별로 평균 10명의 아동을 배정하였다. 약 250여개 표본 읍면동 추출 시, 3개 정부지원유형의 가구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므로, 보다 다양한 조사단위들을 표본에 포함시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읍면동 아동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 PPS(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 방식으로 읍·면/동을 추출 하여 표본 읍면동별로 내재적 층화변수(아동 연령)로 정렬 후 표

본 아동을 계통추출하여 아동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추출단위는 표본 읍면동이며, 읍면동별 아동 수 기준 PPS이고. 2차 추출단위는 표본 읍면동 내의 아동을 계통추출, 최종 조사단위는 아동이 속한 가구 및 아동이다. 층별 할당결과는 17개 시도별로 층화하여 정부지원유형별로 나타내었고, 목표 표본규모로 작성하였다.

〈표 Ⅰ-3-9〉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층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정부지원유형별 표본수				읍면동수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국	1,039	754	707	2,500	250
서울	112	68	85	265	26
부산	63	52	48	163	16
대구	54	48	40	142	14
인천	65	49	47	161	16
광주	45	39	32	116	12
대전	45	38	31	114	11
울산	42	33	30	105	11
세종	32	22	21	75	8
경기	152	104	105	361	35
강원	47	31	30	108	11
충북	52	33	32	117	12
충남	60	41	38	139	14
전북	50	37	31	118	12
전남	53	35	32	120	12
경북	59	48	39	146	15
경남	70	55	46	171	17
제주	38	21	20	79	8

바) 대체

응답불응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당초 설계된 표본 수만큼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동일 층(동일한 읍면동) 내에서 예비 표본(표본의 3배수)로 대체하여 조사 진행하였다. 0-6세 아동 및 가구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표본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였고 원표본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연구진 및 표본설계 전문가에 전달하여 원표본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사) 조사 완료 표본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최종 층별(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 배정 결과 총 2,500가구가 조사완료 되었다. 또한 최종 조사완료된 가구의 아동수는 총 3,471명이다. 정부지원유형별로 조사 완료된 아동의 지역별 연령분포는 〈표 Ⅰ-3-10〉~〈표 Ⅰ-3-12〉에 제시하였으며, 지원유형을 총합한 아동의 연령 분포는 〈표 Ⅰ-3-13〉과 같다.

〈표 Ⅰ-3-10〉 조사완료 보육료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국	28	209	342	335	246	178	126	1,464
서울	3	17	33	38	20	22	15	148
부산	2	8	21	18	20	10	6	85
대구	3	16	15	21	11	6	6	78
인천	2	15	25	18	14	11	8	93
광주	1	13	13	21	13	6	5	72
대전	1	7	10	15	12	2	6	53
울산	1	6	18	11	8	4	4	52
세종	1	9	10	7	9	10	4	50
경기	4	32	48	45	35	30	25	219
강원	0	11	13	15	13	13	3	68
충북	0	7	19	18	16	9	10	79
충남	2	14	25	16	16	10	3	86
전북	0	11	14	13	11	12	10	71
전남	3	11	18	15	16	10	7	80
경북	3	10	31	20	7	5	4	80
경남	1	16	21	28	17	10	7	100
제주	1	6	8	16	8	8	3	50

〈표 Ⅰ-3-11〉 조사완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6세	계
전국	61	272	388	320	1,041
서울	6	30	30	19	85
부산	6	17	25	19	67
대구	3	18	23	20	64
인천	2	24	23	17	66
광주	4	11	23	11	49

구분	3세	4세	5세	6세	계
대전	3	17	26	17	63
울산	3	8	22	15	48
세종	3	8	7	9	27
경기	7	37	57	43	144
강원	3	9	18	14	44
충북	3	15	19	10	47
충남	2	16	19	18	55
전북	5	15	12	20	52
전남	1	15	13	15	44
경북	3	18	29	26	76
경남	7	13	30	33	83
제주	0	1	12	14	27

〈표 Ⅰ-3-12〉 조사완료 양육수당 지원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국	396	306	93	46	38	53	34	966
서울	50	37	9	7	6	11	7	127
부산	15	31	8	2	1	5	4	66
대구	15	18	4	5	3	3	2	50
인천	24	19	6	3	1	4	5	62
광주	19	9	4	2	2	4	2	42
대전	18	16	1	3	0	0	1	39
울산	19	15	4	1	3	4	0	46
세종	14	6	8	2	2	1	0	33
경기	55	45	17	11	10	11	6	155
강원	19	17	2	1	0	1	1	41
충북	17	13	5	1	1	2	0	39
충남	21	14	4	0	3	3	2	47
전북	24	13	1	1	0	1	2	42
전남	21	16	4	3	0	0	0	44
경북	35	12	5	0	1	0	1	54
경남	22	14	10	3	4	3	0	56
제주	8	11	1	1	1	0	1	23

〈표 Ⅰ-3-13〉 조사완료 아동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전국	424	515	435	442	556	619	480	3,471
서울	53	54	42	51	56	63	41	360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계
부산	17	39	29	26	38	40	29	218
대구	18	34	19	29	32	32	28	192
인천	26	34	31	23	39	38	30	221
광주	20	22	17	27	26	33	18	163
대전	19	23	11	21	29	28	24	155
울산	20	21	22	15	19	30	19	146
세종	15	15	18	12	19	18	13	110
경기	59	77	65	63	82	98	74	518
강원	19	28	15	19	22	32	18	153
충북	17	20	24	22	32	30	20	165
충남	23	28	29	18	35	32	23	188
전북	24	24	15	19	26	25	32	165
전남	24	27	22	19	31	23	22	168
경북	38	22	36	23	26	34	31	210
경남	23	30	31	38	34	43	40	239
제주	9	17	9	17	10	20	18	100

한편, 조사완료된 아동의 지역별·정부지원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Ⅰ-3-14〉 조사완료 아동의 정부지원유형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계
전국	1,464	1,041	966	3,471
서울	148	85	127	360
부산	85	67	66	218
대구	78	64	50	192
인천	93	66	62	221
광주	72	49	42	163
대전	53	63	39	155
울산	52	48	46	146
세종	50	27	33	110
경기	219	144	155	518
강원	68	44	41	153
충북	79	47	39	165
충남	86	55	47	188
전북	71	52	42	165
전남	80	44	44	168
경북	80	76	54	210
경남	100	83	56	239
제주	50	27	23	100

2) 가중치

통계조사에서 가중치의 적용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구조를 일치시킴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아동 가중치

추정치 편향을 없애기 위해 사후 층화(Post Stratification)를 하여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최종 가중치 산정에서 모집단의 기준시점은 본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 표집틀을 입수한 2021년 6월 말이다.

추출단위의 추출확률 역수를 추출가중치로 산정하고, 정부지원유형(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과 나이에 대해 지역별 2차원 교차표로 순위(raking) 비 조정으로 가중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표본 읍면동별로 부여된 1차 가중치 ($d_k^{(0)}$)를 포함한 표본자료와 아동DB로 부터 ①지역별 정부지원유형별 아동수, ②지역별 각 세별 아동수, ③정부지원유형 및 각 세별 아동수교차표를 구성하였다. 2단계는 1차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 교차표를 구성하여 1단계로부터 각각 구한 모집단 교차표의 주변 총계(marginal sum: 행과 열의 아동수)를 결합한다. 모집단 교차표의 행의 합을 N_{i+} , 열의 합을 N_{+j}라 하고, 모집단 셀의 아동수를 N_{ij}이라고 하면, 3단계에서는 2단계로부터 기본 가중치인 $d_k^{(0)}$를 이용하여 사후 층별 주변 총계를 구한다.

$$\sum_i d_k^{(0)} = \hat{N}_{+j},\ i = 1,2,\cdots,R$$
$$\sum_j d_k^{(0)} = \hat{N}_{i+},\ j = 1,2,\cdots,C$$
$$N_{i+} : \text{모집단 교차표 행의 합}$$
$$N_{+j} : \text{모집단 교차표 열의 합}$$
$$N_{ij} : \text{모집단 셀의 아동수}$$

4단계는 3단계에서 구한 사후 주변총계와 모집단의 주변총계를 이용하여 표본자료의 각 셀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w^{(1,1)} = \left(\frac{N_{i+}}{\sum_{j=1}^{C} \hat{N}_{ij}^{(0)}} \right) \times d_k^{(0)}$$

$$w^{(1,2)} = \left(\frac{N_{+j}}{\sum_{j=1}^{R} \hat{N}_{ij}^{(1,1)}} \right) \times w^{(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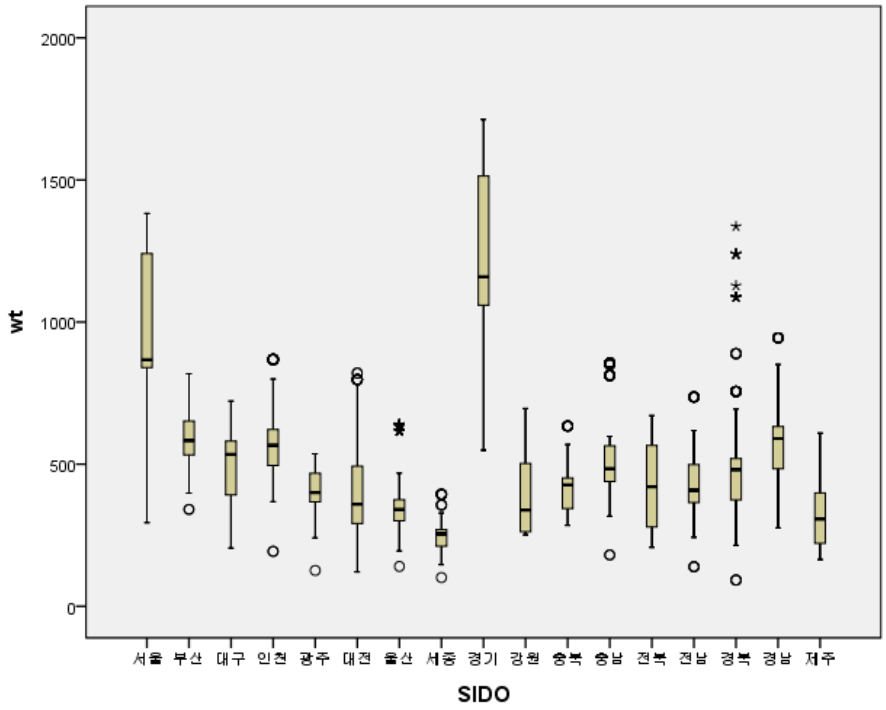
5단계는 수렴할 때까지 3~4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표 Ⅰ-3-15〉 지역별 아동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 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3,471	633.5	6.1	520.8	508.9	532.7	0.6
서울	360	964.5	14.3	867.3	839.3	895.4	0.3
부산	218	588.1	8.5	583.3	566.5	600.0	0.2
대구	192	508.0	8.4	534.6	518.2	551.0	0.2
인천	221	572.5	9.4	566.2	547.8	584.6	0.2
광주	163	398.2	6.7	400.3	387.1	413.5	0.2
대전	155	405.4	12.2	359.0	335.2	382.9	0.4
울산	146	370.3	11.3	340.2	318.1	362.3	0.4
세종	110	250.8	6.5	254.5	241.8	267.2	0.3
경기	518	1242.3	12.2	1158.9	1,135.0	1,182.9	0.2
강원	153	384.5	9.8	338.5	319.3	357.7	0.3
충북	165	416.4	7.6	427.2	412.3	442.1	0.2
충남	188	508.7	12.1	484.0	460.4	507.7	0.3
전북	165	413.4	10.9	420.5	399.2	441.8	0.3
전남	168	431.5	10.3	408.5	388.3	428.7	0.3
경북	210	498.2	17.0	480.7	447.3	514.1	0.5
경남	239	605.8	8.4	589.9	573.4	606.4	0.2
제주	100	331.4	13.0	307.1	281.7	332.6	0.4

[그림 Ⅰ-3-2] 지역별 아동 가중치 상자그림



나) 가구 가중치

가구가중치는 가구 리스트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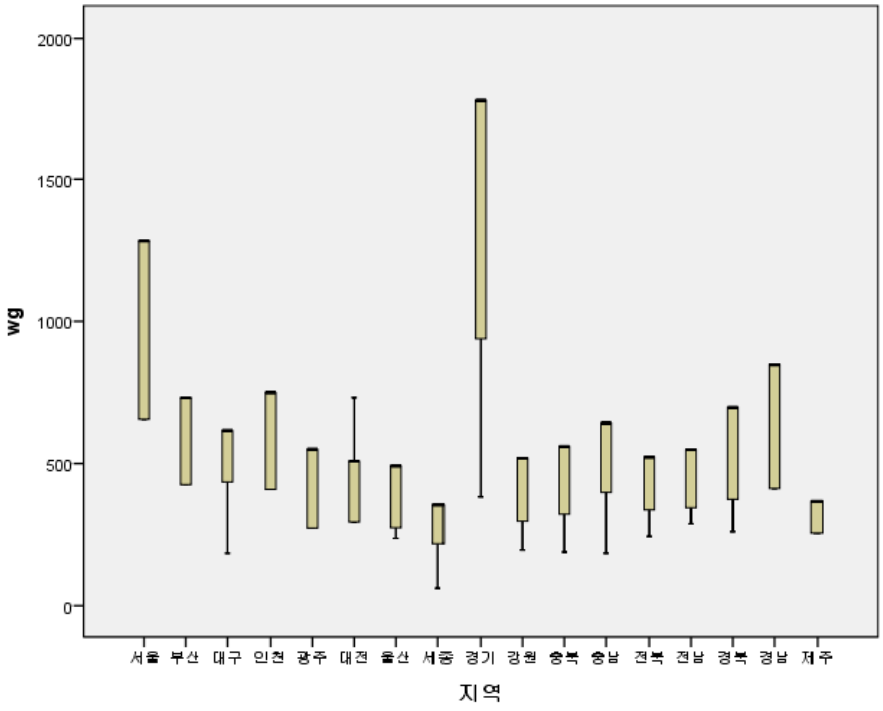
〈표 Ⅰ-3-16〉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 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전국	2,500	701.8	8.5	559.9	543.3	576.5	0.6
서울	265	1,070.5	18.3	1,286.1	1250.1	1322.0	0.3
부산	163	631.8	11.3	733.4	711.2	755.5	0.2
대구	142	550.2	9.1	616.8	599.1	634.6	0.2
인천	161	631.0	12.9	752.2	726.8	777.5	0.3
광주	116	438.6	12.7	550.5	525.6	575.3	0.3
대전	114	434.4	10.0	508.0	488.4	527.6	0.2
울산	105	409.5	10.5	491.8	471.2	512.4	0.3
세종	75	287.7	10.2	353.3	333.3	373.4	0.3

지 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표준오차
경기	361	1,427.2	24.1	1,779.9	1732.6	1827.1	0.3
강원	108	430.0	11.1	518.6	496.9	540.4	0.3
충북	117	459.8	11.8	559.9	536.8	583.0	0.3
충남	139	539.0	12.0	643.7	620.2	667.1	0.3
전북	118	451.1	8.9	522.6	505.2	539.9	0.2
전남	120	468.4	9.5	549.4	530.9	568.0	0.2
경북	146	565.5	13.8	699.0	672.0	725.9	0.3
경남	171	671.8	16.2	845.5	813.7	877.2	0.3
제주	79	326.8	6.0	365.2	353.4	377.1	0.2

[그림 Ⅰ-3-3] 지역별 가구 가중치 상자그림



전체 평균 산출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hat{\bar{Y}}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y_{hij} / \sum\sum\sum w_{hij}$$

w_{hij}: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각 응답결과

L: 층의 수

n_h: 층 h에서의 표본 읍, 면/동의 수

m_{hi}: 층 h내 i번째 표본 읍, 면/동의 응답자 수

$w_{...} = \sum_{h=1}^{L}\sum_{i=1}^{n_h}\sum_{j=1}^{m_{hi}} w_{hij}$: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4. 응답자 특성

가. 조사 완료 현황

정부지원유형별, 지역별 표본배정 결과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동일 층 내에서 예비 표본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조사 완료 현황은 다음 〈표 Ⅰ-4-1〉과 같다. 각 수치는 시·도별 조사완료율, 가구조사의 응답가구 수 및 가구 내 포함된 아동 수(아동조사대상)를 나타낸다. 최종 조사된 총 영유아 가구 수는 2,500가구였고, 조사된 영유아 수는 3,471명이었다.

〈표 Ⅰ-4-1〉 지역별 조사완료율 및 조사 가구 및 아동의 지역 분포

단위: 가구, 명, %

구분	조사 완료 현황			응답 가구 및 아동							
				가구조사				아동조사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10,971	2,500	22.8	2,500	1,141	952	407	3,471	1,565	1,324	582
서울	1,966	265	13.5	265	265	-	-	360	360	-	-
부산	658	163	24.8	163	163	-	-	218	218	-	-

구분	조사 완료 현황			응답 가구 및 아동							
				가구조사				아동조사			
	조사대상 (A)	조사완료 (B)	조사완료율 (B/A*100)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전체	대 도시	중소 도시	읍·면
대구	574	142	24.7	142	142	–	–	192	192	–	–
인천	653	161	24.7	161	161	–	–	221	221	–	–
광주	467	116	24.8	116	116	–	–	163	163	–	–
대전	462	114	24.7	114	114	–	–	155	155	–	–
울산	420	105	25.0	105	105	–	–	146	146	–	–
세종	300	75	25.0	75	75	–	–	110	110	–	–
경기	1,453	361	24.8	361	–	288	73	518	–	406	112
강원	450	108	24.0	108	–	79	29	153	–	112	41
충북	468	117	25.0	117	–	77	40	165	–	107	58
충남	555	139	25.0	139	–	90	49	188	–	122	66
전북	472	118	25.0	118	–	89	29	165	–	124	41
전남	478	120	25.1	120	–	61	59	168	–	83	85
경북	584	146	25.0	146	–	79	67	210	–	118	92
경남	692	171	24.7	171	–	120	51	239	–	165	74
제주	319	79	24.8	79	–	69	10	100	–	87	13

나. 응답자 특성

가구조사 응답자와 아동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Ⅰ-4-2〉, 〈표 Ⅰ-4-3〉과 같다. 가구조사에는 최종 2,500가구가 포함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른 가구조사 응답자는 대도시 41.7%, 중소도시 42.8%, 읍·면지역 15.5%의 특성을 보이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 41.0%, 미취업모 44.9%, 휴직 중 13.1%, 부재 중 1.0%이다. 가구의 지원 유형은 보육료 지원만 받는 가구 33.5%, 유아학비 지원 가구 28.0%, 양육수당 지원 가구 27.4%,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받는 '복합지원' 가구 11.1%로 분류된다.

〈표 Ⅰ-4-2〉 가구 조사 응답가구 특성

단위: %(가구)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2,500)	가구소득	
지역규모		199만원 이하	2.5(62)
대도시	41.7(1,141)	200~249만원	3.4(85)
중소도시	42.8(952)	250~299만원	5.8(146)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읍·면	15.5(407)		
모취업 여부		300~349만원	14(350)
취업	41.0(997)	350~399만원	9.0(226)
휴직중	13.1(303)	400~499만원	19(474)
미취업	44.9(1,174)	500~599만원	19.2(480)
모부재 등	1.0(26)	600~699만원	9.6(240)
지원유형		700만원 이상	16.2(406)
보육료	33.5(825)	모름/무응답	1.2(31)
유아학비	28.0(639)		
양육수당	27.4(587)		
복합지원	11.1(44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복합지원: 조사 대상 표본 가구에 영유아가 지원 받는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예: 영유아가 2명인 가구 중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동시에 있는 경우)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표 응답 대상인 2,500 가구의 영유아로 아동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된 영유아는 총 3,471명이었으며, 생활연령 0-2세 영아가 34.4%, 3~6세의 유아가 65.6%였다. 보육연령 기준으로는 영아 45.4%, 유아 54.6%로 유아가 영아보다 조금 더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아동 기준으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41.2%, 휴직중 11.9%, 미취업 46.2%, 모부재 0.7%였으며, 이용기관은 어린이집 이용 50.3%, 유치원 이용 26.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2.8%이며, 보육·교육기관 미이용의 경우가 20.4%에 해당하였다.

〈표 Ⅰ-4-3〉 아동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3,471)		
영유아구분(생활연령)		영유아구분(보육연령)	
영아	34.4(1,374)	영아	45.4(1,679)
유아	65.6(2,097)	유아	54.6(1,792)
생활연령		보육연령	
0세	7.4(424)	0세	16.3(780)
1세	12.8(515)	1세	14.2(472)
2세	14.1(435)	2세	14.9(427)
3세	15.5(442)	3세	15.3(486)
4세	17.1(556)	4세	19.2(630)
5세 이상	33.1(1,099)	5세	20.1(676)
지역규모		가구소득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대도시	41.3(1,565)	149만원 이하	1.1(40)
중소도시	42.2(1,324)	150~199만원	1.1(38)
읍·면	16.4(582)	200~249만원	3(118)
모취업 여부		250~299만원	4.9(198)
취업	41.2(1,340)	300~349만원	13.2(480)
휴직중	11.9(430)	350~399만원	8.7(311)
미취업	46.2(1,670)	400~499만원	19.2(675)
모부재 등	0.7(31)	500~599만원	19.8(655)
이용 기관		600~699만원	10.3(349)
어린이집	50.3(1,464)	700만원 이상	17.4(560)
유치원	26.5(1,041)	모름/무응답	1.4(47)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2.8(86)		
미이용	20.4(88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5. 일러두기

본 보고서를 읽고 이용함에 있어 몇 가지 우선적으로 이해해 두어야 할 바를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통계 수치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을 '보육연령'과 '생활연령'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생활연령이란 일상적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보통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출생 연월일에 따른 만 나이를 말한다. 즉, 현재 조사 시점에서의 영유아 만 연령이 생활연령이 된다. 이에 비해 보육연령은 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배정되는, 연령구분에 따른 '반(班)' 연령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 반 구분은 해당 아동의 그 시점에서의 실제 연령과는 상관없이 그해 1월을 기준으로 연령별 반에 배정되어 1년 이상을 지내고 해당 연령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므로, 조사 시점에서 보육연령을 보면 0세반의 경우 최대 23개월 월령의 영아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보육비용, 어린이집 이용 행태 등 시설 이용 관련 몇몇 변수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과 관련된 질문의 분석에서는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가정양육이나 기타 기관 이용과 무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령 적용 방식 차이로 인해 문항에 따라 연령별 사례수가 다를 수 있다.

둘째, 결과 분석과 사례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중치와 관측치(실제 사례수)가 같이 적용되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앞서 3절에서 밝혔듯이, 표집에 따른 편포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있어 분석에 따른 모든 수치는 가중치가 반영되어 산출된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 마지막 열 또는 행에 제시되고 있는 사례수 즉 '(수)'는 표의 내용 수치와는 달리 관측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각 독립 변수, 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의 실제 사례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정확한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중치 적용된 사례수를 제시하게 되면 실제는 한두 사례 조사에 의한 결과치임에도 과대 해석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관측치를 제시하였다. 즉, 표 내용의 모든 결과치는 표집 보정을 위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정확한 분석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고, 다만 조사에 실제 대상이 된 관측 사례 수가 이 정도이다로 참고하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보고서 Ⅲ장 이하 모든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분석표는 모두 본 2021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에서 실사로 진행한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표 아래에 '자료: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로 주석이 붙어있고 더불어 '자료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표 번호〉'의 형태로 붙임이 있다. 본 연도 조사의 결과를 이전 연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2018년, 2015년 등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서 자료 출처를 밝힌 것이다. 모든 해당 표에 위와 같은 자료 출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의도된 자료 출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일부분에서 '반일제 이상'으로 표 등에 표기된 것은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보육·교육 기관으로서 주로 반일제 학원(특히 영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반일제 이상 기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 기관 등 여러 가지 표현이 혼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의 반일제 기관을 가리키고 있어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기 바란다.

Ⅱ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0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02 비용 지원

Ⅱ. 영유아 보육사업 현황

제2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주요 현황 및 추이를 제시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즉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보육 인프라의 공급 및 이용(특수보육 포함)과 비용 지원 현황을 다루었다.

1.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와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 현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조 3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해야하는데, 설치 시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2조 1항).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2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언급되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과제로 제시되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b).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양육 지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 2021c).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4개소 확충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속 확대를 위해 2021년 890개 반을 운영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21c).

현재까지의 어린이집 설치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유치원 이용률, 지역별 공급과 이용률의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인프라 공급과 이용

1)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현황

어린이집 수는 영아 무상보육 실시와 누리과정 도입 연령을 점차 확대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어린이집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년 감소 감소규모가 더 확대되어 2021년도에는 33,554개소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은 2018년 조사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도에는 9.2%(3,602개소), 이용아동 수 14.2%(200,783명)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도에는 15.6%(5,237개소), 이용아동 수 22.9%(262,732명)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립의 수는 2018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며, 2018년에 전체 어린이집의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 이후로는 전체 어린이집의 80%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합친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의 74.5 %(25,002개소), 이용아동 수는 전체 아동의 62.2%(713,46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Ⅱ-1-1〉 기관유형별 어린이집 수/이용아동 수(2009/2012-2021)

단위: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21	어린이집수 (비율)	33.554 (100.0)	5,237 (15.6)	1,296 (3.9)	643 (1.9)	10.803 (32.2)	14,199 (42.3)	144 (0.4)	1,232 (3.7)
	아동 수 (비율)	1,146,003 (100.0)	262,732 (22.9)	70,236 (6.1)	30,725 (2.7)	519,369 (45.3)	194,093 (16.9)	3,406 (0.3)	65,442 (5.7)
2020	어린이집수 (비율)	35,352 (100.0)	4,958 (14.0)	1,316 (3.7)	671 (1.9)	11,510 (32.6)	15,529 (43.9)	152 (0.4)	1,216 (3.4)
	아동 수 (비율)	1,244,396 (100.0)	253,251 (20.4)	78,322 (6.3)	34,066 (2.7)	578,196 (46.5)	230,444 (18.5)	3,716 (0.3)	66,401 (5.3)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9	어린이집수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비율)	(100.0)	(11.6)	(3.6)	(1.9)	(33.6)	(45.8)	(0.4)	(3.1)
	아동 수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비율)	(100.0)	(17.0)	(6.4)	(2.8)	(48.6)	(20.0)	(0.3)	(4.8)
2018	어린이집수	39,171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비율)	(100.0)	(9.2)	(3.5)	(1.9)	(34.5)	(47.6)	(0.4)	(2.8)
	아동 수	1,415,742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비율)		(14.2)	(6.6)	(2.9)	(50.2)	(21.4)	(0.3)	(4.4)
2017	어린이집수	40,238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비율)	(100.0)	(7.8)	(3.5)	(1.9)	(34.9)	(48.8)	(0.4)	(2.6)
	아동 수	1,450,243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비율)	(100.0)	(12.9)	(6.7)	(3.0)	(50.9)	(22.2)	(0.3)	(4.0)
2016	어린이집수	41,084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비율)	(100.0)	(7.0)	(3.4)	(2.0)	(34.8)	(50.1)	(0.4)	(2.3)
	아동 수	1,451,215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비율)	(100.0)	(12.1)	(6.8)	(3.1)	(51.4)	(22.6)	(0.3)	(3.6)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비율)	(100.0)	(6.2)	(3.3)	(2.0)	(34.4)	(51.9)	(0.4)	(1.8)
	아동 수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비율)	(100.0)	(11.4)	(6.9)	(3.2)	(51.5)	(23.7)	(0.3)	(3.1)
2014	어린이집수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비율)	(100.0)	(5.7)	(3.2)	(1.9)	(33.9)	(54.3)	(0.3)	(1.6)
	아동 수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비율)	(100.0)	(10.6)	(7.0)	(3.3)	(51.8)	(24.4)	(0.3)	(2.6)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비율)	(100.0)	(5.3)	(3.3)	(2.0)	(33.7)	(54.0)	(0.3)	(1.4)
	아동 수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비율)	(100.0)	(10.4)	(7.3)	(3.5)	(51.8)	(24.5)	(0.2)	(2.3)
2012	어린이집수	42,527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비율)	(100.0)	(5.2)	(3.4)	(2.0)	(34.0)	(53.9)	(0.3)	(1.2)
	아동 수	1,487,361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비율)	(100.0)	(10.1)	(7.6)	(3.5)	(51.7)	(25.0)	(0.2)	(2.0)
2009	어린이집수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비율)	(100.0)	(5.4)	(4.1)	(2.6)	(37.8)	(43.8)	(0.2)	(1.0)
	아동 수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2,996	236,892	1,655	18,794
	(비율)	(100.0)	(11.0)	(9.6)	(4.5)	(53.0)	(20.2)	(0.1)	(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2021년 기준 보육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아동 수는 2세가 2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세가 20.6%, 취학을 유예한 6세 이상 아동들을 제외하면 0세가 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기관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가정어린이집에서 0-2세의 비율이 99.1%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 0-2세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2021년에는 54.3%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5세 연령 아동의 비율은 2012년 이후부터 소폭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 연령 분포는 큰 변화 없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Ⅱ-1-2〉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1-2021)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계(아동수)
전체(2021년)	7.3	20.6	26.4	17.2	14.5	13.7	0.5	100.0 (1,146,003)
시설유형								
국공립	5.0	17.9	24.4	19.6	16.8	16.0	0.4	100.0 (262,732)
사회복지법인	2.9	13.0	21.4	21.7	19.7	18.5	2.7	100.0 (70,236)
법인·단체 등	2.6	12.0	19.9	22.1	20.8	20.2	2.5	100.0 (30,725)
민간	4.4	16.4	25.1	20.7	17.1	16.1	0.2	100.0 (519,369)
가정	22.2	40.2	36.7	0.5	0.2	0.1	–	100.0 (194,093)
협동	1.6	11.1	20.3	22.8	21.6	21.9	0.7	100.0 (3,406)
직장	3.2	18.3	22.4	21.6	18.1	16.2	0.2	100.0 (65,442)
2020	9.4	21.1	25.8	17.3	14.0	12.0	0.4	100.0 (1,244,396)
2019	9.2	21.6	27.5	17.6	12.7	10.9	0.4	100.0 (1,365,085)
2018	9.0	22.5	28.1	16.5	12.0	11.5	0.4	100.0 (1,415,742)
2017	9.6	22.8	27.0	16.3	13.0	10.8	0.5	100.0 (1,450,243)
2016	9.7	21.9	26.6	18.2	12.4	10.6	0.5	100.0 (1,451,215)
2015	9.4	21.2	28.9	17.4	12.4	10.1	0.5	100.0 (1,452,813)
2014	9.3	22.9	27.4	17.7	11.8	10.4	0.6	100.0 (1,496,671)
2013	10.0	21.9	27.0	17.2	12.4	10.9	0.7	100.0 (1,486,980)
2012	12.0	21.6	25.1	17.4	13.1	10.1	0.8	100.0 (1,487,361)
2011	10.9	18.5	25.4	20.2	13.6	10.2	1.3	100.0 (1,348,729)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기관 이용률이 65.7%, 67.0%, 70.4%, 72.0%, 73.3%, 72.5% 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48.6%, 유치원 이용률은 23.9%로 나타난다. 영유아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의 55.4%가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유아는 어린이집 41.9%, 유치원 47.2%로 유치원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2018년과 비교하여 영아와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0.4%p, 0.2%p 증가하였다. 반면 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3〉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률(2013, 2015, 2017, 2018-2020)

단위: 명(%)

구분		전체 아동수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재원아동	이용률
2020	전체	2,562,100	1,244,396	48.6	612,538	23.9	1,856,934	72.5
	영아	1,264,594	700,890	55.4	-	-	700,890	55.4
	유아	1,297,506	543,506	41.9	612,538	47.2	1,156,044	89.1
2019	전체	2,726,967	1,365,085	50.1	633,913	23.2	1,998,998	73.3
	영아	1,401,020	796,499	56.9	-	-	796,499	56.9
	유아	1,325,947	568,586	42.9	633,913	47.8	1,202,499	90.7
2018	전체	2,904,953	1,415,742	48.7	675,998	23.3	2,091,740	72.0
	영아	1,534,121	843,764	55.0	-	-	843,764	55.0
	유아	1,370,832	571,978	41.7	675,998	49.3	1,247,976	91.0
2017	전체	3,044,577	1,450,243	47.6	694,631	22.8	2,144,874	70.4
	영아	1,638,243	862,237	52.6	-	-	862,237	52.6
	유아	1,406,334	588,006	41.8	694,631	49.4	1,282,637	91.2
2015	전체	3,187,718	1,452,813	45.6	682,553	21.4	2,135,366	67.0
	영아	1,791,262	864,596	48.3	-	-	864,596	48.3
	유아	1,396,456	588,217	42.1	682,553	48.9	1,270,770	91.0
2013	전체	3,264,476	1,486,980	45.6	658,188	20.2	2,145,168	65.7
	영아	1,854,265	874,975	47.2	-	-	874,975	47.2
	유아	1,410,211	612,005	43.4	658,188	46.7	1,270,193	90.1

주: 1) 전체아동수(주민등록 0~6세인구통계), 어린이집(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유치원(교육통계).
2) 영아와 유아 구분은 반 기준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20a).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시설 이용률. 내부자료 재인용.

3) 특수보육 현황

특수보육에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0~5세 보육 지원 외에 대상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아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이 포함된다.

가)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아 보육 지원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운영된다(보건복지부, 2021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21b).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모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지정받으며,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이용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502,0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교사 혹은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기준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0.5%에 해당하는 178개소에서 6,164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8%에 해당하는 1,280개소에서 5,417명의 아동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추이(2012-2021)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21	기관수	178	47	106	24	1	
	(비율)	(100.0)	(26.4)	(59.6)	(13.5)	(0.6)	(0.5)
	아동현원	6,164	1,512	3,964	696	10	
	(비율)	(100.0)	(24.5)	(64.0)	(11.3)	(0.2)	(0.5)
2020	기관수	177	46	106	24	1	
	(비율)	(100.0)	(26.0)	(59.9)	(13.6)	(0.6)	(0.5)
	아동현원	6,206	1,442	4,056	692	16	
	(비율)	(100.0)	(23.2)	(65.4)	(11.2)	(0.3)	(0.5)
2019	기관수	176	45	106	24	1	
	(비율)	(100.0)	(25.6)	(60.2)	(13.6)	(0.6)	(0.5)
	아동현원	6,301	1,396	4,173	716	16	
	(비율)	(100.0)	(22.2)	(66.2)	(11.4)	(0.3)	(0.5)
2018	기관수	177	44	108	24	1	
	(비율)	(100.0)	(24.9)	(61.0)	(13.6)	(0.6)	(0.5)
	아동현원	6,239	1,340	4,156	727	16	
	(비율)	(100.0)	(21.5)	(66.6)	(11.7)	(0.3)	(0.4)
2017	기관수	178	43	110	24	1	
	(비율)	(100.0)	(24.2)	(61.8)	(13.5)	(0.6)	(0.4)
	아동현원	6,161	1,783	4,127	724	18	
	(비율)	(100.0)	(28.9)	(67.0)	(11.8)	(0.3)	(0.4)
2016	기관수	177	42	109	25	1	
	(비율)	(100.0)	(23.7)	(61.6)	(14.1)	(0.6)	(0.4)
	아동현원	6,158	1,249	4,125	767	17	
	(비율)	(100.0)	(20.3)	(67.0)	(12.5)	(0.3)	(0.4)
2015	기관수	175	40	109	25	1	
	(비율)	(100.0)	(22.9)	(62.3)	(14.3)	(0.6)	(0.4)
	아동현원	5,895	1,156	4,020	701	18	
	(비율)	(100.0)	(19.6)	(68.2)	(11.9)	(0.3)	(0.4)
2014	기관수	174	37	109	27	1	
	(비율)	(100.0)	(21.3)	(62.6)	(15.5)	(0.6)	(0.4)
	아동현원	5,860	1,070	3996	776	18	
	(비율)	(100.0)	(18.3)	(68.2)	(13.2)	(0.3)	(0.4)
2013	기관수	172	36	107	28	1	
	(비율)	(100.0)	(20.9)	(62.2)	(16.3)	(0.6)	(0.4)
	아동현원	5,883	1,048	4010	810	15	
	(비율)	(100.0)	(17.8)	(68.1)	(13.8)	(0.3)	(0.4)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전체)
2012	기관수	171	34	107	28	2	
	(비율)	(100.0)	(19.9)	(62.6)	(16.4)	(1.2)	(0.4)
	아동현원	5,994	1,040	4105	813	36	
	(비율)	(100.0)	(17.4)	(68.4)	(13.6)	(0.6)	(0.4)

주: 1)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전체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대비 비율임.
2)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표에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표 Ⅱ-1-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추이(2012-2021)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2021	기관수	1,280	1,039	79	139	9	2	12	
	(비율)	(100.0)	(81.2)	(6.2)	(10.9)	(0.7)	(0.2)	(0.9)	(3.8)
	아동현원	5,417	4,131	433	816	12	4	21	
	(비율)	(100.0)	(76.3)	(8.0)	(15.1)	(0.2)	(0.1)	(0.4)	(0.5)
2020	기관수	1,211	980	73	135	11	2	10	
	(비율)	(100.0)	(80.9)	(6.0)	(11.1)	(0.9)	(0.2)	(0.8)	(3.4)
	아동현원	4,959	3,823	404	696	18	4	14	
	(비율)	(100.0)	(77.1)	(8.1)	(14.0)	(0.4)	(0.1)	(0.3)	(0.4)
2019	기관수	1,100	876	69	134	11	2	8	
	(비율)	(100.0)	(79.6)	(6.3)	(12.2)	(1.0)	(0.2)	(0.7)	(2.9)
	아동현원	4,568	3,470	394	656	22	4	22	
	(비율)	(100.0)	(76.0)	(8.6)	(14.4)	(0.5)	(0.1)	(0.5)	(0.3)
2018	기관수	1,000	768	71	139	12	2	8	
	(비율)	(100.0)	(76.8)	(7.1)	(13.9)	(1.2)	(0.2)	(0.8)	(2.6)
	아동현원	4,189	3,138	362	645	18	4	22	
	(비율)	(100.0)	(74.9)	(8.6)	(15.4)	(0.4)	(0.1)	(0.5)	(0.3)
2017	기관수	946	709	71	143	14	2	7	
	(비율)	(100.0)	(74.9)	(7.5)	(15.1)	(1.5)	(0.2)	(0.7)	(2.4)
	아동현원	4,066	3,007	360	653	22	4	20	
	(비율)	(100.0)	(74.0)	(8.9)	(16.1)	(0.5)	(0.1)	(0.5)	(0.3)
2016	기관수	911	667	71	150	15	1	7	
	(비율)	(100.0)	(73.2)	(7.8)	(16.5)	(1.6)	(0.1)	(0.8)	(2.2)
	아동현원	4,079	2,997	369	668	20	0	25	
	(비율)	(100.0)	(73.5)	(9.0)	(16.4)	(0.5)	–	(0.6)	(0.3)
2015	기관수	899	641	74	159	17	7	1	
	(비율)	(100.0)	(71.3)	(8.2)	(17.7)	(1.9)	(0.8)	(0.1)	(2.1)

구분		계	국공립	법인/법인 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2014	아동현원	3,929	2,854	367	667	23	17	1	
	(비율)	(100.0)	(72.6)	(9.3)	(17.0)	(0.6)	(0.4)	-	(0.3)
	기관수	872	605	77	167	18	1	4	
	(비율)	(100.0)	(69.4)	(8.8)	(19.2)	(2.1)	(0.1)	(0.5)	(2.0)
	아동현원	3,835	2,781	369	643	23	1	18	
	(비율)	(100.0)	(72.5)	(9.6)	(16.8)	(0.6)	-	(0.5)	(0.2)
2013	기관수	867	571	82	186	25	1	2	
	(비율)	(100.0)	(65.9)	(9.5)	(21.5)	(2.9)	(0.1)	(0.2)	(2.0)
	아동현원	3,689	2,643	363	620	50	1	12	
	(비율)	(100.0)	(71.6)	(9.9)	(16.8)	(1.4)	-	(0.3)	(0.2)
2012	기관수	836	527	85	195	26	1	2	
	(비율)	(100.0)	(63.0)	(10.1)	(23.3)	(3.1)	(0.1)	(0.2)	(2.0)
	아동현원	3,565	2,470	366	672	46	3	8	
	(비율)	(100.0)	(69.3)	(10.2)	(18.8)	(1.3)	(0.1)	(0.2)	(0.2)

주: 전체 비율은 해당 년도의 전체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 대비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나) 시간연장형 보육

2021년 기준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 것이며, 매월 60시간에 한하여 일반아동은 192,000원, 장애아동은 252,000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b).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의 아동으로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휴일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2021년 기준으로 시간연장형 보육은 전체 어린이집의 24.1%에 해당하는 8,087개소 어린이집에서 전체 아동의 0.2%의 비율을 차지하는 2,661명의 아동들이 이용하였다.

〈표 Ⅱ-1-6〉 시간연장형 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6-2021)

단위: 명(%), 개소

시·도	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전체 대비 비율)
2021년 전체					
아동 수	2,661	2,219	37	405	(0.2)
어린이집 수	8,087	7,648	292	147	(24.1)
2020년 전체					
아동 수	20,264	19,662	124	478	(1.6)
어린이집 수	8,219	7,769	298	152	(23.2)
2019년 전체					
아동 수	30,600	29,908	143	549	(2.2)
어린이집 수	8,480	8,015	312	153	(22.7)
2018년 전체					
아동 수	31,852	31,069	200	583	(2.2)
어린이집 수	8,647	8,104	309	234	(22.1)
2017년 전체					
아동 수	35,747	34,772	280	695	(2.5)
어린이집 수	8,803	8,245	306	252	(21.9)
2016년 전체					
아동 수	37,379	36,367	311	701	(2.6)
어린이집 수	8,854	8,296	300	258	(21.6)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나.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의 지역적 격차

1) 시·도별 격차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공급률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0년에는 전년도의 61.9%보다 상승한 63.6%로 나타났다.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급률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이 70%가 넘는 공급률을 보이는 반면,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은 50% 후반대의 공급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73.1%로 이전년도의 정원충족률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공급률이 비교적 낮은 부산, 인천, 울산과 같은 지역들은 정원충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Ⅱ-1-7〉 시·도별 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정원충족률(2011-2021)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인구수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유치원 이용률
전체	2,459,359	1,567,878	1,146,003	63.8	46.6	73.1	46.4
서울	388,348	237,330	181,183	61.1	46.7	76.3	36.2
부산	143,657	80,378	59,336	56.0	41.3	73.8	51.5
대구	108,920	62,864	44,027	57.7	40.4	70.0	59.4
인천	141,663	84,911	63,316	59.9	44.7	74.6	49.9
광주	73,019	50,015	32,613	68.5	44.7	65.2	58.4
대전	70,142	42,712	30,071	60.9	42.9	70.4	58.5
울산	60,256	34,863	26,439	57.9	43.9	75.8	50.5
세종	30,909	19,118	14,548	61.9	47.1	76.1	42.9
경기	720,503	443,471	340,068	61.6	47.2	76.7	44.1
강원	65,871	47,387	33,278	71.9	50.5	70.2	42.2
충북	76,650	57,895	40,590	75.5	53.0	70.1	40.3
충남	106,644	77,390	54,139	72.6	50.8	70.0	45.4
전북	76,412	56,205	37,191	73.6	48.7	66.2	49.9
전남	80,683	59,996	40,497	74.4	50.2	67.5	42.9
경북	116,798	78,494	52,487	67.2	44.9	66.9	55.7
경남	161,592	107,044	74,278	66.2	46.0	69.4	52.8
제주	37,292	27,805	21,942	74.6	58.8	78.9	32.8
2020	2,562,100	1,628,260	1,244,396	63.6	48.6	76.4	47.2
2019	2,726,967	1,686,873	1,365,085	61.9	50.1	80.9	47.8
2018	2,904,953	1,732,324	1,415,742	59.6	48.7	81.7	49.3
2017	3,044,577	1,756,603	1,450,243	57.7	47.6	82.6	49.4
2016	3,153,489	1,767,224	1,451,215	56.0	46.0	82.1	49.0
2015	3,187,718	1,790,821	1,452,813	56.2	45.6	81.1	48.9
2014	3,210,156	1,800,659	1,496,671	56.1	46.6	83.1	-
2013	3,264,476	1,782,459	1,486,980	54.6	45.6	83.4	-
2012	3,265,160	1,721,917	1,487,361	52.7	45.6	86.4	-
2011	3,212,933	1,621,948	1,348,729	50.5	42.0	83.2	-

주: 1) 보육 정원 및 보육 현원 중에는 초등학생이 일부 포함됨.
2) 유치원 이용률은 '유치원 현원/만4-6세 유아 수*100'으로 산출함.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1. 7. 기준).
2)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통계.
3) 교육통계(2021). 행정구역별 유치원 학생 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65&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2021.11. 기준).

2) 시·군·구별 격차

2021년 시·군·구의 어린이집 공급률 평균은 68.6%이나,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은 59.1%로 6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충북은 80.7%로 매우 높고, 충남 77.2%, 제주 76.6%, 강원 75.1% 공급률로 75%를 상회한다. 지역 내 격차도 큰 편인데, 부산은 최소가 43.2%, 최대가 119.4%이다. 특히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군·구 어린이집 공급률 최솟값은 각각 35.0%와 36.1%로 해당 행정구역 내 특정 지자체의 어린이집 공급률이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1-8〉 시·군·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2021)

단위: %

구분	보육 공급률			보육 이용률			국공립 공급률			국공립 이용률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68.6	35.0	119.4	47.3	23.7	82.2	16.4	-	55.4	12.6	-	38.6
서울	64.6	51.9	98.0	48.7	36.6	68.0	28.3	20.3	45.7	23.2	17.9	32.9
부산	61.3	43.2	119.4	44.6	36.5	82.2	16.3	6.0	46.7	12.5	5.4	27.7
대구	62.2	48.9	94.3	43.1	34.7	65.1	10.3	7.5	17.7	9.1	6.3	16.2
인천	63.2	35.0	84.7	45.2	31.0	52.2	17.5	7.0	55.4	12.9	5.7	32.2
광주	67.5	61.7	71.3	44.0	40.8	46.5	8.5	7.2	10.6	6.2	5.3	8.0
대전	64.6	52.2	73.5	44.2	39.3	48.5	9.1	3.9	17.6	7.3	3.5	12.7
울산	59.1	52.1	66.1	44.5	40.8	49.9	8.1	4.2	9.8	6.9	3.2	8.8
세종	61.9	61.9	61.9	47.1	47.1	47.1	14.5	14.5	14.5	12.1	12.1	12.1
경기	67.1	47.8	94.3	50.6	39.3	66.4	12.9	5.5	22.4	11.1	5.0	20.5
강원	75.1	63.5	101.4	51.0	42.3	62.6	19.7	5.1	49.6	14.8	3.5	38.6
충북	80.7	58.9	108.5	51.8	43.4	65.5	16.5	7.4	38.3	12.8	5.8	30.2
충남	77.2	59.2	94.7	50.5	42.2	62.5	10.0	3.4	20.2	7.1	2.5	13.7
전북	71.3	49.4	94.9	45.7	26.6	60.2	14.3	-	37.3	10.0	-	21.9
전남	74.8	52.4	107.8	45.8	24.2	64.6	17.3	3.8	54.3	12.1	2.1	31.8
경북	63.4	36.1	89.2	42.9	23.7	57.9	17.6	4.0	38.7	12.6	3.1	31.4
경남	69.0	58.3	99.6	47.1	35.7	65.2	18.3	5.7	43.0	13.5	4.1	28.7
제주	76.6	72.6	80.6	59.7	58.1	61.2	8.7	4.9	12.5	7.7	4.1	11.3

주: 1) 시·도의 각 시·군·구의 평균, 최소, 최대값이며, 대상 연령은 0~6세 이상임.
2) 통계 산출 단위의 통일성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각 시의 구별 통계를 시별 통계로 재산출하여 사용하였음.

자료: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1. 7. 기준).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2. 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이 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고지원 보육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대상의 비용지원은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대표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보육비용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국고 지원 보육 예산의 변화,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예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해야한다. 무상 보육을 제공받는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와,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3세 이상의 영유아에 해당된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항).

국고지원 보육 예산을 살펴보면, 국고지원 예산은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비용의 경우 2018년도에는 17.9%, 2021년도에는 27.1%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8년도에는 19.8%, 2021년도에는 12.8%로 대폭 감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비율은 1.0%로, 2018년도 1.1%의 비율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보육 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의 예산들은 전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은 2019-202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2018년과 유사한 비중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2-1〉 국고 지원 보육예산(2012-2021)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어린이집 운영지원[1]	423,152 (14.0)	444,463	467,111	496,945 (10.1)	816,618	901,852	987,744 (17.9)	1,186,829	1,424,169	1,614,123 (27.1)
보육료 지원	2,391,291 (79.0)	2,594,419	3,329,228	3,049,373 (61.7)	3,106,581	3,129,242	3,257,470 (59.2)	3,405,282	3,416,221	3,395,239 (57.0)
어린이집 기능 보강	11,867 (0.4)	7,595	7,144	6,787 (0.1)	6,447	6,447	5,802 (0.1)	10,527	19,777	6,866 (0.1)
보육 인프라 구축	15,377 (0.5)	38,490	18,268	16,661 (0.3)	23,202	16,902	17,745 (0.3)	20,199	25,491	21,438 (0.4)
어린이집 평가인증	6,026 (0.2)	6,668	8,600	9,800 (0.2)	7,653	7,856	8,226 (0.1)	11,786	17,021	18,183 (0.3)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등)	78,207 (2.6)	153,775	189,061	221,707 (4.5)	48,730	55,827	60,999 (1.1)	62,915	62,955	60,624 (1.0)
가정양육수당	102,646 (3.4)	880,950	1,215,319	1,101,768 (22.3)	1,219,200	1,224,184	1,089,137 (19.8)	892,330	815,717	760,779 (12.8)
기타[2]	-	20,265	39,088	40,953 (0.8)	42,393	31,141	78,108 (1.4)	79,846	91,430	82,451 (1.4)
전체	3,028,567 (100.0)	4,146,625	5,273,819	4,943,994 (100.0)	5,270,824	5,373,451	5,505,231 (100.0)	5,669,714	5,872,783	5,959,703 (100.0)

주: 1)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 인건비) 예산임.
2) 기타 항목은 시간차등형보육, 어린이집 확충 비용임.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68. 〈표 Ⅱ-2-1〉.

나. 보육비용 지원

1)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종일반 기준 만0세는 484,000원, 만1세는 426,000원, 만2세는 353,000원, 만3-5세는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이전 240,000원이며, 이후 260,000원이다.

〈표 Ⅱ-2-2〉 보육료 지원 대상/지원 단가(2021)

단위: 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 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0세 ('21.1.1~)	484,000	484,000	726,000
			만1세 ('21.1.1~)	426,000	426,000	639,000
			만2세 ('21.1.1~)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 ('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 ('21.3.1~)	260,000	260,000	390,000

자료: 1)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사업 안내. p. 349.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총 1,123,527명으로 나타났으며,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597,062명, 누리과정 지원 아동 수는 483,408명이다.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무상보육 이후 여전히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많지만, 공통적으로 2015년 이후로는 계속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문화아동 지원 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1,294명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기준 27,79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2-3〉 보육료 지원 아동 수(2009/2012-2021)

단위: 명

구분	합계	0~4세 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영아 (만0~2세)	누리 (만3~5세)	장애아 무상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다문화 아동	방과후
2009	794,755	671,721	107,951	-	-	15,083	(60,704)	-	-
2012	1,351,232	1,160,214	142,772	-	-	13,022	-	35,224	-
2013	1,474,645	-	-	847,885	575,704	11,967	-	35,521	3,568
2014	1,482,767	-	-	865,267	568,542	11,709	-	34,569	2,680
2015	1,438,167	-	-	841,233	550,848	11,540	-	32,593	1,953
2016	1,433,789	-	-	811,505	567,401	11,872	-	41,476	1,535
2017	1,431,940	-	-	828,638	548,441	11,689	-	42,009	1,163
2018	1,395,933	-	-	810,932	531,097	11,773	-	41,294	837
2019	1,343,679	-	-	762,754	526,748	12,116	-	41,424	637
2020	1,223,945	-	-	674,566	502,227	12,229	-	34,415	508
2021	1,123,527	-	-	597,062	483,408	12,547	-	27,793	425

주: 1) 2009~2010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아동은 차등보육료 지원 아동과 중복되므로 합계에서 제외하고, 2012년 방과후 보육지원 아동을 제외함.
2) 2009~2011년은 방과후 보육 지원 아동수를 별도 제시하지 않고 0~4세 보육료에 포함함.
3) 2013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아동 구분을 달리 제시함.

자료: 1) 보건복지부(각 연도). 각 연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7.31. 기준).
3)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4)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69-70. 〈표 Ⅱ-2-3〉.

보육료의 수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이들은 관할 지역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내년 2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b: 95).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 만3세아를 기준으로 최저 294,000원(울산)에서 최대 430,000원(서울)으로 나타났으며, 136,000원의 격차를 보인다. 만4~5세아는 최저 278,000원(울산)에서 최대 411,000원(서울)으로 133,000원의 격차를 보인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와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을 해야 하므로 보육료 상한액의 지역적 격차는 보육서비스의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표 Ⅱ-2-4〉 전국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21)

단위 : 원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서울	430,000	411,000	430,000	411,000	만0세: 484,000 만1세: 426,000 만2세: 353,000 만3세 ('21.1.1~2.28): 240,000 만3세 ('21.3.1~): 260,000 만4세 ('21.1.1~2.28): 240,000 만4세 ('21.3.1~): 260,000 만5세 ('21.1.1~2.28): 240,000 만5세 ('21.3.1~): 260,000
부산	333,000	318,000	333,000	318,000	
대구	333,000	317,000	339,000	327,000	
인천	366,000	352,000	366,000	352,000	
광주	325,000	313,000	341,000	329,000	
대전	344,000	326,000	344,000	326,000	
울산	294,000	278,000	310,000	291,000	
경기	353,000	330,000	356,000	356,000	
강원	335,000	316,000	348,000	337,000	
충북	346,000	326,000	353,000	346,000	
충남	357,450	345,260/ 354,720	367,600	360,480/ 354,720	
전북	330,000	317,000	332,000	319,000	
전남	344,000	325,000	358,000	346,000	
경북	339,000	321,000	344,000	326,000	
경남	334,000	317,000	350,000	342,000	
제주	323,790	315,020	323,790	315,020	
세종	324,000	306,000	323,000	310,000	

자료: 1) 서울특별시(2021). 2021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2) 부산광역시(2021). 2021 보육사업 시행계획.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21. 7. 16 인출).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21 인출).
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2021.7. 21 인출).
6)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7)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2021. 7. 21 인출).
8)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78935&bsIdx=469&bcIdx=0&menuId=1547&keyfield=SUBJECT&keyword=%EB%B3%B4%EC%9C%A1&page=1 (2021. 7. 21 인출).
9)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angw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0)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21. 7. 21 인출).
11)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54047&field01=30678&field02=A&mnu_cd=CNNMENU02364&searchCnd=0&searchWrd=%EB%B3%B4%EC%9C%A1%EC%A0%95%EC%B1%85&srtdate=20210101&enddate=2021072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1(2021. 7. 21 인출).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3001002001&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B%B3%B4%EC%9C%A1&categoryCode1=jeonbuk&dataSid=526042 (2021. 7. 21 인출).
13)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82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B%B3%B4%EC%9C%A1&pageIndex=1&boardId=J0203&displayHeader= (2021. 7.21 인출).
14)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네 (2021. 7.21 인출)
15)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C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38418(2021. 7. 21 인출).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행사비 등에 사용되는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보건복지부, 2021b:96),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아래 〈표 Ⅱ-2-5〉의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 종류와 수납한도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모두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필요경비와 수납한도액은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시도특성화비를 모두 합한 비용이 부모들이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료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들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5〉 전국 지역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 한도액(2021)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서울	100,000	정부지원 60,000 정부미지원 90,000	85,000/ 340,000	55,000	85,000	44,000	40,000
부산	110,000	국공립 70,000 국공립외 80,000	50,000/ 200,000	30,000	98,000	40,000	-
대구	국공립 90,000	국공립 50,000	35,000/ 140,000	30,000	10,000	40,000	30,000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년)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년)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도 특성화비(월)
	국공립 외 100,000	국공립 외 60,000					
인천	100,000	정부지원 55,000 정부미지원 60,000	0-1세 85,000/340,000 18개월이상 77,000/308,000	30,000	0-1세 85,000/340,000 18개월이상 77,000/308,000	40,000	77,000
광주	90,000	국공립 50,000 국공립 외 55,000	50,000/200,000	25,000	80,000	26,000	40,000
대전	95,000	60,000	60,000/240,000	25,000	90,000	38,000	30,000
울산	100,000	85,000	60,000/240,000	25,000	100,000	38,000	-
경기	100,000	51,390	105,000/200,000	29,000	200,000	40,000	34,500
강원	105,000	80,000	60,000/240,000	30,000	100,000	34,000	40,000
충북	100,000	정부지원 80,000 정부미지원 90,000	50,000/200,000	30,000	80,000	34,000	정부지원 40,000 정부미지원 45,000
충남	90,000	60,000	50,000/200,000	30,000	100,000	아침 20,000 저녁 30,000	30,000
전북	95,000	80,000	50,000/200,000	40,000	150,000	30,000	40,000
전남	100.000	국공립 70,000 국공립외 80,000	50,000/200,000	30,000	90,000/70,000	25,000	250,000 (년)
경북	100,000	80,000	45,000/180,000	23,000	80,000	18,000	25,000
경남	80,000	국공립·민간·가정 60.000 기타 65,000	30,000/120,000	25,000	100,000	30,000	국공립·기타 28,000 민간·가정 35,000
제주	85,000	70,000	40,000/160,000	30,000	120,000/30,000	30,000	20,000
세종	115,000	80,000	60,000/240,000	30,000	100,000	36,900	35,000

주: 1) 월 기준급식비는 지자체에서 1식 기준으로 제시한 경우, 충북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20일치로 환산하여 입력하였음.
2) 전남지역의 경우, 행사비목이 일반 행사비(90,000)와 앨범비(60,000)로 분리되어 있음. 시도특성화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년 기준으로 작성됨.
3) 제주지역의 경우, 행사비목이 일반 행사비(120,000)와 앨범비(30,000)로 분리되어 있음.

자료: 1) 서울특별시(2021). 2021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2) 부산광역시(2021). 2021 보육사업 시행계획.
3)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21. 7. 16 인출).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21 인출).
5)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2021.7. 21 인출).
6)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7)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2021. 7. 21 인출).
8)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78935&bsIdx=469&bcIdx=0&menuId=1547&keyfield=SUBJECT&keyword=%EB%B3%B4%EC%9C%A1&page=1 (2021. 7. 21 인출).
9)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angw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0)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21. 7. 21 인출).
11)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54047&field01=30678&field02=A&mnu_cd=CNNMENU02364&searchCnd=0&searchWrd=%EB%B3%B4%EC%9C%A1%EC%A0%95%EC%B1%85&srtdate=20210101&enddate=2021072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1(2021. 7. 21 인출).
12)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3001002001&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B%B3%B4%EC%9C%A1&categoryCode1=jeonbuk&dataSid=526042 (2021. 7. 21 인출).
13)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82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B%B3%B4%EC%9C%A1&pageIndex=1&boardId=J0203&displayHeader= (2021. 7.21 인출).
14)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네 (2021. 7.21 인출).
15)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6)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C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38418(2021. 7. 21 인출).

2) 가정양육수당 지원

2021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1b). 2021년도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월령별로 100,000원~200,000원이다. 급여액은 대상별로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아동에게 각각 200,000원, 177,000원, 156,000원, 129,000원을 지급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35개월 이하는 200,000원, 36개월 이상부터는 100,000원을 지급한다.

〈표 Ⅱ-2-6〉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지원 금액(2021)

단위: 개월,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0-35	200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36 이상~ 86 미만	100천원	48 이상~ 86 미만	100천원	36 이상~ 86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사업 안내. p. 371.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는 전 계층 확대에 따라 2013년 이후 3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도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503,557명으로 나타났다. 0세와 1세아가 각각 9.3%, 5.5%로 높고, 2세아는 1.7%, 3세아부터는 각 연령별로 1% 내외인 0.8~1.2%선이다.

〈표 Ⅱ-2-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0/2012-2021)

단위: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이상	계
2010 (전체아동 대비비율)	24,447 (5.45)	27,391 (6.17)	- -	- -	- -	- -	- -	51,838 (1.62)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이상	계
2012 (전체아동 대비비율)	37,727 (8.12)	44,128 (9.34)	18,486 (3.93)	1,178 (0.26)	573 (0.12)	381 (0.08)	180 (0.04)	102,653 (3.14)
2013 (전체아동 대비비율)	385,585 (11.81)	346,952 (10.63)	145,049 (4.44)	63,164 (1.93)	38,360 (1.18)	40,445 (1.24)	40,929 (1.25)	1,060,484 (32.49)
2014 (전체아동 대비비율)	383,389 (11.94)	309,908 (9.65)	145,075 (4.52)	60,126 (1.87)	39,152 (1.22)	34,803 (1.08)	39,883 (1.24)	1,012,336 (31.54)
2015 (전체아동 대비비율)	386,361 (12.12)	310,212 (9.73)	132,195 (4.15)	66,546 (2.09)	40,139 (1.26)	37,894 (1.19)	35,999 (1.13)	1,009,346 (31.66)
2016 (전체아동 대비비율)	363,178 (11.5)	305,911 (9.7)	117,302 (3.7)	47,840 (1.5)	34,711 (1.1)	30,609 (1.0)	33,602 (1.1)	933,153 (29.6)
2017 (전체아동 대비비율)	317,981 (10.4)	274,578 (9.0)	106,954 (3.5)	43,300 (1.4)	29,134 (1.0)	32,163 (1.1)	32,180 (1.1)	836,290 (27.5)
2018 (전체아동 대비비율)	291,106 (10.0)	236,328 (8.1)	88,440 (3.0)	39,719 (1.4)	28,089 (1.0)	28,401 (1.0)	33,594 (1.2)	745,677 (25.7)
2019 (전체아동 대비비율)	269,362 (9.9)	203,769 (7.5)	66,223 (2.4)	31,442 (1.2)	27,913 (1.0)	29,534 (1.1)	30,207 (1.1)	658,450 (24.1)
2020 (전체아동 대비비율)	243,132 (9.5)	187,316 (7.3)	64,249 (2.5)	34,313 (1.3)	32,688 (1.3)	37,356 (1.5)	43,041 (1.7)	642,095 (25.1)
2021 (전체아동 대비비율)	228,217 (9.3)	134,287 (5.5)	41,916 (1.7)	23,133 (0.9)	24,584 (1.0)	30,577 (1.2)	20,843 (0.8)	503,557 (20.5)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7.31. 기준).
3)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III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01 인구학적 특성
02 사회·경제적 특성
03 시사점

Ⅲ. 아동 가구와 가구원 특성

본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 부모, 아동 특성을 포함한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가구규모, 가구형태, 부모의 건강특성, 이주민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근로 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거주주택 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 인구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조사대상 가구의 규모, 형태 등 가구 특성, 연령·학력, 건강상태 등 부모 특성,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등 아동 특성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가구 특성

1) 가구 규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보육료 지원 가구 33.5%, 유아학비 지원 가구 28.0%, 가정양육수당 지원가구 27.4%, 그리고 복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11.1%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수령 가구가 각각 약 3%p정도 증가한 비율이고 보육료와 다중복합지원 가구 비율은 낮아진 수치이다.

가구원 수가 3인인 가구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가구 41.1%로 두 유형이 비슷한 분포였다. 2018년 조사에 비해 3인 가구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1인자녀 가정 수가 많이 포함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5인 가구 12.6%, 6인 가구 3.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46.6%는 자녀가 1명이었으며, 2명은 42.0%, 3명 이상은 11.4%였다.

〈표 Ⅲ-1-1〉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 특성

단위: %(가구),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지원유형													
보육료	30.1	33.6	33.5	32.1	33.7	33.1	36.2	33.8	33.0	33.4	35.2	33.5	35.7
유아학비	0.2	0.3	0.3	0.3	41.6	44.1	39.3	42.3	27.7	28.9	26.1	28.0	24.4
양육수당	48.9	47.6	46.9	48.0	9.5	7.6	9.9	8.8	28.0	26.8	27.5	27.4	24.8
복합지원	20.8	18.5	19.3	19.6	15.1	15.2	14.6	15.1	11.3	10.9	11.2	11.1	15.1
가구원수													
2명	0.4	0.5	3.5	0.9	1.1	1.2	1.5	1.2	0.9	1.0	2.6	1.2	1.3
3명	53.3	49.8	45.6	50.6	31.3	26.1	24.8	28.1	44.8	40.3	37.1	41.7	36.1
4명	35.9	35.1	32.9	35.1	49.8	52.2	51.1	51.0	40.6	41.7	40.8	41.1	41.0
5명	7.9	12.2	11.9	10.4	13.4	16.5	18.4	15.5	10.6	13.8	14.5	12.6	15.1
6명 이상	2.5	2.4	6.1	3.0	4.4	3.9	4.3	4.2	3.1	3.2	5.0	3.4	6.4
평균	3.6	3.7	3.7	3.6	3.9	4.0	4.0	3.9	3.7	3.8	3.8	3.8	3.9
(표준편차)	(0.8)	(0.8)	(1.0)	(0.8)	(0.8)	(0.9)	(0.9)	(0.9)	(0.8)	(0.9)	(0.9)	(0.9)	(1.0)
자녀수													
1명	57.2	55.2	54.2	55.9	36.1	28.7	28.1	31.7	49.9	44.5	43.8	46.6	41.1
2명	36.4	34.7	33.5	35.2	52.6	55.2	51.9	53.6	41.8	42.7	40.7	42.0	44.3
3명 이상	6.4	10.1	12.3	8.9	11.3	16.1	20.0	14.7	8.3	12.8	15.5	11.4	14.6
영아													
없음	–	–	–	–	82.3	81.6	80.8	81.7	54.7	53.5	53.7	54.1	52.5
1명	91.6	92.5	90.4	91.8	17.2	17.9	18.4	17.7	41.4	43.0	41.9	42.2	43.5
2명 이상	8.4	7.5	9.6	8.2	0.6	0.5	0.8	0.6	3.8	3.5	4.4	3.8	4.0
유아													
없음	73.9	74.0	72.4	73.7	–	–	–	–	33.4	34.4	33.5	33.9	31.6
1명	25.2	24.3	25.6	24.9	88.0	85.2	83.9	86.2	58.6	55.9	55.8	57.0	59.2
2명 이상	0.9	1.7	2.0	1.4	12.0	14.8	16.1	13.8	8.0	9.7	10.7	9.2	9.2
초등학생													
없음	90.6	89.0	89.0	89.7	67.7	71.1	67.4	69.1	75.6	77.0	75.3	76.2	68.4
1명	8.4	9.0	9.6	8.8	27.9	24.3	28.5	26.5	21.2	19.0	21.4	20.3	26.1
2명 이상	1.0	2.0	1.4	1.5	4.4	4.6	4.1	4.4	3.2	3.9	3.3	3.5	5.5
중학생 이상													
없음	98.0	98.0	96.0	97.7	95.5	97.4	94.2	96.1	96.2	97.4	94.7	96.5	93.4
1명	1.7	1.0	1.2	1.3	3.5	1.8	5.2	3.1	3.0	1.7	3.6	2.5	4.1
2명 이상	0.3	1.0	2.8	1.0	1.0	0.8	0.6	0.8	0.8	1.0	1.7	1.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5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p. 80-81. 〈표 Ⅲ-1-1〉.

2) 가구 형태

가구 형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부부+자녀로 이뤄진 경우가 89.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부모+부모+자녀가 4.0%, 한조부모+부모+자녀가 3.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2018년도에 비해 부부+자녀의 가구형태 비율은 5.7%p 높아져서 유일하게 이전 연도보다 많은 수가 포함되었고, 조부모 또는 한조부모와 함께 사는 세대는 모든 형태가 줄어들었다. 2021년 조사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가정형태의 수가 매우 소수로 포함되어 있다.

〈표 Ⅲ-1-2〉 가구의 가구형태 특성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조부모+부모+자녀	3.9	2.1	6.3	3.5	6.0	3.2	4.1	4.5	4.9	2.8	5.3	4.0	4.8	4.1
조부모+한부모+자녀	0.2	1.5	0.4	0.8	1.2	1.9	1.2	1.5	0.9	2.0	1.0	1.4	1.4	1.3
한조부모+부모+자녀	3.1	3.4	2.4	3.1	4.0	2.5	1.9	3.0	3.6	2.9	2.3	3.1	5.6	6.3
한조부모+한부모+자녀	0.6	0.2	-	0.3	-	0.3	-	0.1	0.3	0.2	-	0.2	1.2	0.7
부부+자녀	91.2	92.2	86.4	90.9	86.5	89.5	89.0	88.2	88.7	90.2	87.4	89.1	83.4	86.1
어머니 한부모+자녀	0.6	0.5	4.5	1.2	1.5	2.1	3.8	2.1	1.1	1.6	4.1	1.8	2.6	1.0
아버지 한부모+자녀	0.3	-	-	0.1	0.6	0.3	-	0.4	0.5	0.2	-	0.3	0.4	0.2
(한)조부모+자녀	0.1	-	-	-	0.1	0.3	-	0.1	0.1	0.2	-	0.1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552)	(475)	(204)	(1,231)	(2,593)	(2,5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1. 〈표 Ⅲ-1-2〉.

3) 동거 가구원 특성

동거가구원 특성을 살펴보면 모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99.2%, 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96.4%였다. 모 이외에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가구원은 외조모로 4.6%였으며 친조모 3.3%, 외조부 2.6% 순이었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기존 연도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조부 또는 조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대체로 낮아져 읍·면 지역 친조모 동거비율이 5.2% 정도였다. 예년에 비해 부모 동거비율이 높다.

〈표 Ⅲ-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별 동거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98.1	97.7	94.4	97.4	97.0	95.3	95.5	96.1	97.4	95.9	94.9	96.4	94.9	97.4
모	99.5	100.0	100.0	99.8	98.7	98.6	99.6	98.8	99.0	99.1	99.7	99.2	98.3	98.7
친조부	1.7	0.7	4.1	1.7	2.8	1.0	2.8	2.0	2.2	0.9	3.7	1.9	4.6	4.1
친조모	3.6	1.6	4.5	2.9	4.6	1.8	5.0	3.5	4.3	1.7	5.2	3.3	7.7	7.1
외조부	1.2	2.7	2.3	2.0	2.5	3.8	1.9	2.9	2.0	3.5	2.0	2.6	2.9	2.6
외조모	3.5	5.1	2.8	4.1	5.3	5.3	2.0	4.8	4.3	5.6	2.5	4.6	4.6	4.7
부모형제자매	0.6	0.9	2.4	1.0	0.4	1.1	0.9	0.8	0.5	1.0	1.6	0.9	1.1	1.0
부모형제자매 자녀	–	1.0	–	0.4	0.3	–	–	0.1	0.2	0.5	–	0.3	0.2	0.3
조부모형제자매	–	–	0.4	0.1	–	0.2	–	0.1	–	0.1	0.2	0.1	–	0.1
기타친족	–	0.1	–	–	–	0.1	–	–	–	0.1	–	–	0.4	0.2
비혈연	–	–	–	–	0.5	–	–	0.2	0.4	–	–	0.1	0.2	0.2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533)	(2,5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2. 〈표 Ⅲ-1-3〉.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중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전체 가구에서 1.5~2.0%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질병이 있는 경우가 1.2%였다.

〈표 Ⅲ-1-4〉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장애 및 질병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장애	질병	장애·질병	없음	모름	전체 (수)	장애	질병	장애·질병	없음	모름	전체 (수)	장애	질병	장애·질병	없음	모름	전체 (수)
부	0.2	0.4	0.1	99.2	–	100 (1,203)	1.1	1.5	0.1	97.2	0.1	100 (1,685)	0.7	1.2	0.1	97.9	0.1	100 (2,426)
모	0.1	0.4	0.1	99.3	0.1	100 (1,229)	0.7	0.9	0.3	97.8	0.1	100 (1,811)	0.5	0.7	0.3	98.4	0.1	100 (2,48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부모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Ⅲ-1-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7세, 36.1세였다. 조사대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 2012년 37.1세, 34.2세에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1년 조사에 포함된 집단은 2018년보다 아버지는 0.9세, 어머니는 0.5세 평균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는 유배우자 비율이 99.3%, 사별·별거·이혼한 비율이 0.7%였으며, 모의 경우는 유배우자 비율이 96.7%, 사별·별거·이혼 비율이 3.0%, 미혼모 비율이 0.3%였다.

4년제 대학 졸업한 비율이 부의 경우는 51.1% 모는 48.3%였다. 이전 연도 조사 결과에 비해 고졸이 적어지고 3년제 이하 대학이나 4년제 졸업 학력자가 많아졌다. 또한 대학원 졸업도 부모 각각 7.3%, 7.0%로 상당히 높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9%에 가까운 부모가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1-5〉 영유아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세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연령								
29세 이하	2.7	3.9	4.3	3.4	6.1	8.6	10.4	7.8
30~34세	14.5	18.0	12.9	15.7	27.5	28.3	24.8	27.4
35~39세	39.7	36.6	40.5	38.5	43.0	40.6	41.7	41.8
40~44세	30.7	31.3	30.9	31.0	20.0	20.2	19.5	20.0
45세 이상	12.4	10.3	11.4	11.4	3.4	2.3	3.5	3.0
평균(표준편차)	38.8(4.9)	38.5(5.0)	38.9(5.3)	38.7(5.0)	36.3(4.5)	35.9(4.8)	36.0(5.0)	36.1(4.7)
2018년	39.0(4.7)	39.5(5.5)	40.5(6.2)	39.6(5.5)	36.6(4.3)	36.8(4.8)	36.4(5.2)	36.6(4.7)
2015년	38.5(4.6)	38.9(5.1)	39.1(5.0)	38.8(4.9)	36.5(4.2)	36.3(4.4)	36.2(4.7)	36.4(4.4)
2012년	37.6(5.3)	36.5(4.9)	37.0(5.8)	37.1(5.3)	34.7(4.4)	34.0(4.5)	33.2(4.8)	34.2(4.6)
결혼상태								
유배우	99.2	99.3	99.5	99.3	97.7	96.3	95.3	96.7
미혼	-	-	-	-	0.1	0.4	0.6	0.3
사별·별거·이혼	0.8	0.7	0.5	0.7	2.2	3.3	4.1	3.0
학력								
무	-	-	-	-	0.1	-	-	-
초	0.2	-	-	0.1	0.3	0.2	-	0.2
중	0.6	1.6	1.3	1.1	0.7	1.7	2.4	1.4
고	16.1	23.1	29.5	21.1	16.4	19.3	27.5	19.4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3년제 대학	17.2	20.9	20.3	19.3	20.5	25.5	27.4	23.7
4년제 대학	57.2	48.3	42.0	51.1	53.5	46.8	38.3	48.3
대학원 이상	8.8	6.1	6.9	7.3	8.5	6.6	4.4	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1,115)	(921)	(390)	(2,426)	(1,135)	(943)	(406)	(2,48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3. 〈표 Ⅲ-1-4〉.

2) 건강 특성

조사대상가구 부모의 건강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7.9%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는 0.7%, 질병이 있는 가구는 1.2%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가구는 0.1%였다. 모의 건강이 양호한 가구는 98.4%였으며 장애가 있는 가구는 0.5%, 질병이 있는 가구는 0.7%였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부와 모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Ⅲ-1-6〉 영유아 부모의 건강 특성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장애	0.3	0.2	0.3	0.2	1.1	1.1	0.8	1.1	0.8	0.7	0.6	0.7	1.2	0.6
질병	–	0.7	0.8	0.4	0.6	2.3	2.1	1.5	0.4	1.7	1.7	1.2	1.3	0.8
장애 및 질병	0.2	0.1	–	0.1	–	0.2	0.3	0.1	0.1	0.1	0.2	0.1	0.1	0.1
양호	99.5	99.0	98.9	99.2	98.2	96.4	96.6	97.2	98.6	97.5	97.3	97.9	97.5	97.9
모르겠음	–	–	–	–	0.2	–	0.2	0.1	0.1	–	0.1	0.1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42)	(467)	(194)	(1203)	(778)	(637)	(270)	(1,685)	(1115)	(921)	(390)	(2426)	(2,421)	(2,523)
모														
장애	0.2	0.1	–	0.1	0.6	0.9	0.8	0.7	0.5	0.6	0.6	0.5	0.4	0.3
질병	–	0.6	1.0	0.4	0.5	1.1	1.6	0.9	0.3	0.8	1.5	0.7	0.8	0.5
장애 및 질병	–	0.3	–	0.1	–	0.8	–	0.3	–	0.6	–	0.3	–	0.2
양호	99.6	99.0	99.0	99.3	98.7	97.3	97.3	97.8	98.9	98.0	97.8	98.4	98.8	99.0
모르겠음	0.2	–	–	0.1	0.3	–	0.2	0.1	0.2	–	0.1	0.1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0)	(475)	(204)	(1,229)	(795)	(652)	(279)	(1,726)	(1135)	(943)	(406)	(2484)	(2,495)	(2,55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4. 〈표 Ⅲ-1-5〉.

3) 이주민가족 부모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이주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이주민인 가구비율은 4.3%였으며 아버지가 이주민인 가구 비율은 1.0%로 2018년 조사보다는 이주민 가구비율이 부는 동일한 수준이고 모는 2.2%p 줄어들었다. 모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 비율이 5.7%로 높으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도 4%이상이어서 상당히 지역별로 고르게 이주민이 분포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영유아 가구의 이민자 가구 비율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부	0.7	0.2	0.6	0.5	1.7	0.8	1.9	1.4	1.3	0.5	1.3	1.0	1.0	0.5
모	4.6	5.0	5.3	4.9	3.5	3.8	6.1	4.0	4.0	4.2	5.7	4.3	6.5	2.6
(수)	(621)	(530)	(236)	(1,387)	(1,200)	(1,044)	(456)	(2,700)	(1,569)	(1,344)	(591)	(3,504)	(2,533)	(2,5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5. 〈표 Ⅲ-1-6〉.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는 중국이 총 26.5%, 미국/유럽 등이 31.3%, 베트남 18.6% 등이 많은 비율을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미주/유럽/대양주 출신과 중국 출신이 많았고 읍·면지역은 베트남,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Ⅲ-1-8〉 이주민 가구 아버지의 출신지

단위: %(가구)

구분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베트남	그 외 동남아시아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미주/유럽/대양주	기타	계(수)
전체	15.8	10.7	6.3	18.6	4.6	8.4	31.3	4.4	100.0 (24)
지역규모									
대도시	27.7	-	-	5.2	4.5	-	54.9	7.7	100.0 (13)
중소도시	-	46.2	10.3	34.8	-	8.7	-	-	100.0 (5)
읍·면지역	-	-	19.5	38.1	10.4	32.0	-	-	100.0 (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는 독보적으로 필리핀이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22.6% 수준이었다. 어머니가 필리핀 출신인 가구는 읍면지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표 Ⅲ-1-9〉 이주민 가구 어머니의 출신지

단위: %(가구)

구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 아시아	남부 아시아	몽골/ 러시아/ 중앙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계	(수)
전체	22.1	0.5	5.0	3.4	48.9	6.1	4.0	7.7	0.8	1.5	100.0	(117)
지역규모												
대도시	29.7	1.2	3.1	7.0	31.9	7.0	9.3	4.8	2.1	3.8	100.0	(48)
중소도시	20.0	–	6.8	1.2	57.3	5.2	1.2	8.3	–	–	100.0	(40)
읍·면지역	12.3	–	4.7	1.2	63.6	6.2	–	11.9	–	–	100.0	(2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아동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아동 중 남아와 여아는 각각 1,711명(48.8%), 1,793명(51.2%)으로, 여아가 2.4%p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과 대도시에서 남아 비율이 조금 높은 반면 중소도시에는 여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유아가구와 영아가구 간 성비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Ⅲ-1-10〉 지역별 영유아의 성별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남자	419	338	158	915	595	466	221	1,282	798	617	296	1,711	1,960	1,861
여자	421	396	164	981	573	539	217	1,329	771	727	295	1,793	1,918	1,776
(수)	(621)	(530)	(236)	(1,387)	(1,200)	(1,044)	(456)	(2,700)	(1,569)	(1,344)	(591)	(3,504)	(3,878)	(3,6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8. 〈표 Ⅲ-1-10〉.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아가 59.2%였으며, 둘째 33.2%, 셋째 6.8%, 넷째 0.8%의 순으로 많았다. 2018년도에는 첫째아의 비율이 77.3%였고 둘째는 21.3%였으므로, 2018년도 조사에 비해 첫째아의 비율이 18.1%p이상 감소하고 둘째아와 셋째아의 비율이 늘어났다.

〈표 Ⅲ-1-11〉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

단위: %(명)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수)
전체	59.2	33.2	6.8	0.8	100.0(3,504)
영유아구분					
영아	59.9	32.4	6.8	0.9	100.0(1,387)
유아	58.8	33.7	6.7	0.8	100.0(2,117)
연령					
0세	62.2	30.2	6.1	1.5	100.0(429)
1세	62.6	31.3	5.7	0.4	100.0(520)
2세	54.0	36.2	8.8	1.0	100.0(438)
3세	55.0	36.6	7.2	1.2	100.0(443)
4세	57.2	35.2	6.9	0.7	100.0(558)
5세이상	60.9	32.0	6.5	0.7	100.0(623)
지역규모					
대도시	58.9	34.6	6.0	0.5	100.0(1,569)
중소도시	60.4	32.0	7.0	0.7	100.0(1,344)
읍·면	56.9	32.9	8.3	1.9	100.0(591)
모 취업여부					
취업	57.1	35.8	6.4	0.7	100.0(1,352)
휴직중	67.9	26.2	5.1	0.8	100.0(435)
미취업	58.6	32.9	7.5	1.0	100.0(1,686)
부재 등	57.5	32.2	10.3	-	100.0(13)
2018년	77.3	21.3	1.4	0.1	100.0(3,878)
2015년	51.6	38.5	8.5	1.3	100.0(3,560)
2012년	51.4	39.4	8.4	0.8	100.0(3,34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88. 〈표 Ⅲ-1-11〉.

2) 아동의 건강 특성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장애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율은 0.7%, 질병이 있는 비율은 0.5%, 장애 및 질병이 있는 비율은 0.1%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의 영유아 가구가 장애영유아가 있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자녀의 장애에 대한 지각의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더 높고 점검 환경이 도시에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Ⅲ-1-12〉 지역별 영유아의 건강상태

단위: %(명)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장애	0.3	1.2	0.3	0.7	0.5	1.1	0.3	0.7	0.4	1.2	0.3	0.7
질병	0.2	0.3	1.3	0.4	0.2	1.0	0.3	0.5	0.2	0.7	0.7	0.5
장애 및 질병	0.1	–	–	0.1	0.1	–	0.3	0.1	0.1	–	0.2	0.1
양호	99.0	98.5	98.4	98.7	99.3	97.9	98.7	98.6	99.1	98.1	98.4	98.6
무응답	0.4	–	–	0.1	–	0.1	0.5	0.1	0.1	–	0.4	0.1
(수)	(621)	(530)	(236)	(1,387)	(1,200)	(1,044)	(456)	(2,700)	(1,569)	(1,344)	(591)	(3,50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사회·경제적 특성

본 절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근로특성,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육아휴직 이용 경험 등 사회·경제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의 취업 및 근로 특성

1) 부와 모의 취업 상태

최연소 영유아 연령 구분별 부와 모의 취업상태 현황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95.2%(휴직포함), 모의 취업률은 54.1%(휴직포함)이었다. 2018년도 조사결과 모의 취업률은 51.3%인데 비해 취업모 비율이 높았다. 부의 경우는 2018년에 비해 휴직 중인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높아진 영향과 코로나로 인한 업무 특성상 휴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부의 취업률은 자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14.5%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에 51%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최연소 영유아 연령구분별 부 또는 모의 취업 상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취업 (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취업 (근로)	휴직중	미취업	부재, 모름	전체 (수)
전체	93.5	1.7	1.4	3.4	(2,500)	41.0	13.1	44.9	1.0	(2,500)
최연소 자녀										
영아	94.2	1.9	1.4	2.5	(1,231)	28.3	20.8	50.5	0.5	(1,231)
유아	92.9	1.5	1.4	4.2	(1,269)	51.9	6.5	40.2	1.4	(1,269)
연령										
0세	96.0	2.1	0.7	1.2	(415)	14.5	35.1	50.0	0.4	(415)
1세	95.2	1.7	1.3	1.8	(467)	29.9	15.7	54.0	0.4	(467)
2세	90.7	1.9	2.4	5.0	(349)	42.8	10.3	46.3	0.6	(349)
3세	91.4	2.0	3.0	3.5	(306)	51.3	4.2	43.3	1.2	(306)
4세	93.7	1.5	0.8	4.0	(360)	50.3	7.6	41.0	1.0	(360)
5세이상	93.1	1.3	1.1	4.5	(603)	53.0	6.9	38.5	1.7	(603)
2018년	94.8	0.7	1.3	3.2	100.0 (2,533)	44.2	7.1	47.2	1.4	100.0 (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92. 〈표 Ⅲ-2-1〉.

2) 부모의 직업

영유아 가구의 부모의 직종 특성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사무종사자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기능 종사자 18.8%, 서비스 종사자 10.6% 순이었다. 대도시일수록 사무종사자가 많고 읍면지역은 27.2%였다. 2018년 조사 대비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아졌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가 12.3%에서 6.4%로 감소되었다. 농촌에서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의 비율이 높았다.

모의 경우 미취업 상태가 45.4%이므로 54.6%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018년(52%)이나 2015년(40.2%)보다 더 높아진 취업률을 보인다. 사무종사자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4%,

서비스 종사자 9.4% 순이었다. 모의 경우 2018년도 조사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한 만큼 사무종사자의 비율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지역 규모별로 모의 미취업률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47.7%)이 대도시(45.6%)나 중소도시(44.3)보다 높았다.

〈표 Ⅲ-2-2〉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8년	2015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8년	2015년
관리자	7.2	7.7	8.8	7.7	6.9	5.7	0.9	1.5	2.1	1.4	1.5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5	19.0	16.1	18.8	14.4	11.6	13.5	14.9	8.6	13.4	10.1	7.6
사무 종사자	37.5	35.1	27.2	34.9	32.7	36.3	24.7	22.9	19.9	23.2	22.0	15.2
서비스 종사자	11.2	10.3	10.0	10.6	10.8	11.4	8.8	10.2	8.6	9.4	9.4	8.9
판매 종사자	7.8	4.4	4.4	5.8	5.5	7.0	3.2	1.9	4.2	2.8	4.0	3.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5	0.8	4.5	1.3	5.0	1.6	0.3	–	2.9	0.6	2.0	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0	7.6	6.7	6.4	12.3	12.6	0.2	0.3	1.0	0.4	0.8	1.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5.4	9.3	12.6	8.2	5.8	8.0	0.2	0.7	0.7	0.5	0.4	0.8
단순노무 종사자	2.1	3.3	4.3	2.9	2.2	2.2	0.8	1.3	4.1	1.5	1.6	1.5
군인	0.4	1.0	3.5	1.1	3.1	0.9	–	–	0.1	–	0.2	0.4
미취업	1.8	1.1	1.7	1.5	1.2	2.0	45.6	44.3	47.7	45.4	48.0	59.1
모름, 무응답	1.7	0.3	0.1	0.9	–	0.7	1.7	1.9	–	1.5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5)	(921)	(390)	(2,426)	(2,523)	(2,472)	(1128)	(940)	(406)	(2,474)	(2,556)	(2,50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93. 〈표 Ⅲ-2-2〉.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는 '보육·교육비 지원유형'에 따라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특성을 살펴 본 결과, 지원유형에 따라 부모의 직종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모의 경우 양육수당이나 복수의 복합지원을 받는 경우에 취업률이 낮았다.

〈표 Ⅲ-2-3〉 지원유형별 영유아 가구 부모의 직종 특성

단위: %(명)

구분	부					모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복합 지원	전체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복합 지원	전체
영유아 가구										
관리자	8.1	8.0	6.9	7.8	7.7	1.8	1.7	0.4	1.6	1.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4	20.0	19.5	20.7	18.8	13.8	15.0	11.3	13.4	13.4
사무종사자	34.7	35.8	35.6	31.6	34.9	23.5	23.9	23.6	19.6	23.2
서비스종사자	12.1	9.7	10.5	9.1	10.6	11.7	10.8	6.2	6.7	9.4
판매종사자	5.5	5.5	6.5	6.2	5.8	3.5	3.8	1.1	2.3	2.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	1.6	0.7	1.1	1.3	0.7	0.3	0.7	0.2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7	5.8	7.4	7.2	6.4	0.1	0.8	0.4	-	0.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4	8.1	7.2	7.1	8.2	1.1	0.3	0.2	-	0.5
단순노무종사자	3.5	2.4	2.0	4.8	2.9	2.0	2.2	0.5	0.9	1.5
군인	1.1	1.0	1.2	1.2	1.1	0.1	-	-	-	-
미취업	0.9	1.4	1.9	2.3	1.5	40.6	39.7	53.5	53.9	45.4
모름. 무응답	1.1	0.8	0.7	0.9	0.9	1.1	1.5	2.1	1.5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89)	(617)	(576)	(444)	(2,426)	(815)	(629)	(582)	(448)	(2,47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조사대상 가구의 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71.5%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21.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3%였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읍면지역 거주 부가 73.6%로 비교적 높았고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비율은 중소도시가 22.4%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에서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의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68.9%,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13.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7%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모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3.5%로 상당히 높고 읍면지역이 58.1%로 이 항목에서 가장 낮

았다. 읍·면지역인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형태를 살펴 본 결과, 부의 경우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비율이 90.0%%로 가장 높았고, 특히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91.1%로 가장 높았으며, 모의 경우에도 부와 유사하게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응답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다. 부와 모 모두 전반적으로 대도시 거주의 경우 규칙적으로 출퇴근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 취업 영유아 부모의 종사상 지위 및 근무형태

단위: %(명)

구분	부					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8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8년
종사상 지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21.2	22.4	19.7	21.5	24.1	11.1	14.0	15.5	13.0	6.6
정규직 임금근로자	71.6	70.6	73.6	71.5	68.5	73.5	68.3	58.1	68.9	32.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7	6.2	5.5	6.3	5.7	11.2	13.3	14.9	12.7	8.5
무급가족종사자	0.3	0.5	0.2	0.4	0.4	2.3	1.9	8.6	3.0	4.1
무직	–	–	0.1	–	1.2	–	–	–	–	47.9
모름	0.2	0.2	0.8	0.3	–	2.0	2.4	2.9	2.3	–
근무형태										
규칙적으로 출퇴근	91.1	89.8	87.2	90.0	87.6	62.6	60.6	55.2	60.6	35.7
불규칙하게 출퇴근	6.5	7.3	7.4	7.0	7.0	9.6	12.3	13.2	11.3	6.4
출퇴근하지 않음	0.7	1.3	3.9	1.4	3.4	3.1	3.6	7.6	4.0	2.8
휴직 중	1.6	1.6	1.6	1.6	0.8	24.6	23.5	24.0	24.1	7.2
무직(전업주부 포함)	–	–	–	–	1.2	–	–	–	–	47.9
모름	–	0.1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00)	(911)	(386)	(2,397)	(2,464)	(581)	(504)	(217)	(1,302)	(2,50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95-96. 〈표 Ⅲ-2-5〉.

4) 취업부모의 근로시간

취업 부모의 근로시간 시간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46시간 24분, 일일 근로시간은 평균 10시간 48분이었다. 모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38시간이었으며 평일 일일 근로 소요시간은 8시간 36분이었다. 부

의 경우 주 기준 근로시간은 대도시 46시간 6분, 읍·면지역이 46시간 24분으로 읍·면지역에서 주당 근로 시간이 18분정도 더 길었다. 모의 경우에는 평일 근로소요시간은 대도시가 길었고 유아보다는 영아 모가 6분정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부와 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평일 근로소요시간이 2018년에 비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근로시간은 2018년도에 비해 일일 평균 24분 정도, 주당 평균 1시간 42분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3년이라는 시간 간격 동안 주 최대 52시간 근로 준수 정책과 2020년, 2021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근로시간 축소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015년과 2018년 사이의 시간 감소에 비해서는 오히려 근로시간 감소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Ⅲ-2-5〉 취업부모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및 주당 근로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부			모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 시간	(수)	평일 근로 소요 시간	주당 근로시 간	(수)
전체	10시간 48분	46시간 24분	(2,270)	8시간 36분	38시간 0분	(94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0시간 42분	46시간 6분	(1,123)	8시간 42분	38시간 0분	(318)
유아	10시간 54분	46시간 42분	(1,147)	8시간 36분	37시간 54분	(627)
지역규모						
대도시	10시간 42분	46시간 6분	(1,049)	8시간 48분	38시간 0분	(421)
중소도시	10시간 54분	46시간 48분	(861)	8시간 36분	37시간 54분	(374)
읍·면	10시간 42분	46시간 24분	(360)	8시간 24분	37시간 54분	(150)
2018년	11시간 12분	48시간 6분	(2,434)	8시간 54분	39시간 18분	(1,272)
2015년	11시간 48분	50시간 42분	(2,494)	9시간 24분	40시간 36분	(905)
2012년	12시간 6분	50시간 50분	(2,418)	9시간 12분	40시간	(8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97. 〈표 Ⅲ-2-6〉.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토요일 근무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라는 응답 비율이 60.3%, 매주 전일 근무한다가 17.0%, 격주 전일 근무한다가 10.7% 순이었다. 모의 경우에는 휴무가 74.6%, 매주 전일 근무한다가 10.4%, 격주 전일 근무한다가 5.5%였다. 부모 모두 읍·면지역이 매주 전일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일한 맥락에서 매주 토요일 휴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다.

〈표 Ⅲ-2-6〉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토요일 근무여부

단위: %(명)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전체	17.0	6.2	10.7	4.0	60.3	1.7	100.0 (2,354)	10.4	4.5	5.5	3.2	74.6	1.7	100.0 (1,00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6.1	7.4	12.5	4.7	57.5	1.8	100.0 (1,164)	10.5	4.8	7.6	3.6	71.4	2.2	100.0 (345)
유아	17.8	5.2	9.1	3.4	62.8	1.6	100.0 (1,190)	10.4	4.4	4.5	3.1	76.1	1.5	100.0 (663)
지역규모														
대도시	17.0	6.3	9.6	4.5	61.5	1.2	100.0 (1,080)	8.1	4.3	4.8	3.1	77.3	2.3	100.0 (447)
중소도시	16.0	7.2	12.1	3.1	59.8	1.8	100.0 (894)	10.7	5.2	5.5	3.9	73.5	1.3	100.0 (396)
읍·면	20.0	3.3	9.7	5.6	58.8	2.6	100.0 (380)	16.3	3.2	7.2	1.6	70.4	1.3	100.0 (165)
2018년	23.5	5.1	11.7	4.6	54.3	0.8	100.0 (2,434)	9.9	5.8	5.0	3.4	62.0	13.9	100.0 (1,272)
2015년	26.6	4.2	13.7	5.4	49.1	1.0	100.0 (2,494)	14.8	4.8	7.2	3.9	66.8	2.4	100.0 (9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98. 〈표 Ⅲ-2-7〉.

같은 방식으로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의 경우 휴무 83.0%, 매주 전일 근무 6.6%, 격주 전일 근무 5.6%였다. 즉,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부는 17.0%에 이르렀다. 모의 경우에는 휴무 88.5%, 매주 전일 근무 5.0%, 격주 전일 근무 3.0%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읍·면지역이 매주 일요일 전일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요일 휴무 비율이 낮았다.

〈표 Ⅲ-2-7〉 제 특성별 취업부모의 일요일 근무여부

단위: %(명)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전체	6.6	1.4	5.6	1.5	83.0	2.0	100.0 (2,354)	5.0	1.4	3.0	0.7	88.5	1.4	100.0 (1,00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9	1.8	6.3	1.8	82.3	1.8	100.0 (1,164)	6.4	1.2	4.4	0.8	85.6	1.6	100.0 (345)

구분	부							모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매주 전일	매주 반일	격주 전일	격주 반일	휴무	모름	전체 (수)
유아	7.2	1.1	4.9	1.2	83.6	2.0	100.0 (1,190)	4.4	1.5	2.3	0.6	89.9	1.3	100.0 (663)
지역규모														
대도시	5.3	1.2	5.3	1.6	85.4	1.2	100.0 (1,080)	4.1	1.3	2.6	0.8	89.0	2.2	100.0 (447)
중소도시	7.0	1.6	6.1	1.5	81.5	2.4	100.0 (894)	4.7	1.4	3.1	0.8	89.5	0.5	100.0 (396)
읍·면	8.8	1.5	4.8	1.3	80.7	2.8	100.0 (380)	8.7	1.6	3.6	-	84.2	1.8	100.0 (165)
2018년	8.9	1.4	5.1	1.5	82.4	0.8	100.0 (2,434)	4.5	1.9	2.1	1.2	76.3	13.9	100.0 (1,272)
2015년	7.4	0.7	6.3	1.1	83.5	1.0	100.0 (2,494)	4.9	1.2	3.1	1.4	87.0	2.4	100.0 (9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98-99. 〈표 Ⅲ-2-8〉.

5) 미취업 부모의 취업계획

현재 미취업 상태인 부모 모두에 대해 향후 취업 계획을 조사하였다. 먼저, 미취업모의 경우 향후 취업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2%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 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은 대도시에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에서 가장 적었고 반면 아이가 크면 알아보겠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유아부모의 경우 영아부모보다 '현재 구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았다. 소득집단별 비교에서는 일관적인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표 Ⅲ-2-8〉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x^2(df)$
전체	3.9	2.7	35.2	0.4	44.0	13.8	100.0(1,18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	2.8	39.2	0.5	41.2	12.7	100.0(658)	7.2(6)
유아	4.2	2.5	31.0	0.2	47.1	15.0	100.0(526)	
지역규모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기타	계획 없음	모름	계(수)	$x^2(df)$
대도시	3.7	2.6	34.0	0.6	48.8	10.3	100.0(554)	
중소도시	4.0	2.1	35.5	0.3	41.2	16.8	100.0(441)	22.1(12)*
읍·면	4.4	4.1	37.7	–	38.9	14.8	100.0(189)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6	1.5	33.9	1.1	45.7	9.2	100.0(92)	
250~299만원	3.8	1.5	39.1	–	40.9	14.7	100.0(113)	
300~349만원	5.9	2.3	35.0	–	39.3	17.4	100.0(253)	
350~399만원	3.9	3.2	37.2	–	43.2	12.4	100.0(160)	
400~499만원	2.0	2.9	39.7	0.4	43.3	11.7	100.0(253)	72.4(48)*
500~599만원	3.1	3.5	31.3	–	49.6	12.6	100.0(177)	
600~699만원	–	2.8	27.5	2.5	56.2	10.9	100.0(51)	
700만원 이상	4.4	2.6	27.8	–	42.0	23.3	100.0(69)	
모름/무응답	–	–	36.5	7.3	52.1	4.1	100.0(16)	
2018년	4.5	2.0	33.8	–	59.7	–	100.0(1,230)	
2015년	5.8	2.0	55.3	–	36.3	0.7	100.0(1,56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06-107. 〈표 Ⅲ-2-17〉.
* $p < .05$.

다음으로 미취업부의 취업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교육·훈련중 15.7%,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임 15.5% 순으로 응답되었다. 계획이 없다는 13.2%였다.

〈표 Ⅲ-2-9〉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재 구직 중	취업교육, 훈련 중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계획 없음	모름	계(수)	$x^2(df)$
전체	48.7	15.7	15.5	13.2	6.8	100.0(2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3.7	40.8	–	5.5	–	100.0(14)	10.4(4)*
유아	45.6	–	25.2	18.1	11.1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60.0	13.1	7.2	4.7	15.1	100.0(13)	
중소도시	48.5	24.2	–	27.3	–	100.0(12)	14.5(8)
읍·면	13.7	–	86.3	–	–	100.0(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미취업모 중 향후 취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사례에 대해,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5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3년 이내 20.5%, 1~2년 이내 19.0%의 순이었다. 최연소 자녀 영아/유아 가구별로 보면 유아 가구는 3~5년이내가 25.3%로 가장 높았으나 영아 가구는 1~2년 이내가 21.9%로 가장 높아 영아 모가 조기 취업에 대한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별로도 소득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 이른 시기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표 Ⅲ-2-10〉 미취업 모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5년 이내	5년~10년 이내	계(수)	$x^2(df)$
전체	5.1	7.2	17.7	19.0	20.5	22.1	8.4	100.0(50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2	8.0	17.7	21.9	19.1	19.6	9.6	100.0(298)	4.3(6)
유아	6.4	6.2	17.6	15.4	22.3	25.3	6.8	100.0(207)	
지역규모									
대도시	4.2	5.8	19.9	20.4	22.7	19.9	7.1	100.0(220)	3.3(12)
중소도시	5.6	8.5	16.4	15.8	18.8	25.0	9.9	100.0(196)	
읍·면	6.3	7.6	15.7	23.3	19.1	20.1	7.8	100.0(89)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9.6	13.0	17.9	20.0	9.8	17.6	12.1	100.0(42)	
250~299만원	3.8	7.1	19.4	19.9	17.2	23.6	8.9	100.0(51)	
300~349만원	9.2	5.9	23.8	20.1	19.8	15.1	6.0	100.0(113)	
350~399만원	5.2	2.2	13.0	15.8	21.5	27.1	15.2	100.0(76)	
400~499만원	0.6	7.9	13.4	22.5	24.4	25.0	6.2	100.0(109)	48.6(48)
500~599만원	5.1	7.3	22.3	18.2	15.6	25.5	6.0	100.0(67)	
600~699만원	-	17.3	10.7	25.2	22.5	24.3	-	100.0(16)	
700만원 이상	4.6	-	15.7	2.5	43.9	21.5	11.8	100.0(25)	
모름/무응답	16.7	40.4	-	22.7	-	-	20.2	100.0(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6개월 이내가 2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1〉 미취업 부의 취업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2년 이내	2~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계(수)	$x^2(df)$
전체	33.0	26.0	7.1	12.5	17.8	3.7	–	100.0(2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8.5	42.5	15.5	–	13.5	–	–	100.0(13)	7.0(5)
유아	36.7	12.2	–	22.9	21.4	6.7	–	100.0(10)	
지역규모									
대도시	49.1	23.4	–	27.5	–	–	–	100.0(10)	17.8(10)
중소도시	29.1	41.7	12.5	–	16.7	–	–	100.0(10)	
읍·면	–	–	13.7	–	65.6	20.6	–	100.0(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6) 자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험

조사대상 전체 가구 중에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였고 아버지가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8%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에 모가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는 50.1%, 대도시 44.8% 순이었다. 아버지가 그만 둔 적 있은 비율에서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지만 1.4%정도였다.

지난 년도와 비교하면, 2018년에 비해 2021년 조사결과는 어머니가 그만 둔 경험이 더 비율이 높고 아버지가 그만둔 경험 비율도 작은 폭이지만 더 높았다. 2021년 조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이었으므로, 일상적인 현상의 지속 변화에 차이를 가져왔을 수 있다.

〈표 Ⅲ-2-12〉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부 또는 모가 직장 그만둔 경험

단위: %(명)

구분	어머니가 그만둔 적 있음	아버지가 그만둔 적 있음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계(수)
전체	48.8	0.8	0.7	49.7	100.0(2,500)
가구 유형					
영아가구	46.2	0.5	0.6	52.6	100.0(1,231)
유아가구	51.1	1.0	0.8	47.2	100.0(1,269)
영유아 가구	48.8	0.8	0.7	49.7	100.0(2,500)
$x^2(df)$		11.7(3)**			
지역규모					
대도시	44.8	1.4	0.3	53.5	100.0(1,141)

구분	어머니가 그만둔 적 있음	아버지가 그만둔 적 있음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계(수)
중소도시	50.1	0.5	1.1	48.4	100.0(952)
읍·면	56.2	-	0.7	43.0	100.0(407)
$x^2(df)$		24.3(6)***			
2018년	40.3	0.3	0.4	59.1	100.0(2,533)
2015년	31.4	-	-	-	-
2012년	25.2	-	-	-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00-101. 〈표 Ⅲ-2-10〉.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자녀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된 주된 이유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라는 점을 선택한 어머니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29.5%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10.2%, '소득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 7.4% 순으로 나타났으나 소수의 의견으로 보인다. 최연소자녀의 영아/유아 구분에 따라서는 경력 단절 선택의 이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세부 연령별 구분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연도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육아전담의 가치를 선택한 비율이 2018년보다 높아졌고 맡길 곳이 없다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약 20년 전인 2012년 조사에 비해서는 약19%가 감소된 결과를 보인다(48.7%→29.5%).

〈표 Ⅲ-2-13〉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모)

단위: %(명)

구분	대리 양육 비용 큼	일보다 육아전담 가치	믿고 맡길 곳 부재	일이 육아에 지장이됨	업무에 지장	직장육아 지원서비스 부재	여러자녀 돌보기 힘듦	기타	계(수)
전체	7.4	37.4	29.5	5.9	10.2	3.9	1.7	3.8	100.0(1,21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8	38.9	29.4	3.6	9.2	5.4	1.1	5.6	100.0(567)
유아	7.9	36.3	29.7	7.7	10.9	2.9	2.2	2.5	100.0(646)
$x^2(df)$				21.6(7)**					
연령									
0세	7.2	35.3	30.7	3.2	10.3	7.1	1.1	5.1	100.0(181)
1세	8.1	38.6	25.8	2.9	9.9	5.9	1.5	7.2	100.0(227)

구분	대리 양육 비용 큼	일보다 육아전담 가치	믿고 맡길 곳 부재	일이 육아에 지장이됨	업무에 지장	직장육아 지원서비스 부재	여러자녀 돌보기 힘듦	기타	계(수)
2세	4.4	43.2	33.2	5.0	7.0	2.8	0.6	3.8	100.0(159)
3세	9.0	35.9	27.7	4.6	10.2	4.7	3.2	4.7	100.0(179)
4세	7.3	40.7	28.2	10.2	8.1	1.9	2.1	1.5	100.0(171)
5세이상	7.7	34.2	31.3	7.9	12.7	2.5	1.7	2.0	100.0(296)
$x^2(df)$				43.6(35)					
2018년	6.4	31.2	32.8	9.8	11.6	3.9	2.4	2.0	100.0(1,030)
2015년	6.7	–	43.0	16.0	–	–	–	34.2	100.0(1,051)
2012년	3.8	–	48.7	11.4	–	–	–	36.0	100.0(85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01-102. 〈표 Ⅲ-2-11〉.
** $p < .01$.

아버지가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결정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일보다는 육아전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가 46.3%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이 이유를 선택한 비율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 외에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18.1%, 육아가 업무에 지장이 됨 11.1%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조사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양상으로, 3년 전에는 일을 그만둔 아버지의 가장 많은 수가 '일을 해서 버는 소득보다 외부 대리 양육을 맡기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선택을 26.3%가 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문은 사례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설명으로서 의미는 크지 않다.

〈표 Ⅲ-2-14〉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주된 경력 단절 이유(부)

단위: %(명)

구분	대리 양육 비용 큼	일보다 육아전담 가치	믿고 맡길 곳 부재	일이 육아에 지장이됨	업무에 지장	직장육아 지원서비스 부재	여러 자녀 돌보기 힘듦	기타	계(수)
전체	3.5	46.3	18.1	11.1	7.1	1.6	5.9	6.3	100.0(3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	80.1	–	–	5.8	4.3	9.8	–	100.0(10)
유아	5.6	26.7	28.6	17.6	7.8	–	3.7	10.0	100.0(24)
$x^2(df)$				12.3(7)					
2018년	26.3	7.8	25.0	13.3	7.5	20.1	–	–	100.0(1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03-104. 〈표 Ⅲ-2-13〉.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시기를 보면, 어머니는 55.5%가 '임신을 했을 때'라고 응답하였고 24.5%는 '출산 또는 출산휴가 직후'라고 응답하여 80%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나 출산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도 소수의 응답이기는 하나 과반수가 임신했을 때나 출산 및 출산휴가 직후로 응답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Ⅲ-2-15〉 부모의 자녀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시기

단위: %(명)

구분	부	모
전체	100.0	100.0
임신했을 때	19.3	55.5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32.1	24.5
만 1세 이전	12.9	4.1
만 1~2세	19.1	7.5
만 3세~취학전까지	15.0	4.9
취학 이후	1.5	0.6
기타	-	2.8
(수)	(34)	(1,21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7) 취업부모의 육아휴직 경험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6%, 아버지가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1%였다. 특이하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음은 2.4%로 아버지만 한 경우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례도 더 높아졌고 아버지의 경우도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 휴직은 1.5%p 증가하였다.

〈표 Ⅲ-2-16〉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경험

단위: %(명)

구분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계(수)
전체	32.6	2.1	2.4	63.0	100.0(2,500)
가구 유형					
영아가구	36.5	1.9	3.0	58.6	100.0(1,231)
유아가구	30.9	2.3	2.2	64.7	100.0(1,741)
영유아 가구	32.6	2.1	2.4	63.0	100.0(2,500)
$x^2(df)$		–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36.5	1.9	3.0	58.6	100.0(1,231)
유아	29.3	2.2	1.8	66.7	100.0(1,269)
$x^2(df)$		11.8(3)**			
지역규모					
대도시	35.3	1.1	2.5	61.1	100.0(1,141)
중소도시	31.8	2.7	2.7	62.8	100.0(952)
읍·면	27.8	2.9	1.0	68.4	100.0(407)
$x^2(df)$		24.3(6)***			
2018년	26.0	1.1	0.9	72.1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04-105. 〈표 Ⅲ-2-14〉.
** $p < .01$, *** $p < .001$.

육아휴직의 주요 시기는 출산이후 생후 6개월까지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가 된 자녀로는 어머니의 경우, 첫째가 총 1,221 응답자 중 779명이 선택하여 63.8%, 둘째 자녀는 6.7%, 셋째 자녀 29.5%로 첫째 자녀일 때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셋째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휴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는 첫째보다 둘째 자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2-17〉 육아휴직의 주 이유가 된 자녀의 육아휴직시기

단위: %(명)

구분	부			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45.7	67.8	35.5	80.6	25.9	73.7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11.4	14.8	16.6	8.8	17.1	13.6
만 1~2세	29.3	12.0	28.2	5.1	28.9	8.0
만 3세~취학전까지	11.2	5.4	19.7	3.4	19.9	3.7

구분	부			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2.5	-	-	2.0	4.7	1.0
초등학교 2학년	-	-	-	0.1	3.5	-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	(52)	(72)	(7)	(779)	(82)	(360)

주: 부/모 각각 복수 응답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은 어머니는 평균 17.8개월, 아버지는 9.5개월로 조사되어, 어머니가 약 8개월 정도 육아휴직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일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 아버지의 경우 대도시 거주가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8〉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단위: 개월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9.5	(114)		17.8	(84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4	(62)	-2.0	16.3	(460)	1.7
유아	10.6	(52)		19.4	(386)	
지역규모						
대도시	11.2	(43)		18.3	(414)	
중소도시	8.5	(51)	-2.3*	17.9	(317)	1.1
읍·면	8.6	(20)		15.5	(11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8) 취업부모의 양육 관련 애로사항

취업 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과 긴급상황, 보육·교육 기관 부모참여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5점 척도상 2.9점 이상 점수 보여 해당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근로시간, 휴일출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아동의 여아/유아 구분이나 지역규모별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참여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영아보다는 유아에서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Ⅲ-2-19〉 취업중인 주양육자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	휴일 출근	긴급상황	보육·교육기관 부모참여 부담	(수)
전체	3.2	3.1	2.8	2.7	3.3	2.9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3.3	2.8	2.8	3.4	2.8	(1,231)
유아	3.1	3.1	2.7	2.6	3.2	2.9	(1,269)
t	1.6	1.3	1.1	0.9	0.9	−1.1	
지역규모							
대도시	3.2	3.2	2.8	2.6	3.2	2.9	(1,141)
중소도시	3.2	3.2	2.8	2.8	3.4	3.0	(952)
읍·면	2.9	2.8	2.7	2.6	3.1	2.7	(407)
F	2.5	1.9	0.2	3.0	2.3	0.8	
2018년(취업모)	3.2	3.2	-	2.8	3.2	3.1	(1,295)
2015년(취업모)	3.1	3.1	-	2.9	3.2	3.2	(989)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은 '어렵지 않음' 1점~ '매우 어려움'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09. 〈표 Ⅲ-2-21〉.

9)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어려움

이주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지도가 5점 척도상 3.2점으로 가장 높아 제일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에 3.1점이 주어졌다.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방식 갈등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아이와의 의사 소통이나 양육비 등 경제문제,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등 대부분 항목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움으로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0〉 이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단위: 점(명)

구분	아이와 의사소통	양육비 등 경제	양육방식 갈등	자신감 결여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	돌봄지원 부재	자녀 교육 지도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수)
전체	2.6	3.1	2.6	2.6	2.6	3.0	3.2	2.7	(13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7	2.9	2.7	2.7	2.7	3.0	3.3	2.8	(70)
유아	2.4	3.3	2.6	2.6	2.6	2.9	3.1	2.6	(60)
t	1.1	−1.1	0.5	0.8	1.1	0.3	0.3	0.6	
지역규모									
대도시	2.7	3.0	2.6	2.7	2.5	2.6	3.1	2.6	(56)
중소도시	2.4	3.3	2.7	2.6	2.8	3.3	3.5	2.8	(42)
읍·면	2.7	3.0	2.7	2.6	2.7	3.1	3.0	2.7	(32)
F	0.4	0.2	0.3	0.2	0.2	0.6	0.7	0.2	
모취업 여부									
취업	2.4	3.2	2.6	2.7	2.7	2.7	3.1	2.7	(43)
휴직	2.3	1.8	1.7	1.5	1.5	2.5	2.1	2.1	(3)
미취업	2.7	3.1	2.7	2.6	2.7	3.1	3.3	2.7	(82)
부재 등	2.5	2.5	3.5	3.5	2.5	2.5	3.5	3.5	(2)
F	0.4	1.0	0.7	1.3	0.8	1.2	0.6	0.4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3.2	3.4	3.2	3.0	3.0	3.5	4.1	3.1	(20)
250~299만원	2.8	3.7	3.0	2.7	3.0	2.9	2.9	2.8	(14)
300~349만원	2.5	3.1	2.6	2.7	2.7	2.9	3.2	2.7	(25)
350~399만원	2.9	3.3	2.9	3.1	2.8	3.1	3.3	3.0	(20)
400~499만원	2.3	2.9	2.3	2.3	2.5	3.1	3.3	2.5	(26)
500~599만원	2.1	2.9	2.2	2.2	2.4	2.5	2.7	2.5	(15)
600~699만원	2.3	2.3	2.3	2.8	2.3	2.3	2.8	2.8	(3)
700만원 이상	1.6	1.6	1.6	1.6	1.6	1.6	1.7	1.6	(5)
모름/무응답	2.3	3.0	3.0	3.0	3.0	2.4	3.0	3.0	(2)
F	1.9	3.0**	1.8	1.5	1.6	2.4*	2.5*	1.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나. 가구의 경제적 특성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영유아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1.3%로 나타났

다. 영아가구 1.1%, 유아가구 1.5%, 대도시지역 1.2%, 중소도시지역 1.4%, 읍면지역 1.2%로 조사되었다.

〈표 Ⅲ-2-21〉 영유아 가구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 여부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2년	2015년	2018년
급여 대상	1.1	1.1	0.7	1.1	1.5	1.6	1.3	1.5	1.2	1.4	1.2	1.3	1.4	1.0	1.6
비급여	98.9	98.9	99.3	98.9	98.5	98.4	98.7	98.5	98.8	98.6	98.8	98.7	98.6	99.0	98.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528)	(2,593)	(2,533)
$x^2(df)$	1.2(2)				2.0(2)				1.9(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0. 〈표 Ⅲ-2-22〉.

2) 영유아가구 소득

가) 소득 분위별 평균[1)]

2021년 가계동향조사 2/4, 3/4분기 전국 1인이상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각 519.8만원, 472.9만원으로[2)], 2021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참여 영유아가구의 소득 평균 505만 5천원과 비교하여 2분기 대비 더 많고, 3분기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021년 3/4분기 전체 가구소득 5분위별 평균과 본 조사(2021년 9월 1일 기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분위별 소득 평균이 5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데,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1인이상 가구 대상이어서 본 조사 대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 연도 보육실태조사 참여 가구의 소득 수준과 2021년 조사 대상의 소득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상향되었음을 볼 수 있고 평균에서 2018년도보다는 약 51만원이, 2015년도보다는 약 102만원이 증가하여 3년마다 비슷한

1)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별 평균이 2018년 2인이상 일반가구 소득 10분위에서 2021년 1인이상 일반가구 소득 5분위로 변화함.
2) 2021년 전국 1인이상 일반가구 소득 평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예: 취업상황, 재난지원금 등) 분기별로 변동성을 보임.

정도로 가구 소득이 높이 산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Ⅲ-2-22〉 소득 분위별 평균

단위: 만원

2021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21년 보육실태 조사						
	247.3	356.5	449.6	542.5	887.3	505.5
2021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4분기	96.6	236.5	366.1	519.2	924.1	519.8
3/4분기	114.2	264.7	401.8	579.2	1003.7	472.9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18년 보육실태 조사											
	179.1	281.8	316.5	346.0	394.1	434.6	494.3	566.5	674.1	964.4	454.1
2015년 보육실태 조사											
	170.5	235.2	273.1	302.8	338.4	373.7	408.4	484.1	578.1	853.5	403.0

주: 2021년도 가계동향조사 소득5분위별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자료:1)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4/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13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1.11.30. 인출)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1. 〈표 Ⅲ-2-23〉.

나) 지역별 소득수준

2021년 영유아가구 소득은 2018년 보육실태조사 영유아가구 소득 평균 454만 1천원에서 약 51만 4천원 증가한 평균 505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가구 소득 평균은 2012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 500~599만원, 400~499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 20.1%, 18.7%로 가장 많은 가운데,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1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은 10.6%로 조사되었다.

영아가구 평균 가구소득 476만 8천원, 유아가구 평균 526만 5천원으로 자녀 연령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영유아가구에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평균) 가구소득이 많고, 700만원이상 고소득가구분포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소득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서 300만원이하 가구의 비율이 16.3%로 좀 더 많았으나, 300~349만원, 500~599만원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중도 각 15.1%, 23.8%로 나타나, 읍면지역의 영유아가구가 갖는 다양한 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표 Ⅲ-2-23〉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49만원 이하	4.7	3.5	7.8	4.7	4.7	3.5	7.8	4.7	4.6	4.6	9.8	5.4
250~299만원	4.4	3.3	5.8	4.1	4.4	3.3	5.8	4.1	5.6	4.2	6.5	5.2
300~349만원	11.9	10.2	15.2	11.7	11.9	10.2	15.2	11.7	13.6	12.0	15.1	13.2
350~399만원	5.9	10.4	9.7	8.4	5.9	10.4	9.7	8.4	7.3	11.2	10.5	9.5
400~499만원	16.9	22.1	15.0	18.8	16.9	22.1	15.0	18.8	17.6	21.0	15.4	18.7
500~599만원	20.5	21.7	27.8	22.1	20.5	21.7	27.8	22.1	19.5	19.5	23.8	20.1
600~699만원	9.2	10.9	8.7	9.8	9.2	10.9	8.7	9.8	9.1	10.7	8.1	9.6
700만원이상	25.8	16.6	8.9	19.3	25.8	16.6	8.9	19.3	21.7	15.6	9.6	17.2
모름/무응답	0.6	1.4	1.3	1.1	0.6	1.4	1.3	1.1	1.0	1.2	1.2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021년 평균	485.7	485.5	429.4	476.8	548.1	530.3	457.9	526.5	525.1	508.4	444.3	**505.5**
(표준편차)	241.4	292.2	200.8	260.0	275.5	327.8	221.1	293.4	263.5	299.8	221.9	275.3
F	3.5*				5.6**				7.9***			
2018년 평균	481.4	418.0	389.1	436.5	518.1	464.6	401.9	467.6	502.1	443.0	397.1	**454.1**
(표준편차)	(235.0)	(205.3)	(175.6)	(214.4)	(261.7)	(230.1)	(182.5)	(235.9)	(252.2)	(213.8)	(177.7)	(225.6)
2015년 평균	396.0	400.5	336.1	388.2	428.9	399.5	392.5	410.5	416.8	400.8	372.3	403.0
(표준편차)	(189.2)	(245.3)	(166.5)	(211.5)	(185.8)	(194.8)	(180.7)	(189.4)	(188.9)	(219.1)	(182.5)	(201.6)
2012년 평균	385.4	33.65	393.5	367.6	403.6	376.6	417.9	391.3	399.3	353.3	408.1	382.1
(표준편차)	(208.3)	(191.0)	(204.4)	(202.4)	(229.6)	(207.3)	(213.6)	(218.2)	(222.0)	(198.6)	(214.0)	(212.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11-112. 〈표 Ⅲ-2-24〉.
* $p < .05$, ** $p < .01$, *** $p < .001$.

다) 모 취업여부별 소득수준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가구 소득 평균 624만 1천원, 모 휴직중 가구소득 평균 481만 7천원, 모 미취업 가구 407만 1천원, 모 부재 가구의 경우 345만원으로 모 취업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영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유아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641만 3천원, 621만 1천원),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유아 가구에서는 휴직중 모 가구의 소득 평균이 509만 8천원, 모 미취업 가구 소득이 429만 5천원으로 영아가구(각 472만 9천원, 387만 7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4〉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 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 취업	부재	전체
249만원 이하	2.3	5.2	6.7	27.6	4.7	2.3	5.2	6.7	27.6	4.7	2.7	6.3	7.2	24.3	5.4
250~299만원	0.8	3.3	11.5	19.2	6.8	1.3	7.6	6.3	19.5	4.1	1.1	4.5	8.7	19.9	5.2
300~349만원	3.4	11.7	23.6	-	15.3	6.2	9.9	18.5	4.0	11.7	5.5	11.5	20.9	3.2	13.2
350~399만원	3.6	11.3	15.2	14.7	11.1	5.0	4.5	12.9	9.5	8.4	4.8	9.2	13.8	10.9	9.5
400~499만원	11.5	25.3	20.7	29.1	19.1	15.4	20.8	22.4	18.7	18.8	14.5	23.1	21.2	21.5	18.7
500~599만원	20.4	19.3	13.4	16.1	16.6	24.9	25.5	18.8	3.7	22.1	23.6	22.2	16.7	6.6	20.1
600~699만원	22.2	9.3	2.7	-	9.6	13.4	8.4	5.7	17.0	9.8	15.7	9.0	4.2	13.6	9.6
700만원 이상	33.6	12.8	4.0	-	14.2	30.5	15.5	7.6	-	19.3	31.2	13.2	6.0	-	17.2
모름/무응답	1.6	0.2	1.7	-	1.3	0.8	2.6	1.1	-	1.1	0.9	1.1	1.3	-	1.1
계	100	100	100	100	100	1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338)	(233)	(653)	(7)	(1,231)	(809)	(140)	(772)	(20)	(1,741)	(997)	(303)	(1,174)	(26)	(2,500)
2021년 평균	641.3	472.9	387.7	327.1	476.8	621.1	509.8	429.5	341.5	527.9	624.1	481.7	407.1	345.0	505.5
(표준편차)	(269.6)	(208.2)	(228.0)	(165.1)	(260.0)	(325.0)	(280.1)	(229.1)	(158.5)	(298.0)	(310.3)	(227.6)	(204.5)	(156.6)	(275.3)
2018년 평균	556.9	482.2	355.1	313.5	436.5	538.4	467.4	392.7	318.5	467.6	540.2	475.3	374.4	317.7	454.1
(표준편차)	(245.1)	(206.2)	(151.3)	(21.1)	(214.4)	(242.2)	(235.1)	(204.4)	(124.9)	(235.9)	(238.0)	(204.6)	(184.7)	(120.4)	(225.6)
2015년 평균	526.1	450.5	325.5	-	388.2	495.8	502.5	348.8	-	411.1	505.3	461.1	337.3	-	403.0
(표준편차)	(278.4)	(186.4)	(143.4)	-	(211.5)	(224.7)	(169.0)	(148.2)	-	(197.6)	(237.1)	(186.9)	(142.6)	-	(201.6)
2012년 평균	475.5	464.1	315.3	-	367.6	459.4	467.3	345.9	-	391.6	469.6	464.0	329.1	-	382.1
(표준편차)	(227.6)	(264.1)	(160.1)	-	(202.4)	(237.7)	(276.1)	(188.8)	-	(218.6)	(239.2)	(258.4)	(172.1)	-	(212.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12-113. 〈표 Ⅲ-2-25〉.

라)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가구규모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한(조)부모가구로 보이는 2인가구의 경우(N=25) 249만원이하 비율이 68.7%로 높게 나타났으며 2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월 174만 8천원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영유아가구 2인가구 평균 월 174만 8천원, 3인가구 평균 481만 3천원, 4인가구 534만 3천원, 5인가구 513만원, 6인가구 545만 8천원으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구소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단 4인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인가

구 평균에 비해 많음). 700만원이상 고소득가구가 전체 조사참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가구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인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2012년 이후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인가구의 경우 (적은 사례수이긴 하나) 2018년 월평균 가구소득 240만원 6천원에서 174만 8천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2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25〉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 수준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249만원 이하	68.7	5.0	3.4	7.0	6.2	5.4
250~299만원	7.7	6.6	4.0	3.3	8.1	5.2
300~349만원	11.8	15.7	10.9	12.3	13.2	13.2
350~399만원	8.9	10.9	8.9	8.9	1.4	9.5
400~499만원	-	17.8	19.6	21.5	16.4	18.7
500~599만원	2.9	19.6	22.0	18.2	18.1	20.1
600~699만원	-	8.4	11.5	8.6	11.2	9.6
700만원 이상	-	15.2	18.6	19.0	25.3	17.2
모름/무응답	-	1.0	1.2	1.3	0.1	1.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	(25)	(859)	(1,156)	(363)	(97)	(2,500)
평균	174.8	481.3	534.3	513.0	545.8	505.5
(표준편차)	119.5	238.9	305.4	261.2	295.0	275.3
2018년	240.6	438.9	469.7	470.3	447.0	454.1
(표준편차)	(132.6)	(212.2)	(235.0)	(230.2)	(214.8)	(225.6)
2015년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112.3)	(187.0)	(175.0)	(286.2)	(190.5)	(201.6)
2012년	186.9	390.2	400.9	439.1	409.2	403.0
(표준편차)	(71.9)	(202.1)	(197.6)	(238.8)	(286.1)	(212.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3. 〈표 Ⅲ-2-26〉.

마) 부모 근로소득

영유아가구 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부 385만 4천원, 모 106만 5천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시간제일자리 등의) 고용·노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아부모에 비해 유아부모의 근로소득이, 그리고 (대)도시지역일수록 부와 모의 근로소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Ⅲ-2-26〉 제 특성별 근로부모의 월 평균 근로소득

단위: %, 만원(명)

구분	부			모		
	평균	(수)	t/F	평균	(수)	t/F
전체	385.4	(2,374)		106.5	(2,42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9.8	(1,171)	-0.7	82.7	(1,195)	-7.3***
유아	390.2	(1,203)		126.8	(1,231)	
지역규모						
대도시	402.6	(1,087)		112.9	(1,108)	
중소도시	380.9	(906)	3.8*	109.2	(927)	3.5*
읍·면	351.0	(381)		81.6	(39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3) 영유아가구 지출

가) 지역별 지출수준

조사참여가구의 전체 월평균 지출은 327만 6천원으로 (가구소득 평균 505만 5천원 대비 약 64.8%)으로, 월평균 지출 300~349만원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지출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21년에 유아가구의 경우 (대)도시지역일수록 가구지출 평균이 더 많았다면 영아가구의 경우 중소도시 지역의 가구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가구 평균 지출 302만 9천원(영아가구 평균 소득 476만 8천원 대비 63.2%), 유아가구 평균 347만 9천원(유아가구 평균 소득 526만 5천원 대비 66.1%)으로 유아가구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가구의 경우 300~349만원, 200~249만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유아가구에서는 300~349만원, 400~499만원을 지출하는 가구 비중이 많았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영아가구에 비해 유아가구의 지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던 영유아가구 지출 수준이 2021년 조사 결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지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계 경제활동이 위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27〉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49만원 이하	2.9	5.1	6.9	4.5	3.3	2.9	3.9	3.3	3.3	3.7	5.6	3.8
150~199만원	5.6	7.8	8.0	6.9	3.6	3.9	8.0	4.4	4.5	5.9	8.3	5.7
200~249만원	21.8	17.7	24.4	20.4	12.4	12.7	18.1	13.4	16.4	15.0	19.8	16.3
250~299만원	15.1	15.4	11.7	14.7	10.5	8.8	6.8	9.2	12.6	11.4	8.7	11.5
300~349만원	24.8	20.1	24.1	22.7	19.4	26.4	26.7	23.5	21.4	24.2	25.4	23.2
350~399만원	8.5	7.9	6.4	7.9	7.9	8.8	9.3	8.5	7.8	7.9	8.7	8.0
400~499만원	9.9	11.8	12.4	11.1	20.7	16.1	15.8	17.9	16.7	14.4	13.6	15.2
500~599만원	6.3	7.8	3.9	6.6	11.8	12.4	6.8	11.3	9.3	11.0	5.9	9.5
600~699만원	1.3	2.6	0.5	1.7	5.6	2.9	0.7	3.7	3.9	2.6	0.7	2.9
700만원이상	2.2	2.2	0.4	2.0	4.3	3.0	1.1	3.3	3.2	2.4	1.0	2.5
모름/무응답	1.5	1.6	1.2	1.5	0.6	2.2	2.8	1.6	1.0	1.6	2.3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021년 평균	302.4	313.4	274.8	302.9	361.9	349.7	304.3	347.9	336.1	331.8	292.9	327.6
(표준편차)	151.8	193.3	106.5	166.1	157.7	179.5	118.9	163.4	159.0	170.8	117.3	159.4
F	2.2				6.8**				6.0**			
2018년 평균	418.0	385.6	357.1	391.2	439.4	417.3	367.4	411.4	429.0	402.6	363.3	402.1
(표준편차)	(160.1)	(141.3)	(123.5)	(147.1)	(180.7)	(155.2)	(130.4)	(162.2)	(172.2)	(145.7)	(126.7)	(154.6)
2015년 평균	390.9	396.0	332.6	383.5	419.8	393.6	387.5	403.4	409.5	394.8	368.3	396.8
(표준편차)	(190.2)	(241.8)	(166.4)	(210.1)	(181.2)	(193.8)	(182.7)	(187.2)	(186.6)	(216.9)	(182.9)	(199.6)
2012년 평균	296.0	278.1	307.7	291.1	319.7	305.6	330.9	315.9	308.4	290.7	322.3	303.7
(표준편차)	(139.8)	(142.5)	(149.0)	(142.7)	(155.2)	(134.6)	(140.3)	(144.2)	(148.9)	(139.5)	(148.7)	(145.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4. 〈표 Ⅲ-2-27〉.
** $p < .01$.

나) 모 취업여부별 지출수준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가구 지출 평균 371만원으로 (모 취업가구 소득 481만 7천원 대비 77.0%), 모 휴직중 가구지출 평균 319만 4천원(모 휴직중 가구 소득 481만 7천원 대비 66.2%), 모 미취업 가구 지출 291만 9천원(407만 1천원 대비 71.7%), 모 부재 가구의 경우 259만 1천원(345만원 대비 75.1%)으로 모 취

업여부에 따른 가구지출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와 부담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평균 지출이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 가구의 지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영아 취업모 351만 8천원, 유아 취업모 387만 8천원), (모부재 가구를 제외하고는) 휴직중/미취업모 가구에서도 영아 가구에 비해 유아 가구에서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가구의 지출규모와 비중이 영아가구에 비해 크고, 모취업 가구(77.0%)의 소득 대비 가구지출 비중이 미취업 가구(71.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8〉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149만원 이하	2.0	4.9	5.6	11.4	4.5	2.7	2.0	3.8	14.4	3.3	2.4	3.7	4.9	11.5	3.8
150~199만원	4.8	8.3	7.6	-	6.9	2.4	3.3	6.6	14.2	4.4	3.0	7.2	7.6	11.4	5.7
200~249만원	16.5	14.3	25.2	19.2	20.4	10.1	12.4	17.2	18.3	13.4	12.2	13.6	20.8	19.0	16.3
250~299만원	8.0	14.6	18.3	30.8	14.7	7.1	10.3	11.2	15.7	9.2	7.2	13.9	14.5	19.5	11.5
300~349만원	21.7	30.4	20.0	29.1	22.7	21.3	21.3	26.5	20.4	23.5	21.3	27.6	23.7	22.9	23.2
350~399만원	10.4	7.7	6.7	-	7.9	8.3	9.1	8.7	3.9	8.5	9.1	7.0	7.4	3.1	8.0
400~499만원	14.9	11.1	9.0	-	11.1	21.4	15.7	14.9	-	17.9	19.8	12.7	12.1	-	15.2
500~599만원	11.0	6.7	4.0	9.6	6.6	15.4	13.2	6.1	13.1	11.3	14.4	8.9	5.1	12.7	9.5
600~699만원	4.8	1.0	0.3	-	1.7	4.8	7.2	1.8	-	3.7	4.6	3.0	1.3	-	2.9
700만원 이상	4.2	0.7	1.2	-	2.0	4.9	3.4	1.4	-	3.3	4.5	1.4	1.1	-	2.5
모름/무응답	1.6	0.4	1.9	-	1.5	1.5	2.2	1.6	-	1.6	1.5	1.1	1.6	-	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	(338)	(233)	(653)	(7)	(1,231)	(809)	(140)	(772)	(20)	(1,741)	(997)	(303)	(1,174)	(26)	(2,500)
2021년 평균	351.8	297.5	278.0	261.8	302.9	378.8	374.3	310.1	253.3	347.9	371.0	319.4	291.9	259.1	327.6
(표준편차)	(165.7)	(132.0)	(173.4)	(98.0)	(166.1)	(156.1)	(203.2)	(155.2)	(119.0)	(163.4)	(159.5)	(155.5)	(151.3)	(113.4)	(159.4)
2018년 평균	464.4	429.5	339.4	317.9	391.2	452.9	434.6	365.9	315.0	411.4	452.6	431.2	353.2	314.4	402.1
(표준편차)	(167.6)	(139.4)	(110.5)	(31.6)	(147.1)	(168.6)	(152.0)	(142.3)	122.3)	(162.2)	(163.9)	(137.1)	(130.9)	(117.8)	(154.6)
2015년 평균	520.6	446.9	321.3	-	383.5	488.1	496.6	342.3	-	403.9	498.1	458.1	331.4	-	396.8
(표준편차)	(277.8)	(182.8)	(141.1)	-	(210.1)	(225.4)	(163.6)	(144.6)	-	(196.3)	(237.3)	(184.0)	(138.0)	-	(199.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5. 〈표 Ⅲ-2-28〉.

다) 가구규모별 지출수준

가구규모별 가구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구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조)부모가구로 보이는 2인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지출이 월 154만으로 조사되었으며, 2인가구에서 149만원이하 지출 가구 비율이 52.8%로 높게 나타났다. 2인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이 적은 것은 2012, 201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가구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이후 증가하던 가구지출이 2021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9〉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49만원 이하	52.8	4.7	2.1	2.4	1.2	3.8
150~199만원	18.7	7.5	3.8	5.0	3.8	5.7
200~249만원	3.5	19.5	15.2	12.8	7.6	16.3
250~299만원	8.9	14.4	8.6	11.2	12.5	11.5
300~349만원	16.0	22.5	24.4	23.2	19.0	23.2
350~399만원	-	7.1	9.7	6.1	8.4	8.0
400~499만원	-	13.0	16.6	17.6	22.8	15.2
500~599만원	-	7.2	11.0	12.6	11.0	9.5
600~699만원	-	1.3	4.1	4.1	4.2	2.9
700만원 이상	-	1.2	3.0	3.8	8.8	2.5
모름/무응답	-	1.5	1.6	1.3	0.7	1.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	(25)	(859)	(1,156)	(363)	(97)	(2,500)
2021년 평균	154.0	295.3	351.6	353.5	402.9	327.6
(표준편차)	84.6	117.6	180.3	160.2	220.5	159.4
2018년 평균	236.7	391.9	411.9	415.9	398.7	402.1
(표준편차)	(125.4)	(149.9)	(156.8)	(155.7)	(147.0)	(154.6)
2015년 평균	187.7	383.6	394.0	435.3	403.2	396.8
(표준편차)	(112.1)	(182.8)	(172.4)	(287.7)	(188.9)	(199.6)
2012년 평균	145.8	276.7	308.9	335.2	377.1	303.7
(표준편차)	(68.6)	(128.3)	(137.3)	(164.7)	(199.7)	(144.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6. 〈표 Ⅲ-2-29〉.

라) 영유아가구의 양육비 지출수준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가구의 전체 양육비 지출 평균은 97.6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소득 505만 5천원 대비 19.3%, 가구지출 327만 6천원 대비 29.8%)으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양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경향을 보였다(100만 3천원, 97만 6천원, 89만 9천원).

영아가구 평균 양육비 지출 91만 8천원, 유아가구 평균 106만 7천원으로 유아가구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구에서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양육비 지출규모를 보인 반면, 영아가구에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평균 양육비 지출이 대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구 공통적으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월평균 양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에서 월 149만원 이하 양육비 지출이 77.4%로 가장 많아 이 구간을 좀 더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월 양육비 지출 150~199만원 9.9%, 200~249만원 6.7%, 250만원 이상은 4.7%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자녀양육비 지출은 86만 9천에서 2021년 97만 6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0〉 지역별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49만원 이하	80.2	78.9	83.8	80.2	73.4	70.3	75.3	72.4	77.7	76.1	79.8	77.4
150~199만원	8.9	10.0	8.2	9.2	10.9	12.8	11.2	11.7	9.3	10.9	9.0	9.9
200~249만원	6.0	6.5	5.6	6.2	7.7	8.6	7.3	8.0	6.6	6.9	6.5	6.7
250~299만원	1.6	0.5	0.3	0.9	2.9	2.9	0.7	2.5	2.3	1.9	0.6	1.8
300~349만원	1.2	1.3	1.0	1.2	1.9	2.3	2.0	2.1	1.6	1.6	1.4	1.6
350~399만원	0.1	0.3	0.1	0.2	0.3	0.4	0.8	0.4	0.2	0.3	0.5	0.3
400~499만원	0.3	1.1	-	0.6	1.4	0.6	-	0.8	0.9	0.9	-	0.7
500~599만원	0.2	0.2	-	0.2	0.8	0.1	-	0.4	0.5	0.1	-	0.2
600~699만원	0.2	-	-	0.1	0.1	-	-	0.1	0.1	-	-	-
700만원이상	0.2	-	-	0.1	0.1	-	-	0.1	0.2	-	-	0.1
모름/무응답	1.1	1.2	1.0	1.1	0.4	2.0	2.8	1.4	0.7	1.4	2.2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21년 평균	92.0	93.3	86.9	91.8	110.6	106.8	95.6	106.7	100.3	97.6	89.9	97.6
(표준편차)	(71.9)	(68.3)	(53)	(67.7)	(88.9)	(72.0)	(64.3)	(78.8)	(82.0)	(68.6)	(59.7)	(73.4)
F	0.8				1.9				1.5			
2018년 평균	95.3	87.8	79.6	88.6	101.4	94.8	74.4	91.4	95.2	88.9	72.8	86.9
(표준편차)	(72.7)	(58.9)	(54.2)	(64.1)	(70.5)	(64.2)	(55.0)	(65.3)	(70.3)	(60.9)	(53.7)	(6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7. 〈표 Ⅲ-2-30〉.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 취업가구의 양육비 지출 평균 111만원으로 (모 취업가구 소득 624만 1천원 대비 17.8%), 모 휴직중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98만 2천원(가구소득 대비 20.4%), 모 미취업 가구 85만 8천원(21.1%), 모 부재 가구 68만 1천원(19.7%)의 순으로 나타나,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비 지출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모휴직중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이 가장 컸으나, 모 취업 특성별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중에서는 20% 내외로 모 취업가구의 지출 비중이 미취업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이 영아가구에 비해 약 15만원(149,000원)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1〉 모 취업여부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전체
149만원 이하	70.9	83.7	83.9	85.6	80.2	69.2	67.2	76.5	94.3	72.4	71.4	79.4	81.9	92.2	77.4
150~199만원	11.1	7.6	9.0	–	9.2	13.1	12.9	10.3	–	11.7	12.0	8.8	8.5	–	9.9
200~249만원	9.9	5.6	4.2	14.4	6.2	7.9	10.9	7.7	5.7	8.0	7.8	6.6	5.7	7.8	6.7
250~299만원	1.6	–	0.9	–	0.9	3.0	2.2	2.1	–	2.5	2.6	0.9	1.4	–	1.8
300~349만원	2.6	0.9	0.6	–	1.2	3.0	0.8	1.4	–	2.1	2.6	0.8	0.9	–	1.6
350~399만원	0.3	0.2	0.2	–	0.2	0.5	1.0	0.2	–	0.4	0.4	0.6	0.1	–	0.3
400~499만원	1.4	1.1	–	–	0.6	1.3	0.7	0.4	–	0.8	1.2	1.1	0.2	–	0.7
500~599만원	–	0.6	0.1	–	0.2	0.4	1.3	0.2	–	0.4	0.3	0.5	0.1	–	0.2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전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부재	전체
600~699만원	0.3	-	-	-	0.1	0.1	-	-	-	0.1	0.1	-	-	-	-
700만원 이상	-	-	0.2	-	0.1	-	0.7	-	-	0.1	-	0.3	0.1	-	0.1
모름/무응답	1.9	0.4	1.1	-	1.1	1.6	2.2	1.2	-	1.4	1.6	1.1	1.0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8)	(233)	(653)	(7)	(1,231)	(809)	(140)	(772)	(20)	(1,741)	(997)	(303)	(1,174)	(26)	(2,500)
2021년 평균	112.1	89.6	81.5	72.0	91.8	114.9	122.1	95.5	65.8	106.7	111.0	98.2	85.8	68.1	97.6
(표준편차)	(77)	(68.2)	(59.1)	(55.5)	(67.7)	(80.4)	(112.6)	(67.3)	(42.2)	(78.8)	(77.4)	(87.5)	(62.8)	(45.7)	(73.4)
2018년 평균	110.4	90.3	75.3	97.8	88.6	99.5	115.8	81.4	59.6	91.4	99.0	93.2	75.3	61.0	86.9
(표준편차)	(77.6)	(70.4)	(48.3)	(73.4)	(64.1)	(72.6)	(85.5)	(52.2)	(34.5)	(65.3)	(73.4)	(72.3)	(49.4)	(34.0)	6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8. 〈표 Ⅲ-2-31〉.

가구규모별 자녀양육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4인가구 규모까지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4인규모 가족의 양육비 지출 평균이 월 110만 4천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후 5인, 6인이상 규모에서는 4인 가족 대비 자녀양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Ⅲ-2-32〉 가구 규모별 영유아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출 수준

단위: %(가구), 만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149만원 이하	90.0	83.8	70.7	78.2	71.6	77.4
150~199만원	10.0	6.6	13.1	10.2	11.6	9.9
200~249만원	-	5.1	8.4	6.8	6.7	6.7
250~299만원	-	1.4	2.3	1.5	3.8	1.8
300~349만원	-	1.2	1.9	1.3	4.1	1.6
350~399만원	-	-	0.4	0.5	1.6	0.3
400~499만원	-	0.5	1.2	0.3	-	0.7
500~599만원	-	0.2	0.3	0.3	-	0.2
600~699만원	-	-	0.1	-	-	-
700만원 이상	-	-	0.1	0.3	-	0.1
모름/무응답	-	1.2	1.5	0.6	0.6	1.2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	(25)	(859)	(1,156)	(363)	(97)	(2,500)
2021년 평균	65.5	86.2	110.4	93.5	108.5	97.6
(표준편차)	(38.0)	(62.0)	(78.1)	(85.6)	(77.0)	(73.4)
2018년 평균	54.5	78.8	96.9	84.2	81.3	86.9
(표준편차)	(27.3)	(54.6)	(69.8)	(67.0)	(58.7)	(6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9. 〈표 Ⅲ-2-32〉.

4) 거주 주택 특성

가) 영유아 가구의 거주 주택 유형

영유아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8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 10.6%, 단독주택 6.6%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18.6%p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영-유아 가구 간에 주택유형 분포에 차이는 없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읍면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대도시지역에서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영유아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3〉 영유아 가구의 주택유형 특성

단위: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2018년	2015년	2012년
단독주택	6.4	4.8	13.0	6.7	6.6	4.6	11.5	6.5	6.1	4.8	12.5	6.6	19.1	14.3	21.3
아파트	76.6	84.3	78.1	80.2	81.1	85.4	80.2	82.8	79.1	84.2	78.7	81.2	62.6	63.7	66.1
연립/다세대주택	14.0	9.5	5.2	10.7	11.6	9.3	5.5	9.6	13.0	9.9	5.7	10.6	16.2	21.8	11.0
영업용 건물 내	2.1	0.3	2.1	1.3	0.3	0.2	2.3	0.5	1.1	0.2	2.0	0.9	1.3	0.3	1.5
기타	1.0	1.1	1.7	1.1	0.4	0.6	0.5	0.5	0.6	0.9	1.0	0.8	0.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533)	(2,593)	(2,52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19-120. 〈표 Ⅲ-2-33〉.

나) 영유아 가구의 주택 소유 여부

조사참여가구의 주택소유 여부는 전체 응답 가구에서 자가 59.7%, 전세 26.2%, 전월세 9.9%로, 자가 소유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 2012-2018년에 비해 자가 소유의 비율이 완만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자가 소유 비율은 영아가구(52.7%)에 비해 유아가구(65.3%)에서, 전세는 유아가구(20.8%)에 비해 영아가구(33.6%)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4〉 영유아 가구의 주택소유 형태

단위: %, (가구)

구분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영유아 가구				2018년	2015년	2012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자가	49.5	55.4	53.3	52.7	64.2	66.9	63.9	65.3	58.4	61.0	59.5	59.7	59.5	55.0	49.2
전세	40.7	30.0	24.6	33.6	21.7	20.2	20.0	20.8	28.9	25.2	21.8	26.2	24.2	32.5	30.6
전월세	8.0	10.2	11.4	9.5	11.3	8.2	8.7	9.6	10.4	9.4	9.7	9.9	9.5	9.9	13.6
사글세	0.6	1.0	0.4	0.7	0.6	1.0	2.0	1.0	0.6	1.1	1.5	1.0	1.9	1.1	0.8
기타	1.2	3.3	10.3	3.5	2.1	3.6	5.3	3.3	1.6	3.3	7.6	3.3	4.8	1.5	5.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100.0
(수)	(552)	(475)	(204)	(1,231)	(800)	(661)	(280)	(1,741)	(1,141)	(952)	(407)	(2,500)	(2533)	(2,593)	(2,52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17. 〈표 Ⅲ-2-34〉.

3. 시사점

첫째, 조사참여가구의 가구원 수는 3인, 4인 가구가 각 41.7%, 41.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5인 가구 12.6%, 6인 가구 3.4%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3인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 1인 자녀 가정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조사결과 전체 가구의 46.6%는 자녀가 1명이었으며, 2명은 42.0%, 3명 이상은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자녀 1명인 가구의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원유형별로 보육료 지원 가구 33.5%, 유아학비 지원 가구 28.0%,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구 27.4%, 그리고 복합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11.1%로 나타났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수령 가구가 각각 약 3%p 증가하고, 보육료와 다중복합지원 가구 비율은 감소하여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의

지급 및 도입에 따른 영-유아 보육 운영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부 취업률 95.2%(휴직포함), 모 취업률 54.1%(휴직포함)로 나타나, 2018년도와 비교하여 모 취업률(51.3%)이 증가하고, 부의 경우 2018년에 비해 휴직중 비율이 증가하였다. 모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14.5%로 가장 낮다가 3세 이후에 51%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영유아가구가 지원받는 '보육·교육비 지원유형'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직종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모의 경우 양육수당 또는 복수의 복합지원을 받는 경우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 46시간 24분, 모의 주당 근로시간 38시간으로 부모 근로시간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근로시간 축소 등의 영향이 반영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시간 중심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정책의 설계가 기관보육 운영뿐만 아니라 가정내 부모돌봄을 포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동연령별로 달라지는 양육형태(부모 직접돌봄, 기관이용 등)와 부모의 취업/휴직 및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취업 부모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 32.6%, 아버지 2.1%, 부모 모두 육아휴직 2.4%로 나타났다. 2018년 모 26.0%, 부 1.1%와 비교하면 부-모 육아휴직 이용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성별격차는 여전히 큼을 보여준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 48.8%, 아버지가 그만둔 적이 있다 0.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영유아부모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증가함을 보여준다(모: 40.3%→48.8%, 부 0.4%→0.7%, 부모 모두 그만둔적 없음: 59.1%→49.7%). 경력단절의 이유로 '모'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37.4%,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이 29.5%로 나타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 전담의 가치가 크다'는 모의 응답이 2018년보다 많아졌고(2018년 31.2%→37.4%),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2012년 48.7%→29.5%) 나타났다. '부'의 경우에도 '일보다 육아 전담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46.3%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응답률이 2018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7.8%→46.3%). 이로써 과거에 비해 부모의 자녀 직접돌봄에 대한 선호와 가치부여가 증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접돌봄의 선호와 선택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력단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경력단절 없이 부모 직접돌봄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성별격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육아지원의 설계가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업 중인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른 출근, 늦은 퇴근시간과 긴급상황, 보육·교육 기관 부모참여 부담에서 5점척도 평균 2.9점 이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이용 시간 보장 하에서도 여전히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근무시간 간의 미스매치,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자녀돌봄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육시간 운영과 틈새보육 및 긴급보육의 운영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주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교육 지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문제 3.1점으로 나타났다.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방식 갈등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부모 가정의 아동이 학습지원과 발달에서 격차를 경험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의 역량 관점에서 이주민가족/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부모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조사참여가구의 월 평균 소득 505만 5천원, 지출 327만 6천원으로 영유아가구 소득은 2012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2012년 이후 증가하던 가구지출이 2021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가 클수록 평균 가구소득과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유아가구의 소득과 지출이 영아가구에 비해 크고,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순으로 소득과 지출의 수준을 보였다. 2인가구의 경우 (적은 사례수이긴 하나) 2018년 월평균 가구소득 240만원 6천원에서 174만 8천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가구지출이 월 154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양육비 지출은 평균 97.6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소득 505만 5천원 대비 19.3%, 가구지출 327만 6천원 대비 2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취업/휴직중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이 미취업가구에 비해 크나,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취업가구에서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모 취업가

구 17.8%, 미취업가구 21.1%).

이로써 한부모 가정으로 보이는 2인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그리고 취업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과 함께 외벌이/미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설계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Ⅳ

영유아 양육 특성

0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0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03 장애 영유아 양육

04 추가 출산 의향

05 시사점

Ⅳ. 영유아 양육 특성

제 4장은 영유아 가구가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양육 특성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 1절은 하루 중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평일 시간대별로는 어떠한 이용기관을 주로 이용하며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담고 있다. 제 2절은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3절에서는 장애 영유아 보육 현황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절은 영유아 가구의 추가 출산계획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1. 하루 중 돌보는 사람 및 이용기관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낮 시간 주된 양육자 또는 기관, 영유아 연령별·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등 우리나라 영유아의 양육 특성을 분석하였다.

가.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41.4%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5.0%로 외조부모가 3.4%, 친조부모 1.6%로 나타났다. 그 외에 육아전문인력이 돌보는 비율은 0.6%였다. 2018년과 비교하여 기관이용과 모 돌봄 등 전반적으로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육아전문인력에 의한 돌봄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0.6%).

영유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모가 돌보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60.9%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영아 모 돌봄 54.1%, 유아 기관 다님 63.5%와 비교하여 영아의 경우 모 돌봄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아의 경우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긴급돌봄의 운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 기준으로는 0세의 경우 75.5%가 모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아기의 경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모가 돌보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는 모 돌봄 30% 내외로 나타났다. 기관이용의 경우 0세 12.3%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이용으로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의 돌봄은 0세 자녀 2.2%를 제외하고는 1~5세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다(cf. 2018년 부 돌봄: 0세 0.8%, 1세 1.1%, 2세 0.7%, 3세 0.3%, 4세 0.4%, 5세 1.0%).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취업/모부재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69.1%, 63.8%로 나타났으며, 휴직중/미취업 모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31.2%, 39.7%로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모 부재 등에서 조부모 돌봄의 비율이 1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비혈연돌봄인력/육아전문인력 이용이 각 1.3%, 1.1%로 다른 하위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249만원이하 그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제 특성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x^2(df)$
전체	0.9	41.4	0.3	1.6	3.4	0.1	0.6	0.6	51.0	0.1	100.0(3,471)	–
2018년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	100.0(3,775)	
영유아구분												
영아	1.4	52.6	0.3	1.6	3.8	0.2	0.5	0.5	39.0	–	100.0(1,679)	308.6 (9)***
유아	0.6	32.1	0.3	1.6	3.1	–	0.6	0.6	60.9	0.1	100.0(1,792)	
연령												
0세	2.2	75.5	0.2	2.7	5.6	0.1	0.7	0.5	12.3	0.1	100.0(780)	
1세	0.9	43.4	0.8	1.2	2.7	–	0.6	0.4	50.0	0.0	100.0(472)	
2세	0.9	36.1	–	0.8	3.0	0.5	0.3	0.6	57.8	–	100.0(427)	647.8 (45)***
3세	0.7	33.9	–	2.0	2.9	–	0.4	0.3	59.7	–	100.0(486)	
4세	0.7	29.8	0.1	1.4	2.8	–	0.8	0.7	63.6	0.1	100.0(630)	
5세	0.4	32.8	0.9	1.5	3.5	–	0.6	0.9	59.3	0.2	100.0(676)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부모	외조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없음	계(수)	$x^2(df)$
지역규모												
대도시	0.9	38.0	0.4	2.7	3.5	0.2	0.9	0.6	52.7	0.2	100.0(1,565)	23.6
중소도시	0.9	43.1	0.4	1.0	3.8	-	0.4	0.4	50.0	-	100.0(1,324)	(18)
읍·면	1.1	45.4	0.1	0.5	2.4	-	0.4	0.8	49.3	-	100.0(582)	
모취업 여부												
취업	1.8	15.2	0.6	3.0	7.5	0.2	1.3	1.1	69.1	0.2	100.0(1,340)	
휴직중	0.2	65.7	0.5	1.5	0.6	0.2	0.1	-	31.2	-	100.0(430)	865.0 (27)***
미취업	0.4	58.7	-	0.2	0.6	-	0.1	0.3	39.7	-	100.0(1,670)	
부재 등	-	23.4	-	12.8	-	-	-	-	63.8	-	100.0(3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0.4	48.3	0.3	1.4	2.6	-	-	0.2	46.7	-	100.0(196)	
250~299만원	1.8	56.7	-	0.9	0.9	-	0.5	-	39.2	-	100.0(198)	
300~349만원	0.7	54.4	-	0.6	1.7	-	0.3	0.8	41.5	-	100.0(480)	
350~399만원	1.0	49.8	-	0.6	1.0	-	0.2	1.5	45.5	0.3	100.0(311)	299.5
400~499만원	1.0	46.7	0.2	1.2	1.8	-	0.1	0.1	48.6	0.1	100.0(675)	(72)***
500~599만원	0.9	39.0	0.3	1.9	2.5	0.1	0.5	0.1	54.5	0.2	100.0(655)	
600~699만원	1.5	30.2	0.6	1.1	4.1	0.4	0.5	1.9	59.8	-	100.0(349)	
700만원이상	0.6	23.5	0.9	3.7	9.3	0.2	1.9	0.4	59.6	-	100.0(560)	
모름/무응답	-	51.7	-	-	3.6	-	-	1.5	43.2	-	100.0(47)	
2018년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	100.0(3,775)	
2015년	0.6	41.3	0.3	2.9	3.1	-	0.4	1.6	49.0	0.7	100.0(3,560)	
2012년	0.1	37.5	0.1	1.9	3.5	0.1	0.5	0.1	56.0	0.1	100.0(3,343)	
2009년	1.9	60.0	0.6	8.1	4.8	0.2	0.9	-	11.8	4.8	100.0(7,45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128-129. 〈표 Ⅳ-1-1〉.
*** $p < .001$.

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1) 전체 영유아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평일 시간대별 전체 영유아의 이용기관과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이용의 경우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이 유치원 이용 시간 분포에 비해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10시 기준 이용률이 어린이집 49.7%, 유치원 26.4%, 부모 18.9%, 반일제이상 학원 2.8%, 조부모 1.8%, 비혈연 0.4%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하원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오후 5시경이면 다수 하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하원 시간 분포를 보였다. 이와 연동하여 오후 3시 00분이후부터 시간제 사교육기관 이용률이 이전 0.4%에서 이후 최고 6.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6시이후 이용률은 어린이집 2.9%, 유치원 0.7%, 부모 84.8%, 사교육기관 1.3%, 조부모 8.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이 0세아 25.2%에서 1세아 80.6%, 2세아 88.3%를 보이다 3세아 43.6%, 4세아 37.9%, 5세아 37.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분포를, 하원 시간이 늦은 시간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저녁 6시 이후 기준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돌봄이 취업모 각각 2.9%, 84.8%, 미취업모 각각 0.7%, 97.6%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Ⅳ-1-9).

〈표 Ⅳ-1-2〉 평일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6.4	–	–	–	–	2.8	0.4	0.2
07:31~08:00	0.8	0.2	94.1	–	–	–	–	4.0	0.5	0.5
08:01~08:30	3.8	1.7	86.9	0.1	–	–	–	6.0	0.6	0.8
08:31~09:00	13.0	8.6	70.6	0.6	–	–	–	5.8	0.5	0.9
09:01~09:30	32.0	20.7	41.0	1.6	0.1	–	–	3.4	0.3	0.9
09:31~10:00	45.8	25.6	23.3	2.6	–	–	–	2.0	–	0.5
10:01~10:30	**49.7**	**26.4**	**18.9**	**2.8**	–	–	–	**1.8**	–	**0.4**
10:31~11:00	49.8	26.4	18.7	2.8	–	–	–	1.8	–	0.4
11:01~11:30	49.8	26.4	18.6	2.8	0.1	–	–	1.9	–	0.4
11:31~12:00	49.7	26.4	18.5	2.8	–	–	–	2.0	–	0.4
12:01~12:30	49.4	26.4	18.8	2.8	–	–	–	2.1	0.1	0.5
12:31~13:00	49.1	26.4	19.1	2.8	0.1	–	–	2.0	0.1	0.4
13:01~13:30	48.9	26.1	19.4	2.7	0.1	–	–	2.1	–	0.5
13:31~14:00	48.9	25.8	19.6	2.8	0.2	–	–	2.3	0.1	0.5
14:01~14:30	48.7	25.3	20.2	2.7	0.1	–	–	2.3	–	0.5
14:31~15:00	47.9	24.6	21.3	2.6	0.4	–	–	2.6	0.1	0.4
15:01~15:30	45.7	22.4	24.4	2.1	1.6	–	–	3.2	0.1	0.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5:31~16:00	37.7	20.3	31.6	1.8	3.1	-	0.1	4.5	0.2	0.6
16:01~16:30	23.6	13.8	48.0	1.6	5.3	-	0.1	6.5	0.4	0.8
16:31~17:00	14.3	7.2	60.8	1.3	6.1	-	0.1	8.7	0.5	0.9
17:01~17:30	8.7	3.3	70.4	0.8	5.3	-	0.1	9.7	0.6	1.0
17:31~18:00	5.7	1.7	76.7	0.5	3.5	-	0.1	10.4	0.6	0.9
18:01~18:30	**2.9**	**0.7**	**84.8**	**0.1**	**1.3**	**-**	**-**	**8.8**	**0.4**	**0.9**
18:31~19:00	1.1	0.3	90.6	0.1	0.2	-	-	6.5	0.4	0.8
19:01~19:30	0.6	0.2	93.6	-	0.1	-	-	4.6	0.4	0.6
19:31~20:00	0.4	0.2	96.2	-	-	-	-	2.7	0.2	0.3
20:01~20:30	0.1	0.2	97.8	-	-	-	-	1.6	0.1	0.1
20:31~21:00	0.1	0.2	98.1	-	-	-	-	1.5	0.1	-
21:01~21:30	0.1	0.2	98.3	-	-	-	-	1.2	0.1	-
21:31~22:00	0.1	0.2	98.3	-	-	-	-	1.2	0.2	-
22:01~22:30	0.1	0.2	98.4	-	-	-	-	1.1	0.2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3〉 0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6.5	-	-	-	-	3.1	-	0.5
07:31~08:00	0.3	-	95.2	-	-	-	-	3.7	0.2	0.6
08:01~08:30	1.6	-	91.7	-	-	-	-	5.8	0.1	0.9
08:31~09:00	8.3	-	83.4	-	-	-	-	7.1	-	1.1
09:01~09:30	17.1	0.2	75.4	-	-	-	-	6.3	0.2	0.9
09:31~10:00	23.9	0.2	69.0	-	-	-	-	5.8	0.2	0.9
10:01~10:30	**25.2**	**0.2**	**67.6**	**-**	**-**	**-**	**-**	**5.9**	**0.2**	**0.9**
10:31~11:00	25.2	0.2	67.5	-	-	-	-	6.1	0.2	0.9
11:01~11:30	24.9	0.2	66.8	-	-	-	-	7.0	0.2	0.9
11:31~12:00	24.9	0.2	66.4	-	-	-	-	7.4	0.2	0.9
12:01~12:30	23.6	0.2	67.4	-	-	-	-	7.5	0.4	0.9
12:31~13:00	23.4	0.2	67.8	-	0.1	-	-	7.2	0.5	0.9
13:01~13:30	22.9	0.2	68.0	-	0.1	-	-	7.8	0.2	0.9
13:31~14:00	22.9	0.2	67.6	-	-	-	-	8.1	0.2	1.0
14:01~14:30	22.9	0.2	67.3	-	0.1	-	-	8.5	0.2	0.9
14:31~15:00	22.0	0.2	67.5	-	0.1	-	-	9.0	0.4	0.9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5:01~15:30	20.0	0.2	69.2	–	0.1	–	–	9.2	0.2	1.2
15:31~16:00	15.6	0.2	73.5	–	0.1	–	–	9.3	0.2	1.3
16:01~16:30	9.2	0.2	80.5	–	–	–	–	8.4	0.3	1.4
16:31~17:00	6.6	–	82.8	–	–	–	–	9.2	0.2	1.2
17:01~17:30	3.4	–	85.7	–	–	–	–	9.7	0.2	1.1
17:31~18:00	2.8	–	87.2	–	–	–	–	8.9	0.3	0.9
18:01~18:30	**2.0**	**–**	**90.0**	**–**	**–**	**–**	**–**	**7.1**	**0.1**	**0.8**
18:31~19:00	0.5	–	93.0	–	–	–	–	5.8	–	0.8
19:01~19:30	–	–	94.6	–	–	–	–	4.7	–	0.7
19:31~20:00	–	–	97.4	–	–	–	–	2.1	0.2	0.4
20:01~20:30	–	–	99.2	–	–	–	–	0.7	0.1	–
20:31~21:00	–	–	99.2	–	–	–	–	0.8	–	–
21:01~21:30	–	–	98.9	–	–	–	–	1.0	0.1	–
21:31~22:00	–	–	99.0	–	–	–	–	1.0	–	–
22:01~22:30	–	–	99.0	–	–	–	–	0.9	0.1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4〉 1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0.5	–	96.5	–	–	–	–	2.0	0.7	0.2
07:31~08:00	1.6	–	93.8	–	–	–	–	3.6	0.6	0.3
08:01~08:30	5.6	–	87.4	–	–	–	–	5.7	0.6	0.7
08:31~09:00	18.8	0.2	72.9	–	–	–	–	6.7	0.6	0.7
09:01~09:30	49.0	0.5	44.1	–	–	–	–	4.4	0.6	1.4
09:31~10:00	72.3	0.4	23.1	0.2	–	0.2	–	2.8	0.1	0.9
10:01~10:30	**80.6**	**0.4**	**16.3**	**0.2**	**–**	**0.2**	**–**	**1.8**	**0.1**	**0.4**
10:31~11:00	81.0	0.4	15.9	0.2	–	0.2	–	1.8	0.1	0.4
11:01~11:30	81.0	0.4	15.4	0.2	–	0.2	–	1.9	0.1	0.7
11:31~12:00	80.8	0.4	15.8	0.2	–	0.2	–	1.9	0.1	0.7
12:01~12:30	80.6	0.4	15.7	0.2	–	0.2	–	1.8	0.1	1.0
12:31~13:00	79.5	0.4	16.9	–	–	0.2	–	1.8	0.1	1.0
13:01~13:30	79.5	0.4	17.1	–	–	0.2	–	1.6	0.1	1.1
13:31~14:00	79.1	0.4	17.1	–	–	0.2	–	2.0	0.1	1.1
14:01~14:30	79.1	0.4	17.1	–	–	0.2	–	2.0	0.1	1.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4:31~15:00	79.1	0.4	17.4	–	–	0.2	–	2.0	0.1	0.8
15:01~15:30	76.1	0.4	19.4	–	0.1	0.2	–	2.8	0.1	0.8
15:31~16:00	61.9	0.4	29.7	–	–	–	0.2	5.6	0.6	1.4
16:01~16:30	38.0	0.4	51.0	–	–	–	0.2	7.8	0.6	1.9
16:31~17:00	21.8	0.4	64.1	–	–	–	–	10.9	0.8	1.9
17:01~17:30	15.6	–	71.9	–	–	–	–	10.0	0.9	1.6
17:31~18:00	10.4	–	78.2	–	–	–	–	9.2	1.1	1.1
18:01~18:30	**4.4**	**–**	**85.8**	**–**	**–**	**–**	**–**	**8.2**	**0.7**	**0.9**
18:31~19:00	2.2	–	91.3	–	–	–	–	5.7	0.5	0.3
19:01~19:30	0.7	–	94.5	–	–	–	–	3.9	0.6	0.2
19:31~20:00	0.7	–	97.1	–	–	–	–	1.9	0.2	0.2
20:01~20:30	0.1	–	98.5	–	–	–	–	1.2	0.2	–
20:31~21:00	0.1	–	98.7	–	–	–	–	1.0	0.2	–
21:01~21:30	0.1	–	99.4	–	–	–	–	0.3	0.2	–
21:31~22:00	0.1	–	99.1	–	–	–	–	0.3	0.5	–
22:01~22:30	0.1	–	98.6	–	–	–	–	0.8	0.5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5〉 2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7.7	–	–	–	–	2.3	–	–
07:31~08:00	1.0	–	95.5	–	–	–	–	2.9	0.5	0.1
08:01~08:30	4.5	0.2	88.5	–	–	–	–	5.9	0.5	0.4
08:31~09:00	18.3	0.5	74.4	0.3	–	–	–	5.6	0.5	0.4
09:01~09:30	52.6	0.7	42.1	0.6	0.1	–	–	3.6	–	0.3
09:31~10:00	80.3	0.7	16.3	1.2	–	–	–	1.6	–	–
10:01~10:30	**88.3**	**0.7**	**8.8**	**1.2**	**–**	**–**	**–**	**1.0**	**–**	**–**
10:31~11:00	88.6	0.7	8.8	1.2	–	–	–	0.8	–	–
11:01~11:30	88.6	0.7	8.7	1.2	–	–	–	0.8	–	0.1
11:31~12:00	88.6	0.7	8.7	1.2	–	–	–	0.8	–	0.1
12:01~12:30	88.4	0.7	8.9	1.2	–	–	–	0.8	–	–
12:31~13:00	88.1	0.7	8.9	1.2	–	–	–	1.1	–	–
13:01~13:30	87.5	0.7	9.5	1.2	–	–	–	1.1	–	–
13:31~14:00	87.5	0.7	9.5	1.2	–	–	–	1.1	–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4:01~14:30	87.2	0.7	9.8	1.2	–	–	–	1.1	–	–
14:31~15:00	85.6	0.7	11.1	1.1	–	–	–	1.6	–	–
15:01~15:30	83.4	0.7	13.2	0.3	0.2	–	–	2.0	–	0.2
15:31~16:00	69.3	0.7	26.3	0.1	0.4	–	–	3.0	–	0.2
16:01~16:30	40.2	0.5	50.2	0.1	1.0	–	–	6.9	0.7	0.4
16:31~17:00	26.6	0.2	61.7	–	1.3	–	–	8.9	0.7	0.7
17:01~17:30	17.6	–	71.5	–	0.4	–	–	9.1	0.5	0.9
17:31~18:00	10.8	–	78.8	–	–	–	–	9.0	0.5	0.9
18:01~18:30	**5.1**	–	**86.2**	**–**	**–**	–	–	**7.9**	–	**0.9**
18:31~19:00	1.7	–	92.4	–	–	–	–	5.0	–	0.8
19:01~19:30	1.4	–	94.4	–	–	–	–	3.8	–	0.4
19:31~20:00	0.9	–	96.5	–	–	–	–	2.4	–	0.2
20:01~20:30	0.6	–	97.5	–	–	–	–	1.7	–	0.2
20:31~21:00	0.3	–	97.8	–	–	–	–	1.7	–	0.2
21:01~21:30	0.3	–	98.5	–	–	–	–	1.2	–	–
21:31~22:00	0.3	–	98.5	–	–	–	–	1.2	–	–
22:01~22:30	0.3	–	98.5	–	–	–	–	1.2	–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6〉 3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5.1	–	–	–	–	3.6	0.9	0.2
07:31~08:00	0.8	0.4	91.5	–	–	–	–	5.2	0.9	1.1
08:01~08:30	4.5	2.5	83.7	–	–	–	–	7.3	0.9	1.1
08:31~09:00	13.8	12.5	64.7	0.3	–	–	–	6.5	1.1	1.1
09:01~09:30	30.7	36.3	27.6	1.0	–	–	–	2.9	–	1.5
09:31~10:00	39.6	46.4	10.4	2.3	–	–	–	0.3	–	0.9
10:01~10:30	**43.6**	**47.5**	**5.4**	**2.7**	–	–	**–**	**0.1**	–	**0.7**
10:31~11:00	43.7	47.8	5.1	2.7	–	–	–	–	–	0.7
11:01~11:30	43.7	47.8	5.1	2.7	–	–	–	–	–	0.7
11:31~12:00	43.7	47.8	5.1	2.7	–	–	–	–	–	0.7
12:01~12:30	43.7	47.8	5.1	2.7	–	–	–	–	–	0.7
12:31~13:00	43.5	47.8	5.3	2.7	–	–	–	–	–	0.7
13:01~13:30	43.5	47.8	5.3	2.7	–	–	–	–	–	0.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3:31~14:00	43.5	47.4	5.4	2.7	0.3	-	-	-	-	0.7
14:01~14:30	43.1	46.3	6.8	2.7	0.3	-	-	-	-	0.7
14:31~15:00	42.0	45.9	7.9	2.6	0.3	-	-	0.6	-	0.7
15:01~15:30	40.7	43.7	11.4	2.4	0.6	-	-	1.1	-	0.2
15:31~16:00	37.1	40.0	16.0	1.8	1.9	-	-	3.0	-	0.2
16:01~16:30	25.6	31.1	33.0	1.3	3.3	-	-	5.7	-	0.1
16:31~17:00	15.3	15.2	54.5	1.1	4.0	-	-	9.3	-	0.6
17:01~17:30	8.6	7.1	66.5	1.0	4.2	-	-	11.9	0.1	0.7
17:31~18:00	4.7	3.7	73.0	0.6	2.7	0.1	-	14.3	0.1	0.7
18:01~18:30	**2.1**	**1.5**	**82.2**	**0.2**	**0.8**	**0.1**	**-**	**11.6**	**0.3**	**1.1**
18:31~19:00	0.9	1.3	86.7	0.2	0.1	0.1	-	9.3	0.1	1.3
19:01~19:30	0.3	0.9	90.1	0.2	-	0.1	-	6.8	0.2	1.3
19:31~20:00	0.5	0.9	93.4	-	-	0.1	-	4.3	-	0.7
20:01~20:30	0.2	0.9	95.2	-	-	0.1	-	3.4	-	0.2
20:31~21:00	0.2	0.9	95.6	-	-	0.1	-	3.1	-	-
21:01~21:30	0.2	0.9	96.2	-	-	0.1	-	2.6	-	-
21:31~22:00	0.2	0.9	96.2	-	-	0.1	-	2.6	-	-
22:01~22:30	0.2	0.9	96.9	-	-	0.1	-	1.8	0.1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7〉 4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0.4	-	95.9	-	-	-	-	3.2	0.3	0.3
07:31~08:00	0.9	0.1	93.8	-	-	-	-	4.5	0.3	0.4
08:01~08:30	4.4	3.4	83.5	0.3	-	-	-	6.6	0.7	1.1
08:31~09:00	11.1	17.7	63.2	1.4	-	-	-	4.9	0.3	1.3
09:01~09:30	25.8	41.8	25.8	3.7	0.2	-	-	1.4	0.3	1.1
09:31~10:00	36.7	51.8	5.5	5.4	0.2	-	-	0.3	-	0.1
10:01~10:30	**37.9**	**53.5**	**2.0**	**5.7**	**0.2**	**-**	**-**	**0.6**	**-**	**-**
10:31~11:00	37.9	53.5	2.0	5.7	0.2	-	-	0.6	-	-
11:01~11:30	37.9	53.5	2.3	5.7	0.2	-	-	0.3	-	-
11:31~12:00	37.9	53.5	2.3	5.7	0.2	-	-	0.3	-	-
12:01~12:30	37.9	53.5	2.0	5.7	0.2	-	-	0.6	-	-
12:31~13:00	37.8	53.5	2.3	5.9	0.2	-	-	0.3	-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3:01~13:30	37.9	52.8	2.6	5.7	0.3	–	0.1	0.6	–	–
13:31~14:00	37.9	51.9	3.4	5.7	0.4	–	0.1	0.6	–	–
14:01~14:30	37.7	51.2	4.7	5.7	0.3	–	–	0.3	–	–
14:31~15:00	37.0	48.8	6.6	6.0	1.2	–	–	0.4	–	–
15:01~15:30	35.0	44.2	12.2	4.5	2.8	–	–	1.3	–	–
15:31~16:00	30.1	40.7	17.9	4.2	4.9	–	–	1.9	0.1	0.2
16:01~16:30	19.8	25.4	35.3	3.8	9.9	–	0.1	4.8	0.5	0.3
16:31~17:00	11.6	13.4	51.3	2.6	12.4	–	0.2	7.5	0.6	0.3
17:01~17:30	6.6	6.0	64.4	1.0	10.8	–	0.2	9.3	0.8	0.9
17:31~18:00	5.0	3.8	71.2	0.4	7.3	–	0.2	10.5	0.6	0.9
18:01~18:30	**2.8**	**1.3**	**81.9**	**–**	**2.9**	**–**	**0.1**	**9.4**	**0.7**	**0.9**
18:31~19:00	1.1	–	90.4	–	0.5	–	0.1	6.6	0.8	0.6
19:01~19:30	0.9	–	94.5	–	–	–	–	3.6	0.6	0.4
19:31~20:00	0.5	–	96.4	–	–	–	–	2.8	0.3	0.1
20:01~20:30	–	–	98.8	–	–	–	–	1.1	–	0.1
20:31~21:00	–	–	98.8	–	–	–	–	1.1	–	0.1
21:01~21:30	–	–	98.7	–	–	–	–	1.2	–	0.1
21:31~22:00	–	–	98.7	–	–	–	–	1.2	–	0.1
22:01~22:30	–	–	98.9	–	–	–	–	1.1	–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8〉 5세 아동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	0.1	96.9	0.1	–	–	–	2.2	0.5	0.1
07:31~08:00	0.1	0.4	94.8	0.1	–	–	–	3.7	0.5	0.5
08:01~08:30	2.8	4.0	86.6	0.4	0.1	–	–	4.7	0.9	0.6
08:31~09:00	9.5	20.6	64.0	1.4	–	–	–	3.2	0.8	0.5
09:01~09:30	24.8	43.2	25.0	4.5	–	–	–	1.7	0.5	0.1
09:31~10:00	34.8	51.9	5.7	7.1	–	–	–	0.5	–	–
10:01~10:30	**37.1**	**53.6**	**1.8**	**7.1**	–	–	**–**	**0.5**	–	–
10:31~11:00	37.1	53.6	1.8	7.1	–	–	–	0.5	–	–
11:01~11:30	37.1	53.6	1.9	7.1	–	–	–	0.4	–	–
11:31~12:00	37.1	53.6	1.9	7.1	–	–	–	0.4	–	–
12:01~12:30	37.1	53.2	2.2	7.1	–	–	–	0.4	–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2:31~13:00	37.1	53.2	2.2	7.1	-	-	-	0.4	-	-
13:01~13:30	37.1	52.3	3.1	7.1	-	-	-	0.4	-	-
13:31~14:00	37.1	51.8	3.4	7.2	-	-	-	0.4	-	-
14:01~14:30	37.0	50.9	4.3	7.1	0.1	-	-	0.5	-	-
14:31~15:00	36.1	49.7	6.2	6.2	1.0	-	-	0.7	-	-
15:01~15:30	33.2	43.1	10.0	5.0	6.6	-	0.2	1.6	-	0.2
15:31~16:00	23.2	37.5	17.2	4.9	12.9	-	0.2	3.1	0.7	0.2
16:01~16:30	15.0	23.0	32.2	4.1	19.2	-	0.2	5.2	0.7	0.4
16:31~17:00	7.4	13.6	45.7	4.6	19.9	-	0.6	6.6	0.9	0.8
17:01~17:30	3.4	6.4	58.6	3.4	17.7	-	0.6	7.9	1.2	0.9
17:31~18:00	1.7	2.3	70.0	2.2	11.6	-	0.2	9.9	1.1	1.0
18:01~18:30	**1.4**	**1.1**	**82.0**	**0.7**	**4.1**	**-**	**0.1**	**8.7**	**0.8**	**1.0**
18:31~19:00	0.8	0.5	89.7	0.1	0.9	-	-	6.3	0.9	0.9
19:01~19:30	0.2	0.2	93.2	-	0.4	-	-	4.8	0.7	0.3
19:31~20:00	0.1	0.1	96.2	-	0.1	-	-	2.7	0.5	0.3
20:01~20:30	-	0.1	97.2	-	0.1	-	-	1.9	0.4	0.3
20:31~21:00	-	0.1	97.8	-	-	-	-	1.7	0.4	-
21:01~21:30	-	0.1	98.2	-	-	-	-	1.1	0.7	-
21:31~22:00	-	0.1	98.3	-	-	-	-	1.1	0.6	-
22:01~22:30	-	0.1	98.6	-	-	-	-	0.9	0.4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9〉 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0.2	-	96.4	-	-	-	-	2.8	0.4	0.2
07:31~08:00	0.8	0.2	94.1	-	-	-	-	4.0	0.5	0.5
08:01~08:30	3.8	1.7	86.9	0.1	-	-	-	6.0	0.6	0.8
08:31~09:00	13.0	8.6	70.6	0.6	-	-	-	5.8	0.5	0.9
09:01~09:30	32.0	20.7	41.0	1.6	0.1	-	-	3.4	0.3	0.9
09:31~10:00	**45.8**	**25.6**	**23.3**	**2.6**	**-**	**-**	**-**	**2.0**	**-**	**0.5**
10:01~10:30	49.7	26.4	18.9	2.8	-	-	-	1.8	-	0.4
10:31~11:00	49.8	26.4	18.7	2.8	-	-	-	1.8	-	0.4
11:01~11:30	49.8	26.4	18.6	2.8	0.1	-	-	1.9	-	0.4
11:31~12:00	49.7	26.4	18.5	2.8	-	-	-	2.0	-	0.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2:01~12:30	49.4	26.4	18.8	2.8	–	–	–	2.1	0.1	0.5
12:31~13:00	49.1	26.4	19.1	2.8	0.1	–	–	2.0	0.1	0.4
13:01~13:30	48.9	26.1	19.4	2.7	0.1	–	–	2.1	–	0.5
13:31~14:00	48.9	25.8	19.6	2.8	0.2	–	–	2.3	0.1	0.5
14:01~14:30	48.7	25.3	20.2	2.7	0.1	–	–	2.3	–	0.5
14:31~15:00	47.9	24.6	21.3	2.6	0.4	–	–	2.6	0.1	0.4
15:01~15:30	45.7	22.4	24.4	2.1	1.6	–	–	3.2	0.1	0.4
15:31~16:00	37.7	20.3	31.6	1.8	3.1	–	0.1	4.5	0.2	0.6
16:01~16:30	23.6	13.8	48.0	1.6	5.3	–	0.1	6.5	0.4	0.8
16:31~17:00	14.3	7.2	60.8	1.3	6.1	–	0.1	8.7	0.5	0.9
17:01~17:30	8.7	3.3	70.4	0.8	5.3	–	0.1	9.7	0.6	1.0
17:31~18:00	5.7	1.7	76.7	0.5	3.5	–	0.1	10.4	0.6	0.9
18:01~18:30	**2.9**	**0.7**	**84.8**	**0.1**	**1.3**	**–**	**–**	**8.8**	**0.4**	**0.9**
18:31~19:00	1.1	0.3	90.6	0.1	0.2	–	–	6.5	0.4	0.8
19:01~19:30	0.6	0.2	93.6	–	0.1	–	–	4.6	0.4	0.6
19:31~20:00	0.4	0.2	96.2	–	–	–	–	2.7	0.2	0.3
20:01~20:30	0.1	0.2	97.8	–	–	–	–	1.6	0.1	0.1
20:31~21:00	0.1	0.2	98.1	–	–	–	–	1.5	0.1	–
21:01~21:30	0.1	0.2	98.3	–	–	–	–	1.2	0.1	–
21:31~22:00	0.1	0.2	98.3	–	–	–	–	1.2	0.2	–
22:01~22:30	0.1	0.2	98.4	–	–	–	–	1.1	0.2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표 Ⅳ-1-10〉 미취업모 자녀의 시간대별 이용기관 및 돌보는 사람: 07:00~22:30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07:00~07:30	–	–	99.4	–	–	–	–	0.5	–	0.1
07:31~08:00	–	–	99.3	–	–	–	–	0.6	–	0.1
08:01~08:30	1.7	0.9	96.6	–	–	–	–	0.5	0.2	0.1
08:31~09:00	7.5	5.4	85.9	0.4	–	–	–	0.6	0.2	0.1
09:01~09:30	25.5	19.0	53.1	1.5	0.1	–	–	0.6	–	0.3
09:31~10:00	41.7	23.6	31.3	2.3	0.1	0.1	–	0.6	–	0.3
10:01~10:30	**45.9**	**24.6**	**26.3**	**2.3**	**0.1**	**0.1**	**–**	**0.4**	**–**	**0.3**
10:31~11:00	45.8	24.7	26.2	2.3	0.1	0.1	–	0.5	–	0.3
11:01~11:30	45.8	24.7	26.3	2.3	0.1	0.1	–	0.4	–	0.3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보육	기타기관	조부모	혈연	비혈연
11:31~12:00	45.7	24.7	26.3	2.3	0.1	0.1	-	0.5	-	0.3
12:01~12:30	45.4	24.6	26.6	2.3	0.1	0.1	-	0.6	-	0.3
12:31~13:00	45.3	24.6	26.7	2.3	0.1	0.1	-	0.6	-	0.3
13:01~13:30	45.2	24.2	26.8	2.3	0.1	0.1	-	0.9	-	0.3
13:31~14:00	45.1	23.6	27.5	2.4	0.1	0.1	-	0.9	-	0.3
14:01~14:30	44.9	22.9	28.4	2.4	0.1	0.1	-	0.9	-	0.3
14:31~15:00	43.7	21.9	30.3	2.3	0.6	0.1	-	0.9	-	0.3
15:01~15:30	41.5	19.4	34.8	1.5	1.9	0.1	-	0.8	-	0.1
15:31~16:00	31.5	17.3	45.6	1.3	3.1	-	-	1.1	-	0.1
16:01~16:30	15.3	9.7	67.9	0.8	5.0	-	-	1.2	0.1	-
16:31~17:00	7.3	3.7	81.3	0.6	5.7	-	0.1	1.3	0.1	-
17:01~17:30	3.4	1.1	89.7	0.6	4.3	-	0.1	0.8	-	-
17:31~18:00	1.7	0.4	94.0	0.5	2.4	-	-	0.8	0.1	-
18:01~18:30	**0.7**	**0.2**	**97.6**	**0.1**	**0.5**	**-**	-	**0.7**	**0.2**	**-**
18:31~19:00	0.4	-	98.7	-	0.1	-	-	0.7	0.1	-
19:01~19:30	0.1	-	99.1	-	-	-	-	0.5	0.3	-
19:31~20:00	0.1	-	99.2	-	-	-	-	0.4	0.2	-
20:01~20:30	-	-	99.5	-	-	-	-	0.4	0.1	-
20:31~21:00	-	-	99.5	-	-	-	-	0.4	0.1	-
21:01~21:30	-	-	99.6	-	-	-	-	0.2	0.1	-
21:31~22:00	-	-	99.5	-	-	-	-	0.2	0.2	-
22:01~22:30	-	-	99.5	-	-	-	-	0.2	0.2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

1) 평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체 평균 7.9시간으로 2018년 평균 8.4시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6시간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7~9시간 31.7%, 10시간 이상 26.4%, 3시간 미만 6.1%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영아가 유아보다 모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취업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다소 적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1-11〉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6.0	35.8	31.7	13.3	13.1	100.0(3,450)	7.9(3.5)
2018년	0.6	5.3	32.9	28.4	14.9	18.0	100.0(3,738)	8.4(3.85)
2015년	0.5	5.7	30.1	26.6	16.8	20.3	100.0(3,528)	8.7(4.2)
2012년	1.1	11.6	37.9	26.2	12.5	10.7	100.0(3,343)	7.1(3.5)
영유아구분								
영아	-	5.2	23.0	22.5	24.3	24.9	100.0(1,370)	9.5(4.0)
유아	0.2	6.4	42.5	36.5	7.5	6.9	100.0(2,080)	7.0(3.0)
$x^2(df)/t$			694.1(6)***					10.6***
연령								
0세	-	1.6	6.1	7.5	44.3	40.4	100.0(423)	11.1(3.7)
1세	-	4.3	22.0	18.4	24.5	30.7	100.0(515)	8.1(3.6)
2세	0.1	7.9	32.8	34.2	13.6	11.4	100.0(432)	7.7(3.2)
3세	-	6.1	34.5	41.6	9.4	8.4	100.0(440)	7.1(3.2)
4세	0.6	7.7	40.7	35.6	7.6	7.7	100.0(554)	6.9(2.9)
5세	-	5.9	47.2	34.6	6.5	5.8	100.0(1,086)	6.7(2.6)
$x^2(df)/F$			1092.0(30)***					34.6***
지역규모								
대도시	0.3	7.2	33.4	31.4	16.6	11.1	100.0(1,555)	7.8(3.5)
중소도시	-	5.3	36.8	32.1	11.8	14.1	100.0(1,315)	8.0(3.6)
읍·면	-	4.8	39.3	31.5	8.9	15.6	100.0(580)	7.9(3.6)
$x^2(df)/F$			29.2(12)**					-
모취업 여부								
취업	0.1	13.7	55.0	23.8	4.3	3.2	100.0(1,339)	5.9(2.6)
휴직중	0.9	1.0	17.8	29.4	21.9	29.0	100.0(429)	10.1(3.7)
미취업	-	0.4	23.4	39.5	19.0	17.8	100.0(1,668)	9.1(3.3)
부재 등	-	18.1	20.7	15.8	24.1	21.3	100.0(14)	8.2(4.9)
$x^2(df)/F$			2452.8(18)***					345.8***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	2.5	22.1	40.5	16.3	18.6	100.0(187)	8.9(3.3)
250~299만원	-	2.1	29.2	28.2	22.0	18.5	100.0(196)	9.1(3.6)
300~349만원	-	3.0	30.2	33.7	17.6	15.5	100.0(479)	8.6(3.5)
350~399만원	-	2.0	25.2	32.5	21.9	18.5	100.0(310)	9.1(3.5)
400~499만원	0.1	3.2	32.3	34.3	14.8	15.5	100.0(671)	8.4(3.5)
500~599만원	-	4.2	42.5	32.0	8.6	12.6	100.0(653)	7.6(3.4)
600~699만원	-	10.3	45.2	26.2	11.5	6.8	100.0(347)	6.8(3.2)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700만원이상	0.7	15.3	41.8	28.7	7.0	6.6	100.0(560)	6.5(3.2)
모름/무응답	-	1.4	32.0	28.4	16.6	21.6	100.0(47)	9.0(4.1)
$x^2(df)/F$			376.2(48)***					18.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41-142. 〈표 Ⅳ-1-12〉.
** $p < .01$, *** $p < .001$.

평일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전체 평균 4.0시간으로 2018년 평균 3.6시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시간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6시간 39.7%, 7시간 이상 10.1%로 나타났다. 2018년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없음 5.6%에서 2021년 0.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유아보다 영아자녀, 읍면지역,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그룹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2〉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평일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49.3	39.7	5.6	2.5	2.0	100.0(3,370)	4.0(2.6)
2018년	5.6	54.3	29.4	5.8	3.1	1.9	100.0(3,689)	3.6(2.76)
2015년	11.0	59.1	22.5	2.6	3.4	1.3	100.0(3,475)	3.0(2.7)
2012년	15.3	67.5	12.9	1.0	0.6	2.7	100.0(3,343)	2.0(1.7)
영유아구분								
영아	0.8	48.4	39.3	5.5	3.5	2.5	100.0(1,345)	4.1(2.8)
유아	0.8	49.9	39.9	5.7	2.0	1.7	100.0(2,025)	3.9(2.5)
$x^2(df)/t$			22.2(6)**					3.2**
연령								
0세	0.2	46.4	38.1	6.4	6.0	3.0	100.0(420)	4.5(3.1)
1세	0.4	46.7	40.0	5.1	4.6	3.2	100.0(504)	4.4(2.9)
2세	1.4	51.1	39.4	5.3	1.1	1.6	100.0(421)	3.7(2.4)
3세	0.6	47.1	39.4	7.6	2.9	2.3	100.0(429)	4.2(2.7)
4세	1.0	54.1	37.4	4.7	1.5	1.3	100.0(530)	3.7(2.2)
5세	0.7	48.9	41.3	5.4	1.9	1.7	100.0(1,066)	3.9(2.4)
$x^2(df)/F$			67.0(30)***					6.7***
지역규모								
대도시	0.5	53.0	37.3	4.7	2.5	2.1	100.0(1,522)	3.9(2.6)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1.1	48.5	40.6	5.9	2.5	1.5	100.0(1,289)	3.9(2.5)
읍·면	0.8	42.3	43.5	7.6	2.8	3.1	100.0(559)	4.4(2.7)
$x^2(df)/F$			28.5(12)**					5.0**
모취업 여부								
취업	1.4	45.1	42.1	7.3	2.2	1.9	100.0(1,293)	4.1(2.5)
휴직중	–	50.5	36.8	5.7	2.8	4.2	100.0(425)	4.2(3.0)
미취업	0.4	52.9	38.2	4.2	2.8	1.5	100.0(1,624)	3.9(2.4)
부재 등	1.9	46.7	44.5	–	4.7	2.3	100.0(28)	4.0(2.8)
$x^2(df)/F$			55.0(18)***					2.9*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0.2	40.4	40.8	12.4	4.7	1.4	100.0(163)	4.5(2.7)
250~299만원	1.4	39.0	45.6	3.9	4.8	5.3	100.0(190)	4.7(3.3)
300~349만원	0.2	53.8	33.2	6.4	4.0	2.4	100.0(463)	4.1(2.9)
350~399만원	1.0	53.6	36.1	3.5	2.8	3.0	100.0(307)	4.0(2.7)
400~499만원	0.6	51.8	39.9	2.8	3.3	1.7	100.0(664)	3.9(2.5)
500~599만원	1.0	46.8	44.5	4.2	1.3	2.3	100.0(645)	4.0(2.4)
600~699만원	0.5	49.9	41.9	6.5	1.1	0.1	100.0(342)	3.7(2.0)
700만원이상	1.1	50.2	35.8	9.4	1.6	1.9	100.0(550)	4.0(2.6)
모름/무응답	–	34.4	59.9	2.9	2.8	–	100.0(46)	4.1(1.8)
$x^2(df)/F$			239.7(48)***					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43-144. 〈표 Ⅳ-1-13〉.
* $p < .05$, ** $p < .01$, *** $p < .001$.

2) 주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에 부모가 자녀와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모 평균 13.2시간, 부 평균 11.6시간으로 2018년 모 12.6시간, 부 8.9시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부-모 간 시간의 차이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영아보다 유아,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읍면지역에서, 휴직중/미취업모에서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며, 부의 경우 영아보다 유아,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지역, 취업모가구, 그리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700만원 이상 제외) 아버지가 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3〉 제 특성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	1.1	2.2	3.4	25.5	67.8	100.0(3,450)	13.2(2.6)
2018년	0.2	1.0	4.8	6.1	33.3	54.6	100.0(3,738)	12.6(3.12)
2015년	0.2	1.5	7.9	6.9	28.3	55.2	100.0(3,528)	12.5(3.6)
2012년	0.8	1.1	3.2	6.9	38.4	49.6	100.0(3,343)	12.1(2.8)
영유아구분								
영아	-	0.8	2.2	4.1	33.8	59.0	100.0(1,370)	13.0(2.6)
유아	-	1.2	2.2	3.0	21.1	72.4	100.0(2,080)	13.3(2.6)
$x^2(df)/t$			76.3(6)***					-4.0***
연령								
0세	-	1.0	2.6	4.4	45.3	46.7	100.0(423)	12.7(2.7)
1세	-	0.5	2.5	4.6	35.0	57.4	100.0(515)	12.9(2.6)
2세	-	1.1	1.6	3.6	26.8	67.0	100.0(432)	13.2(2.5)
3세	0.2	2.2	2.1	3.2	17.4	74.9	100.0(440)	13.3(2.8)
4세	-	0.8	2.1	2.6	22.0	72.5	100.0(554)	13.4(2.4)
5세	-	1.0	2.3	3.2	22.4	71.3	100.0(1,086)	13.3(2.5)
$x^2(df)/F$			138.1(30)***					5.3***
지역규모								
대도시	-	0.8	2.2	3.4	29.4	64.2	100.0(1,555)	13.0(2.5)
중소도시	0.1	1.7	2.5	3.0	22.6	70.1	100.0(1,315)	13.3(2.8)
읍·면	-	0.2	1.4	4.4	23.0	70.9	100.0(580)	13.4(2.2)
$x^2(df)/F$			27.1(12)**					4.5*
모취업 여부								
취업	-	2.2	3.2	3.7	24.1	66.8	100.0(1,339)	13.0(3.0)
휴직중	-	0.4	1.1	3.4	26.7	68.4	100.0(429)	13.3(2.3)
미취업	0.1	0.3	1.6	3.1	26.4	68.5	100.0(1,668)	13.3(2.3)
부재 등	-	-	-	-	32.4	67.6	100.0(14)	13.9(1.8)
$x^2(df)/F$			1582.0(18)***					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	1.3	3.0	4.7	21.4	69.6	100.0(187)	13.1(2.7)
250~299만원	-	0.5	2.5	3.9	31.7	61.3	100.0(196)	13.1(2.5)
300~349만원	-	0.4	2.5	6.0	28.1	63.1	100.0(479)	13 (2.6)
350~399만원	-	0.8	1.2	2.4	25.8	69.8	100.0(310)	13.4(2.4)
400~499만원	-	1.4	2.6	2.8	24.1	69.1	100.0(671)	13.2(2.7)
500~599만원	0.1	1.2	1.7	2.7	25.6	68.5	100.0(653)	13.2(2.5)
600~699만원	-	1.7	2.5	3.6	28.4	63.7	100.0(347)	13.0(2.7)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700만원이상	–	1.1	2.2	2.9	20.8	73.1	100.0(560)	13.3(2.6)
모름/무응답	–	–	–	1.3	45.7	53.0	100.0(47)	13.5(2.4)
$x^2(df)/F$				119.9(48)***				1.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145. 〈표 Ⅳ-1-14〉.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1-14〉 제 특성별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주말

단위: %(명), 시간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6.6	9.0	6.7	25.0	52.5	100.0(3,370)	11.6(4.0)
2018년	1.2	15.9	20.0	9.8	26.2	26.8	100.0(3,689)	8.9(4.7)
2015년	1.6	17.1	21.4	9.9	23.2	26.8	100.0(3,475)	8.8(5.0)
2012년	2.7	11.4	13.1	13.6	28.9	30.3	100.0(3,343)	9.3(4.4)
영유아구분								
영아	0.2	7.3	9.7	7.7	30.5	44.6	100.0(1,345)	11.2(4.1)
유아	0.2	6.2	8.6	6.2	22.1	56.7	100.0(2,025)	11.8(4.0)
$x^2(df)/t$				65.2(6)***				-5.0***
연령								
0세	–	9.6	12.8	8.8	36.9	31.9	100.0(420)	10.5(4.2)
1세	0.3	5.9	8.9	9.1	33.2	42.6	100.0(504)	11.3(3.9)
2세	0.2	7.4	8.8	5.7	24.7	53.3	100.0(421)	11.6(4.1)
3세	0.5	7.3	9.1	5.8	19.8	57.5	100.0(429)	11.6(4.2)
4세	0.2	5.4	7.0	6.8	25.6	55.0	100.0(530)	11.9(3.8)
5세	0.2	6.0	9.2	6.0	21.4	57.2	100.0(1,066)	11.8(4)
$x^2(df)/F$				132.9(30)***				9.2***
지역규모								
대도시	–	5.9	9.0	6.9	28.9	49.4	100.0(1,522)	11.5(3.8)
중소도시	0.5	6.4	8.6	6.0	22.3	56.2	100.0(1,289)	11.8(4.2)
읍·면	–	8.7	10.1	8.0	22.2	50.9	100.0(559)	11.3(4.2)
$x^2(df)/F$				29.2(12)**				1.2
모취업 여부								
취업	0.5	3.1	7.5	7.8	24.9	56.2	100.0(1,293)	12.1(3.7)
휴직중	–	8.3	9.7	6.5	26.3	49.2	100.0(425)	11.3(4.2)
미취업	–	9.2	10.1	5.7	24.8	50.3	100.0(1,624)	11.2(4.2)
부재 등	–	6.5	10.8	9.8	33.7	39.2	100.0(28)	11.2(3.8)

구분	없음	1~3시간	4~6시간	7~9시간	10~12 시간	13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x^2(df)/F$				68.8(18)***				9.5***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0.2	15.7	24.4	4.7	21.1	33.9	100.0(111)	9.2(4.7)
250~299만원	0.8	9.3	8.8	7.4	30.7	42.9	100.0(190)	10.9(4.3)
300~349만원	-	10.2	9.1	9.6	23.6	47.4	100.0(463)	11.1(4.4)
350~399만원	-	9.0	10.4	4.7	24.3	51.5	100.0(307)	11.3(4.3)
400~499만원	0.2	4.2	10.8	5.6	26.6	52.6	100.0(664)	11.7(3.9)
500~599만원	0.1	6.9	7.9	7.4	24.8	53.0	100.0(645)	11.6(4.0)
600~699만원	0.3	4.0	5.9	10.6	25.9	53.4	100.0(342)	11.9(3.5)
700만원이상	0.5	3.8	4.9	4.0	23.4	63.5	100.0(550)	12.5(3.5)
모름/무응답	-	0.8	15.7	4.3	32.7	46.6	100.0(46)	12.1(3.9)
$x^2(df)/F$				291.8(48)***				10.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46. 〈표 Ⅳ-1-15〉.
** $p < .01$, *** $p < .001$.

2. 부모의 양육특성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부모의 양육정서와 자녀돌봄 참여,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등 양육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부모의 양육 정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정서를 조사하였다.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2.6%에 불과하였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18.6%가 그러하다는 수긍의 응답을 하였고 53.5%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자녀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부모의 심리적 우울감, 자녀에 대한 학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44.8%가 그러하다고 긍정하였고 31.3%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2015년과의 비교를 보면,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p 정도 높아졌고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라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10%p이상 상당히 높아진 양상을 보였다.

〈표 Ⅳ-2-1〉 영유아 부모별 부정적 양육 정서

단위: %(명)

구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아니다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양육에 있어 혼란스러움	13.5	10.2	38.6	43.9	25.3	21.4	14.0	17.4	8.6	7.1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2.4	3.3	16.2	31.1	27.9	25.1	30.7	26.9	22.8	13.6
자기계발 포기할 때 많음	13.8	10.8	31.0	39.3	24.0	20.7	19.6	20.8	11.7	8.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47. 〈표 Ⅳ-2-1〉.

5점 척도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정서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가 3.3점,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포기할 때가 있다가 3.2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규모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읍면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험이 많고 귀찮고 짜증스러워하는 때가 많으며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의 기회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Ⅳ-2-2〉 제 특성별 부모의 부정적 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양육 방법 선택에서의 혼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 있음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포기	(수)
전체	3.3	2.4	3.2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2.4	3.2	(1,231)
유아	3.3	2.5	3.1	(1,269)
t	0.7	−1.4	1.0	
지역규모				
대도시	3.3	2.4	3.1	(1,141)
중소도시	3.4	2.5	3.2	(952)
읍·면	3.3	2.3	3.0	(407)

구분	양육 방법 선택에서의 혼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 있음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포기	(수)
F	3.6*	4.2*	4.9**	
모취업여부				
취업	3.4	2.5	3.2	(997)
휴직중	3.5	2.4	3.4	(303)
미취업	3.3	2.5	3.1	(1,174)
부재 등	3.1	2.0	2.8	(26)
F	2.4	1.5	2.9*	
2018년	3.3	2.8	3.2	(2,533)
2015년	3.0	2.5	3.0	(2,55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48. 〈표 Ⅳ-2-2〉.
* $p < .05$, ** $p < .01$.

나. 부모의 양육 특성

1) 부모의 자녀 돌봄 참여 정도

자녀의 아버지가 평소 자녀 돌봄(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적극 참여 27.8%, 대체로 참여 32.8%로 나타나 60.6%가 보통 이상으로 자녀돌봄에 아버지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2%에 지나지 않아서 모든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적극 참여비율이 더 높았고 취업모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의 양육 적극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적극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가구에서 어버지의 자녀돌봄 적극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2-3〉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적극참여	대체로 참여	보통	참여하지 않음	전혀참여 하지않음	계(수)	5점척도평균 (표준편차)
전체	27.8	32.8	30.2	8.0	1.2	100.0(2,416)	3.8(1.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2.7	32.1	27.2	6.9	1.1	100.0(1,204)	3.9(1.0)
유아	23.5	33.4	32.8	9.1	1.3	100.0(1,212)	3.7(1.0)
$x^2(df)/t$			24.3(4)***				4.7***
지역규모							
대도시	28.5	33.4	29.1	7.5	1.4	100.0(1,110)	3.8(1.0)
중소도시	26.9	32.6	31.8	8.0	0.7	100.0(916)	3.8(1.0)
읍·면	28.4	31.7	28.5	9.6	1.8	100.0(390)	3.8(1.0)
$x^2(df)/F$			4.2(8)				0.3
모취업 여부							
취업	32.4	32.6	26.9	7.1	0.9	100.0(956)	3.9(1.0)
휴직중	29.2	31.8	29.7	8.1	1.1	100.0(298)	3.8(1.0)
미취업	23.2	33.3	33.2	8.9	1.4	100.0(1,152)	3.7(1.0)
부재 등	33.9	33.9	24.3	7.9	-	100.0(10)	3.8(1.0)
$x^2(df)/F$			23.8(12)*				6.4***
부학력							
중졸 이하	16.6	36.0	26.8	17.3	3.4	100.0(30)	3.4(1.0)
고졸	21.8	33.9	33.4	8.7	2.2	100.0(541)	3.6(1.0)
2년제대학	23.2	35.3	31.2	9.8	0.5	100.0(467)	3.7(1.0)
4년제대학	30.4	33.0	28.4	7.2	1.0	100.0(1,210)	3.9(1.0)
대학원 이상	39.4	22.3	31.1	5.7	1.5	100.0(164)	3.9(1.0)
$x^2(df)/F$			52.6(16)***				6.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22.3	27.5	38.8	9.1	2.2	100.0(109)	3.6(1.0)
250~299만원	29.5	31.7	26.8	9.9	2.1	100.0(138)	3.8(1.0)
300~349만원	27.9	32.8	29.6	8.0	1.8	100.0(341)	3.8(1.0)
350~399만원	25.5	31.1	34.9	7.0	1.4	100.0(222)	3.7(1.0)
400~499만원	24.2	37.1	31.1	7.3	0.3	100.0(464)	3.8(0.9)
500~599만원	25.8	31.9	31.9	9.3	1.1	100.0(474)	3.7(1.0)
600~699만원	31.2	34.8	26.2	6.8	1.0	100.0(237)	3.9(1.0)
700만원 이상	33.4	31.0	26.5	8.2	0.8	100.0(401)	3.9(1.0)
모름/무응답	36.3	26.2	26.7	2.3	8.5	100.0(30)	3.8(1.2)
$x^2(df)/F$			47.7(32)*				1.6
2018년	20.7	34.4	33.7	8.0	3.2	100.0(2,464)	3.6(1.00)
2015년	15.7	28.9	42.8	9.9	2.7	100.0(2,500)	3.5(0.9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49-150. 〈표 Ⅳ-2-3〉.
* $p < .05$, *** $p < .001$.

자녀의 어머니가 평소 자녀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 적극 참여한다는 응답이 7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참여함이 16.7%여서, 적절히 참

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95.3%로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다. 최연소자녀가 영아인 가정에서, 읍·면 지역에서, 미취업이거나 휴직 중일 때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표 Ⅳ-2-4〉 어머니의 자녀돌봄 참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적극참여	대체로참여	보통	참여하지 않음	전혀참여 하지않음	계(수)	평균(표준편차) :5점 척도
전체	78.6	16.7	3.4	0.9	0.4	100.0(2,416)	4.7(0.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83.4	13.4	1.6	1.2	0.4	100.0(1,204)	4.8(0.6)
유아	74.4	19.5	5.0	0.6	0.5	100.0(1,212)	4.7(0.6)
$x^2(df)/t$			39.3(4)***				4.6***
지역규모							
대도시	77.9	16.6	3.9	0.9	0.7	100.0(1,110)	4.7(0.7)
중소도시	77.9	18.0	3.4	0.6	0.1	100.0(916)	4.7(0.6)
읍·면	82.5	13.4	2.2	1.4	0.6	100.0(390)	4.8(0.6)
$x^2(df)/F$			5.5(8)				0.2
모취업 여부							
취업	71.9	21.2	5.3	1.2	0.4	100.0(956)	4.6(0.7)
휴직중	87.4	11.8	0.8	-	-	100.0(298)	4.9(0.4)
미취업	82.0	14.1	2.5	0.7	0.6	100.0(1,152)	4.8(0.6)
부재 등	77.3	5.9	5.9	11.0	-	100.0(10)	4.5(1.0)
$x^2(df)/F$			79.1(12)***				16.8***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76.8	19.2	3.3	0.8	-	100.0(109)	4.7(0.6)
250~299만원	85.2	11.7	2.2	-	0.9	100.0(138)	4.8(0.6)
300~349만원	78.1	14.9	5.4	0.8	0.7	100.0(341)	4.7(0.7)
350~399만원	81.7	12.9	3.7	1.7	-	100.0(222)	4.7(0.6)
400~499만원	82.7	15.1	1.6	0.3	0.3	100.0(464)	4.8(0.5)
500~599만원	75.4	19.8	3.6	0.9	0.2	100.0(474)	4.7(0.6)
600~699만원	83.5	11.5	4.1	-	1.0	100.0(237)	4.8(0.6)
700만원 이상	73.2	21.6	3.2	1.6	0.3	100.0(401)	4.7(0.7)
모름/무응답	62.8	23.8	8.4	2.0	3.1	100.0(30)	4.4(0.9)
$x^2(df)/F$			51.0(32)*				3.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자녀의 부와 모 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양육에 있어 평균적으로 10점 기준 어머니가 7.1만큼 담당하고 아버지는 2.9를 담당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가사 분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어머니가 7.2, 아버지가

2.8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응답자 성별로 다시 비교해보면, 아버지가 인식하는 아버지 스스로의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은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분담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아버지는 스스로의 양육, 가사 분담을 어머니 인식보다 더 크게 보고 있었다. (여성 응답자의 부 자녀양육 분담 2.8: 남성응답자의 부 자녀양육 분담 3.4).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이나 휴직 중인 모 가정보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가사 분담 비율이 높았다.

〈표 Ⅳ-2-5〉 부모의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전체10 기준)

단위: %(명)

구분	자녀양육				가사				계(수)
	모		부		모		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1	1.4	2.9	1.4	7.2	1.7	2.8	1.7	(2,416)
응답자 성별									
남자	6.6	1.5	3.4	1.5	6.4	1.7	3.6	1.7	(519)
여자	7.2	1.3	2.8	1.3	7.4	1.6	2.6	1.6	(1,897)
t	−9.6***		9.6***		−11.9*		11.9*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1	1.3	2.9	1.3	7.0	1.7	3.0	1.7	(1,204)
유아	7.0	1.4	3.0	1.4	7.3	1.7	2.7	1.7	(1,212)
t	1.3**		−1.3**		−3.7		3.7		
모취업 여부									
취업	6.6	1.4	3.4	1.4	6.6	1.8	3.4	1.8	(956)
휴직중	7.4	1.2	2.6	1.2	7.1	1.7	2.9	1.7	(298)
미취업	7.4	1.3	2.6	1.3	7.6	1.5	2.4	1.5	(1,152)
부재 등	7.1	1.8	2.9	1.8	7.4	1.5	2.6	1.5	(10)
F	57.8***		57.8***		63.1***		63.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7.3	1.4	2.7	1.4	7.4	1.5	2.6	1.5	(109)
250~299만원	7.2	1.2	2.8	1.2	7.5	1.7	2.5	1.7	(138)
300~349만원	7.2	1.6	2.8	1.6	7.3	1.8	2.7	1.8	(341)
350~399만원	7.4	1.2	2.6	1.2	7.5	1.5	2.5	1.5	(222)
400~499만원	7.2	1.4	2.8	1.4	7.3	1.6	2.7	1.6	(464)
500~599만원	7.2	1.3	2.8	1.3	7.2	1.6	2.8	1.6	(474)
600~699만원	6.7	1.3	3.3	1.3	6.8	1.6	3.2	1.6	(237)
700만원 이상	6.8	1.5	3.2	1.5	6.7	1.8	3.3	1.8	(401)

구분	자녀양육				가사				계(수)
	모		부		모		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름/무응답	6.7	1.4	3.3	1.4	6.7	1.6	3.3	1.6	(30)
F	5.8***		5.8***		6.3***		6.3***		
모학력									
중졸 이하	7.0	1.7	3.0	1.7	7.2	2.1	2.8	2.1	(47)
고졸	7.2	1.5	2.8	1.5	7.5	1.7	2.5	1.7	(484)
2년제대학	7.1	1.4	2.9	1.4	7.3	1.6	2.7	1.6	(579)
4년제대학	7.0	1.3	3.0	1.3	7.0	1.7	3.0	1.7	(1,150)
대학원 이상	7.0	1.3	3.0	1.3	6.9	1.8	3.1	1.8	(162)
F	1.3		1.3		4.1***		4.1***		
부학력									
중졸 이하	7.4	1.4	2.6	1.4	7.9	1.4	2.1	1.4	(30)
고졸	7.2	1.5	2.8	1.5	7.5	1.7	2.5	1.7	(541)
2년제대학	7.2	1.5	2.8	1.5	7.2	1.7	2.8	1.7	(467)
4년제대학	7.0	1.3	3.0	1.3	7.0	1.7	3.0	1.7	(1,210)
대학원 이상	6.9	1.4	3.1	1.4	7.1	1.6	2.9	1.6	(164)
F	3.5**		3.5**		5.9***		5.9***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53-154. 〈표 Ⅳ-2-5〉.
* $p < .05$, ** $p < .01$, *** $p < .001$.

다.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 연령별 선호하는 양육 형태

자녀 연령별로 선호하는 양육 형태를 조사한 결과, 1세 미만과 1~2세 미만은 가정양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 97.8%, 71.4%로 2세 미만의 경우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3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27.0%와 어린이집이 71.3%로 기관보육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4세 미만과 4세~5세 미만, 취학 전(5세 이상)의 경우에는 가정양육 선호가 6.8%, 1.8%, 0.3%에 지나지 않아 3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보육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때 3~4세는 어린이집이 70.8%, 유치원이 20.7%인데, 4~5세가 되면 어린이집이 32.2%, 5세 이상은 9.2%만이 어린이집을 선호해, 아동 연령별로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6〉 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전 (5세이상)
가정양육	97.8	71.4	27.0	6.8	1.8	0.3
어린이집	1.6	27.8	71.3	70.8	32.2	9.2
유치원	-	0.1	0.8	20.7	61.4	81.1
사설기관	-	0.1	0.3	1.0	3.5	8.1
잘 모르겠음	0.6	0.7	0.6	0.7	0.1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018년 (가정양육)	98.6	85.9	43.9	11.9	2.8	1.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55. 〈표 Ⅳ-2-6〉.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자녀의 모든 연령에 대해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일관적으로 높은 편이고 5세이상 연령에 대해 도시보다는 유치원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아에 대한 사설기관 선호는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대도시 10.1%, 중소도시 7.5%, 읍면 4.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선호 유형을 보면, 취업모의 경우 (1세미만, 5세이상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영유아기 전반적으로 미취업모에 비해 가정양육 선호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영아기인 경우 취업모의 어린이집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아기에서는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선호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4세이상 유아의 경우 (특히 5세이상 취학직전) 미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유치원 이용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리고 취업모가 사설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지역규모 및 모취업여부에 따른 아동연령별 선호 양육형태

단위: %(명)

구분	만1세미만					1세~2세미만					2세~3세미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전체	97.8	1.6	-	-	0.6	71.4	27.8	0.1	0.1	0.7	27.0	71.3	0.8	0.3	0.6
지역규모															
대도시	97.9	1.8	-	-	0.3	74.2	25.4	-	0.1	0.3	27.4	71.9	0.4	0.3	0.1
중소도시	97.7	1.3	-	0.1	0.9	66.9	31.6	0.2	0.1	1.2	25.2	72.0	1.2	0.1	1.4

구분	만1세미만					1세~2세미만					2세~3세미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읍·면	97.6	1.9	-	-	0.4	76.0	23.8	-	-	0.2	30.6	67.6	1.0	0.7	0.1
모취업 여부															
취업	97.0	2.6	-	0.1	0.3	65.8	33.5	-	0.2	0.5	22.1	76.0	1.2	0.3	0.4
휴직중	97.6	1.2	-	-	1.2	73.6	24.4	0.8	-	1.2	25.6	71.4	0.8	-	2.2
미취업	98.6	0.9	-	-	0.6	76.1	23.3	-	-	0.6	31.7	67.0	0.5	0.4	0.3
부재 등	96.9	-	-	-	3.1	60.6	36.4	-	-	3.1	31.5	65.4	-	-	3.1

구분	3세~4세미만					4세~5세미만					5세이상(취학전)					(수)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기관	모르겠음	
전체	6.8	70.8	20.7	1.0	0.7	1.8	32.2	61.4	3.5	1.1	0.3	9.2	81.1	8.1	1.3	(2,500)
지역규모																
대도시	6.2	72.5	19.5	1.3	0.5	1.0	32.0	61.2	4.6	1.2	0.2	9.4	78.9	10.1	1.5	(1,141)
중소도시	6.4	69.2	22.4	1.0	1.0	1.9	31.9	61.5	3.4	1.2	0.4	9.0	81.5	7.5	1.5	(952)
읍·면	9.8	70.9	19.2	-	0.1	3.7	33.4	61.6	1.1	0.1	0.5	9.3	85.7	4.2	0.2	(407)
모취업 여부																
취업	4.2	70.8	23.3	1.1	0.5	1.5	32.5	60.8	4.6	0.6	0.2	9.8	79.6	9.5	0.9	(997)
휴직중	6.9	70.7	20.9	0.4	1.2	2.2	28.5	65.0	3.0	1.3	0.2	7.8	81.2	9.2	1.6	(303)
미취업	9.2	70.9	18.3	1.0	0.6	2.1	32.9	61.0	2.8	1.3	0.4	9.2	82.3	6.5	1.6	(1,174)
부재 등	7.5	69.0	20.4	-	3.1	-	40.2	56.7	-	3.1	-	4.3	87.7	5.0	3.1	(2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양육지원자

자녀 돌봄, 경제적 지원, 가사 지원 등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먼저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은 41.2%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의 외조부모 32.8%, 친조부모 16.0% 등의 순이었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보다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아 주는 비율이 높았고,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친 또는 외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모의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 없음이 28.6%로 낮아 미취업모 54.6%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 때 대체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특히 외조부모가 도와준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도와주는 사람 없음의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Ⅳ-2-8〉 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2(df)$
전체	16.0	32.8	1.0	5.3	1.9	1.7	41.2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6.8	37.1	0.9	5.6	0.8	1.5	37.2	100.0(1,231)	26.9(6)***
유아	15.3	29.2	1.1	5.0	2.8	2.0	44.6	100.0(1,269)	
모취업 여부									
취업	20.1	39.2	1.5	5.9	2.0	2.9	28.6	100.0(997)	
휴직중	17.5	35.9	0.3	6.3	2.7	2.1	35.2	100.0(303)	165.8(18)***
미취업	11.2	26.3	0.9	4.6	1.7	0.6	54.6	100.0(1,174)	
부재 등	45.6	20.6	-	-	-	-	33.7	100.0(26)	
가구소득									
249만원이하	13.4	23.7	1.9	3.2	1.5	1.4	54.9	100.0(147)	
250~299만원	16.3	25.8	1.0	7.4	1.1	2.0	46.4	100.0(146)	
300~349만원	13.9	26.6	0.1	3.7	2.2	1.8	51.6	100.0(350)	
350~399만원	13.7	23.3	0.8	6.8	1.8	0.6	53.1	100.0(226)	
400~499만원	13.9	30.3	1.0	4.6	1.8	1.1	47.2	100.0(474)	124.4(48)***
500~599만원	16.6	34.9	2.0	5.4	2.5	1.1	37.5	100.0(480)	
600~699만원	15.0	44.7	1.0	5.1	1.9	1.2	31.1	100.0(240)	
700만원이상	21.2	41.6	0.6	6.3	1.7	4.1	24.5	100.0(406)	
모름/무응답	25.5	30.8	-	6.8	-	-	36.8	100.0(31)	
2018년	15.7	22.1	0.7	3.2	1.4	1.7	55.2	100.0(2,533)	
2015년	15.3	21.9	3.8	3.7	2.5	1.2	51.7	100.0(2,50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56. 〈표 Ⅳ-2-7〉.
*** $p < .001$.

경제적 지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70.3%로 2018년도 조사에서 83.9%인데 비해 경제적 도움을 받는 영유아 가구 비율이 본 조사에서 크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친조부모가 14.6%, 외조부모가 13.2%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니 읍·면지역에서 조부모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녀의 어머니가 부재한 한 경우에는 아이의 친조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4%여서 어떤 집단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비교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 가구소득별로는 299만원 이하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Ⅳ-2-9〉 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경제적인 지원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2(df)$
전체	14.6	13.2	0.6	0.8	0.3	0.2	70.3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7.6	14.5	0.5	1.1	0.2	0.3	65.8	100.0(1,231)	12.0(6)
유아	12.0	12.1	0.6	0.6	0.3	0.1	74.2	100.0(1,269)	
지역규모									
대도시	13.4	11.4	0.7	0.7	0.4	0.3	73.2	100.0(1,141)	
중소도시	15.5	14.8	0.5	0.8	0.1	0.1	68.2	100.0(952)	19.7(12)
읍·면	15.2	13.8	0.4	1.5	0.4	0.3	68.4	100.0(407)	
모취업 여부									
취업	14.9	14.4	0.4	0.8	0.3	0.4	68.8	100.0(997)	
휴직중	20.6	12.8	0.6	1.6	-	-	64.4	100.0(303)	22.9(18)
미취업	12.2	12.5	0.7	0.7	0.3	0.1	73.6	100.0(1,174)	
부재 등	33.4	5.0	-	-	-	-	61.6	100.0(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5.9	20.2	2.6	1.4	-	0.7	59.2	100.0(147)	
250~299만원	23.0	16.7	1.0	2.1	-	-	57.2	100.0(146)	
300~349만원	12.0	14.3	0.4	0.2	0.4	-	72.5	100.0(350)	
350~399만원	11.1	9.5	0.8	1.4	-	0.6	76.6	100.0(226)	83.5(48)**
400~499만원	14.5	13.9	0.5	1.4	0.5	-	69.3	100.0(474)	
500~599만원	17.7	10.3	0.5	0.4	0.3	-	70.8	100.0(480)	
600~699만원	8.5	12.1	0.2	1.0	-	0.5	77.7	100.0(240)	
700만원 이상	15.2	14.1	0.2	0.3	0.3	-	69.8	100.0(406)	
모름/무응답	16.1	20.1	-	-	-	6.8	56.9	100.0(31)	
2018년	8.7	5.9	0.2	0.7	0.4	0.2	83.9	100.0(2,533)	
2015년	8.5	4.1	5.0	1.1	0.1	0.1	81.1	100.0(2,50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기준.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57. 〈표 Ⅳ-2-8〉.
** $p < .01$.

가사 지원 등 육아 이외 집안일의 일손을 도움받는가라는 질문에서 64.5%는 지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2018년의 74.6%나 2015년의 73.7%와 비교하여 10%p이상 낮아진 수치로, 특히 아이의 외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18년도 13.6%에서 23.4%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은 비슷한 정도이나 외조부모의 원조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최연소자녀가 영

아인 집단이 유아인 집단보다는 조부모의 가사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가사지원 비율이 높았다. 미취업모집단에서는 가사지원 등이 없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모부재 집단은 아이 친조부모가 가사지원을 44.0%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외조부모는 10.1%로 나타났다. 가구 월 소득 300만원~399만원이하 집단에서 가사 지원 등을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2-10〉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이외의 양육지원자: 가사 지원 등

단위: %(명)

구분	아이 친조부모	아이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x^2(df)$
전체	8.4	23.4	0.5	2.0	0.7	0.5	64.5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3	26.5	0.4	2.1	0.5	0.5	60.7	100.0(1,231)	12.6(6)*
유아	7.7	20.8	0.5	1.9	0.8	0.5	67.7	100.0(1,269)	
지역규모									
대도시	9.4	22.5	0.3	2.0	0.5	0.7	64.7	100.0(1,141)	
중소도시	7.3	25.4	0.6	1.8	0.6	0.2	64.1	100.0(952)	6.0(12)
읍·면	9.0	20.8	0.6	2.4	1.3	0.6	65.2	100.0(407)	
모취업 여부									
취업	10.1	27.5	0.7	2.6	1.0	0.8	57.3	100.0(997)	
휴직중	11.2	29.8	–	2.6	–	0.8	55.6	100.0(303)	109.0
미취업	5.4	18.2	0.5	1.3	0.6	0.1	74.1	100.0(1,174)	(18)***
부재 등	44.0	10.1	–	1.6	–	–	44.3	100.0(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6	16.3	1.9	5.5	–	–	67.7	100.0(147)	
250~299만원	10.4	19.7	1.0	2.1	1.1	–	65.6	100.0(146)	
300~349만원	6.2	17.7	–	1.0	0.6	–	74.6	100.0(350)	
350~399만원	7.6	19.2	–	1.0	1.1	–	71.1	100.0(226)	
400~499만원	8.0	21.7	0.3	2.5	0.5	0.2	66.9	100.0(474)	108.6 (48)***
500~599만원	9.3	24.5	0.7	0.9	0.4	–	64.1	100.0(480)	
600~699만원	6.5	24.9	–	1.3	–	0.7	66.6	100.0(240)	
700만원 이상	10.0	33.3	0.9	3.3	1.4	2.2	48.9	100.0(406)	
모름/무응답	16.7	24.7	–	–	–	–	58.6	100.0(31)	
2018년	9.2	13.6	0.3	1.1	0.4	0.8	74.6	100.0(2,533)	
2015년	8.2	12.2	3.5	1.5	0.3	0.6	73.7	100.0(2,50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158-159. 〈표 Ⅳ-2-9〉.

* $p < .05$, *** $p < .001$.

3) 육아 관련 지식·조언 취득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 시 육아관련 지식이나 조언을 얻게 되는 대상으로서 육아관련 온라인 사이트가 3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친구나 동료 26.9%였고 집안 어른이 13.9%로, 그 외 서적, 형제자매, 전문가 등은 10% 이하의 소수 참조 대상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다른 방법보다 육아관련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고,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친구나 동료 또는 집안어른 등 인적 자원을 이용해 육아 지식을 얻는 비율이 높았으며 미취업모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육아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Ⅳ-2-11〉 육아 관련 지식·조언을 얻는 경로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육아 사이트	육아 전문가	관련 서적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기타	없음	계(수)	$x^2(df)$
전체	13.9	9.6	26.9	32.8	4.8	7.0	0.2	1.6	3.3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3.3	9.1	24.4	37.8	5.6	5.9	0.2	1.4	2.3	100.0(1,231)	28.5(8)***
유아	14.5	10.0	28.9	28.5	4.1	7.9	0.2	1.7	4.1	100.0(1,269)	
지역규모											
대도시	14.8	9.5	26.3	33.6	4.0	6.5	0.4	1.5	3.4	100.0(1,141)	
중소도시	12.9	9.4	27.5	32.7	5.7	7.0	0.2	1.7	3.0	100.0(952)	14.9(16)
읍·면	14.6	10.3	26.5	30.8	4.6	8.3	-	1.5	3.5	100.0(407)	
모취업 여부											
취업	16.0	10.9	28.0	29.1	4.7	5.7	0.1	1.9	3.7	100.0(997)	
휴직중	12.0	9.9	22.5	38.1	8.9	5.5	-	1.6	1.5	100.0(303)	70.0(24)***
미취업	11.8	8.3	27.6	35.1	3.8	8.6	0.4	1.2	3.2	100.0(1,174)	
부재 등	52.0	10.4	1.7	11.2	-	7.8	-	5.6	11.4	100.0(2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4)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가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Ⅳ-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여부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x^2(df)$
전체	38.4	61.6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3	62.7	100.0(1,231)	0.5(1)
유아	39.3	60.7	100.0(1,269)	
지역규모				
대도시	43.4	56.6	100.0(1,141)	
중소도시	36.5	63.5	100.0(952)	34.0(2)***
읍면지역	30.5	69.5	100.0(407)	
모취업 여부				
취업	39.3	60.7	100.0(997)	
휴직중	40.3	59.7	100.0(303)	6.2(3)
미취업	37.6	62.4	100.0(1,174)	
모부재 등	14.0	86.0	100.0(26)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42.0	58.0	100.0(970)	
유치원만 이용	42.3	57.7	100.0(737)	41.2(3)***
둘 다 이용	42.5	57.5	100.0(190)	
미이용	28.7	71.3	100.0(603)	
2018년	43.4	56.6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59-160. 〈표 Ⅳ-2-10〉.
*** $p < .00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장난감·도서대여에 대한 인지율이 89.9%로 가장 높으며, 육아정보제공 84.5%, 놀이체험프로그램 82.4%의 순으로 인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놀이 주제가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상담 및 검사, 부모교육 및 육아카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지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전 조사인 2018년에 비해서는 육아카페를 제외하면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인지율이 높아졌고 특히 놀이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율 상승폭이 컸다. 육아카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인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를 넘었고, 서비스 인지율이 높은 경우에 이용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의 이용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는 모두 3.8점 이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와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4.1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Ⅳ-2-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 등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인지율				이용 경험						도움 정도	
	2021	(수)	2018	2015	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 1~3회	연 1~3회	경험 없음	계(수)	5점 평균	(수)
육아정보제공	84.5	(978)	83.0	85.2	3.9	8.4	6.7	12.4	68.7	100.0(826)	3.8	(266)
부모상담 및 검사	61.7	(978)	59.4	63.2	1.0	1.9	4.1	9.6	83.3	100.0(610)	3.9	(101)
부모교육	71.6	(978)	66.7	65.2	1.0	3.7	4.5	14.1	76.7	100.0(701)	4.0	(155)
놀이·체험 프로그램	82.4	(978)	76.0	84.6	3.6	6.6	6.4	17.9	65.5	100.0(808)	4.1	(276)
장난감·도서 대여	89.9	(978)	87.5	92.8	2.5	14.0	6.7	17.4	59.4	100.0(873)	4.1	(349)
육아카페	63.0	(978)	66.5	66.3	3.4	4.5	3.5	11.6	77.0	100.0(626)	3.9	(13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61. 〈표 Ⅳ-2-11〉.

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3] 인지 여부와 이용 경험 및 만족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사이트에 대한 인지율은 73.0%였고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경우, 그리고 도시지역,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82.6%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는 다수가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연 1~3회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도시지역에서 이용경험이 조금 더 높았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평균 3.5점 정도의 수준을 보이면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평가한 비율이 46.4%였다. 만족도는 도시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3) www.childcare.go.kr

〈표 Ⅳ-2-1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인지율 (n=2,500)	이용 경험						만족도(5점 척도)			
		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계(수)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73.0	2.1	31.5	9.9	39.0	17.4	100.0(1,821)	46.4	3.5	0.7	(1,48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71.3	3.4	35.2	10.8	34.7	15.9	100.0(878)	47.4	3.5	0.7	(723)
유아	74.4	1.1	28.5	9.2	42.5	18.7	100.0(943)	45.5	3.5	0.7	(763)
$x^2(df)/t$	2.8(1)**			23.1(4)***					1.9		
지역규모											
대도시	74.6	1.8	29.4	9.0	40.9	18.9	100.0(853)	46.8	3.5	0.7	(684)
중소도시	73.0	2.4	33.5	11.1	38.5	14.6	100.0(693)	46.6	3.5	0.7	(586)
읍·면	68.6	2.3	31.7	9.3	35.1	21.5	100.0(275)	44.3	3.5	0.6	(216)
$x^2(df)/F$	7.8(2)**			15.5(8)*					0.5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80.1	2.4	47.5	7.5	30.7	11.9	100.0(761)	52.1	3.6	0.7	(655)
유치원만 이용	73.3	1.1	18.3	9.6	49.6	21.4	100.0(544)	42.3	3.4	0.6	(429)
둘 다 이용	82.5	1.0	49.3	10.5	26.1	13.1	100.0(155)	50.3	3.6	0.7	(130)
미이용	61.7	3.2	17.1	14.5	42.3	22.9	100.0(361)	39.4	3.4	0.7	(272)
$x^2(df)/F$	74.4(3)***			179.0(12)***					7.5***		
2018년		1.9	22.8	14.3	31.9	29.2		51.5	3.5	0.62	(1,380)
2015년				-				45.1	3.4	0.65	(1,17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63-164. 〈표 Ⅳ-2-13〉.
* $p < .05$, ** $p < .01$, *** $p < .00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자에게 주로 이용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과반이 넘는 54.8%는 어린이집 이용정보 이용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이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정보 활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가정인 경우에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이 71.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비용지원 정보 및 신청 34.2%, 육아정보 9.5%로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상담이나 커뮤니티 활용률은 거의 미미하였다. 육아정보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서 이용률이 비교적 높았다.

〈표 Ⅳ-2-1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정보

단위: %(명)

구분	육아정보	어린이집 이용 정보	비용지원 정보, 신청	온라인 상담	커뮤니티	기타	계(수)
전체	9.5	54.8	34.2	0.6	0.9	-	100.0(1,48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4	58.9	30.3	0.5	0.7	0.1	100.0(723)
유아	9.5	51.3	37.4	0.7	1.1	-	100.0(763)
$x^2(df)/t$			7.5(5)				
지역규모							
대도시	11.7	51.9	34.0	1.4	0.9	-	100.0(684)
중소도시	5.9	59.0	34.1	-	0.8	0.1	100.0(586)
읍·면	14.1	49.9	34.9	-	1.1	-	100.0(216)
$x^2(df)/F$			28.6(10)**				
기관이용							
어린이집만이용	7.5	45.9	45.2	0.7	0.6	0.1	100.0(655)
유치원만 이용	11.0	57.4	30.3	-	1.3	-	100.0(429)
둘 다 이용	7.7	43.3	46.4	1.2	1.4	-	100.0(130)
미이용	11.7	71.7	14.5	1.1	0.9	-	100.0(272)
$x^2(df)/F$			103.4(15)***				
2018년	18.0	50.7	30.8	0.1	0.4	-	100.0(1,380)
2015년	21.3	52.4	24.4	0.6	1.0	0.2	100.0(1,17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65. 〈표 Ⅳ-2-14〉.
** $p < .01$, *** $p < .001$.

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현황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에 대해 약 60%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인지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하며,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4.7%, 질병감영아동 특별지원은 0.8%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돌보미의 인지율에 비해 서비스 이용 경험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약 70~83%로, 이용 만족도는 높으며 특히 종일제 돌봄은 만족도 평균이 5점 척도상 4.3으로 이용자들이 대부분 좋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Ⅳ-2-16〉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5점 척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계(수)
시간제 돌봄	2.8	5.3	52.8	39.1	100.0(2,500)	69.2	3.9	1.1	100.0(222)
영아종일제돌봄	1.9	2.8	53.9	41.4	100.0(2,500)	83.2	4.3	0.8	100.0(13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2	0.6	43.4	55.8	100.0(2,500)	71.7	4.1	1.0	100.0(21)
2018년									
시간제 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 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시간제 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 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3. 장애 영유아 양육

본 절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이용기관과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가. 장애영유아의 특성

본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 내 총 장애영유아 수는 24명이었으며 15명은 유아, 9명은 영아였다.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각 장애 25.7%, 지적 장애 각 18.6%, 지체장애 13.9% 언어 장애 12.7% 순이었다.

장애영유아의 모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인 경우가 14명, 취업중인경우가 7명이었으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의 29.2%는 청각 장애, 21.3%는 뇌병변 장애와 자폐성 장애였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64.6%는 지적 장애, 35.4% 청각 장애였다. 뇌병변 장애의 88.7%가 기타 기관유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장애 영유아가 있는 가구 소득은 조사 대상 영유아의 수가 적고 가구 소득 범주가 세분화되어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Ⅳ-3-1〉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수)
전체	13.9	34.5	4.4	25.7	12.7	18.6	16.2	(24)
영유아구분								
영아	33.4	10.1	10.7	27.7	16.4	-	8.0	(9)
유아	-	51.8	-	24.3	10.1	31.8	22.0	(15)
연령								
0세	-	-	-	-	-	-	-	-
1세	50.6	18.9	-	-	30.5	-	-	(5)
2세	13.6	-	23.0	59.7	-	-	17.2	(4)
3세	-	80.8	-	33.3	8.5	-	10.8	(5)
4세	-	35.6	-	-	20.2	67.0	44.2	(4)
5세 이상	-	-	-	35.4	-	64.6	19.7	(6)
모취업여부								
취업	31.4	13.2	-	4.8	-	52.0	37.4	(7)
휴직중	-	-	65.9	-	-	34.1	34.1	(2)
미취업	3.8	49.3	-	34.9	20.4	2.5	5.2	(14)
부재 등	100.0	-	-	100.0	-	-	-	(1)
기관유형								
어린이집	17.4	21.3	6.8	29.2	19.5	17.0	21.3	(12)
유치원	-	-	-	35.4	-	64.6	19.7	(6)
반일제이상	-	-	-	-	-	-	-	-
기타	11.3	88.7	-	11.3	-	-	-	(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	-	-	-	-	-	-	-
150~199만원	20.7	-	-	-	59.3	20.0	20.0	(3)
200~249만원	-	-	-	-	-	100.0	100.0	(1)
250~299만원	38.7	20.4	-	79.6	-	-	-	(3)
300~349만원	-	41.8	-	20.2	38.0	-	-	(3)
350~399만원	-	-	-	-	-	-	-	-
400~499만원	-	42.9	-	26.6	9.9	10.8	9.7	(7)
500~599만원	-	49.1	37.2	-	-	45.1	-	(4)
600~699만원	-	75.2	-	75.2	-	-	24.8	(2)
700만원 이상	100.0	-	-	-	-	-	-	(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구분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유아가 81.0%로 영아 31.0% 보다 높았으며 중증 장애의 모취업 44.7%로 경증 장애의 모취업(55.3%)보다 낮았다. 기관유형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55.1%, 유치원 33.7%로 어린이집 재원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의 경우 대체로 중증 영유아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경향성이 뚜렷하지는 않다.

〈표 Ⅳ-3-2〉 제 특성별 등록 장애 정도

단위: %, (명)

구분	경증	중증	계(수)
전체	39.8	60.2	100.0(24)
영유아구분			
영아	69.0	31.0	100.0(9)
유아	19.0	81.0	100.0(15)
연령			
0세	–	–	–
1세	93.8	6.2	100.0(5)
2세	40.3	59.7	100.0 (4)
3세	–	100.0	100.0(5)
4세	20.2	79.8	100.0(4)
5세 이상	66.3	33.7	100.0(6)
모취업여부			
취업	55.3	44.7	100.0(7)
휴직중	65.9	34.1	100.0(2)
미취업	31.6	68.4	100.0(14)
부재 등	–	100.0	100.0(1)
기관유형			
어린이집	44.9	55.1	100.0(12)
유치원	66.3	33.7	100.0(6)
반일제이상	–	–	–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0.0	20.0	100.0(3)
250~299만원	–	100.0	100.0(1)
300~349만원	40.9	59.1	100.0(3)
350~399만원	62.0	38.0	100.0(3)
400~499만원	–	–	–
500~599만원	20.8	79.2	100.0(7)

구분	경증	중증	계(수)
600~699만원	37.2	62.8	100.0(4)
700만원 이상	24.8	75.2	100.0(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장애 진단 시기 및 진단계기

장애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의 장애 진단 시기를 물어본 결과, 만12개월 이상~만24개월 미만이 4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1개월 이상~만12개월 미만 37.0%로 출생시점~24개월 사이에 81.1%가 장애로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에 대한 조기 진단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에 대한 부모의 인식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검진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 여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장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 진단 시기가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미만의 경우, 대도시에서 장애 진단을 16.0% 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월령대에 모취업가구에서 장애 진단 시기 17.5%로 모미취업 가구 5.2%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규모와 모취업 여부 사이의 연관성이 다소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Ⅳ-3-3〉 장애 진단 시기

단위: %, (명)

구분	출생~만1개월	만 1개월이상 만12개월미만	만12개월이상 만24개월미만	만24개월이상 만36개월 미만	만36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수)
전체	5.0	37.0	44.1	10.5	3.3	(24)
영유아구분						
영아	3.3	54.8	33.8	8.0	-	(9)
유아	6.3	24.3	51.4	12.3	5.7	(15)
연령						
0세						-
1세	6.2	50.6	43.2	-	-	(5)
2세	-	59.7	23.0	17.2	-	(4)
3세	-	33.3	55.9	10.8	-	(5)
4세	12.8	-	67.0	-	20.2	(4)
5세	13.2	35.4	17.7	33.7	-	(6)

구분	출생~만1개월	만 1개월이상 만12개월미만	만12개월이상 만24개월미만	만24개월이상 만36개월 미만	만36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수)
지역규모						
대도시	24.9	26.6	32.4	16.0	–	(8)
중소도시	–	46.4	36.8	11.5	5.3	(12)
읍·면	–	14.3	85.7	–	–	(4)
모취업 여부						
취업	–	36.2	46.3	17.5	–	(7)
휴직중	–	–	65.9	34.1	–	(2)
미취업	8.1	38.7	42.6	5.2	5.3	(14)
부재 등	–	100.0	–	–	–	(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부모의 판단이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이유를 제외한 지인 권유 14.3%, 영유아 건강검진 12.6%, 원장 및 교사 권유 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의 경우 부모의 판단(55.9%)도 과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원장 및 교사 권유가 16.4%로 주양육자(부모)와 더불어 기관이용 영유아의 경우 돌봄 제공자(원장 및 교사)의 관찰을 통한 권유가 큰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녀의 장애에 대하여 부모 스스로가 판단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표 Ⅳ-3-4〉 장애 진단계기

단위: %(명)

구분	부모의 판단	원장 및 교사 권유	지인 권유	영유아 건강검진	기타	계(수)
전체	48.0	6.8	14.3	12.6	18.2	100.0(24)
영유아구분						
영아	55.9	16.4	–	–	27.7	100.0(9)
유아	42.4	–	24.6	21.6	11.4	100.0(15)
연령						
0세	–	–	–	–	–	–
1세	69.5	30.5	–	–	–	100.0(5)
2세	40.3	–	–	–	59.7	100.0(4)

구분	부모의 판단	원장 및 교사 권유	지인 권유	영유아 건강검진	기타	계(수)
3세	44.1	-	47.4	8.5	-	100.0(5)
4세	33.0	-	-	44.2	22.8	100.0(4)
5세	51.4	-	-	23.7	24.9	100.0(6)
지역규모						
대도시	47.2	-	-	13.7	39.1	100.0(8)
중소도시	50.2	10.8	22.7	-	16.3	100.0(12)
읍·면	40.9	-	-	59.1	-	100.0(4)
모취업 여부						
취업	56.2	-	-	25.7	18.1	100.0(7)
휴직중	100.0	-	-	-	-	100.0(2)
미취업	40.7	10.9	23.0	8.6	16.8	100.0(14)
부재 등	-	-	-	-	100.0	100.0(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다. 장애아의 기관이용

장애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 유형, 1일 평균 이용 시간 및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 영유아가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 23.3% , 장애 전문 어린이집 12.9%, 유치원 일반학급 8.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 유치원 특수학급 3.2%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1시간으로 2018년 6.3시간에서 이용 시간 늘어났으며, 78.0%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2018년에 비해 만족도는 줄어들었다.

〈표 Ⅳ-3-5〉 이용기관, 이용 시간 및 만족도

단위: %, (명), 시간, 점

구분	이용 기관							이용 시간	만족도		(수)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다니지 않음	계(수)	1일 평균	만족율	만족도 (5점척도)	
전체	48.8	12.9	3.3	8.5	3.2	23.3	100.0(24)	7.1	78.0	4.4	(18)
영유아구분											
영아	75.6	–	8.0	–	–	16.4	100.0(9)	7.7	80.4	4.5	(6)
유아	29.7	22.1	–	14.6	5.5	28.2	100.0(15)	6.5	76.0	4.3	(12)
연령											
0세	–	–	–	–	–	–	–				
1세	81.1	–	–	–	–	18.9	100.0(5)	8.1	62.4	4.2	(3)
2세	69.2	–	17.2	–	–	13.6	100.0(4)	7.3	100.0	4.8	(3)
3세	33.3	19.2	–	–	–	47.4	100.0(5)	6.5	36.6	3.7	(3)
4세	44.2	42.9	–	–	–	12.8	100.0(4)	6.7	100.0	5.0	(3)
5세 이상	–	–	–	72.8	27.2	–	100.0(6)	6.3	100.0	4.1	(6)
모취업여부											
취업	57.1	13.2	11.7	12.1	5.8	–	100.0(7)	6.8	100.0	4.7	(7)
휴직중	65.9	–	–	34.1	–	–	100.0(2)	7.0	100.0	4.7	(2)
미취업	45.2	14.7	–	4.5	2.5	33.2	100.0(14)	7.3	59.4	4.1	(9)
부재 등	–	–	–	–	–	100.0	100.0(1)				–
기관유형											
어린이집	75.1	19.8	5.1	–	–	–	100.0(12)	7.2	74.0	4.4	(12)
유치원	–	–	–	72.8	27.2	–	100.0(6)	6.3	100.0	4.1	(6)
반일제이상	–	–	–	–	–	–	–	–	–	–	–
기타	–	–	–	–	–	100.0	100.0(6)	–	–	–	–
가구소득											
150~199만원	80.0	–	–	20.0	–	–	100.0(3)	8.0	40.7	3.6	(3)
200~249만원	100.0	–	–	–	–	–	100.0(1)	7.0	100.0	5.0	(1)
250~299만원	–	–	–	40.9	–	59.1	100.0(3)	7.0	100.0	4.0	(1)
300~349만원	–	38.0	–	20.2	–	41.8	100.0(3)	7.7	100.0	4.7	(2)
350~399만원	–	–	–	–	–	–	–	–	–	–	–
400~499만원	26.6	19.7	–	6.2	4.6	42.9	100.0(7)	7.4	100.0	4.9	(5)
500~599만원	37.2	31.4	–	–	13.7	17.7	100.0(4)	6.0	100.0	4.8	(3)
600~699만원	75.2	–	24.8	–	–	–	100.0(2)	6.0	24.8	3.2	(2)
700만원 이상	100.0	–	–	–	–	–	100.0(1)	8.0	100.0	5.0	(1)
2018년	11.1	11.9	–	1.5	26.8	28.9	100.0(32)	6.3	89.7	4.2	(24)

주: 유치원 특수학급은 유아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산술적으로 합산한 비율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68. 〈표 Ⅳ-3-3〉.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타 61.6%를 제외하고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고, 아이가 어려서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하였다. 해당 이유에 대해 기타로 응답한 비

율이 반수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기관 미이용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항목 도입과 분류가 요구된다.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아동 중, 특히 영아에서 79.7%로 유아(1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수 규모가 6명으로 모취업여부, 기관유형, 가구소득에 대한 경향성 파악에는 제약이 따른다.

〈표 Ⅳ-3-6〉 제 특성별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계(수)
전체	32.5	5.9	61.6	100.0(6)
영유아구분				
영아	79.7	20.3	-	100.0(3)
유아	12.9	-	87.1	100.0(3)
연령				
0세	-	-	-	-
1세	67.1	32.9	-	100.0(2)
2세	100.0	-	-	100.0(1)
3세	-	-	100.0	100.0(2)
4세	100.0	-	-	100.0(1)
5세 이상	-	-	-	-
모취업여부				
취업	-	-	-	-
휴직중	-	-	-	-
미취업	23.9	6.7	69.4	100.0(5)
부재 등	100.0	-	-	100.0(1)
기관유형				
어린이집	-	-	-	-
유치원	-	-	-	-
반일제이상	-	-	-	-
기타	32.5	5.9	61.6	100.0(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	-	-	-
250~299만원	65.5	34.5	-	100.0(2)
300~349만원	100.0	-	-	100.0(1)
350~399만원	-	-	-	-
400~499만원	-	-	100.0	100.0(2)

구분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아이가 어려서	기타	계(수)
500~599만원	100.0	–	–	100.0(1)
600~699만원	–	–	–	–
700만원 이상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에 현재 다니는 기관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하원 시 불편 20.4%, 다른 부모의 편견 16.5%, 특수교사 부족 14.0%,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6.9%, 편의시설 부족 5.8%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 어려움 없음 49.1%, 등하원 시 불편 21.7%, 특수교사 부족 15.2%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조사에서 교사의 이해부족·편견과 다른 부모의 편견에 대한 응답이 다소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아에서 다른 부모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30.1%), 특수교사 부족(17.7%), 보육교육내용 부적합(12.7%)로 영아보다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 불편 21.7%, 다른 부모의 편견 19.4%, 특수 교사 부족 1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는 특수 교사 부족 31.3%, 보육교육내용 부족 17.7%,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14.0% 순으로 기관유형에 따른 이용 시 어려움의 비중이 상이하였다.

조사대상 영유아의 수가 많지 않아, 장애 영유아의 기관이용의 어려움과 모취업 여부와 가구소득과의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Ⅳ-3-7〉 제 특성별 기관 이용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다른 부모의 편견	편의 시설 부족	보육교육내용 부적합	특수 교사 부족	등/하원 시 불편	어려움 없음	(수)
전체	2.1	16.5	5.8	6.9	14.0	20.4	34.3	(18)
영유아구분								
영아	–	–	12.8	–	9.6	19.6	58.1	(6)
유아	3.9	30.1	–	12.7	17.7	21.0	14.5	(12)
연령								

구분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다른 부모의 편견	시설 부족	보육교육내용 부적합	특수 교사 부족	등/하원 시 불편	어려움 없음	(수)
0세	-	-	-	-	-	-	-	-
1세	-	-	-	-	-	37.6	62.4	(3)
2세	-	-	26.7	-	20.0	-	53.4	(3)
3세	-	79.6	-	20.4	-	-	-	(3)
4세	-	-	-	-	26.1	50.7	23.1	(3)
5세 이상	14.0	-	-	17.7	31.3	13.2	23.7	(6)
모취업여부								
취업	5.8	-	-	7.3	29.8	25.7	31.4	(7)
휴직중	-	-	65.9	-	34.1	-	-	(2)
미취업	-	30.4	-	7.8	-	20.1	41.8	(9)
부재 등	-	-	-	-	-	-	-	-
기관유형								
어린이집	-	19.4	6.8	5.0	10.9	21.7	36.2	(12)
유치원	14.0	-	-	17.7	31.3	13.2	23.7	(6)
반일제이상	-	-	-	-	-	-	-	-
가구소득								
150~199만원	-	-	-	-	20.0	59.3	20.7	(3)
200~249만원	-	-	-	-	-	100.0	-	(1)
250~299만원	-	-	-	-	-	-	100.0	(1)
300~349만원	-	65.3	-	-	34.7	-	-	(2)
350~399만원	-	-	-	-	-	-	-	-
400~499만원	-	-	-	27.9	-	8.1	64.0	(5)
500~599만원	16.7	-	45.2	-	38.1	-	-	(3)
600~699만원	-	75.2	-	-	24.8	-	-	(2)
700만원 이상	-	-	-	-	-	-	100.0	(1)
2018년	-	-	8.8	5.1	15.2	21.7	49.1	100.0(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69. 〈표 Ⅳ-3-5〉.

4. 추가 출산 의향

가. 자녀 추가 출산 계획

자녀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4.5%로 많았으며, ‘있음’ 12.9%, ‘생각중’ 12.6%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영아부모, 휴직중 모, 가구소득 200~400만원에서 좀 더 많았으며, ‘생각 중’이라는 응답은 영아부모, 휴직중 모, 가구소득 200~249만원에서 많아 추가 출상 계획이 있는 경우와 유사한 하위특성을 보였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취업모,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4-1〉 추가 출산 관련 의견 비율

단위: %, (명)

구분	추가 출산 계획			
	있음	생각 중	없음	(수)
전체	12.9	12.6	74.5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1.1	18.8	60.1	(1,231)
유아	6.0	7.3	86.8	(1,269)
$x^2(df)$		158.4(2)***		
모취업 여부				
취업	10.8	10.9	78.4	(997)
휴직중	19.6	17.7	62.7	(303)
미취업	13.1	12.9	74.0	(1,174)
$x^2(df)$		28.3(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5.5	70.0	14.5	(147)
250~299만원	18.9	19.5	61.7	(146)
300~349만원	16.7	15.2	68.2	(350)
350~399만원	15.2	13.8	71.1	(226)
400~499만원	13.3	12.7	74.0	(474)
500~599만원	9.0	11.0	80.0	(480)
600~699만원	10.6	12.3	77.1	(240)
700만원 이상	11.4	8.8	79.8	(406)
$x^2(df)$		41.8(1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01$.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임신 중’ 26.0%로 나타났다.

그 밖에 1년이내 14.8%로 곧 추가 출산의 계획을 보이고 있으며, 2~3년이내 15.4%, 잘 모르겠음 9.1%로 응답되었다.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 양육과 함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설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Ⅵ-4-2〉 추가 출산 계획 시기

단위: %, (명)

구분	현재 임신중	1년 이내	1년~2년 이내	2년~3년 이내	3년 이후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26.0	14.8	31.1	15.4	3.5	9.1	100.0(29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2.0	14.3	33.9	17.5	4.0	8.4	100.0(217)	8.5(5)
유아	37.9	16.4	22.8	9.4	2.2	11.3	100.0(74)	
2018년	29.0	16.6	31.8	10.0	3.1	9.6	100.0(302)	
2015년	29.9	26.4	24.3	9.2	3.9	6.3	100.0(4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172. 〈표 Ⅳ-4-2〉.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현재 자녀로 충분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14.2%, '자녀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1.1%,' 취학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9.7%, '부모 나이가 많아서' 9.4%, 그리고 '직장생활로 바빠서 6.4%로 나타났다. '양육·교육비 부담'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응답 외에,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응답이 많은 점은 1명이상 다자녀에 대한 선호가 없는 특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자녀 양육과 2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Ⅵ-4-3〉 자녀 낳을 계획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x^2(df)$
전체	14.2	9.7	6.4	1.7	45.5	9.4	11.1	2.1	100.0(2,209)	

최연소자녀구분

구분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부모 나이가 많아서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수)	$x^2(df)$
영아	17.3	9.0	5.8	1.7	40.4	7.6	15.4	2.6	100.0(1,014)	38.9(7)***
유아	11.9	10.2	6.8	1.7	49.1	10.7	8.0	1.7	100.0(1,195)	
지역규모										
대도시	16.4	10.1	8.6	1.2	41.8	8.2	12.0	1.7	100.0(1,005)	
중소도시	13.3	9.5	4.8	2.0	48.2	9.0	10.7	2.5	100.0(844)	27.8(14)**
읍·면	10.8	9.3	5.0	2.0	47.8	13.6	9.6	1.8	100.0(3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9	9.1	10.5	1.0	44.6	9.3	13.3	1.2	100.0(1,095)	
외벌이	17.7	10.8	2.1	2.3	46.4	9.3	8.8	2.7	100.0(1,072)	113.0(14)***
둘 다 무직	14.3	–	3.2	3.5	47.2	14.8	8.1	8.9	100.0(42)	
2018년	16.4	7.6	5.7	1.7	52.6	6.4	8.2	1.4	100.0(2,231)	
2015년	18.4	13.3	5.7	1.5	55.4	5.1	–	0.7	100.0(2,06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174-175. 〈표 Ⅳ-4-3〉.
** $p < .01$, *** $p < .001$.

5. 시사점

첫째, 하루 중 낮시간 돌보는 사람과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 돌봄 41.4%, 조부모 5.0%(외조부모 3.4%, 친조부모 1.6%), 그 외에 육아전문인력이 돌보는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여 기관이용과 모 돌봄 등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육아전문인력에 의한 돌봄이 다소 감소하였다(1.7%→0.6%).

영아의 경우 모가 돌보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는 기관을 다니는 비율이 60.9%, 모 돌봄 30% 내외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취업/모부재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69.1%, 63.8%로 나타났으며, 휴직중/미취업 모의 경우 기관이용이 각 31.2%, 39.7%로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별/시간대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오전10시 기준 이용률이 어린이집 49.7%, 유치원 26.4%, 부모 18.9%, 반일제이상 학원 2.8%, 조부모 1.8%, 비혈연 0.4%로 나타났으며, 저녁 6시이후 이용률은 어린이집 2.9%, 유치원 0.7%, 부모 84.8%,

사교육기관 1.3%, 조부모 8.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아동 연령별 이용은 0세아 25.2%에서 1세아 80.6%, 2세아 88.3%를 보이다 3세아 43.6%, 4세아 37.9%, 5세아 37.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어린이집 이용이 아동의 연령과 부모가 선호하는 가용한 양육방식의 선택, 부모의 취업여부와 근로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므로, 자녀 돌봄과 교육 및 보육에 내재된 다양한 수요에 충족하는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육아지원 전반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정서를 2018년과 비교하면, 양육 시 혼란스러움(54.1%→52.1%), 귀찮고 짜증스러움(34.4%→18.6%), 자기계발 포기(50.1%→44.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52.1%,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44.8%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외에 육아정보의 제공과 상담 및 상호교육, 일-돌봄의 균형을 위한 지원 설계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도는 (적극+대체로) 참여함 부 60.6% 모 95.3%로 5점평균 부 3.8점, 모 4.7점으로 부-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양육 분담에서도 모:부=7.1:2.9, 가사분담 모:부=7.2:2.8로 약 7:3의 비중으로 성별 격차를 보임에 따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자녀돌봄과 육아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설계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양육형태로 2세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우세하였으며, 2~3세는 가정양육 27.0%와 어린이집 71.3%로 기관보육을 선호하고, 3~5세의 경우 가정양육 선호가 줄고 기관보육에 대한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취학직전으로 갈수록 유치원 선호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보협력 및 유초연계에의 적극적인 논의와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영유아자녀 양육 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동료 26.9%, 집안어른 13.9%, 그 외 서적, 형제자매, 전문가 등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육아사이트 이용률이 높음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 연계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같은 육아포털을 통한 육아정보의 제공과 연계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영유아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도가 38.4%로 2018년 43.4%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의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가구 중 장애영유아 수는 24명으로(유아 15명, 영아 9명),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55.1%, 유치원 33.7%로 어린이집 재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가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다니지 않음 23.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9%, 유치원 일반학급 8.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 유치원 특수학급 3.2% 순으로 응답되었다.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N=6)로, 기타 61.6%를 제외하고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2.5%, '아이가 어려서' 5.9%로 응답됨에 따라 장애통합 보육이 어린이집 이용에 보편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실행력을 촘촘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영유아부모의 추가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 '없다' 74.5%, '있다' 12.9%, '생각중' 12.6%로 나타났다.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N=291) '1~2년 이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 임신중' 26.0%, 2~3년 이내 15.4%. 1년 이내 14.8%로 나타남에 따라, 출산의향이 있는 부모 대상의 지원은 현재의 자녀양육과 함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설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V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0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0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0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0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05 보육·교육기관 제공 서비스

0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0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0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Ⅴ.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요구 개요

제5장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다양한 기관의 보육·교육서비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 지출 비용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영유아의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연령대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3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의 이용과 지출 비용, 기관의 서비스,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제시하고, 7절에서는 최종적으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제시하였다.

1. 최초 보육·교육기관 이용 경험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최초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다.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응답가구인 2,500가구 내 포함되어 아동조사의 대상이 된 영유아는 3,471명이었다. 이중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40명에 해당하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살펴 본 결과, 어린이집이 94.7%, 유치원이 3.3%, 반일제 학원이 1.8%로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나타난 어린이집의 비율(90.9%)에 비하여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5년 어린이집 비율(94.1%)과는 비슷한 수치이다.

가. 최초 이용 기관

최초 이용 기관을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이 94.7%로 우세하게 많았으며, 유치원 3.3%, 반일제이상 학원 1.8%로 나타났다.

〈표 Ⅴ-1-1〉 최초 이용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계(수)
전체	94.7	3.3	1.8	0.1	100.0(2,640)
영유아구분					
영아	99.2	–	0.8	–	100.0(868)
유아	92.4	5.0	2.4	0.2	100.0(1,772)
$x^2(df)$			1105.5(4)***		
연령					
0세	100.0	–	–	–	100.0(143)
1세	99.8	–	0.2	–	100.0(340)
2세	98.5	–	1.5	–	100.0(385)
3세	96.4	1.9	1.7	–	100.0(473)
4세	91.2	6.0	2.5	0.3	100.0(625)
5세	90.6	6.3	2.8	0.3	100.0(674)
$x^2(df)$			2074.7(20)***		
2018년	90.9	7.4	1.4	0.2	100.0(2,871)
2015년	94.1	4.7	0.6	0.6	100.0(2,579)
2012년	88.1	8.5	3.0	0.5	100.0(2,441)
2009년	83.4	12.8	3.6	1.6	100.0(2,11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86-187. 〈표 Ⅴ-1-1〉.
*** $p < .001$.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을 살펴보면, 2021년 평균 월령 21.8개월로, 2009년 보육실태조사 이후 기관 최초 이용 월령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모의 자녀 최초 이용 월령이 19.8개월로 (미취업모 24.1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표 Ⅴ-1-2〉 제 특성별 최초 기관 이용 월령

단위: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13.2	46.3	24.6	12.4	3.1	0.4	100.0(2,640)	21.8	10.8	
영유아구분										
영아	17.7	57.3	22.5	2.4	–	–	100.0(868)	17.5	7.2	−16.0***
유아	10.8	40.7	25.7	17.5	4.7	0.6	100.0(1,772)	24.0	11.6	
연령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0세	39.4	60.6	-	-	-	-	100.0(143)	11.3	3.6	
1세	17.1	63.4	18.9	0.6	-	-	100.0(340)	17.0	6.1	
2세	13.2	51.7	30.6	4.5	-	-	100.0(385)	19.5	7.7	82.4***
3세	11.8	50.2	26.1	9.7	2.2	-	100.0(473)	21.0	9.7	
4세	10.2	39.3	25.9	19.0	5.0	0.5	100.0(625)	24.4	11.6	
5세 이상	10.6	34.9	25.1	21.9	6.3	1.2	100.0(674)	25.9	12.4	
지역규모										
대도시	11.6	43.4	27.0	13.7	3.6	0.8	100.0(1,179)	22.8	11.0	
중소도시	12.7	48.4	23.8	12.3	2.7	-	100.0(1,020)	21.5	10.4	9.1***
읍·면	18.2	48.2	20.6	9.5	3.1	0.4	100.0(441)	20.4	10.8	
모취업 여부										
취업	18.6	48.7	19.5	10.6	2.6	-	100.0(1,220)	19.8	10.4	
휴직중	14.4	46.2	27.4	10.1	1.9	-	100.0(229)	21.1	9.6	40.2***
미취업	7.2	44.1	29.3	14.6	4.0	0.9	100.0(1,165)	24.1	10.9	
부재 등	-	26.2	40.8	30.5	-	2.6	100.0(26)	27.6	10.2	
2018년	11.4	44.3	26.7	13.4	3.7	0.6	100.0(2,871)	22.7	11.0	
2015년	11.9	35.4	30.1	18.1	3.5	0.8	100.0(2,579)	24.1	11.6	
2012년	6.3	18.3	21.7	24.8	17.0	11.8	100.0(2,392)	26.7	12.4	
2009년	8.0	23.0	33.0	26.7	8.0	1.3	100.0(2,112)	30.0	13.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88. 〈표 Ⅴ-1-2〉.
*** $p < .001$.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 34.9%, 3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부담 경감 13.6%, 사회성발달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전인적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모 미취업/부재의 경우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라는 응답이,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응답은 취업모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양육부담 경감 및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라는 응답은 미취업/휴직중 모에서 좀 더 많았다.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응답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많이 응답되었다.

〈표 Ⅴ-1-3〉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	사회성 발달	놀이 상대 없음	비용 전액 지원	양육 부담 경감	다른 일로 바쁨	기타	계(수)
전체	34.9	0.7	0.2	31.0	12.9	2.4	1.2	13.6	0.9	2.3	100.0(2,635)
영유아구분											
영아	34.3	–	–	33.2	9.0	2.2	1.5	16.4	0.8	2.6	100.0(863)
유아	35.2	1.1	0.3	29.8	14.9	2.5	1.0	12.1	1.0	2.1	100.0(1,772)
$x^2(df)$						31.3(9)***					
연령											
0세	23.8	–	0.2	43.8	8.5	2.2	1.4	17.1	2.0	1.0	100.0(140)
1세	31.7	–	–	33.4	7.7	2.1	1.9	17.7	1.3	4.3	100.0(339)
2세	38.8	–	–	30.6	10.1	2.3	1.2	15.2	0.1	1.7	100.0(384)
3세	31.8	1.1	0.2	34.1	12.6	1.4	0.9	15.8	0.9	1.1	100.0(473)
4세	36.7	0.5	0.6	27.2	16.8	2.7	0.7	10.9	1.5	2.5	100.0(625)
5세	36.2	1.8	0.1	29.3	14.8	3.1	1.4	10.6	0.4	2.4	100.0(674)
$x^2(df)$						81.5(45)***					
지역규모											
대도시	36.8	1.7	0.2	29.8	12.7	2.0	1.7	12.6	0.7	1.9	100.0(1,177)
중소도시	32.8	–	0.2	31.7	12.8	2.4	0.5	16.8	0.7	2.0	100.0(1,018)
읍·면	35.4	0.2	0.5	31.9	13.7	3.2	1.8	7.6	1.8	3.9	100.0(440)
$x^2(df)$						50.5(18)***					
모취업 여부											
취업	25.8	1.0	0.1	50.5	8.6	1.2	0.7	9.4	1.0	1.8	100.0(1,218)
휴직중	32.1	–	0.3	30.0	13.0	3.0	–	17.3	1.2	3.1	100.0(228)
미취업	45.3	0.7	0.3	9.8	17.7	3.5	1.9	17.4	0.8	2.7	100.0(1,163)
부재 등	43.9	–	4.0	30.0	9.6	–	2.6	9.9	–	–	100.0(26)
$x^2(df)$						532.0(27)***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48.0	1.5	0.2	21.1	7.6	2.9	2.3	13.6	0.6	2.1	100.0(131)
250~299만원	39.7	–	0.8	14.1	17.7	2.1	1.1	16.9	1.0	6.6	100.0(122)
300~349만원	39.5	0.6	0.5	20.2	12.2	5.0	1.7	17.2	1.1	1.9	100.0(340)
350~399만원	38.9	1.7	0.2	16.4	20.6	2.4	2.3	13.6	0.3	3.5	100.0(209)
400~499만원	38.2	0.5	0.2	26.0	15.4	2.0	1.2	13.5	1.3	1.6	100.0(504)
500~599만원	31.1	0.7	0.1	36.4	13.9	2.7	0.6	11.2	0.8	2.5	100.0(526)
600~699만원	30.0	0.7	0.3	43.8	8.9	1.1	1.0	11.8	0.5	1.9	100.0(287)
700만원 이상	30.3	0.8	–	40.9	9.1	1.0	0.9	14.9	0.5	1.6	100.0(482)
거절/무응답	24.8	–	–	42.9	14.6	8.2	–	–	6.8	2.6	100.0(34)
$x^2(df)$						197.2(72)***					

자료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이유별로 최초 기관 이용 월령을 살펴보면, 미취업이지만 다른 일로 바쁜 경우 기관이용 월령이 평균 16.1개월로 가장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16.3개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내는 경우 19.6개월로 나타났다.

전인적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위해서는 이용월령이 평균 25.2개월, 27.1개월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준비와 특기교육을 위한 경우 각 40.1개월, 37.5개월로 상대적으로 늦은 월령으로 나타났다.

〈표 Ⅴ-1-4〉 사유별 최초 이용 월령

단위: %,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개월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1	46.4	24.6	12.3	3.1	0.4	100.0(14)	21.8	10.8
전인적 발달	4.0	42.1	32.0	17.7	3.7	0.6	100.0(5)	25.2	10.4
초등학교 준비	6.4	3.7	17.8	18.4	48.2	5.5	100.0(6)	40.1	13.6
특기 교육	3.3	-	33.4	36.2	27.1	-	100.0(13)	37.5	11.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	28.4	52.3	12.6	5.3	1.4	-	100.0(30)	16.3	8.9
사회성 발달	3.7	35.9	33.2	20.0	6.0	1.1	100.0(4)	27.1	11.2
놀이상대 없음	5.9	49.0	23.0	21.3	0.8	-	100.0(7)	23.7	9.8
전액 지원	8.7	42.7	23.9	21.3	1.6	1.8	100.0(14)	23.7	12.0
양육 부담 경감	11.4	55.0	26.4	6.1	1.0	-	100.0(11)	19.6	8.1
다른 일로 바쁨	36.3	48.7	5.7	9.3	-	-	100.0(35)	16.1	8.8
기타	14.3	54.1	28.7	3.0	-	-	100.0(18)	20.1	7.3
$x^2(df)/F$				585.4(45)***				62.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2.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였던 보육·교육서비스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가. 연령대별 보육·교육 이용

자녀 연령별로 이용한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을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어린이집의 경우 만 2세 72.5%, 만 3세 66.3%로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1세 46.2%, 만 4세 41.0%, 취학전 5세 30.0%로 나타났다. 1세미만과 6개월 미만의 경우는 12.2%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만 3세 17.2%, 만4세 40.8%, 만5세 45.2%로 나타났다.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0세의 경우 각 91.9%(6개월미만), 87.1%(6개월~1세미만)으로 가장 많았다. 조부모 돌봄의 비율은 자녀연령별로 평균 20% 이상을 일관되게 보여, 중요한 양육지원 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2-1〉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직전 (5세)
어린이집	2.4	9.8	46.2	72.5	66.3	41.0	30.0
유치원	-	0.1	0.4	1.5	17.2	40.8	45.2
반일제이상 기관	0.1	0.2	0.5	1.0	2.4	4.8	7.4
시간제 사교육 기관	0.8	1.4	1.6	2.2	3.1	5.8	8.3
시간제보육	0.2	0.6	1.0	1.1	0.7	0.7	0.5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0.2	0.2	0.3	0.4	0.6	0.8	0.9
조부모	20.2	22.5	26.1	25.1	24.8	21.3	20.0
기타 친인척	4.4	4.7	4.1	3.5	3.3	3.1	3.0
비혈연 육아인력	3.5	3.3	3.6	3.1	2.4	1.9	1.4
부모가 돌봄	91.9	87.1	68.0	54.5	50.7	51.0	51.8
(수)	(3,471)	(3,362)	(3,044)	(2,532)	(2,097)	(1,655)	(1,09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음' 24.4%로 나타났으며, 중단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N=756) 중단 사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를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해 이용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관련 불만 14.5%,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12.4%로 응답되었다. 기관의 폐원과 이사로 인한 이용중단 응답도 8.2%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은 줄어든 가운데 다른 기관에 보

내려고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크게 줄고, 어린이집 관련 불만과 어린이집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기관의 폐원과 이사,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라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표 Ⅴ-2-2〉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 (명)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집 조건 안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이사	타기관 보내려고	가정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전체	24.4 (3,471)	14.5	7.3	12.4	0.7	8.2	40.4	2.7	1.5	12.3	100.0(756)
영유아구분											
영아	9.7 (1,679)	14.5	9.8	16.2	1.2	9.9	26.1	4.8	1.9	15.7	100.0(116)
유아	36.5 (1,792)	14.5	6.7	11.5	0.6	7.9	43.6	2.2	1.5	11.6	100.0(640)
$x^2(df)$	422.1(1)***						23.1(8)**				
연령											
0세	1.0 (780)	44.5	-	-	-	8.2	39.1	-	-	8.2	100.0(7)
1세	8.9 (472)	21.4	10.7	20.9	-	9.9	11.0	2.2	-	23.9	100.0(34)
2세	20.1 (427)	9.9	10.0	15.1	1.7	9.9	31.8	6.1	2.8	12.7	100.0(75)
3세	34.6 (486)	11.6	8.4	13.5	-	8.2	44.5	1.2	2.4	10.3	100.0(167)
4세	35.5 (630)	20.3	4.9	12.6	0.7	10.0	36.1	2.0	1.6	11.7	100.0(219)
5세	38.9 (676)	11.4	7.1	9.3	1.0	5.8	49.4	3.1	0.7	12.3	100.0(254)
$x^2(df)$	469.4(5)***						58.9(40)*				
모취업 여부											
취업	29.5 (1,340)	12.2	5.5	14.2	0.6	8.7	42.7	2.3	1.8	12.1	100.0(374)
휴직중	20.8 (430)	29.7	4.2	3.0	-	13.7	31.4	1.6	2.8	13.6	100.0(65)
미취업	20.7 (1,670)	13.8	10.5	12.3	0.8	6.4	39.7	3.1	0.8	12.5	100.0(310)
부재 등	24.2 (31)	-	-	21.0	14.9	-	45.9	18.2	-	-	100.0(7)
$x^2(df)$	50.9(3)***						54.1(2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4.7 (390)	14.5	5.6	19.1	-	11.3	24.3	3.4	2.7	19.1	100.0(83)
사회복지법인	33.0 (107)	2.5	6.1	26.6	2.2	12.4	24.8	6.3	1.6	17.5	100.0(30)
법인·단체 등	13.2 (58)	21.8	27.4	27.2	-	-	8.2	15.3	-	-	100.0(6)
민간	23.8 (650)	22.5	8.4	16.0	0.9	13.0	20.9	0.5	1.5	16.3	100.0(134)
가정	9.7 (200)	16.0	17.6	14.9	-	10.8	28.4	4.3	-	8.0	100.0(18)
직장	24.6 (55)	-	-	6.1	-	-	76.6	-	-	17.3	100.0(12)
협동	57.0 (4)	-	-	-	-	-	42.4	-	-	57.6	100.0(2)
$x^2(df)$	26.0(6)***						42.6(48)				
2018년	30.1 (3,775)	5.5	4.3	6.3	0.3	2.0	78.7	1.2	0.6	1.1	100.0(1,04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193-194. 〈표 Ⅴ-2-2〉.
*p 〈.05, **p 〈.01, *** p 〈.001.

3. 현재 보육·교육기관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 및 아동의 특성,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및 선택 기준, 이용 시작시기 및 재원기관,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을 살펴보았다.

가.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현재 반일제이상 보육·교육 기관을 다니는 아동 2,591명의 이용기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63.2%, 유치원 이용 33.3%, 반일제이상 기타 기관 3.6%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아보다 영아에서, 즉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았으며,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읍면지역일수록 어린이집 이용이 많았다. 취업모/휴직중 모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간 높았다. 모름/거절을 제외하고는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에서 어린이집 이용률 74.4%로 가장 많았으며 700만원 이상에서 52.0%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유아에서, 그리고 유아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지역, 상대적으로 유치원 이용이 좀 더 많았다. 또한 휴직중인 모의 경우 유치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유아, 유아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휴직중 모, 가구소득 700만원이상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Ⅴ-3-1〉 제 특성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계(수)	$x^2(df)$
전체	63.2	33.3	3.6	–	100.0(2,591)	
영유아구분				–		
영아	99.5	0.0	0.5	–	100.0(853)	949.3(2)***
유아	44.4	50.5	5.1	–	100.0(1,738)	
연령				–		
0세	100.0	–	–	–	100.0(140)	1018.6(10)***
1세	99.9	–	0.1	–	100.0(33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계(수)	$x^2(df)$
2세	99.0	-	1.0	-	100.0(382)	
3세	58.2	39.1	2.7	-	100.0(463)	
4세	40.7	54.1	5.2	-	100.0(612)	
5세	37.8	55.4	6.8	-	100.0(663)	
지역규모				-		
대도시	60.5	33.9	5.6	-	100.0(1,158)	21.6(4)***
중소도시	64.3	33.2	2.5	-	100.0(1,002)	
읍·면	66.9	31.8	1.2	-	100.0(431)	
모취업 여부				-		
취업	63.5	32.9	3.6	-	100.0(1,205)	
휴직중	63.4	30.5	6.0	-	100.0(224)	7.8(6)*
미취업	62.7	34.2	3.1	-	100.0(1,136)	
부재 등	61.3	38.7	-	-	100.0(26)	
가구소득				-		
249만원 이하	74.4	24.5	1.1	-	100.0(128)	
250~299만원	65.7	33.3	1.0	-	100.0(119)	
300~349만원	68.6	30.2	1.2	-	100.0(337)	
350~399만원	63.5	35.1	1.4	-	100.0(204)	128.2(16)***
400~499만원	63.0	35.3	1.7	-	100.0(501)	
500~599만원	61.5	35.9	2.6	-	100.0(520)	
600~699만원	71.7	27.2	1.1	-	100.0(280)	
700만원 이상	52.0	36.1	11.9	-	100.0(469)	
모름/거절	74.8	22.3	2.9	-	100.0(33)	
2018년	60.8	35.4	3.8	-	100.0(2,830)	
2015년	65.8	31.9	1.4	0.9	100.0(2,5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98. 〈표 Ⅴ-3-2〉.
*p 〈.05, *** p 〈.001.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가구의 모취업·맞벌이 특성과 이용 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가구의 모취업 및 맞벌이여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맞벌이와 모취업/휴직중 비율이 유치원 이용 가구와 비교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Ⅴ-3-2〉 어린이집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47.6	9.1	42.4	0.8	54.3	43.9	1.8	100.0(1,464)
연령								
0세	46.5	9.9	43.1	0.5	53.6	46.3	0.1	100.0(140)

구분	모취업 여부				맞벌이 여부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1세	44.4	9.7	45.6	0.3	52.5	44.4	3.0	100.0(330)
2세	43.4	10.2	45.5	0.9	51.6	46.1	2.3	100.0(377)
3세	53.7	8.2	37.3	0.8	59.2	39.2	1.6	100.0(238)
4세	49.2	10.6	38.9	1.3	57.1	42.1	0.9	100.0(195)
5세	52.0	5.7	41.3	1.0	53.5	45.5	1.0	100.0(184)
기관유형								
국공립	50.7	13.2	34.7	1.3	61.5	37.4	1.2	100.0(390)
사회복지법인	43.0	7.7	47.2	2.1	49.1	50.9	–	100.0(107)
법인·단체 등	55.9	11.3	32.0	0.8	63.6	36.4	–	100.0(58)
민간	43.7	8.2	47.4	0.7	49.5	48.0	2.5	100.0(650)
가정	48.1	4.8	47.1	–	49.4	48.0	2.6	100.0(200)
직장	67.9	4.2	27.8	–	72.2	27.8	–	100.0(55)
협동	57.0	–	43.0	–	57.0	43.0	–	100.0(4)
2018년	–	–	–	–	54.2	42.5	3.3[1)]	100.0(1,753)
2015년	–	–	–	–	43.6	53.5	2.9[1)]	100.0(1,745)

주: 1) 모름/비해당 포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199. 〈표 Ⅴ-3-3〉.

〈표 Ⅴ-3-3〉 유치원 이용 아동 모취업 및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취업				맞벌이			전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맞벌이	외벌이	둘다무직	
전체	46.8	8.4	43.9	1.0	52.2	46.6	1.1	100.0(1,041)
연령								
3세	48.6	9.2	41.2	1.0	56.2	42.9	1.0	100.0(213)
4세	47.2	8.8	43.7	0.3	53.5	45.5	1.0	100.0(386)
5세	45.5	7.4	45.5	1.6	49.0	49.7	1.3	100.0(442)
기관유형								
국공립	45.8	6.8	45.4	2.0	48.7	50.1	1.2	100.0(339)
사립	47.2	9.0	43.2	0.6	53.7	45.2	1.1	100.0(70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개 보육교육기관 이용 가구의 이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3개 기관 공통적으로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4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돌보기 어려워 16.0%, 사회성 발달 14.4%,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경우,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양육부담 완화의 응답이 좀 더 많았으며, 유치원 이용 가구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에도 아이의 전인적 발달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그리고 특기교육을 위해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개의 기관 유형별로 서로 다른 이용 수요와 요구를 갖고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3-4〉 현재 이용기관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0.1	47.5	70.6	43.6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2.3	22.5	15.2	9.5
특기교육을 위하여	1.1	2.2	9.3	1.7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22.0	6.0	3.3	16.0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6.1	12.7	1.0	14.4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2.0	0.7	0.7	1.5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3.4	4.7	-	10.0
비용 부담이 적어서	1.7	2.6	-	1.9
기타	1.4	1.2	-	1.3
계(수)	100.0(1,464)	100.0(1,041)	100.0(86)	100.0(2,59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돌봄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돌봄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을 질문한 결과,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 85.1%, 보내지 않겠다 14.9%로 다니던 기관을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영유아 전체 응답 기준 기타반일제-유치원-어린이집의 순으로 '다니던 기관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즉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돌봄사람이 있으면 가정양육을 하겠다는 응답이 15.8%로 유치원 9.2%, 반일제이상 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반일제 이상 기관은 관측치가 2명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표 Ⅴ-3-5〉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양육 의향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전체				영아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아무데도 안 보냄	15.8	9.2	–	14.9	19.6	19.6	10.2	9.2	–	9.8
기관에 계속 보냄	84.2	90.8	100.0	85.1	80.4	80.4	89.8	90.8	100.0	9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24)	(60)	(2)	(386)	(205)	(205)	(119)	(60)	(2)	(18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이용지속기간

현재 이용기관별 최초 이용시기(자녀 평균 월령)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25.2개월, 유치원 47.6개월, 기타반일제이상 학원 48.7개월로 전체 평균 33.5개월로 조사되었다.

〈표 Ⅴ-3-6〉 현재 이용기관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5.2	13.6	(1,464)	47.6	11.7	(1,041)	48.7	12.9	(86)	-	-	-	33.5	16.9	(2,591)
영유아구분															
영아	18.8	7.7	(847)	-	-	-	28.4	4.7	(6)	-	-	-	18.9	7.7	(853)
유아	32.7	15.1	(617)	47.6	11.7	(1,041)	49.8	12.2	(80)	-	-	-	41.1	15.3	(1,738)
t	-23.9***			-			-4.5***						-44.8***		
지역규모															
대도시	25.8	13.3	(631)	48.2	11.1	(469)	48.5	13.8	(58)	-	-	-	34.7	16.7	(1,158)
중소도시	25.3	13.8	(578)	47.4	11.8	(400)	48.4	10.7	(24)	-	-	-	33.2	16.9	(1,002)
읍·면	23.8	13.8	(255)	46.6	13.0	(172)	53.9	11.2	(4)	-	-	-	31.5	17.3	(431)
F	2.6			1.8			0.7						5.1**		
모취업여부															
취업	23.9	13.8	(673)	47.9	11.8	(492)	48.2	13.8	(40)	-	-	-	32.7	17.6	(1,205)
휴직중	23.8	11.4	(133)	43.6	11.6	(78)	50.1	7.8	(13)	-	-	-	31.4	15.2	(224)
미취업	27.1	13.6	(643)	48.1	11.5	(460)	48.8	13.3	(33)	-	-	-	34.9	16.5	(1,136)
부재 등	27.6	9.4	(15)	47.9	7.9	(11)	-	-	-	-	-	-	35.4	13.3	(26)
F	3.3*			2.7*			0.4						2.3		
2018년	22.3	11.3	(1,753)	48.0	10.4	(1,009)	43.7	13.0	(68)	-	-	-	32.2	16.6	(2,830)
2015년	26.5	13.2	(1,745)	50.1	9.1	(749)	49.2	17.2	(25)	40.7	14.6	(16)	34.5	16.4	(2,5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07. 〈표 Ⅴ-3-9〉.
* $p < .05$, ** $p < .01$, *** $p < .001$.

이용 지속 기간은 어린이집 19.1개월, 유치원 15.6개월, 기타반일제이상 학원 15.3개월로, 전체 평균 기관별로 17.8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시기가 다른 기관(유치원, 기타반일제학원)에 비해 빠르고 현재까지 이용 지속 기간도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7〉 현재 이용기관별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기타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1	14.2	(1,464)	15.6	11.0	(1,041)	15.3	10.7	(86)	-	-	-	17.8	13.3	(2,591)
영유아구분															
영아	11.8	8.4	(847)	-	-	-	8.4	5.9	(6)	-	-	-	11.8	8.4	(853)
유아	27.5	15.0	(617)	15.6	11.0	(1,041)	15.7	10.8	(80)	-	-	-	20.9	14.2	(1,738)
t		-26.4***			-			-1.7						-16.8***	
지역규모															
대도시	18.6	14.1	(631)	14.6	10.4	(469)	15.0	10.4	(58)	-	-	-	17.0	12.9	(1,158)
중소도시	18.7	14.0	(578)	16.3	11.7	(400)	16.5	11.8	(24)	-	-	-	17.8	13.3	(1,002)
읍·면	21.3	14.8	(255)	16.3	10.7	(172)	12.3	5.8	(4)	-	-	-	19.6	13.7	(431)
F		2.8			3.0*			0.4						5.9**	
모취업여부															
취업	21.3	14.9	(673)	15.2	10.9	(492)	18.2	12.3	(40)	-	-	-	19.2	13.9	(1205)
휴직중	18.8	14.8	(133)	18.9	13.1	(78)	12.0	5.2	(13)	-	-	-	18.4	14.0	(224)
미취업	16.6	12.8	(643)	15.2	10.6	(460)	12.9	9.2	(33)	-	-	-	16.0	12.1	(1136)
부재 등	23.9	14.0	(15)	18.7	9.1	(11)	-	-	-	-	-	-	21.9	12.6	(26)
F		9.5***			2.7*			1.7						6.9***	
2018년	21.8	15.6	(1,753)	16.9	10.8	(1,009)	16.9	11.0	(68)	-	-	-	19.9	14.1	(2,830)
2015년	17.3	13.4	(1,745)	13.4	8.7	(749)	13.0	13.5	(25)	9.8	10.5	(16)	15.9	12.2	(2,5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09. 〈표 Ⅴ-3-10〉.
*p 〈.05, **p 〈.01, *** p 〈.001.

4) 현재 이용기관 선택 이유 최초 이용시기, 이용지속기간

현재 이용기관별로 선택 이유를 1-2순위로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집과의 거리, 주변 평판, 프로그램, 교사, 원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1순위 응답 기준)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변 평판, 교사의 순으로, '기타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프로그램 때문에라는 응답(71.6%)이 우세하게 많았다.

전체적으로 1순위 응답의 경우,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주변 평판, 교사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2순위 응답에서도 주변 평판,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타반일제학원에 내재된 수요와 이용이유가 다른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3-8〉 현재 이용기관별 기관 선택 이유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2021	2018	2015	2021	2018
원장	8.8	4.8	3.7	1.9	1.7	1.0	6.8	8.5	9.8	3.7	4.9
교사	9.6	11.2	8.9	8.3	6.8	5.4	9.2	9.5	9.8	10.0	9.7
운영시간	3.2	4.1	1.8	4.3	–	2.8	2.6	3.0	3.1	4.1	4.4
비용	0.8	1.6	4.5	4.7	–	4.3	2.0	3.2	3.8	2.7	3.9
프로그램	10.1	9.3	26.8	14.3	71.6	11.4	17.9	14.1	15.4	11.1	13.3
건강·영양	1.8	6.4	1.4	6.3	–	7.9	1.6	1.4	2.1	6.4	3.2
기관 학급 규모	1.1	1.9	0.5	2.2	3.0	9.4	1.0	1.6	2.1	2.3	1.5
실내/외환경	4.9	9.1	5.8	8.9	5.0	17.7	5.2	2.5	3.8[2)]	9.3	4.0
안전한 보호	1.9	4.2	0.9	3.2	2.5	3.8	1.6	1.4	1.6	3.8	3.3
집과의 거리	32.9	13.9	22.5	13.5	1.0	8.4	28.3	26.8	25.9	13.5	16.2
기관 시설·설비	0.8	2.0	1.2	2.7	–	11.0	0.9	2.9	2.1	2.6	5.5
국공립 여부	5.7	5.1	6.3	6.3	–	–	5.7	6.4	3.3	5.3	3.6
주변의 평판	12.7	14.1	12.3	12.8	5.5	12.3	12.3	12.8	11.3	13.6	17.0
주변환경	0.4	2.4	0.4	3.1	–	–	0.4	1.5	1.5	2.6	2.8
평가인증 결과	1.2	2.6	–	0.1	–	–	0.7	0.6	0.7[3)]	1.7	1.6
차량 운행 여부	0.4	2.6	0.3	2.0	2.8	–	0.5	0.5	0.7	2.3	1.3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	0.4	–	1.9	–	1.9	–	0.2	0.3	0.9	0.7
형제 재원 여부	2.1	2.9	1.7	3.4	–	2.7	1.9	2.1	1.3	3.1	1.6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0.8	1.0	–	–	–	–	0.5	0.3	0.3	0.6	0.3
기타	0.9	0.5	0.9	0.2	–	–	0.9	0.8	0.9	0.4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464)	(1,041)	(1,041)	(86)	(86)	(2,591)	(2,830)	(2,535)	(2,591)	(2,83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5년: '내부분위기'
3) 2015년: '평가인증 여부'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05. 〈표 Ⅴ-3-7〉.

5) 현재 이용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현재 이용기관별로 주간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를 조사한 결과, 월-금 주중 5일 이용이 거의 100% 로 나타났으며, 주말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토요일 0.3%, 일요일 0.2%), 유치원 (토요일 0.2%)로 나타났다.

〈표 Ⅴ-3-9〉 주당 기관 이용 요일 및 주당 이용 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월요일 이용률	99.7	99.8	99.0	99.7
화요일 이용률	99.8	99.9	99.3	99.9
수요일 이용률	99.4	100.0	100.0	99.6
목요일 이용률	99.7	99.9	100.0	99.8
금요일 이용률	99.3	99.9	100.0	99.5
토요일 이용률	0.3	0.2	-	0.3
일요일 이용률	0.2	-	-	0.1
주당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토요보육 미이용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토요보육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없음 89.2%로 우세한 가운데 자주 있음 4.6%, 가끔 있음 6.2%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약 10.8%가 토요보육이 필요한데도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0〉 토요보육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험(어린이집 이용자)

단위: %(명)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전체	4.6	6.2	89.2	100.0(1,456)
영유아구분				
영아	5.1	6.3	88.6	100.0(840)
유아	4.1	6.0	89.9	100.0(616)
$x^2(df)$		2.2(2)*		
연령				

구분	자주 있음	가끔 있음	없음	계(수)
0세	4.9	5.7	89.5	100.0(627)
1세	5.5	6.3	88.2	100.0(574)
2세	1.7	7.2	91.1	100.0(255)
3세		9.2(4)**		
4세				
5세	6.4	8.6	85.0	100.0(670)
$x^2(df)$	2.4	6.3	91.3	100.0(131)
지역규모	2.9	3.5	93.6	100.0(642)
대도시	14.6	–	85.4	100.0(13)
중소도시		21.6(6)**		
읍·면				
$x^2(df)$	2.5	5.5	92.0	100.0(85)
모취업 여부	11.0	6.1	83.0	100.0(71)
취업	3.7	4.1	92.2	100.0(213)
휴직중	4.1	6.2	89.7	100.0(118)
미취업	5.7	6.8	87.5	100.0(283)
부재 등	3.5	8.1	88.4	100.0(278)
$x^2(df)$	6.1	5.0	88.8	100.0(172)
가구소득	3.9	6.6	89.4	100.0(216)
249만원 이하	–	–	100.0	100.0(20)
250~299만원		20.5(2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7) 이용 시간

이용 기관별 등원 시각은 모든 기관에서 8:31~9:00 사이 등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유치원의 경우 53.0%가 이 시각에 등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9:01~9:30에 등원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일제 이상 기관의 등원 시각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보아도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11〉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7:30까지	0.6	0.2	0.9	0.5	1.2	1.1
7:31~8:00	4.0	2.6	–	3.4	3.3	4.2
8:01~8:30	10.3	13.9	4.9	11.3	15.6	16.7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8:31~9:00	40.4	53.0	44.2	44.7	42.0	37.1
9:01~9:30	29.9	22.1	37.0	27.6	28.5	30.3
9:31~10:00	13.9	8.3	13.1	12.0	9.1	9.9
10:01이후	0.8	-	-	0.5	0.4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2,830)	(2,5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11. 〈표 Ⅴ-3-12〉.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하원 시각은 15:01~16:00인 경우가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01~17:00시가 29.0%였다. 이용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15:01~16:00가 48.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데 반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6:01~17:00가 34.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유아들에 비해서는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8년에는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35.0%로 가장 높긴 했으나, 16:01~17:00에 하원하는 비중이 34.3%로 불과 0.7%p 차이밖에 보이지 않은 반면, 2021년 조사에서는 15:01~16:00 하원하는 비중이 44.7%, 16:01~17:00가 29.0%로 15.7%p 차이를 보이며, 15:01~16:00 하원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도입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시간인 16:00 이내에 하원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반면, 연장보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7:01 이후에 하원하는 비중은 2015년 20.0%, 2018년 17.2%, 2021년 16.0%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Ⅴ-3-12〉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14:00까지	1.8	5.9	0.9	3.1	3.9	3.9
14:01~15:00	4.6	9.9	28.4	7.2	9.6	10.2
15:01~16:00	48.6	38.3	36.7	44.7	35.0	34.1
16:01~17:00	25.9	34.8	29.6	29.0	34.3	31.8
17:01~17:30	7.0	5.2	1.7	6.2	6.8	8.3
17:31~18:00	6.1	4.5	2.7	5.5	5.0	5.8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18:01~19:00	5.0	1.4	-	3.6	4.7	4.6
19:01이후	1.1	-	-	0.7	0.7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2,830)	(2,5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11. 〈표 V-3-12〉.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12분으로,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39.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 이용하는 경우 19.3%, 7~8시간 이용자가 19.4%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평균 7시간 4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7~8시간 이용자 비중이 30.6%로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6시간32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였다. 201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간은 각 7시간24분과 7시간12분으로 2021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3-13〉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사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5시간까지	2.1	4.0	0.7	2.7
5~6시간	19.3	15.0	39.1	18.6
6~7시간	39.2	37.4	39.4	38.6
7~8시간	19.4	30.6	16.4	23.0
8~9시간	11.2	9.6	2.8	10.3
9~10시간	6.4	2.8	1.7	5.0
10시간 이상	2.5	0.6	-	1.8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평균	7시간12분	7시간4분	6시간32분	7시간8분
표준편차	1시간21분	1시간11분	59분	1시간18분
F		17.7***		
2018년 (평균)	7시간 24분	7시간 12분	6시간 12분	7시간 12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13. 〈표 V-3-14〉.
*** $p < .001$.

8) 보육·교육기관 이용 희망 시간

희망 등원 시각은 8:31~9:00가 54.4%로 가장 높고,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가 33.1%로 가장 높았다. 앞서 실제 등·하원 시각과 비교해 볼 때 등원 시각의 경우 8:30 이전 등원을 희망하는 응답이 25.6%로 실제 이 시각 등원비율 15.2%보다 10%p 이상 높고, 하원 시각의 경우 16:01~17:00시에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30.7%로 실제 이 시각에 하원하는 비중(29.0%)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7:30이전에 등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8:31~9:00 등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하원의 경우에는 15:01~16:00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24.5%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3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하원 시각은 이용 기관에 따라 경향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16:00 이전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7:00이후 하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코로나19의 영향인지 혹은 다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2024년 조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Ⅴ-3-14〉 이용기관별 희망 등하원 시각

단위: %(명)

희망 등원 시각						희망 하원 시각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전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전체	2018년 (전체)
7:30까지	3.5	3.3	-	3.3	8.7	14:00까지	1.1	1.1	1.7	1.1	1.9
7:31~8:00	13.9	11.7	2.8	12.8	10.2	14:01~15:00	1.5	7.4	15.0	3.9	6.4
8:01~8:30	8.2	9.7	9.8	8.8	16.7	15:01~16:00	32.8	33.1	37.9	33.1	24.5
8:31~9:00	52.4	57.9	57.3	54.4	43.3	16:01~16:30	9.4	10.0	15.6	9.8	9.7
9:01~9:30	12.3	11.1	19.7	12.2	15.3	16:31~17:00	20.6	21.9	16.8	20.9	20.0
9:31~10:00	8.9	6.3	10.4	8.1	5.6	17:01~17:30	4.4	4.1	0.5	4.2	5.9
10:01이후	0.8	0.1	-	0.5	0.1	17:31~18:00	13.6	13.2	10.8	13.4	13.0
						18:00~19:00	11.9	7.5	1.7	10.0	10.2
						19:00~19:30	1.8	0.4	-	1.3	3.6
						19:31이후	3.0	1.3	-	2.3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1,818)	(수)	(1,464)	(1,041)	(86)	(2,591)	(1,81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18. 〈표 Ⅴ-3-18〉.

이용 시작 시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92.7%로 대부분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3.6%, 유치원 92.2%, 반일제이상 학원 81.9%이었다. 이용 시작 시각에 대한 인식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3-15〉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인식_시작 시각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					전체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전체	93.6	1.7	4.2	0.4	(1,464)	92.2	3.0	4.8	–	(1,041)	81.9	2.3	13.7	2.2	(86)	92.7	2.2	4.8	0.4	(2,591)
영유아구분																				
영아	92.7	1.7	5.0	0.6	(847)	–	–	–	–	–	73.2	26.8	–	–	(6)	92.6	1.9	5.0	0.6	(853)
유아	94.7	1.7	3.4	0.3	(617)	92.2	3.0	4.8	–	(1,041)	82.4	0.9	14.4	2.3	(80)	92.8	2.3	4.6	0.2	(1,738)
$x^2(df)$	2.4(3)					–					6.3(3)					3.4(3)				
지역규모																				
대도시	94.9	1.8	3.3	–	(631)	92.8	3.4	3.8	–	(469)	78.2	3.6	14.9	3.4	(58)	93.2	2.5	4.1	0.2	(1,158)
중소도시	93.2	1.2	4.6	1.0	(578)	91.3	2.3	6.4	–	(400)	86.4	–	13.6	–	(24)	92.4	1.5	5.5	0.7	(1,002)
읍·면	91.7	2.8	5.4	–	(255)	93.6	3.7	2.8	–	(172)	100.0	–	–	–	(4)	92.4	3.1	4.5	–	(431)
$x^2(df)$	13.4(6)*					6.8(4)					2.2(6)					12.5(6)				
모취업여부																				
취업	93.3	2.0	4.0	0.7	(673)	92.5	2.4	5.1	–	(492)	77.1	1.9	16.5	4.5	(40)	92.4	2.1	4.8	0.6	(1,205)
휴직중	89.6	1.8	7.1	1.4	(133)	87.5	2.5	1–	–	(78)	10–	–	–	–	(13)	89.6	1.9	7.6	0.9	(224)
미취업	94.9	1.4	3.8	–	(643)	93.1	3.6	3.4	–	(460)	80.5	3.8	15.7	–	(33)	93.8	2.2	4.0	–	(1,136)
부재 등	90.5	–	9.5	–	(15)	86.0	9.1	4.9	–	(11)	–	–	–	–	–	88.8	3.5	7.7	–	(26)
$x^2(df)$	6.8(9)					7.7(6)					3.3(6)					8.2(9)				
2018년	92.3	3.4	4.4	–	(1,753)	91.1	3.3	5.5	–	(1,005)	97.3	–	2.7	–	(68)	–	–	–	–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어린이집– 이정원 외(2018). pp. 296-297. 〈표 Ⅵ-1-23〉.
유치원– 이정원 외(2018). p. 431. 〈표 Ⅶ-1-20〉.
반일제이상학원-이정원 외(2018). p. 492. 〈표 Ⅷ-1-9〉.
*** p 〈 .001.

기관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5.3%로 시작 시각에 비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7.2%, 유치원 83.4%, 반일제이상 학원 71.1%이었다. 끝나는 시각에 대한 인식은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Ⅴ-3-16〉 이용기관별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인식_끝나는 시각

단위: 개월(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만족	이름	늦음	기타	(수)
전체	87.2	10.9	1.1	0.9	(1,464)	83.4	14.0	2.6	-	(1,041)	71.1	19.8	7.0	2.2	(86)	85.3	12.2	1.8	0.6	(2,591)
영유아구분																				
영아	85.6	11.9	1.4	1.1	(847)	-	-	-	-	-	59.8	40.2	-	-	(6)	85.4	12.1	1.3	1.1	(853)
유아	89.0	9.7	0.8	0.6	(617)	83.4	14.0	2.6	-	(1,041)	71.7	18.6	7.3	2.3	(80)	85.3	12.3	2.0	0.4	(1,738)
$x^2(df)$	3.4(3)					-					0.9(3)					4.8(3)				
지역규모																				
대도시	88.5	10.5	1.0	-	(631)	84.8	12.8	2.5	-	(469)	75.4	18.2	3.0	3.4	(58)	86.5	11.7	1.6	0.2	(1,158)
중소도시	84.8	12.3	0.9	2.0	(578)	81.1	16.1	2.8	-	(400)	62.1	26.7	11.1	-	(24)	83.0	13.9	1.8	1.3	(1,002)
읍·면	89.9	8.3	1.8	-	(255)	86.1	11.5	2.4	-	(172)	70.1	-	29.9	-	(4)	88.5	9.2	2.3	-	(431)
$x^2(df)$	17.7(6)**					1.4(4)					8.0(6)					13.1(6)*				
모취업여부																				
취업	87.3	10.9	1.1	0.7	(673)	84.5	14.6	0.9	-	(492)	75.6	15.8	4.1	4.5	(40)	85.9	12.3	1.2	0.6	(1,205)
휴직중	74.8	19.9	0.7	4.6	(133)	79.0	15.2	5.8	-	(78)	100.0	-	-	-	(13)	77.6	17.2	2.2	2.9	(224)
미취업	89.7	8.9	1.1	0.3	(643)	82.8	13.4	3.9	-	(460)	53.4	33.0	13.5	-	(33)	86.2	11.2	2.4	0.2	(1,136)
부재 등	88.4	11.6	-	-	(15)	100.0	-	-	-	(11)	-	-	-	-	-	92.9	7.1	-	-	(26)
$x^2(df)$	19.2(9)*					12.2(6)					11.4(6)					18.7(9)*				
2018년	84.7	14.9	0.4	-	(1,753)	80.5	18.3	1.2	-	(1,005)	81.2	18.8	-	-	(68)	-	-	-	-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어린이집- 이정원 외(2018). pp. 296-297. 〈표 Ⅵ-1-23〉.
유치원- 이정원 외(2018). p. 431. 〈표 Ⅶ-1-20〉.
반일제이상학원-이정원 외(2018). p. 492. 〈표 Ⅷ-1-9〉.
* $p < .05$, ** $p < .01$.

희망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8시간6분, 유치원 7시간 51분, 반일제 이상 학원 7시간 11분으로, 전체적으로 실제 이용 시간보다 약 51분가량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8년 희망 이용 시간인 8시간18분에 비해서는 19분가량 짧았다. 한편,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희망 이용 시간이 가장 길고,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2012년 이후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표 Ⅴ-3-17〉 이용기관별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5시간까지	1.3	0.5	1.7	1.0
5~6시간	8.3	11.9	20.8	10.0
6~7시간	29.4	29.5	39.6	29.8
7~8시간	24.4	26.6	24.1	25.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전체
8~9시간	14.7	17.0	7.2	15.2
9~10시간	10.4	7.4	6.6	9.3
10~11시간	6.4	4.9	-	5.7
11시간 이상	5.0	2.2	-	3.9
계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평균	8시간6분	7시간51분	7시간11분	7시간59분
표준편차	1시간41분	1시간29분	1시간10분	1시간37분
F		4.9**		
2018년(평균)	8시간30분	8시간6분	7시간6분	8시간18분
2015년(평균)	8시간 18분	7시간 48분	7시간44분	-
2012년(평균)	8시간 21분	7시간 45분	7시간7분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20. 〈표 Ⅴ-3-20〉.
** $p < .01$.

나.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특성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는 비중은 41.1%, 하원하는 경우는 43.4%이며,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등원 25.0%, 하원 21.4%였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한다는 응답이 각 39.3%와 40.1%로 높은 반면, 유치원의 경우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한다는 응답이 각 53.6%와 57.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한다는 응답은 각 48.6%와 49.4%로, 2021년 기관 차량 이용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하는 비중은 2009년 조사 이래 매 조사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그 감소폭이 큰 폭을 보였다. 다만, 이는 보호자와 걸어서 등하원하거나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하원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이러한 현상은 기관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Ⅴ-3-18〉 이용기관별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41.1	25.0	0.6	32.7	0.4	0.3	(2,591)
어린이집	32.5	27.2	0.6	39.3	0.3	0.1	(1,464)
유치원	53.6	21.7	0.6	22.8	0.6	0.7	(1,041)
반일제이상	75.4	16.4	-	8.3	-	-	(86)
하원							
전체	43.4	21.4	0.6	33.0	0.4	1.3	(2,591)
어린이집	34.3	23.6	0.7	40.1	0.3	1.0	(1,464)
유치원	57.4	17.4	0.6	22.2	0.5	1.9	(1,041)
반일제이상	74.3	19.6	-	6.1	-	-	(86)
2018년							
등원	48.6	20.4	0.6	30.0	0.5	-	(2,830)
하원	49.4	18.1	0.5	30.3	0.6	1.1	(2,830)
2015년							
등원	53.6	10.4	1.1	33.6	1.1	0.2	(2,535)
하원	54.9	9.1	0.8	33.6	1.3	0.2	(2,535)
2012년							
등원	54.6	10.7	0.4	33.3	0.9	0.2	(2,392)
하원	55.7	9.5	0.7	32.4	1.2	0.5	(2,392)
2009년							
등원	60.5	8.5	0.7	28.0	2.3	-	(2,046)
하원	62.2	7.3	0.9	27.1	2.5	-	(2,04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24. 〈표 Ⅴ-3-24〉.

등하원시 원장 또는 교사와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교류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일한다는 응답이 45.8%, 주1~2회가 28.8%, 월 1~2회 15.6%, 전혀 안한다는 응답도 9.7%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가 매일 한다는 응답 비중이 55.2%로 매우 높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주 1~2회가 29.4%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2018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Ⅴ-3-19〉 등하원 시 교사나 원장과 어린이집 이용 관련 정보 나눔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1~2회	전혀안함	계(수)
전체	45.8	28.8	15.6	9.7	(2,583)
어린이집	55.2	29.1	9.8	5.9	(1,460)
유치원	27.7	29.4	26.5	16.3	(1,037)
반일제이상	48.2	18.5	17.3	16.0	(86)
2018년	48.3	30.5	12.5	8.7	(2,821)
2015년	44.7	34.5	13.3	7.5	(2,51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226. 〈표 Ⅴ-3-26〉.

등·하원 차량에 교직원이 등원과 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8.1%로 대부분 동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5% 있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했으나, 관측치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Ⅴ-3-20〉 이용기관별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 동승	하원시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름	계(수)
전체	98.1	0.7	0.6	0.5	0.1	(1,287)
어린이집	98.4	0.9	0.5	0.2	–	(573)
유치원	97.9	0.7	0.7	0.6	0.2	(646)
반일제이상	98.0	–	–	2.0	–	(68)
2018년	98.0	0.4	0.5	–	1.2	(1,537)
2015년	97.0	0.6	1.0	0.2	1.3	(1,56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27. 〈표 Ⅴ-3-27〉.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3분으로, 10분이하라는 응답이 70.3%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1분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1%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10분 이하가 74.9%에 달하는데 반해, 유치원은 64.5%, 반일제이상 학원은 41.7%로 어린이집의 근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등원 시간은 2015년 10.5분, 2018년에도 11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3-21〉 이용기관별 등원 시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70.3	22.2	6.5	1.0	(2,591)	11.3	7.5	
어린이집	74.9	18.5	5.5	1.0	(1,464)	10.5	7.3	
유치원	64.5	27.1	7.7	0.7	(1,041)	12.4	7.3	38.0***
반일제이상	41.7	41.5	13.0	3.8	(86)	15.9	9.2	
2018년	70.6	23.0	5.3	1.1	(2,830)	11.0	7.4	
2015년	76.0	18.5	4.7	0.9	(2,535)	10.5	7.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25. 〈표 Ⅴ-3-25〉.
*** $p < .001$.

하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등원 시 소요시간보다는 약간 길어서 11.9분으로, 10분 이하라는 응답이 66.7%였다. 등원 시 소요시간과 마찬가지로 하원 소요 시간이 10분 이하라는 응답은 어린이집 이용자 71.6%, 유치원 60.6%, 반일제 이상 학원 37.7%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22〉 이용기관별 하원 시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66.7	24.3	7.6	1.3	(2,591)	11.9	7.8	
어린이집	71.6	20.2	6.8	1.4	(1,464)	11.1	7.8	
유치원	60.6	30.1	8.1	1.2	(1,041)	12.9	7.7	34.5***
반일제이상	37.7	44.1	17.6	0.5	(86)	16.1	8.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4.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가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지출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보육·교육 기관 이용에 지출한 월평균 비용으로, '기관' 이용비용만이 포함되어 있고 영유아를 위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비용이나 학습지 등의 교육서비스 이용비용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비용은 기관 이용 영유아 전체에 대한 이용비용과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에 한정한 지불액 등 두 가지 형태를 산출, 제시하였다.

가. 월평균 보육·교육비 지불액

월 보육·교육비은 평균 14만 1,000원으로,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규모가 커질수록, 미취업모에 비해서 취업모인 경우에는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는다. 비용 지불 영유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출 경향성 자체는 전체 표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월 보육·교육비용은 통상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교육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2021년 조사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영유아의 월 보육·교육비용은 2015년에는 9만 6,400원이었으나, 2018년 14만 9,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은 14만 1,000원으로 2018년보다 소액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비용 지불 영유아의 지출 평균은 2018년 17만 200원이었는데, 2021년 19만 7,000원으로 평균 2만 6,800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영유아 기준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2018년 3.4%였다가 2021년 2.9%로, 2018년 대비 2021년에 보육·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 비중 자체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4]. 비용 지출 영유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월 보육·교육비용 비율은 3.9%로, 2018년 3.8%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표 Ⅴ-4-1〉 영유아 월 보육·교육 비용 지불액 평균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전체	141.0	279.8	(2,591)	2.7	197.0	308.5	(1,883)	3.9
연령								
0세	10.5	24.4	(140)	0.2	48.5	45.3	(38)	1.2
1세	39.7	62.6	(331)	1.0	69.6	83.4	(222)	1.8
2세	68.4	143.5	(382)	1.5	99.7	162.7	(298)	2.2
3세	144.0	213.8	(463)	2.8	190.7	224.6	(362)	3.7
4세	199.2	362.4	(612)	3.8	257.9	387.2	(469)	5.0
5세	208.7	352.5	(663)	3.9	272.4	375.6	(494)	5.2
F	29.6***			31.6***	24.6***			24.9***

4) 비용 지불 영유아 비중은 2018년 87.7%였으나, 2021년 70.8%에 그침.

구분	전체 영유아				비용 지불 영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대비비율
지역규모								
대도시	183.2	360.4	(1,158)	3.3	249.2	395.1	(883)	4.5
중소도시	121.5	215.9	(1,002)	2.5	166.0	233.7	(733)	3.4
읍·면	85.7	151.1	(431)	2.0	142.7	176.5	(267)	3.5
F	30.6***			24.3***	20.8***			13.6***
모취업여부								
취업	147.8	301.7	(1,205)	2.4	208.1	333.5	(875)	3.4
휴직중	179.8	345.0	(224)	3.2	248.1	376.5	(165)	4.5
미취업	125.9	236.0	(1,136)	3.0	173.6	258.9	(827)	4.2
부재 등	101.5	183.7	(26)	4.3	215.9	232.2	(16)	9.4
F	3.3*			4.0**	3.8*			7.8***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59.4	87.4	(128)	3.7	110.3	107.4	(84)	6.8
250~299만원	96.4	148.9	(119)	3.7	157.0	182.3	(84)	6.1
300~349만원	87.1	126.8	(337)	2.8	134.7	138.4	(227)	4.4
350~399만원	114.3	195.1	(204)	3.2	153.9	211.4	(152)	4.3
400~499만원	109.9	180.0	(501)	2.6	152.5	193.9	(363)	3.6
500~599만원	139.3	248.1	(520)	2.7	187.1	267.4	(395)	3.7
600~699만원	98.5	173.9	(280)	1.6	142.4	190.7	(197)	2.3
700만원 이상	283.5	490.7	(469)	2.9	369.1	527.0	(362)	3.8
모름/무응답	72.1	98.2	(33)	-	154.8	118.6	(19)	-
F	21.3***			4.5***	18.9***			7.6***
2018년(전체)	149.6	198.1	(2,830)	3.4	170.2	202.9	(2,481)	3.8
2015년(전체)	96.4	114.2	(2,284)	2.7	117.0	115.9	(1,796)	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29-230. 〈표 Ⅴ-4-1〉.
* $p < .05$, ** $p < .01$, *** $p < .001$.

총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안내는 경우가 29.6%, 5~10만원인 경우가 24.3%, 1~5만원인 경우 22.9% 순이었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안내는 경우가 24.4%, 10~15만원이 11.4%, 40만원 이상 11.8% 순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이용비용이 가장 높아서 40만원 이상인 경우가 87.4%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순 보육·교육비용은 어린이집의 경우 안낸다는 응답이 89.8%, 유치원 46.0%, 반일제 이상 학원 3.9%였다.

〈표 Ⅴ-4-2〉 이용 기관별 보육료·교육비 분포

단위: %, (명)

구분	총 비용				순보육·교육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전체
안냄	29.6	24.4	2.6	26.9	89.8	46.0	3.9	72.2
1~5만원	22.9	8.6	-	17.3	3.2	3.4	-	3.1
5~10만원	24.3	7.7	-	17.9	4.1	6.2	-	4.6
10~15만원	14.4	11.4	3.1	13.0	2.6	9.6	3.1	5.0
15~20만원	6.8	9.1	1.8	7.4	-	8.6	3.5	3.0
20~25만원	1.7	8.3	1.7	3.9	-	9.4	0.6	3.1
25~30만원	0.3	9.2	0.6	3.3	0.3	7.2	1.6	2.6
30~35만원	-	7.0	2.8	2.4	-	3.1	3.0	1.1
35~40만원	-	2.5	-	0.8	-	1.9	1.0	0.7
40만원 이상	-	11.8	87.4	7.1	-	4.7	83.3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464)	(1,041)	(86)	(2,591)	(1,464)	(1,041)	(86)	(2,59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32-233. 〈표 Ⅴ-4-3〉.

나. 월평균 보육·교육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어린이집 5만 6,000원, 유치원 18만 8,700원, 반일제 이상 학원 119만 8,600원이며, 순보육·교육비는 어린이집 7,300원, 유치원 11만 7,700원, 반일제이상 학원 90만원이었다. 추가비용은 어린이집 4만 8.700원, 유치원 7만 1,000원, 반일제이상 학원 29만 8,600원이었다. 2021년 보육료·교육비는 전체 비용 기준 2018년에 비해서는 평균 8,600원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순 보육·교육비는 2018년 대비 1,700원가량 증가한 반면, 추가비용이 1만 300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비율은 반일제이상 학원 16.7%, 유치원 4.0%, 어린이집 1.3% 순으로 높았다.

〈표 Ⅴ-4-3〉 이용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1.0	75.9	65.1	(2,591)	2.7
어린이집	56.0	7.3	48.7	(1,464)	1.3
유치원	188.7	117.7	71.0	(1,041)	4.0
반일제이상	1,198.6	900.0	298.6	(86)	16.7
F	1,501.2***	1,740.4***			447.6***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2018년(전체)	149.6	74.2	75.4	(2,830)	3.4
2015년(전체)	96.4	32.7	63.7	(2,284)	2.7
2012년(전체)	161.7	78.9	82.7	(2,392)	5.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235. 〈표 Ⅴ-4-5〉.
*** $p < .001$.

다.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활동비가 3만 7,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방과후과정비 1만 3,700원, 급간식비 1만 2,200원, 교재비 1만 500원, 현장학습비, 행사비 5,900원, 차량이용비 5,500원, 시도특성화비 2,200원이었다. 반일제이상 학원의 추가 비용이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유치원의 특성화활동비보다 높으며, 현장학습비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유치원에 비해 높았다.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로 특별활동비, 특성화활동비 6만 9,900원, 현장학습비 3만 900원, 급간식비 6만 800원, 차량이용비 3만 1,500원, 방과후 과정비 8만 9,100원, 교재비 7만 5,200원, 시도특성화비 2만 9,700원, 기타 5만 4,700원 등이었다.

〈표 Ⅴ-4-4〉 이용 기관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활동/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이용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전체 아동								
전체	37.0	5.9	12.2	5.5	13.7	10.5	2.2	6.2
어린이집	36.9	7.0	-	-	-	-	2.2	4.1
유치원	34.5	2.6	8.1	5.0	9.5	3.5	-	7.7
반일제이상	62.3	19.1	49.7	9.9	52.9	75.5	-	29.2
(수)	(2,591)	(2,591)	(2,591)	(2,591)	(2,591)	(2,591)	(2,591)	(2,591)
2018년(전체)	50.1	6.6	4.9	4.6	2.4	6.0	0.5	
2015년(전체)	36.7	7.4	5.5	4.9	2.0	4.4	2.2	
비용지불 아동								
전체	69.9	30.9	60.8	31.5	89.1	75.2	29.7	54.7

구분	특별활동/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이용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시도 특성화비	기타
어린이집	60.3	27.6	–	–	–	–	29.7	29.3
유치원	86.0	30.8	46.0	30.5	64.9	39.8	–	112.9
반일제이상	205.6	130.7	119.7	37.2	236.6	122.5	–	365.9
(수)	(1,298)	(454)	(201)	(163)	(141)	(136)	(98)	(270)
2018년(전체)	69.6	19.6	29.8	23.6	56.8	36.8	28.1	
2015년(전체)	63.5	20.4	30.3	19.7	42.3	29.5	33.7	

주: 2021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시도특성화비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유치원과 반일제이상학원은 조사하지 않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36-237. 〈표 Ⅴ-4-6〉.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가구소득 대비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전체 비용이 5만 600원인데 반해, 유아의 경우에는 18만 7,6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순 보육·교육비 뿐 아니라, 추가 비용 또한 영아에 비해 유아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 Ⅴ-4-5〉 영유아 연령별 기관 이용 아동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A)	순보육·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
전체	141.0	75.9	65.1	(2,591)	2.7
영유아구분					
영아	50.6	10.6	40.0	(853)	1.1
유아	187.6	109.6	78.0	(1,738)	3.6
t	-11.4***	-10.7***			-11.8***
연령					
0세	10.5	1.3	9.3	(140)	0.2
1세	39.7	6.1	33.6	(331)	1.0
2세	68.4	16.2	52.1	(382)	1.5
3세	144.0	74.3	69.6	(463)	2.8
4세	199.2	121.9	77.4	(612)	3.8
5세 이상	208.7	123.9	84.8	(663)	3.9
F	29.6***	25.8***			31.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보육료·교육비가 높아지는 현상이 명백히 포착되어, 0세는 1만 500원에 그친 반면, 5세 이상은 7만 9,900원에 달했다. 이때 순보육비는 0세 1,300원, 5세 이상은 9,400원으로,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료·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순보육비의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에 기인함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보육료·교육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3세의 경우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21만 1,000원인데 반해, 5세의 경우에는 17만 1,600원에 그쳤다. 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 순교육비 자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며, 추가 비용도 조금씩 낮아지긴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유치원 이용 유아의 보육료·교육비 총액은 순교육비 비중이 큰데, 순교육비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면서 보육료·교육비 총액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비용 수준을 보이며, 3세의 경우에만 83만 9,200원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관측치가 많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Ⅴ-4-6〉 영유아 연령별 및 기관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F*
어린이집								
총비용	10.5	38.5	55.5	66.7	64.5	79.9	56.0	40.4***
순보육비	1.3	5.3	6.6	11.6	6.7	9.4	7.3	2.7*
(수)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유치원								
총비용				211.0	194.5	171.6	188.7	2.9
순교육비				133.4	121.4	106.0	117.7	2.8
(수)				(213)	(386)	(442)	(1,041)	
반일제이상 학원								
총비용		1,664.0	1,292.2	839.2	1,295.4	1,220.1	1,198.6	1.6
순교육비		1,100.0	938.6	572.8	1,021.7	901.2	900.0	2.5
(수)		(1)	(5)	(12)	(31)	(37)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지역 규모가 클수록 보육료·교육비 비용이 크며, 이는 순보육·교육비와 추가비용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18만 3,200원, 순보육·교육비 10만 6,300원, 추가비용 7만 6,900원이지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평균 보육료·교육비는 8만 5,700원, 순보육·교육비 3만7,300원, 추가비용 4만 8,300원에 그쳤다.

〈표 Ⅴ-4-7〉 지역규모별 기관 이용 영유아 월평균 보육료·교육비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순보육·교육비	추가비용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41.0	75.9	65.1	(2,591)	2.7
지역규모					
대도시	183.2	106.3	76.9	(1,158)	3.3
중소도시	121.5	61.4	60.1	(1,002)	2.5
읍·면	85.7	37.3	48.3	(431)	2.0
F	30.6***	23.1***			24.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입소비용(입학준비금, 입학금)은 없는 경우가 27.8%이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10~15만원미만을 지불했다는 응답이 2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만원미만이 17.7%였다. 평균 입소비용은 10만 7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입소비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8〉 지역규모별 기관 이용 영유아 입소 비용(입학준비금,입학금)

단위: %, 천원, (명)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만원~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만원~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27.8	9.7	17.7	27.3	5.5	12.0	(2,587)	100.7(190.4)
지역규모								
대도시	22.9	10.1	22.5	26.0	4.5	14.0	(1,156)	115.9(238.2)
중소도시	28.3	10.3	14.3	28.8	6.3	11.9	(1,000)	96.9(157.5)
읍·면	38.6	7.0	14.7	26.8	5.6	7.3	(431)	72.6(116.0)
F								9.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라.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및 비용 부담 의사

1) 보육료·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부담+부담)는 응답은 25.2%로 2018년 30.3%와 2015년 35.2%에 비교하여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당하다는 응답이 49.2%로 매우 높고, 부담된다는 응답이 17.6%에 그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매우 부담 3.6%, 부담 30.1%로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용 수준이 가장 높은 반일제이상 학원의 경우 매우 부담 22.4%, 부담 57.2%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Ⅴ-4-9〉 보육료·교육비 부담감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전혀 부담안됨	계(수)
전체	3.0	22.2	44.3	13.3	17.2	100.0(2,591)
기관유형						
어린이집	1.6	16.0	49.2	15.1	18.2	100.0(1,464)
유치원	3.6	30.1	37.8	11.4	17.0	100.0(1,041)
반일제이상 학원	22.4	57.2	19.0	0.5	0.9	100.0(86)
$x^2(df)$/			238.7(8)***			
2018년 조사	4.4	25.9	38.5	14.6	16.6	100.0(2,830)
2015년 조사	4.9	30.3	41.3	13.8	9.7	100.0(2,535)
2012년 조사	8.1	35.9	22.9	22.9	10.3	100.0(2,138)
2009년 조사	17.7	46.5	20.1	9.7	6.0	100.0(1,91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40-241. 〈표 Ⅴ-4-9〉.
*** $p < .001$.

2) 보육·교육비 부담 의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선을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53.5%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8년 40.5%, 2015년 29.6%에 비해 더욱 높아진 수치이다. 한편,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비용은 평균 9만

6,800원으로, 2018년 11만4,400원보다는 약간 낮아진 수준을 보였다. 즉, 예년에 비해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 영유아 가구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부담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은 예년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 비용 부담 의사는 유아에 비해 영아의 경우 높으며, 현재 비용 지출 수준이 높은 대도시인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낮았다. 반면, 추가 부담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의 수준은 영아는 평균 9만2,000원, 유아는 9만9,600원으로 유아가 좀 더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추가 비용 부담 의사 자체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낮지만, 일단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보육료·교육비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높았으나,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추가 지출 의향이 있는 비용 수준은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낮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Ⅴ-4-10〉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3.5	46.5	(2,591)	96.8	96.2	10.0	1,500.0	(1,344)
영유아구분								
영아	58.8	41.2	(853)	92.0	76.0	10.0	500.0	(475)
유아	50.8	49.2	(1,738)	99.6	106.3	10.0	1,500.0	(869)
$x^2(df)/t$	7.7(1)**			-1.5				
연령								
0세	62.7	37.3	(140)	88.5	45.5	20.0	300.0	(82)
1세	62.7	37.3	(331)	96.8	88.4	10.0	500.0	(193)
2세	54.8	45.2	(382)	88.6	70.0	10.0	500.0	(200)
3세	51.3	48.7	(463)	102.9	102.2	10.0	700.0	(237)
4세	47.7	52.3	(612)	98.1	130.0	10.0	1,500.0	(288)
5세	53.3	46.7	(663)	98.6	84.3	10.0	700.0	(344)
$x^2(df)/F$	13.8(5)*			0.7				
지역규모								
대도시	50.6	49.4	(1,158)	109.1	118.2	10.0	1,500.0	(566)
중소도시	55.5	44.5	(1,002)	90.6	81.5	10.0	700.0	(542)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읍·면	55.6	44.4	(431)	84.5	67.9	10.0	500.0	(236)
$x^2(df)/F$	7.7(2)**			8.3***				
기관이용유형								
어린이집	56.0	44.0	(1,464)	88.1	69.9	10.0	500.0	(784)
유치원	49.8	50.2	(1,041)	101.5	92.8	10.0	700.0	(521)
반일제 이상	43.4	56.6	(86)	244.3	302.9	50.0	1,500.0	(39)
$x^2(df)/F$	4.6(2)			49.6***				
2018년	40.5	59.5	(2,830)	114.4	98.2	10.0	500.0	(1,144)
2015년	29.6	70.4	(2,535)	118.5	105.9	5.0	600.0	(712)
2012년	23.5	76.5	(2,392)	165.3	116.4	30.0	700.0	(556)
2009년	26.6	73.4	(2,050)	109.6	96.6	10.0	900.0	(54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43. 〈표 Ⅴ-4-11〉.
* $p < .05$, ** $p < .01$, *** $p < .001$.

5. 보육·교육기관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각 기관유형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가.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발달평가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60.9%로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제공되는 비중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Ⅴ-5-1〉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보육교육계획	98.2	98.9	100.0	98.5
급간식 식단	99.1	99.4	100.0	99.2
가정통신문	99.0	99.3	100.0	99.1
발달평가	60.9	72.2	92.5	65.8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부모상담	90.1	93.4	92.9	91.3
부모교육 자료	79.6	76.3	59.4	77.8
부모참여프로그램	66.0	60.7	51.1	63.7
양방향 알림장	92.3	70.7	86.6	84.9
(수)	(1,464)	(1,041)	(86)	(2,59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육교육계획을 제공받은 경우 매주 1회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어린이집 58.5%, 유치원 60.9%, 반일제이상 학원 62.6%가 매주 1회 보육교육계획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급간식 식단의 경우에는 월 1회 제공 받는다(5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66.4%),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59.3%)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부모상담의 경우에는 연 1~2회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은데 반해, 부모 교육자료 제공은 월 1회가 30.5%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발달평가는 분기1회가 24.0%, 연 1~2회가 23.5%로 제공 주기가 긴 편에 속했으며,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연 1~2회 제공된다는 응답이 23.6%로 가장 많아 비교적 긴 주기를 보였다.

〈표 Ⅴ-5-2〉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빈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18년	2015년	2012년
보육교육계획							
매일	5.9	6.7	5.0	6.1	4.4	5.0	0.9
매주 1회	58.5	60.9	62.6	59.5	68.2	64.9	77.1
월 1회	32.4	28.0	32.4	31.0	23.8	27.0	21.1
분기 1회	–	–	–	–	1.9	–	–
연 1~2회	–	–	–	–	1.1	–	–
기타	1.3	3.2	–	1.9	–	1.8	0.2
제공 안함	0.8	0.1	–	0.5	0.2	0.6	0.2
모름	1.1	1.0	–	1.0	0.4	0.7	0.4
급간식 식단							
매일	22.6	16.2	9.6	20.0	7.8	6.3	2.9
매주 1회	22.6	23.7	21.0	22.9	34.4	35.4	31.3
월 1회	53.8	59.3	69.5	56.2	57.0	55.4	65.1
분기 1회	–	–	–	–	0.1	–	–
연 1~2회	–	–	–	–	0.3	–	–
기타	–	0.2	–	0.1	–	1.0	–
제공 안함	0.4	–	–	0.2	0.2	1.0	0.2
모름	0.6	0.6	–	0.6	0.2	0.9	0.4
가정통신문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2018년	2015년	2012년
매일	12.4	10.7	19.6	12.1	10.1	9.7	36.6
매주 1회	64.4	71.3	54.7	66.4	73.1	70.1	54.8
월 1회	21.2	16.0	25.0	19.6	15.1	17.1	6.2
분기 1회	-	-	-	-	1.0	-	-
연 1~2회	-	-	-	-	0.4	-	-
기타	1.0	1.4	0.6	1.1	-	1.6	1.3
제공 안함	-	0.1	-	-	0.2	0.5	0.7
모름	1.0	0.6	-	0.8	0.1	0.9	0.4
발달평가							
매일	3.8	2.2	3.1	3.3	2.5	3.5	5.1
매주 1회	3.4	4.4	6.6	3.8	5.4	6.8	6.1
월 1회	9.3	12.1	36.2	11.2	13.1	16.4	16.6
분기 1회	21.8	27.2	32.5	24.0	27.8	25.3	22.0
연 1~2회	22.6	26.3	14.1	23.5	25.2	26.0	22.6
제공 안함	21.2	15.3	5.3	18.7	15.5	13.5	16.3
모름	17.9	12.4	2.1	15.5	10.3	8.5	11.3
부모상담							
매일	3.4	2.0	5.2	3.0	1.9	2.0	1.8
매주 1회	2.7	5.0	6.6	3.6	2.1	2.8	3.1
월 1회	6.9	7.8	26.0	7.9	6.6	7.9	6.9
분기 1회	30.9	29.2	26.3	30.1	32.2	26.0	30.1
연 1~2회	46.3	49.4	28.8	46.7	50.7	53.0	48.9
제공 안함	3.4	2.6	4.3	3.2	4.0	4.1	4.6
모름	6.5	4.0	2.8	5.6	2.6	4.4	4.6
부모교육 자료							
매일	2.2	2.4	2.9	2.3	1.2	1.2	1.8
매주 1회	17.2	15.2	10.6	16.3	13.2	13.3	3.1
월 1회	33.4	25.7	24.6	30.5	22.5	20.4	6.9
분기 1회	14.8	16.5	9.7	15.2	20.8	18.0	30.1
연 1~2회	12.0	16.4	11.7	13.5	24.9	27.4	48.9
제공 안함	7.6	10.0	32.8	9.3	9.7	11.2	4.6
모름	12.8	13.7	7.9	12.9	7.7	8.5	4.6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1.8	2.5	3.4	2.1	0.8	0.7	1.3
매주 1회	4.3	3.9	3.2	4.1	2.4	2.8	16.4
월 1회	18.4	10.6	12.7	15.6	9.3	10.7	27.8
분기 1회	19.4	17.3	9.4	18.4	29.2	24.1	14.0
연 1~2회	22.2	26.5	22.4	23.6	46.3	45.6	19.3
제공 안함	15.6	20.0	38.6	17.9	6.2	8.9	11.6
모름	18.3	19.3	10.3	18.4	5.8	7.2	9.4
양방향 알림장							
매일	70.0	38.7	62.9	59.3	61.2	-	-
매주 1회	17.5	22.0	12.0	18.8	15.0	-	-
월 1회	3.6	7.2	10.3	5.0	2.8	-	-
분기 1회	0.6	1.5	1.4	1.0	3.1	-	-
연 1~2회	0.6	1.3	-	0.8	1.3	-	-
제공 안함	3.8	21.8	11.0	10.1	12.1	-	-
모름	3.8	7.5	2.4	5.0	4.5	-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44-246. 〈표 Ⅴ-5-1〉.

나. 이용기관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반일제이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부모대상 각종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보면, 만족 또는 매우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아 항목별로 5점 척도에서 평균 4.0~4.2만큼의 점수를 보였다. 보육·교육계획,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양방향 알림장 등이 4.2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발달평가는 4.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자료 제공, 부모참여프로그램 등 직접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 기회는 만족도가 4.0 수준이었는데, 이는 202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기회 등이 줄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양방향 알림장의 경우 매우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불만족 비율도 가장 높아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Ⅴ-5-3〉 반일제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평균	표준편차
보육교육계획	37.1	49.6	12.7	0.6	0.1	100.0(2,548)	4.2	0.7
급간식 식단	36.7	48.7	13.2	1.4	0.1	100.0(2,566)	4.2	0.7
가정통신문	37.1	48.3	14.0	0.5	0.1	100.0(2,559)	4.2	0.7
발달평가	34.1	45.7	18.0	1.9	0.3	100.0(1,705)	4.1	0.8
부모상담	29.7	44.9	22.7	2.1	0.5	100.0(2,364)	4.0	0.8
부모교육 자료	30.6	45.3	22.0	2.0	0.1	100.0(2,000)	4.0	0.8
부모참여프로그램	31.1	44.8	21.6	2.4	0.1	100.0(1,650)	4.0	0.8
양방향 알림장	40.3	41.8	14.9	2.6	0.4	100.0(2,175)	4.2	0.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 이상 기관 유형별로, 제공하는 부모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전체 만족도 평균이 80.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은 82.7%, 유치원은 77.2%, 반일제 이상 학원은 76.5%가 만족한다라는 응답을 보여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반일제 이상 기관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영아 부모의 경우 83.8%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았다. 유아 부모의 경우도 81.4%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치보다는 높은 만족도 비율을 보였다.

비교적 만족도가 떨어졌던 항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상담이 76%로 가장 낮았고 유치원은 부모참여프로그램(70.1%)이,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는 부모교육 자료(59.1%)가 가장 낮은 만족 비율을 나타냈다.

〈표 Ⅴ-5-4〉 반일제이상 기관 제공 서비스 이용기관별 만족(매우만족+만족)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계(수)
		전체	영아	유아			
보육교육계획	86.7	87.8	88.5	86.9	84.4	88.1	(2,548)
급간식 식단	85.3	86.4	87.2	85.5	83.6	82.1	(2,566)
가정통신문	85.4	86.8	86.6	86.9	83.2	81.8	(2,559)
발달평가	79.8	81.7	82.9	80.4	76.8	79.7	(1,705)
부모상담	74.7	76.0	76.8	75.2	71.8	77.0	(2,364)
부모교육 자료	75.9	79.3	80.4	78.0	70.6	59.1	(2,000)
부모참여프로그램	75.9	79.2	80.8	77.6	70.1	64.4	(1,650)
양방향 알림장	82.0	84.1	86.9	80.7	77.2	80.0	(2,175)
전체 평균	80.7	82.7	83.8	81.4	77.2	76.5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프로그램

본 절에서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유형별로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출비용,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가. 이용기관별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 특성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과목별로 예능(미술, 음악) 56.7%, 체육관련 55.5%, 수학/과학관련 31.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4.2%, 영어 47.7%, 기타 10.9% 등이었다. 기관 유형에 따라 특별활동을 운영한 비중은 어린이집이 가장 낮고, 전반적으로 반일제 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 운영 비율도 높았다.

〈표 Ⅴ-6-1〉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56.7	55.5	31.3	34.2	47.7	10.9
어린이집	50.4	49.0	21.7	26.7	39.0	9.8
유치원	67.1	66.8	45.9	45.4	61.4	12.2
반일제이상	72.0	65.0	64.2	62.7	75.0	17.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중은 과목별로 예능(미술, 음악) 49.0%, 체육관련 48.5%, 영어 42.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5.7%, 수학/과학관련 24.2%, 기타 7.6% 순이었다. 이용 기관별에 따라 반일제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영어 특별활동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Ⅴ-6-2〉 이용 기관별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9.0	48.5	24.2	25.7	42.7	7.6
어린이집	44.6	44.3	16.8	20.3	37.4	7.1
유치원	56.8	56.5	35.5	33.6	51.3	8.6
반일제이상	56.0	47.1	49.7	47.4	56.5	8.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특별활동을 이용한 개수는 평균 2.1개로, 이용하는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도 38.6%에 달했다. 5개이상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개 14.6%, 2개 10.8% 순이었다. 영아들은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로 높은 반면, 유아들은 29.5%만이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 갯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3세 이상 유아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3개, 중소도시 2.1개, 읍면지역 2.0개였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반일제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3.1개, 유치원 2.6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1.8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활동 이용 개수는 2012년 평균 3개, 2015년 2.4개, 2018년에는 2.5개를 이용하였는데, 2021년 평균 2.1개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특별활동 운영 자체가 예전만큼 많이 안 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표 Ⅴ-6-3〉 특별활동 이용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8.6	8.1	10.8	14.6	9.8	18.1	(2,591)	2.1
영유아구분								
영아	56.0	8.1	12.8	12.5	4.6	5.8	(853)	1.2
유아	29.5	8.1	9.8	15.7	12.5	24.4	(1,738)	2.6
$x^2(df)/t$				290.7(5)***				−17.6***
연령								
0세	96.2	2.9	-	0.4	0.5	-	(140)	0.1
1세	59.6	11.6	11.3	9.7	3.0	4.8	(331)	1.0
2세	44.0	6.6	17.0	17.5	6.9	8.0	(382)	1.6
3세	27.8	9.4	10.0	18.4	12.3	22.1	(463)	2.6
4세	29.0	7.0	7.5	16.1	14.5	25.8	(612)	2.7
5세	31.3	8.3	11.8	13.3	10.6	24.8	(663)	2.5
$x^2(df)/F$				474.5(25)***				80.1***
지역규모								
대도시	37.0	8.4	10.1	14.0	10.4	20.1	(1,158)	2.3
중소도시	38.8	8.1	12.3	15.3	9.5	16.1	(1,002)	2.1
읍·면	41.8	7.5	8.7	14.5	9.1	18.3	(431)	2.0
$x^2(df)/F$				27.5(10)**				4.7**
기관유형								
어린이집	44.9	7.2	10.6	14.8	9.8	12.6	(1,464)	1.8
유치원	27.4	9.8	11.5	15.3	9.6	26.3	(1,041)	2.6
반일제이상	30.6	8.6	8.2	4.0	10.8	37.9	(86)	3.1
$x^2(df)/F$				163.3(10)***				69.0***
2018년	27.3	7.0	13.2	19.8	13.7	19.1	(2,830)	2.5
2015년	30.7	7.9	13.2	19.5	13.0	15.9	(2,535)	2.4
2012년	34.5	10.3	17.0	17.9	10.6	9.9	(2,392)	3.0
2009년	41.5	16.7	16.6	12.8	6.4	6.0	(2,048)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 아동조사.
2) 이정원 외(2018). pp. 249-250. 〈표 Ⅴ-6-1〉.
** $p < .01$, *** $p < .001$.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응답은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1.1%, 수학/과학 관련 48.0%, 체육관련 43.3%, 영어 40.4%, 예능(미술, 음악) 39.7%로, 언어를 제외하고는 40% 내외의 수치를 보였다. 2018년 응답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의무 이용 비율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 이용 비율이 어린이집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4〉 기관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39.7	43.3	48.0	51.1	40.4	39.4
(수)	(1,352)	(1,352)	(690)	(720)	(1,138)	(217)
어린이집	36.6	37.6	47.7	48.9	35.1	38.0
유치원	44.9	51.4	50.6	57.2	48.3	42.0
반일제이상	35.7	48.4	32.8	27.2	36.8	34.1
2018년	46.5	49.9	50.9	52.4	44.2	38.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0. 〈표 Ⅴ-6-2〉.

특별활동 과목별 이용비용은 영어 3만 300원, 예능 1만 9,700원, 언어 1만 7,100원, 수학/과학 관련 1만 6,000원, 체육관련 1만 5,900원, 기타 2만 2,400원이었다. 반일제이상 기관의 경우 특별활동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8년과 비교하여 특별활동 이용비용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줄어들었으나, 영어 교과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평균 6,000원 증가하였다.

〈표 Ⅴ-6-5〉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

구분	전체				기관별				(수)	2018년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F*		
예능(미술, 음악)	19.7	28.2	–	300.0	18.3	18.1	55.5	40.5***	(1,352)	23.0
체육관련	15.9	20.8	–	200.0	16.5	13.1	37.1	41.6***	(1,352)	20.0

구분	전체				기관별				(수)	2018년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F*		
수학/과학 관련	16.0	23.5	-	300.0	12.9	13.5	50.4	61.8***	(690)	19.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7.1	29.9	-	310.0	14.0	14.8	56.0	52.6***	(720)	19.9
영어	30.3	104.6	-	1,500.0	20.4	24.2	197.6	57.0***	(1,138)	24.3
기타	22.4	31.1	-	230.0	18.0	23.8	75.3	9.8***	(217)	24.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1. 〈표 Ⅴ-6-3〉.
*** $p < .001$.

특별활동 월평균 총 이용비용은 5~10만원미만이 28.0%로 가장 많고, 무료인 경우가 27.6%, 3~5만원미만이 12.8%, 10~15만원미만이 11.9% 순이었다. 특별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평균 지불액은 6만 5,600원이었다. 영아의 경우 5~10만원 미만 지불한다는 응답이 33.7%였으며, 월 4만 9,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아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30.0%로 높긴 했으나, 10~15만원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1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월평균 7만 8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은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비용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4세의 경우 무료 이용 비중이 32.2%이며 지불 시 총 이용비용이 6만 7,900원으로 3세나 5세에 비해 약간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활동 총 이용비용이 8만원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만 1,700원)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월평균 5만 3,300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5만 7,700원으로 약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특별활동 총 이용비용이 31만4,300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 특별활동 월평균 총 이용비용은 7만 4,100원, 2018년은 6만 8,900원으로, 2021년도에는 특별활동 총 이용비용이 2018년보다도 약간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특별활동을 무료로 이용한 비중은 1%에 불과한데 반해

(이정원 외, 2018: 254), 2021년 무료 이용자는 27.6%로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Ⅴ-6-6〉 제 특성별 총 특별활동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미만	3~5 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6	1.9	2.8	5.6	12.8	28.0	11.9	4.7	4.6	(1,674)	65.6	121.5
영유아구분												
영아	20.4	2.0	4.7	10.5	17.2	33.7	8.8	1.1	1.5	(390)	49.2	56.3
유아	30.0	1.9	2.2	4.1	11.4	26.2	12.8	5.9	5.5	(1,284)	70.8	136.6
$x^2(df)/t$					104.4(8)***						-2.6**	
연령												
0세	73.6	–	–	13.2	13.2	–	–	–	–	(7)	7.9	13.7
1세	24.5	1.2	5.9	14.1	18.2	27.4	8.5	–	0.2	(148)	38.2	36.9
2세	17.2	2.5	4.1	8.5	16.8	37.8	9.1	1.7	2.3	(235)	56.1	66.1
3세	27.7	2.0	1.4	5.5	11.6	30.5	9.8	5.5	6.0	(349)	77.5	163.6
4세	32.2	1.4	2.0	3.0	10.7	26.7	12.4	5.8	5.8	(459)	67.9	109.5
5세	29.5	2.3	3.2	4.0	11.8	22.4	15.6	6.3	4.9	(476)	68.5	133.6
$x^2(df)/F$					146.9(40)***						2.2	
지역규모												
대도시	22.0	2.5	3.2	6.0	11.8	32.3	11.2	4.4	6.7	(764)	80.0	168.3
중소도시	29.9	1.9	2.1	5.2	12.8	24.8	14.2	5.2	3.8	(648)	60.0	74.0
읍·면	36.7	0.6	3.8	5.9	15.4	25.5	7.2	4.2	0.7	(262)	41.7	48.9
$x^2(df)/F$					64.7(16)***						14.0***	
기관유형												
어린이집	20.8	1.9	3.4	7.0	15.8	35.4	11.8	3.1	0.9	(831)	53.3	51.6
유치원	37.7	2.2	2.3	4.2	9.2	20.1	12.1	7.1	5.1	(782)	57.7	80.2
반일제이상	25.6	–	–	–	5.1	2.3	11.1	4.7	51.2	(61)	314.3	452.0
$x^2(df)/F$					478.8(16)***						156.4***	
2018년	1.0	0.1	3.6	10.0	24.0	41.5	13.5	3.3	3.1	(2,077)	68.9	58.5
2015년	3.2	0.5	1.7	6.3	20.4	44.6	15.2	5.1	1.7	(1,798)	74.1	48.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2. 〈표 Ⅴ-6-4〉.
*** $p < .001$.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는 영어가 1.8회로 가장 많고,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6회, 예능과 수학/과학이 각 1.4회, 체육관련 1.3회 순이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과목에서 이용 횟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7〉 특별활동 과목별 주당 이용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기관별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F*	
예능(미술, 음악)	1.4	0.8	1.0	5.0	1.3	1.5	1.5	8.2***	(1,352)
체육관련	1.3	0.7	1.0	5.0	1.2	1.3	1.6	11.4***	(1,352)
수학/과학 관련	1.4	1.0	1.0	5.0	1.4	1.4	1.5	1.3	(69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6	1.1	1.0	6.0	1.6	1.5	1.8	2.7	(720)
영어	1.8	1.2	1.0	6.0	1.6	1.9	2.3	12.9***	(1,138)
기타	1.6	1.2	1.0	5.0	1.3	2.0	1.7	6.7**	(217)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체육 관련 과목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과목도 4.1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기관 유형에 따라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Ⅴ-6-8〉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단위: 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1	4.2	4.1	4.1	4.1	4.2
어린이집	4.1	4.2	4.0	4.0	4.1	4.2
유치원	4.2	4.2	4.2	4.1	4.1	4.1
반일제이상 학원	4.1	4.1	3.9	4.0	4.1	4.4
(수)	(1,352)	(1,352)	(690)	(720)	(1,138)	(217)
F	1.1	0.2	2.5	1.3	0.8	0.5
2018년	4.0	4.0	3.9	3.9	3.9	4.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3. 〈표 Ⅴ-6-5〉.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 영유아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예능(미술, 음악)이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체육 관련 27.3%, 영어 20.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6.5% 순이었다. 과목에 따라 영어, 언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아들에서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예능이나 체육교과는 영아들에게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능 교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도시 지역 거주자는 영어 교과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특별히 경향성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이 예능, 체육, 영어 순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었다.

〈표 Ⅴ-6-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계	(수)
전체	30.2	27.3	2.9	16.5	20.7	2.3	100.0	(1,674)
영유아구분								
영아	36.0	35.1	1.5	10.4	13.7	3.3	100.0	(390)
유아	28.3	24.8	3.4	18.5	22.9	2.0	100.0	(1,284)
$x^2(df)$				58.6(5)***				
연령								
0세	58.9	27.9	-	-	-	13.2	100.0	(7)
1세	38.2	37.2	1.1	11.2	7.5	4.8	100.0	(148)
2세	34.5	34.0	1.8	10.2	17.4	2.2	100.0	(235)
3세	31.6	26.7	2.5	15.8	20.3	3.0	100.0	(349)
4세	28.9	24.4	2.2	20.5	22.6	1.5	100.0	(459)
5세	25.2	23.9	5.2	18.5	25.3	1.9	100.0	(476)
$x^2(df)$				91.6(25)***				
지역규모								
대도시	27.3	26.5	3.7	16.1	24.3	2.0	100.0	(764)
중소도시	33.2	28.3	2.2	16.8	16.9	2.5	100.0	(648)
읍·면	29.8	26.8	2.7	16.8	21.1	2.9	100.0	(262)
$x^2(df)$				31.0(10)***				
기관유형								
어린이집	32.0	31.5	1.5	14.6	17.8	2.6	100.0	(831)
유치원	27.3	22.7	4.7	19.9	23.3	2.1	100.0	(782)
반일제이상	34.1	13.3	6.1	10.2	36.2	-	100.0	(61)
$x^2(df)$				66.3(10)***				
2018년	32.3	26.2	2.9	12.8	21.6	2.7	100.0	(2,07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54-255. 〈표 Ⅴ-6-6〉.
*** $p < .001$.

7.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

본 절에서는 이용하는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도움정도, 개선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가. 이용기관별 만족도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77.7%로,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3.2%p 가량 낮아졌다. 2018년과 비교하여 모든 기관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교직원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85.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83.5%, 생활지도 82.8%, 교육내용(평상시) 82.5% 순으로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참여 및 교육은 만족 비율이 66.2%로 가장 낮았으며, 비용 71.1%, 시설환경 71.7% 순이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모든 기관에서 교직원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Ⅴ-7-1〉 이용기관별 교직원, 시설, 서비스 질, 비용 등 만족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수)
교직원	85.9	86.8	84.6	80.3	(2,591)
주변환경	74.0	73.6	75.1	69.0	(2,591)
시설환경	71.7	71.5	73.3	59.4	(2,591)
실내환경	75.5	74.5	78.2	67.1	(2,591)
비용	71.1	75.4	67.2	31.3	(2,591)
건강관리	80.0	82.3	78.2	58.3	(2,591)
급간식관리	80.2	82.1	78.7	59.7	(2,591)
안전관리	83.5	85.0	82.2	70.6	(2,591)
교육내용(평상시)	82.5	83.4	81.2	78.8	(2,591)
교육내용(위기시)	78.8	79.7	77.5	73.4	(2,591)
생활지도	82.8	83.9	82.1	69.9	(2,591)
부모참여 및 교육	66.2	69.4	62.2	45.3	(2,591)
전체 평균	77.7	79.0	76.7	63.6	(2,591)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수)
2018년	80.9	80.9	81.2	79.7	(2,830)
2015년	78.3	78.1	78.7	77.7	(2,535)
2012년	73.6	75.1	70.0	76.9	(2,391)
2009년	63.8	63.1	66.5	57.4	(2,04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7. 〈표 Ⅴ-7-1〉.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교직원이 5점 만점에 4.2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안전관리와 생활지도가 4.15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부모참여 및 교육으로 3.86점이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4.09점, 유치원 4.01점, 반일제이상 학원 3.75점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부모참여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76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반일제이상 학원은 비용이 3.22점으로 상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관 이용 만족도는 평균 4.04점으로 2021년 만족도 점수는 약간 높아지긴 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Ⅴ-7-2〉 기관별 이용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수)	*F*
교직원	4.23	4.27	4.17	4.06	(2,591)	5.7**
주변환경	3.97	3.98	3.96	3.78	(2,591)	0.8
시설환경	3.93	3.94	3.94	3.55	(2,591)	3.0*
실내환경	4.00	4.00	4.02	3.75	(2,591)	2.5
비용	3.96	4.04	3.88	3.22	(2,591)	34.5***
건강관리	4.09	4.14	4.03	3.71	(2,591)	8.2***
급간식관리	4.10	4.15	4.05	3.73	(2,591)	9.4***
안전관리	4.15	4.20	4.10	3.84	(2,591)	9.0***
교육내용(평상시)	4.14	4.16	4.09	4.10	(2,591)	2.2
교육내용(위기시)	4.06	4.09	4.02	3.92	(2,591)	1.8
생활지도	4.15	4.18	4.11	3.96	(2,591)	3.1*
부모참여 및 교육	3.86	3.94	3.76	3.38	(2,591)	17.6***
전체 평균	4.05	4.09	4.01	3.75	(2,591)	–
2018년	4.04	4.03	4.05	4.02	(2,830)	
2015년	4.01	4.02	3.74	3.61	(2,391)	
2012년	3.71	3.70	3.74	3.61	(2,391)	
2009년	3.69	3.68	3.72	3.55	(2,0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58. 〈표 Ⅴ-7-2〉.
* $p < .05$, ** $p < .01$, *** $p < .001$.

나. 이용기관별 개선요구사항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1순위 응답에서는 교육내용 다양화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증원이 20.9%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내용 다양화에 각 27.9%와 30.8%로 가장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자는 인력증원(23.6%)을 꼽은데 반해, 유치원 이용자들은 인력의 질 제고(17.6%)을 꼽았다. 반면, 반일제이상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인력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1%로 가장 많았다.

2순위 응답에서도 교육내용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으나, 인력의 질 제고가 17.7%로 다음을 차지했다. 2순위 응답은 기관 유형에 따라 특별한 경향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할 때, 교육내용 다양화(57.6%), 인력의 질 제고(35.8%), 인력 증원(31.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Ⅴ-7-3〉 이용기관별 개선요구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인력증원	20.9	23.6	17.1	8.2	10.4	10.8	9.9	9.6
인력의 질 제고	18.1	17.9	17.6	27.1	17.7	18.8	15.9	14.6
노후시설 정비	10.4	10.0	11.2	8.7	8.6	9.1	8.1	3.9
내부환경개선	6.4	6.8	5.3	9.8	11.1	11.4	10.8	7.6
비용 절감	6.0	3.7	9.1	16.7	6.4	5.1	7.4	20.0
안전관리강화	9.8	10.0	9.0	12.1	16.8	17.1	16.1	17.2
교육내용다양화	28.5	27.9	30.8	17.3	29.1	27.9	31.7	2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91)	(1,464)	(1,041)	(86)	(2,591)	(1,464)	(1,041)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8. 영유아 가구의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본 절에서는 영유아의 취학 전까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계획과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 그리고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향후 기관 이용 계획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고, '국공립 유치원' 54.7%, '사립 유치원' 48.9%, '민간' 어린이집 37.2%, '가정 양육' 19.6%, '가정' 어린이집 12.7%, '반일제 이상 학원' 7.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6%, '협동' 어린이집 4.9%,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0%, '직장' 어린이집 0.7%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116.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아는 '사립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다.

보육 연령에 따라서는 0세와 1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각각 165.8%, 106.5%로 매우 높은데 반해 그 비중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2세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많았다. 3세, 4세, 5세의 경우, '사립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각각 59.2%, 34.2%, 37.5%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각각 62.5%, 62.4%로 가장 많았지만, 읍·면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59.4%) 응답보다 많았다.

〈표 Ⅴ-8-1〉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계(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국공립	사립			
전체	61.9	5.6	3.0	37.2	12.7	4.9	0.7	54.7	48.9	7.6	19.6	100.0(3,471)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 양육	계(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국공립	사립			
영유아구분												
영아	116.5	8.7	5.4	59.0	26.4	7.1	1.0	81.7	56.7	7.7	41.4	100.0(1,679)
유아	16.6	3.0	1.0	19.1	1.2	3.1	0.3	32.2	42.4	7.6	1.5	100.0(1,792)
연령												
0세	165.8	8.3	5.4	57.5	35.1	10.2	0.2	92.4	49.0	4.6	95.4	100.0(780)
1세	106.5	10.6	7.2	68.6	32.6	5.2	1.9	76.0	62.0	10.9	18.5	100.0(472)
2세	72.0	7.4	3.7	51.4	11.0	5.6	1.1	75.4	60.2	8.1	4.1	100.0(427)
3세	26.9	4.8	1.1	31.1	4.0	7.3	1.0	53.3	59.2	8.6	2.9	100.0(486)
4세	13.3	2.1	1.0	11.6	0.3	1.2	-	28.4	34.2	7.4	0.5	100.0(630)
5세	11.8	2.4	0.8	17.2	-	1.7	0.2	19.9	37.5	7.1	1.5	100.0(676)
지역규모												
대도시	62.5	4.4	2.2	35.3	9.2	5.9	0.2	51.7	52.5	10.7	21.4	100.0(1,565)
중소도시	62.4	6.4	3.7	38.4	16.3	5.2	0.8	53.1	48.6	6.3	18.0	100.0(1,324)
읍·면	59.4	6.4	3.0	39.0	12.2	1.8	1.5	66.2	40.9	3.4	19.5	100.0(58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영유아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이유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7.3%, '비용이 저렴해서' 23.5%, '집에 가까워서' 11.5%, '보육내용이 좋아서' 5.3%, '교사가 우수해서' 1.4%, '기타' 1.0% 순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보다 신뢰할만한 기관이라는 점에는 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영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희망 이유가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29.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보육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세의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35.3%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이한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56.9%)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25.5%)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보육내용이 좋아서'라는 응답(12.4%)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모가 휴직중인 가정과 미취업모 가정에서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5.3%, 26.2%로 다른 가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신뢰가 가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조사에서 52.9%, 2018년 53.5%, 2021년 57.3%로 나타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부재 등'의 가정에서는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2018년에는 33.2%인 것에 비해 2021년에는 66.6%로 그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23.5	57.3	11.5	1.4	5.3	1.0	100.0(969)
영유아구분							
영아	21.2	59.4	11.5	1.1	5.6	1.1	100.0(770)
유아	29.9	51.6	11.5	2.1	4.4	0.6	100.0(199)
$x^2(df)$			5.4(5)*				
연령							
0세	18.7	63.6	10.2	0.5	6.0	1.0	100.0(435)
1세	21.5	57.3	12.8	2.5	4.3	1.7	100.0(196)
2세	25.1	54.6	12.3	0.6	6.7	0.8	100.0(139)
3세	26.1	53.8	12.1	2.4	4.7	0.8	100.0(77)
4세	28.9	52.8	11.6	–	5.9	0.8	100.0(68)
5세	35.3	47.8	10.6	3.8	2.4	–	100.0(54)
$x^2(df)$			26.8(25)*				
지역규모							
대도시	22.4	56.9	14.9	1.2	3.9	0.8	100.0(460)
중소도시	25.5	59.3	8.3	1.7	4.0	1.2	100.0(345)
읍·면	21.6	53.6	10.6	0.9	12.4	0.9	100.0(164)
$x^2(df)$			22.2(10)**				
모취업 여부							
취업	19.8	60.0	11.0	1.4	6.4	1.4	100.0(322)
휴직중	25.3	55.5	12.4	–	5.9	0.9	100.0(166)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미취업	26.2	55.7	11.6	1.8	4.1	0.7	100.0(469)
부재 등	5.1	66.6	12.2	6.8	9.3	0.0	100.0(12)
$x^2(df)$			16.1(15)*				
2018년	27.3	53.5	3.2	10.6	5.4	-	100.0(1,337)
2015년	26.6	52.9	6.0	5.9	7.6	0.8	100.0(1,091)

주: 2015년 조사와 질문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를 요함.
2015년 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 0.3%이 있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62. 〈표 Ⅵ-8-2〉.
* $p < .05$, ** $p < .01$.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았고, '비용이 저렴해서' 27.5%, '교육내용이 좋아서' 9.0%, '집에 가까워서' 6.7%, '교사가 우수해서' 3.8%, '기타' 1.2% 순이었다. 영아 자녀가 유아 자녀에 비해, 그리고 보육연령이 어릴수록 '신뢰가 가서'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 3세와 5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13.9%, 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 '신뢰가 가서' 라는 응답(54.9%)가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내용이 좋아서'라는 응답(11.6%)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모가 부재한 가정에서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15.2%로 다른 가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자의 경우에 '신뢰가 가서'라는 응답 비중이 66.0%로 다른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Ⅴ-8-3〉 국·공립유치원 이용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교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전체	27.5	51.9	6.7	3.8	9.0	1.2	100.0(1,333)

구분	비용이 저렴해서	신뢰가 가서	집에서 가까워서	교사가 우수해서	교육내용이 좋아서	기타	계(수)
영유아구분							
영아	23.9	57.8	5.4	3.9	8.3	0.6	100.0(811)
유아	32.9	43.0	8.5	3.7	10.0	2.0	100.0(522)
$x^2(df)$			34.5(5)***				
연령							
0세	19.4	66.4	3.5	4.2	6.3	0.1	100.0(409)
1세	26.4	53.0	6.3	4.2	10.0	-	100.0(212)
2세	27.4	51.1	7.1	3.2	9.3	1.8	100.0(190)
3세	25.3	51.9	6.7	1.7	13.9	0.6	100.0(162)
4세	37.2	37.2	11.0	4.7	6.4	3.6	100.0(210)
5세	36.7	39.7	7.3	4.8	10.1	1.4	100.0(150)
$x^2(df)$			83.0(25)***				
지역규모							
대도시	27.7	51.5	7.3	3.8	9.1	0.6	100.0(575)
중소도시	28.3	54.9	5.7	3.1	7.6	0.4	100.0(496)
읍·면	25.5	46.5	7.4	5.1	11.6	3.9	100.0(262)
$x^2(df)$			28.7(10)**				
모취업 여부							
취업	28.3	49.8	7.6	3.2	9.0	2.2	100.0(463)
휴직중	22.5	66.0	3.2	1.7	5.9	0.7	100.0(195)
미취업	28.2	49.9	6.7	4.8	9.8	0.5	100.0(660)
부재 등	31.6	38.9	15.2	4.5	9.7	-	100.0(15)
$x^2(df)$			27.1(15)**				
2018년	25.1	55.3	2.6	9.7	6.7	0.7	100.0(1,763)
2015년	31.0	49.4	6.6	3.6	8.2	1.1	100.0(1,58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63. 〈표 Ⅵ-8-3〉.
** $p < .01$, *** $p < .001$.

다.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

연령별로 각 연도의 어린이집 수요를 조사해본 결과, 0세를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29.2%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4세가 되기까지 즉, 2025년까지 이용 의향이 점점 높아짐을 보였다. 이후 이들이 5세가 되는 2026년과 6세가 되는 2027년에는 의용 희망이 45.1%, 25.6%로 감소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영아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다가, 아이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차츰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세, 3세의 아이들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출생아의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으나, 4세, 5세의 경우 어린이집 수요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표 Ⅴ-8-4〉 연령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0세	29.2	52.7	75.7	75.8	45.1	25.6	(224)
1세	53.8	72.5	78.2	50.3	21.1	-	(556)
2세	84.2	77.3	46.8	24.4	-	-	(472)
3세	73.2	51.3	27.8	-	-	-	(427)
4세	46.5	29.6	-	-	-	-	(486)
5세	31.8	-	-	-	-	-	(1,30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각 지역 규모별로 연령별 각 연도의 어린이집 수요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0세의 경우 3살이 되는 2024년까지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하다가 4살이 되는 2025년부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2세, 3세 아이들의 대다수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5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어린이집 수요가 작았다.

〈표 Ⅴ-8-5〉 지역별 연령별 해당 연도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대도시							
0세	27.9	45.3	75.0	73.0	42.4	21.2	(87)
1세	49.8	66.8	75.7	45.9	18.3	-	(270)
2세	81.5	77.2	47.8	24.7	-	-	(209)
3세	73.5	49.3	21.5	-	-	-	(191)
4세	46.3	26.5	-	-	-	-	(224)
5세	30.1	-	-	-	-	-	(584)
중소도시							
0세	30.8	58.4	76.7	76.7	46.9	28.8	(91)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1세	57.6	77.5	82.7	54.2	22.1	-	(205)
2세	87.3	78.4	47.7	24.8	-	-	(180)
3세	75.2	54.0	32.9	-	-	-	(164)
4세	43.8	30.0	-	-	-	-	(175)
5세	34.2	-	-	-	-	-	(509)
읍·면							
0세	27.8	54.1	75.0	79.4	46.0	27.0	(46)
1세	54.7	75.0	72.7	52.2	26.9	-	(81)
2세	81.8	74.1	41.5	22.4	-	-	(83)
3세	67.5	49.7	30.6	-	-	-	(72)
4세	53.2	35.8	-	-	-	-	(87)
5세	30.3	-	-	-	-	-	(21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유치원 이용 희망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용 희망을 보였다. 0세아의 경우에는 6세가 되는 2027년에 68.8%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5세아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59.9%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였다. 즉, 장기적으로 유치원 희망자는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이용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선호에 따른 수요가 그대로 반영되는데 반해, 현재 5세아 중에는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다른 기관으로의 변경 없이 동일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 V-8-6〉 연령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이용 수요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0세	1.2	1.2	1.5	19.9	51.2	68.8	(224)
1세	0.3	0.9	15.1	47.5	76.8	-	(556)
2세	2.2	18.0	48.2	69.6	-	-	(472)
3세	22.8	44.6	68.2	-	-	-	(427)
4세	48.8	63.6	-	-	-	-	(486)
5세	59.9	-	-	-	-	-	(1,30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각 지역 규모별로 연령별 각 연도의 어린이집 수요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치원 이용 희망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용 희망을 보였다.

〈표 Ⅴ-8-7〉 지역별 연령별 해당 연도의 유치원 이용 수요

단위: %,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대도시							
0세	-	-	-	19.7	50.1	70.8	(87)
1세	0.3	0.3	16.0	51.9	79.0	-	(270)
2세	3.5	18.4	47.8	68.3	-	-	(209)
3세	20.6	44.5	71.6	-	-	-	(191)
4세	46.8	64.4	-	-	-	-	(224)
5세	60.2	-	-	-	-	-	(584)
중소도시							
0세	2.8	2.8	3.3	22.0	53.1	66.9	(91)
1세	0.4	1.5	13.3	43.8	76.3	-	(205)
2세	0.3	16.2	46.5	69.4	-	-	(180)
3세	22.9	43.4	65.1	-	-	-	(164)
4세	51.7	62.6	-	-	-	-	(175)
5세	58.1	-	-	-	-	-	(509)
읍·면							
0세	-	-	-	15.3	48.7	69.4	(46)
1세	-	1.1	17.8	45.3	71.8	-	(81)
2세	4.3	21.7	54.2	73.6	-	-	(83)
3세	27.8	47.6	67.6	-	-	-	(72)
4세	46.8	64.2	-	-	-	-	(87)
5세	64.1	-	-	-	-	-	(21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연령별로 각 연도의 기타 시설 수요를 조사해본 결과, 0세를 기준으로 2022년도 부터 2025년도까지는 수요가 없다가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1.4%, 4.3%가 기타 시설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 의향이 점점 높아짐을 보였다. 아이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차츰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5세의 경우, 기타 시설에 대한 수요가 7.2%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표 Ⅴ-8-8〉 연령별 해당 개월의 기타 시설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
0세	-	-	-	-	1.4	4.3	(224)
1세	0.1	0.4	0.7	1.2	1.5	-	(556)
2세	0.6	0.9	4.1	5.4	-	-	(472)
3세	1.5	2.8	3.8	-	-	-	(427)
4세	3.0	5.5	-	-	-	-	(486)
5세	7.2	-	-	-	-	-	(1,30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21년 출생한 0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를 보면, 생활연령 1세인 2022년까지는 29.2%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생활연령 4세인 2025년에 75.8%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5세가 되는 2026년에는 51.2%가 유치원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나고 6세인 2027년까지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는 유아는 25.6%일 것으로 예측된다. 6세에 반일제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4.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8-9〉 2021년생(0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29.2	52.7	75.7	75.8	45.1	25.6
	유치원	1.2	1.2	1.5	19.9	51.2	68.8
	반일제학원	–	–	–	–	1.4	4.3
	가정양육	69.6	46.1	22.8	4.3	2.4	1.3
(수)		(224)	(224)	(224)	(224)	(224)	(22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세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에서도 생활연령 5세가 되는 2025년에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50.3%로 급감한 반면, 유치원 이용 희망은 47.5%로 급증하는 현상이 유지된다. 다만, 5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0세아에 비해 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약간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Ⅴ-8-10〉 2020년생(1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53.8	72.5	78.2	50.3	21.1
	유치원	0.3	0.9	15.1	47.5	76.8
	반일제학원	0.1	0.4	0.7	1.2	1.7
	가정양육	45.8	26.2	6.0	1.0	0.4
(수)		(556)	(556)	(556)	(556)	(55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현재 생활연령 2세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향도 0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생활연령기준 5세가 되는 2024년에 46.8%가 어린이집을, 48.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8-11〉 2019년생(2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84.2	77.3	46.8	24.4
	유치원	2.2	18.0	48.2	69.6
	반일제학원	0.6	0.9	4.1	5.4
	가정양육	13.1	3.9	0.9	0.6
(수)		(472)	(472)	(472)	(4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면, 현재 생활연령 3세인 영아의 경우 2022년도에도 73.2%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생활연령 기준 5세가 되는 2023년은 51.3%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2024년에는 68.2%가 유치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세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희망 비율이 5세 때인 2022년도에는 48.8%, 2023년에는 63.6%였으며, 5세아는 6세가 되는 2022년에 60.3%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했다.

즉, 모든 연령에서 취학 전 2년 전부터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지는데, 취학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연령대의 아이들일수록 취학 전 2년간 유치원 이용 희망이 더욱 강한 경향성을 보였다. 즉, 다른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의 요구에만 맞추어 보육·교육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면, 취학 전 2년(생활연령기준 5세와 6세) 동안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 공급을 현재보다 크게 증가시켜야 하며, 어린이집은 4세 이하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수급 균형상에서 적합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표 Ⅴ-8-12〉 2016년생-2018년생(3-5세아) 향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명)

구분		2018년생(3세아)			2017년생(4세아)		2016년생(5세아)
		2022	2023	2024	2022	2023	2022
이용희망 기관	어린이집	73.2	51.3	27.8	46.5	29.6	31.8
	유치원	22.8	44.6	68.2	48.8	63.6	59.9
	반일제학원	1.5	2.8	3.8	3.0	5.5	7.2
	가정양육	2.5	1.3	0.3	1.6	1.3	1.0
(수)		(427)	(427)	(427)	(486)	(486)	(1,30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이하에서는 출생년도별로 연령별로 지금까지의 기관 이용 현황과 이용 의향을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해당 아동이 아직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서 향후 의향에 해당하며, 백색 부분은 지금까지 아동이 이용한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향후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에 6세로 이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2015년생의 경우에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0세에는 8.8%, 1세 때는 33.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4세때 42.1%로 정점을 기록한 후, 5세와 6세때 33%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만한 점이라면 모든 출생년도에서 1세 때의 이용 경험과 의향을 살펴보면, 실제 1세때 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2017년생이 49.7%로 가장 높았는데, 2021년생의 1세때 이용 희망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29.2%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해석 상 주의할 점은 해당 설문 문항이 기관을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5] 실제 이용률과 이용 희망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자녀 연령이 3세가 되는 시기까지 영아기에 더욱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인데, 3세가 되면 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60~70%까지 증가하여 이용희망과 실제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는 결과를 보인다.

5) 영아기에는 기관 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수요가 모두 어린이집 이용 희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반면, 4세 이상의 유아기 때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5세를 기준으로 이미 기관 이용이 종료된 2015년생과 2016년생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33%와 18.5%였다. 2016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6세가 될 때의 이용 희망을 살펴보면, 2015년생의 이용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낮은의 수준을 보였다. 다만, 아직 6세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2016년생의 어린이집 이용 희망이 31.8%인데 반해, 6세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2021년생의 경우에는 25.6%만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해서 대조를 보였다.

〈표 Ⅴ-8-13〉 출생연도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2015년생	8.8	33.1	58.8	63.3	42.1	33.0	
2016년생	8.6	35.7	65.3	63.3	37.4	18.5	31.8
2017년생	8.0	49.7	79.6	63.5	30.5	46.5	29.6
2018년생	8.4	43.3	72.1	53.2	73.2	51.3	27.8
2019년생	9.1	46.1	52.3	84.2	77.3	46.8	24.4
2020년생	6.0	23.9	53.8	72.5	78.2	50.3	21.1
2021년생	-	29.2	52.7	75.7	75.8	45.1	25.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백지에 적힌 부분은 기존에 이용 경험(현황)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의미함.
3)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는 유치원 이용 희망을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6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 즉 6세까지 시간이 아직 많아 남아 있을수록 유치원 이용 희망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이 관측되었다. 2015년생의 경우 6세때 응답자의 49.6%가 유치원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2021년생들은 아이가 6세가 되면 유치원을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이 68.8%에 달했다. 즉, 자녀가 취학에 가까워질수록 영유아 부모들의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Ⅴ-8-14〉 출생연도별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구분	생활연령		
	4세	5세	6세
2015년생	43.1	49.6	
2016년생	43.9	34.2	59.9
2017년생	22.4	48.8	63.6
2018년생	22.8	44.6	68.2
2019년생	18.0	48.2	69.6
2020년생	15.1	47.5	76.8
2021년생	19.9	51.2	68.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 백지에 적힌 부분은 기존에 이용 경험(현황)이며, 음영 처리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의미함.
3)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VI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01 어린이집 이용 특성

02 어린이집 이용 비용

0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04 어린이집 특별활동

0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06 연장보육과 취약보육

0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08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09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10 보육지원체계 개편

11 시사점

Ⅵ. 어린이집 이용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특성, 이용 비용, 특별활동 이용 현황, 어린이집 이용의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등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실태의 조사 결과 분석과 더불어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시간제보육 이용 등 최근의 변화된 보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을 모두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 이용 특성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 이용 이유,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등 어린이집 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영유아 특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 이용자가 44.8%, 국공립 29.1%, 가정어린이집 13.1% 등이었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가 27.1%였으며, 다음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3.2%였다. 유아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50.1%이며, 국공립어린이집 31.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7.0%, 직장어린이집 5.0% 등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2세 이상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중이 37.0%로 읍면지역 25.4%와 중소도시 2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비중은 2015년 14.4%였으며, 2018년 21.7%, 2021년 29.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Ⅵ-1-1〉 영유아 특성별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계(수)	$x^2(df)$
전체	29.1	5.4	3.8	44.8	13.1	3.4	0.4	100.0(1,464)	
영유아구분									
영아	27.1	4.1	3.4	40.1	23.2	2.0	0.1	100.0(847)	148.8(6)***
유아	31.5	7.0	4.2	50.1	1.3	5.0	0.8	100.0(617)	
연령									
0세	20.4	4.3	4.3	30.1	39.3	1.5	–	100.0(140)	214.1(30)***
1세	22.9	3.2	4.4	39.8	27.8	1.8	0.1	100.0(330)	
2세	31.9	4.8	2.5	42.7	15.8	2.3	–	100.0(377)	
3세	28.4	5.6	3.5	53.6	2.3	5.2	1.4	100.0(238)	
4세	34.2	6.4	5.6	46.9	1.6	5.3	–	100.0(195)	
5세 이상	32.2	9.2	3.7	49.5	–	4.4	1.0	100.0(184)	
지역규모									
대도시	37.0	3.2	2.7	41.2	11.5	4.1	0.3	100.0(631)	41.8(12)***
중소도시	21.5	5.7	4.7	45.5	19.8	2.5	0.3	100.0(578)	
읍·면	25.4	8.7	3.9	43.4	15.0	2.9	0.7	100.0(255)	
모취업 여부									
취업	31.0	4.9	4.5	41.1	13.2	4.8	0.5	100.0(673)	34.0(18)*
휴직중	42.1	4.6	4.7	40.2	6.8	1.6	–	100.0(133)	
미취업	23.9	6.0	2.9	50.1	14.5	2.2	0.4	100.0(643)	
부재 등	45.8	14.1	3.9	36.2	–	–	–	100.0(15)	
2018년	21.7	4.3	4.3	51.9	14.7	3.1	–	100.0(1,753)	
2015년	14.4	5.2	3.5	58.6	15.7	2.1	0.4	100.0(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70. 〈표 Ⅵ-1-1〉.
* $p < .05$, *** $p < .001$.

1) 어린이집 이용 이유

어린이집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모 대리보호 22.0%, 사회성 발달 16.1% 순이었다. 2015년과 2018년 조사와 비교해서 전인적 발달 목적에 대한 기대 비율이 큰 차이로 높아졌

고 사회성 발달 목적 비율이 낮아졌다.

영아와 유아 모두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긴 하지만, 영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 대리보호의 목적이 약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유아의 연령이 2세를 넘어가면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0%를 넘으며 가장 주요한 이용 사유가 된 반면, 0세의 경우에는 부모 대리 보호가 36.9%로 가장 주된 어린이집 이용 사유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사유가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읍면 지역의 거주하는 경우에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응답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에 부모 대리보호 목적이 37.1%로 가장 높은 반면, 휴직중인 경우와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8.8%로 취업모 혹은 휴직 중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는 직장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혹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대리보호가 각 40.6% 3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Ⅵ-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이유

단위: %(명)

구 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 없음	양육 부담감	비용부담 적어서[1]	기타	계(수)
전체	40.1	2.3	1.1	22.0	16.1	2.0	13.4	1.7	1.4	100.0 (1,464)
영유아 구분										
영아	8.7	0.3	0.8	24.5	3.6	2.7	16.7	1.2	1.5	100.0 (847)
유아	1.6	4.6	1.4	19.2	19.0	1.2	9.5	2.2	1.3	100.0 (617)
보육연령										
0세	25.3	-	-	36.9	8.8	2.3	23.9	0.3	2.6	100.0 (140)
1세	37.4	0.3	1.0	23.2	16.4	2.9	15.8	0.8	2.4	100.0 (330)
2세	42.9	0.3	0.8	22.6	12.6	2.6	15.8	1.8	0.6	100.0 (377)
3세	42.5	0.9	1.0	20.6	18.5	2.5	10.0	2.9	1.2	100.0 (238)
4세	42.2	1.7	2.1	20.8	21.6	-	9.2	1.2	1.2	100.0 (195)

구 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리보호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친구 없음	양육 부담감	비용부담 적어서[1]	기타	계(수)
5세	40.1	11.8	1.1	16.0	16.8	0.9	9.3	2.4	1.6	100.0 (184)
지역규모										
대도시	41.2	3.0	1.8	19.6	5.8	1.6	13.0	0.9	2.2	100.0 (631)
중소도시	39.1	0.9	0.8	26.1	17.0	1.7	12.5	1.3	0.6	100.0 (578)
읍면지역	40.1	4.0	–	17.4	14.4	3.7	16.5	2.1	1.9	100.0 (255)
모취업 여부										
취업	33.5	3.2	1.0	37.1	12.8	1.1	8.1	2.1	1.2	100.0 (673)
휴직	42.8	0.4	2.0	22.8	14.2	1.6	14.8	–	1.4	100.0 (133)
미취업	46.7	1.7	0.9	5.2	20.3	3.1	18.8	1.6	1.7	100.0 (643)
모부재 등	51.4	–	–	12.5	13.0	–	23.1	–	–	100.0 (15)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6.1	3.2	0.7	20.1	11.0	0.8	13.0	3.4	1.7	100.0 (390)
사회복지법인	29.8	2.3	2.5	18.2	23.0	–	20.2	2.7	1.2	100.0 (107)
법인·단체등	33.3	6.5	–	20.4	25.3	–	11.1	3.5	–	100.0 (58)
민간	42.9	2.1	0.9	19.5	17.4	2.3	13.4	0.3	1.2	100.0 (650)
가정	26.8	0.3	2.3	32.2	18.3	5.5	12.2	1.1	1.4	100.0 (200)
직장	25.5	–	–	40.6	11.0	1.0	14.9	3.4	3.7	100.0 (55)
협동	43.0	–	–	24.1	32.9	–	–	–	–	100.0 (4)
2018년 조사	27.6	1.5	1.0	23.1	27.4	2.7	14.1	2.6	0.2	100.0 (1,753)
2015년 조사	33.4	2.3	1.1	20.3	27.1	3.8	2.0	2.4	7.5	100.0 (1,745)
2012년 조사	22.2	4.4	0.5	18.0	32.4	5.2	14.3	2.5	0.4	100.0 (1,536)
2009년 조사	28.5	4.5	0.9	29.0	29.0	7.7	–	–	0.4	100.0 (1,343)

주: 1) 2018년 이하 조사에서 해당 항목은 보육료 교육비 전액 지원이었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73-274. 〈표 Ⅵ-1-3〉.

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어린이집 선택시 고려사항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주변의 평판(12.7%), 프로그램(10.1%), 교사(9.6%)순이었다. 2012년 조사 이후 집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많고, 기관 실내/외 환경이 15.6%로 다

음을 차지했다.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장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비중이 16.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국공립 여부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1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Ⅵ-1-3〉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 사항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년	2015년	2012년
원장	6.6	10.3	5.4	7.8	16.3	12.2	7.4	8.8	9.6	11.7	9.9
교사	6.8	16.7	11.2	10.4	11.4	3.0	-	9.6	10.9	10.7	7.9
운영시간	1.9	-	1.0	3.6	3.1	17.1	-	3.2	3.8	4.3	3.0
비용	1.3	1.2	1.5	0.4	-	3.4	-	0.8	2.5	2.5	2.9
프로그램	4.4	8.4	9.6	15.4	5.7	3.4	68.4	10.1	7.8	11.0	14.1
건강/영양	1.9	-	4.4	1.6	1.9	3.3	-	1.8	1.8	2.7	3.0
기관 학급 규모	1.5	4.4	4.8	0.4	-	2.3	-	1.1	1.4	2.3	0.9
기관 실내/외 환경	3.1	1.7	14.0	5.0	4.7	15.6	-	4.9	2.5	4.5	3.1
안전한 보호	1.8	2.0	1.9	1.6	2.4	5.7	-	1.9	1.3	1.9	3.3
집과의 거리	33.7	36.1	22.8	34.2	35.6	6.2	24.1	32.9	30.1	27.3	29.5
기관 시설/설비	1.1	3.6	-	0.3	0.5	1.3	-	0.8	2.4	1.7	1.3
국공립 여부	19.1	-	-	0.1	-	2.1	-	5.7	6.3	3.4	4.4
주변의 평판	13.4	10.0	3.1	13.2	14.4	9.5	-	12.7	12.7	10.5	10.4
주변환경	-	1.4	-	0.3	0.6	4.0	-	0.4	1.5	1.5	0.7
평가 결과	0.9	1.4	-	1.7	-	1.9	-	1.2	0.9	0.8	0.9
차량운행 여부	0.2	0.5	-	0.6	0.6	-	-	0.4	0.5	0.6	1.3
형제 재원 여부	1.1	2.3	11.1	2.3	0.3	3.0	-	2.1	2.7	1.3	2.6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1.0	-	4.0	0.4	1.2	-	-	0.8	0.4	0.4	-
기타	0.3	-	5.0	0.6	1.3	5.9	-	0.9	0.8	0.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1,464)	(1,753)	(1,745)	(1,535)
$x^2(df)$	456.3(10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274-275. 〈표 Ⅵ-1-4〉.
*** $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 중단 경험 및 중단 사유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1%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영아인 경우는 3.3%만이 중단경험이 있었으나 유아는 56.0%가 중단경험이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중단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는 63.1%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의 경우 중단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다니기를 중단한 사유를 보면, '다른 기관에 보내려고'가 78.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유아의 경우 81.0%로 더 올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영아의 경우는 다른 기관을 보내려는 이유(39.5%) 외에도 어린이집과의 조건이 안맞아서(23.0%),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14.8%) 등 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표 Ⅵ-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중단 여부 및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집과의 조건 안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전체	30.1 (3,775)	5.5	4.3	6.3	0.3	2.0	78.7	1.2	0.6	1.1	100.0(1,047)
영유아 구분											
영아	3.3 (1,911)	11.2	14.8	23.0	–	6.9	39.5	2.2	0.6	1.9	100.0(60)
유아	56.0 (1,864)	5.2	3.7	5.3	0.3	1.8	81.0	1.1	0.6	1.0	100.0(987)
$x^2(df)$	1245.7(1)***	70.2(8)***									
보육연령											
0세	0.3 (803)	56.1	–	25.0	–	–	–	–	18.9	–	100.0(3)
1세	2.5 (540)	–	26.3	29.1	–	2.6	32.3	9.7	–	–	100.0(13)
2세	8.1 (568)	12.5	12.0	21.1	–	8.5	43.4	–	–	2.5	100.0(44)
3세	43.9 (650)	4.1	4.0	5.2	0.2	3.8	79.4	1.0	0.8	1.5	100.0(276)
4세	60.6 (549)	6.5	3.6	7.6	0.4	0.9	77.8	2.2	0.1	0.9	100.0(314)
5세	63.1 (665)	4.9	3.5	3.7	0.4	1.1	84.3	0.4	0.9	0.8	100.0(397)
$x^2(df)$	1321.9(5)***	136.4(40)***									
모취업 여부											
취업	37.4 (1,588)	6.6	3.3	7.7	0.1	2.0	78.3	0.9	0.2	0.9	100.0(549)
휴직중	14.4 (270)	8.5	4.0	13.5	–	–	63.6	2.4	3.7	4.3	100.0(40)
미취업	25.9 (1,880)	3.8	5.7	3.8	0.6	2.3	80.6	1.3	0.9	1.0	100.0(443)
모부재 등	48.0 (37)	11.9	–	15.2	–	–	69.9	3.0	–	–	100.0(15)
$x^2(df)$	92.0(3)***	38.3(24)**									

구분	중단 여부	중단 사유									
	있다 (수)	어린이 집관련 불만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어린이 집과의 조건 안맞음	비용 부담	기관 폐원 및 이사	다른 기관 보내려고	집에서 양육 하려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	기타	계(수)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5 (417)	18.9	3.9	30.7	1.3	3.1	39.4	1.4	-	1.3	100.0(38)
사회복지법인	10.5 (90)	-	-	13.7	-	25.8	60.5	-	-	-	100.0(8)
법인·단체등	13.2 (96)	26.4	-	28.6	-	14.8	16.4	-	-	13.8	100.0(8)
민간	9.2 (874)	10.1	8.1	21.0	-	6.8	52.0	0.5	0.9	0.5	100.0(74)
가정	3.7 (221)	14.5	-	20.8	-	25.0	27.3	-	-	12.5	100.0(8)
직장	22.6 (55)	9.2	-	3.5	-	-	76.0	11.2	-	-	100.0(10)
$x^2(df)$	23.2(5)***					48.4(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다. 어린이집 이용 시기 및 기간

1)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평균 25.2개월 때 부터로 응답되었다. 2018년 조사에서는 22.3개월부터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응답된 반면, 2015년 조사에서는 26.5개월부터라고 응답되어 예년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7.2개월로 높은 월령을 보였으며, 협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35.6개월로 상당히 높은 연령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관측치가 4개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중소도시 거주 아동의 이용 시작 월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특별히 시작 월령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Ⅵ-1-5〉 현재 이용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

단위: 개월,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7.2	14.3	(390)	27.1	14.8	(107)	23.7	11.1	(58)	26.5	13.6	(650)
영유아구분												
영아	19.7	7.3	(200)	18.2	7.2	(52)	19.1	6.7	(30)	19.9	8.3	(350)
유아	34.6	15.7	(190)	33.2	15.5	(55)	27.9	12.6	(28)	32.7	14.7	(300)
t		−12.4***			−6.7***			−3.3**			−14.8***	
지역규모												
대도시	27.3	13.5	(203)	29.3	14.5	(31)	26.5	11.4	(18)	26.9	13.6	(281)
중소 도시	29.0	16.0	(118)	26.9	15.6	(48)	24.0	10.9	(28)	26.2	13.0	(263)
읍·면	23.0	12.3	(69)	25.7	13.5	(28)	18.1	8.8	(12)	26.8	15.1	(106)
F		3.8*			1.4			3.0			0.2	
모취업여부												
취업	25.1	13.9	(197)	27.2	16.7	(45)	22.3	10.4	(30)	26.0	14.4	(275)
휴직중	24.9	10.2	(45)	24.7	9.0	(8)	21.3	8.2	(7)	23.7	12.5	(56)
미취업	30.9	15.7	(140)	27.7	13.6	(52)	27.2	12.3	(20)	27.6	13.0	(315)
모부재	33.1	8.5	(8)	22.8	11.4	(2)	17.0	–	(1)	23.5	4.9	(4)
F		2.4			–			0.6			0.7	
2018년	23.6	12.0	(417)	24.2	11.7	(90)	25.9	12.9	(96)	22.8	11.2	(874)
2015년	31.2	14.3	(250)	29.9	13.8	(141)	27.1	12.2	(95)	27.2	12.9	(959)

구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6.5	7.5	(200)	22.8	11.4	(55)	35.6	14.6	(4)	25.2	13.6	(1,464)
영유아구분												
영아	15.9	6.5	(193)	20.2	7.3	(21)	18.0	–	(1)	18.8	7.7	(847)
유아	28.5	13.0	(7)	24.0	12.6	(34)	37.0	14.3	(3)	32.7	15.1	(617)
t		−5.6***			−1.8			−0.8			−23.9***	
지역규모												
대도시	16.4	6.5	(68)	21.1	8.9	(28)	14.2	2.1	(2)	25.8	13.3	(631)
중소 도시	17.1	8.0	(100)	26.3	14.4	(20)	45.0	–	(1)	25.3	13.8	(578)
읍·면	14.6	6.9	(32)	20.0	8.1	(7)	46.0	–	(1)	23.8	13.8	(255)
F		2.7			2.0			36.0			2.6	
모취업여부												
취업	14.8	7.7	(91)	19.8	8.9	(33)	32.0	16.3	(2)	23.9	13.8	(673)
휴직중	16.2	8.1	(13)	34.1	20.1	(4)	–	–	–	23.8	11.4	(133)
미취업	18.2	6.8	(96)	28.4	11.8	(18)	40.3	10.2	(2)	27.1	13.6	(643)
모부재	–	–	–	–	–	–	–	–	–	27.6	9.4	(15)
F		4.5*			4.2*			–			3.3*	
2018년	16.9	8.1	(221)	21.5	9.2	(55)	–	–	–	22.3	11.3	(1,753)
2015년	17.9	8.9	(268)	28.6	14.3	(30)	–	–	–	26.5	13.2	(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279. 〈표 Ⅵ-1-7〉.

* $p < .05$, ** $p < .01$, *** $p < .001$.

2) 현재 이용 어린이집 재원기간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재원 기간은 평균 19.1개월로, 2015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 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짧았다.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27.4개월로 가장 길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22.6개월로 다음이었다. 영아의 경우 재원 기간이 전반적으로 유아에 비해 15개월 가량 짧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영아 자녀의 연령이 아직 어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경우 평균 재원 기간이 27.5개월로, 2년 이상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35.1개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8.4개월 법인·단체등어린이집 32.2개월 등으로 재원 기간이 긴 편에 속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 재원 기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재원 기간이 21.3개월로 미취업모인 경우 16.6개월에 비해서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1-6〉 현재 이용 어린이집 이용 지속기간

단위: 개월,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9.1	13.9	(390)	22.6	14.9	(107)	21.1	17.9	(58)	19.8	14.3	(650)
영유아구분												
영아	12.0	8.2	(200)	14.0	8.2	(52)	9.3	6.7	(30)	11.7	8.7	(350)
유아	26.2	14.7	(190)	28.4	15.6	(55)	32.2	18.0	(28)	27.3	14.4	(300)
t		−12.4***			−6.3***			−6.8***			−16.9***	
지역규모												
대도시	19.2	14.3	(203)	19.2	14.3	(31)	20.6	15.9	(18)	18.3	13.7	(281)
중소 도시	17.3	13.1	(118)	21.4	14.0	(48)	17.0	15.2	(28)	21.1	15.0	(263)
읍·면	22.7	13.2	(69)	27.3	15.6	(28)	33.2	21.7	(12)	19.5	13.6	(106)
F		1.8			0.5			1.3			2.0	
모취업여부												
취업	21.2	14.3	(197)	23.6	16.4	(45)	25.8	19.7	(30)	22.2	14.9	(275)
휴직중	18.6	15.1	(45)	19.8	15.6	(8)	15.0	11.5	(7)	21.2	15.1	(56)
미취업	16.1	12.0	(140)	21.1	12.5	(52)	15.6	13.5	(20)	17.3	13.3	(315)
모부재	23.4	11.7	(8)	45.7	4.9	(2)	1.0	-	(1)	18.6	9.4	(4)
F		2.8*			2.0			1.9			3.6*	
2018년	24.5	16.3	(417)	24.2	17.2	(90)	22.4	15.8	(96)	22.5	15.7	(874)
2015년	20.2	15.6	(250)	19.5	14.2	(141)	21.0	12.6	(95)	17.4	13.4	(959)

구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2.4	9.1	(200)	27.4	17.3	(55)	18.7	12.0	(4)	19.1	14.2	(1,464)
영유아구분												
영아	11.8	8.3	(193)	10.8	6.3	(21)	3.0	–	(1)	11.8	8.4	(847)
유아	24.0	15.3	(7)	35.1	15.3	(34)	20.0	11.6	(3)	27.5	15.0	(617)
t		−3.7***			−6.7***			−1.1			−26.4***	
지역규모												
대도시	11.3	8.8	(68)	28.0	16.9	(28)	25.9	12.7	(2)	18.6	14.1	(631)
중소 도시	12.4	8.5	(100)	23.3	17.1	(20)	25.0	–	(1)	18.7	14.0	(578)
읍·면	14.3	11.2	(32)	35.1	16.5	(7)	5.0	–	(1)	21.3	14.8	(255)
F		1.3			0.3			0.2			2.8	
모취업여부												
취업	14.2	9.6	(91)	27.6	17.2	(33)	16.9	13.8	(2)	21.3	14.9	(673)
휴직중	10.4	7.9	(13)	6.6	0.9	(4)	–	–	(0)	18.8	14.8	(133)
미취업	10.8	8.3	(96)	30.1	16.9	(18)	21.2	8.3	(2)	16.6	12.8	(643)
모부재	–	–	(0)	–	–	(0)	–	–	(0)	23.9	14.0	(15)
F		3.8*			3.1			0.1			9.5***	
2018년	13.3	10.3	(221)	25.4	14.4	(55)				21.8	15.6	(1,753)
2015년	12.1	8.9	(268)	24.7	15.2	(30)				17.3	13.4	(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280. 〈표 Ⅵ-1-8〉.
* $p < .05$, *** $p < .001$.

라. 어린이집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99%이상이며,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0.3%, 일요일 0.2%였다.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는 평균 5일이었다.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은 영아의 경우 0.6%로 유아에 비해 높고, 일요일에 이용하는 경우도 2세 영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1-7〉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요일

단위: %, (명), 일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월요일	99.8	99.6	99.2	99.7	100.0	99.3	100.0	99.5	99.7
화요일	99.7	99.9	100.0	99.3	100.0	100.0	100.0	99.7	99.8
수요일	99.7	99.0	99.2	99.6	100.0	98.4	98.8	100.0	99.4
목요일	99.8	99.5	99.2	99.7	100.0	99.3	99.2	100.0	99.7
금요일	99.3	99.4	99.1	99.5	99.1	100.0	99.2	98.8	99.3
토요일	0.6	0.1	0.5	0.8	0.4	0.3	-	-	0.3
일요일	0.3	-	-	-	0.6	-	-	-	0.2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5.0	5.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이용 시간

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6)]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8:31~9:00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9:01~9:30이 29.9%였다. 영유아 여부 및 연령에 따라 경향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유아의 경우 7:31~8:00에 등원한다는 응답이 6.0%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세 유아 중 이 시간대에 등원하는 유아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어린이집 등원 시각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의미하므로 이해에 유의가 필요하다. 즉, 어린이집에 오전 7시30분에 도착한다는 것은 집을 나서는 시각은 그 이전임을 추측해야 하고 가장 많은 영유아가 9시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으로 보아 다수가 8시 대에 집을 출발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2015년도 조사에서는 등원 시각을 '(기관 이용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 하원 시간을 '(기관이용을 마치고)집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2018년 조사에서 등·하원 시각과 직접적 비교가 불가하므로 제시하지 않음.

〈표 Ⅵ-1-8〉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각)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0.7	0.5	0.5	0.4	0.9	0.4	0.8	0.4	0.6	1.6
7:31~8:00	2.3	6.0	1.6	2.0	2.8	9.0	4.5	4.1	4.0	3.5
8:01~8:30	11.1	9.4	12.7	13.2	9.1	7.3	12.1	9.2	10.3	13.7
8:31~9:00	40.1	40.7	45.3	40.1	38.8	44.7	40.2	36.7	40.4	38.5
9:01~9:30	29.8	30.1	27.1	27.2	32.5	26.8	27.8	36.1	29.9	31.2
9:31~10:00	14.9	12.8	10.6	15.5	15.4	11.8	13.2	13.6	13.9	11.0
10:01이후	1.1	0.5	2.1	1.7	0.5	–	1.5	–	0.8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1,753)
$x^2(df)$	12.6(6)*		41.8(3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등원 시각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8:31~9:00에 등원하는 비중이 48.6%였으며, 7:31~8:00에 등원한다는 응답이 17.5%, 8:01~8:30에 등원하는 비중이 16.5%로 9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9:01~9:30에 등원한다는 비중이 각각 29.5%, 30.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9:01~9:30에 등원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모인 경우 등원 시각이 미취업모에 비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취업모와 휴직자인 경우 9:01~9:30에 등원하는 비중이 각 35.5%, 40.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취업모인 경우 8:31~9:00에 등원한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다.

〈표 Ⅵ-1-9〉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원 시각(어린이집 도착 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7:30까지	0.7	0.8		0.2	0.5	5.2	-	0.6	0.2	1.7	1.2	-	-	-
7:31~8:00	3.2	5.6	1.4	3.5	4.3	17.5	-	4.2	3.5	4.9	6.4	0.6	1.8	23.3
8:01~8:30	11.5	12.8	12.4	9.0	9.4	16.5	-	8.5	11.3	12.1	15.4	5.1	5.6	20.9
8:31~9:00	38.9	52.8	38.6	40.0	35.9	48.6	100.0	37.5	40.4	46.7	44.3	30.1	38.5	19.7
9:01~9:30	34.6	16.8	30.0	30.4	29.5	10.6	-	33.5	29.7	22.4	23.1	40.7	35.5	19.7
9:31~10:00	9.5	9.5	15.9	16.5	20.0	1.7	-	15.0	13.9	11.6	9.6	20.4	17.5	12.5
10:01이후	1.6	1.7	1.7	0.4	0.3	-	-	0.7	1.1	0.5	-	3.0	1.2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97.4(36)***							29.2(12)**			164.3(1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하원 시각은 15:01~16:00가 4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6:01~17:00가 25.9%로 많았다. 영아의 경우에는 15:01~16:00에 하원한다는 응답이 50.8%로 유아 46.0%에 비해 높았으며, 14:00이전에 하원하는 비중도 2.9%로 유아에 비해 높았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하원 시각이 빠른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Ⅵ-1-10〉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어린이집 출발 시각)

단위: %,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2.9	0.5	10.2	1.8	2.0	1.3	-	-	1.8	1.5
14:01~15:00	4.0	5.3	10.3	2.7	3.5	2.3	6.7	7.3	4.6	5.5
15:01~16:00	50.8	46.0	43.2	52.8	51.0	45.1	41.7	51.5	48.6	39.6
16:01~17:00	23.8	28.3	21.4	23.8	24.4	29.5	29.9	25.3	25.9	34.0
17:01~17:30	7.5	6.4	4.3	8.3	7.6	7.7	5.5	5.9	7.0	7.3
17:31~18:00	5.2	7.2	2.5	5.0	6.0	8.3	8.7	4.3	6.1	5.6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8:01~19:00	4.9	5.1	8.1	5.2	4.0	4.4	6.1	4.8	5.0	5.7
19:01 이후	1.0	1.2	-	0.5	1.6	1.4	1.3	0.8	1.1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1,753)
$x^2(df)$	29.2(7)***		136.6(3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52.9%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직장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 시각대에 하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17:31~18:00에 하원한다는 비중이 26.4%로 높게 나타나,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춰 등하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자의 경우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52.6%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모의 경우에는 15:01~16:00에 하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미취업모나 모가 휴직중인 경우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다. 반면, 취업모의 경우 16:01~17:00에에 하원하는 비중이 31.3%로 매우 높고, 17:31~18:00에 하원하는 비중이 10.7%, 18:01~19:00 하원 비중이 8.8%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Ⅵ-1-11〉 제 특성별 이용 영유아의 하원 시각(어린이집 출발 시각)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14:00까지	2.8	-	0.8	0.8	3.9	1.0	-	2.9	1.3	0.4	0.4	8.6	1.7	3.9
14:01~15:00	4.6	3.9	5.2	5.3	3.5	-	-	5.9	4.6	1.9	2.8	5.0	6.6	-
15:01~16:00	52.9	43.1	37.2	49.6	47.8	22.7	43.0	52.6	47.0	43.3	35.3	64.4	60.2	39.4
16:01~17:00	24.3	41.2	32.7	25.3	25.3	17.6	32.9	21.7	28.0	30.2	31.3	17.4	22.0	14.1
17:01~17:30	4.4	7.7	20.4	7.0	5.7	18.8	-	7.1	7.5	5.4	8.8	4.1	5.6	-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			모취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17:31~18:00	5.5	2.6	3.7	5.9	5.1	26.4	-	4.3	4.9	13.2	10.7	0.5	2.1	12.5
18:01~19:00	4.3	1.4	-	4.5	8.6	13.6	24.1	4.1	5.7	5.4	8.8	-	1.6	15.9
19:01 이후	1.2	-	-	1.6	-	-	-	1.5	1.0	0.3	1.9	-	0.2	1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101.2(42)***							47.8(14)***			265.3(2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영유아 전체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12분(표준편차 1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시간 7분이며, 유아의 이용 시간은 7시간 19분으로 영유아간 12분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6시간 46분으로 가장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세와 2세는 각각 평균 7시간 6분과 7시간 11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세와 4세는 각각 7시간 27분과 7시간 22분으로 가장 긴 이용 시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

〈표 Ⅵ-1-12〉 연령 및 영유아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단위: %, (명), 시간: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3.2	0.8	10.6	1.8	2.6	1.3	-	1.0	2.1	2.6
5~6시간	21.0	17.3	20.0	23.6	19.1	14.5	18.3	19.4	19.3	15.5
6~7시간	38.5	40.0	35.3	36.3	40.9	38.8	40.5	41.0	39.2	33.6
7~8시간	19.2	19.7	18.9	19.2	19.2	20.2	16.5	22.5	19.4	25.8
8~9시간	10.2	12.3	5.9	11.5	10.2	13.5	14.9	8.1	11.2	13.4
9~10시간	5.4	7.5	6.8	4.3	5.8	8.7	7.4	6.2	6.4	6.1
10시간 이상	2.6	2.4	2.6	3.3	2.1	3.0	2.4	1.7	2.5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1,753)
$x^2(df)$	26.0(6)***		108.5(30)***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평균 (시간:분)	7:07	7:19	6:46	7:09	7:11	7:27	7:22	7:06	7:12	7:24
표준편차 (시간:분)	1:25	1:18	1:48	1:24	1:18	1:19	1:20	1:12	1:22	1:18
F	2.6*		1.8							
2018년 평균(시간:분)	7:12	7:30	7:30	7:06	7:16	7:24	7:42	7:24	7:24	
표준편차 (시간:분)	1:16	1:16	1:42	1:18	1:18	1:12	1:24	1:18	1:1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 286. 〈표 Ⅵ-1-15〉.
* $p < .05$, *** $p < .001$.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평균 이용 시간이 8시간 32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1시간이상 길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평균 7시간 1분으로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30분가량 짧았다. 한편,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인 경우 7시간 45분을 이용하는 반면,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6시간 47분, 휴직중인 경우 6시간1 9분으로, 취업모가 1시간가량 길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이용 시간이 약간씩 짧아진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용 시간이 평균 17분 감소하여 감소폭이 큰 편에 속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대도시 지역이 더 높았던 것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표 Ⅵ-1-13〉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재
5시간까지	3.3	–	1.7	1.1	3.9	1.0	–	2.9	2.1	0.4	0.4	8.5	2.5	3.9
5~6시간	22.6	16.1	13.1	18.9	21.4	1.7	–	24.8	16.4	13.9	11.5	30.4	25.9	–
6~7시간	39.0	29.2	39.1	43.3	33.8	23.2	43.0	40.4	40.3	33.6	28.9	48.2	48.8	39.4
7~8시간	17.0	33.9	28.0	17.7	24.0	10.8	32.9	15.8	20.5	25.1	26.5	8.9	13.9	12.5
8~9시간	10.1	18.6	14.5	10.6	7.4	28.4	–	8.1	11.9	16.4	17.4	3.6	5.8	14.1
9~10시간	5.7	1.3	3.7	5.9	6.6	24.9	24.1	4.4	6.8	9.5	11.3	0.5	2.0	6.9
10시간 이상	2.2	0.8	–	2.5	2.9	10.1	–	3.7	1.9	1.2	3.9	–	1.1	23.3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97.9(36)***							53.6(12)***			314.6(18)***			
평균 (시간:분)	7:03	7:20	7:14	7:12	7:08	8:32	7:34	7:01	7:15	7:32	7:45	6:19	6:47	8:19
표준편차 (시간:분)	1:22	1:02	1:09	1:20	1:28	1:21	1:07	1:26	1:19	1:15	1:20	1:14	1:07	2:20
F	8.0***							8.0***			42.3***			
2018년 평균	7:30	7:42	7:30	7:12	7:12	8:30	-	7:18	7:18	7:42	7:48	6:54	6:54	8:18
표준편차	1:24	1:12	1:24	1:12	1:24	1:24	-	1:24	1:18	1:12	1:24	1:12	1:00	:1:0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자료: 이정원 외(2018). p.287. 〈표 Ⅵ-1-16〉.
*** $p < .001$.

다) 기관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시작 시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3.6%였으며, 끝나는 시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87.2%였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모두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작 시각이 너무 늦다는 의견은 4.2%, 너무 이르다는 의견은 1.7%였으며, 끝나는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은 10.9%, 너무 늦다는 의견은 1.1%였다.

영아의 경우 유아에 비해 시작 시각이 늦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고, 끝나는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 비중이 약간 더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작 시각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낮은 편이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끝나는 시각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모가 휴직 중인 경우에 어린이집 시작 시각이 너무 늦다는 응답 비중이 7.1%였으며, 끝나는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응답도 19.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시작 시각이 너무 늦다는 응답이 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보였던 직장어린이집 이용 경우에는 시작 시각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100.0%, 끝나는 시각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6.3%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Ⅵ-1-14〉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 시간 관련 의견

단위: %, (명)

구분	시작 시각					끝나는 시각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x^2(df)$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x^2(df)$	
전체	93.6	1.7	4.2	0.4		87.2	10.9	1.1	0.9		100.0(1,464)
영유아구분											
영아	92.7	1.7	5.0	0.6	2.3(3)	85.6	11.9	1.4	1.1	3.4(3)	100.0(847)
유아	94.7	1.7	3.4	0.3		89.0	9.7	0.8	0.6		100.0(617)
연령											
0세	90.7	1.0	6.6	1.7		84.9	10.1	3.3	1.7		100.0(140)
1세	93.6	1.7	4.7	-		87.6	10.2	1.6	0.7		100.0(330)
2세	92.3	2.0	4.9	0.8	9.6(15)	84.1	13.8	0.7	1.4	9.3(15)	100.0(377)
3세	94.0	2.4	3.6	-		88.7	9.4	1.1	0.8		100.0(238)
4세	95.0	0.8	4.1	-		89.0	10.6	0.4	-		100.0(195)
5세	95.2	1.6	2.3	0.9		89.2	9.0	0.8	0.9		100.0(184)
지역규모											
대도시	94.9	1.8	3.3	-		88.5	10.5	1.0	-		100.0(631)
중소도시	93.2	1.2	4.6	1.0	13.3(6)*	84.8	12.3	0.9	2.0	17.6(6)**	100.0(578)
읍·면	91.7	2.8	5.4	-		89.9	8.3	1.8	-		100.0(255)
모취업 여부											
취업	93.3	2.0	4.0	0.7		87.3	10.9	1.1	0.7		100.0(673)
휴직중	89.6	1.8	7.1	1.4	6.7(9)	74.8	19.9	0.7	4.6	19.1(9)*	100.0(133)
미취업	94.9	1.4	3.8	-		89.7	8.9	1.1	0.3		100.0(643)
부재 등	90.5	-	9.5	-		88.4	11.6	-	-		100.0(1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2.8	2.5	3.8	0.9		88.1	10.1	0.9	0.9		100.0(390)
사회복지법인	97.8	-	2.2	-		91.5	7.3	1.2	-		100.0(107)
법인·단체등	94.8	2.8	1.1	1.3		93.7	5.0	-	1.3		100.0(58)
민간	94.1	1.5	4.2	0.3	23.7(18)	85.3	12.7	0.8	1.3	17.0(18)	100.0(650)
가정	89.9	1.7	8.4	-		85.0	12.3	2.7	-		100.0(200)
직장	100.0	-	-	-		96.3	2.5	1.2	-		100.0(55)
협동	100.0	-	-	-		100.0	-	-	-		100.0(4)
2018년	92.3	3.4	4.4	-		84.7	14.9	0.4	-		100.0(1,753)
2015년	94.3	2.1	3.5	0.1		87.8	10.9	1.0	0.3		100.0(1,745)
2012년	83.9	3.9	12.2	-		65.2	32.4	2.5	-		100.0(1,53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296-297. 〈표 Ⅵ-1-23〉.
* $p < .05$, ** $p < .01$.

라) 어린이집 이용 희망 시간

어린이집 희망 등원 시각은 실제 등원 시각과 마찬가지로 8:31~9:00인 경우가 5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31~8:00에 등원하고 싶다는 의견이 13.1%였다. 영유아 여부 및 연령에 따라 희망하는 등원 시각이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Ⅵ-1-15〉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7:30까지	3.6	3.4	5.3	5.0	2.2	3.6	4.2	2.4	3.5
7:31~8:00	13.1	14.8	10.8	13.5	13.4	16.3	13.2	14.9	13.9
8:01~8:30	8.0	8.5	14.3	6.8	7.5	5.5	12.5	7.8	8.2
8:31~9:00	53.2	51.4	51.9	50.8	55.5	56.6	48.4	48.5	52.4
9:01~9:30	11.5	13.2	11.5	13.8	9.8	10.3	13.3	16.4	12.3
9:31~10:00	9.5	8.1	5.4	10.0	10.1	7.7	6.8	10.1	8.9
10:01이후	1.0	0.5	0.8	0.1	1.6	-	1.6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x^2(df)$	3.9(6)		43.1(30)						
평균	8:57	8:56	8:51	8:55	9:00	8:52	8:58	8:57	8:56
2018년	8:48	8:48	8:36	8:48	8:48	8:48	8:42	8:42	8:4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299. 〈표 Ⅵ-1-25〉.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9:01~9:30에 등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5.2%, 9:31~10:00 등원하고 싶다는 응답이 8.3%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7:31~8:00에 등원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47.1%로 매우 높다는 점으로, 이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한 희망사항으로 보여진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오히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늦은 등원 시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들은 다른 7:31~8:00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20.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Ⅵ-1-16〉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등원 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7:30까지	5.5	1.6	1.1	2.6	2.9	7.7	–	3.6	2.7	5.5	5.7	0.6	1.6	14.2
7:31~8:00	12.0	15.9	11.6	11.7	16.7	47.1	24.1	11.5	15.3	16.0	20.8	15.1	6.1	6.1
8:01~8:30	7.1	12.9	9.9	8.0	9.2	9.0	–	4.3	10.8	10.5	11.3	3.7	5.7	15.9
8:31~9:00	49.9	55.6	67.4	54.8	48.1	33.3	75.9	54.4	51.7	49.4	46.7	53.7	58.5	51.2
9:01~9:30	15.2	8.0	4.2	12.6	11.8	2.8	–	15.3	11.5	7.7	8.8	11.9	16.6	–
9:31~10:00	8.3	5.9	4.0	10.2	10.9	–	–	10.1	7.7	8.9	5.6	14.0	11.4	12.5
10:01이후	2.0	–	1.8	0.1	0.4	–	–	0.8	0.2	2.1	1.2	1.1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81.7(36)***							38.0(12)***			161.3(18)***			
평균	9:00	8:50	8:57	8:58	8:55	8:22	8:46	8:59	8:53	8:58	8:48	9:02	9:05	8:4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한편, 어린이집 희망 하원 시각은 15:01~16:00시가 3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31~17:00가 20.6%이었다. 희망 하원 시각 또한 등원 시각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여부 및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Ⅵ-1-17〉 연령 및 영유아 여부별 희망 하원 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14:00까지	1.2	1.0	1.8	0.9	1.3	1.5	0.3	1.0	1.1
14:01~15:00	1.0	2.0	2.1	0.8	0.9	1.1	2.4	2.8	1.5
15:01~16:00	34.2	31.1	35.2	36.1	32.6	28.2	32.5	33.0	32.8
16:01~16:30	8.8	10.0	8.8	9.2	8.5	10.4	9.4	10.3	9.4
16:31~17:00	20.2	21.1	23.9	16.7	22.1	24.3	20.7	17.8	20.6
17:01~17:30	4.3	4.5	2.6	6.1	3.4	4.0	5.7	4.0	4.4
17:31~18:00	15.0	11.9	7.8	15.2	16.5	12.1	8.8	14.9	13.6
18:00~19:00	11.5	12.4	12.3	11.9	11.0	11.3	13.9	12.0	11.9
19:00~19:30	1.4	2.2	2.1	1.2	1.4	2.5	3.2	0.8	1.8
19:31이후	2.4	3.7	3.5	2.1	2.4	4.5	3.2	3.3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x^2(df)$	7.1(9)		53.2(45)						
평균	17:02	17:05	16:59	17:01	17:03	17:08	17:05	17:00	17:0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15:01~16:00에 하원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31~17:00에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18:00~19:00에 하원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6:31~17:00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22.7%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17:31~18:00에 하원을 희망 비중이 18.8%, 18:00~19:00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1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취업모들은 17:31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중이 미취업모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Ⅵ-1-18〉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하원 시각

단위: %, (명), 시: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 중	미취업	모 부재
14:00까지	1.9	-	-	0.3	2.9	-	-	0.9	1.6	0.4	0.1	4.2	1.5	-
14:01~15:00	0.9	1.0	-	2.2	1.2	-	-	2.6	0.8	0.5	0.5	2.6	2.3	-
15:01~16:00	35.8	29.5	27.0	34.1	31.5	9.7	7.4	35.8	30.8	31.1	22.5	34.2	44.2	25.5
16:01~16:30	11.6	12.4	11.3	8.3	7.1	2.8	35.5	11.1	7.9	9.2	7.1	7.2	12.3	11.6
16:31~17:00	16.1	30.9	23.8	22.9	19.2	12.8	32.9	21.4	20.8	18.4	18.4	28.6	21.5	14.1
17:01~17:30	3.9	1.2	3.4	4.6	5.0	11.7	-	3.6	5.4	3.7	5.9	3.4	3.0	6.1
17:31~18:00	12.3	11.8	13.7	13.8	15.0	19.7	-	11.0	13.8	18.8	17.6	10.1	10.0	-
18:00~19:00	13.7	11.8	18.8	8.7	14.6	22.7	-	8.0	14.5	14.2	19.1	9.7	3.9	28.4
19:00~19:30	2.0	-	1.0	0.8	1.6	14.0	24.1	1.9	1.4	2.3	3.5	-	0.3	-
19:31이후	1.8	1.4	1.1	4.2	1.9	6.5	-	3.6	3.1	1.3	5.3	-	0.9	1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103.1(54)***							45.9(18)***			216.1(27)***			
평균	16:57	17:00	17:12	17:01	17:04	18:07	17:21	16:54	17:08	17:09	17:31	16:41	16:35	17:4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평균 8시간6분으로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 7시간12분에 비해 54분가량 길게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 이용 시

간은 6~7시간이 29.4%, 7~8시간이 24.4%, 8~9시간이 14.7% 순이었다. 영유아 여부에 따라 희망 이용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3세의 경우 7~8시간 이용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29.6%로 다른 연령과 다르게 가장 비중이 높은 이용 시간 구간이었다. 한편, 2018년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8시간30분으로, 2021년 조사 결과에서는 2018년에 비해서는 약 24분가량 짧은 이용 시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1-19〉 영유아 여부 및 연령별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1.2	1.4	2.6	-	1.8	1.5	1.5	1.0	1.3
5~6시간	8.4	8.2	4.3	10.8	7.6	6.2	7.6	11.2	8.3
6~7시간	31.1	27.5	32.4	29.9	31.7	24.8	31.4	26.6	29.4
7~8시간	23.4	25.6	27.8	21.3	24.0	29.6	21.3	25.4	24.4
8~9시간	14.2	15.3	9.5	16.6	13.4	15.9	15.1	15.0	14.7
9~10시간	11.4	9.3	13.3	10.2	12.0	8.2	10.9	8.9	10.4
10~11시간	6.4	6.4	4.1	7.4	6.1	6.4	5.0	7.8	6.4
11시간 이상	3.9	6.3	6.0	3.9	3.4	7.4	7.2	4.1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x^2(df)$	9.7(7)				71.5(35)***				
평균	8:04	8:08	8:07	8:06	8:02	8:16	8:06	8:03	8:06
표준편차	1:40	1:44	1:47	1:36	1:41	1:42	1:49	1:40	1:42
F/t	0.9				0.4				
2018년	8:30	8:42	9:00	8:24	8:24	8:30	8:54	8:42	8:30
2015년	8:06	8:30	8:30	8:18	7:54	8:30	8:18	8:42	8:18
2012년	8:09	8:35	7:57	8:11	8:11	8:29	8:54	8:22	8:2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01. 〈표 Ⅵ-1-27〉.
*** $p < .001$.

어린이집 희망 이용 시간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평균 9시간45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가장 짧아 7시간 57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실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직장어린이집이 평균 8시간32분, 국공립어린이집 7시간3분이므로 약 1시간 전후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7시간 55분, 중소도시 거주자는 8시간15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취업모인 경우에는 8시간43분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미취업모는 7시간30분을 희망하여 취업여부에 따라 1시간13분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이용 희망시간이 9시간으로 길었던데 반해 2021년 조사에서는 가장 짧았다는 차이가 있다.

〈표 Ⅵ-1-20〉 어린이집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5시간까지	2.9	-	1.8	0.2	1.9	-	-	0.9	1.3	2.1	0.8	4.5	1.1	-
5~6시간	9.0	7.1	2.5	9.3	8.2	-	-	11.1	6.9	5.8	4.7	12.4	11.7	-
6~7시간	32.3	19.5	24.7	30.7	29.3	11.3	7.4	31.7	27.5	29.1	18.7	30.9	41.2	25.5
7~8시간	21.4	37.7	31.8	25.9	20.5	10.7	68.4	26.9	23.3	21.4	21.9	23.7	27.3	25.7
8~9시간	13.3	18.6	13.3	15.0	16.8	12.3	-	12.7	15.9	16.4	18.9	13.5	10.4	12.5
9~10시간	9.5	10.0	18.3	9.5	9.3	29.4	-	7.9	11.6	13.5	16.1	9.8	4.0	22.1
10~11시간	6.6	5.7	5.5	4.9	9.7	15.0	-	4.1	8.9	5.3	9.5	5.2	3.4	-
11시간 이상	4.9	1.4	2.1	4.6	4.2	21.4	24.1	4.9	4.6	6.4	9.4	-	1.0	1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673)	(133)	(643)	(15)
$x^2(df)$	92.5(42)***							28.4(14)*			240.7(21)***			
평균	7:57	8:10	8:15	8:03	8:09	9:45	8:36	7:55	8:15	8:11	8:43	7:39	7:30	8:56
표준편차	1:51	1:22	1:37	1:34	1:43	1:35	1:40	1:39	1:39	1:51	1:49	1:34	1:17	1:58
F	4.4***							1.8			26.2***			
2018년	9:00	8:24	8:36	8:18	8:36	9:30	-	8:30	8:36	8:24	9:06	9:00	7:48	9:18
2015년	8:54	9:00	8:18	8:00	8:24	9:30	6:18	8:24	8:18	8:00	9:06	8:30	7:42	-
2012년	8:53	8:17	8:53	8:17	8:00	9:20	8:18	8:26	8:21	9:11	9:11	8:15	7:42	9: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03. 〈표 Ⅵ-1-29〉.
*** $p < .001$.

마. 어린이집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등원 방법은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고, 기관차량 이용 32.5%,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이 27.2%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각 45.7%, 59.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기관 차량으로 등원이 각 48.6%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원 방법이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한다는 응답이 각 72.8%, 38.5%로 높았다.

한편, 하원 방법 또한 등원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걸어서(40.1%), 기관 차량 이용(34.3%), 보호자와 자가용(23.6%) 순으로 나타났다. 하원 방법은 등원 방법과 약간의 비중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년 조사에서는 기관 차량으로 등하원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호자와 걸어서,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하원한다는 응답 순을 보였던데 반해, 2021년 조사에서는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예년 대비 기관 차량으로 등하원 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보호자와 걸어서 등원하거나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등원한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등하원을 보호자가 동행하는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코로나19의 영향과 어린이집 기관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표 Ⅵ-1-2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등원							
전체	32.5	27.2	0.6	39.3	0.3	0.1	100.0(1,464)
국공립	20.5	32.3	1.2	45.7	0.2	0.1	100.0(390)
사회복지법인	48.6	32.6	-	18.8	-	-	100.0(107)
법인·단체등	39.9	38.5	2.9	18.7	-	-	100.0(58)
민간	43.7	19.9	0.3	35.9	0.1	0.1	100.0(650)

구분	기관차량 이용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가정	17.3	21.2	-	59.6	1.9	-	100.0(200)
직장	15.6	72.8	-	11.5	-	-	100.0(55)
협동	7.4	92.6	-	-	-	-	100.0(4)
2018년	43.4	21.5	0.5	34.2	0.4	-	100.0(1,753)
2015년	49.8	11.0	1.0	37.9	0.3	-	100.0(1,745)
2012년	46.4	11.9	0.7	0.1	40.7	0.2	100.0(1,536)
하원							
전체	34.3	23.6	0.7	40.1	0.3	1.0	100.0(1,464)
국공립	22.8	26.7	1.4	47.4	0.2	1.6	100.0(390)
사회복지법인	54.9	28.3	1.1	14.9	-	0.9	100.0(107)
법인·단체등	39.5	37.1	1.7	21.6	-	-	100.0(58)
민간	45.9	16.9	0.3	36.1	0.1	0.8	100.0(650)
가정	16.9	18.4	-	62.6	1.9	0.3	100.0(200)
직장	11.3	74.7	-	11.5	-	2.5	100.0(55)
협동	7.4	92.6	-	-	-	-	100.0(4)
2018년	43.9	20.1	0.6	34.4	0.5	0.5	100.0(1,753)
2015년	50.5	9.9	0.7	38.0	0.7	0.1	100.0(1,745)
2012년	47.6	10.8	1.1	0.4	39.9	0.3	100.0(1,53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04-305. 〈표 Ⅵ-1-30〉.

2) 등·하원 시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교류

등하원시 원장 또는 교사와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해 어느 정도 교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고, 주1~2회 29.1%, 월 1~2회 9.8%, 전혀 안한다는 응답도 5.9% 있었다. 영아의 경우 매일 한다는 응답이 67.0%로, 유아(41.7%)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영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매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지역 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매일 한다는 응답과 전혀 안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편차가 훨씬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매일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주1~2회 정보를 교류를 한다는 응답이 54.2%로 높게 나타났다.

등하원시 정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15년 4.6%, 2018년 6.5%,

2021년 5.9%로, 2015년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1-22〉 제 특성별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의 정보 교류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1~2회	전혀 안함	계(수)
전체	55.2	29.1	9.8	5.9	100.0(1,460)
영유아구분					
영아	67.0	23.2	5.9	3.9	100.0(844)
유아	41.7	35.9	14.4	8.1	100.0(616)
연령					
0세	73.2	21.9	2.7	2.2	100.0(140)
1세	69.8	20.5	5.5	4.2	100.0(328)
2세	63.2	25.7	6.9	4.1	100.0(376)
3세	40.6	39.0	10.9	9.4	100.0(238)
4세	38.4	38.2	15.7	7.7	100.0(194)
5세	46.2	29.9	17.0	7.0	100.0(184)
지역규모					
대도시	54.8	30.6	9.2	5.3	100.0(630)
중소도시	55.5	28.5	10.6	5.4	100.0(576)
읍·면	55.3	27.2	9.3	8.2	100.0(25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5.8	29.9	9.0	5.2	100.0(389)
사회복지법인	58.0	23.1	11.6	7.3	100.0(107)
법인·단체등	32.0	54.2	6.4	7.4	100.0(58)
민간	50.0	31.1	11.4	7.5	100.0(649)
가정	75.3	16.3	7.0	1.4	100.0(198)
직장	62.9	25.7	8.2	3.3	100.0(55)
협동	68.4	31.6	–	–	100.0(4)
2018년	53.7	30.0	9.8	6.5	100.0(1,749)
2015년	49.8	32.5	13.1	4.6	100.0(1,74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06. 〈표 Ⅵ-1-31〉.

3) 등·하원 차량의 교직원 동승 여부

등하원 시 차량에 교직원이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8.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등원시만 동승한다는 응답이 0.9%, 하원시만 동승한다는 응답이 0.5,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2% 있었다. 등하원시 교직원이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워낙에 높아, 영유아 여부 및 연령, 지역규모,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조사에서는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는 응답이 98.8%, 2015년 99.7%로, 이에 비해서는 미묘하게 줄어들긴 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교직원이 동승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Ⅵ-1-23〉 제 특성별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교직원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등원시	하원시	동승 안함	계(수)
전체	98.4	0.9	0.5	0.2	100.0(573)
영유아구분					
영아	98.8	1.1	0.2	-	100.0(272)
유아	98.0	0.7	0.8	0.4	100.0(301)
연령					
0세	100.0	-	-	-	100.0(29)
1세	97.0	2.6	0.4	-	100.0(112)
2세	100.0	-	-	-	100.0(131)
3세	100.0	-	-	-	100.0(121)
4세	98.1	-	0.6	1.4	100.0(82)
5세	95.7	2.3	2.0	-	100.0(98)
지역규모					
대도시	98.7	1.0	0.3	-	100.0(210)
중소도시	98.9	0.4	0.2	0.6	100.0(225)
읍·면	97.1	1.5	1.4	-	100.0(13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0.0	-	-	-	100.0(120)
사회복지법인	97.3	-	-	2.7	100.0(62)
법인·단체등	100.0	-	-	-	100.0(30)
민간	97.9	1.2	0.9	-	100.0(310)
가정	97.7	2.3	-	-	100.0(41)
직장	100.0	-	-	-	100.0(9)
협동	100.0	-	-	-	100.0(1)
2018년	98.8	0.3	0.4	0.1	100.0(876)
2015년	99.7	0.3	-	-	100.0(951)

주: 2018년 조사에서는 모름 응답이 0.4% 있었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07. 〈표 Ⅵ-1-32〉.

2. 어린이집 이용 비용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되는 월평균 총 보육비용, 추가비용,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월평균 1인당 보육 비용

어린이집 총 이용 비용은 전체의 29.6%가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안낸다는 응답이 60.2%, 국공립어린이집 41.9%로 높았고,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16.3%, 가정어린이집은 36.4%가 안낸다고 응답하였다. 지불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5~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전체에서 24.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1~5만원은 22.9%로 다음 순이었다. 10~15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14.4%였다. 이전 연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8년의 경우 17.4%, 2015년 15.1%가 지불하는 보육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데 비해 2021년에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높아졌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이 최소한으로 실시되는 등 어린이집 이용 행태가 달라졌고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으로 이용 시간 또한 달라진 측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차액 보육료의 경우 전체의 89.8%가 안낸다고 했는데,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100.0%, 직장어린이집은 93.3%, 민간은 83.2%, 가정은 84.9%가 안낸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표 Ⅵ-2-1〉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비용 분포

단위: %, (명)

구분	총 비용									차액 보육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년	20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년	2015년
안냄	41.9	35.3	36.6	16.3	36.4	60.2	–	29.6	17.4	15.1	100.0	100.0	95.9	83.2	84.9	93.3	31.6	89.8	89.9	70.6
1~5만원	29.8	22.6	25.0	18.3	23.7	16.7	31.6	22.9	27.4	19.1	–	–	1.5	5.6	3.3	5.4	–	3.2	6.5	6.3
5~10만원	20.3	31.5	21.4	25.7	29.0	17.5	–	24.3	33.2	25.9	–	–	2.7	6.2	9.3	–	–	4.1	3.1	2.9

구분	총 비용										차액 보육료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년	20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년	2015년
10~15만원	6.2	6.9	13.4	24.3	6.3	1.2	-	14.4	14.9	14.5	-	-	-	5.1	2.5	1.3	-	2.6	0.6	-
15~20만원	1.8	3.7	3.6	11.9	4.0	3.1	-	6.8	5.8	4.9	-	-	-	-	-	-	-	-	-	-
20~25만원	-	-	-	3.4	0.6	1.3	-	1.7	0.8	0.3	-	-	-	-	-	-	-	-	-	-
25만원이상	-	-	-	-	-	-	68.4	0.3	0.4	-	-	-	-	-	-	-	68.4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1,464)	(1,753)	(1,745)	(390)	(107)	(58)	(650)	(200)	(55)	(4)	(1,464)	(1,753)	(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08-309. 〈표 Ⅵ-2-1〉.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 비용 평균 지불액은 5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2만 3,700원으로 가장 낮고, 협동어린이집의 경우가 19만 1,7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8만 7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비용은 4만 8,700원으로, 추가 비용은 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1만원으로 가장 낮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6만 9,1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2018년과 2015년 조사와 비교할 때 2021년에는 전체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월 보육료가 약간 증가한 반면, 추가 비용은 감소하였다.

〈표 Ⅵ-2-2〉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비용(A)		차액 보육료(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연도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2021	2018	2015
전체	56.0	61.0	7.3	4.3	48.7	56.7	(1,464)	(1,753)	1.3	1.6	1.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1.6	43.0	-	-	31.6	43.0	(390)	(417)	0.7	1.1	1.7
사회복지법인	41.2	57.0	-	-	41.2	57.0	(107)	(90)	1.2	1.4	1.9
법인·단체 등	41.6	74.1	2.0	4.6	39.6	69.5	(58)	(96)	0.9	1.8	2.1
민간	80.7	75.4	11.6	7.3	69.1	68.0	(650)	(874)	1.9	2.0	2.2

구분	전체비용(A)		차액 보육료(B)		추가비용(A-B)		(수)		가구소득대비 비율		
가정	39.6	39.6	8.6	0.8	31.0	38.8	(200)	(221)	0.8	0.9	1.2
직장	23.7	34.8	2.7	4.7	21.0	30.1	(55)	(55)	0.4	0.7	0.9
협동	191.7	–	181.7	–	10.0	–	(4)	–	3.9	–	2.1
F	35.7***	41.9***	33.0***	16.7***	–	32.3***			24.7***	35.4***	
모취업 여부											
취업	54.8	61.1	7.9	4.3	47.0	56.8	(673)	(888)	1.1	1.3	1.5
휴직중	51.2	57.6	4.5	5.6	46.7	52.0	(133)	(97)	1.1	1.3	1.7
미취업	57.8	61.4	7.3	4.0	50.5	57.3	(643)	(751)	1.5	1.9	2.2
부재 등	82.0	50.6	–	0.6	82.0	49.9	(15)	(17)	4.7	1.7	–
F	2.9*	0.3	1.5	0.5	–	0.5			41.8***	17.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09-310. 〈표 Ⅵ-2-2〉.
*** $p < .001$.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0세의 어린이집 월평균 총 이용 비용은 1만 500원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여 5세 이상의 경우 7만 9,900원이었다. 순 보육비(차액보육료)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아 총 이용비용의 증가가 추가비용의 증가에 기인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연령별 보육비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향성 자체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Ⅵ-2-3〉 영유아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월평균 보육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전체							
총비용	10.5	38.5	55.5	66.7	64.5	79.9	56.0
차액보육료	1.3	5.3	6.6	11.6	6.7	9.4	7.3
(수)	(140)	(330)	(377)	(238)	(195)	(184)	(1,464)
국공립							
총비용	1.7	17.0	28.9	26.9	46.9	47.5	31.6
차액보육료	–	–	–	–	–	–	–
(수)	(23)	(69)	(108)	(66)	(67)	(57)	(390)
사회복지법인							
총비용	5.7	33.3	40.7	40.7	47.0	48.8	41.2
차액보육료	–	–	–	–	–	–	–
(수)	(10)	(15)	(27)	(17)	(17)	(21)	(107)
법인·단체 등							
총비용	11.7	19.1	61.0	47.4	40.0	66.9	41.6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전체
차액보육료	-	-	5.4	5.2	-	1.6	2.0
(수)	(6)	(14)	(10)	(8)	(13)	(7)	(58)
민간							
총비용	20.2	53.3	82.2	92.2	86.1	106.3	80.7
차액보육료	3.0	6.8	11.6	14.8	13.8	13.2	11.6
(수)	(47)	(138)	(165)	(128)	(85)	(87)	(650)
가정							
총비용	8.5	40.5	46.5	101.6	114.8	-	39.6
차액보육료	0.9	9.1	9.4	48.6	-	-	8.6
(수)	(50)	(87)	(56)	(4)	(3)	(0)	(200)
직장							
총비용	-	9.6	16.4	22.1	18.3	50.9	23.7
차액보육료	-	3.6	-	5.7	3.6	-	2.7
(수)	(4)	(6)	(11)	(13)	(10)	(11)	(55)
협동							
총비용	-	15.0	-	159.8	-	280.0	191.7
차액보육료	-	-	-	144.1	-	280.0	181.7
(수)	-	(1)	-	(2)	-	(1)	(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보육료 외 추가 비용

어린이집에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은 총 48,700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특별활동비 35,7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6,800원, 시도특성화비 2,200원, 기타 4.100원이었다. 추가 비용이 가장 높은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50,500원, 현장학습비/행사비 9,800원, 시도특성화비 3,000원, 기타 5,800원으로 모든 항목에서 다른 설립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유아별로 구분해 보면, 유아가 6만900원으로 영아 3만8,200원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특히 특별활동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현장학습비/행사비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4,600원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았으며, 시도특성화비도 읍면지역이 약간 낮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모 부재인 경우에 모든 항목에서 추가비용 지출이 많았으며, 취업모 영유아 가구에 비해 미취업모 가구가 2,700원가량 높았다.

〈표 Ⅵ-2-4〉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제특성별 월평균 추가 비용(전체 영유아)

단위: 천원, (명)

구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행사비	시도특성화비	기타[1)]	합계
전체	35.7	6.8	2.2	4.1	48.7
설립유형					
국공립	24.0	4.1	1.3	2.3	31.6
사회복지법인	27.2	5.2	4.3	4.5	41.2
법인·단체 등	26.3	4.7	1.2	7.4	39.6
민간	50.5	9.8	3.0	5.8	69.1
가정	22.4	5.6	1.1	1.8	31.0
직장	19.1	0.6	–	1.2	21.0
협동	10.0	–	–	–	10.0
F	19.9***	4.9***	2.9**	4.1***	–
영유아구분					
영아	27.4	5.1	1.8	3.9	38.2
유아	45.3	8.7	2.6	4.3	60.9
t	-10.0	-3.9	-2.0	-1.7	–
보육연령					
0세	4.7	3.1	0.5	1.0	9.3
1세	22.0	5.2	1.7	4.2	33.2
2세	37.1	5.5	2.2	4.2	48.9
3세	42.6	6.6	1.7	4.3	55.1
4세	41.5	8.8	3.5	4.1	57.8
5세	52.3	11.2	2.6	4.5	70.5
F	39.8***	3.3**	2.4*	1.8	–
지역규모					
대도시	32.7	7.3	2.6	4.2	46.9
중소도시	37.4	7.2	1.9	4.0	50.5
읍·면	38.3	4.6	1.7	3.9	48.5
F	0.3	5.3**	3.5*	1.1	–
모 취업여부					
취업	34.1	7.5	1.9	3.5	47.0
휴직중	32.8	7.8	2.1	3.9	46.7
미취업	38.0	5.7	2.2	4.5	50.5
모부재	42.0	10.0	16.6	13.3	82.0
F	1.4	2.4	21.2***	3.5*	–
(수)	(1,464)	(1,464)	(1,464)	(1,464)	(1,464)
2018년	39.7	6.7	0.8	9.3[2)]	56.7
2015년	36.0	7.5	3.6	9.2[3)]	57.0

주: 1) 2021년 실태조사는, 2018년 조사가 차량운행비, 교재비, 급간식비를 각각 질문한 것과 달리, 해당 항목을 '기타'에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수정됨. 비용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경임.
2), 3) 2018년, 2015년 조사 결과에서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비, 기타의 평균을 모두 합계한 금액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11-312. 〈표 Ⅵ-2-4〉.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영유아 대상이 아니라 영유아 중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부모가 지불하는 추가비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전체 영유아 대상 월평균 추가 비용에 비해 비용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60,300원, 현장학습비 27,600원, 시도특성화비 29,700원, 차량운행비 등이 포함된 기타 29,300원 등으로 앞서 보았던 전체 영유아의 월평균 추가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Ⅵ-2-5〉 어린이집 유형별·제특성별 보육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비용(비용 지불 영유아)

단위: 천원, (명)

구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기타[1)]
비용지불아동	60.3	27.6	29.7	29.3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43.0	19.8	19.8	26.0
사회복지법인	48.7	21.8	46.4	33.5
법인·단체등	53.8	25.3	40.8	41.1
민간	73.6	31.2	32.5	29.4
가정	47.5	30.0	26.6	25.3
직장	59.9	16.6	-	28.8
협동	31.8	-	-	-
F	14.2***	1.8	1.8	4.8**
보육연령				
0세	37.1	33.6	100.0	27.9
1세	48.1	26.0	29.9	31.6
2세	57.7	22.9	29.2	29.8
3세	68.2	25.8	30.1	28.8
4세	59.7	31.1	29.1	25.3
5세	69.6	32.9	29.2	30.8
F	8.2***	2.2	4.2**	0.6
지역규모				
대도시	55.2	29.8	30.6	31.6
중소도시	62.8	26.7	29.1	28.3
읍면지역	65.5	24.3	28.4	27.0
F	0.5	2.6	1.3	2.0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37.9	30.0	46.0	38.1
250~299만원	62.9	25.8	28.7	26.1
300~349만원	64.9	23.9	22.3	27.2
350~399만원	59.5	21.4	39.1	30.0
400~499만원	58.6	26.1	28.1	27.4
500~599만원	67.8	30.8	25.9	28.5

구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기타[1)]
600~699만원	58.6	29.7	32.6	25.1
700만원 이상	56.1	30.1	31.8	37.0
모름/무응답	56.8	24.0	23.2	40.6
F	1.9	0.4	0.5	0.8
(수)	(866)	(355)	(98)	(203)
2018년 조사	56.4	18.0	28.1	22.6[2)]
2015년 조사	59.3	18.7	33.7	26.1[3)]

주: 1) 2021년 실태조사는, 2018년 조사가 차량운행비, 교재비, 급간식비를 각각 질문한 것과 달리, 해당 항목을 '기타'에 모두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수정됨. 비용에 대한 응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경임.
2), 3) 2018년, 2015년 조사 결과에서 차량운행비, 급간식비, 교재비, 기타의 평균을 모두 합계한 금액임.
4)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어린이집 입소 연도별로 입학 시 지불하는 입학금은 평균 2021년 기준 68,8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비교해 보면, 입학금은 2020년(56,800원)에 입학한 경우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2019년(69,300원) 입학한 아동의 입학금 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2021년 입학의 경우 협동을 제외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입학금이 81,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은 20,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Ⅵ-2-6〉 어린이집 유형별 입학금(원복, 체육복 등) 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체	68.8	56.8	69.3	61.6
국공립	60.9	45.4	53.7	57.7
사회복지법인	58.7	70.7	56.2	70.0
법인·단체등	65.6	37.7	95.1	55.3
민간	81.4	64.6	80.6	65.9
가정	58.9	57.6	74.3	63.2
직장	20.9	43.6	32.4	15.1
협동	177.8	–	59.6	–
(수)	(658)	(439)	(201)	(118)
F	5.4***	1.8	2.1	0.6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입학금 납부 년도별 평균 비용으로, 2017년도 이전은 제외함.
자료: 2021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다. 비용에 대한 부담 인식

1) 부담 인지 정도 및 비용 추가 부담 의사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부담이 되지 않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82.4%정도였으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17.6%였다. 영아보다는 추가적 보육비용이 많이 드는 유아의 경우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5점 척도에서 2점~2.9점의 부담 정도를 보여 모두 2점대 수준에서 부담을 표시하고 있어 비교적 부담감의 크기는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평균 응답점수가 2.7점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감을 보여주나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및 2012년과 비교해서도 부담감의 정도는 점수에서 낮아진 경향을 보여 해가 지날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Ⅵ-2-7〉 제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5점 척도)
전체	1.6	16.0	49.2	15.1	18.2	100.0(1,464)	2.7
영유아구분							
영아	1.3	11.0	48.8	16.4	22.4	100.0(847)	2.5
유아	1.9	21.7	49.6	13.5	13.3	100.0(617)	2.9
$x^2(df)/t$			47.7(4)***				-6.6***
보육연령							
0세	0.9	2.2	35.3	18.7	42.9	100.0(140)	2.0
1세	1.3	11.3	47.2	17.0	23.3	100.0(330)	2.5
2세	1.5	12.8	53.3	15.4	17.0	100.0(377)	2.7
3세	2.3	18.3	50.3	13.0	16.0	100.0(238)	2.8
4세	1.7	25.5	49.2	11.5	12.2	100.0(195)	2.9
5세	1.7	21.8	49.1	16.2	11.2	100.0(184)	2.9
$x^2(df)/F$			94.2(20)***				16.3***

구분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정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평균 (5점 척도)
지역규모							
대도시	1.1	16.1	47.2	15.2	20.3	100.0(631)	2.6
중소도시	0.7	17.3	52.8	14.1	15.2	100.0(578)	2.7
읍면지역	4.8	12.4	44.7	17.2	20.8	100.0(255)	2.6
$x^2(df)/F$			16.2(8)*				0.8
모취업 여부							
취업	2.5	15.5	48.8	15.8	17.4	100.0(673)	2.7
휴직중	1.3	10.3	53.5	11.7	23.1	100.0(133)	2.5
미취업	0.7	17.6	48.5	15.2	17.9	100.0(643)	2.7
모부재 등	–	20.0	59.4	–	20.5	100.0(15)	2.8
$x^2(df)/F$			11.5(12)				0.9
2018년	2.3	18.3	44.7	16.2	18.5	100.0(1,753)	2.7
2015년	3.4	24.6	46.8	16.4	8.8	100.0(1,745)	3.0
2012년	4.7	28.8	23.9	28.9	13.7	100.0(1,314)	3.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비용 부담정도는 '매우 부담됨(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매우 부담됨(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16-317. 〈표 Ⅵ-2-7〉.
* $p < .05$, *** $p < .001$.

2) 비용 추가 부담 의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이용 비용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6.0%로, 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92.6%, 직장어린이집 67.4%, 국공립어린이집 63.6% 등에서 높은 추가 부담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부담 가능 비용은 평균 8만 8,100원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9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불 의사를 보였으며, 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만 9,900원으로 낮은 추가 지불 의사를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2.5%였으며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은 10만 6,500원이었다. 이를 2021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2021년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의 수준은 평균 1만 8,400원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표 Ⅵ-2-8〉 어린이집 유형별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6.0	44.0	100.0(1,464)	88.1	69.9	10.0	500.0	(78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3.6	36.4	100.0(390)	89.2	61.1	10.0	500.0	(238)
사회복지법인	40.3	59.7	100.0(107)	66.4	52.7	10.0	300.0	(43)
법인·단체등	56.3	43.7	100.0(58)	86.6	77.0	10.0	300.0	(32)
민간	49.6	50.4	100.0(650)	90.0	75.0	10.0	500.0	(316)
가정	63.4	36.6	100.0(200)	89.6	79.1	10.0	500.0	(117)
직장	67.4	32.6	100.0(55)	81.8	56.1	10.0	300.0	(35)
협동	92.6	7.4	100.0(4)	59.9	32.0	20.0	100.0	(3)
$x^2(df)/F$		27.4(6)***		0.8				
2018년	42.5	57.5	100.0(1,753)	106.5	95.4	-	-	(755)
2015년	30.8	69.2	100.0(1,745)	117.1	106.4	-	-	(508)
2012년	25.0	75.0	100.0(1,536)	162.6	115.8	-	-	(36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18-319. 〈표 Ⅵ-2-8〉.
*** $p < .001$.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위해 비용 추가 부담 의사는 유아에 비해 영아인 경우에 더 높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취업모인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0.7%로, 미취업모인 경우(51.5%)보다 9.2%p 높았다. 한편,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비용 수준 또한 영아인 경우 9만 1,700원으로, 유아 8만 3,400원에 비해 8,300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역규모가 클수록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비용의 수준이 높았으며, 미취업모 가구들의 추가 지불 비용의 수준이 8만 8,900원으로, 취업모(8만 5,500원)에 비해 높았다. 즉, 미취업모 가구들은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는 응답 자체는 취업모 가구에 비해 낮지만, 일단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당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Ⅵ-2-9〉 제 특성별 질적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56.0	44.0	100.0(1,464)	88.1	69.9	10.0	500.0	(785)
영유아구분								
영아	58.9	41.1	100.0(847)	91.7	75.9	10.0	500.0	(473)
유아	52.8	47.2	100.0(617)	83.4	61.0	10.0	500.0	(312)
$x^2(df)/t$		3.9(1)*		1.0				
연령								
0세	62.7	37.3	100.0(140)	88.5	45.5	20.0	300.0	(82)
1세	62.7	37.3	100.0(330)	96.6	88.4	10.0	500.0	(192)
2세	55.0	45.0	100.0(377)	88.1	69.8	10.0	500.0	(199)
3세	50.8	49.2	100.0(238)	89.7	76.3	10.0	500.0	(118)
4세	51.6	48.4	100.0(195)	78.9	48.6	10.0	300.0	(94)
5세	56.2	43.8	100.0(184)	81.1	52.6	10.0	300.0	(100)
$x^2(df)/F$		8.1(5)		0.7				
지역규모								
대도시	53.2	46.8	100.0(631)	94.0	71.8	10.0	500.0	(321)
중소도시	57.8	42.2	100.0(578)	85.2	68.0	10.0	500.0	(323)
읍·면	58.2	41.8	100.0(255)	82.9	69.9	10.0	500.0	(141)
$x^2(df)/F$		3.3(2)		1.2				
모 취업여부								
취업	60.7	39.3	100.0(673)	85.5	62.2	10.0	500.0	(390)
휴직중	55.6	44.4	100.0(133)	92.9	66.9	20.0	300.0	(74)
미취업	51.5	48.5	100.0(643)	88.9	76.0	10.0	500.0	(317)
부재 등	27.5	72.5	100.0(15)	226.8	199.2	50.0	500.0	(4)
$x^2(df)/F$		14.4(3)**		2.7*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3. 어린이집의 제공 서비스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실태, 건강검진 안내,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어린이집 유형별로 각종 부모 대상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면, 보육계획표는 대체로 매주 1회 제공이 58.5%이고 월 1회로 제공되는 경우도 32.4%정도였다.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이 53.8%로 가장 많았고 매주 1회 제공하는 비율은 22.6%로 높은 편이었다.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가 64.4%였으나 매월 21.2%, 매일 12.4%로 다양하게 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발달평가의 경우 분기 1회 또는 연 1-2회 실시는 각각 21.8%, 22.6% 정도였고 제공하지 않는 비율도 21.2%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상담은 연 1-2회가 46.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30.9%인 분기 1회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자료는 월1회가 가장 많아 각각 33.4%정도였다.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율은 연1~2회가 22.2% 가장 많았고 양방향 알림장의 경우는 매일 70.0%가 제공하였다.

〈표 Ⅵ-3-1〉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보육계획표								
매일	7.0	2.3	4.3	5.6	6.7	5.9	-	5.9
매주 1회	61.1	58.0	65.2	60.9	41.8	71.0	-	58.5
월 1회	26.5	36.9	29.8	31.5	47.9	23.0	100.0	32.4
기타	2.5	1.2	0.8	0.4	2.6	-	-	1.3
제공 안함	1.2	-	-	0.6	1.0	-	-	0.8
모름	1.7	1.6	-	1.1	-	-	-	1.1
급간식 식단								
매일	19.8	21.1	28.2	22.5	29.2	22.0	-	22.6
매주 1회	23.0	31.1	24.5	23.1	16.4	23.3	-	22.6
월 1회	56.7	45.4	46.1	53.4	53.2	54.7	100.0	53.8
기타	-	-	-	-	0.2	-	-	-
제공 안함	-	1.2	-	0.3	1.0	-	-	0.4
모름	0.6	1.2	1.2	0.7	-	-	-	0.6
가정통신문								
매일	10.3	9.5	18.0	14.4	8.6	17.4	-	12.4
매주 1회	66.6	74.2	71.0	64.8	51.0	73.6	24.1	64.4
월 1회	20.6	12.6	8.6	19.3	39.0	9.0	43.0	21.2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분기 1회	1.4	–	2.5	0.3	1.0	–	–	0.8
연 1~2회	–	–	–	0.1	–	–	32.9	0.2
모름	1.2	3.7	–	1.0	0.3	–	–	1.0
자녀발달평가								
매일	2.0	2.2	1.3	4.9	5.0	4.6	7.4	3.8
매주 1회	3.2	1.9	19.8	2.9	2.3	–	–	3.4
월 1회	12.0	10.5	5.5	7.9	10.2	4.8	–	9.3
분기 1회	22.5	20.6	19.9	21.9	17.0	33.1	35.5	21.8
연 1~2회	22.2	26.6	25.4	21.4	19.8	43.7	24.1	22.6
제공 안함	19.7	22.3	23.1	20.9	26.4	12.6	32.9	21.2
모름	18.4	15.8	5.0	20.0	19.2	1.3	–	17.9
부모상담								
매일	1.5	2.3	1.2	4.4	4.7	5.9	–	3.4
매주 1회	2.2	1.3	–	2.5	5.3	1.6	24.1	2.7
월 1회	7.5	6.6	4.3	6.7	7.8	–	32.9	6.9
분기 1회	32.2	23.3	43.1	29.9	29.1	36.2	43.0	30.9
연 1~2회	48.2	51.5	45.5	45.3	42.8	55.6	–	46.3
제공 안함	2.5	9.6	2.1	2.9	5.6	0.7	–	3.4
모름	6.1	5.5	3.9	8.3	4.7	–	–	6.5
부모교육자료제공								
매일	1.2	2.3	6.6	2.1	2.9	4.6	–	2.2
매주 1회	19.7	14.7	14.3	16.0	19.4	12.0	–	17.2
월 1회	36.3	34.0	34.0	31.0	29.8	47.3	67.1	33.4
분기 1회	17.5	7.5	18.6	13.3	16.3	10.7	32.9	14.8
연 1~2회	9.5	11.8	16.3	12.9	10.4	25.4	–	12.0
제공 안함	4.2	17.6	5.9	8.5	10.9	–	–	7.6
모름	11.6	12.1	4.3	16.3	10.3	–	–	12.8
부모참여프로그램								
매일	1.0	4.3	0.8	1.9	1.7	4.6	–	1.8
매주 1회	6.2	2.5	11.3	2.7	4.4	3.7	–	4.3
월 1회	22.9	12.4	13.8	16.2	16.5	23.2	64.5	18.4
분기 1회	26.8	12.3	30.5	16.1	14.4	16.4	35.5	19.4
연 1~2회	17.3	26.2	27.9	25.3	16.4	35.6	–	22.2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제공 안함	8.1	24.9	8.1	17.0	29.7	4.9	-	15.6
모름	17.6	17.4	7.5	20.9	17.0	11.6	-	18.3
양방향 알림장								
매일	63.3	62.3	78.5	68.8	86.7	80.5	75.9	70.0
매주 1회	24.8	26.4	14.4	16.0	5.9	7.2	24.1	17.5
월 1회	3.7	5.0	1.7	3.9	3.1	-	-	3.6
기타	0.8	-	2.7	1.8	-	2.6	-	1.2
제공 안함	3.4	3.7	-	4.8	1.2	9.7	-	3.8
모름	3.9	2.6	2.6	4.6	3.0	-	-	3.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20-322. 〈표 Ⅵ-3-1〉.

다음은 부모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만족 비율과 점수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한 부모들의 비율을 보면 76~88%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비율은 '보육계획표'가 87.8%로 가장 높았고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양방향알림장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부모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낮았다. 부모상담이나 부모참여프로그램은 2021년 전체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해당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사결과보다는 모두 높은 만족도 비율을 보였다.

한편 5점 평가 점수로 보면 4.1~4.3점 정도로 만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부모서비스의 만족 평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표 Ⅵ-3-2〉 어린이집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가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자료	부모 참여 프로램	양방향 알림장	보육 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 통신문	발달 평가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부모 참여 프로램	양방향 알림장
전체	87.8	86.4	86.8	81.7	76.0	79.3	79.2	84.1	4.3	4.2	4.3	4.2	4.1	4.1	4.1	4.2
국공립	91.6	89.3	89.7	86.4	75.0	81.0	81.9	83.9	4.3	4.3	4.3	4.3	4.1	4.1	4.2	4.2
사회복지법인	83.8	80.3	78.3	60.6	63.8	67.9	58.8	75.3	4.2	4.1	4.1	3.8	3.9	4.0	3.7	4.1
법인·단체등	85.0	87.5	89.7	90.7	79.1	81.8	75.9	84.2	4.3	4.4	4.4	4.4	4.2	4.2	4.1	4.3
민간	85.8	85.0	85.9	77.5	75.5	76.5	76.9	82.2	4.2	4.2	4.2	4.0	4.0	4.0	4.0	4.2
가정	87.3	86.2	82.4	85.2	78.4	81.7	83.7	89.9	4.2	4.3	4.2	4.2	4.1	4.2	4.2	4.4
직장	91.2	87.8	98.3	95.3	93.4	94.4	93.3	100.0	4.6	4.5	4.7	4.6	4.5	4.5	4.5	4.8
협동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6	4.6	4.6	4.9	4.4	4.4	4.4	4.6
(수)	(1,433)	(1,447)	(1,440)	(888)	(1,307)	(1,145)	(960)	(1,352)	(1,433)	(1,447)	(1,440)	(888)	(1,307)	(1,145)	(960)	(1,352)
F	1.9	1.3	0.6	4.1***	1.3	5.3***	5.3***	1.5	5.6***	5.0***	5.8***	5.1***	5.2***	3.8**	5.7***	6.0***
2018년	84.3	82.4	83.4	77.4	74.8	73.1	73.1	83.3	4.0	4.0	4.0	3.9	3.9	3.9	3.9	4.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부모서비스 만족도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22-323. 〈표 Ⅵ-3-2〉.

** $p < .01$, *** $p < .001$.

나. 건강검진 실시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응답은 84.9%이고 받지 않음 14%, 잘 모름 1.1%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88%)과 직장어린이집(88.4%)에서 받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87%, 중소도시 86.4%, 대도시 82.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조사(81.3%)와 비교하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비율이 3.6%p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Ⅵ-3-3〉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20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8.0	87.9	83.0	83.4	82.7	88.4	64.5	82.4	86.4	87.0	84.9	81.3	82.5
받지 않음	10.6	12.1	17.0	15.8	15.4	11.6	35.5	16.5	12.6	12.0	14.0	15.9	14.8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20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잘 모름	1.4	-	-	0.9	1.9	-	-	1.1	1.0	1.0	1.1	2.8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1,464)	(1,753)	(1,745)
$x^2(df)$	15.0(12)							10.0(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23-324. 〈표 Ⅵ-3-3〉.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음을 기준으로 보면, 영아는 84.4%, 유아는 85.5%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연령별로 세분하여 보면, 0세는 87.9%로 가장 높았고, 2세의 경우는 82.6%로 가장 낮았다.

〈표 Ⅵ-3-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4.4	85.5	87.9	85.8	82.6	86.5	83.5	86.4
받지 않음	14.0	14.0	8.9	14.0	15.2	12.4	16.2	13.6
잘 모름	1.5	0.5	3.2	0.2	2.2	1.1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x^2(df)$	2.5(2)		22.3(1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의 85.1%가 사전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사전안내 실시율은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시 87.8%로 안내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86.7%), 민간어린이집(86.1%), 국공립어린이집(8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Ⅵ-3-5〉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2015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5.0	86.7	82.9	86.1	81.5	87.8	75.9	86.3	83.9	85.4	85.1	85.2	83.8
받지 않음	8.0	10.6	8.0	11.0	11.1	9.2	-	8.2	11.3	10.2	9.9	10.1	9.5
잘 모름	7.0	2.6	9.1	3.0	7.4	2.9	24.1	5.6	4.8	4.4	5.0	4.8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631)	(578)	(255)	(1,464)	(1,753)	(1,745)
$x^2(df)$	23.7(12)*							1.6(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24. 〈표 Ⅵ-3-4〉.
* $p < .05$.

건강검진 안내를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영유아 구분이나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영아(83.3%)에 비해 유아(87.1%)의 경우 검진 안내를 받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3세(89.1%)와 0세(88.8%)의 안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Ⅵ-3-6〉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 사전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받음	83.3	87.1	88.8	78.2	86.1	89.1	87.6	84.4
받지 않음	10.2	9.5	4.3	13.6	8.8	7.7	7.5	13.8
잘 모름	6.5	3.3	6.9	8.2	5.1	3.1	5.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x^2(df)$	8.2(2)*		23.3(1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25. 〈표 Ⅵ-3-5〉.
* $p < .05$, ** $p < .01$.

다. 부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참여의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부모 참여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율은 10%대였고, (실

제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도움정도 및 참여의향은 40% 내외로 나타났다.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율은 2015-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부모 참여 활동의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정도 긍정응답은 증가한 반면, 참여의향은 2018년 50% 이상의 응답률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3-7〉 부모참여 활동(운영위원회, 모니터링단, 자원봉사) 참여율, 도움정도, 참여의향

단위: %

구분	참여율				보육의 질에 도움정도				향후 참여 의향			
	2021	2018	2015	2012	2021	2018	2015	2012	2021	2018	2015	201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4.8	25.7	23.5	8.0	42.6	34.1	68.0	56.4	39.3	55.5	33.0	42.7
부모 모니터링단	11.7	19.1	17.2	2.4	42.4	30.4	69.7	55.2	41.3	51.3	30.9	43.0
부모 자원봉사	15.7	26.6	20.4	5.0	45.0	34.2	71.5	56.3	45.7	58.0	30.4	42.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26. 〈표 Ⅵ-3-6〉.

앞서 논의한 세 가지의 부모참여 비율과 향후 참여 의향을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구분과 모 취업여부의 하위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아 부모의 실제 '참여율'이 영아 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의향'의 경우 '자원봉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영아부모의 참여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모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모와 부재 등의 경우 참여율이 모가 휴직중, 미취업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참여의향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경우 미취업모에서, 모니터링단의 경우 취업모에서, 자원봉사의 경우 휴직중인 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의향에서는 다양한 하위그룹 특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율과 참여의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Ⅵ-3-8〉 부모 참여 활동 참가율

단위: %(명)

구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전체	14.8	11.7	15.7	39.3	41.3	45.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3.9	9.8	14.0	41.8	40.9	49.7

구분	참여 비율			참여 의향 있는 비율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자원봉사
유아	15.7	13.7	17.5	36.9	41.7	42.2
$x^2(df)$	1.0(1)	4.4(1)*	4.8(1)*	0.1(1)	0.4(1)	0.6(1)
모취업						
취업	12.6	11.2	15.4	38.0	44.2	48.1
휴직	21.8	17.4	23.4	37.4	39.0	51.9
미취업	16.1	11.3	14.9	41.4	38.9	42.1
부재 등	13.6	9.1	9.1	23.7	26.8	26.8
$x^2(df)$	8.5(3)*	4.7(3)	9.5(3)*	5.5(3)	2.9(3)	6.4(3)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1.7	8.3	15.2	49.7	42.6	37.8
250~299만원	14.3	9.1	.5	55.4	52.4	54.3
300~349만원	15.1	11.1	13.8	42.8	47.3	43.7
350~399만원	13.0	12.1	15.0	31.2	31.6	39.1
400~499만원	20.5	12.8	20.4	35.8	38.0	44.8
500~599만원	15.8	11.1	15.1	40.3	36.6	40.3
600~699만원	11.3	11.4	11.2	37.1	40.9	44.8
700만원 이상	12.1	14.2	19.5	39.8	50.2	60.5
모름/무응답	4.5	3.9	3.9	40.1	36.2	36.2
$x^2(df)$	5.0(8)	4.0(8)	9.1(8)	5.5(8)	5.0(7)	5.9(8)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4.4	11.5	16.2	39.3	41.7	46.6
둘 다 이용	18.0	13.4	11.9	39.0	38.1	39.0
$x^2(df)$	1.7(1)	0.3(1)	0.4(1)	0.1(1)	0.1(1)	1.5(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26-327. 〈표 Ⅵ-3-7〉.
* $p < .05$.

부모참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제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세 가지 부모 참여 방식 모두 비슷하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이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모의 자원봉사가 보육의 질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전연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18년 조사보다는 높은 비율이나 2015년 조사 결과보다는 감소된 것이다.

〈표 Ⅵ-3-9〉 부모참여가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도움된다는 비율	(수)
전체	42.6	(626)	42.4	(562)	45.0	(573)
최연소연령구분						
영아	42.8	(326)	39.4	(295)	45.0	(294)
유아	42.4	(300)	45.3	(267)	44.9	(279)
지역규모별						
대도시	45.0	(287)	46.3	(257)	48.5	(256)
중소도시	40.9	(240)	40.5	(214)	44.7	(219)
읍·면	40.6	(99)	37.6	(91)	37.1	(98)
모 취업형태						
취업	41.5	(280)	44.7	(245)	43.5	(254)
휴직	58.6	(61)	54.2	(55)	62.1	(54)
미취업	40.0	(279)	37.1	(257)	42.8	(260)
부재 등	57.1	(6)	64.6	(5)	64.6	(5)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2.8	(519)	43.8	(471)	46.2	(474)
둘 다 이용	40.8	(107)	30.8	(91)	35.2	(99)
2018년	34.1	(872)	30.4	(737)	34.2	(780)
2015년	68.0	(228)	69.7	(146)	71.5	(16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27-328. 〈표 Ⅵ-3-8〉.

4. 어린이집 특별활동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종류, 비용, 만족도와 선호도 등 특별활동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비율은 예능(미술, 음악)이 5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체육관련 49.0%, 영어 42.6% 순이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체육관련 특별활동 운영이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어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다. 한편, 민

간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모든 과목에서 특별활동 운영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Ⅵ-4-1〉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운영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50.4	49.0	21.7	26.7	42.6	9.8	(1,464)
국공립	42.7	39.1	20.9	23.3	37.9	10.0	(390)
사회복지법인	46.4	47.8	17.9	26.7	37.2	8.6	(107)
법인·단체등	42.2	38.9	24.3	31.3	35.4	10.1	(58)
민간	60.5	60.5	26.1	32.0	54.2	11.4	(650)
가정	38.2	35.3	12.7	17.4	16.0	4.6	(200)
직장	47.8	51.3	12.0	19.3	53.5	11.3	(55)
협동	24.1	24.1	–	–	–	–	(4)
$x^2(df)$	49.2(6)***	56.7(6)***	24.9(6)***	27.5(6)***	102.7(6)***	8.2(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어린이집을 통해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은 예능(미술, 음악) 44.6%, 체육 관련이 44.3%, 영어 37.4% 순으로 운영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영어 교과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고, 체육 관련 49.1%, 예능(미술, 음악) 47.8% 순으로 다른 유형과는 약간 다른 이용 행태를 보였다. 특별활동 운영 비율과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모든 과목에서 특별활동 이용 비율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조사 당시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예능(미술, 음악) 61.5%, 체육 60.4%, 영어 45.1%로, 많이 이용하는 교과목의 순서는 동일하나 전반적으로 이용 비율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1년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예능 교과는 16.9%p, 체육 16.1%p, 영어 24.8%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자체가 줄어든 것과 함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Ⅵ-4-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4.6	44.3	16.8	20.3	37.4	7.1
국공립	36.2	34.8	15.7	16.9	32.3	5.8
사회복지법인	40.2	40.8	13.9	22.7	35.1	5.8
법인·단체등	36.9	35.7	18.9	20.4	31.5	8.6
민간	54.6	55.3	21.2	25.6	48.2	9.2
가정	32.7	31.4	7.6	10.8	11.8	2.7
직장	47.8	49.1	7.3	14.6	53.5	7.7
협동	24.1	24.1	-	-	-	-
(수)	(1,464)	(1,464)	(1,464)	(1,464)	(1,464)	(1,464)
2018년	61.5	60.4	18.2	27.6	45.1	9.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0. 〈표 Ⅵ-4-2〉.

영아에 비해 유아들의 특별활동 이용 비중이 확실히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 비율도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단, 이용 비율이 높은 예능 및 체육, 영어 교과는 4세가 5세에 비해 특별활동 이용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학/과학 관련 교과의 경우에는 5세가 4세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Ⅵ-4-3〉 영/유아 및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44.6	44.3	16.8	20.3	37.4	7.1	(1,464)
영유아구분							
영아	35.6	33.9	6.9	10.0	21.7	5.5	(847)
유아	55.0	56.4	28.2	32.2	55.6	8.9	(617)
연령							
0세	2.8	2.0	0.5	0.5	-	-	(140)
1세	30.3	31.7	7.3	9.8	12.8	4.5	(330)
2세	47.4	43.1	8.0	12.3	33.9	7.6	(377)
3세	55.1	56.9	21.1	26.8	50.5	9.1	(238)
4세	57.1	59.3	30.9	36.2	59.2	6.4	(195)
5세	52.6	52.7	33.6	34.3	57.6	11.1	(184)
지역규모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대도시	43.7	43.0	18.5	21.3	36.6	6.7	(631)
중소도시	45.9	46.1	15.0	19.4	37.9	6.3	(578)
읍·면	43.1	42.7	17.4	20.2	38.3	9.8	(25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2. 〈표 Ⅵ-4-4〉.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평균 1.8개로,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6%, 평균 이용 갯수가 1.0개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이용자가 주로 영아인 것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특별활동 이용 개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2021년 특별활동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Ⅵ-4-4〉 어린이집 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이용시 평균
전체	44.9	7.2	10.6	14.8	9.8	12.6	100.0(1,464)	1.8
국공립	54.3	6.7	8.4	12.2	8.8	9.7	100.0(390)	1.5
사회복지법인	45.5	8.1	10.2	18.8	9.0	8.3	100.0(107)	1.7
법인·단체등	49.7	8.1	8.3	17.1	4.4	12.5	100.0(58)	1.6
민간	34.0	6.7	11.5	16.8	13.1	17.9	100.0(650)	2.3
가정	58.6	10.6	14.1	11.1	0.4	5.3	100.0(200)	1.0
직장	44.5	3.3	6.4	19.8	20.0	5.9	100.0(55)	1.9
협동	75.9	-	24.1	-	-	-	100.0(4)	0.5
$\chi^2(df)/F$				109.7(30)***				14.3***
2018년	29.3	5.5	13.7	22.7	13.5	15.5	100.0(1,753)	
2015년	32.2	5.4	12.9	22.2	13.1	14.4	100.0(1,745)	-
2012년	33.4	8.5	14.8	20.1	11.4	12.0	100.0(1,536)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29. 〈표 Ⅵ-4-1〉.
*** $p < .00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는 영아는 평균 1.2개, 유아는 2.5개로 유아의 특별활동 이용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영유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 갯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0세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96.2%에 달했다. 이는 18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 실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Ⅵ-4-5〉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전체	44.9	7.2	10.6	14.8	9.8	12.6	100.0(1,464)	1.8
영유아구분								
영아	56.3	8.1	12.8	12.5	4.7	5.6	100.0(847)	1.2
유아	31.6	6.2	8.1	17.5	15.8	20.8	100.0(617)	2.5
$x^2(df)/t$			201.6(5)***					-14.6***
연령								
0세	96.2	2.9	-	0.4	0.5	-	100.0(140)	0.1
1세	59.7	11.7	11.3	9.7	3.0	4.7	100.0(330)	1.0
2세	44.4	6.5	16.9	17.6	6.9	7.6	100.0(377)	1.6
3세	31.7	7.7	9.2	20.8	14.8	15.9	100.0(238)	2.3
4세	29.8	5.1	5.7	18.7	18.8	21.9	100.0(195)	2.7
5세	33.4	5.6	9.5	12.6	13.9	25.1	100.0(184)	2.6
$x^2(df)/F$			367.4(25)***					64.6***
지역규모								
대도시	46.1	7.7	9.0	13.7	10.2	13.2	100.0(631)	1.8
중소도시	43.6	6.5	12.7	14.9	10.5	11.7	100.0(578)	1.8
읍·면	45.1	7.9	9.2	17.1	7.1	13.6	100.0(255)	1.8
$x^2(df)/F$			15.3(10)					0.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29. 〈표 Ⅵ-4-1〉.
*** $p < .001$.

나. 특별활동 이용 횟수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별 1주일 평균 이용 횟수를 알아본 결

과, 언어와 영어가 가장 많은 1.6회였으며 다음은 수학/과학 관련 등이 1.4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평균 이용 횟수는 어린이집 이용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4-6〉 어린이집 특별활동 1주일 평균 이용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F*	
예능(미술, 음악)	1.3	0.7	1.0	5.0	1.3	1.3	1.4	1.3	1.2	1.2	1.0	0.3	(672)
체육관련	1.2	0.6	1.0	5.0	1.1	1.0	1.4	1.2	1.2	1.1	2.0	1.7	(671)
수학/과학 관련	1.4	1.0	1.0	5.0	1.3	1.2	1.2	1.6	1.3	1.0	–	0.7	(25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6	1.2	1.0	5.0	1.6	1.2	1.8	1.6	1.4	1.0	–	0.7	(300)
영어	1.6	1.0	1.0	5.0	1.5	1.6	1.8	1.6	1.4	1.5	–	0.3	(540)
기타	1.3	0.9	1.0	5.0	1.5	1.0	1.0	1.3	1.4	1.0	–	1.2	(11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1. 〈표 Ⅵ-4-3〉.

다. 특별활동 의무 이용 및 대체 프로그램 제공 인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무조건 의무로 이용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의무 이용은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는 전체의 48.9%, 수학/과학도 47.7%가 의무로 이용하고 있었다. 예능(미술, 음악), 체육 관련 및 영어는 의무 이용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언어에 대한 의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어린이집의 언어 의무 비율은 78.6%나 되었고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53.8%)과 민간어린이집(52.6%)의 의무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의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Ⅵ-4-7〉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별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26.5 (157)	28.4 (43)	35.9 (22)	38.6 (360)	55.7 (65)	35.9 (24)	- (1)	34.6 (290)	35.4 (273)	44.4 (109)	36.6 (672)
체육관련	32.5 (158)	30.0 (43)	38.8 (22)	38.3 (361)	51.7 (61)	35.0 (25)	- (1)	36.7 (283)	34.3 (278)	48.5 (110)	37.6 (671)
수학/과학 관련	41.1 (67)	28.2 (17)	43.4 (12)	52.1 (136)	57.8 (12)	34.4 (6)	-	48.4 (350)	43.9 (231)	54.3 (109)	47.7 (25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7.7 (76)	48.1 (24)	38.8 (13)	52.6 (162)	53.8 (18)	78.6 (7)	-	48.0 (142)	44.7 (110)	61.1 (48)	48.9 (300)
영어	27.7 (139)	27.7 (36)	42.6 (18)	37.4 (302)	63.0 (18)	25.8 (27)	-	32.5 (239)	33.2 (211)	45.5 (90)	35.1 (540)
기타	33.7 (26)	25.5 (7)	50.1 (6)	39.0 (66)	62.2 (6)	16.8 (5)	-	41.9 (45)	30.1 (46)	44.7 (25)	38.0 (11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 이용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에 비해 영아의 의무 이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언어를 기준으로 보면, 영아는 52.3%, 유아 47.7%로 차이를 보이며, 영어의 경우도 영아 39.9%, 유아 32.9%로 영아의 의무이용 비율이 높다.

〈표 Ⅵ-4-8〉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예능(미술, 음악)	39.4 (309)	34.5 (363)	64.2 (5)	45.5 (110)	36.0 (194)	35.0 (141)	35.4 (118)	32.9 (104)
체육관련	40.6 (297)	35.5 (374)	51.7 (4)	43.3 (113)	38.8 (180)	36.2 (147)	30.5 (123)	40.6 (104)
수학/과학 관련	50.3 (68)	47.0 (622)	100.0 (1)	43.5 (28)	54.4 (39)	46.0 (146)	46.4 (222)	48.4 (25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2.3 (94)	47.7 (206)	100.0 (1)	54.9 (37)	50.3 (56)	41.9 (68)	55.5 (74)	44.4 (64)
영어	39.9 (178)	32.9 (362)	-	47.8 (41)	37.5 (137)	28.6 (131)	34.9 (120)	35.2 (111)
기타	34.8 (54)	40.3 (62)	-	33.5 (20)	35.4 (34)	52.1 (26)	17.7 (17)	42.6 (1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특별활동을 선택 가능하도록 한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활동 미 참여 시의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6.3%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머지 83.7%는 대체프로그램 의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보면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어 영아의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14.6%)이 유아의 경우(18%) 보다 다소 낮았다. 연령별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0세(9.3%), 5세의 경우(21.6%)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잘 안다는 비율이 대체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20.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16.9%)을 이용하는 경우 대체프로그램의 운영 의무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인지율이 12.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렇듯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비율은 2021년 평균 16.3%로 2018년 20.1%에 비해 인지 비율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Ⅵ-4-9〉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여부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전혀 모름	잘 모름	잘 앎	계(수)
전체	39.6	44.1	16.3	100.0(1,148)
영유아구분				
영아	43.0	42.4	14.6	100.0(620)
유아	36.2	45.8	18.0	100.0(528)
$x^2(df)$		44.1(3)***		
연령				
0세	53.6	37.1	9.3	100.0(84)
1세	46.1	40.0	13.9	100.0(250)
2세	38.6	45.2	16.2	100.0(286)
3세	43.2	43.0	13.7	100.0(203)
4세	32.2	48.4	19.4	100.0(169)
5세	32.2	46.2	21.6	100.0(156)
$x^2(df)$		76.8(15)***		
지역규모				

구분	특별활동 미참여 시 대체프로그램 인지			
	전혀 모름	잘 모름	잘 앎	계(수)
대도시	35.9	43.2	20.8	100.0(494)
중소도시	40.8	45.8	13.5	100.0(454)
읍·면	44.8	41.8	13.4	100.0(200)
$x^2(df)$		6.5(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7.9	41.9	20.2	100.0(286)
사회복지법인	40.7	42.5	16.9	100.0(88)
법인·단체등	40.2	46.9	12.9	100.0(45)
민간	41.7	42.9	15.4	100.0(551)
가정	38.8	48.6	12.6	100.0(138)
직장	21.8	62.5	15.7	100.0(39)
협동	-	100.0	-	100.0(1)
$x^2(df)$		54.7(18)***		
2018년	41.3	38.6	20.1	100.0(1,653)
2015년	43.2	43.3	13.5	100.0(1,48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3. 〈표 Ⅵ-4-5〉.
*** $p < .001$.

라. 특별활동 비용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대략 65.4%~83.2%의 비율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받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인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수학을 제외하고 특별활동 비용 지불 정도가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직장에서의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표 Ⅵ-4-10〉 어린이집 특별활동 별도 비용 지불하는 비율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수)
예능(미술, 음악)	74.6	59.6	69.5	77.7	71.7	44.2	100.0	74.1	(672)
체육관련	74.1	54.5	64.6	76.9	69.0	44.7	100.0	72.9	(671)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수)
수학/과학 관련	70.6	70.6	70.2	71.5	60.3	81.6	-	70.7	(25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71.3	59.2	91.4	63.1	67.5	29.4	-	65.4	(300)
영어	79.3	68.7	88.3	78.7	75.2	50.0	-	77.1	(540)
기타	79.7	83.7	100.0	81.7	87.6	100.0	-	83.2	(11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4. 〈표 Ⅵ-4-6〉.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나, 약 12,900원에서부터 20,4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영어의 이용비용이 평균 20,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예능(미술, 음악) 18,300원, 기타 18,000원, 체육 16,500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비용에 대해 영어, 예능, 체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월평균 이용비용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맞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Ⅵ-4-11〉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어린이집 유형								(수)
	평균	표준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F	
예능(미술, 음악)	18.3	21.1	-	280.0	13.4	12.8	22.2	21.0	18.7	11.9	11.0	3.4**	(672)
체육관련	16.5	18.8	-	175.0	14.9	11.0	16.6	18.2	17.0	6.5	26.0	2.7*	(671)
수학/과학 관련	12.9	11.8	-	50.0	11.6	12.7	9.3	13.9	13.6	7.6	-	1.1	(25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4.0	19.7	-	175.0	13.3	9.4	28.5	14.5	12.1	3.4	-	2.0	(300)
영어	20.4	19.4	-	175.0	17.2	18.5	30.4	22.0	23.0	11.2	-	3.6**	(540)
기타	18.0	13.9	-	70.0	13.7	15.1	18.6	19.3	23.7	18.3	-	1.0	(11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4. 〈표 Ⅵ-4-7〉.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을 영유아별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예능과 관련하여 비용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아의 비용이 유아의 비용보다 5,600원 정도 높게 나타났

다. 지역규모별로는 예능과 언어관련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에서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가장 비용이 낮았다.

〈표 Ⅵ-4-12〉 제 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18.3	16.5	12.9	14.0	20.4	18.0
영유아구분						
영아	21.5	17.3	10.6	11.6	20.3	16.6
유아	15.9	16.0	13.6	14.8	20.5	18.9
t	2.4*	0.7	−1.5	−0.9	−0.1	−0.8
연령						
0세	5.5	2.5	10.0	10.0	-	-
1세	19.5	15.0	12.2	7.8	16.6	13.2
2세	22.7	18.7	9.4	14.0	21.4	18.2
3세	16.5	15.8	12.3	17.2	19.2	23.2
4세	15.1	16.3	11.8	11.3	19.9	18.5
5세	16.0	15.9	16.2	16.6	22.4	15.2
F	2.1	1.1	1.4	1.4	1.0	0.7
지역규모						
대도시	17.3	16.3	13.5	14.0	19.8	19.1
중소도시	20.6	17.0	12.5	16.4	22.3	17.4
읍·면	14.1	16.0	12.4	8.2	17.2	17.1
F	3.8*	0.5	0.8	3.7*	2.3	1.2
(수)	(672)	(671)	(250)	(300)	(540)	(11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5. 〈표 Ⅵ-4-8〉.
* $p < .05$.

영유아별로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은 전체 평균 53,3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으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유아의 지불 비용은 57,600원으로 영아의 47,400원에 비해 약 일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 월평균 비용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56,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에서 평균 45,4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과 민

간어린이집의 평균이 60,000원을 상회하여 높은 비용을 보였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Ⅵ-4-1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제 특성별 특별활동 평균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만원	2~3만원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표준편차	2018년	2015년
전체	20.8	1.9	3.4	7.0	15.8	35.4	11.8	3.1	0.9	100.0(831)	53.3	51.8	56.1	71.1
영유아구분														
영아	20.5	2.1	4.8	10.7	17.1	34.0	8.9	1.1	1.0	100.0(384)	47.4	52.7	49.0	53.8
유아	21.0	1.8	2.4	4.3	14.8	36.4	13.9	4.5	0.8	100.0(447)	57.6	50.8	58.9	76.7
$x^2(df)$					32.2(8)***						-3.3**			
연령														
0세	73.6	–	–	13.2	13.2	–	–	–	–	100.0(7)	7.9	14.2	44.4	–
1세	24.5	1.2	5.9	14.1	18.3	27.4	8.5	–	–	100.0(147)	37.3	32.9	39.2	–
2세	17.3	2.6	4.2	8.6	16.5	38.3	9.3	1.7	1.5	100.0(230)	53.9	60.5	51.3	–
3세	21.1	2.4	0.4	6.4	16.0	37.8	11.9	2.9	1.2	100.0(171)	54.2	49.4	56.9	–
4세	27.8	1.6	2.6	2.1	12.9	38.1	8.1	5.6	1.2	100.0(148)	55.6	56.5	58.3	–
5세	13.5	1.4	4.4	4.4	15.6	33.0	22.4	5.3	–	100.0(128)	63.8	44.9	61.6	–
$x^2(df)$					87.0(40)***						5.3***			
지역규모														
대도시	15.8	3.3	4.1	8.5	14.5	40.6	10.5	1.3	1.4	100.0(355)	53.0	46.0	59.5	71.0
중소도시	22.2	1.3	3.2	5.9	16.2	31.0	15.3	4.1	0.8	100.0(338)	56.6	59.2	58.6	71.5
읍·면	28.2	0.5	2.4	6.5	17.7	34.9	5.4	4.4	–	100.0(138)	45.4	42.0	44.7	70.6
$x^2(df)$					24.9						2.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8.6	2.5	3.7	13.5	24.9	26.7	8.1	1.0	1.1	100.0(198)	44.7	45.5	45.1	65.4
사회복지법인	27.6	2.2	7.9	5.6	14.7	35.5	5.4	–	1.0	100.0(57)	38.4	36.6	47.8	73.7
법인·단체등	23.8	–	4.5	8.4	9.8	36.4	14.4	–	2.7	100.0(31)	65.3	111.5	50.7	56.2
민간	18.3	2.2	2.4	3.5	11.9	40.2	16.4	4.3	0.7	100.0(432)	61.5	48.4	63.3	75.4
가정	25.9	–	6.4	11.7	15.4	34.1	1.7	3.7	1.2	100.0(83)	41.4	52.6	51.0	61.4
직장	48.0	–	–	3.8	17.0	25.5	1.6	4.1	–	100.0(29)	31.2	39.6	39.4	57.4
협동	–	–	–	–	100.0	–	–	–	–	100.0(1)	37.0	–	–	160.0
$x^2(df)$					91.0(48)***						4.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6. 〈표 Ⅵ-4-9〉.
** $p < .01$, *** $p < .001$.

마. 특별활동 이용 만족도 및 선호 프로그램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별활동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4.2점 범위에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거의 차이 없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3.9~4점에 비해 조금 만족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프로그램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표 Ⅵ-4-14〉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F	(수)	2018년 전체	2018년 (수)
예능(미술, 음악)	4.1	4.1	3.9	4.1	4.4	4.0	4.0	4.1	1.6	(672)	4.0	(1,061)
체육관련	4.2	4.2	4.0	4.1	4.4	4.1	4.0	4.2	1.9	(671)	4.0	(1,058)
수학/과학 관련	4.0	4.0	3.9	4.0	4.3	3.9	-	4.0	0.3	(250)	3.9	(31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2	4.0	4.2	4.0	4.5	3.6	-	4.0	1.5	(300)	3.9	(495)
영어	4.0	4.1	4.2	4.1	4.1	3.9	-	4.1	0.2	(540)	3.9	(770)
기타	4.4	4.0	3.7	4.2	4.1	3.6	-	4.2	1.2	(116)	3.9	(175)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7. 〈표 Ⅵ-4-10〉.

5.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의 구성 요소별, 영유아 특성별로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어린이집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가. 만족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부모가 만족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요소별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5점 척도에서 평균 4.10점의 만족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분포를 보면 만족 이상에 응답한 부모가 79.0%에 이르렀고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도 32.9%였다.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불만족)

고 응답한 비율은 2.5% 정도로 이전 연도 조사의 불만족 수준과 비슷하였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 점수를 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은 '교직원' 항목으로 4.27점이었다. 다음은 생활지도(4.20점), 안전관리(4.20점), 평상시 교육내용(4.16점) 순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부모참여 및 교육(3.94점), 시설환경(3.94점), 주변환경(3.98점)이었다. 불만족을 표한 비율이 높은 항목으로는 주변환경, 시설환경, 실내환경, 위기시 교육내용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도 조사에 비해 비용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만족도가 높아진 측면을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점수에 있어서도 2018년이나 2015년보다 0.07~0.08점 만족도가 높아졌다.

〈표 Ⅵ-5-1〉 어린이집 구성 요소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평균 (표준편차)
교직원(원장, 교사)	0.1	1.6	11.5	45.3	41.5	100.0(1,464)	4.27 (0.73)
주변환경	0.5	5.1	20.8	43.5	30.1	100.0(1,464)	3.98 (0.87)
시설환경(건축물관련)	0.4	4.6	23.4	43.9	27.6	100.0(1,464)	3.94 (0.85)
실내환경(교재·교구)	0.1	3.5	22.0	44.8	29.7	100.0(1,464)	4.00 (0.81)
비용	0.1	2.1	22.4	44.4	31.0	100.0(1,464)	4.04 (0.79)
건강관리	0.2	0.9	16.6	49.2	33.0	100.0(1,464)	4.14 (0.73)
급간식관리	0.3	1.8	15.8	47.2	35.0	100.0(1,464)	4.15 (0.77)
안전관리	-	0.5	14.5	49.1	35.9	100.0(1,464)	4.20 (0.70)
교육내용(평상시)	0.2	0.9	15.6	49.2	34.2	100.0(1,464)	4.16 (0.72)
교육내용(위기시)	0.4	3.4	16.5	46.4	33.3	100.0(1,464)	4.09 (0.81)
생활지도	-	0.5	15.6	48.8	35.1	100.0(1,464)	4.20 (0.70)
부모참여 및 교육	0.4	3.1	27.1	41.0	28.4	100.0(1,464)	3.94 (0.84)
전체 평균	0.2	2.3	18.5	46.1	32.9	100.0(1,464)	4.10 (0.65)
2018년	0.3	2.0	16.8	56.2	24.7	100.0(1,753)	4.03 (0.72)
2015년	0.3	2.0	19.5	52.0	26.2	100.0(1,745)	4.02 (0.7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39. 〈표 Ⅵ-5-1〉.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2점으로 가장 높고, 협동어린이집 4.30점,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4.23점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전반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부모 협동 어린이집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보다는 실내환경, 급간식 관리, 교육내용(평상시)가 각 4.67점으로 높아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반면, 대체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 참여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3.49점, 협동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만족가 3.72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2018년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직장어린이집 4.37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4.11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협동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4.7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4.39점으로 높았으며, 2012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다. 2021년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점수 자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5-2〉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단위: 점(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F*	(수)
교직원	4.31	4.12	4.34	4.19	4.36	4.74	4.19	4.4***	(1,464)
주변환경	3.97	3.80	4.11	3.96	4.00	4.35	3.99	3.4**	(1,464)
시설환경	4.03	3.67	3.98	3.86	3.91	4.53	3.99	7.6***	(1,464)
실내환경	4.10	3.75	4.14	3.93	3.96	4.55	4.67	7.1***	(1,464)
비용	4.18	3.87	4.20	3.88	4.14	4.72	3.72	11.2***	(1,464)
건강관리	4.19	3.99	4.33	4.05	4.19	4.73	4.07	8.4***	(1,464)
급간식관리	4.23	4.01	4.36	4.05	4.11	4.75	4.67	8.4***	(1,464)
안전관리	4.24	4.05	4.34	4.13	4.25	4.71	4.60	6.5***	(1,464)
교육내용(평상시)	4.15	3.98	4.22	4.13	4.21	4.63	4.67	6.1***	(1,464)
교육내용(위기시)	4.07	4.02	4.28	4.05	4.10	4.49	4.43	4.1***	(1,464)
생활지도	4.18	4.02	4.33	4.13	4.26	4.70	4.36	5.7***	(1,464)
부모참여 및 교육	4.04	3.49	4.12	3.87	3.93	4.51	4.28	8.1***	(1,464)
전체	4.15	3.93	4.23	4.02	4.12	4.62	4.30	-	(1,464)
2018년	4.11	4.07	4.09	3.97	4.01	4.37	-		(1,753)
2015년	4.08	4.15	3.80	3.97	4.09	4.39	4.78		(1,745)
2012년	3.85	3.69	3.86	3.65	3.67	4.13	4.08		(1,53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1. 〈표 Ⅵ-5-3〉.
** $p < .01$, *** $p < .001$.

영유아 여부 및 연령에 따라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 만족도가 유아에 비해 영아가 약간 높은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Ⅵ-5-3〉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평균점수

단위: 점(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F*
교직원	4.30	4.22	2.1*	4.35	4.31	4.28	4.22	4.24	4.22	1.1
주변환경	4.00	3.96	0.7	4.00	4.03	3.97	3.97	3.91	3.98	0.5
시설환경	3.92	3.96	−1.3	3.89	3.93	3.91	3.98	3.98	3.92	0.6
실내환경	3.99	4.03	−1.1	3.96	3.97	4.00	4.05	4.03	4.00	0.3
비용	4.08	4.00	2.2*	4.20	4.03	4.08	3.97	4.02	3.99	1.9
건강관리	4.15	4.13	0.7	4.16	4.14	4.16	4.09	4.14	4.15	0.3
급간식관리	4.13	4.17	−0.1	4.13	4.13	4.13	4.12	4.22	4.16	0.2
안전관리	4.22	4.19	0.5	4.19	4.19	4.24	4.12	4.22	4.22	0.6
교육내용(평상시)	4.17	4.15	0.6	4.09	4.15	4.22	4.09	4.22	4.15	0.7
교육내용(위기시)	4.11	4.06	1.3	4.12	4.06	4.14	4.03	4.09	4.08	0.7
생활지도	4.20	4.16	0.8	4.13	4.19	4.23	4.14	4.18	4.17	0.2
부모참여 및 교육	3.91	3.98	−1.3	3.89	3.89	3.92	3.96	4.00	3.98	0.4
전체 평균	4.10	4.08	2.2*	4.09	4.08	4.11	4.06	4.11	4.08	1.2
(수)	(847)	(617)		(140)	(330)	(377)	(238)	(195)	(184)	
2018년	4.02	4.04	−0.6	4.04	4.04	4.01	4.00	4.04	4.09	0.9
2015년	4.03	4.01	−0.7	4.09	4.00	4.05	4.03	4.05	4.04	0.9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2. 〈표 Ⅵ-5-4〉.
* $p < .05$.

지역규모와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시설환경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모가 휴직 중인 경우 취업모 가구나 미취업모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아 다수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가 약간 낮은 편이었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만족도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5-4〉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점수

단위: 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등	*F*
교직원	4.28	4.23	4.33	0.9	4.27	4.39	4.23	4.09	0.7
주변환경	3.99	3.94	4.05	1.7	3.95	4.25	3.95	3.78	3.5*
시설환경	3.98	3.88	4.00	3.5*	3.92	4.13	3.92	3.53	2.9*
실내환경	4.02	3.94	4.12	3.0	4.00	4.21	3.98	3.75	1.9
비용	4.07	3.99	4.10	0.3	4.06	4.11	4.00	3.73	1.3
건강관리	4.15	4.09	4.23	1.3	4.14	4.26	4.12	3.55	5.2**
급간식관리	4.20	4.07	4.22	1.3	4.14	4.30	4.13	3.72	3.1*
안전관리	4.23	4.14	4.28	1.6	4.19	4.36	4.19	3.80	3.9**
교육내용(평상시)	4.17	4.13	4.23	0.6	4.16	4.22	4.15	3.96	0.8
교육내용(위기시)	4.06	4.05	4.24	2.9	4.12	4.13	4.05	3.95	0.6
생활지도	4.20	4.15	4.24	0.9	4.19	4.27	4.17	3.80	2.9*
부모참여 및 교육	3.95	3.89	4.04	2.0	3.92	4.08	3.93	3.74	1.3
전체 평균	4.11	4.05	4.18	3.6*	4.10	4.24	4.07	3.79	1.3
(수)	(631)	(578)	(255)		(673)	(133)	(643)	(15)	
2018년	3.99	4.04	4.09	3.4**	4.06	4.16	3.98	4.37	5.5***
2015년	4.02	4.02	4.03	-	3.98	4.08	4.04	-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3. 〈표 Ⅵ-5-5〉.
* $p < .05$, ** $p < .01$, *** $p < .001$.

영아와 유아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영아(4.08)와 유아(4.09)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취업모의 경우는 유아(4.08)보다 영아(4.11)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취업모의 경우 읍면지역 영아 부모의 만족도 상향 수준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도시지역의 영아 어린이집 만족도도 일괄 상향되었다. 그간 영아 보육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 가서 이용의 애로점이 많았는데 영아 보육의 요구에 대응하는 노력이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혹은 영아의 경우 보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읍면지역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유아의 경우도 대체로 2018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서 만족도가 오히려 조금 낮아진 결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다.

〈표 Ⅵ-5-5〉 영유아 자녀별 모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취업		휴직중		미취업		전체		2021년 (수)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영아	4.11	4.04	4.19	4.09	4.03	4.00	4.08	4.03	(579)
대도시	4.07	3.96	4.13	4.13	4.05	3.98	4.07	3.99	(250)
중소도시	4.05	4.13	4.24	4.03	3.94	4.01	4.01	4.06	(226)
읍면지역	4.43	4.02	4.31	4.08	4.19	4.03	4.30	4.03	(103)
유아	4.08	4.06	4.25	4.22	4.09	3.96	4.09	4.03	(885)
대도시	4.11	4.03	4.26	4.16	4.12	3.93	4.13	4.00	(381)
중소도시	4.03	4.04	4.23	4.26	4.06	3.98	4.06	4.02	(352)
읍면지역	4.13	4.20	4.28	4.24	4.08	4.01	4.12	4.12	(152)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3)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0. 〈표 Ⅵ-5-2〉.

한편, 정부가 지정하여 국공립 수준에 준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2015년 결과와 유사하게 서울형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높았고 각 항목 전반에서 공공형의 만족도가 높았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공공형이 더 만족도가 높았으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공공형이나 서울형이 동일한 만족도를 보였다.

〈표 Ⅵ-5-6〉 어린이집 유형별(공공형, 서울형, 일반)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전체(민간+가정)			민간			가정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교직원(원장, 교사)	4.30	4.10	4.26	4.28	4.03	4.22	4.38	4.27	4.41
주변환경	4.12	3.65	3.98	4.06	3.68	3.98	4.33	3.56	3.96
시설환경(건축물관련)	4.08	3.65	3.88	4.03	3.62	3.86	4.25	3.71	3.92
실내환경(교재·교구)	4.13	3.67	3.93	4.11	3.53	3.93	4.21	4.00	3.96
비용	4.17	3.68	3.95	4.12	3.34	3.90	4.34	4.47	4.12
건강관리	4.13	3.86	4.12	4.12	3.74	4.10	4.15	4.13	4.19
급간식관리	4.01	4.01	4.11	4.11	3.90	4.10	3.63	4.27	4.14
안전관리	4.19	4.07	4.20	4.14	3.98	4.18	4.37	4.27	4.23
교육내용(평상시)	4.27	3.98	4.17	4.21	3.86	4.18	4.51	4.27	4.15
교육내용(위기시)	4.20	3.85	4.07	4.16	3.67	4.08	4.38	4.27	4.05
생활지도	4.28	4.03	4.16	4.21	3.86	4.17	4.54	4.43	4.15

구분	전체(민간+가정)			민간			가정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공공형	서울형	일반
부모참여 및 교육	4.09	3.86	3.86	4.13	3.72	3.85	3.94	4.21	3.88
2021년 전체 평균	4.16	3.87	4.06	4.14	3.74	4.04	4.25	4.16	4.10
(수)	(89)	(23)	(425)	(73)	(15)	(316)	(16)	(8)	(109)
2018년	4.10	4.03	3.96	4.08	3.95	3.96	4.21	4.21	3.98
2015년	4.14	4.11	3.96	4.16	4.00	3.92	4.03	4.56	4.07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어린이집 이용 사례 중 해당어린이집을 공공형, 서울형,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4. 〈표 Ⅵ-5-6〉.

나. 개선 요구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개선 요구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23.6% 비율을 보인 보육 인력 증원이었다. 다음으로 인력의 질 제고, 노후시설 정비, 안전관리 강화의 순을 보였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는 대부분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32.7%, 30.1%로 높은 1순위 비율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법인단체 등 유형과 직장어린이집은 인력증원을 1순위로 요구하는 비율을 높았다.

〈표 Ⅵ-5-7〉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인력 증원	26.8	16.7	25.0	21.5	21.2	46.7	-	23.6
인력의 질 제고	20.9	11.7	19.9	18.1	14.2	10.2	24.1	17.9
노후 시설 정비	6.0	15.7	13.7	12.2	8.9	4.8	32.9	10.0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5.8	8.2	4.7	6.6	11.3	1.7	-	6.8
비용 절감	1.5	6.7	-	5.2	3.5	-	35.5	3.7
안전관리 강화	9.1	8.4	18.3	10.6	10.7	2.8	-	10.0
교육내용 다양화	29.9	32.7	18.4	25.9	30.1	33.9	7.4	2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1,46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사항 요구를 1+2순위 응답 결과를 합쳐서 보면 다음의 〈표 Ⅵ-5-8〉에서 보는 결과와 같다. 1순위 응답만의 결과와 비교하면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동일하나 두 번째로는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을 짚어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인력의 질 제고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Ⅵ-5-8〉 어린이집 유형별 개선 사항(1+2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2018
인력 증원	37.5	28.7	33.3	30.6	36.0	58.6	59.7	34.4	35.9
인력의 질 제고	41.7	24.5	38.5	35.4	33.2	36.9	64.5	36.6	37.4
노후 시설 정비	12.0	26.0	30.5	22.7	18.1	11.0	32.9	19.1	16.4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14.1	20.3	12.0	20.9	22.7	5.8	-	18.1	16.8
비용 절감	6.6	8.2	8.7	11.7	5.7	-	35.5	8.8	12.7
안전관리 강화	27.0	25.4	26.5	28.3	27.7	17.8	-	27.1	25.3
교육내용 다양화	61.1	67.0	50.5	50.5	56.6	69.9	7.4	55.8	47.8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수)	(390)	(107)	(58)	(650)	(200)	(55)	(4)	(1,464)	(1,75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 2.0이 있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48. 〈표 Ⅵ-5-9〉.

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현행 보다 인상한다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가정양육을 할 경우 양육수당의 인상 희망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기관 이용 중단 의향을 알아보면 '기관에 계속 다님'으로 응답한 비율이 85.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만두고 다른 데 보냄'과 '그만두고 집에서 봄'이 각각 3.5%와 5.9%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0세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인상 시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다'는 응답 비율이 10.9%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이 중소도시지역에서 8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협동어린이집(100%)과 법인·단체 등 어린

이집(93.7%)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관에 계속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만원 이상(90.1%)인 경우에 90%를 상회하였다.

앞서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기관에 계속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에는 87.8%, 2015년에는 85.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시에는 기관 이용을 중단한다고 응답한 경우, 양육수당 희망 인상액은 평균 48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0세의 경우 663,000원으로 그 평균비용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 584,000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2021년 조사에서 양육수당 희망 인상액은 평균 485,000원으로 2015년 조사 시 219,000원, 2018년에는 280,000원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Ⅵ-5-9〉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희망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봄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5.7	3.5	5.9	5.0	100.0(1,464)	48.5	35.0	(126)
연령								
0세	80.8	2.9	10.9	5.3	100.0(140)	66.3	55.0	(15)
1세	86.0	2.8	4.1	7.1	100.0(330)	53.7	34.8	(26)
2세	86.8	2.9	5.7	4.6	100.0(377)	45.2	31.5	(32)
3세	86.1	2.0	6.7	5.2	100.0(238)	39.0	21.0	(18)
4세	86.4	5.3	5.7	2.6	100.0(195)	38.2	24.7	(18)
5세	84.2	5.4	5.9	4.6	100.0(184)	58.2	38.0	(17)
지역규모								
대도시	84.0	4.1	6.1	5.7	100.0(631)	43.0	34.7	(57)
중소도시	89.2	3.8	4.2	2.9	100.0(578)	49.6	33.7	(45)
읍·면	80.7	1.2	9.6	8.5	100.0(255)	58.4	35.5	(24)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83.8	4.2	6.6	5.4	100.0(390)	46.8	36.6	(38)
사회복지법인	88.0	0.5	3.1	8.3	100.0(107)	100.4	43.6	(5)
법인·단체 등	93.7	-	6.3	-	100.0(58)	60.8	30.9	(6)
민간	86.1	3.7	5.4	4.7	100.0(650)	49.1	32.4	(51)
가정	83.9	3.8	6.3	6.0	100.0(200)	44.6	32.0	(22)
직장	88.3	1.7	8.4	1.7	100.0(55)	33.2	29.7	(4)
협동	100.0	-	-	-	100.0(4)	-	-	-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기관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희망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봄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249만원 이상	89.2	0.8	4.6	5.4	100.0(87)	33.4	22.3	(6)
250~299만원	86.9	1.3	7.2	4.7	100.0(71)	39.9	31.7	(7)
300~349만원	82.7	2.7	9.5	5.0	100.0(215)	49.4	36.5	(23)
350~399만원	86.8	1.0	6.1	6.1	100.0(118)	37.3	20.3	(10)
400~499만원	79.4	7.1	8.4	5.1	100.0(285)	39.0	26.8	(36)
500~599만원	87.3	1.5	5.9	5.3	100.0(278)	75.1	32.5	(17)
600~699만원	88.6	4.8	4.5	2.1	100.0(174)	45.3	23.4	(14)
700만원 이상	90.1	3.3	1.0	5.7	100.0(216)	64.2	58.8	(12)
모름/무응답	80.7	10.1	-	9.2	100.0(20)	10.0	-	(1)
2018년	87.8	4.3	5.7	2.2	100.0(1,753)	28.0	17.9	(164)
2015년	85.8	2.0	7.0	5.2	100.0(1,745)	21.9	13.8	(14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49-350. 〈표 Ⅵ-5-10〉.

6. 연장보육과 취약보육

본 절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2020년부터 도입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이용 현황과 함께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의 활용률, 이용 요일 및 시간대 등 이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연장보육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은 현재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에 대한 부분은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1) 연장보육 이용

현재 연장보육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기본보육만 이용한다는 경우가 73.2%, 연장보육까지 이용하는 경우는 26.8%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78.4%), 중소도시(71%), 읍·면지역(67.2%)의 순서로 기본보육 이용비율이 높았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연장보육까지 이용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표 Ⅵ-6-1〉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기본보육만 이용	연장보육까지 이용	계(수)
전체	73.2	26.8	100.0(1,464)
연령			
0세	73.3	26.7	100.0(140)
1세	73.7	26.3	100.0(330)
2세	69.9	30.1	100.0(377)
3세	76.0	24.0	100.0(238)
4세	73.4	26.6	100.0(195)
5세	75.4	24.6	100.0(184)
$x^2(df)$	4.5(5)		
지역규모			
대도시	78.4	21.6	100.0(631)
중소도시	71.0	29.0	100.0(578)
읍·면	67.2	32.8	100.0(255)
$x^2(df)$	12.5(2)**		
모취업 여부			
취업	57.1	42.9	100.0(673)
휴직중	91.3	8.7	100.0(133)
미취업	87.6	12.4	100.0(643)
부재 등	62.6	37.4	100.0(15)
$x^2(df)$	172.9(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현재 연장보육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 그 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이용이유는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경우가 85.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이유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어서 16.7%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규모별로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읍·면지역에서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안심이 된다는 응답비율(21.9%)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비율 94.2%로 다른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Ⅵ-6-2〉 연장보육 이용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돌볼사람 없음	연장보육이 가장 안심됨	프로그램이 마음에 듦	전담교사가 마음에 듦	기타	계(수)
전체	85.3	16.7	5.0	2.8	3.8	(388)
연령						
0세	96.9	8.9	0.7	1.9	-	(33)
1세	90.8	11.6	2.2	2.3	0.8	(89)
2세	86.7	18.5	5.4	4.5	3.2	(108)
3세	82.0	18.7	7.7	-	3.9	(54)
4세	82.3	14.0	8.9	4.0	7.4	(58)
5세	75.7	25.0	2.7	2.0	7.3	(46)
지역규모						
대도시	84.5	10.3	7.4	4.7	6.0	(138)
중소도시	87.6	18.7	3.6	2.1	3.6	(170)
읍·면	81.7	21.9	4.3	1.6	0.9	(80)
모취업 여부						
취업	94.2	13.9	3.1	2.7	1.4	(287)
휴직중	66.1	28.1	-	5.8	5.8	(13)
미취업	56.5	27.0	9.5	2.8	13.1	(82)
부재 등	38.1	-	61.9	-	-	(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현재 연장보육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 연장보육 시 어린이집에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저녁간식만 제공하는 경우는 34.6%, 저녁 급간식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12.2%, 저녁급식만 제공하는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모취업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모의 경우 저녁 급간식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12.3%), 저녁 급식 제공하는 경우(4.3%)에의 응답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표 Ⅵ-6-3〉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제공 여부

단위: %(명)

구분	저녁 급간식 모두	저녁 간식만	저녁 급식만	미제공	계(수)
전체	12.2	34.6	3.7	49.5	100.0(388)
연령					
0세	9.5	37.9	11.0	41.6	100.0(33)
1세	11.2	40.0	0.8	48.0	100.0(89)
2세	12.3	25.9	3.5	58.2	100.0(108)
3세	10.8	44.2	3.4	41.7	100.0(54)
4세	17.1	33.6	6.1	43.2	100.0(58)
5세	10.6	34.4	3.2	51.9	100.0(46)

구분	저녁 급간식 모두	저녁 간식만	저녁 급식만	미제공	계(수)
$x^2(df)$		17.8(15)			
지역규모					
대도시	16.7	33.4	5.1	44.8	100.0(138)
중소도시	10.6	32.5	4.1	52.8	100.0(170)
읍·면	8.9	41.0	0.9	49.2	100.0(80)
$x^2(df)$		4.1(6)			
모취업 여부					
취업	12.3	33.6	4.3	49.9	100.0(287)
휴직중	-	33.3	-	66.7	100.0(13)
미취업	10.7	38.4	2.5	48.5	100.0(82)
부재 등	61.9	38.1	-	-	100.0(6)
$x^2(df)$		22.3(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현재 연장보육 시 어린이집에서 저녁 급식이나 간식 제공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경우에 그 비용의 부담을 누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7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는 19.2%,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는 경우는 1.5%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서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응답비율이 85.2%로 대도시(69.4%)나 읍·면지역(76.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Ⅵ-6-4〉 연장보육 시 저녁 급간식 비용 부담

단위: %(명)

구분	부모 부담	어린이집 제공	집에서 도시락	기타	계(수)
전체	19.2	77.9	1.5	1.5	100.0(201)
연령					
0세	17.5	80.2	-	2.4	100.0(19)
1세	20.5	76.2	-	3.3	100.0(46)
2세	26.1	68.8	2.8	2.3	100.0(48)
3세	14.0	81.6	4.3	-	100.0(34)
4세	24.5	75.5	-	-	100.0(30)
5세	4.4	95.6	-	-	100.0(24)
$x^2(df)$		13.9(15)			
지역규모					
대도시	25.9	69.4	4.2	0.5	100.0(75)
중소도시	11.9	85.2	-	2.9	100.0(84)
읍·면	23.2	76.8	-	-	100.0(42)
$x^2(df)$		13.4(6)*			
모취업 여부					

구분	부모 부담	어린이집 제공	집에서 도시락	기타	계(수)
취업	20.5	75.7	1.9	1.9	100.0(146)
휴직중	-	100.0	-	-	100.0(6)
미취업	13.9	86.1	-	-	100.0(43)
부재 등	38.1	61.9	-	-	100.0(6)
$x^2(df)$		8.1(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현재 연장보육 시 어린이집에서 저녁 급식이나 간식 제공을 받고 있고 그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고 답한 경우에 한 달 저녁 급식이나 간식비용 평균은 약 32,500원으로 조사되었고,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90,000원까지로 나타났다.

〈표 Ⅵ-6-5〉 연장보육 시 월 기준 저녁 급간식 비용

단위: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32,479	18,503	10,000	90,000	(35)
연령					
0세	32,158	19,309	20,000	70,000	(3)
1세	34,275	25,167	10,000	90,000	(8)
2세	32,723	14,047	10,000	50,000	(11)
3세	25,979	12,931	12,500	50,000	(5)
4세	33,100	19,181	10,000	70,000	(7)
5세	40,000	0	40,000	40,000	(1)
F		0.3			
지역규모					
대도시	35,226	14,060	12,500	70,000	(19)
중소도시	40,313	23,448	20,000	90,000	(9)
읍·면	19,302	11,571	10,000	40,000	(7)
F		3.2			
모취업 여부					
취업	33,028	19,935	10,000	90,000	(29)
휴직중	-	-	-	-	-
미취업	27,096	9,570	20,000	40,000	(4)
부재 등	40,000	0	40,000	40,000	(2)
F		0.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 및 긴급 연장보육 이용

연장보육 미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장보육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

는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고, 장시간보육 비선호(=이이 발달에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21.5%, 코로나19 감염우려 때문인 경우가 11.5%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0세, 1세, 2세에서,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에서 연장보육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또한 어머니가 휴직 중이나 미취업의 경우에도 연장보육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표 Ⅵ-6-6〉 연장보육 미이용 이유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불필요	장시간보육의 비선호	프로그램 불만족	연장보육 미운영	학원 등 이용	코로나19 감염우려	기타	계(수)
전체	69.2	21.5	3.5	2.1	6.3	11.5	4.0	(1,076)
연령								
0세	75.1	23.0	0.9	2.3	-	16.4	-	(107)
1세	74.8	25.2	3.6	2.5	-	8.9	4.6	(241)
2세	70.8	21.4	0.7	3.2	1.3	12.8	4.7	(269)
3세	67.5	21.9	3.1	2.3	4.8	6.3	4.6	(184)
4세	64.9	19.2	7.0	0.7	15.3	11.6	2.6	(137)
5세	62.6	17.8	6.3	1.1	18.9	16.6	4.4	(138)
지역규모								
대도시	68.8	23.4	3.8	1.9	4.2	11.4	3.3	(493)
중소도시	67.6	22.3	4.1	2.8	8.5	13.5	4.1	(408)
읍·면	74.4	14.2	1.3	1.1	5.9	6.5	5.7	(175)
모취업 여부								
취업	59.9	25.4	4.6	2.0	9.5	15.0	3.8	(386)
휴직중	75.6	16.6	4.4	1.9	3.5	12.2	4.1	(120)
미취업	74.6	20.0	2.6	2.3	4.7	8.5	4.2	(561)
부재 등	66.3	-	-	-	-	33.7	-	(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0.6%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연령별로는 3세(23.1%), 4세(27.3%), 5세(25.7%)에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23.1%)와 읍·면지역(22.7%)에서 긴급한 연장보육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6-7〉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계(수)
전체	20.6	79.4	100.0(1,076)
연령			
0세	14.3	85.7	100.0(107)
1세	13.4	86.6	100.0(241)
2세	19.5	80.5	100.0(269)
3세	23.1	76.9	100.0(184)
4세	27.3	72.7	100.0(137)
5세	25.7	74.3	100.0(138)
$x^2(df)$	20.5(5)**		
지역규모			
대도시	17.4	82.6	100.0(493)
중소도시	23.1	76.9	100.0(408)
읍·면	22.7	77.3	100.0(175)
$x^2(df)$	2.4(2)		
모취업 여부			
취업	21.4	78.6	100.0(386)
휴직중	20.2	79.8	100.0(120)
미취업	20.3	79.7	100.0(561)
부재 등	9.8	90.2	100.0(9)
$x^2(df)$	4.5(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 9.3%가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다고 하였고, 90.7%는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하였다.

〈표 Ⅵ-6-8〉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이용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9.3	90.7	100.0(204)
연령			
0세	4.3	95.7	100.0(15)
1세	10.6	89.4	100.0(27)
2세	6.9	93.1	100.0(50)
3세	12.4	87.6	100.0(42)
4세	10.2	89.8	100.0(35)
5세	8.7	91.3	100.0(35)
$x^2(df)$	2.1(5)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10.2	89.8	100.0(84)
중소도시	11.3	88.7	100.0(86)
읍·면	2.5	97.5	100.0(34)
$x^2(df)$	3.1(2)		
모취업 여부			
취업	15.0	85.0	100.0(85)
휴직중	1.7	98.3	100.0(24)
미취업	6.8	93.2	100.0(94)
부재 등	-	100.0	100.0(1)
$x^2(df)$	2.6(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경우에 가장 많이 지적한 애로사항은 어린이집에 눈치가 보인다는 것(54.4%)이며, 다음은 아이의 적응이 어려워서(25.7%), 담임교사의 하원지도 못 받는 것(10.8%)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6-9〉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명)

구분	담임 하원지도 부재	아이 적응 어려움	어린이집 눈치	기타	계(수)
전체	10.8	25.7	54.4	9.1	100.0(24)
연령					
0세	-	100.0	-	-	100.0(1)
1세	17.6	-	82.4	-	100.0(3)
2세	-	36.3	63.7	-	100.0(5)
3세	13.2	15.6	64.4	6.8	100.0(6)
4세	21.5	18.7	41.9	17.9	100.0(6)
5세	-	53.2	27.0	19.8	100.0(3)
$x^2(df)$	10.4(15)				
지역규모					
대도시	12.2	37.4	36.9	13.4	100.0(12)
중소도시	10.8	19.9	62.4	6.9	100.0(11)
읍·면	-	-	100.0	-	100.0(1)
$x^2(df)$	2.5(6)				
모취업 여부					
취업	-	19.3	66.0	14.7	100.0(13)
휴직중	-	100.0	-	-	100.0(1)
미취업	30.0	32.7	37.3	-	100.0(10)
$x^2(df)$	11.2(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취약보육 이용

취약보육(야간 연장 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취약 보육 중에서 조금이나마 활용 빈도가 높은 형태는 '야간 연장 보육'으로, 전체 응답자의 3.3%가 이용했다고 응답했으며, 활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 '주 3회 이상'이 1.1%로 가장 높았다.

야간12시간보육은 2.8%, 24시간보육은 0.3%, 휴일보육은 2.9%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야간연장보육의 경우 이전 연도 조사들에 비해 이용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표 Ⅵ-6-10〉 취약보육의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없음	월1~2회	월3~4회	주1~2번	주3회 이상	계(수)
2021년						
야간연장보육	96.7	0.8	0.7	0.7	1.1	100.0(1,464)
야간12시간보육	97.2	0.8	0.2	0.5	1.3	100.0(1,464)
24시간보육	99.7	0.1	0.1	0.1	-	100.0(1,464)
휴일보육	97.1	1.7	0.6	0.3	0.4	100.0(1,464)
2018년						
시간연장보육	95.5	2.0	0.4	0.9	1.2	100.0(1,753)
24시간보육	99.9	-	0.1	-	-	100.0(1,753)
휴일보육	99.0	0.7	0.1	0.1	0.1	100.0(1,753)
2015년						
시간연장보육	93.0	3.2	0.7	1.1	2.0	100.0(1,745)
24시간보육	98.6	1.2	0.1	0.1	-	100.0(1,745)
휴일보육	97.8	1.5	0.4	0.2	0.1	100.0(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51. 〈표 Ⅵ-6-1〉.

야간 연장 보육을 주로 이용하는 요일은 '평일' 88.2%로 '토요일' 11.8%보다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의 경우 '평일' 응답이 100.0%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의 경우, '평일'에 대한 응답이 각각 81.6%, 71.5%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Ⅵ-6-11〉 야간연장보육 주로 이용 하는 요일

단위: %(명)

구분	평일	토요일	계(수)	$x^2(df)$
전체	88.2	11.8	100.0(89)	
영유아구분				
영아	93.0	7.0	100.0(40)	2.0(1)
유아	85.2	14.8	100.0(49)	
연령				
0세	79.6	20.4	100.0(17)	
1세	100.0	-	100.0(13)	
2세	100.0	-	100.0(10)	5.3(5)
3세	73.9	26.1	100.0(15)	
4세	96.0	4.0	100.0(16)	
5세	86.7	13.3	100.0(18)	
지역규모				
대도시	100.0	-	100.0(40)	
중소도시	81.6	18.4	100.0(35)	8.3(2)*
읍·면	71.5	28.5	100.0(14)	
모취업 여부				
취업	83.3	16.7	100.0(60)	
휴직중	100.0	-	100.0(6)	4.8(3)
미취업	100.0	-	100.0(20)	
부재 등	100.0	-	100.0(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8.7	11.3	100.0(14)	
사회복지법인	100.0	-	100.0(1)	2.1(4)
민간	83.7	16.3	100.0(24)	
가정	100.0	-	100.0(4)	
직장	100.0	-	100.0(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취약보육 중 야간연장보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필요 없음' 응답은 89.2%였으나 이는 12시간보육이나 24시간보육, 휴일보육보다 낮은 비율이다. '24시간 보육' 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96.2%로 가장 높았고 '야간 12시간 보육' 및 '휴일 보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각각 92.5%, 92.1%였다. 야간연장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2.4%였다.

〈표 Ⅵ-6-12〉 취약보육 유형별 필요 빈도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야간연장보육	2.4	3.0	2.9	2.5	89.2	100.0(3,471)
야간12시간보육	1.6	2.0	2.1	1.9	92.5	100.0(3,471)
24시간보육	0.5	0.6	1.1	1.6	96.2	100.0(3,471)
휴일보육	1.0	0.9	3.0	3.0	92.1	100.0(3,47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취약 보육이 필요성에 대해 영향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야간 연장 보육'의 경우와 '야간 12시간 보육'의 경우 각각 '필요 없음' 응답이 89.2%, 92.5%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야간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영아의 경우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3.4%로 많았고, 유아의 경우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2.9%로 가장 많았다. '야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세부터 4세까지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육 필요 시간이 줄어드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1세의 경우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3.6%, 2세의 경우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3.4%, 3세의 경우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4.0%, 4세의 경우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 '야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8%로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야간 연장 보육'이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4.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 '야간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3%로 가장 높았고, 특히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1.4%로 매우 높았다. 또, 취업모 가정의 경우, '상시'(2.7%) 필요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1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4%대로 높았다.

'야간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영아의 경우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많았고, 유아의 경우 '한 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2.0%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야간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0세와 5세의 경우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5%, 2.6%로 높았고, 1세와 3세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4%, 3.5%로 높았다. 2세와 4세의 경우는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3%, 2.8%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야간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로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의 경우가 6.3%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와 읍·면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9%, 2.8%로 가장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야간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로 가장 높았고, 특히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표 Ⅵ-6-13〉 야간연장보육·야간12시간보육의 필요 빈도

단위: %(명)

구분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 보육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전체	2.4	3.0	2.9	2.5	89.2	100.0(3,471)	1.6	2.0	2.1	1.9	92.5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2.9	3.4	2.9	2.0	88.8	100.0(1,679)	1.7	2.2	2.1	1.8	92.2	100.0(1,679)
유아	2.0	2.7	2.9	2.9	89.5	100.0(1,792)	1.4	1.8	2.0	2.0	92.7	100.0(1,792)
$x^2(df)$			8.7(4)**						5.0(4)*			
연령												
0세	3.1	4.3	2.3	1.0	89.4	100.0(780)	2.0	2.5	1.5	0.9	93.1	100.0(780)
1세	3.6	2.2	3.0	2.6	88.5	100.0(472)	1.4	2.2	3.4	2.3	90.7	100.0(472)
2세	2.1	3.4	3.3	2.7	88.5	100.0(427)	1.7	2.0	1.5	2.3	92.5	100.0(427)
3세	2.7	2.1	4.0	1.5	89.7	100.0(486)	1.5	1.4	3.5	2.4	91.1	100.0(486)
4세	1.9	2.9	2.0	5.0	88.2	100.0(630)	1.4	1.4	1.4	2.8	93.0	100.0(630)
5세	1.6	2.9	2.8	1.9	90.7	100.0(676)	1.4	2.6	1.4	1.0	93.6	100.0(676)
$x^2(df)$			25.9(20)*						26.1(20)*			
지역규모												
대도시	2.1	2.2	2.6	1.9	91.2	100.0(1,565)	1.5	1.9	1.7	1.2	93.7	100.0(1,565)
중소도시	3.2	3.1	3.4	3.1	87.2	100.0(1,324)	1.7	1.8	2.5	2.4	91.6	100.0(1,324)
읍·면	1.4	4.8	2.1	2.4	89.3	100.0(582)	1.4	2.8	1.8	2.5	91.4	100.0(582)
$x^2(df)$			38.6(8)***						23.5(8)**			
모취업여부												
취업	2.7	4.0	4.2	4.0	85.2	100.0(1,340)	1.8	2.3	2.8	2.7	90.4	100.0(1,340)
휴직중	3.3	3.7	2.7	1.9	88.4	100.0(430)	2.2	1.8	2.1	2.0	91.9	100.0(430)
미취업	1.8	2.0	1.8	1.2	93.2	100.0(1,670)	1.1	1.8	1.4	1.2	94.4	100.0(1,670)
부재 등	11.4	-	-	7.9	80.7	100.0(31)	3.6	-	-	4.0	92.4	100.0(31)
$x^2(df)$			87.0(12)***						28.1(1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취약보육 중 '24시간 보육'과 '휴일 보육'의 경우 각각 '필요 없음' 응답이 96.1%, 92.1%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경우, ‘24시간 보육’에 대해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97.0%로 영아(95.3%)에 비해 높았고, 영아와 유아의 경우 모두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1%와 1.2%로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24시간 보육’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은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1세 때 5.3%, 0세 때 4.7%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다. ‘24시간 보육’에 대해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과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 모두 1세 때 각각 1.7%, 3.2%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에 사는 경우에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고,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2.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부재한 가정의 경우 ‘12시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았고, 특히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3.6%로 매우 높았다. 또, 취업모 가정의 경우,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2.2%로 가장 많았고, 휴직중인 가정도 이와 같았다.

‘휴일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아의 경우 8.1%로 7.6%인 유아에 비해 높았다. 이 중 영아의 경우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유아의 경우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3.0%로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휴일 보육’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2세 때 9.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에 사는 경우에 ‘휴일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9.5%였고, 대도시는 5.4%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와 읍·면의 경우,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2%, 3.9%로 높았던 것에 비해 중소도시에서는 ‘한 달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중인 가정의 경우 ‘휴일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로 가장 높았고, 특히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로 매우 높았다. 취업모 가정의 경우에도 ‘1년에 1~2번’ 필요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표 Ⅵ-6-14〉 24시간보육·휴일보육의 필요 빈도

단위: %(명)

구분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상시	1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필요 없음	계(수)
전체	0.5	0.6	1.1	1.6	96.1	100.0(3,471)	1.0	0.9	3.0	3.0	92.1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0.5	0.8	1.3	2.1	95.3	100.0(1,679)	1.1	1.1	3.1	2.9	91.9	100.0(1,679)
유아	0.5	0.4	0.9	1.2	97.0	100.0(1,792)	0.9	0.8	2.9	3.0	92.4	100.0(1,792)
$x^2(df)$			13.8(4)**						7.0(4)*			
연령												
0세	1.0	1.2	1.3	1.3	95.3	100.0(780)	1.4	1.3	3.2	2.0	92.2	100.0(780)
1세	-	0.4	1.7	3.2	94.7	100.0(472)	0.2	0.7	3.7	2.8	92.7	100.0(472)
2세	0.6	0.6	0.9	2.0	95.9	100.0(427)	1.7	1.1	2.6	3.9	90.7	100.0(427)
3세	0.2	0.2	1.4	1.2	97.0	100.0(486)	0.8	0.2	4.7	2.2	92.0	100.0(486)
4세	0.8	0.6	0.7	2.0	95.9	100.0(630)	1.1	0.8	2.2	4.6	91.3	100.0(630)
5세	0.5	0.3	0.7	0.5	98.0	100.0(676)	0.7	1.1	2.3	2.3	93.7	100.0(676)
$x^2(df)$			34.3(20)**						29.7(20)**			
지역규모												
대도시	0.5	0.1	1.3	0.9	97.1	100.0(1,565)	0.9	0.5	1.8	2.2	94.6	100.0(1,565)
중소도시	0.5	0.7	0.9	1.8	96.1	100.0(1,324)	1.0	0.9	4.3	3.3	90.5	100.0(1,324)
읍·면	0.7	1.4	0.9	2.8	94.3	100.0(582)	1.2	1.9	2.9	3.9	90.0	100.0(582)
$x^2(df)$			36.4(8)***						40.7(8)***			
모취업여부												
취업	0.6	0.3	0.8	2.2	96.1	100.0(1,340)	1.6	0.6	4.5	4.3	89.0	100.0(1,340)
휴직중	0.7	1.6	1.4	2.2	94.2	100.0(430)	1.1	1.6	2.9	4.0	90.4	100.0(430)
미취업	0.4	0.6	1.2	0.9	97.0	100.0(1,670)	0.4	0.9	1.8	1.5	95.4	100.0(1,670)
부재 등	3.6	-	2.7	1.9	91.8	100.0(31)	3.6	-	1.9	2.1	92.4	100.0(31)
$x^2(df)$			26.8(12)**						56.5(1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1$, *** $p < .001$.

다. 긴급 상황 시 자녀 돌봄 기관 또는 인력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부모'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아, 긴급한 상황에서는 72.5%, 아이가 아플 때는 77.8%가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하였다. '부모' 이외에는 '조부모 및 친인척'과 같은 혈연관

계의 사람이 긴급상황시 26.2%, 아이가 아플 때 21.1%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 '비혈연'이나 '공공 아이돌보미' 등은 1%내의 낮은 응답비중을 보였다.

영유아에 따라 큰 응답 차이는 없었지만, 긴급한 상황과 아이가 아플 때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조부모 및 친인척'이라는 응답은 유아의 경우 각각 29.8%, 24.2%로 영아의 경우(21.9%, 17.3%) 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큰 차이는 없었지만, 0세와 1세일 때 '부모'가 아이를 돌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이가 아플 때의 5세를 제외하고,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본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모가 취업 중인 경우 부모가 아닌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긴급상황 발생시 48.8%, 아이가 아플 때 38.6%로 현격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모가 부재하는 가정에서도 부모 외 혈연관계의 사람이 돌본다는 응답이 긴급상황 발생시 51.7%, 아이가 아플 시 51.2%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Ⅵ-6-15〉 긴급상황 시 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시설

단위: %(명)

구분	긴급시				아플 때					계(수)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공공아이 돌보미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집	공공아이 돌보미	
전체	72.5	26.2	0.8	0.5	77.8	21.1	0.7	-	0.4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76.9	21.9	0.6	0.6	81.6	17.3	0.6	-	0.5	100.0(1,679)
유아	68.8	29.8	0.9	0.5	74.7	24.2	0.7	0.1	0.3	100.0(1,792)
$x^2(df)$		37.9(3)***					27.7(4)***			
연령										
0세	79.1	19.8	0.6	0.4	83.2	15.8	0.6	-	0.3	100.0(780)
1세	79.1	19.1	1.0	0.8	82.9	15.5	1.0	-	0.6	100.0(472)
2세	72.2	26.9	0.2	0.6	78.6	20.8	0.2	-	0.4	100.0(427)
3세	67.4	31.7	0.5	0.4	73.5	26.0	0.5	-	0.1	100.0(486)
4세	67.6	30.6	1.5	0.4	73.4	25.4	0.8	0.2	0.1	100.0(630)
5세	71.0	27.6	0.7	0.6	76.9	21.7	0.7	-	0.6	100.0(676)
$x^2(df)$		55.4(15)***					46.5(20)***			
지역규모										
대도시	71.2	27.2	1.3	0.3	74.8	23.4	1.3	0.1	0.4	100.0(1,565)
중소도시	71.8	27.1	0.5	0.6	79.0	20.4	0.3	-	0.4	100.0(1,324)
읍·면	77.4	21.7	0.1	0.8	82.5	17.1	0.1	-	0.3	100.0(582)
$x^2(df)$		9.0(6)					13.0(8)			
모취업여부										
취업	48.4	48.8	1.7	1.1	59.2	38.6	1.4	0.1	0.7	100.0(1,340)
휴직중	82.5	17.3	0.2	-	85.3	14.5	0.2	-	-	100.0(430)

구분	긴급시				아플 때					계(수)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공공아이돌보미	부모	조부모 및 친인척	비혈연	어린이집	공공아이돌보미	
미취업	91.8	7.9	0.1	0.2	93.0	6.7	0.1	-	0.2	100.0(1,670)
부재 등	48.3	51.7	-	-	48.8	51.2	-	-	-	100.0(31)
$x^2(df)$	704.0(9)***				546.5(1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01$.

7. 시간제보육 이용 실태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과 관련된 이용 시간, 방문 관련 사항, 이용만족도 등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영아 자녀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사에서 2.6%로 나타났고 97.4%는 이용 경험이 없었다.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1.2%, '1년에 1~2번 이용한다는 응답이 0.6%, '1주일에 2~3번' 0.5%, '한 달에 1~2번'이 0.3%, '1주일에 1번' 0.1%로 다양했다. 이용할 때 평균 이용 시간은 106.5분 정도였다. 다만,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자가 전체의 2.6%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 살펴보자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 경험 없음'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 취업여부 별로는 취업모 가정의 경우,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2.7%로 다른 가정에 비해 많았다.

〈표 Ⅵ-7-1〉 제 특성별 시간제보육 이용주기 및 건당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이용 주기							건당 이용 시간		(수)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이용경험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0.5	0.1	0.3	0.6	97.4	100.0(1,265)	106.5	135.0	(30)
영유아구분										
영아	1.2	0.5	0.1	0.3	0.6	97.4	100.0(1,265)	106.5	135.0	(30)
연령										
0세	0.8	0.2	0.1	0.1	0.4	98.3	100.0(315)	132.9	147.7	(12)
1세	1.2	0.9	-	0.4	0.2	97.3	100.0(515)	126.1	154.9	(11)
2세	2.3	-	-	0.5	3.3	94.0	100.0(435)	47.7	17.4	(7)
지역규모										
대도시	1.1	0.1	0.1	0.4	0.4	97.8	100.0(574)	66.6	71.5	(12)

구분	이용 주기							건당 이용 시간		(수)
	매일	1주일에 2~3번	1주일에 1번	한달에 1~2번	1년에 1~2번	이용경험 없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중소도시	1.2	0.7	–	0.2	1.0	96.9	100.0(479)	75.5	69.7	(13)
읍·면	1.4	0.9	–	–	0.3	97.4	100.0(212)	301.4	218.7	(5)
모 취업여부										
취업	2.7	0.6	–	0.2	–	96.5	100.0(352)	140.3	188.8	(12)
휴직중	–	–	–	–	1.6	98.4	100.0(220)	101.1	27.9	(3)
미취업	0.6	0.6	0.1	0.4	0.7	97.6	100.0(687)	78.6	71.8	(15)
부재 등	–	–	–	–	–	100.0	100.0(6)	–	–	(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방문시 교통수단은 '도보'가 61.8%, '자가용' 25.5%, '대중교통' 10.7%, '기타' 2.0% 순이었다. 시간제보육 기관 방문 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은 평균 '도보'로 5.8분, '자가용'으로 11.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6.7분, '기타'는 15.0분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었다. 교통수단별 소요 시간은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 '자가용'으로 방문 시 소요시간이 각각 13.2분, 11.0분으로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Ⅵ-7-2〉 시간제 보육기관 방문시 교통수단 및 소요 시간

단위: %(명), 점

구분	교통수단				방문시 교통수단별 소요시간(분)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수)
전체	61.8	10.7	25.5	2.0	5.8	6.7	11.0	15.0	(30)
연령									
0세	74.0	–	19.1	7.0	8.3	–	5.3	15.0	(12)
1세	45.4	16.2	38.4	–	3.3	7.6	13.0	–	(11)
2세	76.1	12.8	11.2	–	5.9	5.0	10.0	–	(7)
$x^2(df)/F$		4.9(6)			2.6	0.3	1.4	–	
지역규모									
대도시	63.8	20.0	16.2	–	6.8	5.0	13.2	–	(12)
중소도시	62.7	–	33.4	3.9	6.0	–	11.0	15.0	(13)
읍·면	54.1	24.6	21.2	–	2.4	10.0	7.5	–	(5)
$x^2(df)/F$		4.9(6)			0.8	–	0.2	–	
모 취업여부									
취업	51.0	9.0	35.3	4.7	4.8	10.0	12.4	15.0	(12)
휴직중	84.2	–	15.8	–	10.0	–	10.0	–	(3)
미취업	66.3	14.5	19.2	–	5.4	5.0	9.1	–	(15)
$x^2(df)/F$		2.1(6)			0.8	–	0.2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어린이집'이 86.3%,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3.7%로, 2018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42.2%로 높았던 것에 비해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부모들 입장에서 보다 근접성이 높은 '어린이집' 이용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3.9점으로 2018년 3.7점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만족비율(매우만족+만족)'도 2021년에는 79.4%로 2018년의 68.7%에 비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자녀 양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만족도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2018년에 4.0점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취업모 가정에서 이용 만족도가 높았으나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표 Ⅵ-7-3〉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정도

단위: %(명),점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도움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86.3	13.7	79.4	3.9	1.0	(30)	88.7	4.3	0.8	(30)
영유아구분										
영아	86.3	13.7	79.4	3.9	1.0	(30)	88.7	4.3	0.8	(30)
$x^2(df)/t$	–		–	–			–	–		
연령										
0세	86.6	13.4	80.7	4.0	1.1	(12)	92.4	4.4	0.6	(12)
1세	77.7	22.3	65.8	3.6	1.1	(11)	79.5	4.0	1.0	(11)
2세	100.0	-	100.0	4.3	0.4	(7)	100.0	4.6	0.5	(7)
$x^2(df)/F$	2.2(2)		7.4(8)	2.0			3.7(6)	1.5		
지역규모										
대도시	73.8	26.2	90.0	4.3	0.9	(12)	93.9	4.5	0.6	(12)
중소도시	94.1	5.9	65.7	3.5	0.9	(13)	81.7	3.9	0.9	(13)
읍·면	89.3	10.7	100.0	4.5	0.5	(5)	100.0	5.0	-	(5)
$x^2(df)/F$	1.3(2)		8.8(8)	3.2			7.8(6)	2.7		
모 취업여부										
취업	91.6	8.4	100.0	4.2	0.4	(12)	100.0	4.7	0.5	(12)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도움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휴직중	84.2	15.8	47.3	3.1	1.2	(3)	100.0	4.2	0.4	(3)
미취업	82.2	17.8	68.4	3.8	1.1	(15)	76.6	4.0	1.0	(15)
$x^2(df)/F$	1.3(2)		8.9(8)*	0.7			4.8(6)	1.6		
2018년	57.8	42.2	68.7	3.7	1.0	(43)	77.5	4.0	1.0	(43)
2015년	13.9	86.1	71.4	3.85	0.66	(9)	84.2	4.06	0.64	(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58. 〈표 Ⅵ-7-3〉.

8.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 입소 대기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은 이하와 같다.

가. 입소 대기 실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7%로, 대기기간은 '5~10개월미만'이 23.1%로 가장 많았고, '10~15개월 미만' 18.3%, '1개월' 18.2%, '3개월' 16.0%, '2개월' 9.6%, '15개월 이상'이 9.4%, '4개월' 5.3% 순이었다. 평균 입소 대기 기간은 6.9개월로 2018년도에 비해 약 0.7개월 정도 짧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를 기준으로 영아 42.3%, 유아 46.6%로 영아에 비해 유아들의 대기 경험이 약간 더 많았지만, 대기 기간은 영아 7.1개월, 유아 6.8개월로 영아의 평균 대기 기간이 유아의 경우에 비해 더 길었다. 연령별로는 2세들의 대기 경험 비중이 가장 많아서 53.1%가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세 50.8%, 3세 46.5%, 1세 44.3%, 5세 이상의 경우 42.8%, 0세 30.7% 순이었다. 대기기간은 영유아 연령이 별다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기 경험 비율이 47.4%로 매우 높고, 중소도시의 경우 46.4%,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3.7%가 대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대기 기간은 대도시 거주자는 7.5개월, 읍면지역 거주자는 4.7개월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도(27.7%)와 2018년(33.5%) 대비 2021년(44.7%)에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 대기 경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균 대기 기간은 7개월인 2015년과 7.6개월인 2018년에 비해 6.9개월로 짧아졌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자의 입소대기 방식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경우가 93.9%로 대부분이지만, 수기 방식으로 신청했다는 경우도 6.1% 있었다. 연령별로 3세의 경우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비중이 98.3%로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했다는 응답이 89.6%로 대도시(95%)와 중소도시(94%)에 현저히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기 비율은 2015년 68.4%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85.4%, 2021년 93.9%로 급격히 증가하여 입소관리시스템 제도의 안착을 보여준다.

〈표 Ⅵ-8-1〉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신청방식, 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경험	대기 신청방식		대기 기간								
	있다 (수)	수기	관리시스템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 미만	10~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무응답	계(수)	평균
전체	44.7 (3,471)	6.1	93.9 (1,192)	18.2	9.6	16.0	5.3	23.1	18.3	9.4	0.1	(1,328)	6.9
영유아구분													
영아	42.3 (1,679)	6.7	93.3 (590)	16.0	9.0	16.1	5.8	22.3	20.6	10.1	-	(593)	7.1
유아	46.6 (1,792)	5.5	94.5 (602)	19.9	10.1	15.8	4.9	23.7	16.5	8.9	0.1	(735)	6.8
$x^2(df)/t$	11.9(1)***	0.2(1)		2.8(7)									-0.1
연령													
0세	30.7 (780)	6.1	93.9 (203)	14.1	9.1	18.1	10.3	24.1	17.2	7.2	-	(203)	6.2
1세	44.3 (472)	8.3	91.7 (186)	14.5	9.6	18.4	4.8	27.1	18.2	7.5	-	(187)	6.4
2세	53.1 (427)	5.9	94.1 (201)	18.3	8.5	13.1	3.8	17.5	24.8	14.1	-	(203)	8.2
3세	46.5 (486)	1.7	98.3 (178)	22.6	9.7	12.5	5.7	21.6	17.1	10.9	-	(204)	6.9
4세	50.8 (630)	8.3	91.7 (222)	16.3	13.4	15.9	5.2	26.0	13.2	9.5	0.4	(280)	7.0
5세 이상	42.8 (676)	5.9	94.1 (202)	21.8	6.6	18.5	3.8	22.7	19.9	6.7	-	(251)	6.6
$x^2(df)/F$	78.7(5)***	9.3(5)**		34.1(35)									0.7
지역규모													
대도시	47.4 (1,565)	5.0	95.0 (576)	16.0	8.9	14.6	4.9	23.6	19.9	11.9	0.2	(636)	7.5
중소도시	46.4 (1,324)	6.0	94.0 (460)	17.6	9.3	16.6	5.8	24.3	17.8	8.6	-	(520)	6.9
읍·면	33.7 (582)	10.4	89.6 (156)	28.3	13.4	18.4	4.7	16.9	14.5	3.8	-	(172)	4.7
$x^2(df)/F$	23.0(2)***	7.3(2)**		24.6(14)**									8.8***
모취업여부													
취업	47.2 (1,340)	6.6	93.4 (509)	16.5	9.4	16.7	5.3	23.1	18.4	10.4	0.2	(567)	7.0

구분	대기경험	대기 신청방식			대기 기간									
	있다 (수)	수기	관리 시스템	(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10개월 미만	10~15 개월미만	15개월 이상	무응답	계(수)	평균
휴직중	52.7 (430)	5.8	94.2	(171)	9.4	6.2	12.4	6.1	25.9	26.2	13.8	–	(188)	9.1
미취업	40.8 (1,670)	5.6	94.4	(506)	22.8	11.0	16.1	5.0	22.2	15.7	7.2	–	(566)	6.1
모부재	22.1 (31)	12.4	87.6	(6)	29.5	9.6	38.8	–	22.2	–	–	–	(7)	3.1
$\chi^2(df)/F$	31.4(3)***	0.9(3)			36.4(21)**									5.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1$, *** $p < .001$.

입소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43.1%, '가정' 어린이집 29.2%, '협동' 어린이집 13.6%, '사립 유치원' 6.0%, '국공립 유치원' 2.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5%, '민간' 어린이집 1.9%, '기타' 0.1% 순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표 Ⅵ-8-2〉 입소 대기신청 기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수)
전체	43.1	2.5	1.9	29.2	13.6	0.8	2.7	6.0	0.1	100.0(1,328)
영유아구분										
영아	50.2	2.6	1.3	26.6	17.1	1.3	–	0.7	0.2	100.0(593)
유아	37.8	2.4	2.2	31.2	11.0	0.5	4.7	10.1	0.1	100.0(735)
연령										
0세	55.7	2.3	1.9	24.1	15.7	0.4	–	–	–	100.0(203)
1세	46.8	3.1	0.7	27.4	19.8	1.5	–	0.8	–	100.0(187)
2세	49.4	2.5	1.5	27.6	15.8	1.7	–	1.0	0.5	100.0(203)
3세	36.3	1.8	0.6	34.4	15.6	0.7	1.3	9.3	–	100.0(204)
4세	36.0	2.1	2.4	31.7	9.7	0.3	5.8	11.8	0.3	100.0(280)
5세	41.1	3.3	3.5	28.1	8.6	0.4	6.2	8.7	–	100.0(251)
지역규모										
대도시	54.6	1.9	1.9	23.3	9.4	0.5	1.8	6.2	0.3	100.0(636)
중소도시	33.2	1.9	1.9	34.7	17.9	0.9	3.2	6.4	–	100.0(520)
읍·면	37.6	7.0	1.4	30.9	13.5	1.6	3.8	4.3	–	100.0(172)
2018년	43.9	2.1	25.1	13.2	–	1.8	4.6	6.9	11.9	100.0(1,131)
2015년	41.0	3.3	29.8	11.1	0.2	1.2	5.4	5.0	5.0	100.0(82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2018년 법인·단체등 2.4% 2015년 법인단체등 2.9%가 있었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2. 〈표 Ⅵ-9-2〉.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4.7%였으며, 4점 만점에 3.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하는 경우에 그 이유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5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비' 25.1%, '대기기간 단축' 18.8%, '기타' 1.3%,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0.2% 순이었다.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74.3%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보였고, 만족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4점 기준 3.8점으로 높은 편이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곳은 4점으로 '협동' 어린이집이었지만, 응답자 수가 1명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먼저, '투명한 입소자 관리' 응답이 가장 높았던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56.8%)과 '민간'(58.9%), '가정'(61.8%), '직장'(79.4%)이었다.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비' 응답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사회복지법인'(50.8%), '법인·단체 등'(31.3%), '협동'(100.0%)이었다.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만족 비율은 15.3%p가량 낮아졌지만, 만족도는 0.8점 정도 높아졌다. 또한 만족한 사유는 2018년도와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표 Ⅵ-8-3〉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만족도 및 만족 이유

단위: %, 점(명)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계(수)
전체	64.7	3.7	0.8	(1,104)	18.8	54.5	25.1	0.2	1.3	100.0(712)
영유아구분										
영아	62.1	3.7	0.8	(544)	19.9	50.3	27.1	0.4	2.2	100.0(341)
유아	66.9	3.7	0.9	(560)	17.9	57.9	23.5	0.1	0.6	100.0(371)
$x^2(df)/t$	-	-0.6					3.2(4)			
연령										
0세	56.2	3.6	0.8	(189)	19.1	46.2	31.4	-	3.3	100.0(114)
1세	64.3	3.7	0.8	(169)	21.3	48.1	27.5	-	3.1	100.0(105)
2세	64.1	3.7	0.8	(186)	19.3	54.5	24.5	0.8	0.9	100.0(122)

구분	만족도				이유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대기기간 단축	투명한 입소자 관리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맞벌이 자녀 입소거부 차단	기타	계(수)
3세	65.2	3.7	0.9	(174)	16.9	60.4	22.1	–	0.6	100.0(116)
4세	65.4	3.7	0.8	(202)	15.8	58.6	24.9	0.2	0.6	100.0(129)
5세	70.1	3.7	0.8	(184)	21.0	55.2	23.3	–	0.6	100.0(126)
$x^2(df)/F$	–	0.5					11.3(20)			
지역규모										
대도시	65.9	3.7	0.8	(545)	19.1	56.4	23.6	–	0.9	100.0(364)
중소도시	63.4	3.6	0.9	(420)	19.1	52.9	25.5	0.4	2.0	100.0(259)
읍·면	64.7	3.8	0.8	(139)	16.7	53.1	29.8	0.4	–	100.0(89)
$x^2(df)/F$	–	2.0					7.1(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4.3	3.8	0.8	(184)	18.2	56.8	23.8	–	1.2	100.0(136)
사회복지법인	64.8	3.8	0.7	(31)	42.6	6.6	50.8	–	–	100.0(21)
법인·단체등	58.0	3.5	1.3	(23)	27.1	30.9	31.3	–	10.6	100.0(11)
민간	65.7	3.7	0.9	(265)	18.0	58.9	22.7	–	0.3	100.0(176)
가정	61.7	3.6	0.9	(93)	13.2	61.8	22.5	1.9	0.6	100.0(57)
직장	51.6	3.6	0.7	(11)	14.5	79.4	6.1	–	–	100.0(7)
협동	100.0	4.0	–	(1)	–	–	100.0	–	–	100.0(1)
$x^2(df)/F$	–	2.3*					58.4(24)***			
2018년	80.0	2.9	0.6	(836)	16.4	46.2	32.2	2.0	3.2	100.0(664)
2015년	81.6	2.9	0.6	(474)	15.2	55.4	2 6.3	2.5	0.5	100.0(38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73-374. 〈표 Ⅵ-9-3〉.
* $p < .05$, *** $p < .001$.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개선점으로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32.1%로 가장 많았고,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 '기타' 9.8%로 특정 사유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항목에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로 다소 높

게 나타나, 지난 3년간 약간의 의견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 여부별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고,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9%,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순이었다. 반대로, 유아의 경우,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많았고,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9.8%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와 5세의 경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41.1%, 37.1%로 가장 많았고, 0세와 1세, 4세의 경우에는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3.2%, 31.7%, 35.8%로 가장 많았다. 한편, 3세는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입소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부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 30.6%,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과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0.5%로 세 항목에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입소 신청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2.2%로 가장 많았고,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로 가장 많았다.

〈표 Ⅵ-8-4〉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불만족 시 개선 사항

단위: %(명)

구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기타	계(수)
전체	32.1	30.8	27.2	9.8	100.0(392)
영유아구분					
영아	34.5	31.9	20.1	13.6	100.0(203)
유아	29.8	29.8	34.4	6.0	100.0(189)
$x^2(df)$		12.1(3)**			
연령					
0세	33.1	33.2	13.4	20.3	100.0(75)
1세	27.3	31.7	29.9	11.1	100.0(64)
2세	41.1	31.0	17.6	10.3	100.0(64)
3세	34.3	26.0	37.6	2.0	100.0(58)
4세	20.2	35.8	31.3	12.7	100.0(73)
5세	37.1	26.3	34.8	1.8	100.0(58)
$x^2(df)$		32.6(15)**			
지역규모					
대도시	30.5	30.5	30.6	8.4	100.0(181)
중소도시	29.0	32.2	27.5	11.2	100.0(161)
읍·면	50.1	26.6	14.1	9.2	100.0(50)
$x^2(df)$		9.7(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3.1	29.2	24.2	13.4	100.0(48)
사회복지법인	53.7	28.0	9.9	8.4	100.0(10)
법인·단체등	25.6	41.5	9.1	23.8	100.0(12)
민간	32.0	31.4	28.3	8.3	100.0(89)
가정	45.8	26.0	16.9	11.3	100.0(36)
직장	–	–	64.5	35.5	100.0(4)
$x^2(df)$		16.7(15)			
2018년	28.3	27.7	35.5	8.4	100.0(166)
2015년	42.9	28.9	24.2	4.1	100.0(9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5. 〈표 Ⅵ-9-4〉.
* $p < .05$, ** $p < .01$.

9.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본 절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 열린어린이집, 평가인증, 아이

행복카드,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다양한 보육정책 및 제도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지도와 관련된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1) 제도 인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일컫는 공인어린이집 제도에 대해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중 37%에서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명칭을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였고 15.6%는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지 공인어린이집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7.3%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일수록 공인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읍·면에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영유아 가구 구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인어린이집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175 가구에 대해 공인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또는 약간 유사하다고 보는 비율이 59%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고 25.7%가 여전히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동 연령별 구분이나 지역규모별로 구분된 집단들의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9-1〉 공인 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인지 여부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명칭만 들어봄	내용을 앎	잘 모름	계(수)	x^2 (*df*)	매우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잘 모름	계 (수)	x^2 (*df*)
전체	37.0	15.6	47.3	100.0(1,160)		21.9	37.1	20.0	5.7	15.2	100.0(175)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1	14.0	48.8	100.0(631)	3.9(2)	22.7	38.6	22.6	5.8	10.3	100.0(84)	4.3(4)
유아	36.9	17.3	45.8	100.0(529)		21.3	36.0	17.9	5.6	19.3	100.0(91)	
지역규모												
대도시	40.0	19.6	40.4	100.0(509)	22.0 (4)***	25.7	25.0	25.3	6.8	17.2	100.0(90)	9.3(8)
중소도시	35.4	13.6	51.1	100.0(455)		15.7	51.0	14.2	5.9	13.1	100.0(62)	
읍·면	34.0	11.1	54.9	100.0(196)		24.9	46.4	15.2	-	13.6	100.0(23)	
2018년	37.3	26.5	36.1	100.0(1,400)		11.3	45.0	24.5	6.2	13.0	100.0(372)	

구분	인지 여부					국공립어린이집 질과의 유사성						
	명칭만 들어봄	내용을 앎	잘 모름	계(수)	x^2 (*df*)	매우 유사	약간 유사	약간 다름	매우 다름	잘 모름	계 (수)	x^2 (*df*)
2015년	33.4	26.9	39.7	100.0(1,480)		9.7	48.1	25.8	7.1	9.3	100.0(35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6. 〈표 Ⅵ-10-1〉.
*** $p < .001$.

공인어린이집의 개념에 관한 정보를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 파악하였다.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들어봤고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질문하였을 때, 공인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비율은 39.8%로 잘 모른다고 응답한 60.2%를 훨씬 하회하였다. 영아부모와 읍면지역에서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43.6%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응답하였고 56.3%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 부분도 부모들이 정확히는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공인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국공립 수준으로 올라가 있음은 알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Ⅵ-9-2〉 공인어린이집 관련 정보 인지정도

단위: %(명)

구분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받음				국공립과 보육료 동일함			
	매우 잘 앎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매우 잘 앎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전체	39.8	38.0	22.2	100.0(175)	43.6	33.7	22.6	100.0(175)
영유아구분								
영아	39.7	40.7	19.6	100.0(109)	43.3	35.0	21.7	100.0(109)
유아	39.8	34.1	26.1	100.0(66)	44.2	31.8	24.0	100.0(66)
x^2(*df*)		2.4(2)				0.3(2)		
지역규모								
대도시	38.0	43.0	19.0	100.0(90)	42.2	38.7	19.2	100.0(90)
중소도시	37.6	32.2	30.3	100.0(62)	42.3	27.4	30.3	100.0(62)
읍·면	54.8	35.0	10.2	100.0(23)	54.8	32.1	13.0	100.0(23)
x^2(*df*)		4.2(4)				2.5(4)		

구분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받음				국공립과 보육료 동일함			
	매우 잘 앎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매우 잘 앎	들어봤으나 잘 모름	잘 모름	계(수)
2018년	34.3	35.9	29.8	100.0(372)	35.6	34.0	30.4	100.0(372)
2015년	40.9	35.3	23.9	100.0(352)	40.6	33.5	25.9	100.0(35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7. 〈표 Ⅵ-10-2〉.

공인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보육 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43%는 거의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47%는 약간 다르다, 10%는 매우 다르다라고 응답하여 과반이상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부모들은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도시지역 부모보다 훨씬 높았다. 읍면지역에서는 공인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간 유사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3%로 2018년과 2015년 34.7%에 상당히 상승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Ⅵ-9-3〉 공인어린이집의 공보육 기관과 유사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전혀 다름	약간 다름	거의 비슷	계(수)
전체	10.0	47.0	43.0	100.0(175)
영유아구분				
영아	37.4	50.4	12.2	100.0(109)
유아	51.5	42.0	6.5	100.0(66)
$x^2(df)$		6.8(4)		
지역규모				
대도시	9.5	56.6	33.9	100.0(90)
중소도시	12.7	40.4	46.9	100.0(62)
읍·면	2.9	25.8	71.2	100.0(23)
$x^2(df)$		12.6(4)*		
2018년	8.4	56.9	34.7	100.0(372)
2015년	11.4	53.9	34.7	100.0(35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8. 〈표 Ⅵ-10-3〉.
* $p < .05$.

2)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의 기관 선택 시 영향

자녀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함'으로 응답한 비율(대체로 그러함+매우 그러함)이 74.9%에 달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여부는 기관 선택 시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선택 시 공공형어린이집 여부는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4점)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높았고,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3.4점)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3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을 중심으로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9점에 비해 3.1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9-4〉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어린이집 선택 시 공공형 어린이집의 영향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전체	5.0	20.1	33.8	41.1	100.0(300)	3.1
영유아구분						
영아	3.4	17.3	38.1	41.1	100.0(147)	3.2
유아	6.4	22.5	30.1	41.0	100.0(153)	3.1
$x^2(df)/t$			3.0(3)			1.2
연령						
0세	–	21.0	27.9	51.2	100.0(15)	3.3
1세	1.3	17.1	35.3	46.3	100.0(56)	3.3
2세	5.3	16.9	41.5	36.4	100.0(76)	3.1
3세	11.8	17.6	35.8	34.8	100.0(51)	2.9
4세	4.2	16.2	29.4	50.2	100.0(44)	3.3
5세	4.1	30.0	26.6	39.3	100.0(58)	3.0
$x^2(df)/F$			13.8(15)			0.6
지역규모						
대도시	1.1	12.9	33.5	52.5	100.0(125)	3.4
중소도시	6.4	26.5	30.4	36.8	100.0(124)	3.0
읍·면	10.3	20.0	43.5	26.1	100.0(51)	2.9
$x^2(df)/F$			19.9(6)**			9.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6	13.8	31.2	53.4	100.0(176)	3.4
사회복지법인	27.5	16.3	23.0	33.2	100.0(15)	2.6
법인·단체 등	11.8	60.6	14.8	12.8	100.0(16)	2.3
민간	11.2	30.2	35.5	23.2	100.0(73)	2.7
가정	–	7.9	79.7	12.4	100.0(16)	3.0
직장	–	22.9	67.5	9.6	100.0(4)	2.9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x^2(df)/F$		60.7(15)***				6.9***
2018년	7.9	17.1	52.3	22.6	100.0(231)	2.9
2015년	7.5	14.7	59.9	17.9	100.0(164)	2.8

주: 영향 정도 평균은 '매우 그러함' 1점 ~ '전혀 그렇지 않음' 4점으로 평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기관선택 시 영향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79. 〈표 Ⅵ-10-4〉.
** $p < .01$, *** $p < .001$.

3)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 인지

자녀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은 것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4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추가 보육료 지원 25.6%, 질 높은 교사가 12.6%로 나타났고, 장점이 없다는 경우도 8.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62%)와 읍·면 지역(50.4%)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가장 장점으로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중소도시에서는 추가보육료 지원(35.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과 비교하면 정부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장점 인식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은 동일하나, 추가보육료 지원 관련 인식은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Ⅵ-9-5〉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추가 보육료 지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질 높은 교사	원장의 보육철학	기타	장점없음	계(수)
전체	25.6	44.7	12.6	7.2	1.4	8.6	100.0(300)
영유아구분							
영아	26.1	43.1	14.4	5.2	2.4	8.8	100.0(147)
유아	25.1	46.0	11.0	8.9	0.5	8.5	100.0(153)
$x^2(df)$			4.9(5)				
연령							
0세	19.8	35.2	23.6	3.5	-	17.9	100.0(15)
1세	27.6	33.6	16.8	10.9	3.8	7.2	100.0(56)
2세	26.0	50.3	11.5	1.8	1.9	8.4	100.0(76)
3세	17.0	45.5	20.0	7.3	1.6	8.6	100.0(51)
4세	34.3	46.9	6.2	10.2	-	2.4	100.0(44)

구분	추가 보육료 지원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질 높은 교사	원장의 보육철학	기타	장점없음	계(수)
5세	24.8	45.8	7.9	9.1	–	12.3	100.0(58)
$x^2(df)$			30.0(25)				
지역규모							
대도시	20.0	62.0	9.1	4.6	2.3	2.1	100.0(125)
중소도시	35.4	27.2	15.2	9.6	1.1	11.5	100.0(124)
읍·면	12.9	50.4	14.1	6.6	–	15.9	100.0(51)
$x^2(df)$			28.3(1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3.7	53.7	11.4	5.7	2.2	3.4	100.0(176)
사회복지법인	22.6	39.5	8.1	5.1	–	24.6	100.0(15)
법인·단체등	36.5	24.8	18.8	–	–	19.9	100.0(16)
민간	23.0	28.7	16.2	15.1	–	17.0	100.0(73)
가정	54.3	9.3	12.2	7.0	–	17.2	100.0(16)
직장	–	100.0	–	–	–	–	100.0(4)
$x^2(df)$			36.8(25)				
2018년	19.1	36.9	15.3	16.3	–	12.3	100.0(230)
2015년	12.2	47.6	8.0	23.4	0.9	7.9	100.0(16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380. 〈표 Ⅵ-10-5〉.
** $p < .01$.

나. 어린이집 정보공개

1) 인지 및 이용 경험, 만족도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go.kr)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용경험이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정부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중 35.4%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65%정도의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해당 포털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겠다.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지역별로 비교하면 읍·면 지역에서 모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음/모름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 이용 경험을 알아보았다. 62.3%가 포털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고 연간 1~3회 정도 포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8.9%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지역비교에서는 대도시에서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많았다.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은 44.3%였고 평균 점수는 3.4점이었다. 이러한 만족도는 지역규모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2018년 조사와는 달리 읍·면에서 만족도와 평점이 높았다.

〈표 Ⅵ-9-6〉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인지 및 경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인지 정도					이용 경험						만족 정도		
	잘 안다	대충 안다	들어 본 적 있음	모름	계(수)	1주일 1회 이상	월 1~3회	분기 1~3회	연 1~3회	없음	계(수)	만족	평균	(수)
전체	16.9	28.4	19.4	35.4	100.0 (1,160)	0.9	2.9	5.0	28.9	62.3	100.0 (1,160)	44.3	3.4	(413)
지역규모														
대도시	19.9	29.0	17.6	33.4	100.0 (509)	1.1	3.6	4.4	29.7	61.2	100.0 (509)	48.0	3.5	(195)
중소도시	13.4	30.0	20.9	35.8	100.0 (455)	0.4	2.5	5.7	28.1	63.3	100.0 (455)	39.6	3.4	(155)
읍·면	18.4	22.3	20.0	39.3	100.0 (196)	1.4	2.6	4.7	29.0	62.3	100.0 (196)	46.7	3.6	(63)
$x^2(df)/F$		14.4(6)*						7.6(8)						3.5*
모취업 여부														
취업	18.3	27.5	19.0	35.2	100.0 (529)	1.0	3.4	4.7	31.1	59.8	100.0 (529)	44.1	3.4	(198)
휴직중	16.3	37.5	18.0	28.2	100.0 (100)	-	1.2	10.6	30.6	57.6	100.0 (100)	54.6	3.6	(38)
미취업	15.4	27.9	20.4	36.3	100.0 (520)	0.7	2.7	4.5	26.5	65.7	100.0 (520)	42.1	3.4	(174)
모부재 등	18.9	11.7	9.3	60.1	100.0 (11)	4.5	10.2	-	4.5	80.8	100.0 (11)	53.3	3.5	(3)
$x^2(df)/F$			3.6(9)					15.4(12)					0.3	
2018년	18.7	20.1	24.0	37.3	100.0 (1,400)	1.4	5.7	8.3	29.3	55.3	100.0 (872)	38.1	3.3	(399)
2015년	16.2	25.3	21.0	37.5	100.0 (1,480)	-	-	-	-	-	-	37.8	3.3	(36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1-382. 〈표 Ⅵ-10-6〉.
* $p < .05$.

2)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인지 및 경험 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알고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보조금 수령, 허위아동 등록, 운영기준 위반 등)을 조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조회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회 가능함을 '전혀 알지 못함'이

32.7%였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회해본 적은 없음'은 40.7%, '조회 경험 있음'은 26.6%로 조사되었다. 조회 경험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에 비해 조회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조회 경험이 있는 비율은 8.4%에서 26.6%로 216% 상향된 결과를 보인다.

〈표 Ⅵ-9-7〉 어린이집 위반사실 조회 인지 및 조회 경험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으나 조회 경험 없음	조회 경험 있음	계(수)
전체	32.7	40.7	26.6	100.0(413)
지역규모				
대도시	30.3	39.4	30.3	100.0(195)
중소도시	34.8	42.7	22.5	100.0(155)
읍·면	33.5	39.1	27.4	100.0(63)
$x^2(df)$		5.6(4)		
취업모 여부				
취업	39.3	35.6	25.1	100.0(198)
휴직중	18.9	50.3	30.8	100.0(38)
미취업	27.3	44.8	27.9	100.0(174)
모부재 등	-	100.0	-	100.0(3)
$x^2(df)$		12.8(6)*		
2018년	45.5	40.9	8.4	100.0(1,400)
2015년	32.9	44.8	22.3	100.0(371)

주: 2018년 조사에 무응답 5.2%이 있으나 표기하지 않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83. 〈표 Ⅵ-10-7〉.
* $p < .05$.

3) 어린이집 정보 조회 경험 및 도움 정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서 찾아본 경험과 도움 정도를 파악하였다. 먼저 조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포털의 이용은 대도시 등 도시 지역에서 읍·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움됨+매우 도움됨)은 61.5%로 나타나서 다수가 해당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졌다고 보겠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1.8% 정도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밀한 이유 파악도 필요해 보

인다. 도움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움 정도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의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대도시일수록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는 보인다. 2018년이나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0.02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Ⅵ-9-8〉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이용	(수)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도움	매우 도움	계(수)	평균
전체	31.7	(1,160)	1.4	10.4	26.8	43.6	17.9	100.0(350)	3.7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1.6	(823)	19.1	46.4	25.0	8.9	0.6	100.0(239)	3.7
유아	32.0	(337)	15.5	38.0	30.2	13.3	3.0	100.0(111)	3.5
$x^2(df)$					3.0(4)				
모 취업여부									
취업	32.6	(529)	1.8	11.1	22.6	47.3	17.3	100.0(159)	3.7
휴직중	39.6	(100)	-	6.0	30.3	45.9	17.7	100.0(34)	3.8
미취업	29.8	(520)	1.4	10.5	31.3	38.1	18.7	100.0(156)	3.6
부재 등	4.5	(11)	-	-	-	100.0	-	100.0(1)	4.0
$x^2(df)$					4.3(12)				
지역규모									
대도시	32.5	(509)	0.6	11.4	16.5	54.8	16.6	100.0(171)	3.8
중소도시	31.4	(455)	-	11.8	26.6	41.2	20.4	100.0(127)	3.7
읍·면	30.8	(196)	7.5	3.6	54.9	19.7	14.3	100.0(52)	3.3
$x^2(df)$					33.4(8)***				
2018년	25.3	(1,400)	1.8	13.2	25.1	50.0	9.9	100.0(357)	3.5
2015년	22.9	(1,745)	3.1	13.4	26.1	47.3	10.1	100.0(391)	3.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4-385. 〈표 Ⅵ-10-8〉.
*** $p < .001$.

4)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추가 정보 요구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이용자 중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부모에 대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교직원 관련 정보 63.4%로 다수 비율을 차지하였고, 보육과정 관련 9.8%, 급식 관련 정보 7.3% 순으로 응답하여, 부모들은 교직원에 관련된 정보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보완되기를 가

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 Ⅵ-9-9〉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추가 정보 요구 사항

단위: %(명)

구분	교직원 관련	특별활동 관련	급식 관련	환경안전 관련	보육과정 관련	경비 관련	기타	계(수)
전체	63.4	1.1	7.3	7.1	9.8	3.4	8.0	100.0(3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4.3	2.0	4.3	4.4	13.4	6.5	15.0	100.0(23)
유아	73.6	-	10.6	10.0	5.7	-	-	100.0(15)
$x^2(df)$				5.6(6)				
지역규모								
대도시	47.5	-	10.6	11.0	19.9	-	11.0	100.0(17)
중소도시	75.2	2.5	6.4	5.6	-	8.1	2.2	100.0(15)
읍·면	75.4	-	-	-	8.5	-	16.0	100.0(6)
$x^2(df)$				9.0(1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5-386. 〈표 Ⅵ-10-9〉.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교사관련 정보가 추가되기 희망한 부모들은 구체적으로는 교사자격 정보를 가장 알고 싶어 했고, 다음으로는 교사의 경력과 관련된 교사 근무기간 정보가 공개되기를 희망하였다.

〈표 Ⅵ-9-10〉 정보공개 포털 교사 관련 추가 요구 정보

단위: %, (명)

구분	전체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직원 관련 정보						
교사자격	48.1	58.2	39.7	25.6	44.5	100.0
교사 근무기간	27.0	41.8	14.7	61.2	14.6	-
기타 교직원 현황	14.5	-	26.6	13.2	20.4	-
기타	10.3	-	18.9	-	20.5	-
계(수)	100.0(21)	100.0(11)	100.0(10)	100.0(7)	100.0(10)	100.0(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다. 열린어린이집 인지 및 이용

1) 열린어린이집 인지

2015년에 소개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모름' 39.4%, '들어본 적 있음' 25.3%, '대충 앎' 18.5%, '잘 알고 있음'은 16.9%로, 전반적으로 2018년에 비해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대도시지역에서, 그리고 휴직중인 모와 취업모에서 잘 알고있다는 긍정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모름' 응답이 2018년 52.6%에서 39.4%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져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모름' 응답이 적지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Ⅵ-9-11〉 열린어린이집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앎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전체	16.9	18.5	25.3	39.4	100.0(1,160)
지역규모					
대도시	18.1	19.7	26.5	35.8	100.0(509)
중소도시	15.5	18.1	23.2	43.1	100.0(455)
읍·면	17.4	16.3	27.7	38.6	100.0(196)
$x^2(df)$		9.4(6)			
모취업 여부					
취업	17.7	20.0	24.7	37.6	100.0(529)
휴직중	22.5	20.7	22.5	34.2	100.0(100)
미취업	15.1	16.0	26.8	42.1	100.0(520)
부재 등	-	33.0	9.1	57.9	100.0(11)
$x^2(df)$		8.3(9)			
2018년	11.5	15.8	20.2	52.6	100.0(140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86. 〈표 Ⅵ-10-10〉.

2) 열린어린이집 이용 및 만족도

열린어린이집 이용 및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용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0.9%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만족도를 확인하였더니 만족하는(매우 만족+대체로 만족) 비율은 77.4%로 이용자 네 명 중 세 명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5점 기준에 4.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 만족도는 모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휴직 중인 부모의 만족비율과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Ⅵ-9-12〉 열린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네	아니오	계(수)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9	69.1	100.0(1,464)	28.8	48.6	21.7	0.7	0.2	100.0(450)	4.1(0.7)
연령										
0세	28.7	71.3	100.0(140)	26.6	54.0	19.4	–	–	100.0(35)	4.1(0.7)
1세	29.0	71.0	100.0(330)	41.9	36.7	19.4	1.1	0.9	100.0(101)	4.2(0.8)
2세	32.2	67.8	100.0(377)	18.8	54.6	25.0	1.6	–	100.0(122)	3.9(0.7)
3세	32.3	67.7	100.0(238)	27.7	54.5	17.7	–	–	100.0(71)	4.1(0.7)
4세	28.1	71.9	100.0(195)	31.5	39.7	28.8	–	–	100.0(58)	4(0.8)
5세	33.4	66.6	100.0(184)	29.9	52.4	17.7	–	–	100.0(63)	4.1(0.7)
$x^2(df)/F$	3.8(5)			23.6(20)						1.3
지역규모										
대도시	30.8	69.2	100.0(631)	29.2	52.7	16.8	0.8	0.5	100.0(187)	4.1(0.7)
중소도시	29.4	70.6	100.0(578)	27.1	47.5	24.8	0.5	–	100.0(170)	4(0.7)
읍·면	34.7	65.3	100.0(255)	31.7	42.8	25.0	0.6	–	100.0(93)	4.1(0.8)
$x^2(df)/F$	4.7(2)			6.2(8)						0.1
모취업 여부										
취업	33.6	66.4	100.0(673)	30.5	44.9	23.9	0.7	–	100.0(207)	4.1(0.8)
휴직중	28.9	71.1	100.0(133)	27.8	44.4	22.2	3.6	2.1	100.0(43)	3.9(0.9)
미취업	28.5	71.5	100.0(643)	27.2	53.9	18.9	–	–	100.0(197)	4.1(0.7)
부재 등	17.9	82.1	100.0(15)	–	100.0	–	–	–	100.0(3)	4(0)
$x^2(df)/F$	0.9(3)			22.7(12)*						0.9
2018년	24.4	75.6	100.0(1,753)	16.5	57.1	23.8	1.7	0.1	100.0(418)	3.9(0.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 '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2018년 조사에 무응답 0.9%가 있으나 표기하지 않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7-388. 〈표 Ⅵ-10-11〉.

* $p < .05$.

라. 어린이집 평가

1) 제도인지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알고 있는(잘알고있음+대충앎) 비율이 47.4%로, 2018년에 조사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율(65.6%)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알고있다는 긍정응답이 29.9%에서 15%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평가인증에서 2019년 평가제로 변경된 제도적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인지에 하위집단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9-13〉 어린이집 평가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음	대충 앎	들어본 적 있음	모름	계(수)
전체	15.0	32.4	22.3	30.2	100.0(1,160)
지역규모					
대도시	15.9	30.7	25.3	28.1	100.0(509)
중소도시	12.7	33.3	21.2	32.7	100.0(455)
읍·면	19.0	34.5	17.6	28.9	100.0(196)
$x^2(df)$		7.9(6)			
모취업 여부					
취업	13.4	30.6	24.1	31.8	100.0(529)
휴직중	17.9	43.9	15.5	22.8	100.0(100)
미취업	16.7	32.1	21.4	29.8	100.0(520)
부재 등	-	45.6	25.3	29.1	100.0(11)
$x^2(df)$		8.3(9)			
2018년	29.9	35.7	18.3	16.1	100.0(140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8-389. 〈표 Ⅵ-10-12〉.

자녀가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평가점수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로, 2015-2018년 응답(54.9%, 56.9%)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아부모보다 유아부모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평가결과가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과 일치한다는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9-14〉 평가점수와 보육서비스 수준의 관계 인식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평가 점수와 서비스 수준 일치 여부 인식				
	어느 정도 일치	거의 일치 않음	전혀 무관	잘 모름	계(수)
전체	50.4	25.8	8.9	15.0	100.0(814)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8.0	26.9	10.2	14.9	100.0(552)
유아	54.4	23.9	6.6	15.1	100.0(262)
$x^2(df)$		2.6(3)			
지역규모					
대도시	53.6	23.0	7.7	15.8	100.0(369)
중소도시	48.2	30.5	10.5	10.8	100.0(314)
읍·면	47.7	21.1	7.8	23.4	100.0(131)
$x^2(df)$		7.7(6)			
2018년	56.9	24.2	12.4	6.6	
2015년	54.9	24.1	11.8	9.2	100.0(269)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389-390. 〈표 Ⅵ-10-13〉.

마. 어린이집 CCTV 설치

1)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

2015년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 의무화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어느정도 효과있음' 39.0%, '매우 효과있음' 56.0%로 효과적이라는 긍정 응답이 9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긍정응답률 90.9%(어느정도 63.5%, 매우 27.4%)와 비교하여도 '매우 효과있음'의 긍정응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부모의 CCTV 설치에 대한 효과 인식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

한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아동 및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61.7%였으며, '인권보호 장치가 필요함'은 31.8%로 나타났다. 하위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Ⅵ-9-15〉 CCTV 이용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효과 인식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의견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어느정도 있음	매우 큼	문제없음	인권보호 장치필요	잘 모름	계(수)
전체	1.5	3.5	39.0	56.0	61.7	31.8	6.5	100.0(1,16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2	4.2	39.1	54.5	60.6	32.6	6.8	100.0(823)
유아	-	2.1	39.0	59.0	63.8	30.3	5.8	100.0(337)
$x^2(df)$		7.5(3)				1.2(2)		
지역규모								
대도시	0.2	3.1	39.8	56.9	60.0	34.3	5.7	100.0(509)
중소도시	2.9	3.8	37.7	55.5	62.8	31.5	5.7	100.0(455)
읍·면	0.8	3.7	40.6	54.9	63.2	26.5	10.3	100.0(196)
$x^2(df)$		7.8(6)				5.4(4)		
2018년	0.5	8.5	63.5	27.4	59.9	34.8	5.2	100.0(1,753)
2015년	0.6	10.7	60.7	27.9	53.5	39.0	7.5	100.0(1,74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95. 〈표 Ⅵ-10-18〉.

2)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인지 및 경험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먼저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7%, '모름' 69.3%로 열람 신청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18년(43.9%)에 비해 약 13.2%p 감소하였다.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3.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5.1%)에 비해 1.6%p 감소한 것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유아 부모에서, 그리고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있다'는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Ⅵ-9-16〉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여부 및 열람 경험

단위: %, (명)

구분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 인지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		
	알고있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수)
전체	30.7	69.3	100.0(1,160)	3.5	96.5	100.0(1,16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8.7	71.3	100.0(823)	3.1	96.9	100.0(823)
유아	34.7	65.3	100.0(337)	4.4	95.6	100.0(337)
$x^2(df)$	2.4(1)			0.3(1)		
지역규모						
대도시	27.1	72.9	100.0(509)	2.7	97.3	100.0(509)
중소도시	31.8	68.2	100.0(455)	4.5	95.5	100.0(455)
읍·면	37.3	62.7	100.0(196)	3.2	96.8	100.0(196)
$x^2(df)$	5.4(2)			-(2)		
2018년	43.9	56.1	100.0(1,753)	5.1	94.9	100.0(1,75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96. 〈표 Ⅵ-10-19〉.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들에게 열람 신청 사유와 시기를 알아보았다. 열람 신청 사유는 안전사고 의심의 경우가 67.8%, 아동학대 의심 22.2%, 단순 의심 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람 신청 사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지역규모에서 아동학대 의심은 대도시 지역, 안전사고 의심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2018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 의심과 단순의심은 줄고, 안전사고 의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신청즉시 열람이 31.0%, 신청당일 38.4%, 신청 10일이내가 19.8%, 열람거부 1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람 시기는 영유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영아의 경우는 신청당일 열람과 열람거부가, 유아의 경우는 10일이내 열람이 유의하게 많았다. 2018년과 비교하여 신청 10일이후 열람은 응답되지 않았으며, 10일이내 응답으로 나타났다. 열람거부 응답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9-17〉 CCTV 열람 신청 사유 및 열람 시기

단위: %, 점(명)

구분	CCTV 영상정보 열람신청 사유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의심	단순의심	즉시열람	신청당일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	열람 거부당함	계(수)
전체	22.2	67.8	9.9	31.0	38.4	19.8	-	10.8	100.0(42)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3.5	76.5	-	31.6	53.2	-	-	15.1	100.0(27)
유아	20.6	56.2	23.2	30.1	18.6	46.3	-	5.1	100.0(15)
$x^2(df)$		4.1(2)				11.0(3)*			
지역규모									
대도시	43.0	47.5	9.4	35.2	47.2	5.2	-	12.3	100.0(16)
중소도시	13.8	73.2	13.1	27.2	36.6	33.8	-	2.5	100.0(18)
읍·면	10.5	89.5	-	35.8	27.2	-	-	37.1	100.0(8)
$x^2(df)$		6.4(4)				5.1(6)			
2018년	32.5	46.9	20.6	42.9	36.4	-	14.6	6.1	100.0(4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397. 〈표 Ⅵ-10-20〉.

응답이 5사례 불과하나, 조사된 CCTV 열람 거부 사유로는 60일 기관 경과(4사례), 단순거부(1사례)로 나타났다.

바. 긴급보육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20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39.3%였고 따라서 60.7%가 긴급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아보다는 유아가구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한 비율이 높고 지역별로는 대체로 중소도시에서 긴급보육 이용률이 높았다. 취업모는 70.5%가 긴급보육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보육의 취지가 코로나 시기이더라도 모가 일을 하거나 돌보아줄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장치이므로 취업모가 가장 크게 긴급보육을 이용한 경향이 나타난다.

〈표 Ⅵ-9-18〉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기간

단위: %(명)

구분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긴급보육 이용안함	(수)
전체	22.2	29.3	33.9	34.4	31.6	42.9	43.1	22.1	39.3	(1,16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9.6	26.2	31.6	30.7	31.9	45.0	44.1	21.3	39.0	(823)
유아	27.5	35.6	38.5	41.7	30.9	38.9	41.2	23.6	39.8	(337)
지역규모										
대도시	20.7	27.1	32.6	31.6	30.3	39.3	38.1	17.7	43.0	(509)
중소도시	24.6	30.0	35.1	38.6	33.6	47.3	49.3	24.3	34.5	(455)
읍·면	19.7	33.5	34.2	30.4	29.3	40.4	39.4	27.3	42.7	(196)
모취업 여부										
취업	32.2	39.9	45.3	45.0	41.7	53.9	53.0	29.7	29.5	(529)
휴직중	17.9	20.3	31.3	31.3	27.1	36.4	42.1	20.0	41.3	(100)
미취업	11.7	19.1	21.7	23.2	21.1	32.0	32.3	14.0	49.4	(520)
부재 등	15.9	15.9	15.9	15.9	15.9	15.9	20.7	-	79.3	(1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긴급보육을 이용한 이유로는, 1순위 선택한 이유를 기준으로, 돌봄공백으로(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64.5%,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방역 관리가 우수해서가 다음 순으로 19.6%였다. 특히 취업모일 경우 92.5%가 돌봄공백을 선택하여 어린이집 휴원이 가져오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1+2 순위로 이유를 보더라도 1순위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Ⅵ-9-19〉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계 (수)
	돌봄 공백	방역 관리 우수	주변에서 이용해서	기준/ 자격 제한 없어서	기타	돌봄 공백	방역 관리 우수	주변에서 이용해서	기준/ 자격 제한 없어서	기타	
전체	64.5	19.6	5.4	2.5	8.0	67.6	67.1	29.6	12.0	13.7	100.0(67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1.6	21.3	6.0	3.0	8.1	65.3	65.9	30.4	14.3	13.8	100.0(472)
유아	70.4	16.1	4.3	1.5	7.6	72.4	69.6	28.1	7.4	13.5	100.0(198)
지역규모											
대도시	59.6	21.4	6.7	4.2	8.1	62.7	67.2	34.6	13.7	14.0	100.0(280)
중소도시	70.9	16.6	4.7	1.2	6.5	73.2	68.5	23.5	10.3	12.4	100.0(283)

구분	1순위					1+2순위					계(수)
	돌봄 공백	방역 관리 우수	주변에서 이용해서	기준/자격 제한 없어서	기타	돌봄 공백	방역 관리 우수	주변에서 이용해서	기준/자격 제한 없어서	기타	
읍·면	57.7	24.1	4.3	2.0	11.9	63.0	62.7	35.4	13.2	16.8	100.0(107)
모취업 여부											
취업	92.5	3.6	1.1	-	2.7	94.9	58.7	20.4	8.5	6.0	100.0(364)
휴직중	44.0	40.3	3.1	4.3	8.3	49.6	77.8	37.5	7.4	24.5	100.0(57)
미취업	24.0	40.8	12.9	6.1	16.3	27.8	78.1	42.7	18.8	23.8	100.0(246)
부재 등	76.6	23.4	-	-	-	76.6	100.0	23.4	-	-	100.0(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휴원 조치에 대해 77.3%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생각하였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은 6%에 지나지 않았다. 긴급돌봄에 대해서도 5.8%만이 부정적이었고 75%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76.1%가 어린이집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에서 4.0~4.1점의 평균 점수를 보여 대다수의 부모가 어린이집의 휴원과 긴급보육 제공 등 코로나 시기의 대응조치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Ⅵ-9-20〉 어린이집 휴원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상당히 그렇다	어느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평균
코로나시기 휴원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음	37.0	40.3	16.8	4.7	1.3	100.0(1,160)	4.1
휴원 기간 중 긴급돌봄 운영은 적절했음	36.7	38.3	19.1	4.7	1.1	100.0(1,160)	4.0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의 대응과 지원은 적절했음	35.5	40.6	19.9	3.3	0.6	100.0(1,160)	4.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실시한 구체적 대응 조치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소독과 방역 실시 부문에서는 8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만족도가 큰 조치로 나타났고, 등원 아동에 대한 충실한 긴급보육 수행은 77.6%, 그리고 미등원 아동에 대한 가정내 돌봄 지원은 55.2%가 만족한 편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을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소독과 방역에 대해서는 4.3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등원 아동에 대한 충실한 보육 수행은 4.1점 만족도 점수를 보였으나, 미등원 아동의 가정내 활동 지원은 3.7점으로 조금 아쉬움을 보였다.

〈표 Ⅵ-9-21〉 어린이집의 코로나대응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한 편	보통	불만족 한편	매우 불만족	비해당/잘모름	계(수)	평균
어린이집 소독/방역 실시	39.2	45.6	13.2	0.6	0.1	1.4	100.0(1,160)	4.3
등원 아동에 대한 충실한 긴급보육 실시	36.9	40.7	17.0	2.0	0.8	2.7	100.0(1,160)	4.1
미등원 아동에 대한 놀이 활동 정보 제공 등 가정 내 돌봄 지원	24.5	30.7	25.8	9.1	3.6	6.3	100.0(1,160)	3.7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제공이 휴원기간 동안 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에 적절히 기여하였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70.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 또한 5점 척도에서 4점을 나타내어 긴급보육이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가구의 특성별로 집단 비교를 해보면, 최연소자녀가 유아인 가정이 영아인 가정보다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미세하게 높았고(6.3% vs. 7.1%),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나 읍면보다 돌봄 공백 해소 기여에 동의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취업모 가정에서 미취업모보다는 점수를 더 높게 주었고, 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400만원 미만 가정에서 400만원 이상 가구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9-22〉 긴급보육 제공의 돌봄 공백 해소 기여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수)	평균
전체	39.0	31.5	23.0	4.3	2.2	100.0(1,160)	4.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7.1	33.7	22.9	3.8	2.5	100.0(823)	4.0
유아	42.6	27.2	23.2	5.4	1.7	100.0(337)	4.0
$x^2(df)/t$			3.0(4)				-0.6
지역규모							
대도시	36.5	32.4	24.8	4.2	2.2	100.0(509)	4.0
중소도시	41.7	30.6	20.6	4.7	2.4	100.0(455)	4.0
읍·면	38.0	31.8	24.8	3.6	1.8	100.0(196)	4.0
$x^2(df)/F$			6.3(8)				1.1
모취업 여부							
취업	47.4	28.2	20.2	2.7	1.5	100.0(529)	4.2
휴직중	34.0	37.8	16.4	8.5	3.3	100.0(100)	3.9
미취업	30.3	34.5	26.7	5.5	2.9	100.0(520)	3.8
부재 등	27.3	18.5	54.2	-	-	100.0(11)	3.7
$x^2(df)/F$			33.7(12)***				7.0***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24.8	26.4	40.1	8.7	-	100.0(66)	3.7
250~299만원	37.2	27.9	24.8	3.3	6.8	100.0(61)	3.9
300~349만원	29.2	36.1	27.5	5.2	2.0	100.0(167)	3.9
350~399만원	33.8	33.5	22.7	6.4	3.7	100.0(97)	3.9
400~499만원	37.6	36.8	17.2	6.7	1.7	100.0(225)	4.0
500~599만원	44.5	29.3	22.9	1.4	1.8	100.0(219)	4.1
600~699만원	44.8	31.7	19.7	2.6	1.2	100.0(130)	4.2
700만원 이상	45.6	24.4	23.3	3.9	2.9	100.0(180)	4.1
모름/무응답	27.8	50.3	17.4	-	4.5	100.0(15)	4.0
$x^2(df)/F$			42.9(32)				2.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 $p < .05$, *** $p < .001$.

10. 보육지원체계 개편

가. 이전의 맞춤반 이용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현재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 맞춤형 보육제도는 영아반을 대상으로 맞춤반, 종일반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제도 운영 시 아이의 보육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영유아의 34.9%가 맞춤반을, 종일반은 38.2%가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보면 대도시(37.4%), 중소도시(34.6%), 읍·면지역(29.7%)의 순서로 맞춤반 이용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모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취업모(43.7%)에 비해 취업모(27.4%)의 맞춤반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Ⅵ-10-1〉 이전 연도 '맞춤형 보육' 제도 운영 시 보육 이용 형태

단위: %(명)

구분	맞춤반	종일반	올해 처음 어린이집 이용	계(수)
전체	34.9	38.2	26.9	100.0(1,464)
지역규모				
대도시	37.4	33.2	29.4	100.0(631)
중소도시	34.6	40.3	25.1	100.0(578)
읍·면	29.7	44.5	25.8	100.0(255)
$x^2(df)$		11.1(4)*		
모취업 여부				
취업	27.4	51.1	21.5	100.0(673)
휴직중	33.5	28.6	37.8	100.0(133)
미취업	43.7	25.6	30.7	100.0(643)
부재 등	28.7	48.7	22.5	100.0(15)
$x^2(df)$		82.1(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나. 인식

2020년 3월부터 도입이 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책'은 기존의 맞춤반-종일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어린이집 시간 운영 체계를 4시까지의 기본반과 그 이후 보육반인 연장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영유아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매우 적절함 15.4%, 적절한 편 37.4%로, 전체적으로 과반수인 52.8%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5점 척도 상의 평균 점수는 3.8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24.2%는 제도 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정보다는 영아가정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긍정적 인식이 조금 높았는데, 유아가정의 긍정적 인식은 51.6%로 겨우 과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비교를 보면, 자녀의 어머니가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인 가구보다 취업중인 가구에서 긍정적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나 소득집단별 비교에서는 일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표 Ⅵ-10-2〉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반과 연장반으로 운영)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적절함	적절한 편임	보통임	부적절한 편임	매우 부적절함	잘모름	계(수)	평균
전체	15.4	37.4	19.7	2.8	0.5	24.2	100.0(1,160)	3.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3.4	40.0	18.4	2.1	0.6	25.5	100.0(823)	3.9
유아	19.4	32.2	22.3	4.2	0.2	21.5	100.0(337)	3.8
$x^2(df)/t$				13.6(5)*				0.2
지역규모								
대도시	18.1	33.3	18.1	2.4	0.7	27.3	100.0(509)	3.9
중소도시	11.6	42.7	20.4	3.9	0.2	21.2	100.0(455)	3.8
읍·면	18.8	33.5	22.2	0.7	0.6	24.2	100.0(196)	3.9
$x^2(df)/F$				16.7(10)				0.5
모취업 여부								
취업	18.1	36.6	19.9	2.0	0.5	22.9	100.0(529)	3.9
휴직중	11.5	36.1	28.0	8.2	0.6	15.5	100.0(100)	3.6
미취업	12.8	38.4	18.3	2.8	0.5	27.1	100.0(520)	3.8
부재 등	25.0	39.0	4.5	-	-	31.5	100.0(11)	4.3
$x^2(df)/F$				17.7(15)				1.7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5.7	34.3	18.6	1.9	1.7	27.7	100.0(66)	3.8
250~299만원	13.1	30.5	16.5	2.4	-	37.5	100.0(61)	3.9
300~349만원	14.0	36.5	19.3	3.0	1.1	26.0	100.0(167)	3.8
350~399만원	21.8	34.1	16.5	1.3	0.5	25.7	100.0(97)	4.0
400~499만원	14.6	39.4	21.3	3.2	-	21.6	100.0(225)	3.8
500~599만원	12.5	35.6	20.6	1.5	-	29.7	100.0(219)	3.8
600~699만원	16.6	39.3	29.0	2.3	-	12.8	100.0(130)	3.8
700만원 이상	17.1	41.0	12.5	5.5	1.4	22.5	100.0(180)	3.9
모름/무응답	17.8	38.4	26.9	-	-	16.9	100.0(15)	3.9
$x^2(df)/F$				39.8(40)				0.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8.1% 정도였고 5%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척도상 만족도는 4.0으로 제도변화에 대해 대체로 긍

정적이고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 항목 중 '어린이집 등원 시각', '기본반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및 알람 서비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점수가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기본보육시간 규정으로 기본반 담임의 업무 시간이 축소되어 피로도가 덜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 의도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자동출결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평균점수로 보았을 때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의 연장보육일과에 대한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3.6점), 4시 이후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부모나 아동의 만족도가 3.7 수준임을 볼 때, 연장보육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이 필요해 보이고 연장보육프로그램과 반 운영에 대한 검토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Ⅵ-10-3〉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못함	별로 만족못함	보통	다소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어린이집 등원 시각	0.4	3.3	17.3	43.1	35.9	100.0(881)	4.1
어린이집 하원 시각	0.2	5.8	18.4	41.9	33.8	100.0(881)	4.0
기본보육(9:00~16:00)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0.2	3.6	21.7	40.2	34.3	100.0(881)	4.0
기본보육(9:00~16:00) 이용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0.1	2.3	25.2	40.2	32.1	100.0(881)	4.0
연장보육(16:00~19:30)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1.7	6.0	34.0	34.1	24.2	100.0(881)	3.7
연장보육(16:00~19:30) 이용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1.4	5.8	36.5	33.6	22.8	100.0(881)	3.7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아이의 하루일과에 관한 소통	0.7	3.5	20.2	41.5	34.1	100.0(881)	4.0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0.6	0.8	20.7	40.8	37.1	100.0(881)	4.1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의 연장보육일과에 대한 소통	2.0	6.3	39.2	31.4	21.0	100.0(881)	3.6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1.8	4.8	40.5	30.6	22.2	100.0(881)	3.7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및 알림 서비스 이용	0.9	2.5	22.7	34.1	39.8	100.0(881)	4.1
전체	0.9	4.1	27.0	37.4	30.7	100.0(881)	4.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보육의 기본시간 기준을 변경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그간 불편함으로 인식되었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보육의 질 등의 측면에서 2021년 동안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눈치 안보고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다소 또는 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53.9%로 과반을 넘었고 5점 척도상 3.6점의 평점을 얻었다. 그러나 14%정도는 개선이 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평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연장보육의 질 개선' 측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3.6점으로 평가되었고 51.3%가 개선되었다는데 동의하였다.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알림서비스로 등·하원 사고로부터 안심' 측면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아 4.0의 개선 동의 의견을 보였고 67%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측면에 대해 '보통'이하로 개선을 평가하는 비율이 32~49%로 나타나 어린이집과 함께 정책 시행 주체인 정부는 효과의 체감도 상향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표 Ⅵ-10-4〉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개선 정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다소 좋아짐	매우 좋아짐	평균	계(수)
눈치안보고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 이용	3.9	10.1	32.0	31.2	22.7	3.6	100.0(881)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연장보육의 질 개선	2.7	4.6	41.4	32.1	19.2	3.6	100.0(881)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알림서비스로 등·하원 안심	1.2	2.3	27.8	30.1	36.9	4.0	100.0(88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020년 개정된 현재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가장 필요한 부분(1순위)으로 꼽았을 때 연장반 보육프로그램의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24.5%)로 선택되었고 다음은 교사 대 아동 비율(22.4%)의 감소, 연장반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18.8%)의 순이었다. 1순위 선택뿐만 아니라 1+2+3순위로 선택한 의견을 모두 모아보면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연장반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얻어, 1순위는 아니지만 매우 필요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Ⅵ-10-5〉 기본반/연장반 운영 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1+2+3순위
전체	100.0	100.0	100.0
연장반 이용 자격기준 완화	13.2	24.9	36.4
연장반 보육프로그램 구성	24.5	49.4	68.5
연장반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18.8	43.3	62.3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22.4	32.7	42.8
다양한 반으로 연장반 편성	6.8	19.4	36.6
기본보육반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하원 시간 연장	9.1	20.0	31.4
연장보육 이용 시간(월 1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 부담	4.0	7.3	13.4
기타	1.1	1.2	1.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1. 시사점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4.4%, 2018년 21.7%였던 국공립 이용률이 2021년 29.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15년 대비로는 202% 증가율을 보여 6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보인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영유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증가로,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에 지속적으로 근접해 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이전 연도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일 이용 시간 평균은 7시간 12분으로, '18년 7시간 24분보다 12분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18년 조사에서는 영아 맞춤형 보육 제도(15시까지 맞춤형)가 적용되었던 데 비해 '21년 조사 시에는 '20년부터 도입된 기본보육-연장보육 제도 운영으로, 오후 4시까지 즉, 일일 7시간이 기본 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희망하는 보육시간 또한 줄어든 점,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에 미루어볼 때 기본-연장 보육시간 이용은 필요한 보육시간 현실과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히 안착되어 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장보육 이용 비율이 26.8%로 잡힌 것을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월평균 부모부담 보육료가 2018년 61,000원에서 2021년 56,000원으로 5,000원이 줄어들었고(8.2%↓), 부모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인데, '18년도에는 20.6%가 부담이 된다고 한 반면 '21년에는 17.6%가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 비용 또한 '15년 1.9%, '18년 1.6%였던 데 비해 '21년은 1.3%로 감소되었음 또한 부담감 감소를 지지해 주는 증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국가 지원이 커지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 비용 절감보다는 보육·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더 크게 필요로 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향성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 또한 귀 기울여야 할 정책 지향이다.

2021년 조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제한적인 시기가 많다보니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소극적이 되었음을 몇몇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대상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감소되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참여 활동 또한 참여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지속적 조사를 통해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관리시스템의 사용이 부모들에게 투명한 입소관리로 평가받으며 안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경험은 44.7%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6.9개월로 2018년도에 비해 약 0.7개월 정도 짧아졌다. 93.9%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64.7%의 이용자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명한 입소자 관리가 된다는 점(54.5%)과 우선순위의 임의조정이 방지된다는 점(25.1%)을 꼽았다.

보육정책 인지도 및 관련 인식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인지는 52.7% 수준이며, 자녀가 공공형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경우가 74.9%에 달하여 그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의 경우는 65% 정도의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한 경우는 31.7%이며, 도움정도는 3.7점으로 평가되었고, 교직원 관련 자료의 추가정보를 희망하였다.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지도는 60.6%로 2018년(47.4%)에 비해 상승하였고, 그 만족도도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평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29.9%에서 1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평가인증에서 2019년 평가제로 변경된 제도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95.0%)이 대다수였고, CCTV 설치와아동 및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61.7%로 높았다. 20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이용은 60.7%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이용 이유는 돌봄 공백(64.5%)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만족도 또한 다소 만족하는 수준(4점)에 수렴하나,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만족도,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의 관계, 연장보육일과의 소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Ⅶ

유치원 이용 및 요구

01 유치원 이용 특성

02 유치원 이용 비용

03 유치원 제공 서비스

04 방과후 특성화활동

0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06 시사점

Ⅶ. 유치원 이용 및 요구

본 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만 3-5세)의 기관 이용 특성과 요구를 연령, 지역 규모, 유치원의 설립유형,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유치원 이용 특성

가. 유형별 유치원 이용률

조사에 응답한 유치원 이용 아동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결과, 3세 21.2%, 4세 38%, 5세 40.8%로 5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2018년과 유사하다.

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의 유형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29.6%가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0.4%의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년도 조사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은 2015년 24.9%에 비해서는 상승했으나, 2018년 29.8%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Ⅶ-1-1〉 유치원 유형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18년		2015년	
	비율	계(수)	비율	계(수)	비율	계(수)
전체	100.0	100.0(1,041)	100.0	100.0(1,005)	100.0	100.0(742)
연령						
3세	21.2	100.0(213)	24.7	100.0(271)	22.2	100.0(159)
4세	38.0	100.0(386)	32.2	100.0(318)	37.0	100.0(294)
5세	40.8	100.0(442)	43.0	100.0(416)	40.8	100.0(289)
유치원 유형						
국·공립	29.6	100.0(339)	29.8	100.0(365)	24.9	100.0(240)

구분	2021년		2018년		2015년	
	비율	계(수)	비율	계(수)	비율	계(수)
사립	70.4	100.0(702)	70.2	100.0(640)	75.1	100.0(50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06. 〈표 Ⅷ-1-1〉.

나. 유치원 유형별 이용 아동 특성

유치원 이용 아동 가구의 특성을 어머니의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는 46.8%이며, 휴직 중인 8.4%를 포함하면 55.2%에 달하여 취업 모 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였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3세 어머니의 취업률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휴직 중인 비율도 3세 유아에서 9.2%로 가장 높아 이를 포함하면 57.8%에 달하였다. 휴직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보면 어머니의 취업 비율은 2015년 41.4%, 2018년 50.4%, 2021년 55.9%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 중인 비율은 45.8%,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 취업중인 비율은 47.2%로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의 어머니가 취업중인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에 반해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어머니가 미취업 중인 비율은 45.4%, 사립유치원에서는 43.2%로 국·공립유치원 재원 유아의 어머니의 경우 미취업중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듯 취업중인 어머니들의 사립유치원 이용비율이 높음은 사립유치원이 교육비용에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 방과후 과정 운영 등 맞벌이 가구의 요구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유치원 이용 아동 가구의 특성을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이용 유아의 42.4%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41.9%, 읍·면지역에 15.7%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42.7%), 대도시(35.5%), 읍·면지역(21.8%)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은 대도시(44.5%), 중소도시(42.4%), 읍·면지역 (13.1%) 순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Ⅶ-1-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형별 모취업 여부, 지역규모 특성

단위: %(명)

구분	해당 비율	모 취업여부				지역규모			계(수)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100.0	46.8	8.4	43.9	1.0	41.9	42.4	15.7	100.0(1,041)
연령									
3세	21.2	48.6	9.2	41.2	1.0	45.7	39.9	14.4	100.0(213)
4세	38.0	47.2	8.8	43.7	0.3	43.1	40.8	16.1	100.0(386)
5세	40.8	45.5	7.4	45.5	1.6	38.7	45.3	16.0	100.0(442)
유치원 유형									
국·공립	29.6	45.8	6.8	45.4	2.0	35.5	42.7	21.8	100.0(339)
사립	70.4	47.2	9.0	43.2	0.6	44.5	42.4	13.1	100.0(702)
2018년	100.0	47.4	3.0	47.9	1.7	40.5	43.9	15.6	100.0(1,005)
2015년	100.0	39.0	2.4	57.7	-	38.0	44.7	17.3	100.0(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07. 〈표 Ⅶ-1-2〉.

다. 유치원 이용 이유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가 22.5%,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12.7%의 순서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는 2018년에는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가 24.3%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38.4%)' 다음 순위였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유아의 연령별로 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3세, 4세, 5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3세는 61.7%, 4세는 47.1%에 비해 5세에서는 40.4%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에 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3세 7.9%에서 4세 19.5%, 5세 32.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취학을 준비하는 것이 유치원 이용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표 Ⅷ-1-3〉 연령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61.7	42.2	47.1	43.5	40.4	32.3	47.5	38.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7.9	8.0	19.5	17.1	32.9	25.6	22.5	18.5
특기교육을 위하여	2.3	2.0	2.4	2.1	2.0	2.0	2.2	2.0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7.8	8.1	5.9	6.6	5.1	6.7	6.0	7.0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1.8	28.2	15.0	20.5	11.0	24.9	12.7	24.3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	0.7	1.5	0.6	0.3	1.2	0.7	0.9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4.6	5.7	5.4	4.6	4.0	2.9	4.7	4.1
비용 부담 적어서	2.4	5.2	2.7	4.8	2.5	4.4	2.6	4.7
기타	1.6	–	0.4	–	1.6	–	1.2	–
계 (수)	100.0 (213)	100.0 (271)	100.0 (386)	100.0 (318)	100.0 (442)	100.0 (416)	100.0 (1,041)	100.0 (1,0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08. 〈표 Ⅷ-1-3〉.

이러한 유치원 이용 이유를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유치원 이용 이유의 순위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 라는 순위는 동일하나, 응답 비율에서는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2.1%로 사립유치원의 18.5%에 비해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라는 이유에 55.8%가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재원 중 초등학교의 환경을 미리 접할 수 있고,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의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학교처럼 체감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이용 이유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라는 응답은 10.6%로 사립의 경우 2.2%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서'라는 응답은 7.2%로 사립유치원의 응답률 0.7%에 비해 현저히 높아 국·공립유치원의 교육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기관선택 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로 국·공립유치원의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취업모와 맞벌이 가구의 요구에 맞게 사립유치원이 더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사회성 발달을 위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15.8%), 읍·면지역(15.3%)에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라는 응답비율이 대도시(8.5%)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의 응답 비율이 11.1%로 미취업모 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부재중인 경우도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유치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0.5%로 답하여 유치원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Ⅶ-1-4〉 유치원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7.7	55.8	50.4	45.0	46.7	45.0	54.2	49.3	28.8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32.1	18.5	23.1	22.0	22.4	23.5	19.6	21.9	28.6
특기교육을 위하여	1.4	2.5	3.4	1.0	2.1	1.7	3.5	2.6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7	7.0	6.8	5.9	4.2	11.1	3.2	1.0	10.5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13.8	12.2	8.5	15.8	15.3	9.5	18.5	15.3	-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2	0.5	0.5	0.9	0.4	1.3	-	0.1	-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10.6	2.2	3.6	6.0	3.8	4.4	1.0	5.7	6.1
비용 부담 적어서	7.1	0.7	2.7	2.5	2.5	2.3	-	3.3	4.9
기타	2.3	0.7	1.0	0.8	2.6	1.3	-	0.8	2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1)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유치원 재원 유아의 부모들이 유치원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은 기관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과의 거리'라는 응답이 22.5%, '주변의 평판'이 12.3%, '교사' 8.9%, '국공립 여부' 6.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유치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의 순서는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는 집과의 거리가 23.1%, 프로그램 21.6%, 주변의 평판 13.6%로 본 조사의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유치원 선택 시 '프로그램'에의 관심이 증가함은 누리과정의 개편으로 교육보육 과정에 대한 부모 대상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Ⅷ-1-5〉 연령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2018년
원장	4 .2	7.4	2.8	7.0	4.2	7.0	3.7	7.1
교사	7.8	7.6	7.9	7.6	10.3	7.0	8.9	7.3
운영시간	2.6	1.0	2.4	1.9	0.8	2.9	1.8	2.1
비용	2.9	4.2	6.1	4.9	3.9	4.8	4.5	4.7
프로그램	29.5	19.9	26.8	21.6	25.4	22.5	**26.8**	**21.6**
건강/영양	0.8	0.6	0.8	0.4	2.2	0.1	1.4	0.3
기관 학급 규모	–	0.7	0.9	1.8	0.5	2.1	0.5	1.7
기관 실내/외 환경	6.8	3.5	4.0	1.6	6.9	2.8	5.8	2.6
안전한 보호	0.7	1.0	0.8	0.6	1.1	0.9	0.9	0.8
집과의 거리	24.2	25.4	22.4	22.1	21.7	22.5	**22.5**	**23.1**
기관 시설/설비	1.6	4.0	1.1	2.6	0.9	3.6	1.2	3.4
국공립 여부	5.0	7.7	6.0	8.3	7.4	6.6	6.3	7.4
주변의 평판	10.0	14.3	15.1	14.0	11.0	12.8	**12.3**	**13.6**
주변환경	0.5	1.3	0.2	2.3	0.7	1.8	0.4	1.8
차량운행 여부	–	–	0.4	0.8	0.5	0.3	0.3	0.4
형제 재원 여부	2.7	0.5	1.3	–	1.6	0.7	1.7	0.4
기타	0.7	0.4	1.1	1.8	0.8	1.2	0.9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271)	(386)	(318)	(442)	(416)	(1,041)	(1,0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12. 〈표 Ⅶ-1-6〉.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 선택 시 고려하였던 점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국·공립유치원 또는 사립유치원,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 선택 시 고려하는 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집과의 거리'가 30%로 가장 주된 선택이유였고, 다음은 '국·공립 여부'가 21.5%, '비용' 12.3%, '교사' 8.8%, '프로그램'이 7.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19.3%, '주변의 평판' 14.9%, '교사' 8.9%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유형별로 부모에게 체감되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과 읍·면지역의 경우는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위의 평판', '교사' 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에서는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위의 평판', '교사'로 나타났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어머니가 취업중이거나 미취업 중인 경우에 그 순위가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주위의 평판', '교사'등으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는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재의 경우에는 '기관시설/설비(21.1%)', '원장(13%)', '차량운행 여부(10.5%)' 등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다른 경우들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Ⅶ-1-6〉 유치원 유형·지역·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원장	2.1	4.4	2.7	4.6	3.9	4.3	3.4	2.8	13.0
교사	8.8	8.9	8.1	8.9	10.8	6.8	11.0	10.8	4.9
운영시간	0.3	2.4	1.5	1.8	2.6	3.1	-	0.7	-
비용	12.3	1.3	3.4	5.6	4.6	3.9	5.6	5.1	-
프로그램	7.4	34.9	30.6	23.7	25.0	27.1	21.1	27.9	9.2
건강/영양	1.0	1.5	0.9	1.3	2.9	1.3	-	1.8	-
기관 학급 규모	0.4	0.6	0.5	0.5	0.9	0.7	0.6	0.4	-
기관 실내/외 환경	5.0	6.1	5.1	5.7	7.6	5.7	7.7	5.4	6.6
안전한 보호	0.9	0.9	0.8	0.8	1.5	0.4	-	1.7	-
집과의 거리	30.0	19.3	23.0	23.5	18.3	22.1	24.8	22.9	4.5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기관 시설/설비	0.5	1.4	1.1	1.6	–	0.9	–	1.2	21.1
국공립 여부	21.5	–	5.4	6.9	7.4	5.4	4.7	7.5	15.1
주변의 평판	6.2	14.9	14.3	11.1	10.6	13.6	15.2	10.3	15.2
주변환경	0.2	0.6	0.4	0.7	–	0.3	1.2	0.5	–
차량운행 여부	0.6	0.3	0.3	0.4	0.4	0.1	1.6	0.1	10.5
형제 재원 여부	2.8	1.3	1.1	1.9	2.8	2.5	3.2	0.7	–
기타	0.3	1.2	0.9	1.0	0.5	1.7	–	0.2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과의 거리', '프로그램', '주위의 평판', '국·공립 여부' 등이 부모들이 유치원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들로 나타났다. '집과의 거리'에 응답한 비율은 249만원 이하 가구(29.2%), 500~599만원 가구(27%), 250~299만원 가구(26.5%)에서 다른 경우보다 높았다. '프로그램'에 응답한 비율은 소득구간 300~ 349만원 가구(32.3%), 249만원 이하 가구(31%)에서 특히 높았고, '주위의 평판'에 응답한 비율은 350~399만원 가구(18.1%), 700만원 이상 가구(16.5%), 600~699만원 가구(15%)에서 다소 높았다. '국·공립 여부'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3%)에서 그 응답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비용'이라고 답한 경우는 249만원 이하 가구(8.2%), 250~299만원 가구(7.9%)에서 다른 경우보다 높았다.

〈표 Ⅶ-1-7〉 가구소득별 유치원 선택 시 고려사항

단위: %(명)

구분	249만원 이하	250~299 만원	300~349 만원	35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699 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원장	1.3	4.4	4.9	–	4.8	4.1	7.9	1.3	–
교사	7.5	9.6	6.0	19.5	6.8	7.7	11.1	8.6	8.2
운영시간	–	–	–	–	1.3	4.4	2.2	1.7	–
비용	8.2	7.9	5.9	3.6	3.0	6.9	3.9	2.2	–
프로그램	31.0	21.3	32.3	29.5	25.3	24.6	23.2	28.4	31.3
건강/영양	4.3	–	0.9	1.0	1.5	0.8	–	2.7	–
기관 학급 규모	–	1.1	0.6	1.0	1.0	0.3	–	0.4	–
기관 실내/외 환경	1.9	2.4	6.5	3.8	6.1	6.4	4.6	6.5	15.9
안전한 보호	–	–	0.8	3.0	0.2	1.1	1.6	0.6	–

구분	249만원 이하	250~299 만원	300~349 만원	35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699 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집과의 거리	29.2	26.5	24.4	13.4	20.7	27.0	13.0	23.8	32.2
기관 시설/설비	-	4.1	1.3	1.2	1.7	0.2	3.0	0.3	-
국공립 여부	8.3	7.8	8.9	5.7	8.9	4.6	8.5	3.0	4.5
주변의 평판	6.3	12.5	4.4	18.1	14.2	9.1	15.0	16.5	-
주변환경	-	-	-	-	0.6	1.0	1.1	-	-
차량운행 여부	-	2.4	0.4	-	-	-	0.7	0.7	-
형제 재원 여부	2.0	-	2.3	-	2.9	1.3	1.9	1.4	8.0
기타	-	-	0.4	-	0.9	0.7	2.3	1.7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라. 유치원 이용 시기 및 기간

1)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 최초 이용 시기를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은 47.6개월이며,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균 50.1개월,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46.6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자료와 비교하면, 전체를 기준으로 46.2개월에서 47.6개월로 늦어졌으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46.4개월에서 50.1개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46.1에서 46.6개월로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빨라서 평균 46.6개월에 시작하였으며, 중소도시 47.4개월, 대도시 48.2개월로 대도시 거주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작 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이용 시작 시점 평균이 중소도시에서 51.2개월로 대도시(49.6개월)나 읍·면지역(49개월) 유아들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유아들이 45개월로 가장 일찍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휴직 중인 경우 43.6개월로 가장 빨랐고, 취업 중인 경우 47.9개월, 미취업인 경우 48.1개월, 어머니 부재인 경우는 47.9개월로 나타났다.

〈표 Ⅷ-1-8〉 유치원 최초 이용 시기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0.1	11.6	(339)	46.6	11.6	(702)	47.6	11.7	(1,041)
지역규모									
대도시	49.6	11.1	(129)	47.7	11.0	(340)	48.2	11.1	(469)
중소도시	51.2	11.3	(128)	45.9	11.6	(272)	47.4	11.8	(400)
읍·면	49.0	12.8	(82)	45.0	12.9	(90)	46.6	13.0	(172)
F		3.9*			3.6*			1.8	
모취업 여부									
취업	50.1	11.4	(156)	47.0	11.8	(336)	47.9	11.8	(492)
휴직중	42.5	16.3	(25)	44.0	9.6	(53)	43.6	11.6	(78)
미취업	51.2	10.6	(151)	46.7	11.6	(309)	48.1	11.5	(460)
부재 등	51.4	8.3	(7)	42.7	2.4	(4)	47.9	7.9	(11)
F		2.0			1.9			2.7*	
2018년	46.4	11.3	(104)	46.1	9.5	(129)	46.2	10.1	(2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16. 〈표 Ⅶ-1-9〉.
* $p < .05$.

2)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다음으로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의 재원기간을 살펴보았다.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은 현재의 유치원을 15.6개월째 이용하고 있었으며, 국·공립유치원 13.7개월, 사립유치원 16.3개월로 사립유치원 재원 기간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2.6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유치원 재원기간은 각각 16.3개월로 비슷하였지만, 대도시 지역 유아의 재원기간은 14.6개월로 짧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중소도시(17.7개월)와 읍·면지역(17.4개월)에 비해 대도시 거주 유아의 재원 기간(14.7개월)이 짧은 차이를 보였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 18.9개월,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18.7개월로 재원 기간이 길었다.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은 2015년 조사에서 13.4개월, 2018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16.9개월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 조사 결과는 15.6개월로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Ⅶ-1-9〉 현재 이용 유치원 재원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3.7	10.3	(339)	16.3	11.3	(702)	15.6	11.0	(1,041)
지역규모									
대도시	14.1	10.1	(129)	14.7	10.5	(340)	14.6	10.4	(469)
중소도시	12.9	10.4	(128)	17.7	11.9	(272)	16.3	11.7	(400)
읍·면	14.8	10.2	(82)	17.4	10.9	(90)	16.3	10.7	(172)
F		2.5			5.2**			3.0*	
모취업 여부									
취업	14.5	10.5	(156)	15.5	11.1	(336)	15.2	10.9	(492)
휴직중	19.0	13.8	(25)	18.9	12.9	(53)	18.9	13.1	(78)
미취업	11.9	9.0	(151)	16.7	11.0	(309)	15.2	10.6	(460)
부재 등	20.8	7.6	(7)	15.7	10.3	(4)	18.7	9.1	(11)
F		2.3			2.4			2.7*	
2018년	15.7	10.4	(365)	17.4	10.9	(640)	16.9	10.8	(1,005)
2015년	13.3	9.0	(240)	13.5	8.6	(502)	13.4	8.7	(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19. 〈표 Ⅶ-1-11〉.
* $p < .05$, ** $p < .01$.

마. 유치원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1) 이용 요일 및 이용 일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가 유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을 모두 표기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주당 정기적 이용 일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치원 이용 유아는 평일기준으로 5일은 거의 100%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읍·면지역에서 1.2%는 토요일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약 0.4%가 토요일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1-10〉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유치원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재
월요일	99.7	99.9	100.0	99.7	100.0	99.9	100.0
화요일	99.9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99.9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금요일	99.9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토요일	–	–	1.2	0.4	–	–	–
일요일	–	–	–	–	–	–	–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수)	(469)	(400)	(172)	(492)	(78)	(460)	(1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19-420. 〈표 Ⅷ-1-12〉.

2) 유치원 이용 시간

가) 등원 시각

유치원의 등원 시각을 살펴보면, 53%의 아동이 오전 8:31~9:00시 사이에 등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오전 9:01~9:30분 사이에 22.1%, 8:01~8:30분 사이에 13.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8시 이전 등원 비율은 2015년 4.8%, 2018년 3.7%, 2021년 2.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아의 연령별로는 등원 시각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8시 이전 등원 비율은 5세 유아에서 3.9%로 4세 유아 1.9%, 3세 유아 2.6%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Ⅷ-1-11〉 연령별 유치원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년	2015년
7:30까지	0.4	–	0.4	0.2	0.4	0.7
7:31~8:00	2.2	1.9	3.5	2.6	3.3	4.1
8:01~8:30	12.1	11.4	17.1	13.9	19.4	21.0
8:31~9:00	52.1	54.8	51.7	53.0	48.0	42.6
9:01~9:30	23.4	24.0	19.6	22.1	23.4	26.8
9:31~10:00	9.9	8.0	7.7	8.3	5.4	4.7
10:01 이후	–	–	–	–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1,041)	(1,005)	(742)
$x^2(df)$	10.3(10)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20-421. 〈표 Ⅷ-1-13〉.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의 특성에 따른 등원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국·공립, 사립 등 유치원 유형에 따라 등원 시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8:31~9:00시 사이에 등원하는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은 67.8%, 사립유치원은 46.8%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유치원은 8시 30분 이전 등원하는 비율이 18.8%, 사립유치원 15.8%로 조사되었고,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9시 30분 이후의 등원 비율이 11.1%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1.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하는 유아는 일찍 등원하는 경향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늦은 등원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도 등원 시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읍·면지역 거주 유치원 이용 유아의 등원이 비교적 빨라 8시 30분 이전에 28.4%가 등원하여, 대도시 거주 유아 15.3%, 중소도시 거주 유아 13.6%와 비교되었다. 반면, 대도시, 중소도시 유아는 9시 이후 등원 비율이 각각 29%와 34.1%로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경우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결과는 읍·면지역 거주 유아들의 등원 시각이 도시지역 거주 유아들보다 빠름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등원 시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모두에서 8:31~9:0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등원하고 있지만 특히 미취업모의 이 시간대 등원 비율이 높아 56.2%에 달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에는 유아들의 등원 시각이 빨라 8시 30분 이전까지 등원하는 경우가 26.5%로 휴직 중인 경우 10.4%, 미취업 상태인 경우 7.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는 사례수가 매우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8:31~9:00분 사이의 등원 비율이 69.1%로 높았다.

〈표 Ⅶ-1-12〉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	0.3	0.3	0.2	-	0.5	-	-	-
7:31~8:00	1.2	3.2	3.7	1.2	3.3	4.3	3.8	0.4	6.6
8:01~8:30	17.6	12.3	11.3	12.2	25.1	21.7	6.6	6.9	15.1
8:31~9:00	67.8	46.8	55.6	52.3	47.7	50.4	48.8	56.2	69.1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9:01~9:30	12.0	26.3	20.4	25.1	18.4	16.3	31.8	26.7	9.2
9:31~10:00	1.5	11.1	8.6	9.0	5.6	6.8	9.0	9.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69.5(5)***		35.3(10)***			72.3(1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22. 〈표 Ⅷ-1-14〉.
*** $p < .001$.

나) 하원 시각

유치원의 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15:01~16:00시 사이 하원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6:01~17:00시 사이에 귀가하는 비율이 34.8%로 나타나 15시~17시 사이에 73.1%가 하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시 이전에는 15.8%가, 17시 이후에는 11.1%가 하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과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7시 이후 유치원 하원 유아의 비율이 2015년 18.8%, 2018년 14.6%, 2021년 1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유치원의 하원 시각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Ⅷ-1-13〉 연령별 유치원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2018년	2015년
14:00까지	5.0	5.9	6.4	5.9	8.0	8.4
14:01~15:00	5.7	9.3	12.6	9.9	12.1	14.3
15:01~16:00	34.5	37.9	40.6	38.3	27.6	26.3
16:01~17:00	41.7	36.2	30.0	34.8	37.7	32.2
17:01~17:30	7.1	4.1	5.2	5.2	6.6	10.9
17:31~18:00	4.7	5.3	3.7	4.5	4.4	3.8
18:01~19:00	1.2	1.3	1.6	1.4	3.3	3.6
19:01이후	–	–	–	–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1,041)	(1,005)	(742)
$x^2(df)$	17.6(1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23. 〈표 Ⅷ-1-15〉.

유치원의 하원 시각에 나타나는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유치원의 하원 시각은 유치원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에서는 15:01~ 16:00시 사이 하원비율이 47.4%로 가장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16:01~17:00시 사이 하원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또한 14시 이전 하원 비율이 국공립의 경우 12.6%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3.1%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에 비해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이 빠른 경향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 유치원 이용 유아의 하원 시각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에는 16시 이전 하원 유아의 비율은 42.5%이나,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는 50.1%, 미취업인 경우는 66.9%,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는 69.5%로 나타났다. 반대로 오후 5시 이후의 하원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17.4%로, 휴직중인 경우 16.1%, 미취업중인 경우 3.7%로 조사되어 어머니의 취업으로 다소 늦은 하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Ⅷ-1-14〉 유치원 유형·지역규모·모취업 여부별 유치원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12.6	3.1	5.0	7.0	5.6	3.1	0.8	10.1	-
14:01~15:00	5.7	11.6	10.0	12.3	3.2	7.3	11.4	12.6	-
15:01~16:00	47.4	34.4	40.1	35.3	41.3	32.1	37.9	44.2	69.5
16:01~17:00	26.8	38.2	35.1	34.2	35.7	40.2	33.8	29.4	30.5
17:01~17:30	3.2	6.0	4.5	5.8	5.5	6.6	14.5	2.0	-
17:31~18:00	2.3	5.4	3.6	4.4	7.1	8.2	0.7	1.4	-
18:01~19:00	2.0	1.2	1.7	1.0	1.6	2.6	0.9	0.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58.9(6)***		10.9(12)			89.0(1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24. 〈표 Ⅷ-1-16〉.
*** $p < .001$.

다) 이용 시간

유아가 유치원에 머무는 시간, 유치원 이용 시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1년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는 하루 평균 7시간 4분을 유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아가 하루 6~7시간 동안 37.4%가 유치원을 이용하며 다음으로 7~8시간 30.6%, 5~6시간이 8~9시간 15%, 8~9시간이 9.6% 순으로 나타났다. 5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유아는 4%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0.6%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8년도 총 이용 시간은 7시간 36분이었으나 2021년 7시간 4분으로 32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 6~7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5시간까지 이용하는 유아는 4세(4.5%)와 5세(4.4%)에 많이 분포하였고, 3세는 2.4%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 평균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3세는 7시간 13분, 4세는 7시간 2분, 5세는 7시간 1분으로 3세의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는 2018년에 4세와 5세의 이용 시간이 3세 보다 길었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표 Ⅷ-1-15〉 연령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분, 분

구분	3세	4세	5세	전체
5시간까지	2.4	4.5	4.4	4.0
5~6시간	11.4	15.4	16.5	15.0
6~7시간	38.0	36.2	38.2	37.4
7~8시간	35.1	30.6	28.3	30.6
8~9시간	8.9	9.8	9.6	9.6
9~10시간	3.0	3.4	2.3	2.8
10시간 이상	1.2	-	0.8	0.6
계(수)	100.0(213)	100.0(386)	100.0(442)	100.0(1,041)
평균(시간:분)	7:13	7:02	7:01	7:04
표준편차(분)	68.1	69.8	74.4	71.5
F		2.9		
2018년	7:36	7:36	7:36	7:36
2015년	7:06	7:12	7:12	7:1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25-426. 〈표 Ⅷ-1-17〉.

유치원 이용 시간을 유치원 설립유형, 지역규모,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이용 시간이 사립유치원 7시간 7분, 국·공립유치원 6시간 56분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시간이 더 길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은 평균 7시간 19분으로 가장 길었고, 대도시는 7시간 6분, 중소도시는 5시간 57분으로 나타나 읍·면지역 유아의 유치원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7시간 27분, 부재중인 경우 7시간 16분, 휴직중인 경우 7시간 7분, 미취업인 경우 6시간 39분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유치원 이용 시간이 다른 경우보다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Ⅶ-1-16〉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명), 사: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7.6	2.5	2.7	5.3	4.0	1.1	2.0	7.6	-
5~6시간	11.5	16.5	16.7	16.3	6.6	10.7	15.1	19.9	-
6~7시간	41.9	35.5	38.1	36.9	37.0	31.7	38.5	42.6	62.9
7~8시간	28.1	31.7	28.6	31.2	34.6	35.0	33.9	25.2	37.1
8~9시간	7.9	10.3	11.4	7.1	11.3	14.6	8.9	4.5	-
9~10시간	2.9	2.8	1.5	2.9	6.3	5.7	1.5	0.2	-
10시간 이상	0.1	0.8	1.1	0.2	0.3	1.3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22.6(6)***		25.4(12)**			92.4(18)***			
평균(시간:분)	6:56	7:07	7:06	5:57	7:19	7:27	7:07	6:39	7:16
표준편차(분)	74.9	69.8	69.7	73.4	68.6	70.6	59.1	66.7	28.8
t/F	-5.6***		8.6***			14.5***			
2018년	7:18	7:42	7:30	7:24	8:00	8:06	7:36	7:06	8:12
2015년	7:12	7:06	7:06	7:12	7:30	7:48	6:18	6:42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27-428. 〈표 Ⅶ-1-18〉.
** $p < .01$, *** $p < .001$.

3) 이용 시간 만족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부모의 만족 정도를 유아의 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 이용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시작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유치원 시작 시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2.2%로 매우 높았고, '너무 늦다' 4.8%, '너무 이르다' 3%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2015년 91.6%에서 2018년에 91.1%로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4세의 만족 비율이 93.6%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고, 3세의 만족 비율이 87.8%로 가장 낮았다. 한편 거주 지역의 규모를 중심으로 보면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만족비율이 93.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에서 91.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모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중인 경우 시작 시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93.1%,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92.5%, 휴직중 87.5%, 부재 등의 경우 86%로 어머니가 미취업중인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의 유형별로는 사립이나 국공립 모두 유사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83.4%로 나타나 시작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 9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짐을 보여준다. 특히 끝나는 시간은 '너무 이르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나 유치원 이용 가구가 원하는 하원 시간 보다 일찍 하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 80.7%, 2018년 80.5% 대비 2021년에 83.4%로 상당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4세에서 85.3%, 3세에서 83.4%, 5세에서 81.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아의 거주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 거주 유아의 만족도가 86.1%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84.8%, 중소도시 81.1%로 읍·면지역에서의 끝나는 시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부재하는 경우 100%의 만족도를 보였고, 취업 중인 경우 84.5%, 미취업인 경우 82.8%, 휴직중인 경우 79%로 조사되었다. 이용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의 끝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85.4%로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 78.7%에 비해 높았다.

〈표 Ⅶ-1-17〉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전체	92.2	3.0	4.8	83.4	14.0	2.6	100.0(1,041)
연령							
3세	87.8	5.1	7.0	83.4	13.5	3.1	100.0(213)
4세	93.6	2.3	4.1	85.3	13.3	1.4	100.0(386)
5세이상	93.3	2.5	4.2	81.6	14.9	3.5	100.0(442)
$x^2(df)$		7.2(4)			3.3(4)		
지역규모							
대도시	92.8	3.4	3.8	84.8	12.8	2.5	100.0(469)
중소도시	91.3	2.3	6.4	81.1	16.1	2.8	100.0(400)
읍·면	93.6	3.7	2.8	86.1	11.5	2.4	100.0(172)
$x^2(df)$		6.8(4)			1.4(4)		
모 취업여부							
취업	92.5	2.4	5.1	84.5	14.6	0.9	100.0(492)
휴직중	87.5	2.5	10.0	79.0	15.2	5.8	100.0(78)
미취업	93.1	3.6	3.4	82.8	13.4	3.9	100.0(460)
부재 등	86.0	9.1	4.9	100.0	-	-	100.0(11)
$x^2(df)$		7.7(6)			12.2(6)		
유치원 유형							
국·공립	93.6	2.5	3.9	78.7	18.5	2.7	100.0(339)
사립	91.7	3.2	5.1	85.4	12.1	2.6	100.0(702)
$x^2(df)$		0.6(2)			2.8(2)		
2018년	91.1	3.3	5.5	80.5	18.3	1.2	100.0(742)
2015년	91.6	4.5	3.9	80.7	17.8	1.2	100.0(74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1. 〈표 Ⅶ-1-20〉.

4)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

가) 희망 등원 시각

희망하는 등원 시각을 조사한 결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8:31~9:00시 사이에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7:31~8:00시 11.7%, 9:01~9:30시 11.1%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5년과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8:31~9:00시 사이에의 희망이 가장 높은 비율임에는 유사하나,

2015년에는 9:01~9:30분 구간이, 2018년에는 8:01~ 8:30분 사이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가장 등원을 희망하는 시간대는 3세, 4세, 5세 모두 동일하게 오전 8:31~ 9:00시 사이이며 희망 비율도 유사하였다. 다만 5세에서는 오전 8시 30분 이전까지의 이른 등원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은 반면, 3세와 4세에서는 9시 이후 등원에의 희망 비율이 5세의 경우 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Ⅷ-1-18〉 연령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2018	2015
7:30까지	5.5	2.5	2.9	3.3	7.3	3.1
7:31~8:00	10.5	10.0	13.9	11.7	10.5	10.9
8:01~8:30	7.7	7.6	12.6	9.7	17.7	15.7
8:31~9:00	57.9	59.4	56.5	57.9	45.5	45.9
9:01~9:30	12.6	12.2	9.2	11.1	13.3	20.4
9:31~10:00	5.8	8.2	4.8	6.3	5.6	3.9
10:01~	–	0.2	–	0.1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1,041)	(1,005)	(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32-433. 〈표 Ⅷ-1-21〉.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등 특성별로 희망 등원 시각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치원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오전 8:31~9:00시 사이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6.9%, 58.3%로 가장 높았으나 국·공립유치원은 8시까지 등원 희망 비율도 18.1%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의 1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희망 등원 시간대는 오전 8:31~9:00시 사이인 것은 동일하였으나, 이 시간대 등원 희망 비율은 중소도시의 경우 59.7%로 대도시 57.5%, 읍·면지역의 경우 54%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8시까지 등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19.2%로 중소도시(14.3%), 대도시(14.3%)에 비해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이른 시간 등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시까지 희망 등원 비율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22.1%,

휴직 중인 경우 19%, 미취업인 경우 6.6%, 부재인 경우 20%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Ⅶ-1-19〉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7:30까지	3.0	3.4	3.0	3.2	4.6	4.9	5.7	1.2	-
7:31~8:00	15.1	10.3	11.3	11.1	14.6	17.2	13.3	5.4	20.0
8:01~8:30	12.6	8.4	9.3	8.5	13.9	12.9	6.8	6.9	-
8:31~9:00	56.9	58.3	57.5	59.7	54.0	54.0	56.4	62.1	70.9
9:01~9:30	9.1	11.9	12.4	10.3	9.4	6.9	13.4	15.3	-
9:31~10:00	3.2	7.6	6.6	7.2	3.2	4.0	4.4	9.1	9.1
10:01이후	0.2	-	-	-	0.4	0.1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18.7(6)**		39.6(12)***			225.7(1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4. 〈표 Ⅶ-1-22〉.
** $p < .01$, *** $p < .001$.

나) 희망 하원 시각

다음으로 희망하는 하원 시각을 살펴보았다. 희망 등원 시각에 비해 희망 하원 시각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인 15:01~16:00시 사이에 33.1%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6:31~ 17:00시 사이가 21.9%, 17:31~18:00시 사이가 13.2%, 16:01~16:30분 사이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 하원 시각은 2018년도와 유사한 응답 순위를 보인다. 한편, 15:01~18:00시 사이 하원을 원하는 비율이 82.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오후 6시 이후의 늦은 하원을 희망하는 요구는 9.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의 15.5% 대비 감소한 것이다.

희망하는 하원 시각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15:01~16:00시 사이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3세의 경우에는 26%, 4세 30.6%, 5세 3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Ⅷ-1-20〉 연령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3세	4세	5세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14:00까지	0.7	1.9	0.6	1.1	3.0	2.4
14:01~15:00	6.0	7.6	8.1	7.4	6.9	10.8
15:01~16:00	26.0	30.6	39.0	33.1	25.4	27.2
16:01~16:30	14.6	9.0	8.5	10.0	10.6	9.0
16:31~17:00	26.8	24.2	17.1	21.9	21.8	22.1
17:01~17:30	1.6	3.3	6.2	4.1	5.6	8.4
17:31~18:00	14.2	16.2	10.0	13.2	11.3	10.9
18:01~19:00	7.4	6.1	8.8	7.5	9.7	6.3
19:01~19:30	-	0.7	0.3	0.4	2.5	0.8
19:31이후	2.7	0.5	1.3	1.3	3.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1,041)	(1,005)	(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5. 〈표 Ⅷ-1-23〉.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등 특성별로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15:01~16:00시 사이 희망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고, 사립의 경우도 이 시간대에 32.4%가 답하여 가장 희망하는 시간대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16:31~17:00시 사이 하원 희망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6.4%, 사립유치원의 경우 24.2%이며, 17:31~18:00시 사이 하원 희망 비율이 국·공립유치원 15.6%로, 사립유치원은 12.2%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15시까지 하원 희망 비율이 12.2%로 사립유치원 이용하는 경우 7.1%에 비해 높아 국·공립유치원에서 조기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모인 경우와 미취업모의 경우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각각 15:01~16:00시에 26.4%, 42.9%, 16:31~17:00시 23.5%, 25.3%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18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을 보면 취업모에서는 15.7%이나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2.7%로 취업모의 경우 늦은 하원 시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Ⅶ-1-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유치원 희망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14:00까지	2.5	0.6	1.9	-	1.9	0.9	-	1.6	-
14:01~15:00	9.7	6.5	7.4	8.4	4.7	4.5	5.4	11.1	-
15:01~16:00	34.7	32.4	35.0	31.1	33.3	26.4	18.0	42.9	39.9
16:01~16:30	7.9	10.8	11.8	8.1	10.2	9.1	13.2	10.1	19.0
16:31~17:00	16.4	24.2	20.9	23.5	20.1	23.5	25.3	19.9	4.9
17:01~17:30	2.6	4.7	3.2	4.6	5.3	3.5	14.4	2.9	-
17:31~18:00	15.6	12.2	11.9	15.1	12.0	16.3	16.9	8.8	36.2
18:01~19:00	8.8	6.9	6.0	8.2	9.4	12.7	4.8	2.5	-
19:01~19:30	0.6	0.3	0.5	0.4	-	0.8	-	-	-
19:31이후	1.1	1.4	1.4	0.6	3.1	2.2	2.0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19.3(9)*		21.5(18)			99.4(27)***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6. 〈표 Ⅶ-1-24〉.
* $p < .05$, *** $p < .001$.

다) 희망 이용 시간

유치원의 평균 희망 이용 시간은 7시간 52분으로 앞서 현재 이용 시간 7시간 4분보다 48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이용 시간이 6~7시간인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8시간 26.6%, 8~9시간 17%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9시간 이상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14.5%로 유치원 장시간 이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0시간 이상 이용을 원하는 비율은 2015년 7.5%에서 2018년 13.8%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7.1%로 하락하였다.

유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에서는 하루 7~8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4세와 5세에서는 하루 6~7시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29%와 32.3%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희망이용 시간이 3세(7시간 59분) 보다 4세(7시간 47분)와 5세(7시간 52분)의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이 길지 않음이 특징으로 보인다.

〈표 Ⅷ-1-22〉 연령별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3세	4세	5세이상	전체	2018년	2015년
5시간까지	-	1.0	0.3	0.5	3.5	4.5
5~6시간	9.8	12.5	12.5	11.9	9.5	11.2
6~7시간	24.9	29.0	32.3	29.5	21.5	22.8
7~8시간	33.6	25.9	23.7	26.6	28.4	28.7
8~9시간	18.2	18.1	15.3	17.0	16.3	17.1
9~10시간	5.7	7.1	8.5	7.4	7.0	8.3
10~11시간	4.2	5.0	5.2	4.9	7.0	4.4
11시간 이상	3.6	1.4	2.1	2.2	4.1	2.5
12시간 이상	-	-	-	-	2.7	0.6
계(수)	100.0(213)	100.0(386)	100.0(442)	100.0(1,041)	100.0	100.0
평균	479.2 7시간 59분	467.0 7시간 47분	471.7 7시간 52분	471.5 7시간 52분	8시간 6분	7시간 48분
표준편차	90.1	89.3	88.2	89.1	1시간 54분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7. 〈표 Ⅷ-1-25〉.

유치원 이용 희망 시간에 대해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 유형에 따른 희망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희망 이용 시간이 7시간 53분, 사립유치원 7시간 50분으로 보다 3분 정도 차이를 보였다. 현재 사립유치원 이용 시간이(평균 약 7시간 7분) 국·공립유치원 이용 시간(평균 6시간 56분)보다 길었는데, 이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이 부모들의 요구에 더 부응하는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가구가 희망하는 이용 시간이 8시간 4분으로 대도시 7시간 45분, 중소도시 7시간 54분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은 8시간 19분으로 휴직중인 경우의 8시간 10분, 미취업 중인 경우 7시간 19분,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 8시간에 비해 긴 장시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8년도와 비교하면 2021년 조사에 나타난 유치원 희망 이용 시간은 2018년도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대체로 감소함을 보여준다.

〈표 Ⅶ-1-23〉 유치원 유형·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분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5시간까지	1.1	0.2	0.8	0.2	0.4	0.2	-	0.9	-
5~6시간	13.7	11.2	12.8	11.9	9.8	6.4	5.9	19.1	9.1
6~7시간	28.9	29.7	31.3	27.7	29.2	22.5	19.8	38.7	30.8
7~8시간	22.9	28.2	26.6	28.5	21.7	27.0	36.2	24.6	19.0
8~9시간	13.8	18.3	16.4	16.4	20.1	21.9	21.6	10.6	26.1
9~10시간	10.9	5.9	5.1	8.9	9.5	10.4	8.6	3.8	15.1
10~11시간	7.5	3.8	4.5	5.3	5.1	7.8	4.2	2.1	-
11시간 이상	1.2	2.6	2.6	1.0	4.2	3.8	3.6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492)	(78)	(460)	(11)
$x^2(df)$	16.6(7)*		13.8(14)			108.6(21)***			
평균(시간:분)	7:53	7:50	7:45	7:54	8:04	8:19	8:10	7:19	8:00
표준편차(분)	93.7	87.2	90.0	83.6	99.3	94.5	82.8	72.5	75.0
t/F	-2.2*		1.4			19.1***			
2018년	8시간 6분	8시간12분	8시간 6분	8시간 6분	8시간 18분	8시간48분	8시간12분	7시간30분	-
2015년	8시간 6분	7시간42분	7시간 42분	7시간48분	7시간54분	8시간36분	7시간42분	7시간18분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38. 〈표 Ⅶ-1-26〉.
* $p < .05$, *** $p < .001$.

바. 유치원 등·하원

1) 등·하원 방법 및 소요시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을 살펴보았다. 등원 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자와 걸어서' 22.8%, '보호자와 자가용 이용' 21.7%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차량을 이용해 등원하는 비율은 2015년 60.1%, 2018년 54%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 등원하는 비율이 2015년 8.8%, 2018년 19.8%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세에서 자녀 혼자 걸어서라는 응답비율이 3세나 4세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13.5%로 대도시(25.5%)나 중소도시(23.6%)에 비해 월등히 낮았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서 집과 유치원 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임을 유추하게 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16.1%로 휴직 중(22.8%)이거나 미취업인 경우(30.4%)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관 유형별 등원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등 도보로 등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44.3%에 달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도보로 등원한다는 비율은 14.6%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사립유치원은 66.4%가 기관 등하원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23.2%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많은 국·공립유치원에서 기관차량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표 Ⅷ-1-24〉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3.6	21.7	0.6	22.8	0.6	0.7	100.0(1,041)
연령							
3세	54.7	19.9	0.9	23.4	0.3	0.8	100.0(213)
4세	55.2	19.9	-	23.9	0.3	0.8	100.0(386)
5세이상	51.7	24.3	1.0	21.4	1.1	0.5	100.0(442)
지역규모							
대도시	52.8	20.0	1.0	25.5	0.5	0.2	100.0(469)
중소도시	53.4	20.4	0.4	23.6	1.0	1.2	100.0(400)
읍·면	56.6	29.4	-	13.5	-	0.5	100.0(172)
모취업 여부							
취업	50.1	30.9	0.8	16.1	0.9	1.2	100.0(492)
휴직중	59.8	17.4	-	22.8	-	-	100.0(78)
미취업	56.1	12.3	0.5	30.4	0.4	0.3	100.0(460)
부재 등	60.9	34.6	-	4.5	-	-	100.0(11)
유치원 유형							
국·공립	23.2	30.1	1.0	42.8	1.5	1.4	100.0(339)
사립	66.4	18.1	0.5	14.4	0.2	0.4	100.0(702)
2018년	54.0	19.8	0.7	24.8	0.7	-	100.0(742)
2015년	60.1	8.8	1.0	26.5	2.9	0.7	100.0(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39-440. 〈표 Ⅷ-1-27〉.

하원 방법을 살펴보면,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57.4%, 보호자와 걸어서 가는 경우는 22.2%, 보호자와 자가용으로는 17.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등원 시(53.6%)에 비해 기관 차량을 이용해 하원 한다는 비율이 3.8%p 높고, 반대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등원 시 21.7%에 비해 4.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등원 시와 하원 시 이용 방법에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등원 시 출근하는 부모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등원한 경우 중에서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간 하원을 위해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하원방법에서도 연령별로는 5세에서 자녀 혼자 걸어서라는 응답비율이 3세나 4세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15.4%로 대도시(23.1%)나 중소도시(23.8%)에 비해 낮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14.7%로 휴직중(23.1%)이거나 미취업인 경우(30.4%)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보호자와 걸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아 42.8%에 달하였고, 사립유치원은 70%가 기관 등하원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표 Ⅷ-1-25〉 유치원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기관 차량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전체	57.4	17.4	0.6	22.2	0.5	1.9	100.0(1,041)
연령							
3세	56.2	17.0	0.7	25.4	0.3	0.4	100.0(213)
4세	59.6	15.5	-	23.5	-	1.4	100.0(386)
5세이상	55.9	19.5	1.0	19.3	1.1	3.2	100.0(442)
지역규모							
대도시	56.9	16.5	0.9	23.1	0.6	1.9	100.0(469)
중소도시	57.1	16.1	0.4	23.8	0.6	2.1	100.0(400)
읍·면	59.4	23.7	-	15.4	-	1.4	100.0(172)
모취업 여부							
취업	55.3	25.0	0.9	14.7	0.9	3.3	100.0(492)
휴직중	65.6	11.3	-	23.1	-	-	100.0(78)
미취업	58.0	10.2	0.3	30.4	0.3	0.8	100.0(460)
부재 등	60.9	30.2	-	4.5	-	4.5	100.0(11)

구분	기관 차량	보호자와 자가용	보호자와 대중교통	보호자와 걸어서	자녀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유치원 유형							
국·공립	27.3	24.4	1.0	42.8	1.8	2.7	100.0(339)
사립	70.0	14.5	0.4	13.5	-	1.6	100.0(702)
2018년	55.8	15.7	0.4	25.1	0.9	2.1	100.0(1,005)
2015년	62.7	7.1	0.9	26.3	2.5	0.5	100.0(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40-441. 〈표 Ⅶ-1-28〉.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2.4분으로 조사되었고, 10분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64.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11~20분 27.1%, 21~30분 7.7%, 31분 이상이 0.7% 순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2015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등원 소요시간이 평균 11.5분으로 2021년 12.4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10분 이하 응답 비율은 2015년(69.6%), 2018년(65.5%) 대비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도 12분 정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소요시간이 10.2분으로 사립유치원 13.3분보다 짧았는데, 이는 국·공립유치원은 차량운행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근거리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Ⅶ-1-26〉 제 특성별 유치원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4.5	27.1	7.7	0.7	100.0(1,041)	12.4	7.3
연령							
3세	62.3	31.9	4.3	1.5	100.0(213)	12.4	7.1
4세	65.0	23.9	10.8	0.3	100.0(386)	12.8	7.7
5세이상	65.2	27.5	6.6	0.6	100.0(442)	11.9	7.0
지역규모							
대도시	64.0	29.6	5.9	0.5	100.0(469)	12.2	6.8
중소도시	64.0	25.7	9.3	0.9	100.0(400)	12.5	7.7
읍·면	67.2	24.0	8.1	0.7	100.0(172)	12.3	7.5
유치원 유형							
국·공립	77.9	17.4	4.5	0.2	100.0(339)	10.2	5.9

구분	10분이하	11~20분	21~30분	31분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사립	58.9	31.2	9.1	0.9	100.0(702)	13.3	7.6
2018년	65.5	29.0	5.0	0.4	100.0(1,005)	11.5	6.8
2015년	69.6	22.7	6.0	1.8	100.0(742)	11.5	8.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42. 〈표 Ⅷ-1-29〉.

2) 등·하원 시 부모와 유치원의 정보 교류

유치원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를 포함하는 기관과의 정보교류 정도를 알아보았다. 주 1~2회 정보를 교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매일 정보를 교류한다는 응답이 27.7%, 월 1~2회 26.5%, 전혀 정보 교류를 안한다는 경우가 16.3%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매일 정보를 교류한다는 응답이 2015년 35.8%, 2018년 39.8%로 높았으나, 2021년 조사 시 27.7%로 크게 감소하였고, 주 1~2회 정보를 교류한다고 응답 또한 감소한 경향을 보인 반면 월 1~2회나 전혀 정보 교류를 안한다는 경우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 조사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유치원의 등원이 불규칙하였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3세에서는 주 1~2회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보다 높았고, 4세와 5세에서는 전혀 정보 교류를 안한다는 경우와 월 1~2회라는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매일이나 주 1~2회라는 응답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읍·면지역의 유치원과 부모들이 등·하원 시간을 통한 정보교류가 비교적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취업모의 경우(29.2%)와 휴직중인 경우(30.4%)는 월 1~2회라는 응답비율이 로 가장 높은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33%)와 부재중인 경우(53.2%)에는 주1~2회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Ⅷ-1-27〉 유치원 등하원 시 기관과 정보교류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일	주1~2회	월 1~2회	전혀 안함	계(수)
전체	27.7	29.4	26.5	16.3	100.0(1,037)
연령					
3세	25.0	37.7	24.2	13.1	100.0(212)
4세	29.4	26.4	27.3	16.9	100.0(386)
5세이상	27.6	27.9	26.9	17.5	100.0(439)
지역규모					
대도시	29.5	29.5	26.1	14.9	100.0(467)
중소도시	24.8	28.9	27.8	18.5	100.0(398)
읍·면	31.1	30.5	24.0	14.4	100.0(172)
모취업 여부					
취업	28.5	26.0	29.2	16.4	100.0(490)
휴직중	25.1	27.3	30.4	17.2	100.0(78)
미취업	27.6	33.0	23.1	16.3	100.0(458)
부재 등	21.1	53.2	17.2	8.5	100.0(11)
유치원 유형					
국·공립	27.1	27.4	27.8	17.7	100.0(335)
사립	28.0	30.3	25.9	15.8	100.0(702)
2018년	39.8	31.4	16.4	12.4	100.0(1,000)
2015년	35.8	37.2	13.3	13.7	100.0(72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43. 〈표 Ⅶ-1-30〉.

3) 유치원 차량 이용 시 교직원 동승 여부

등·하원 방법으로 기관차량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치원 등·하원 차량에 교직원이 동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하원 시 모두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7.9%로 나타났다. 등원 시에만 동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7%, 하원 시에만 동승한다는 경우가 0.7%로 조사되었고, 그러나 동승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6%로 나타났다.

〈표 Ⅷ-1-28〉 제 특성별 유치원 등·하원 차량 교사 동승 여부

단위: %(명)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만 동승	하원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르겠다	계(수)
전체	97.9	0.7	0.7	0.6	0.2	100.0(646)
연령						
3세	99.5	–	–	0.5	–	100.0(134)
4세	97.6	0.6	1.0	0.8	–	100.0(244)

구분	등하원시 모두 동승	등원시만 동승	하원시만 동승	동승하지 않음	모르겠다	계(수)
5세이상	97.4	1.1	0.8	0.4	0.4	100.0(268)
지역규모						
대도시	97.1	1.4	0.9	0.3	0.4	100.0(289)
중소도시	98.4	0.3	0.7	0.6	-	100.0(250)
읍·면	98.5	-	0.4	1.1	-	100.0(107)
모취업 여부						
취업	96.8	1.0	1.3	0.9	-	100.0(303)
휴직중	98.0	1.2	-	0.9	-	100.0(50)
미취업	99.1	0.2	0.2	0.2	0.4	100.0(285)
부재 등	100.0	-	-	-	-	100.0(8)
유치원 유형						
국·공립	95.1	1.3	0.4	3.2	-	100.0(122)
사립	98.4	0.6	0.7	0.1	0.2	100.0(524)
2018년	96.8	0.5	0.7	-	1.9	100.0(605)
2015년	99.2	0.3	0.2	0.3	-	100.0(44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44. 〈표 Ⅷ-1-31〉.

2. 유치원 이용 비용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지불하는 교육비용과 기타 추가비용, 부모의 유치원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과 비용 미지원 시 유치원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유치원 교육비

유치원 이용 아동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188,700원이었으며, 현장학습비, 행사비, 교재비, 급간식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교육비'는 월평균 117,700원, 그 외 추가비용(부대비용)이 7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교육비는 2015년 130,500원으로 월평균 교육비가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으나, 2018년에는 238,800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 188,700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전체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지역규모별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총교육비

115,6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도시가 234,200원, 중소도시 170,700원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서로 교육비 총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교육비용에도 차이를 보여 대도시는 146,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107,200원, 읍·면지역 69,100원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전체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휴직중인 경우에 지출하는 총교육비용이 214,7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209,700원,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162,500원, 부재중인 경우 132,500원으로 나타나 부재중인 경우와 미취업모 가구에서 교육비용의 지출이 가장 낮았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따른 일관된 추이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265,200원을 지출하여 가장 많은 비용지출을 보였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 교육비가 42,300원에 불과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250,100원으로 대략 5.9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순교육비에서도 나타나 국·공립유치원 순교육비는 17,200원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155,9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Ⅷ-2-1〉 유치원 유형 및 제 특성별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비용(A)	순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전체	188.7	117.7	71.0	(1,041)
지역규모				
대도시	234.2	146.4	87.8	(469)
중소도시	170.7	107.2	63.5	(400)
읍·면	115.6	69.1	46.5	(172)
F	26.3***	17.9***	-	
모취업여부				
취업	209.7	123.2	86.5	(492)
휴직중	214.7	149.0	65.7	(78)
미취업	162.5	106.6	55.9	(460)
부재 등	132.5	81.5	51.0	(11)
F	3.0*	1.3	-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28.2	87.0	41.2	(40)
250~299만원	149.1	94.5	54.6	(47)
300~349만원	147.9	91.8	56.1	(119)
350~399만원	167.0	109.5	57.5	(83)

구분	전체 비용(A)	순교육비(B)	추가비용(A-B)	(수)
400~499만원	161.8	102.9	58.9	(207)
500~599만원	203.5	128.9	74.6	(228)
600~699만원	157.9	85.4	72.5	(103)
700만원 이상	265.2	163.7	101.4	(202)
모름/무응답	152.1	92.7	59.5	(12)
F	5.1***	3.4***	-	
유치원 유형				
국·공립	42.3	17.2	25.2	(339)
사립	250.1	159.9	90.2	(702)
t	-14.9***	-12.4***	-	
2018년	238.8	135.6	103.3	(1,005)
2015년	130.5	56.7	73.8	(74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46. 〈표 Ⅶ-2-1〉.

유치원 월평균 총교육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 211,000원, 4세 194,500원, 5세 171,600원으로 3세의 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교육비의 경우 연령별로는 3세 133,400원, 4세 121,400원, 5세 이상 106,000원으로 역시 3세의 지출액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른 연령별 유치원 교육비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5세의 경우 47,300원, 3세 42,200원, 4세 36,300원으로 5세의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3세 260,100원, 4세 260,000원, 5세 234,300원으로 3세와 4세의 교육비용이 5세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Ⅶ-2-2〉 유아 연령별 유치원 유형에 따른 월평균 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F*	2018년	2015년
전체							
총비용	211.0	194.5	171.6	188.7	2.9	238.8	130.5
순교육비	133.4	121.4	106.0	117.7	2.8	135.6	56.7
(수)	(213)	(386)	(442)	(1,041)		(1,005)	(742)
국·공립유치원							
총비용	42.2	36.3	47.3	42.3	0.3	44.2	29.7
순교육비	19.9	12.6	19.9	17.2	0.5	2.8	6.4
(수)	(53)	(122)	(164)	(339)		(365)	(240)
사립유치원							
총비용	260.1	260.0	234.3	250.1	0.7	321.3	164.0
순교육비	166.4	166.5	149.4	159.9	0.8	191.8	73.5
(수)	(160)	(264)	(278)	(702)		(640)	(50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47. 〈표 Ⅶ-2-2〉.

나. 추가 비용

유치원의 월평균 추가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성화활동비가 34,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과정비 9,500원, 급간식비 8,100원, 차량운행비 5,000원 순이었다. 2018년 조사 대비 방과후과정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추가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모든 추가 비용의 감소 경향은 코로나 상황에서 유치원 이용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비 납부 수준을 살펴보면, 기타가 112,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성화활동비 86,000원, 방과후과정비 64,900원, 급간식비 46,000원, 교재비 39,800원 순이었다.

〈표 Ⅷ-2-3〉 유치원 유형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기타
전체 아동							
전체	34.5	2.6	8.1	5.0	9.5	3.5	7.7
국·공립	8.8	1.8	4.1	0.6	2.6	0.5	6.7
사립	45.3	2.9	9.8	6.9	12.4	4.8	8.2
(수)	(1,041)	(1,041)	(1,041)	(1,041)	(1,041)	(1,041)	(1,041)
t	−9.2***	−2.5*	−4.5***	−5.1***	−4.4***	−3.9***	−1.2
2018년	66.9	6.5	8.4	5.3	6.8	9.1	0.3
2015년	37.2	7.5	10.9	4.8	5.5	7.4	0.5
비용지불아동							
전체	86.0	30.8	46.0	30.5	64.9	39.8	112.9
국·공립	55.2	26.1	48.6	29.6	35.0	17.3	140.1
사립	90.1	32.4	45.5	30.5	70.1	42.4	105.8
(수)	(404)	(87)	(167)	(145)	(125)	(87)	(61)
t	−71.5***	−25.0***	8.1***	−1.6	−52.1***	−43.6***	18.5***
2018년	83.6	22.0	33.0	24.7	56.8	47.8	29.3
2015년	68.5	24.0	33.6	22.3	42.3	32.1	39.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48-449. 〈표 Ⅶ-2-3〉.
* $p < .05$, *** $p < .001$.

추가 교육비에 대해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별로는 방과후과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도시 지역의 추가비용 지출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교재비에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컸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 또는 휴직중인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서 현장학습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추가 교육비 항목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방과후과정비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와 휴직중인 경우에 미취업 상태인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유아의 방과후과정 이용률과 특성화활동 참여 비율도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추가 교육비에 대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특성화 활동비로 월평균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4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0~599만원' 가구 35,300원으로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249만원 이하 가구에서 20,200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

〈표 Ⅶ-2-4〉 제 특성에 따른 유치원 아동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단위: 천원(명)

구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 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기타	(수)
전체	34.5	2.6	8.1	5.0	9.5	3.5	7.7	(1,041)
지역규모								
대도시	41.7	3.8	13.1	7.0	9.4	4.9	7.8	(469)
중소도시	29.9	2.0	4.6	4.0	12.0	3.3	7.8	(400)
읍·면	27.9	0.8	4.5	2.5	3.0	0.5	7.3	(172)
F	6.4**	5.0**	14.3***	5.4**	2.5	4.9**	0.5	
모취업 여부								
취업	39.7	2.4	8.3	6.6	12.8	4.5	12.3	(492)
휴직중	31.8	1.9	5.1	7.5	15.8	3.7	-	(78)
미취업	30.2	2.9	7.7	2.9	5.0	2.5	4.5	(460)
부재 등	4.5	-	45.2	-	-	-	1.3	(11)
F	1.5	0.8	3.8*	2.7*	3.3*	1.4	2.7*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20.2	0.4	10.0	2.0	7.7	-	0.8	(40)
250~299만원	21.7	5.4	9.6	10.1	5.4	2.5	-	(47)

구분	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차량 운행비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기타	(수)
300~349만원	30.1	2.9	5.4	2.7	7.6	0.8	6.7	(119)
350~399만원	29.0	3.9	12.3	2.8	3.0	4.7	1.7	(83)
400~499만원	31.4	1.8	4.2	4.1	9.7	3.6	4.1	(207)
500~599만원	35.3	2.2	7.9	5.1	11.4	2.9	9.9	(228)
600~699만원	27.5	0.9	8.9	4.1	4.2	2.7	24.3	(103)
700만원 이상	49.4	3.5	11.5	8.0	14.8	6.4	7.7	(202)
모름/무응답	47.8	5.2	1.6	1.6	1.6	1.7	-	(12)
F	2.0*	1.2	1.3	1.5	1.5	1.7	1.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449-450. 〈표 Ⅶ-2-4〉.

다. 비용 부담

1) 비용 부담 정도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유아의 보호자인 응답자) 느끼는 부담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담된다는 응답(매우 부담+부담되는 편)이 33.7%, 적당 37.8%,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전혀 부담 안됨+부담되지 않음) 28.4% 순으로 나타나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를 5점으로 볼 때, 환산 평균으로 2.9점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는 3.2점, 2018년에 3.1점과 비교할 때 점진적 감소 경향을 보인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부담 정도에 차이를 보여 3세(3점)의 경우 4세(2.9점)와 5세(2.9점) 보다 부담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유아 부모의 응답 평균이 3점으로 부담정도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9점, 읍·면지역 2.7점으로 나타났다.

모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휴직중인 경우 부담정도가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 중인 경우 3점, 미취업인 경우 2.8점, 부재의 경우 2.1점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유치원 교육비 부담정도는 2015년 3.2점, 2018년 3.1점. 2021년 2.9점으로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인다.

〈표 Ⅶ-2-5〉 제 특성별 유치원 교육비용 부담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적당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안됨	계(수)	평균
전체	3.6	30.1	37.8	11.4	17.0	100.0(1,041)	2.9
연령							
3세	3.0	34.2	36.7	13.4	12.7	100.0(213)	3.0
4세	3.7	34.3	32.1	9.6	20.3	100.0(386)	2.9
5세이상	3.9	24.2	43.7	12.0	16.2	100.0(442)	2.9
$x^2(df)/F$			18.1(8)*				1.1
지역규모							
대도시	3.4	34.6	37.6	9.4	15.0	100.0(469)	3.0
중소도시	4.0	27.7	38.4	13.3	16.6	100.0(400)	2.9
읍·면	3.4	24.5	37.0	11.5	23.6	100.0(172)	2.7
$x^2(df)/F$			29.6(8)***				11.9***
모취업 여부							
취업	4.2	31.0	37.9	13.4	13.6	100.0(492)	3.0
휴직중	4.2	35.2	41.2	2.3	17.1	100.0(78)	3.1
미취업	3.0	28.9	37.2	10.2	20.6	100.0(460)	2.8
부재 등	-	-	34.8	43.5	21.7	100.0(11)	2.1
$x^2(df)/F$			25.1(12)*				2.3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	39.7	14.8	22.0	23.4	100.0(40)	2.7
250~299만원	-	37.8	39.8	3.3	19.0	100.0(47)	3.0
300~349만원	9.7	32.6	28.4	11.6	17.8	100.0(119)	3.0
350~399만원	6.9	32.1	31.6	9.2	20.2	100.0(83)	3.0
400~499만원	2.6	29.8	43.9	8.8	15.0	100.0(207)	3.0
500~599만원	1.7	29.1	42.3	12.1	14.8	100.0(228)	2.9
600~699만원	-	30.7	28.1	11.7	29.4	100.0(103)	2.6
700만원 이상	4.8	26.0	42.5	13.7	13.0	100.0(202)	3.0
모름/무응답	12.1	26.0	39.6	9.3	13.1	100.0(12)	3.1
$x^2(df)/F$			49.1(32)*				1.1
2018년	7.5	34.9	29.0	13.3	15.2	100.0(1,005)	3.1
2015년	7.0	40.7	31.1	9.4	11.8	100.0(742)	3.2

주: 평균은 '매우 부담됨' 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52-353. 〈표 Ⅶ-2-6〉.

* $p < .05$, *** $p < .001$.

2) 추가 비용 부담 의사 및 추가 부담 가능 수준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러한 의사가 있다(49.8%)는 응답 비율과 없다(50.2%)는 응답비율이 거의 50%로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추가 비용을 더 내서라도 더 좋은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015년 26.0%에서 2018년 35.8%, 2021년 49.8%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부모의 교육 및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추가비용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유아의 연령, 거주지역 규모,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용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가 63.2%로 사립유치원 44.1%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유치원의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현재보다 매월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평균 101,500원으로 조사되었다. 최대 지불 가능액수 평균은 2015년 122,600원, 2018년 116,400원에 비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대 지불 가능액수에 대해서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여 대도시(108,700원)와 중소도시(101,000원)에 비해 읍·면지역(84,100원)에서 더 적은 지불 가능액수 평균을 보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대략 55% 수준으로 추가 비용부담에의 의향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또한 월 10만원 이상으로 높게 답하였다.

〈표 Ⅷ-2-6〉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추가부담 의사 및 부담 가능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9.8	50.2	100.0(1,041)	101.5	92.8	10.0	700.0	(521)
연령								
3세	52.9	47.1	100.0(213)	117.0	122.8	10.0	700.0	(113)
4세	45.1	54.9	100.0(386)	90.1	65.2	10.0	500.0	(180)
5세 이상	52.5	47.5	100.0(442)	102.6	92.0	10.0	700.0	(228)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x^2(df)/F$	2.9(2)			1.5				
지역규모								
대도시	48.3	51.7	10.00(469)	108.7	85.8	10.0	500.0	(221)
중소도시	51.4	48.6	100.0(400)	101.0	106.5	10.0	700.0	(208)
읍·면	49.4	50.6	100.0(172)	84.1	60.9	10.0	300.0	(92)
$x^2(df)/F$	3.0(2)							3.8*
모취업 여부								
취업	48.4	51.6	100.0(492)	99.5	75.5	10.0	500.0	(243)
휴직중	45.7	54.3	100.0(78)	89.4	51.4	20.0	200.0	(40)
미취업	51.9	48.1	100.0(460)	106.4	112.2	10.0	700.0	(233)
부재 등	54.2	45.8	100.0(11)	66.3	23.4	50.0	100.0	(5)
$x^2(df)/F$	0.2(3)			0.2				
유치원 유형								
국·공립	63.2	36.8	100.0(339)	100.4	102.2	10.0	700.0	(203)
사립	44.1	55.9	100.0(702)	102.2	86.6	10.0	500.0	(318)
$x^2(df)/t$	19.4(1)***			0.2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45.1	54.9	100.0(40)	64.3	44.4	30.0	250.0	(15)
250~299만원	41.1	58.9	100.0(47)	81.1	45.3	10.0	200.0	(21)
300~349만원	38.9	61.1	100.0(119)	73.2	39.1	20.0	200.0	(53)
350~399만원	51.7	48.3	100.0(83)	98.9	44.4	20.0	200.0	(43)
400~499만원	41.7	58.3	100.0(207)	93.6	87.3	10.0	500.0	(87)
500~599만원	56.8	43.2	100.0(228)	109.0	124.3	10.0	700.0	(128)
600~699만원	54.5	45.5	100.0(103)	101.6	89.5	20.0	500.0	(53)
700만원 이상	56.2	43.8	100.0(202)	121.2	89.7	10.0	500.0	(115)
모름/무응답	41.3	58.7	100.0(12)	38.7	34.4	10.0	100.0	(6)
$x^2(df)/F$	17.2(8)*			2.0*				
2018년	35.8	64.2	100.0(1,005)	116.4	87.9	15.0	500.0	(354)
2015년	26.0	74.0	100.0(742)	122.6	108.4	5.0	500.0	(18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54-455. 〈표 Ⅷ-2-7〉.
* $p < .05$, *** $p < .001$.

3. 유치원 제공 서비스

가. 부모 대상 서비스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자료, 부모참여 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등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부모 대상 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서비스의 제공비율[7]을 살펴보면, 교육계획표는 98.9%, 급간식 식단은 99.4%, 가정통신문 99.3%, 자녀발달 평가 72.3%, 부모상담 93.4%, 부모교육자료 76.3%, 부모참여프로그램 60.7%, 양방향 알림장 70.7%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계획표와 급간식 식단, 가정통신문 등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유치원이 제공 한다는 비율이 낮은 부분은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자녀발달 평가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유형별로 제공 주기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비스 중 '매일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는 '양방향 알림장'이었다(38.7%). 이외에 '매일' 제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는 '급·간식 식단 제공'(16.2%)이었다. 다음으로 매주 1회 제공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가정통신문'으로 71.3%, 다음으로 '교육계획표'도 60.9%로 나타났다. 다음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급간식 식단'으로 59.3%로 나타났다.

'자녀발달 평가'의 경우에는 분기에 1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이 27.2%, 연 1~2회 제공받는다는 경우가 26.3%로 많았다. '부모 상담'은 연 1~2회 제공이 49.4%, 분기 1회 29.2%로 나타났고, '부모교육자료'의 경우는 월 1회가 25.7%로. '부모참여프로그램'은 연 1~2회 제공 받는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다.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38.7%, 매주 1회 22%로 나타났지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21.8%로 높았다.

이처럼 양방향 알림장, 가정통신문, 교육계획표, 급·간식 식단 등은 제공 주기가 월 1회 이하로 짧은 서비스에 속하나, 반대로 '발달평가', '부모 상담',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분기 또는 연 1~2회 정도 제공되는 비율이 높아, 비교적 제공 주기가 긴 서비스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 주기에 대해서 유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등에 따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2018년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7) 전체응답 중 제공안함에의 비율과 모름의 비율을 제외한 비율임.

〈표 Ⅶ-3-1〉 제 특성별 유치원 부모서비스 제공 여부 및 주기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20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육계획표											
매일	5.2	6.7	7.4	7.1	6.5	7.0	6.6	6.1	6.7	3.6	4.5
매주 1회	66.6	59.4	59.4	53.9	63.9	54.3	65.3	66.8	60.9	72.6	67.6
월 1회	26.3	28.6	28.4	33.6	25.7	34.4	23.7	22.8	28.0	20.8	24.4
분기 1회	0.3	1.5	1.2	1.0	1.2	0.9	1.1	1.9	1.1	1.7	1.8
연 1~2회	1.4	2.2	2.4	2.8	1.8	1.2	2.9	2.4	2.1	0.9	
제공 안함	-	0.2	-	-	0.1	-	0.2	-	0.1	0.1	0.3
모름	0.3	1.3	1.2	1.5	0.9	2.2	0.2	-	1.0	0.3	1.4
급·간식식단											
매일	12.7	17.9	16.4	14.9	16.7	14.5	17.1	18.4	16.2	6.2	4.6
매주 1회	21.9	23.8	24.6	22.5	24.3	23.5	24.4	22.6	23.7	37.8	38.2
월 1회	65.4	56.6	58.6	62.2	58.0	61.4	57.7	57.8	59.3	55.0	55.5
분기 1회	-	-	-	-	-	-	-	-	-	-	-
연 1~2회	-	0.5	-	-	0.3	-	-	1.2	0.2	0.5	0.2
제공 안함	-	-	-	-	-	-	-	-	-	0.3	-
모름	-	1.2	0.4	0.3	0.7	0.7	0.7	-	0.6	0.1	1.5
가정통신문											
매일	7.7	10.1	12.7	12.8	9.8	10.1	10.7	12.1	10.7	8.0	7.9
매주 1회	74.2	68.9	72.0	64.1	74.3	70.5	75.4	62.3	71.3	80.1	76.2
월 1회	17.0	18.6	13.1	21.7	13.7	17.6	12.8	20.7	16.0	9.8	13.4
분기 1회	1.0	0.7	1.0	0.8	0.9	0.8	0.7	1.4	0.9	1.3	0.6
연 1~2회	-	1.0	0.2	-	0.7	-	-	3.1	0.5	0.5	
제공 안함	-	-	0.2	0.3	-	0.2	-	-	0.1	0.1	0.2
모름	-	0.6	0.8	0.3	0.6	0.8	0.4	0.4	0.6	0.2	1.7
자녀발달평가											
매일	1.5	2.3	2.6	1.1	2.7	2.3	2.3	2.0	2.2	1.1	1.3
매주 1회	4.2	5.2	3.7	4.9	4.2	3.8	4.9	4.6	4.4	5.9	7.3
월 1회	13.3	12.0	11.5	8.1	13.8	15.8	8.8	11.1	12.1	11.5	14.0
분기 1회	28.6	26.8	26.9	18.8	30.7	26.7	29.7	22.0	27.2	29.9	61.9
연 1~2회	18.3	26.2	30.5	28.9	25.2	23.0	29.5	26.1	26.3	31.1	
제공 안함	22.4	14.3	12.6	22.0	12.5	15.4	13.6	20.0	15.3	12.4	10.2
모름	11.6	13.2	12.2	16.1	10.9	13.0	11.2	14.2	12.4	8.0	5.3
부모상담											
매일	0.9	2.4	2.2	2.5	1.8	1.9	2.1	2.4	2.0	1.0	1.0
매주 1회	4.2	6.7	3.7	2.4	6.0	4.7	6.2	2.4	5.0	1.6	2.9
월 1회	9.6	8.3	6.4	6.5	8.3	8.4	7.4	7.1	7.8	6.4	5.4
분기 1회	33.2	25.2	30.7	30.3	28.7	29.2	27.0	34.8	29.2	32.1	84.6
연 1~2회	46.2	50.0	50.7	53.1	47.9	49.6	50.5	46.0	49.4	54.4	
제공 안함	2.1	3.5	2.0	1.2	3.2	1.3	3.6	3.4	2.6	2.3	2.5
모름	3.8	3.9	4.2	4.0	4.0	4.9	3.2	3.8	4.0	2.2	3.6
부모교육자료											
매일	0.7	3.2	2.5	2.2	2.5	2.1	2.2	3.7	2.4	0.9	1.9
매주 1회	15.7	15.6	14.7	11.6	16.8	13.0	16.9	16.4	15.2	14.0	15.6
월 1회	31.3	26.3	22.3	31.2	23.4	29.2	22.1	26.0	25.7	20.1	18.8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2015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분기 1회	15.9	15.6	17.7	15.8	16.8	16.9	16.8	14.9	16.5	20.7	49.1
연 1~2회	14.6	14.8	18.9	14.0	17.4	17.6	14.9	17.4	16.4	28.2	
제공 안함	10.6	10.3	9.4	8.4	10.7	7.1	13.1	9.5	10.0	9.7	7.3
모름	11.2	14.2	14.5	16.7	12.4	14.0	14.0	12.0	13.7	6.4	7.4
부모참여 프로그램											
매일	1.8	2.7	2.6	3.3	2.1	2.2	2.4	3.3	2.5	0.6	0.6
매주 1회	3.7	3.9	3.9	3.8	3.9	2.5	4.3	6.2	3.9	1.9	4.0
월 1회	13.0	11.6	8.3	13.5	9.3	12.7	8.6	10.2	10.6	7.2	7.7
분기 1회	16.5	18.3	16.8	17.1	17.4	19.1	16.6	14.5	17.3	30.8	78.0
연 1~2회	27.4	23.8	28.6	20.7	28.9	28.3	24.1	28.0	26.5	50.5	
제공 안함	15.8	17.5	24.6	18.6	20.6	16.8	25.0	15.2	20.0	5.1	4.5
모름	21.8	22.3	15.3	22.9	17.8	18.4	19.0	22.7	19.3	3.8	5.1
양방향 알림장											
매일	32.7	36.7	43.7	29.8	42.4	33.1	39.9	50.3	38.7	43.3	–
매주 1회	25.7	24.1	18.1	21.8	22.1	25.4	20.9	15.8	22.0	18.6	–
월 1회	6.0	9.2	5.9	6.7	7.4	9.4	4.7	7.8	7.2	3.6	–
분기 1회	2.1	1.0	1.8	1.1	1.7	1.7	1.3	1.6	1.5	3.3	–
연 1~2회	1.0	1.6	1.2	1.2	1.3	0.4	2.5	0.4	1.3	1.3	–
제공 안함	27.8	19.3	21.0	27.1	19.6	22.6	22.3	18.2	21.8	23.7	–
모름	4.7	8.2	8.4	12.2	5.5	7.2	8.4	5.8	7.5	6.3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57-458. 〈표 Ⅶ-3-1〉.

유치원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율과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우선 만족한다는 비율(매우 만족 + 만족)은 교육계획표 84.4%, 급간식 식단 83.5% 가정통신문 83.2%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80%를 상회하였다. 반면 부모참여프로그램은 만족한다는 비율이 42.9%로 만족 비율이 가장 낮은 서비스로 나타났고, 부모교육 54.2%, 양방향알림장 55% 등도 만족 비율이 50%대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자녀발달평가는 76.8%, 부모상담은 67.5%의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균으로 평정한 결과를 보면 '교육계획표'와 '급·간식 식단 제공'은 평균 4.2점, '가정통신문'과 '양방향알림장'은 4.1점, '자녀발달평가'는 4점, '부모교육', '부모 상담', '부모참여 프로그램'은 3.9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도에 대해 5점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부모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Ⅶ-3-2〉 유치원 유형별 부모서비스 제공 만족 비율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한다는 비율								5점 평균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알림장	교육계획표	급간식단	가정통신문	자녀발달평가	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알림장
전체	84.4	83.5	83.2	76.8	67.5	54.2	42.9	55.0	4.2	4.2	4.1	4.0	3.9	3.9	3.9	4.1
국·공립	82.2	84.3	79.7	77.4	69.8	56.3	41.8	46.2	4.1	4.2	4.1	4.0	3.9	4.0	3.9	4.0
사립	85.4	83.1	84.6	76.5	66.6	53.3	43.3	58.7	4.2	4.2	4.2	4.0	3.9	3.9	3.9	4.1
(수)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1,029)
2018년	85.0	81.7	84.7	75.2	70.1	68.2	71.2	76.7	4.1	4.0	4.0	3.9	3.8	3.8	3.9	3.9

주: 5점 평균은 '매우만족'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459. 〈표 Ⅶ-3-2〉.

나. 건강검진

유치원 이용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7%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조사 시 77.4%의 아동이 건강검진을 받았음과 비교할 때 다소 감소된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3세에서 받은 경우가 79.2%로 가장 높았고, 5세 73.6%, 4세 70.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Ⅶ-3-3〉 유치원 이용 아동의 건강검진관리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3세	4세	5세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79.2	70.7	73.6	73.2	73.9	71.7	74.6	76.6	73.7	77.4
받지 않음	18.6	28.5	25.0	25.6	24.7	27.0	24.4	21.0	24.9	19.6
잘 모름	2.2	0.8	1.4	1.2	1.5	1.3	1.0	2.4	1.4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339)	(702)	(469)	(400)	(172)	(1,041)	(1,005)
$x^2(df)$	7.2(4)			0.3(2)		6.7(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60. 〈표 Ⅶ-3-3〉.

한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치원으로부터 사전 안내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3%가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3.5%나 되었다. 2018년 조사 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81%로 2021년 81.3%와 비슷하다.

연령별,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치원 유형별로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전안내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83.8%로 사립유치원 80.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Ⅷ-3-4〉 제 특성별 유치원의 건강검진 사전 안내 여부

단위: %(명)

구분	연령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3세	4세	5세이상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받음	83.3	79.8	81.5	83.8	80.2	83.3	81.3	75.7	81.3	81.0
받지 않음	12.4	14.4	13.1	11.7	14.2	12.6	12.4	18.7	13.5	12.5
잘 모름	4.3	5.7	5.4	4.5	5.6	4.1	6.3	5.6	5.3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3)	(386)	(442)	(339)	(702)	(469)	(400)	(172)	(1,041)	(1,005)
$x^2(df)$	1.4(4)			3.4(2)*		2.2(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60-461. 〈표 Ⅷ-3-4〉.

4. 방과후 특성화활동

본 절에서는 유치원 이용 원아의 방과후 특성화활동 운영비율, 이용 행태, 이용비용, 만족도 등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운영

유치원에서의 다음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미술, 음악) 67.1%, 체육관련 66.8%, 영어 60.1%, 수학/과학 관련 45.9%,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5.4%, 기타 12.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유치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운영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 중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체육관련 특성화 활동의 운영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예능(미술, 음악) 73%, 영어 71.7%, 체육관련 71.3%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Ⅶ-4-1〉 유치원 유형별 방과후 특성화활동 운영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67.1	66.8	45.9	45.4	60.1	12.2	(1,041)
국·공립	52.9	55.9	29.2	27.6	32.5	9.4	(339)
사립	73.0	71.3	52.9	52.9	71.7	13.5	(70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나. 이용프로그램 개수 및 종류

유치원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평균 프로그램 개수는 2.6개로 2018년 평균 2.9개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20.0%에 비해 2021년 27.4%로 증가하였다.

없다는 응답(27.4%) 다음으로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 5개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많았고, 3개 15.3%, 2개 11.5%, 1개 9.8%, 4개 9.6%, 5개 이상 2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3세의 이용개수가 평균 2.8개로 가장 많았고, 4세 2.6개, 5세 2.5개로 나타나 어린 연령에서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아 평균 2.8개 읍·면지역 2.6개, 중소도시 2.4개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공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 평균 1.9개이나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의 경우는 2.9개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4-2〉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수)	평균	2018년
전체	27.4	9.8	11.5	15.3	9.6	26.3	100.0(1,041)	2.6	2.9
연령									
3세	23.3	10.7	11.8	16.1	8.5	29.5	100.0(213)	2.8	2.8
4세	28.5	9.0	9.0	15.3	10.5	27.7	100.0(386)	2.6	2.9
5세	28.5	10.2	13.7	14.9	9.4	23.3	100.0(442)	2.5	3.0
F								3.2*	0.4
지역규모									
대도시	23.6	9.6	12.3	15.6	10.7	28.2	100.0(469)	2.8	3.0
중소도시	29.2	11.1	12.0	17.1	7.1	23.5	100.0(400)	2.4	2.8
읍·면	32.7	7.1	8.1	9.7	13.6	28.9	100.0(172)	2.6	2.8
F								3.4*	1.1
유치원 유형									
국·공립	38.7	10.1	13.1	15.7	8.1	14.3	100.0(339)	1.9	2.3
사립	22.7	9.7	10.8	15.1	10.3	31.3	100.0(702)	2.9	3.1
t								−7.2***	−6.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능(미술, 음악)이 56.8%, 체육관련 프로그램 56.5%, 영어가 51.3%로 50%를 상회하는 이용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35.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33.6%, 기타 8.6%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면 2021년에 영어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모두 그 이용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3세의 이용 비율이 4세와 5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으나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순위는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프로그램, 영어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체육관련 프로그램이 이용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예능 관련 프로그램 이용률이 각각 54.5%와 59.2%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의 이용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사립에서는 영어 이용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아 국·공립유치원의 28.2%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표 Ⅶ-4-3〉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 비율(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56.8	56.5	35.5	33.6	51.3	8.6
연령						
3세	63.0	59.7	33.6	30.7	53.5	12.5
4세	57.7	57.7	34.5	35.2	54.6	6.7
5세	52.7	53.7	37.5	33.6	46.9	8.4
지역규모						
대도시	58.1	60.6	38.4	35.6	57.0	7.7
중소도시	54.5	53.2	32.1	29.8	46.9	9.4
읍·면	59.2	54.2	37.0	38.7	47.7	9.0
유치원 유형						
국·공립	48.2	52.0	25.2	21.9	28.2	7.4
사립	60.4	58.4	39.8	38.5	60.9	9.1
(수)	(1,041)	(1,041)	(1,041)	(1,041)	(1,041)	(1,041)
2018년	65.9	62.0	37.4	38.5	49.0	1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64-465. 〈표 Ⅶ-4-2〉.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종류프로그램에 대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 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무 이용 비율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에의 의무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체육관련 프로그램 51.4%,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50.6%로 의무 이용 비율이 높은 종류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어 프로그램은 48.3%, 예능(미술, 음악)프로그램은 44.9%, 기타는 42%로 의무 이용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 시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예능(미술, 음악)프로그램, 체육관련 프로그램, 수학/과학 관련프로그램은 의무이용 비율이 감소하고,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프로그램, 기타 등은 다소 의무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Ⅷ-4-4〉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연령			지역규모			전체	2018년
	국·공립	사립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예능(미술, 음악)	53.3	42.0	45.3	40.8	48.8	43.7	47.1	42.3	44.9	47.1
체육관련	57.1	49.2	51.3	49.9	52.9	49.5	52.3	54.4	51.4	53.2
수학/과학 관련	59.6	48.2	49.5	45.6	55.3	52.5	50.2	46.0	50.6	52.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3.6	55.7	60.4	58.7	54.2	58.8	55.0	57.8	57.2	53.1
영어	54.2	47.1	47.9	46.8	50.1	46.0	49.8	51.2	48.3	43.1
기타	50.7	39.1	48.5	48.0	32.6	43.8	41.4	39.9	42.0	40.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65-466. 〈표 Ⅷ-4-3〉.

방과후 특성화활동을 1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1주일 평균 전체 프로그램의 이용 횟수는 평균 5.2회로 최소 1회에서 최대 25회까지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기타 2회, 영어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가 1.9회로 가장 많았고, 예능(미술, 음악)관련 프로그램과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의 경우 1.5회로 나타나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주당 이용횟수는 종류별로 1.3회~1.7회 정도로 조사되었다.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주당 평균 5.5회,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경우는 주당 평균 4.3회의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이용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와 기타 프로그램 이용 횟수에서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이용 횟수가 국·공립유치원 이용자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와 2015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주당 특성화활동 이용 횟수는 2015년 3.5회, 2018년 4.9회로, 2021년 5.2회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Ⅶ-4-5〉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1주일 평균 이용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전체				유치원 유형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공립	사립	*t*	
전체	5.2	3.6	1.0	25.0	4.3	5.5	-4.6***	(782)
예능(미술, 음악)	1.5	1.0	1.0	5.0	1.4	1.5	-1.3	(629)
체육관련	1.3	0.8	1.0	5.0	1.3	1.3	0.1	(636)
수학/과학 관련	1.4	1.0	1.0	5.0	1.4	1.4	-1.0	(39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5	1.0	1.0	5.0	1.4	1.5	-1.0	(376)
영어	1.9	1.3	1.0	6.0	1.4	2.0	-4.0***	(549)
기타	2.0	1.5	1.0	5.0	3.0	1.6	2.9**	(93)
2018년	4.9	3.1	1.0	30.0	3.9	5.2	-5.8***	(800)
2015년	3.5	2.0	1.0	10.0	3.7	3.5	0.9	(664)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66-467. 〈표 Ⅶ-4-4〉.
** $p < .01$, *** $p < .001$.

다.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

방과후 특성화활동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1개라도 있는 경우,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이용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어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영어에 대한 비용 지불 비율이 높았고, 기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3세의 비용 지불 비율이 4세와 5세의 경우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영역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서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 유형을 중심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모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영역에서 국·공립유치원 이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에는 모든 활동 종류별로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100%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특성화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대비된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이 온라인 등의 활동으로 대체되는 경우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 Ⅷ-4-6〉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		(수)
	3세	4세	5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국·공립	사립	
예능(미술, 음악)	58.8	59.6	49.1	64.0	51.4	43.0	27.0	65.0	(629)
체육관련	56.3	54.1	46.8	62.6	47.5	30.6	20.9	63.3	(636)
수학/과학 관련	57.4	60.1	46.9	63.5	49.0	38.6	21.0	62.6	(39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7.3	50.6	51.5	61.9	47.3	39.1	25.5	58.7	(376)
영어	65.1	64.4	62.8	74.2	57.5	48.6	35.8	69.4	(549)
기타	49.5	53.3	71.4	63.2	58.5	52.6	12.9	75.1	(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67. 〈표 Ⅶ-4-5〉.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종류별로 최저 0원에서 최고 310,000원까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영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월평균 24,200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프로그램 23,800원, 예능 18,1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1년 조사에서 2018년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유치원의 등원이 불규칙하고 면대면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특성화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Ⅷ-4-7〉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2021년				2018년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예능(미술, 음악)	18.1	29.5	-	240.0	27.1	24.9	4.0	200.0	(629)
체육관련	13.1	20.0	-	150.0	22.4	18.9	3.0	180.0	(636)
수학/과학 관련	13.5	18.8	-	150.0	22.1	17.8	3.0	200.0	(39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4.8	28.2	-	310.0	23.9	24.3	2.0	320.0	(376)
영어	24.2	33.3	-	250.0	30.5	28.3	3.0	250.0	(549)
기타	23.8	37.6	-	230.0	26.1	22.3	2.0	150.0	(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68. 〈표 Ⅶ-4-6〉.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월평균 지불 비용을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연령별로는 예능(미술, 음악)프로그램의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3세의 경우 평균 22,900원으로 가장 높았고, 4세 20,100원, 5세 13,100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기타 제외한 모든 방과후 활동 종류별로 이용비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방과후 활동 종류에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읍·면지역의 순서로 방과후 특성화활동 이용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어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대도시에서 평균 28,400원이지만 읍·면지역에서는 13,600원으로 14,8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모든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마다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이용비용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유의하게 높았다. 기타를 제외하면 영어 프로그램 평균 이용비용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립유치원 이용자의 영어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27,500원 국·공립유치원 이용자의 영어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7,200원으로 20,300원의 차이를, 예능 프로그램도 국·공립유치원 4,300원, 사립유치원 22,700원으로 18,400원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Ⅶ-4-8〉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18.1	13.1	13.5	14.8	24.2	23.8
연령						
3세	22.9	13.0	12.7	22.5	28.5	15.9
4세	20.1	15.2	16.6	13.7	23.2	22.9
5세	13.1	11.0	11.3	12.3	22.7	30.6
F	4.5*	2.6	3.0	1.1	0.1	2.8
지역규모						
대도시	19.9	16.5	16.3	18.0	28.4	21.7
중소도시	18.9	11.5	13.2	14.2	23.1	29.9
읍·면	11.3	7.2	6.6	8.2	13.6	11.4
F	5.2**	12.2***	7.3***	4.2*	8.4***	1.6
설립유형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국·공립	4.3	4.4	3.5	5.5	7.2	1.3
사립	22.7	16.3	16.2	17.1	27.5	31.5
t	−7.3***	−7.3***	−5.3***	−3.5***	−5.7***	−3**
(수)	(629)	(636)	(394)	(376)	(549)	(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469. 〈표 Ⅶ-4-7〉.

다음으로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에 지불되는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비용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지출 비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총액 기준 무료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0만원을 지출한다는 경우가 20.1%에 해당하였고, 10~15만원 미만 지출이 12.1%, 3~5만원 9.2%, 15~20만원 7.1%, 20만원 이상 5.1%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성화활동에 소요되는 월평균 총 비용은 전체 평균은 57,700원이었다. 유치원 이용 아동이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은 2015년 75,400원, 2018년 83,600원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 57,7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령별로는 3세가 가장 많이 지출이 66,000원, 4세 63,000원, 5세 48,100원으로 나타났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평균 총 지출액이 대도시 68,200원, 중소도시 54,400원, 읍·면지역이 35,300원으로 지역규모가 클수록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14,000원으로 사립유치원이 72,300원에 비해 총액 기준 58,300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Ⅶ-4-9〉 제 특성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비용 지불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미만	3~5 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7.7	2.2	2.3	4.2	9.2	20.1	12.1	7.1	5.1	100.0(782)	57.7	79.3
연령												
3세	37.4	1.8	2.7	4.7	6.3	23.3	7.2	9.5	7.1	100.0(167)	66.0	100.3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2 만원	2~3 만원 미만	3~5 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 만원 이상	계(수)	지불 시	
											평균	표준 편차
4세	35.0	1.3	1.7	4.1	9.5	20.9	15.3	6.2	5.9	100.0(289)	63.0	81.8
5세	40.4	3.1	2.7	4.1	10.6	17.6	11.8	6.6	3.1	100.0(326)	48.1	60.5
$x^2(df)/F$					13.8(16)						2.7	
지역규모												
대도시	28.3	1.9	2.6	3.8	9.2	27.1	12.9	8.6	5.6	100.0(362)	68.2	87.6
중소도시	42.9	2.9	0.7	4.4	8.5	16.5	11.8	6.7	5.6	100.0(296)	54.4	74.5
읍·면	51.3	1.0	6.3	4.9	11.4	9.2	10.3	3.8	1.8	100.0(124)	35.3	57.7
$x^2(df)/F$					65.3(16)***						13.0***	
유치원 유형												
국·공립	74.4	2.5	-	4.5	7.6	7.8	0.9	1.8	0.4	100.0(220)	14.0	32.9
사립	25.5	2.0	3.1	4.2	9.8	24.2	15.8	8.9	6.6	100.0(562)	72.3	84.7
$x^2(df)/t$					173.4(8)***						-9.7***	
2018년	-	-	3.2	9.6	18.4	34.9	21.1	6.7	6.1	(800)	83.6	66.5
2015년	6.4	1.4	1.2	7.5	18.8	38.8	19.2	4.8	1.9	(560)	75.4	47.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0. 〈표 Ⅷ-4-8〉.
*** $p < .001$.

라.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활동에 따라 4.1점에서 4.2점 사이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방과후 특성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특성화활동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기타 프로그램에서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4.3점으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3.6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Ⅷ-4-10〉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4.2	4.2	4.2	4.1	4.1	4.1
국·공립	4.2	4.2	4.2	4.3	4.2	3.6
사립	4.2	4.2	4.1	4.1	4.1	4.3
t	−0.1	−0.4	−0.9	−1.8	−1.5	2.4*
(수)	(629)	(636)	(394)	(376)	(549)	(93)
2018년	3.96	3.95	3.88	3.91	3.86	4.1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1. 〈표 Ⅶ-4-9〉.
* $p < .05$.

5. 유치원 만족도 및 개선 요구

가. 유치원 만족도

유치원 이용과 관련한 항목별 만족도를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매우 만족+만족)과 5점 척도로 평정한 점수로 살펴보았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최저 62.2%~84.6% 범위를 나타냈고,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76.7%로 나타났다. 이 중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직원(84.6%)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82.2%), 생활지도(82.1%), 교육내용(평상시)(81.2%) 순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부모참여 및 교육' 부분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2.2%에 그쳤다. '비용'에 대한 만족도도 67.2%로 높지 않았다. 유치원 이용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보면 2015년 조사 시 78.6%에서 2018년 81.1%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 조사에서 76.7%로 하향하는 결과를 보였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을 중심으로 유치원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교직원과 교육내용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비용과 급간식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용의 경우 만족도는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4.3점, 사립유치원을 이용 하는 경우는 3.7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만족

도는 유치원 유형별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Ⅶ-5-1〉 유치원 만족도 비율 및 평균: 5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만족하는 비율				5점 평균			
	전체	국·공립	사립	(수)	전체	국·공립	사립	*t*
교직원	84.6	80.5	86.3	(1,041)	4.2	4.1	4.2	−2.4*
주변환경	75.1	77.0	74.3	(1,041)	4.0	4.0	4.0	0.7
시설환경	73.3	75.3	72.4	(1,041)	3.9	4.0	3.9	1.0
실내환경	78.2	81.4	76.9	(1,041)	4.0	4.1	4.0	1.5
비용	67.2	90.3	57.4	(1,041)	3.9	4.3	3.7	10.8***
건강관리	78.2	82.4	76.4	(1,041)	4.0	4.1	4.0	2.3*
급간식관리	78.7	86.1	75.6	(1,041)	4.1	4.2	4.0	3.4***
안전관리	82.2	83.9	81.5	(1,041)	4.1	4.1	4.1	1.6
교육내용(평상시)	81.2	74.9	83.8	(1,041)	4.1	4.0	4.2	−3.8***
교육내용(위기시)	77.5	73.6	79.2	(1,041)	4.0	3.9	4.1	−2.2*
생활지도	82.1	77.7	84.0	(1,041)	4.1	4.0	4.2	−1.9
부모참여 및 교육	62.2	57.9	64.1	(1,041)	3.8	3.7	3.8	−1.4
전체 평균	76.7	78.4	76.0	(1,041)	4.0	4.0	4.0	−
2018년	81.1	87.7	78.3	(1,005)	4.05	4.21	3.98	−
2015년	78.6	83.2	77.1	(742)	4.00	4.10	4.00	−

주: 5점 평균은 '매우만족'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3. 〈표 Ⅶ-5-1〉.
* $p < .05$, *** $p < .001$.

유치원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3세, 4세, 5세 모두 평균 4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읍·면지역 유치원 이용자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아 평균 4.1점으로, 대도시(4점), 중소도시(4점)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15년, 2018년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특히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읍·면지역에서 '비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 부재 등의 경우 평균 4.4점, 휴직 중인 경우 평균 4.1점으로 취업 중인 경우 평균 4점, 미취업인 경우 4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났다. 본 조사에서 모 부재 등인 사례가 11건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모 부재 등의 경우에는 특히 실내 환경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4.5점으로 다른 경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내용(평상시)에 대한 부분(4.3점으로)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유치원의 '부모참여 및 교육'과 '비용' 부분에서 유치원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Ⅷ-5-2〉 제 특성별 유치원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F*
교직원	4.2	4.2	4.2	0.1	4.2	4.2	4.2	0.2	4.2	4.3	4.1	4.6	1.8
주변환경	4.0	3.9	4.0	0.2	4.0	3.9	4.0	0.6	4.0	4.0	4.0	4.2	0.3
시설환경	4.0	4.0	3.9	–	3.9	3.9	4.1	1.5	3.9	4.1	3.9	4.4	1.8
실내환경	4.0	4.0	4.0	0.2	4.0	4.0	4.2	2.8	4.1	4.1	3.9	4.5	2.7*
비용	3.8	3.9	4.0	1.3	3.9	3.9	4.0	3.8*	3.9	3.9	3.9	4.4	1.0
건강관리	4.0	4.0	4.1	1.9	4.0	4.0	4.1	0.6	4.0	4.1	4.0	4.4	0.9
급간식관리	4.0	4.0	4.1	1.3	4.0	4.0	4.2	1.3	4.0	4.1	4.0	4.4	0.3
안전관리	4.1	4.1	4.1	1.0	4.1	4.1	4.1	0.3	4.1	4.2	4.1	4.4	0.7
교육내용(평상시)	4.1	4.1	4.1	0.9	4.1	4.1	4.1	0.4	4.1	4.2	4.0	4.3	2.7*
교육내용(위기시)	4.0	4.0	4.1	0.2	4.0	4.0	4.1	1.0	4.1	4.1	4.0	4.3	2.0
생활지도	4.1	4.1	4.1	0.6	4.1	4.1	4.2	0.2	4.1	4.3	4.1	4.4	1.2
부모참여 및 교육	3.7	3.7	3.8	0.6	3.7	3.8	3.8	0.8	3.8	3.9	3.7	4.1	2.1
전체 평균	4.0	4.0	4.0		4.0	4.0	4.1		4.0	4.1	4.0	4.4	
(수)	(213)	(386)	(442)		(469)	(400)	(172)		(492)	(78)	(460)	(11)	
2018년	4.03	4.06	4.05	0.2	4.02	4.01	4.22	8.9***	4.10	3.84	4.01	3.93	3.4**
2015년	4.0	4.0	4.1	–	4.0	4.0	4.2	–	4.0	4.1	4.0	–	–

주: 5점 평균은 '매우만족'1점~'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5. 〈표 Ⅷ-5-2〉.
* $p < .05$, ** $p < .01$, *** $p < .001$.

나. 유치원 개선요구

유치원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순위로 2가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이다.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력의 질 제고' 17.6%, '인력 증원' 17.1%, '노후시설 정비' 11.2%, '비용 절감' 9.1%, '안전관리 강화' 9%, '내부 환경 개선' 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유치원은 특히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 비율이 43.5%에 달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요구비율 25.5%보다 현저히 높았고, 사립유치원에서는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12.5%로 국·공립유치원의 1%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대도시지역에서는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중소도시에서는 '인력의 증원', 읍·면지역에서는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요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Ⅶ-5-3〉 유치원 개선 요구 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유형		지역규모			전체	2018년 조사
	국·공립	사립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증원	15.3	17.8	17.0	18.3	14.0	17.1	20.2
인력의 질 제고	17.5	17.6	19.8	15.6	16.9	17.6	15.5
노후시설 정비	9.5	11.9	11.4	11.4	10.0	11.2	7.8
내부환경개선	3.5	6.0	7.1	4.7	2.0	5.3	4.7
비용 절감	1.0	12.5	7.3	10.9	9.0	9.1	11.9
안전관리강화	9.7	8.7	7.3	9.4	12.1	9.0	10.2
교육내용다양화	43.5	25.5	29.9	29.7	35.9	30.8	25.1
모름 무응답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339)	(702)	(469)	(400)	(172)	(1,041)	(1,00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8. 〈표 Ⅶ-5-5〉.

다. 유치원이용과 양육수당 인상

유치원 이용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유치원 이용을 중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88.6%가 '계속 다님'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모르겠음'이 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두고 집에서 봄'으로

응답한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가정양육을 위한 인상 금액은 평균 44.2천원으로 조사되었는데,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세의 경우 '그만두고 집에서 봄'에 대한 응답이 4.5%로 다른 연령인 4세 3.8%, 5세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응답 비율은 대도시의 경우 3.9%로 2.9%인 '중소도시'와 0.8%인 '읍·면' 보다 높았다. 한편, '그만두고 집에서 봄'에 대한 응답은 국·공립 유치원이 5.1%로 높은 반면 사립은 2.5%로 낮았다.

〈표 Ⅷ-5-4〉 유치원 이용 부모의 양육수당 관련 의견

단위: %(명), 천원

구분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중단 의견					가정양육 위한 인상 금액		
	계속다님	그만두고 다른데 보냄	그만두고 집에서 봄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	(수)
전체	88.6	3.0	3.2	5.2	100.0(1,041)	44.2	37.2	(62)
연령								
3세	86.7	2.3	4.5	6.5	100.0(213)	40.2	35.9	(16)
4세	88.2	2.8	3.8	5.2	100.0(386)	53.8	37.8	(23)
5세	89.9	3.5	2.1	4.5	100.0(442)	36.1	34.9	(23)
지역규모								
대도시	86.4	3.9	3.3	6.5	100.0(469)	52.5	45.6	(31)
중소도시	89.5	2.9	3.9	3.7	100.0(400)	35.0	24.5	(26)
읍·면	92.0	0.8	1.3	5.9	100.0(172)	50.2	25.1	(5)
유치원 유형								
국·공립	87.1	3.4	5.1	4.4	100.0(339)	34.4	26.9	(26)
사립	89.2	2.8	2.5	5.5	100.0(702)	50.8	41.5	(3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79. 〈표 Ⅶ-5-6〉.

6.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유치원 이용 특성과 요구를 연령, 지역규모, 유치원 설립유형, 모 취업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등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양상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립 유치원에의 이용 비율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유치원 이용

아동 열 명 중 일곱 명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2018년 조사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유치원 설립유형별 강점을 살려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조성이 요구된다. 유치원의 이용 이유, 선택 시 고려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강점은 분명하다. 부모들에게 국공립유치원은 학교와 유사한 운영으로 초등학교 준비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저렴한 학비 등이 강점이며,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등하원 차량의 운행과 더불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체감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다소 늦은 하원 시간, 등하원 차량의 운행 등 맞벌이 가족의 요구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21 보육실태 조사결과 중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의 유치원 운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유치원 이용 시작시기가 2018년 46.2개월에서 2021년 47.6개월로 늦어진 것과 현재 유치원 재원기간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입학 시기 감염병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하원 시 부모와의 정보 교류 빈도가 감소함도 코로나19로 유치원의 등원이 불규칙하였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방과후 특성화활동의 이용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20%에 비해 2021년 27.4%로 증가하였고, 프로그램별로 살펴보아도 대부분 그 이용비율이 감소하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2021년 조사에서 2018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유치원 이용 가구의 등하원 시간 조사를 살펴보면 희망하는 시간과 현재 실제 등하원 시간 사이에 격차를 보인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8시까지 등원 비율은 응답자의 2.8% 정도이나 희망 등원 시간의 경우 8시 이전을 원하는 비율이 15.1%로 지금보다 이른 등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원 시간도 현재 5시 이후 하원[8] 하는 비율은 11.1%이나, 5시 이후 하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26.5%이다. 또한 현재 유치원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4분이지만, 희망 이용 시간은 7시간 52분으로 48분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이용아동의 평균

8)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반 시작 기준인 17시를 중심으로 비교함.

등하원 시간은 12.4분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비용의 격차는 2018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부모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이용 아동의 월평균 교육비는 188,700원, 순교육비는 117,700원으로 2018년 보다 현저하게 줄었다. 2018년에는 월평균 교육비, 순교육비는 각각 238,800원, 135,600원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비는 유치원 유형별 격차가 커서, 국·공립유치원은 총지출교육비가 42,300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250,100원으로 약 5.9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2018년 조사 시 7.3배 차이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입학정원이 재한적인 상황에서 기관 유형별 비용격차는 기관 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VIII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0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0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요일 및 시각 관련

0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0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0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만족도

0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부모서비스 및 특별활동

07 시사점

Ⅷ.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요구

Ⅷ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이하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현황 및 요구에 대해 살펴본다.

1.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

보육실태조사에 포함된 영유아 중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닌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총 86명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영유아 가구의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이유,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이용 일수 및 이용 시간, 등·하원 특성 등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특성

현재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해당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60.3%, 유치원 0.7%, 반일제 이상 학원이 39.0%였다.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가 100.0% 이나 영아 응답자가 1명이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는 60.1%,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게 된 경우가 39.2%로 2018년에 비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최초 이용하는 아동(30.3%)의 비중이 늘어났다.

〈표 Ⅷ-1-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아동의 최초 이용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제 이상)	계(수)	
전체	60.3	0.7	39.0	100.0	(86)
영유아구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반일제 이상)	계(수)	
영아	100.0	–	–	100.0	(1)
유아	60.1	0.7	39.2	100.0	(85)
$x^2(df)$		0.6(2)			
2018년	69.7	–	30.3	100.0	(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85-486. 〈표 Ⅷ-1-1〉.
** $p < .01$.

나. 이용 이유

영유아 가구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령별로 설문하였을 때,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준비' 15.2%, '특기교육' 9.3%,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3.3%, '사회성 발달' 1.0%, '놀이상대가 없어서' 0.7% 순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의 경우 '특기교육'에 대한 응답이 100.0%, 2세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이 100.0%로 나타났다. 3세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응답이 66.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준비' 28.2%, '놀이상대가 없어서'가 5.5%로 이어졌다. 4세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이 7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기교육' 15.4%, '초등학교 준비' 11.5%였다. 5세의 경우에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67.4%, '초등학교 준비' 15.7%, '특기교육' 7.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0%, '사회성 발달' 2.0%로 이어졌다.

〈표 Ⅷ-1-2〉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평균
아이의 전인적 발달	–	100.0	66.3	73.1	67.4	70.6
초등학교 준비	–	–	28.2	11.5	15.7	15.2
특기교육	100.0	–	–	15.4	7.9	9.3
부모 돌보기어려워	–	–	–	–	7.0	3.3
사회성 발달	–	–	–	–	2.0	1.0
놀이상대가 없어서	–	–	5.5	–	–	0.7
(수)	(1)	(5)	(12)	(31)	(37)	(86)
$x^2(df)$			22.0(2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영유아 가구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역별로 설문하였을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당 응답은 대도시에서는 63.8%, 중소도시에서는 92.7%, 읍·면에서는 29.9%였다. 읍·면에서는 '특기교육을 위하여' 응답 비중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응답자 수가 4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음으로, '초등학교 준비'에 대한 응답이 23.6%, '특기교육을 위하여' 6.4%,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5.1%,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응답 다음으로 '특기교육을 위하여' 4.1%,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2%로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 취업여부에 따라 설문하였을 때,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당 응답은 취업 가구에서 67.0%, 휴직중인 경우 53.1%, 미취업 가구에서는 82.4%였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취업 가구의 경우, 17.9%인 '초등학교 준비' 응답 다음으로 '특기교육을 위하여' 응답이 8.2%,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6.9%로 이어졌다. 휴직중인 가구는 43.5%인 '초등학교 준비' 응답 다음으로 '특기교육을 위하여' 응답이 3.4%였다. 미취업 가구의 경우, 13.0%인 '특기교육을 위하여' 응답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2.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2.0% 순으로 높았다.

〈표 Ⅷ-1-3〉 지역 및 모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63.8	92.7	29.9	67.0	53.1	82.4
초등학교 준비	23.6	-	-	17.9	43.5	-
특기교육을 위하여	6.4	4.1	70.1	8.2	3.4	13.0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5.1	-	-	6.9	-	-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	3.2	-	-	-	2.6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1.2	-	-	-	-	2.0
계	100.0	100.0	100.0	5.5	5.8	2.8
(수)	(58)	(24)	(4)	(40)	(13)	(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86-487. 〈표 Ⅷ-1-2〉.

영유아 가구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와 기간을 설문하였을 때, 시작 시기는 자녀 월령이 '49개월 이상'인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이용기간은 '12개월 이하'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작 시기는 응답 비중이 '49개월 이상' 51.2%, '37~48개월 이하' 26.2%, '25~36개월 이하' 19.3%, '13~24개월 이하' 3.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이용기간은 응답 비중이 높은 순서가 '12개월 이하' 42.9%, '13~24개월 이하' 40.2%, '25~36개월 이하' 10.7%, '37~48개월 이하' 6.1% 순으로 이어졌다.

〈표 Ⅷ-1-4〉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기 및 기간

단위: %, (명)

구분	시작시기	(수)	이용기간	(수)
12개월 이하	-	-	42.9	(39)
13~24개월이하	3.3	(3)	40.2	(34)
25~36개월이하	19.3	(17)	10.7	(9)
37~48개월이하	26.2	(25)	6.1	(4)
49개월 이상	51.2	(41)		
계	100.0	(86)	100.0	(8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488. 〈표 Ⅷ-1-4〉.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7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6.8%, '주변의 평판' 5.5%, '기관 실내/외 환경' 5.0% 순이었다. 2018년도에 비해 '프로그램' 응답에 다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세의 부모들이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100.0%였다. 2세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기관 실내/외 환경'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28.7% 있었다. 3세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변의 평판' 28.2%, '교사' 10.2%, '기관 실내/외 환경' 5.5%, '안전한 보호' 5.2%로 고려 요인이 나타났다. 4세의 경우,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려 요인 응답 비중은 '교사' 7.2%, '기관 실내/외 환경' 5.7%,

'원장' 4.9%, '안전한 보호' 2.7%, '차량운행 여부' 1.8% 순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고려했다는 응답 비중이 7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요인은 '기관 학급 규모', '교사', '차량운행 여부', '주변의 평판', '집과의 거리', '기관 실내/외 환경', '안전한 보호'로 각각 6.4%, 6.3%, 4.6%, 3.6%, 2.2%, 1.9%, 1.9%로 나타났다.

〈표 Ⅷ-1-5〉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평균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원장	-	-	-	4.9	-	1.7	3.9	2.5
교사	-	-	10.2	7.2	6.3	6.8	7.7	13.6
프로그램	100.0	71.3	50.8	77.8	73.1	71.6	45.1	58.9
기관 학급 규모	-	-	-	-	6.4	3.0	4.0	0.8
기관 실내/외 환경	-	28.7	5.5	5.7	1.9	5.0	3.5	3.2
안전한 보호	-	-	5.2	2.7	1.9	2.5	7.2	-
집과의 거리	-	-	-	-	2.2	1.0	8.5	7.3
주변의 평판	-	-	28.2	-	3.6	5.5	7.7	8.2
차량운행 여부	-	-	-	1.8	4.6	2.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68)	(41)

주: 2021년 기관 실내/외 환경 항목은 2015,2018년 실내 환경 항목으로 대체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487-488. 〈표 Ⅷ-1-3〉.

지역 및 모 취업 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두 기준 모두에서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던 기준은 '프로그램' 66.7%, '주변의 평판' 8.6%, '교사' 6.0%, '기관 실내/외 환경' 5.1%, '기관 학급 규모' 4.7%, '안전한 보호' 4.0%, '차량운행 여부' 3.4%, '집과의 거리' 1.6%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고려 요인으로는 '기관 실내/외 환경' 5.7%, '교사' 5.6%, '차량운행 여부' 2.0%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의 경우도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원장' 응답이 29.9%, '교사' 23.1% 순으로 높았다.

모 취업여부 별로 살펴보면, 취업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는 응답

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고려 요인으로는 '교사' 11.4%, '기관 실내/외 환경', '안전한 보호' 각각 5.4%, '기관 학급 규모'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가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았던 응답은 '주변의 평판'이 36.0%, '집과의 거리' 6.7%였다. 미취업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을 고려했다는 응답 비중이 7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높은 요인은 '차량운행 여부' 7.5%, '기관 실내/외 환경' 6.4%, '원장' 4.5%, '교사' 3.8%, '기관 학급 규모' 2.3%로 나타났다.

〈표 Ⅷ-1-6〉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요인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원장	-	-	29.9	-	-	4.5
교사	6.0	5.6	23.1	11.4	-	3.8
프로그램	66.7	86.7	47.0	73.3	57.3	75.5
기관 학급 규모	4.7	-	-	4.5	-	2.3
기관 실내/외 환경	5.1	5.7	-	5.4	-	6.4
안전한 보호	4.0	-	-	5.4	-	-
집과의 거리	1.6	-	-	-	6.7	-
주변의 평판	8.6	-	-	-	36.0	-
차량운행 여부	3.4	2.0	-	-	-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요일 및 시각 관련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령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이용 요일을 설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월요일' 이용하는 경우 99.0%, '화요일' 이용하는 경우 99.3%,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100.0%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 응답은 없었다. 정기적인 이용일 수는 평균적으로 약 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에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경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모두 이용하고, '월요일'은 98.9%만, '화요일'은 99.3%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2,3세 모두 주말 제외 평일 5일을 모두 이용했다. 4세의 경우, 평일 5일 중 '화요일'만 98.1%로 이용하고, 나머지 4일은 모두 이용했다. 주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5세 이상의 경우, 평일 5일 중 '월요일'만 97.8%로 이용하고, 나머지 4일은 모두 이용했다. 주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표 Ⅷ-2-1〉 영유아 구분별 연령별 기타 반일제 기관 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평균
월요일	100.0	98.9	100.0	100.0	100.0	100.0	97.8	99.0
화요일	100.0	99.3	100.0	100.0	100.0	98.1	100.0	99.3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요일	-	-	-	-	-	-	-	-
일요일	-	-	-	-	-	-	-	-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5.0	5.0
(수)	(6)	(80)	(1)	(5)	(12)	(31)	(37)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요일 유형을 설문하였을 때, 대부분 평일 5일을 이용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평일 5일 중 '월요일'은 98.4%, '화요일'은 99.0%로 이용하고, 나머지 3일은 모두 이용했다. 주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은 평일 5일 모두 이용했고, 주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모 취업별로는 휴직중인 가구와 미취업 가구 모두 주말 제외 평일 5일을 모두 이용했다. 하지만 취업 가구의 경우, '월요일'은 97.8%, '화요일'은 98.6%로 이용하고, 나머지 3일은 모두 이용했다. 주말은 이용하지 않았다.

〈표 Ⅷ-2-2〉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이용 요일 유형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월요일	98.4	100.0	100.0	97.8	100.0	100.0
화요일	99.0	100.0	100.0	98.6	100.0	100.0
수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목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요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토요일	–	–	–	–	–	–
일요일	–	–	–	–	–	–
정기적 이용일 수	5.0	5.0	5.0	5.0	5.0	5.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령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등원하는 시각을 설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8:31~9:00'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9:01~9:30'이 47.7%로 최다 빈도였던 것에 비해 등원 시간이 약간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고, '8:31~9:00' 응답이 41.7%였던 2018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9:01~9:30' 37.0%, '9:31~10:00' 13.1%, '8:01~8:30' 4.9%, '7:30까지' 0.9% 순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의 경우에는 '9:01~9:30' 응답이 100.0%였다. 2세의 경우는 '9:01~9:30' 응답이 14.6%밖에 되지 않았고, '8:31~9:00' 응답이 42.9%, '9:31~10:00' 응답이 42.5%로 나타났다. 3세의 경우, '9:01~9:30'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8:31~9:00' 응답이 44.1%, '9:31~10:00' 응답이 10.2%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에는 '9:01~9:30'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8:31~9:00' 응답이 39.1%, '9:31~10:00' 응답이 13.3%, '8:01~8:30' 7.8%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8:31~9:00'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34.3%, '9:31~10:00' 응답이 10.8%, '8:01~8:30' 4.7% '7:30까지' 1.9%로 나타났다.

〈표 Ⅷ-2-3〉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2018년	2015년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	-	-	-	1.9	0.9	1.3	3.2
7:31~8:00	-	-	-	-	-	-	-	-
8:01~8:30	-	-	-	7.8	4.7	4.9	10.5	6.9
8:31~9:00	-	42.9	44.1	39.1	48.2	44.2	41.7	31.5
9:01~9:30	100.0	14.6	45.7	39.8	34.3	37.0	32.4	47.7
9:31~10:00	-	42.5	10.2	13.3	10.8	13.1	13.2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68)	(4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등원하는 시각을 설문하였을 때, 대도시의 경우, '8:31~9:00'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38.2%, '9:31~10:00' 응답이 14.2%, '8:01~8:30' 응답이 7.6%, '7:30까지'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8:31~9:00'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38.1%, '9:31~10:00'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 읍·면의 경우, '8:31~9:00' 응답이 83.0%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17.0%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 가구의 경우, '9:01~9:30'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8:31~9:00' 응답이 37.4%, '8:01~8:30' 응답이 10.3%, '9:31~10:00' 응답이 9.7%, '7:30까지'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가구의 경우, '8:31~9:00'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40.6%, '9:31~10:00' 응답이 10.1%로 나타났다. 미취업 가구의 경우, '8:31~9:00' 응답이 50.6%로 가장 많았고, '9:01~9:30' 응답이 30.6%, '9:31~10:00' 응답이 18.7%로 나타났다.

〈표 Ⅷ-2-4〉 지역 및 모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7:30까지	1.4	–	–	1.9	–	–
7:31~8:00	–	–	–	–	–	–
8:01~8:30	7.6	–	–	10.3	–	–
8:31~9:00	38.7	48.6	83.0	37.4	49.3	50.6
9:01~9:30	38.2	38.1	17.0	40.7	40.6	30.6
9:31~10:00	14.2	13.3	–	9.7	10.1	1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령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 하원 시각을 설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15:01~16:00'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6:01~17:00' 29.6%, '14:01~15:00' 28.4%, 17:31~18:00' 2.7%, '17:01~17:30' 1.7%, '14:00까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의 경우에는 '16:01~17:00' 응답이 1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세의 경우는 '15:01~16:00' 응답이 7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4:01~15:00' 응답이 28.7%로 많았다. 3세의 경우, '15:01~16:00' 응답이 53.1%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16:01~17:00' 41.4%, '14:01~15:00'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에는 '15:01~16:00'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6:01~17:00' 30.3%, '14:01~15:00' 28.7%, 17:31~18:00' 7.9%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에는 '14:01~15:00'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5:01~16:00' 응답이 31.2%로 많았고, '16:01~17:00' 28.2%, '17:01~17:30' 3.6%, '14:00까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5〉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	-	-	-	1.9	0.9
14:01~15:00	-	28.7	5.5	28.7	35.0	28.4
15:01~16:00	-	71.3	53.1	33.1	31.2	36.7
16:01~17:00	100.0	-	41.4	30.3	28.2	29.6
17:01~17:30	-	-	-	-	3.6	1.7
17:31~18:00	-	-	-	7.9	-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 규모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 하원 시각을 설문하였을 때, 대도시의 경우, '15:01~16:00'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16:01~17:00' 응답이 37.7%, '14:01~15:00'응답이 18.8%, '17:31~18:00' 4.2%, '14:00까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15:01~16:00'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4:01~15:00' 응답이 38.9%, '16:01~17:00' 응답이 14.5%, '17:01~17:30' 5.6%였다. 읍·면의 경우, '14:01~15:00' 응답이 83.0%로 과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16:01~17:00'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모 취업 여부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 하원 시각을 설문하였을 때, 취업 가구의 경우, '15:01~16:00'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고, '16:01~17:00' 응답이 33.5%, '14:01~15:00' 응답이 23.2%, '17:31~18:00' 4.6%, '14:00까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가구의 경우는 '16:01~17:00' 응답이 4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4:01~15:00' 응답이 29.5%, '15:01~16:00' 응답이 19.3%, '18:01~19:00'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가구의 경우, '15:01~16:00'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4:01~15:00' 응답이 34.7%, '16:01~17:00' 16.9%, '17:01~17:30'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2-6〉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14:00까지	1.4	–	–	1.9	–	–
14:01~15:00	18.8	38.9	83.0	23.2	29.5	34.7
15:01~16:00	37.9	41.0	–	36.8	19.3	43.9
16:01~17:00	37.7	14.5	17.0	33.5	47.8	16.9
17:01~17:30	–	5.6	–	–	–	4.5
17:31~18:00	4.2	–	–	4.6	3.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연령별로 현재 이용 기관의 이용 시간을 설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39.4%가 '6~7시간' 이라고 응답했고,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5~6시간' 응답이 39.1%로 많았고, '7~8시간' 16.4%, '8~9시간' 2.8%, '9~10시간' 1.7%, '5시간까지' 0.7%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세의 경우에는 '7~8시간' 응답이 100.0%였다. 2세의 경우, '5~6시간', '6~7시간' 각각 42.9%, '5시간까지' 14.2% 순으로 많았다. 3세의 경우에는 '6~7시간'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고, '5~6시간' 28.8%, '8~9시간' 8.4%, '7~8시간'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 '6~7시간'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고, '5~6시간' 응답이 36.7%로 다음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7~8시간' 17.6%, '9~10시간' 4.9%, '8~9시간'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5~6시간'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고, '6~7시간' 33.8%, '7~8시간' 20.1%, '8~9시간' 2.4%로 나타났다.

〈표 Ⅷ-2-7〉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	14.2	–	–	–	0.7
5~6시간	–	42.9	28.8	36.7	43.7	39.1
6~7시간	–	42.9	58.0	39.3	33.8	39.4
7~8시간	100.0	–	4.8	17.6	20.1	16.4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8~9시간	-	-	8.4	1.5	2.4	2.8
9~10시간	-	-	-	4.9	-	1.7
10시간 이상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x^2(df)$			27.1(20)*			
평균	430.0	348.6	404.6	400.9	387.2	392.5
표준편차	-	48.3	41.1	67.4	55.7	59.2
F			0.5			-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이용 시간을 설문하였을 때, 대도시의 경우, '6~7시간'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6시간' 응답이 32.1%로 많았다.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에서는 '5~6시간' 응답이 각각 45.9%, 83.0%로 가장 많았고, '6~7시간'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각각 38.1%,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모 취업 여부별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 이용 시간을 설문하였을 때, 취업 가구와 미취업 가구는 '5~6시간' 응답이 각각 35.8%,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7시간' 응답이 각각 33.0%, 43.7%로 많았다. 반대로, 휴직중인 가구의 경우, '6~7시간' 응답이 각각 48.6%로 가장 많았고, '5~6시간' 응답이 36.3%로 많았다.

〈표 Ⅷ-2-8〉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	2.3	-	1.5	-	-
5~6시간	32.1	45.9	83.0	35.8	36.3	44.5
6~7시간	41.9	38.1	17.0	33.0	48.6	43.7
7~8시간	20.9	9.9	-	20.4	15.1	11.8
8~9시간	2.5	3.8	-	5.8	-	-
9~10시간	2.6	-	-	3.5	-	-
10시간 이상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x^2(df)$		9.0(10)			8.5(10)	
평균	403.5	374.0	365.6	403.4	398.0	376.3
표준편차	58.8	58.5	26.0	65.2	51.1	50.1
F		0.7			1.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시작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81.9%로 대부분이었다. 끝나는 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71.1%로 다수가 끝나는 시간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시작 시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끝나는 시간과 관련해 '너무 이르다'에 대한 응답이 2세의 경우 42.5%, 3세의 경우 42.4%, 5세의 경우 20.4%로 '만족'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4세의 경우 '너무 늦다'는 응답이 15.4%로 '너무 이르다' 6.7% 보다 많았다. 끝나는 시간이 '만족' 다음으로 '너무 이르다'는 응답 비율이 대도시의 경우 18.2%, 중소도시의 경우 26.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의 경우 '너무 이르다' 응답은 0.0%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너무 늦다' 29.9%였다.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 가구에서는 시작 시간에 대해 '너무 늦다' 각각 16.5%, 15.7%로 '만족' 응답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중인 가구에서는 '만족' 100.0% 였다.

〈표 Ⅷ-2-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 관련 의견

단위: %(명)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전체	81.9	2.3	13.7	2.2	71.1	19.8	7.0	2.2	100.0(86)
연령									
1세	100.0	–	–	–	100.0	–	–	–	100.0(1)
2세	71.6	28.4	–	–	57.5	42.5	–	–	100.0(5)
3세	76.7	–	23.3	–	57.6	42.4	–	–	100.0(12)
4세	86.9	–	13.1	–	77.9	6.7	15.4	–	100.0(31)
5세	80.7	1.9	12.8	4.6	71.4	20.4	3.6	4.6	100.0(37)
지역규모									
대도시	78.2	3.6	14.9	3.4	75.4	18.2	3.0	3.4	100.0(58)
중소도시	86.4	–	13.6	–	62.1	26.7	11.1	–	100.0(24)
읍·면	100.0	–	–	–	70.1	–	29.9	–	100.0(4)

구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계(수)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만족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기타	
모취업 여부									
취업	77.1	1.9	16.5	4.5	75.6	15.8	4.1	4.5	100.0(40)
휴직중	100.0	-	-	-	100.0	-	-	-	100.0(13)
미취업	80.5	3.8	15.7	-	53.4	33.0	13.5	-	100.0(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구체적으로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등원 시각은 '8:31~9:00' 57.3%로 현재 등원 시각과 거의 동일한 시각을 응답하였다. 다만, 등원 시각이 '9:01~9:30' 응답이 19.7%, '9:31~10:00' 10.4%로 등원 시각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간 더 느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에서 '8:31~9:00'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세의 경우 '9:01~9:30'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고, '8:31~9:00' 응답은 28.7%, '9:31~10:00' 2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2-10〉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7:30까지	-	-	-	-	-	-
7:31~8:00	-	-	-	1.9	4.6	2.8
8:01~8:30	-	-	8.4	7.8	12.7	9.8
8:31~9:00	100.0	28.7	63.4	51.1	62.9	57.3
9:01~9:30	-	42.9	28.2	21.5	13.6	19.7
9:31~10:00	-	28.4	-	17.7	6.3	10.4
10:01이후	-	-	-	-	-	-
계 (수)	100.0 (1)	100.0 (5)	100.0 (12)	100.0 (31)	100.0 (37)	100.0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8:31~9:00' 응답 비율이 대도시 50.1%, 중소도시 70.5%, 읍·면 70.1%로 가장 높았다. '8:31~9:00' 응답 비율은 취업모 가정, 휴직중인 가정, 미취업모 가정 모두에서도 각각 57.4%, 52.7%, 59.2%로 가장 높았다. 다만, 취업모

가정, 휴직중인 가정, 미취업모 가정 모두에서 '8:31~9:00'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9:01~9:30'로 각각 16.4%, 36.0%, 17.2%였다.

〈표 Ⅷ-2-11〉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등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7:30까지	-	-	-	-	-	-
7:31~8:00	4.3	-	-	5.9	-	-
8:01~8:30	9.2	12.7	-	12.5	-	10.3
8:31~9:00	50.1	70.5	70.1	57.4	52.7	59.2
9:01~9:30	25.5	11.0	-	16.4	36.0	17.2
9:31~10:00	10.9	5.7	29.9	7.8	11.3	13.3
10:01이후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영유아 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하원 시각은 '15:01~16:00' 37.9%로 현재 하원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하원 희망 시각을 '16:01~16:30' 응답이 15.6%, '16:31~17:00' 16.8%로 하원 시각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간 더 늦은 시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세의 경우 '16:01~16:30' 응답이 36.6%로 가장 높은 '15:01~16:00' 응답(38.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Ⅷ-2-12〉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4:00까지	-	-	-	4.9	-	1.7
14:01~15:00	-	14.6	-	15.2	19.3	15.0
15:01~16:00	100.0	57.1	38.3	37.0	36.1	37.9
16:01~16:30	-	28.4	36.6	10.5	12.0	15.6
16:31~17:00	-	-	25.1	10.9	20.5	16.8
17:01~17:30	-	-	-	1.5	-	0.5
17:31~18:00	-	-	-	15.0	12.1	10.8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8:00~19:00	-	-	-	4.9	-	1.7
19:000이후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15:01~16:00' 응답 비율이 대도시 27.8%, 중소도시 57.0%, 읍·면 53.4%로 가장 높았고, 현재 하원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16:01~16:30' 응답이 21.6%로 두 번째로 많았고, '16:31~17:00' 19.7%, '17:31~18:00' 16.9% 순으로 하원 시각에 대해 전체적으로 약간 더 늦은 시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도시는 '15:01~16:00' 응답 다음으로 '14:01~15:00' 응답이 22.1%로 가장 많았고, 읍·면의 경우에는 '15:01~16:00' 응답 다음으로 '14:00까지' 34.3%, '14:01~15:00' 응답이 12.3%로 많았다. 즉, 중소도시와 읍·면은 대도시와 다르게 하원 시간이 전체적으로 약간 더 빠른 시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하원 희망 시각을 '15:01~16:00'로 가장 많이 응답한 취업모 가정(40.1%), 미취업모 가정(37.1%)와 다르게 휴직중인 가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35.1%였고, '16:01~16:30'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표 Ⅷ-2-13〉 지역 및 모 취업여부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하원 시각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14:00까지	-	-	34.3	-	-	5.0
14:01~15:00	9.8	22.1	12.3	14.9	4.5	15.9
15:01~16:00	27.8	57.0	53.4	40.1	35.1	37.1
16:01~16:30	21.6	10.6	-	5.5	43.6	19.3
16:31~17:00	19.7	10.3	-	11.9	12.9	21.0
17:01~17:30	1.0	-	-	1.4	-	-
17:31~18:00	16.9	-	-	21.6	3.9	1.5
18:00~19:00	3.2	-	-	4.6	-	-
19:00 이후	-	-	-	-	-	-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결과적으로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 시간은 '6~7시간'이 39.6%로 가장 많고, '7~8시간' 24.1%, '5~6시간' 20.8%, '8~9시간' 7.2%, '9~10시간' 6.6%, '5시간까지' 1.7% 순으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응답은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시간보다 길어진 시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세의 경우 '6~7시간' 100.0%, 2세의 경우 '6~7시간' 57.1%, '5~6시간' 42.9% 였다.

한편, 3세의 경우 '6~7시간' 66.6%, '7~8시간' 33.4%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 '6~7시간', '7~8시간' 모두 27.1%로 가장 많고, '5~6시간' 25.2%, '9~10시간' 9.8%, '8~9시간' 6.0%, '5시간까지' 4.9% 순으로 나타났다. 5세의 경우, '6~7시간' 이 38.7%로 가장 많고, '7~8시간' 21.9%, '5~6시간' 21.5%, '8~9시간' 10.9%, '9~10시간' 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3,4,5세의 경우 더 긴 시간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Ⅷ-2-14〉 연령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5시간까지	–	–	–	4.9	–	1.7
5~6시간	–	42.9	–	25.2	21.5	20.8
6~7시간	100.0	57.1	66.6	27.1	38.7	39.6
7~8시간	–	–	33.4	27.1	21.9	24.1
8~9시간	–	–	–	6.0	10.9	7.2
9~10시간	–	–	–	9.8	7.0	6.6
10시간 이상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	(5)	(12)	(31)	(37)	(86)
평균	420.0	385.6	440.1	427.4	436.9	431.5
표준편차	–	33.9	28.3	85.6	67.2	70.2
F			1.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로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6~7시간' 응답 비율이 대도시 34.1%, 중소도시 49.9%, 읍·면 47.0%로 가장 높았고, 현재 이용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 '7~8시간' 응답이 30.1%로 두 번째로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중소도시는 '5~6시간'으로 28.7%, 읍·면은 '5시간까지' 29.9%, '5~6시간' 23.1%순이었다.

한편, 희망 이용 시간을 '6~7시간' 으로 응답한 비율은 취업모 가정 32.0%, 휴직중인 가정 73.6%, 미취업모 가정 35.3%로 가장 높았다.

〈표 Ⅷ-2-15〉 지역 및 모 취업여부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희망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5시간까지	-	-	29.9	-	-	4.5
5~6시간	16.9	28.7	23.1	18.2	11.3	28.1
6~7시간	34.1	49.9	47.0	32.0	73.6	35.3
7~8시간	30.1	15.8	-	26.5	11.8	26.2
8~9시간	8.6	5.6	-	9.4	3.4	5.9
9~10시간	10.3	-	-	13.9	-	-
10시간 이상						
계(수)	100.0(58)	100.0(24)	100.0(4)	100.0(40)	100.0(13)	100.0(33)
평균	448.1	411.0	352.3	450.9	419.6	411.7
표준편차	69.3	52.9	77.1	74.1	46.0	66.4
F		0.3			1.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3.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용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이용비용은 119만 8,600원으로 항목별로는 순보육비 90만원, 추가비용 29만 8,600원이었다. 가구소득 대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용 비율은 16.7%에 달했다.

〈표 Ⅷ-3-1〉 기타 반일제 이상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보육·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198.6	900.0	298.6	(86)	16.7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월평균 학원 이용비용 중 총비용은 전체 평균 119만 8,600원, 순보육비는 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9].

〈표 Ⅷ-3-2〉 기타 반일제 기관 연령별 월평균 학원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전체						
총비용	1,664.0	1,292.2	839.2	1,295.4	1,220.1	1,198.6
순보육비	1,100.0	938.6	572.8	1,021.7	901.2	900.0
(수)	(1)	(5)	(12)	(31)	(37)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에 따라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평균 이용비용중 순보육·교육비가 가구소득이 '249만 원 이하'인 경우 12만원, '250~299만원'인 경우 102만 4,000만원, '300~349만원'인 경우 53만 1,100원, '350~399만원'인 경우 117만 3,100원, '400~499만원'인 경우 100만 2,700원, '500~599만원'인 경우 105만 6,500원, '600~699만원'인 경우 125만 900원, '700만 원 이상'인 경우 35만 2,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월평균 순보육·교육비 90만원에 비해 가구소득이 '350~3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월평균 순보육·교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 대비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용 비율은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13.4%로 유일하게 전체 평균인 16.7% 보다 낮고, 다른 가구소득에서는 '250~299만원'인 경우' 39.4%, '300~349만원'인 경우 17.7%, '350~399만원'인 경우' 32.0%, '400~499만원'인 경우 23.9, '500~599만원'인 경우 20.4%, '600~699만원'인 경우 20.3%로 전체 평균인 16.7% 보다 높았다.

9) 이는 연령별로 샘플수가 매우 작아 평균값이 불안정하게 산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Ⅷ-3-3〉 제 특성별 월평균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비용

단위: 천원(명), %

구분	전체 비용 (A)	순교육비 (B)	추가 비용 (B-A)	(수)	가구소득 대비 총비용 비율
전체	1,198.6	900.0	298.6	(86)	16.7
지역규모					
대도시	1,288.2	953.4	334.8	(58)	16.1
중소도시	1,056.9	796.1	260.8	(24)	17.5
읍·면	932.1	845.2	86.9	(4)	19.5
F	1.2	0.6	-		0.3
모취업 여부					
취업	1,226.7	925.0	301.8	(40)	14.8
휴직중	1,354.9	918.9	436.1	(13)	13.8
미취업	1,098.0	860.2	237.8	(33)	20.5
F	1.6	0.4	-		0.9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20.0	120.0	-	(2)	
250~299만원	1,024.0	650.0	374.0	(3)	39.4
300~349만원	531.1	487.3	43.8	(3)	17.7
350~399만원	1,173.1	980.7	192.5	(9)	32.0
400~499만원	1,002.7	739.3	263.4	(14)	23.9
500~599만원	1,056.5	833.5	223.0	(3)	20.4
600~699만원	1,250.9	1,046.4	204.5	(51)	20.3
700만원 이상	1,352.9	991.9	361.0	(1)	13.4
모름/무응답	129.0	129.0	-		
F	1.0	2.1*	-		3.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p < .05$, *** $p < .001$.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의 추가비용은 전체 평균이 항목별로 '교재비' 7만 5,500원, '특별활동비' 6만 2,300원, '방과후과정비' 5만 2,900원, '급간식비' 4만 9,700원, '기타' 2만 9,200원, '현장학습비' 1만 9,100원, '차량 이용비' 9,9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교재비'가 8만 2,900원으로 대도시(7만 3,700원)와 읍·면(5만 6,500원)에 비해 높았던데 반해,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6만 9,900원)과 '방과후과정비'(5만 9,800원), '급·간식비'(5만 4,000원) 등이 높았다. 한편,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에 '특별활동비' 지출이 5만 8,400원으로 취업모인 경우 7만 500원에 비해 적었다. 반대로 취업모의 경우에는 미취업모 가구(1만 900원)에 비해 '차량이용비'(6,600원)에 대한 지출이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도의 추가비용 중 '특별활동비'와 '기타'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큰 폭 상승을 보였다.

〈표 Ⅷ-3-4〉 제 특성별 항목별 월평균 추가 교육비: 평균

단위: 천원(명)

구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차량이용비	방과후과정비	교재비	기타	(수)
전체	62.3	19.1	49.7	9.9	52.9	75.5	29.2	(86)
지역규모								
대도시	69.9	23.8	54.0	8.2	59.8	73.7	45.4	(58)
중소도시	57.8	12.7	49.9	11.3	46.3	82.9	-	(24)
읍·면	-	-	-	21.9	8.5	56.5	-	(4)
F	1.1	0.4	0.8	2.1	0.1	-	0.5	
모취업 여부								
취업	70.5	31.4	45.1	6.6	42.7	85.8	19.8	(40)
휴직중	46.7	14.3	86.5	18.0	121.1	45.6	103.9	(13)
미취업	58.4	5.3	40.4	10.9	37.7	74.8	10.3	(33)
F	0.1	1.2	1.0	0.6	1.4	0.7	2.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부담되는 편' 이라는 응답이 57.2%였으며, '매우 부담됨' 22.4, '적당함' 응답이 19.0%, '전혀 부담되지 않음' 0.9%, '부담되지 않음' 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의 경우, '부담되는 편' 57.2%, '매우 부담됨' 24.4%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 '부담되는 편' 응답이 62.3%, '매우 부담됨' 22.1%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의 경우, '적당함' 응답이 70.1%로 과반 이상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되는 편' 응답이 29.9%였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고,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18년 조사에서는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 기관 이용 시 비용에 대해 '부담되는 편' 응답이 62.3%였던 것에 비해, 2021년도에 '부담되는 편' 이라는 응답이 57.2%, '매우 부담됨' 22.4%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5〉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전체	22.4	57.2	19.0	0.5	0.9	(86)
연령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되는 편	적당함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계(수)
1세	-	100.0	-	-	-	(1)
2세	14.5	70.9	14.6	-	-	(5)
3세	45.0	38.6	16.4	-	-	(12)
4세	17.7	60.1	22.2	-	-	(31)
5세이상	20.2	58.8	18.0	1.1	1.9	(37)
지역규모						
대도시	24.4	57.2	16.2	0.8	1.4	(58)
중소도시	22.1	62.3	15.6	-	-	(24)
읍·면	-	29.9	70.1	-	-	(4)
모취업 여부						
취업	25.9	61.0	11.3	-	1.9	(40)
휴직중	36.0	28.6	35.4	-	-	(13)
미취업	12.2	64.2	22.1	1.4	-	(33)
2018년	8.8	62.3	27.4	1.5	-	(68)
2015년	20.6	53.5	17.4	0.8	7.6	(4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00-501. 〈표 Ⅷ-2-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3.4%, 없다는 응답이 56.6%로, 부담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약간 많긴 하지만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얼마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평균 24만 4,300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들이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76.9%에 달해,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시 비용 증가에 대해 보다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응답자 수가 3명에 불과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취업모 가구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34만 4,3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전체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표 Ⅷ-3-6〉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질적 수준 개선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 의사 및 추가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추가비용 부담 의사			추가 부담 의사가 있는 경우 비용				
	있다	없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43.4	56.6	100.0	244.3	302.9	50.0	1,500.0	100.0(39)
연령								
1세	100.0	-	100.0	200.0	-	200.0	200.0	100.0(1)
2세	42.5	57.5	100.0	150.0	70.7	50.0	200.0	100.0(2)
3세	39.6	60.4	100.0	195.9	177.9	50.0	500.0	100.0(6)
4세	44.7	55.3	100.0	354.4	457.3	50.0	1,500.0	100.0(14)
5세	43.2	56.8	100.0	184.4	122.5	100.0	500.0	100.0(16)
$x^2(df)/F$		1.4(4)				0.2		
지역규모								
대도시	35.9	64.1	100.0	355.6	380.4	50.0	1,500.0	100.0(24)
중소도시	53.1	46.9	100.0	106.2	25.6	50.0	170.0	100.0(12)
읍·면	76.9	23.1	100.0	161.1	48.8	100.0	200.0	100.0(3)
$x^2(df)/F$		1.9(2)				2.7		
모취업 여부								
취업	41.0	59.0	100.0	344.3	410.3	50.0	1,500.0	100.0(17)
휴직중	49.8	50.2	100.0	161.2	123.9	100.0	500.0	100.0(7)
미취업	43.8	56.2	100.0	163.8	120.4	50.0	500.0	100.0(15)
$x^2(df)/F$		0.5(2)				0.9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등하원 방법 및 소요 시간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등원 방법에 대하여 설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 중 75.4%가 '기관 차량'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가용'으로 응답한 비중이 16.4%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와 걸어서'로 응답한 비중은 8.3%에 불과했다.

〈표 Ⅷ-4-1〉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등원방법			계(수)
	기관 차량	자가용	보호자와 걸어서	
전체	75.4	16.4	8.3	100.0(86)
지역규모				
대도시	76.3	13.4	10.2	100.0(58)
중소도시	73.1	21.3	5.6	100.0(24)
읍·면	76.9	23.1	-	100.0(4)
$x^2(df)$		0.5(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은 주로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로 74.3%가 응답하였다. 이 외에 '자가용'으로 응답한 비중이 19.6%, '보호자와 걸어서'로 응답한 비중은 6.1%였다.

〈표 Ⅷ-4-2〉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하원 방법

단위: %(명)

구분	하원방법			계(수)
	기관 차량	자가용	보호자와 걸어서	
전체	74.3	19.6	6.1	100.0(86)
지역규모				
대도시	71.0	22.1	6.9	100.0(58)
중소도시	80.7	13.7	5.6	100.0(24)
읍·면	76.9	23.1	-	100.0(4)
$x^2(df)$		0.8(4)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시간은 '10분 이하'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11분~20분' 응답은 41.5%, '21~30분' 응답은 13.0%, '31분 이상'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Ⅷ-4-3〉 연령별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등원 시 소요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10분이하	-	57.1	40.2	49.1	35.4	41.7
11~20분	-	-	59.8	34.5	45.8	41.5
21~30분	100.0	-	-	11.5	18.8	13.0
31분이상	-	42.9	-	4.9	-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6)	(1)	(5)	(12)	(31)	(37)
평균	30.0	20.7	14.4	15.4	16.1	15.9
(표준편차)	(-)	(16.8)	(4.7)	(10.0)	(8.1)	9.2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5.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만족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 정도는 전체 평균이 3.8점(5점 기준)으로 '교직원'과 '안전관리(위기시)' 모두 4.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 참여 및 교육'은 3.4점, '비용'은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해 '만족' 35.0%, '매우 만족' 28.6%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불만족' 응답은 13.2%, '매우불만족'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비용'의 경우에는 '매우 만족' 14.8%, '만족' 16.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의 만족도를 보였다. '부모 참여 및 교육'의 경우도 '매우 만족' 16.8%, '만족' 28.4%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Ⅷ-5-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만족도 및 5점 척도

단위: %, 점(명)

구분	만족도					5점 평균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교직원	35.6	44.8	10.0	9.6	-	4.1
주변환경	27.9	41.1	13.5	15.6	1.9	3.8
시설환경	31.7	27.7	13.8	18.0	8.8	3.6
실내환경	31.3	35.7	14.2	14.0	4.7	3.7
비용	14.8	16.4	44.2	24.6	-	3.2
건강관리	24.7	33.6	30.1	11.6	-	3.7
급간식관리	25.8	33.9	27.3	12.9	-	3.7
안전관리(평상시)	28.0	42.6	17.0	10.5	1.9	3.8
안전관리(위기시)	39.2	39.5	12.9	8.3	-	4.1
교육내용	32.0	41.3	15.1	9.6	1.9	3.9
생활지도	34.9	35.0	21.7	8.5	-	4.0
부모참여 및 교육	16.8	28.4	35.2	15.5	4.1	3.4
전체	28.6	35.0	21.2	13.2	3.9	3.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별, 지역 규모별, 모 취업 여부별로 나눠서 조사해본 결과, 먼저 연령별로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3세의 경우 만족도가 3.3점(5점 기준)으로 1세 3.6점, 2세 4.4점, 4세 3.8점, 5세 3.8점에 비하

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모별 만족도도 차이가 있었는데, 읍·면의 경우, 만족도가 4.6점으로, 대도시 3.7점, 중소도시 3.7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모 취업 여부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취업모 가구의 경우, 만족도가 3.7점, 휴직중인 가구는 3.4점,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3.9점으로 나타났다.

〈표 Ⅷ-5-2〉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1세	2세	3세	4세	5세	*F*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F*	취업	휴직중	미취업	*F*
교직원	4.0	5.0	3.6	4.1	4.1	1.6	4.0	4.2	4.8	0.9	4.0	3.6	4.3	2.2
주변환경	4.0	4.4	3.4	3.8	3.8	0.5	3.7	3.7	4.6	1.0	4.0	3.2	3.8	0.9
시설환경	4.0	4.1	3.0	3.7	3.5	0.6	3.5	3.4	4.6	2.5	3.6	3.2	3.6	-
실내환경	4.0	3.9	3.1	3.7	3.9	0.5	3.7	3.6	4.4	1.6	3.8	3.5	3.8	-
비용	3.0	3.9	3.0	3.2	3.2	0.4	3.1	3.3	4.4	1.9	3.0	3.3	3.4	3.0
건강관리	3.0	4.4	3.3	3.7	3.8	0.8	3.7	3.6	4.6	2.3	3.7	3.5	3.8	0.5
급간식관리	2.0	3.7	3.1	3.8	3.8	1.5	3.6	3.7	4.6	1.1	3.7	3.5	3.8	0.1
안전관리(평상시)	3.0	4.7	3.4	3.9	3.9	1.0	3.7	3.9	4.6	0.7	3.7	3.5	4.1	1.6
안전관리(위기시)	4.0	4.9	3.5	4.2	4.1	1.2	4.0	4.2	4.8	0.9	4.0	3.6	4.4	1.9
교육내용	4.0	4.9	3.5	3.9	4.0	0.9	3.9	3.9	4.8	1.3	3.8	3.5	4.2	1.9
생활지도	4.0	4.7	3.5	4.1	3.9	0.8	4.0	3.8	4.8	2.2	3.9	3.7	4.2	0.7
부모참여 및 교육	4.0	4.1	2.9	3.5	3.4	1.0	3.4	3.2	4.4	2.2	3.3	3.3	3.5	0.5
전체	3.6	4.4	3.3	3.8	3.8		3.7	3.7	4.6		3.7	3.4	3.9	
(수)	(1)	(5)	(12)	(31)	(37)		(58)	(24)	(4)		(40)	(13)	(33)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6.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 부모서비스 및 특별활동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교육계획'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경우가 62.6%, '월 1회' 32.4%, '매일' 5.0%였다. 반면, '발달평가통지'는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36.2%, '분기 1회'가 32.5%, '연 1~2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14.1%였다. '급간식 식단'은 '월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69.5%로 가장 많았고, '매주 1회'가 21.0%, '매일'이 9.6%,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관이 '급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상담'은 '제공 안함' 응답이 4.3%, 제공 하는 경우 '연 1~2회'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다. '가정통신문'은 '매주 1회' 제공한다는 응답이 54.7%, '부모교육 자료'의 경우 제공되는 시기가 '월 1회' 24.6%로 최다 빈도이긴 했으나, '제공 안함' 응답 비율이 32.8%로 훨씬 많았다. '부모참여프로그램'도 제공 하는 경우 '연 1~2회' 응답이 22.4%로 가장 많았지만 '제공 안함' 응답 비율이 38.6%로 훨씬 많았다. '양방향 알림장'은 '매일' 제공한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다. 즉, '양방향 알림장'의 제공 주기가 가장 짧고, '보육·교육계획', '가정 통신문'은 '매주 1회', '급간식 식단', '발달평가통지'는 '월 1회', 그 외 부모서비스는 분기 1회 이상의 긴 주기로 제공되고 있었다.

〈표 Ⅷ-6-1〉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부모서비스 제공 비율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보육교육계획		발달평가통지	
매일	5.0	매일	3.1
매주 1회	62.6	매주 1회	6.6
월 1회	32.4	월 1회	36.2
분기 1회	-	분기 1회	32.5
연 1~2회	-	연 1~2회	14.1
제공안함	-	제공안함	5.3
모름	-	모름	2.1
급간식 식단		부모상담	
매일	9.6	매일	5.2
매주 1회	21.0	매주 1회	6.6
월 1회	69.5	월 1회	26.0
분기 1회	-	분기 1회	26.3
연 1~2회	-	연 1~2회	28.8
제공안함	-	제공안함	4.3
모름	-	모름	2.8
가정통신문		부모교육자료	
매일	19.6	매일	2.9
매주 1회	54.7	매주 1회	10.6
월 1회	25.0	월 1회	24.6
분기 1회	-	분기 1회	9.7
연 1~2회	0.6	연 1~2회	11.7
제공안함	-	제공안함	32.8
모름	-	모름	7.9
부모참여프로그램		양방향 알림장	
매일	3.4	매일	62.9
매주 1회	3.2	매주 1회	12.0
월 1회	12.7	월 1회	10.3

구분	비율	구분	비율
분기 1회	9.4	분기 1회	1.4
연 1~2회	22.4	연 1~2회	-
제공안함	38.6	제공안함	11.0
모름	10.3	모름	2.4
계 (수)	100.0(86)	계 (수)	100.0(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서 어떤 특별활동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영어' 72.1%, '예능(미술,음악)' 72.0%, '체육관련' 65.0%, '수학/과학 관련' 64.2%,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62.7%, '기타' 17.2%로 나타났다. '영어'와 '예능(미술,음악)' 관련한 특별활동은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Ⅷ-6-2〉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운영여부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72.0	65.0	64.2	62.7	72.1	17.2	100.0
(수)	(86)	(86)	(86)	(86)	(86)	(86)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5개'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고,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없음' 응답도 30.6%로 많았다. 2018년 조사에서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없다는 응답이 62.3%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평균 특별활동 개수는 3.1개였다. 평균 특별활동 개수도 2018년 조사에서는 1.4개 였던 것에 비해 많아졌다.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특별활동은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5개'라는 응답이 44.3%로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다. 중소도시에서는 '없음' 응답이 39.5%, '5개' 응답이 31.3%였다. 읍·면 지역의 경우 '없음' 응답이 100.0%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5세인 경우, 다른 연령들에 비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다. 1세와 2세의 경우, '없음' 응답은 0.0%였다. 1, 2, 3, 4세의 경우 특별활동이 '5개'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각각 100.0%, 42.9%, 49.8%, 36.1%였다.

〈표 Ⅷ-6-3〉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수

단위: %(명), 개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6	8.6	8.2	4.0	10.8	37.9	100.0(86)	3.1(2.7)
연령								
1세	-	-	-	-	-	100.0	100.0(1)	5.0(0)
2세	-	14.2	28.4	14.6	-	42.9	100.0(5)	3.3(1.6)
3세	8.4	28.2	-	-	13.6	49.8	100.0(12)	3.4(2.1)
4세	28.1	1.9	6.7	4.2	23.0	36.1	100.0(31)	3.4(2.7)
5세	42.4	7.1	9.6	3.9	2.2	34.8	100.0(37)	2.6(2.9)
지역규모								
대도시	20.4	9.6	9.7	6.2	9.8	44.3	100.0(58)	3.5(2.6)
중소도시	39.5	7.9	6.3	-	14.9	31.3	100.0(24)	2.7(2.7)
읍·면	100.0	-	-	-	-	-	100.0(4)	-
2018년	62.3	5.5	8.5	5.6	6.7	11.5	100.0(68)	1.4(2.2)
2015년	62.9	19.8	3.7	6.6	2.7	5.0	100.0(41)	1.6(1.9)

주: 2015,2018년 조사에서 특별활동 수는 5개, 6개, 9개로 2021년 조사보다 특별활동 수 응답 항목갯수가 많아 특별활동 수 5개는 5개 이상(5개,6개,9개) 분포를 합친 비율임. 2015,2018년 자료 중 소숫점 반올림처리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0을 넘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05. 〈표 Ⅷ-3-3〉.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영어'가 56.5%로 가장 많고, '예능'이 56.0%, '수학/과학' 49.7%, '언어' 47.4%, '체육' 47.1%, '기타' 8.3% 순이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1세의 경우 모든 특별활동에 참여했다. 2세의 경우, '예능' 응답이 8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체육' 71.6%, '영어' 57.5% 순이었다. 3세의 경우 '영어' 응답이 9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능'과 '수학/과학' 응답이 각각 63.4%로 높았다. 4세의 경우 '예능'(62.7%), '영어'(60.8%)가 가장 많았다. 5세의 경우에도 '예능'(45.5%), '영어'(42.8%)가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모든 특별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Ⅷ-6-4〉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실시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체육	수학/과학	언어	영어	기타
전체	56.0	47.1	49.7	47.4	56.5	8.3
연령						
1세	100.0	100.0	100.0	100.0	100.0	-
2세	85.8	71.6	42.9	42.9	57.5	-
3세	63.4	55.0	63.4	58.2	91.6	13.1
4세	62.7	52.8	56.8	50.2	60.8	10.8
5세	45.5	37.7	40.9	42.3	42.8	6.1
지역규모						
대도시	63.4	60.6	55.6	51.7	66.3	9.1
중소도시	50.6	26.9	46.2	47.0	46.2	8.3
읍·면	-	-	-	-	-	-
(수)	(64)	(60)	(58)	(57)	(62)	(1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의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은 5세아를 기준으로 과목에 따라 '체육관련'이 50.4%로 가장 높고, '영어' 응답 비율이 44.5%, '예능(미술,음악)' 31.6%, '수학/과학관련' 특별활동의 의무 이용 비율이 29.8%,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9.6% 순이었다. '기타' 특별활동의 의무 이용 비율은 100.0%였다.

〈표 Ⅷ-6-5〉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의무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수)
	1세	2세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예능(미술, 음악)	-	66.9	32.0	35.6	31.6	43.2	15.6	(51)
체육관련	-	80.2	36.9	45.7	50.4	50.7	36.9	(45)
수학/과학 관련	-	33.8	32.0	36.4	29.8	38.9	17.1	(4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	33.8	25.9	24.5	29.6	31.6	16.8	(44)
영어	-	50.6	22.1	36.7	44.5	43.2	17.1	(49)
기타	-	-	-	-	100.0	36.6	28.1	(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을 연령별, 지역 규모별로 조사해본 결과, 1세의 경우 모든 특별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아를 기준으로 과목에 따라 ‘수학/과학 관련’ 81.7%,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81.5%, '예능(미술, 음악)' 78.8%, ‘영어’ 71.0%, ‘기타’ 63.7%, ‘체육관련’ 6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Ⅷ-6-6〉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아동의 특별활동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규모		(수)
	1세	2세	3세	4세	5세	대도시	중소도시	
예능(미술, 음악)	100.0	83.0	74.8	57.9	78.8	65.5	84.4	(51)
체육관련	100.0	79.7	71.0	50.0	62.2	58.3	70.6	(45)
수학/과학 관련	100.0	100.0	74.8	56.5	81.7	67.1	82.9	(4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00.0	100.0	81.6	67.4	81.5	74.9	83.2	(44)
영어	100.0	74.6	82.6	56.6	71.0	63.9	82.9	(49)
기타	-	-	100.0	100.0	63.7	82.3	100.0	(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영어’ 특별활동이 평균 19만 7,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기타’ 관련 특별활동이 평균 7만 5,300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만 6,000원, '예능(미술, 음악)'이 평균 5만 5,500원, ‘수학/과학관련’ 5만 400원, ‘체육관련’ 3만 7,100원 순이었다.

〈표 Ⅷ-6-7〉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예능(미술, 음악)	55.5	61.1	-	300.0	(51)
체육관련	37.1	39.9	-	200.0	(45)
수학/과학 관련	50.4	55.4	-	300.0	(46)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6.0	60.9	-	300.0	(44)
영어	197.6	433.7	-	1,500.0	(49)
기타	75.3	71.5	-	200.0	(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이용비용을 연령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1세의 경우, '영어' 관련 특별활동으로 월평균 25만원을 지출했고,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체육관련' 10만원 이었다. 2세의 경우, '체육관련' 활동에만 3만 4,1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6만 원대의 지출을 했다. 3세의 경우, '영어' 관련 활동에 48만 7,100원 이라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영역('기타' 제외)에는 3만 원 대의 지출이 있었다. 4세의 경우, '기타' 관련 항목에 10만 2,100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에 각각 6만 4,200원, 6만 7,400원을 지출했다. 5세의 경우, '영어'에 17만 3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수학/과학 관련' 7만 2천원, '예능(미술, 음악)' 6만 6천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만 4,300원, '기타' 5만 200원, '체육관련' 4만 3천원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영어'에 24만 2,2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있었던 대도시와 다르게, 중소도시에서는 '영어'에 큰 지출이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소도시에서는 '기타' 8만 2,500원, '예능(미술, 음악)' 6만 4,500원으로, 두 항목에 지출이 더 많았다. 중소도시에서 '영어' 지출은 6만 900원이었다.

〈표 Ⅷ-6-8〉 연령 및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전체	55.5	37.1	50.4	56.0	197.6	75.3
연령						
1세	50.0	100.0	50.0	50.0	250.0	-
2세	66.1	34.1	69.5	69.5	61.7	-
3세	35.8	35.8	35.8	39.0	487.1	60.0
4세	51.1	31.5	33.5	64.2	67.4	102.1
5세	66.0	43.0	72.0	54.3	170.3	50.2
F	0.7	0.8	2.1	0.3	0.9	-
지역규모						
대도시	52.2	35.8	46.5	53.3	242.2	72.3
중소도시	64.5	43.5	60.2	62.2	60.9	82.5
F	1.6	0.2	1.2	0.8	0.6	0.7
(수)	(51)	(45)	(46)	(44)	(49)	(8)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고, ‘무료’라는 응답이 25.6%, ‘10~15만원’ 11.1%, ‘3~5만원’ 5.1%, ‘15~20만원’ 4.7%, ‘5~10만원’ 2.3% 순이었고, 평균 31만 4,300원이었다. 2015년도의 월평균 총비용은 12만 7,800원, 2018년 월평균 총비용은 16만 3,300원으로, 2021년도에는 15만 천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6-9〉 제 특성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무료	3만원 이하	3~5만원	5~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6	–	5.1	2.3	11.1	4.7	51.2	100.0(61)	314.3	421.8
연령										
1세	–	–	–	–	–	–	100.0	100.0(1)	500.0	–
2세	14.6	–	28.4	14.2	–	–	42.9	100.0(5)	176.2	167.4
3세	17.4	–	4.7	–	9.1	–	68.7	100.0(11)	591.6	617.2
4세	36.7	–	6.2	–	14.6	2.3	40.2	100.0(22)	211.2	322.0
5세	21.5	–	–	3.2	11.0	10.0	54.2	100.0(22)	303.0	362.6
지역규모										
대도시	30.0	–	6.9	1.7	5.9	3.1	52.4	100.0(47)	345.9	473.3
중소도시	13.1	–	–	3.8	26.0	9.2	47.9	100.0(14)	225.7	194.8
2018년	31.6	–	–	20.9	6.4	6.2	34.8	100.0(27)	163.3	209.1
2015년	–	–	–	50.6	13.5	19.6	16.3	100.0(15)	127.8	105.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08. 〈표 Ⅷ-3-8〉.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만족도는 5점을 척도로 했을 때, ‘기타’ 영역이 4.4점으로 가장 높고, ‘예능(미술, 음악 등)’, ‘체육관련’, ‘영어’ 영역에서 모두 4.1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역에서 4.0점, ‘수학/과학’ 3.9점 순이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영어’가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등)’이 34.1%, ‘체육관련’ 13.3%,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0.2%, ‘수학/과학’ 6.1% 순이었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예능(미술, 음악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과 및 학습위주의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Ⅷ-6-10〉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특별활동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

구분	전체	(수)	어머니 중요 고려 비율
예능(미술, 음악 등)	4.1	(51)	34.1
체육 관련	4.1	(45)	13.3
수학/ 과학	3.9	(46)	6.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0	(44)	10.2
영어	4.1	(49)	36.2
기타	4.4	(8)	-
계	(61)	(61)	(61)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지역규모별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인력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내용 다양화' 17.3%, '비용 절감' 16.7%, '안전관리강화' 12.1%, '내부환경 개선' 9.8%, '노후시설 정비' 8.7%, '인력 증원' 8.2%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력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가 30.5%, 중소도시에서는 '비용 절감'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59.8%로 현저히 높았다.

〈표 Ⅷ-6-11〉 지역별 기타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개선 요구 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지역규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인력증원	8.6	8.9	-	8.2
인력의 질 제고	30.5	20.8	23.1	27.1
노후시설 정비	8.6	10.5	-	8.7
내부환경개선	9.1	10.0	17.0	9.8
비용 절감	15.7	21.9	-	16.7
안전관리강화	9.5	19.8	-	12.1
교육내용다양화	17.9	8.1	59.8	17.3
계	100.0	100.0	100.0	100.0
(수)	(58)	(24)	(4)	(86)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7.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이용 이유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7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일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프로그램' 71.6%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은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다 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이러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연관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비록 전체 영유아 대비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중은 높지 않으나, 기존 보육·교육기관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활동의 도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평균 이용 시간은 평균 6시간 33분이며, 월평균 이용비용은 119만 8,600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6.7%에 달해 이용비용이 매우 비싼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부담되는 편' 57.2%, '매우 부담됨' 22.4%로 79.6%가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 개선에 추가 비용 부담의사가 43.4%로 평균 24만 4,300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현재 영유아의 부모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더 큼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가진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으며, 이러한 기대는 학령기 이전 영유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에 현재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개선이 선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앞서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의 평균 특별활동 개수는 3.1개로 실제 영유아들이 영어, 예능(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된 특별활동에 복수로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특별활동 월평균 총비용은 31만 4,300원으로 특히 영어 (평균 19만 7,600원)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의 요구 사항은 '인력의 질제고' 27.1%, '교육내용 다양화' 17.3%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비용 절감' 16.7%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어왔다.

요약하면, 일부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며 기관 선택 시에 프로그램을 가장 중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 보육·교육의 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또한 필요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타 반일제 이상 보육·교육기관 등하원 방법은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등원 75.4%, 하원 7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하' 41.7%, '11분~20분' 41.5%로 대부분 20분 이하로 소요된다. 영유아가 기관차량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만큼 다소 거리가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영유아의 안전과 일상생활 피로도 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등·하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관과 부모, 영유아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도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IX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0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0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0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04 시사점

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장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기관이 아닌 조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아동의 집이 주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장소가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크게 혈연과 비혈연 인력으로 구분된다. 제 1절에서는 서비스 이용 특성을, 2절에서는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3절에서는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특성

본 절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하는 아동과 가구의 특성, 서비스의 이용 형태, 서비스 제공 현황, 서비스 이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이용 아동 특성

2021년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11.5%인 것으로 나타나 2018년보다는 4.8%p 낮아졌고 2015년 보다는 0.6%p 높아져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지속적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아와 유아별로는 개인양육지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동일한 수준이나, 영아의 경우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유아는 기관과 병행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개인양육지원만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2.9%였고 어린이집 등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표 Ⅸ-1-1〉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단위: 명(%)

구분	2021년			2018년	2015년	2012년
	영아	유아	전체			
전체 보육대상 아동(a)	1,374	2,097	3,471	3,775	3,560	3,343
개인양육지원 이용 아동(b=c+d)	156	242	398	614	387	1,243
비율(b/a)	(11.4)	(11.5)	(11.5)	(16.3)	(10.9)	(37.2)
개인양육지원 단독 이용 아동(c)	96	6	102	176	86	379
비율(c/a)	(7.0)	(0.3)	(2.9)	(4.7)	(2.4)	(11.3)
개인양육지원과 기관 병행이용 아동(d)	60	236	296	438	301	864
비율(d/a)	(4.4)	(11.3)	(8.5)	(11.6)	(8.5)	(25.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만 단독으로 받는 아동은 전체의 20.7%로 혈연 18.8%, 비혈연 1.9%로 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비중이 더 높았다.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자는 비동거 조부모(84.9%)로 동거 조부모(11.9%)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자는 민간 육아도우미(76.8%)로 공공 아이돌보미(23.2%)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로 구분하면 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영아 중 38.9%가 이용하여 유아(0.9%)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0~2세에서 각각 76.5%, 20.9%, 10.1%의 이용률을 보여 아동의 연령이 1~2세가 될 때 혈연을 통한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을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혈연+기관 67.0%, 비혈연+기관 6.7%, 혈연+비혈연+기관 4.3%)은 이용자 중 79.3%를 차지하였으며 단독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행 이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0세아 에서는 기관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하였으나 5세에는 100.0%가 병행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단독 이용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영아 30.9%, 유아 31.4% 비율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영아의 경우 단독 이용률이 증가한 반면, 유아의 단독 이용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표 Ⅸ-1-2〉 영유아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개인양육 단독이용	**42.9**	**0.9**	**85.5**	**22.6**	**10.1**	**-**	**2.4**	**-**	**20.7**
혈연	38.9	0.9	76.5	20.9	10.1	-	2.4	-	18.8
동거 조부모	10.4	27.8	2.9	14.2	18.6	-	-	100.0	11.9
비동거 조부모	86.2	72.2	97.1	80.5	74.1	100.0	-	-	84.9
동거 친인척	3.5	-	-	5.3	7.3	-	-	-	3.2
비혈연	4.0	-	9.0	1.7	-	-	-	-	1.9
공공 아이돌보미	23.2	-	-	100.0	-	-	-	-	23.2
민간 육아도우미	76.8	-	100.0	-	100.0	-	-	-	76.8
기관 병행이용 포함	**57.1**	**99.1**	**14.6**	**77.4**	**89.9**	**100.0**	**97.6**	**100.0**	**79.3**
혈연+비혈연	2.7	-	2.7	5.1	-	-	-	-	1.2
혈연+기관	45.2	86.5	11.0	61.5	71.5	94.1	78.9	88.1	67.0
비혈연+기관	4.3	8.9	0.9	8.0	4.6	3.9	11.1	10.6	6.7
혈연+비혈연+기관	5.0	3.8	-	2.8	13.8	2.0	7.5	1.3	4.3
(수)	(190)	(208)	(90)	(54)	(46)	(56)	(75)	(77)	(398)
2018년 혈연	30.9	31.4	32.9	36.1	25.1	27.4	33.0	32.6	31.2
비혈연	1.3	0.4	-	2.8	1.1	1.2	0.5	-	0.8
중복이용 포함	43.5	92.2	5.6	41.6	74.8	92.3	91.1	92.7	71.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20. 〈표 Ⅸ-1-3〉.

나. 개인양육서비스 제공 특성

1) 서비스 제공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아동을 제공자별로 구분하면 혈연(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이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특히 비동거 조부모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가 65.3%였으며 영아 67.9%, 유아 63.8%에서 모두 높은 비율이었다. 동거 조부모의 경우도 영아 16.8%, 유아 21.7%의 비율로 친인척이나 비혈연보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는 영유아의 조부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조부모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동거 조부모(19.9%), 비동거 조부모(65.3%)로 2018년의 동거 조부모(22.8%), 비동거 조부모(61.8%)에서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

〈표 Ⅸ-1-3〉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조부모	비동거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수)
전체	19.9	65.3	2.6	3.6	5.1	6.4	2.7	(398)
영유아구분								
영아	16.8	67.9	2.9	2.8	3.2	9.3	1.7	(156)
유아	21.7	63.8	2.5	4.0	6.2	4.8	3.2	(242)
연령								
0세	2.6	81.8	–	–	0.8	14.8	2.3	(47)
1세	18.9	72.9	1.0	3.3	4.9	1.1	3.1	(60)
2세	23.2	55.0	6.6	4.0	3.0	13.6	–	(49)
3세	17.8	68.1	4.0	7.3	9.9	–	5.3	(48)
4세	29.0	62.0	–	1.4	4.4	7.7	3.3	(65)
5세	19.6	62.7	3.0	3.7	5.4	5.6	2.2	(129)
지역규모								
대도시	18.3	65.5	0.9	4.4	7.3	10.5	1.3	(187)
중소도시	20.6	63.7	4.0	4.0	3.1	3.9	1.2	(158)
읍·면	22.3	69.7	3.5	–	5.3	2.6	10.8	(53)
모취업 여부								
취업	18.6	65.4	2.8	4.0	5.9	6.8	3.1	(294)
휴직중	18.8	64.6	4.0	–	3.7	12.8	–	(34)
미취업	24.5	67.5	1.2	4.4	2.4	–	2.7	(62)
모부재 등	50.8	49.2	–	–	–	–	–	(8)
2018년	22.8	61.8	0.6	3.2	3.9	9.0	1.6	(60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21-522. 〈표 Ⅸ-1-4〉.

2)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아동을 포함해 한 번에 돌보는 자녀수는 전체 평균 1.8명으로 응답되었다. 2018년 1.8명과 동일한 수치이다. 2명을 돌보는 비율이 47.8%로 가장 컸고, 2명을 돌 볼 경우에는 영아가 39.1%, 유아가 52.8%로 유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2명을 돌보는 비율이 각각 51.7%, 49.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1명 돌봄(43.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모가 휴직중인 경우 돌보는 자녀수가 1명(41.9%)로 2명(32.3%)보다 높았다.

〈표 Ⅸ-1-4〉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 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계(수)	평균
전체	39.4	47.8	10.5	1.7	0.5	100.0(398)	1.8
영유아구분							
영아	49.1	39.1	9.3	1.7	0.7	100.0(156)	1.7
유아	34.0	52.8	11.2	1.6	0.4	100.0(242)	1.8
지역규모							
대도시	39.7	51.7	5.9	1.4	1.3	100.0(187)	1.7
중소도시	37.7	49.5	10.4	2.4	-	100.0(158)	1.8
읍·면	43.9	32.2	23.9	-	-	100.0(53)	1.8
모 취업여부							
취업	40.1	50.7	7.9	1.2	0.1	100.0(294)	1.7
휴직중	41.9	32.3	22.8	3.1	-	100.0(34)	1.9
미취업	31.9	42.5	18.5	3.8	3.2	100.0(62)	2.0
모부재 등	49.4	50.6	-	-	-	100.0(8)	1.5
2018년	36.4	49.5	12.2	1.3	0.6 (6명)	100.0(607)	1.8
2015년	-	-	-	-	-	-	1.6
2012년	-	-	-	-	-	-	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2018년 조사에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돌보는 자녀수가 5명인 대상자는 없었으나, 6명인 경우 0.6% 비율로 나타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22-523. 〈표 Ⅸ-1-5〉.

다. 이용 이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66.7%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기관)대기자 많음(9.8%), (기관은)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봐 불안하기 때문(7.8%), 비용 부담(1.9%),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1.7%),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1.4%) 등 순으로 응답되었다. 가장 주된 이유는 2018년 결과와 동일하며, 대기가 많아서 응답은 2018년 2.9%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여 서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워서가 각각 69.0%, 69.1%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읍·면 지역에서는 동일한 이유가 5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읍·면 지역은 한 사람이 돌봐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8%, 대기가 많음은 15.8%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의 분포가 도시지역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Ⅸ-1-5〉 기관 이용 대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 적응어려움	비용 부담	등하원 데려다주기 어려움	여러명을 한 사람이 돌봐 불안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맘에안듦	기타	계(수)
전체	66.7	1.9	1.7	7.8	9.8	1.4	0.6	10.0	(102)
영유아구분									
영아	70.7	2.0	1.9	.5	9.1	1.5	0.7	7.7	(96)
유아	19.0	–	–	24.5	19.0	–	–	37.6	(6)
연령									
0세	76.3	3.7	–	7.9	6.1	3.7	–	2.2	(42)
1세	70.2	1.2	–	5.3	8.4	–	1.5	13.4	(41)
2세	56.5	–	13.0	6.1	19.5	–	–	4.9	(13)
3세	26.3	–	–	33.9	26.3	–	–	13.5	(4)
4세	–	–	–	–	–	–	–	–	–
5세	–	–	–	–	–	–	–	100.0	(2)
지역규모									
대도시	69.0	1.1	3.8	5.4	9.4	–	1.4	10.1	(53)
중소도시	69.1	4.0	–	4.1	7.0	–	–	15.7	(32)
읍·면	57.5	–	–	19.8	15.8	6.9	–	–	(17)
모취업여부									
취업	60.4	–	3.3	4.5	11.4	2.6	–	17.7	(55)
휴직중	77.1	–	–	5.8	14.8	–	2.4	–	(23)
미취업	69.3	8.7	–	18.3	–	–	–	3.8	(24)
부재 등	–	–	–	–	–	–	–	–	–
2018년	70.7	3.6	1.7	7.3	2.9	2.7	0.9	5.2	(182)

구분	너무 어려 적응어려움	비용 부담	등하원 데려다주기 어려움	여러명을 한 사람이 돌봐 불안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기관 없음	기관 프로그램 맘에안듦	기타	계(수)
2015년	72.4	1.4	2.6	6.8	-	10.2	-	2.9	(121)
2012년	68.5	2.0	0.5	4.1	-	5.9	-	1.2	(391)
2009년	30.6	14.7	0.7	2.9	-	13.2	-	24.2	(81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24. 〈표 Ⅸ-1-6〉.

2.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혈연이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자, 기관과의 병행 이용, 이용 빈도, 비용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자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8년 48.2%와 유사한 결과이다. 비동거 외조부부모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중은 비동거 친조부모 21.6%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며 동거친조부모와 동거외조부모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2018년 조사의 경우 동거 친조부모와 동거 외조부모 비율은 12~13%선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2021년의 경우 동거친조부모의 비율이 5.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동거외조부모의 비율은 16.4%로 증가하였다.

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중 영아일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에서 56.0%의 이용률을 보여 유아 46.3%보다 더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비동거 친조부모의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23.1%로 영아 1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모취업 여부별 구분을 불문하고 비동거 외조부모 지원 비율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에서도 모취업중인 경우(53.1%), 읍·면 지역인 경우(53.8%)

혈연 양육지원자는 비동거 외조부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2-1〉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2(df)$
전체	5.4	16.4	21.6	49.8	2.9	3.9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3.8	14.7	19.0	56.0	3.3	3.1	100.0(140)	3.5(5)
유아	6.2	17.3	23.1	46.3	2.7	4.3	100.0(221)	
지역규모								
대도시	5.9	14.6	25.0	48.6	1.0	4.9	100.0(167)	
중소도시	5.1	17.2	19.6	49.5	4.3	4.3	100.0(143)	5.4(10)
읍·면	4.9	18.5	19.1	53.8	3.7	–	100.0(51)	
모 취업여부								
취업	5.1	15.4	19.0	53.1	3.1	4.4	100.0(266)	21.7(15)*
휴직중	–	21.5	28.7	45.2	4.5	–	100.0(27)	
미취업	7.2	17.9	29.0	40.1	1.2	4.5	100.0(60)	
모부재 등	32.5	18.3	41.8	7.4	–	–	100.0(8)	
2018년	13.5	12.3	21.7	48.2	0.7	3.6	100.0(545)	
2015년	25.8	25.2	20.4	24.3	0.3	4.1	100.0(373)	
2012년	21.3	12.7	22.4	35.2	0.9	7.5	100.0(1,133)	
2009년	31.2	13.5	19.4	25.8	2.4	7.6	100.0(1,44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25-526. 〈표 Ⅸ-2-1〉.
* $p < .05$.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비동거 친조부모가 19.0%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가 78.0%로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거주 취업모 가구의 경우는 동거친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6.9%, 동거외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19.8%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유형별로는 비동거 외조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비혈연과 병행하여 지원 받는 경우가 80.2%를 차지하며 높을 비율을 보여주었고, 비동거 친조부모 혈연 단독의

경우 18.9%, 비동거 친조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 20.1%로 다른 조합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혈연 양육자 구분은 이용유형의 조합에 따라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Ⅸ-2-2〉 취업모의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 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 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계(수)	$x^2(df)$
전체	5.1	15.4	19.0	53.1	3.1	4.4	(266)	
영유아구분								
영아	4.8	13.0	14.9	60.5	3.3	3.4	(83)	3.7(5)
유아	5.2	16.4	20.7	50.0	2.9	4.8	(183)	
연령								
0세	-	-	22.0	78.0	-	-	(18)	
1세	6.6	12.7	18.8	56.4	1.6	3.9	(33)	
2세	4.8	17.7	9.0	58.3	6.0	4.1	(32)	18.4(25)
3세	-	13.6	22.4	51.7	4.9	7.3	(37)	
4세	9.3	22.7	18.0	48.2	-	1.8	(51)	
5세	5.8	14.5	21.2	50.2	3.4	5.0	(95)	
지역규모								
대도시	4.1	14.3	24.7	50.9	0.8	5.3	(124)	
중소도시	5.4	15.0	15.6	53.4	5.6	4.9	(107)	7.8(10)
읍·면	6.9	19.8	13.5	58.4	1.3	-	(35)	
모취업 여부								
취업	5.1	11.6	18.9	59.7	-	4.6	(47)	28.2(15)**
휴직중	-	-	-	80.2	19.8	-	(3)	
미취업	5.5	14.6	20.1	52.4	3.6	3.7	(204)	
모부재 등	-	38.0	6.8	42.7	-	12.6	(12)	
2018년	10.4	12.6	20.5	52.1	0.4	4.0	100.0(426)	
2015년	22.1	24.6	24.0	24.5	0.2	4.6	100.0(272)	
2012년	18.9	15.0	22.8	37.1	0.3	5.8	100.0(635)	
2009년	20.9	16.0	22.7	31.5	2.2	6.7	100.0(55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26-527. 〈표 Ⅸ-2-2〉.
** $p < .01$.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의 병행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혈연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0.5%로 혈연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73.3%)보다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아의 경우는 혈연이 단독인 경우가 52.2%로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42.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아의 경우는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가 90.5%로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관과 병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7.3% 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 기관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모가 취업중인 경우 기관과 혈연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78.6%로 휴직중(44.6%) 혹은 미취업(60.0)인 경우보다 비율이 높았다.

2018년 결과는 68.3%가 기관과 혈연을 병행한다고 응답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혈연단독에서 2018년 26.5%에서 2021년 20.5%로 감소한 차이와 유사하다. 일부 소득구간을 제외하고, 가구소득 구간과 별개로 혈연과 기관을 중복이용하는 가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Ⅸ-2-3〉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혈연+비혈연	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전체	20.5	1.4	73.3	4.7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52.2	3.8	42.7	1.3	100.0(140)
유아	2.8	-	90.5	6.7	100.0(221)
연령					
0세	92.0	2.7	5.3	-	100.0(40)
1세	65.9	2.2	28.7	3.2	100.0(56)
2세	15.5	6.1	78.4	-	100.0(44)
3세	8.0	-	79.3	12.7	100.0(46)
4세	-	-	91.5	8.5	100.0(60)
5세	1.7	-	95.9	2.4	100.0(115)
지역규모					

구분	혈연	혈연+비혈연	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대도시	23.8	1.6	67.1	7.6	100.0(167)
중소도시	15.4	0.4	84.2	-	100.0(143)
읍·면	27.3	3.7	57.7	11.3	100.0(51)
모취업 여부					
취업	14.3	1.0	78.6	6.1	100.0(266)
휴직중	50.9	4.5	44.6	-	100.0(27)
미취업	37.2	1.6	60.0	1.2	100.0(60)
모부재 등	-	-	100.0	-	100.0(8)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8.1	9.4	72.2	5.9	100.0(21)
250~299만원	61.4	-	38.6	-	100.0(6)
300~349만원	25.6	-	74.4	-	100.0(23)
350~399만원	20.1	-	77.0	2.9	100.0(18)
400~499만원	22.4	0.9	76.6	-	100.0(52)
500~599만원	15.2	-	73.9	11.0	100.0(63)
600~699만원	20.9	-	74.7	4.5	100.0(54)
700만원 이상	19.7	2.3	72.2	5.9	100.0(121)
모름/무응답	33.3	-	66.7	-	100.0(3)
(수)	(87)	(5)	(256)	(13)	(361)
2018년	26.5	3.5	68.3	1.7	100.0(545)
2015년	23.8	-	72.8	3.4	100.0(373)
2012년	30.3	0.2	68.7	0.8	100.0(1,1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28. 〈표 Ⅸ-2-3〉.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혈연양육지원서비스의 주된 이용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하원 후 퇴근 전 2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불규칙한 경우, 즉 필요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26.2%, 출근 후 등원전과 하원 후 퇴근 전 23.2%, 하루 종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불규칙한 비율이 가장 컸으나(35.3%), 하루 종일 이용한다는 응답도 2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아의 경우 '하원 후부터 퇴근 전'까지가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불규칙(필요시)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모취업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취업모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에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32.2%), 불규칙하게 필요시 이용한다는 경우는 휴직중(63.1%)이나 미취업(62.5%) 상태인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모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 빈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 가정의 경우 영유아의 기관 이용 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 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미취업모 가정이나 휴직중인 경우 정기적인 대리 돌봄의 필요보다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 시간의 돌봄,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혈연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Ⅸ-2-4〉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하루종일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필요시)	기타	계(수)	$x^2(df)$
전체	14.6	3.1	27.9	23.2	26.2	5.0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21.0	4.2	13.9	19.0	35.3	6.6	100.0(140)	36.0(5)***
유아	11.0	2.6	35.8	25.5	21.1	4.1	100.0(221)	
지역규모								
대도시	19.3	5.9	30.1	19.5	19.4	5.7	100.0(167)	
중소도시	12.8	1.0	26.8	27.4	25.9	6.1	100.0(143)	19.0(10)*
읍·면	7.7	2.1	25.6	20.1	44.5	-	100.0(51)	
모취업 여부								
취업	14.5	4.2	32.2	28.1	15.8	5.2	100.0(266)	
휴직중	16.9	-	7.1	7.2	63.1	5.8	100.0(27)	86.4(15)***
미취업	6.3	-	20.5	6.2	62.5	4.4	100.0(60)	
모부재 등	63.7	-	13.2	23.1	-	-	100.0(8)	
2018년	17.7	1.5	27.2	23.5	28.9	1.3	100.0(54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29-530. 〈표 Ⅸ-2-4〉.
* $p < .05$, *** $p < .001$.

4)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8%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결과 76.4%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유아 76.9%, 영아 70.9%로 유아에서 더 높은 비중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앞의 〈표 Ⅸ-2-3〉에서 유아의 경우 혈연과 기관의 조합이 90.5% 비중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의 오전 등원과 오후 하원 등의 시간제 돌봄 이용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77.9%가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하여 휴직중이거나 미취업모보다 아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중이 다소 컸으며 평균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가 양육공백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표 Ⅸ-2-5〉 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아이 집	돌보는 사람 집	계(수)	$x^2(df)$
전체	74.8	25.2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70.9	29.1	100.0(140)	1.2(1)*
유아	76.9	23.1	100.0(221)	
지역규모				
대도시	79.8	20.2	100.0(167)	
중소도시	70.0	30.0	100.0(143)	5.0(2)**
읍·면	75.8	24.2	100.0(51)	
모취업 여부				
취업	77.9	22.1	100.0(266)	5.7(3)*
휴직중	53.1	46.9	100.0(27)	
미취업	75.7	24.3	100.0(60)	
모부재 등	50.2	49.8	100.0(8)	
2018년	76.4	23.6	100.0(545)	
2015년	83.0	17.0	100.0(373)	
2012년	71.1	28.9	100.0(1,13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0. 〈표 Ⅸ-2-5〉.
* $p < .05$, ** $p < .01$.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를 데려오는 주기는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본다는 비율이 78.7%로 가장 컸으며 가끔 데려온다는 비중도 13.5%였다. 가끔 만나는 경우는 빈도 평균이 5.2일 이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가끔 가서 본다는 비중이 14.5%로 가장 높았다. 중소도시의 가끔 만날 경우 빈도는 5.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가끔 만나는 경우 4.1일에 한번 자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주기는 상대적으로 더욱 짧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취업의 경우 가끔 데려온다는 경우도 18.3%로 휴직중(4.8%)와 큰 차이를 보였고 가끔 만나는 주기는 취업모 5.0일, 휴직중 8.3일로 미취업모(3.4일)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표 Ⅸ-2-6〉 (돌보는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경우) 자녀 데려오는 주기

단위: %(명), 일

구분	만나는 빈도				가끔 만날 경우 만나는 빈도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가끔 데려옴	가끔 가서 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78.7	13.5	7.8	100.0(95)	5.2	5.8	(23)	
영유아구분								
영아	74.2	15.6	10.2	100.0(38)	5.4	3.8	(12)	1.4
유아	81.9	12.1	6.0	100.0(57)	5.0	7.3	(11)	
지역규모								
대도시	81.6	13.9	4.5	100.0(35)	4.1	4.1	(7)	
중소도시	73.7	14.5	11.8	100.0(46)	5.9	6.6	(14)	0.2
읍·면	90.6	9.4	-	100.0(14)	3.0	-	(2)	
모취업 여부								
취업	83.2	14.2	2.5	100.0(66)	5.0	7.2	(13)	0.5
휴직중	73.8	4.8	21.4	100.0(12)	8.3	4.1	(4)	
미취업	63.4	18.3	18.3	100.0(14)	3.4	1.6	(5)	
모부재 등	73.5	26.5	-	100.0(3)	2.0	-	(1)	
2018년	73.6	22.0	4.4	100.0(117)	4.8	6.4	(31)	
2015년	78.1	12.4	9.5	100.0(80)	8.4	6.0	(25)	
2012년	89.2	7.1	3.7	100.0(339)	11.1	17.5	(44)	
2009년	76.0	19.0	5.0	100.0(400)	8.5	7.5	(9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1. 〈표 Ⅸ-2-6〉.

나. 이용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비중은 39.6%로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인 46.4%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거 친조부모에게 지불을 안한다는 비율이 69.8%로 가장 컸으며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경우는 동거 친인척의 경우 51.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의 경우 지불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8.9%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불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46.4%로 높았는데, 혈연개인양육지원 제공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의 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보상 이외 대부분 조부모인 노인들의 돌봄에 일정한 시간과 노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대체한 만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Ⅸ-2-7〉 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현금 지불	부정기적 현금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39.6	10.1	3.9	46.4	100.0(361)	
동거 친조부모	25.7	4.5	-	69.8	100.0(22)	21.0(15)*
동거 외조주모	36.9	7.9	1.4	53.8	100.0(55)	
비동거 친조부모	43.1	5.8	3.8	47.3	100.0(89)	
비동거 외조부모	41.3	9.4	5.1	44.2	100.0(175)	
동거 친인척	51.3	38.2	5.0	5.5	100.0(7)	
비동거 친인척	21.0	39.4	4.0	35.6	100.0(13)	
2018년	38.5	9.5	3.1	48.9	100.0(545)	
2015년	30.7	5.8	2.2	61.4	100.0(373)	
2012년	24.2	8.9	3.7	63.2	100.0(1,133)	
2009년	90.1	4.2	1.4	4.2	100.0(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2. 〈표 Ⅸ-2-7〉.
* $p < .05$.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의 경우 지불을 하지 않는 비율이 50.8%로 유아보다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다. 대도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중이 45.4%로 가장 높았다. 모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의 경우 71.1%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으나 취업중인 경우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56.3%(정기적 지불 45.2% + 부정기적 지불 11.1%)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중이 컸고 가구소득이 250-299만원의 경우 75.9%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기적 지불은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에서는 59.7%, 7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58.9%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정기적 지불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2-8〉 혈연 양육지원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전체	39.6	10.1	3.9	46.4	100.0(361)	
영유아구분						
영아	34.4	10.1	4.8	50.8	100.0(140)	2.6(3)
유아	42.5	10.1	3.4	43.9	100.0(221)	
지역규모						
대도시	45.4	7.3	3.8	43.6	100.0(167)	
중소도시	42.2	14.9	5.0	37.9	100.0(143)	18.1(6)**
읍·면	17.1	3.3	0.9	78.6	100.0(51)	
모 취업여부						
취업	45.2	11.1	3.1	40.5	100.0(266)	
휴직중	26.1	11.4	4.2	58.3	100.0(27)	32.7(9)***
미취업	15.6	4.9	8.4	71.1	100.0(60)	
부재 등	54.3	-	-	45.7	100.0(8)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0.5	0.4	0.2	3.5	100.0(21)	
250~299만원	24.1	-	-	75.9	100.0(6)	
300~349만원	20.3	4.7	-	75.1	100.0(23)	
350~399만원	24.8	18.0	21.3	35.9	100.0(18)	65.0(24)***
400~499만원	15.0	19.1	4.5	61.3	100.0(52)	
500~599만원	27.2	3.8	0.9	68.1	100.0(63)	
600~699만원	59.7	8.9	1.8	29.7	100.0(54)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 지불	지불 안 함	계(수)	$x^2(df)$
700만원 이상	58.9	10.4	4.3	26.5	100.0(121)	
모름/무응답	66.7	-	-	33.3	100.0(3)	
2018년	38.5	9.5	3.1	48.9	100.0(545)	
2015년	30.7	5.8	2.2	61.4	100.0(373)	
2012년	24.2	8.9	3.7	63.2	100.0(1,133)	
2009년	25.5	4.5	2.0	68.0	100.0(1,44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3. 〈표 Ⅸ-2-8〉.
** $p < .01$, *** $p < .001$.

2) 비용 수준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불한다고 응답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72.7만원을 지불하였고 2018년도에 70.3만원, 2015년도에 62.2만원, 2012년 28.8만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꾸준히 상승하였다(이정원 외, 2018: 534). 비동거 외조부모(37.8%), 비동거 친조부모(34.7%), 동거 외조부모(33.7%)에게는 100만 원 이상 지불의 비중이 가장 컸고, 동거 친조부모(47.0%), 동거 외조부모(32.8%)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59만 원 이하 지불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단편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동거 친인척의 경우 100만 원 이상에서 59.6%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들 혈연 양육지원자가 제공하는 돌봄 형태나 시간,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표 Ⅸ-2-9〉 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비용 시 금액

단위: %(명), 천원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2018년 조사
10만원 미만	-	-	-	-	-	-	-	-
10~19만원 이하	14.9	7.9	12.1	11.2	45.7	34.2	13.9	5.8
20~29만원 이하	-	3.9	3.4	6.3	-	-	4.5	7.5
30~39만원 이하	-	12.0	4.1	11.8	-	-	8.7	14.7
40~49만원 이하	-	-	7.1	3.8	-	-	3.5	2.2
50~59만원 이하	47.0	32.8	22.9	17.6	45.8	6.3	22.7	22.8

구분	동거 친조부모	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	비동거 외조부모	동거 친인척	비동거 친인척	전체	2018년 조사
60~69만원 이하	–	9.6	10.7	1.2	–	–	4.3	3.8
70~79만원 이하	–	–	2.2	2.3	–	–	1.6	6.3
80~89만원 이하	–	–	–	7.9	–	–	4.1	5.1
90~99만원 이하	–	–	2.7	–	–	–	0.6	0.2
100만원 이상	38.1	33.7	34.7	37.8	8.4	59.6	36.1	31.6
계(수)	100.0(5)	100.0(25)	100.0(51)	100.0(95)	100.0(6)	100.0(7)	100.0(189)	100.0(253)
평균	68.2	70.6	76.3	74.6	40.1	79.8	72.7	70.3
표준편차	39.0	48.4	55.1	59.8	38.4	62.3	56.5	49.6
최고	130.0	200.0	200.0	300.0	150.0	200.0	300.0	300.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4. 〈표 Ⅸ-2-9〉.

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평균 72.7만원으로, 2018년 70.3만원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 조사에서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은 영아(75.4만원)가 유아(71.3만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400-499만원 가구에서 평균 지불 비용이 76.1만 원 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76.2 만원, 중소도시 70.4만원으로 읍면지역 67.4만원에 비하여 높았다.

〈표 Ⅸ-2-10〉 혈연 양육지원자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전체	72.7	56.5	300.0	(189)					
영유아구분					가구소득				
영아	75.4	53.5	250.0	(67)	249만원 이하	26.0	14.8	50.0	(4)
유아	71.3	57.9	300.0	(122)	250~299만원	30.0	–	40.0	(2)
t		0.9			300~349만원	45.7	5.0	100.0	(6)
지역규모					350~399만원	40.0	–	200.0	(9)
대도시	76.2	53.9	300.0	(95)	400~499만원	76.1	35.4	300.0	(18)
중소도시	70.4	59.9	300.0	(81)	500~599만원	60.1	62.5	200.0	(26)
읍·면	67.4	41.0	150.0	(13)	600~699만원	70.2	81.1	150.0	(36)
F		0.1			700만원 이상	57.5	45.7	300.0	(86)
모취업 여부					모름/무응답	59.7	38.0	60.0	(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수)
취업	71.6	49.8	300.0	(159)	*F*		1.3		
휴직중	99.7	78.4	200.0	(11)	2018년	70.3	49.6	300.0	(253)
미취업	61.2	90.3	300.0	(15)	2015년	62.2	36.3	180.0	(136)
부재 등	60.1	29.6	100.0	(4)					
F		1.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5. 〈표 Ⅸ-2-10〉.

3.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본 절에서는 비혈연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제공자, 기관과의 병행 이용, 이용 빈도, 비용 등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 이용 실태

1) 서비스 제공자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민간육아도우미가 45.1%로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아이돌보미 36.1%, 이웃과 지인이 18.7%였다. 2018년 결과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이 62.3%이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영유아 구분별로는 영아가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65.5%, 대도시가 54.9%, 휴직중인 경우가 77.5%,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700만 원 이상이 66.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공공아이돌보미의 경우 대도시지역, 미취업모 가구, 비교적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웃·지인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201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가구소득은 350~599만원 사이의 가구에서 이용이 활발하였다.

〈표 Ⅸ-3-1〉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단위: %(명),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계(수)
전체	36.1	45.1	18.7	100.0(55)
영유아구분				
영아	22.5	65.5	11.9	100.0(22)
유아	43.8	33.6	22.6	100.0(33)
지역규모				
대도시	38.3	54.9	6.9	100.0(32)
중소도시	37.5	47.9	14.6	100.0(16)
읍·면	28.4	14.1	57.5	100.0(7)
모취업 여부				
취업	37.4	43.1	19.5	100.0(43)
휴직중	22.5	77.5	–	100.0(8)
미취업	47.0	–	53.0	100.0(4)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68.3	31.7	–	100.0(4)
250~299만원	–	100.0	–	100.0(2)
300~349만원	100.0	–	–	100.0(4)
350~399만원	46.3	–	53.7	100.0(2)
400~499만원	41.2	9.3	49.6	100.0(4)
500~599만원	14.8	11.4	73.8	100.0(8)
600~699만원	58.8	41.2	–	100.0(7)
700만원 이상	30.2	66.9	2.9	100.0(24)
2018년	26.9	62.3	10.8	–
2015년	22.2	57.0	8.7	12.1
2012년	26.0	15.1	27.4	11.0
2009년	7.0	28.2	38.0	12.7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6. 〈표 Ⅸ-3-1〉.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이 31.1%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지인 소개(19.2%), 사설 인력전문기관 소개(17.7%), 평소 알던 사람(17.0%)등의 순이었다. 영아의 경우 인력을 인터넷으로 구했다는 비중이 33.0%로 특히 컸고 중소도시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인이 33.0%, 사설인력 전문기관 32.3%, 평소 알던 사람 11.9%의 순이었다. 대도시는 인터넷 29.8%, 지인의

소개 22.7%, 사설 인력전문기관 18.3%의 순이었으며 읍·면 지역은 인터넷 30.3% 의존도 높았으며, 평소 알던 사람이 57.5%로 지역에 따라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의 비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인터넷(34.6%), 사설인력 전문기관(24.2%), 지인의 소개 (20.7%)이 비혈연 인력의 주된 구인 경로이며 반면 평소 알던 사람의 비율은 7.4%에 불과하였는데, 2021년에는 평소 알던 사람으로부터 양육지원자를 소개 받는 비율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Ⅸ-3-2〉 비혈연 양육지원자 소개 경로

단위: %(명)

구분	평소 알던 사람	지인의 소개	지역 신문광고	인터넷	사설인력 전문기관	기타	계(수)
전체	17.0	19.2	5.2	31.1	17.7	9.7	100.0(55)
영유아구분							
영아	11.9	8.8	8.8	33.0	32.3	5.3	100.0(22)
유아	19.9	25.1	3.1	30.1	9.5	12.2	100.0(33)
지역규모							
대도시	8.9	22.7	9.5	29.8	18.3	10.8	100.0(32)
중소도시	3.6	26.4	-	34.6	20.6	14.7	100.0(16)
읍·면	57.5	-	-	30.3	12.2	-	100.0(7)
모취업 여부							
취업	18.7	20.4	6.2	30.1	16.0	8.7	100.0(43)
휴직중	-	9.5	-	40.6	36.9	13.0	100.0(8)
미취업	30.2	22.8	-	27.3	-	19.7	100.0(4)
모부재 등	-	-	-	-	-	-	-
2018년	7.4	20.7	6.6	34.6	24.2	6.6	100.0(81)
2015년	29.2	15.1	8.4	13.7	30.1	3.4	100.0(31)
2012년	25.6	29.3	0.8	8.4	29.7	6.2	100.0(84)
2009년	30.6	41.7	12.5		12.5	2.8	100.0(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7. 〈표 Ⅸ-3-2〉.

2) 기관 병행 이용 실태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 교육 기관 중복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관 이용을 병행한다는 비중이 47.5%였고 유아의 경우 56.8%

가 기관 이용을 병행하였다. 영아의 경우는 비혈연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36.5%로 유아와(0.0%)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비혈연 단독 이용의 비중이 가장 컸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과 병행이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3세의 경우 81.4%로 기관 이용과 혈연을 조합하여 양육지원을 받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4세부터는 혈연, 비혈연, 기관을 병행한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이 크게 줄고, 비혈연과 기관을 병행한 서비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67.6%), 모가 취업중(52.2%)일 경우 기관 이용과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3-3〉 비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비혈연	혈연+비혈연	비혈연+기관	혈연+비혈연+기관	계(수)
전체	13.2	8.8	47.5	30.6	100.0(55)
영유아구분					
영아	36.5	24.4	31.0	8.2	100.0(22)
유아	–	–	56.8	43.2	100.0(33)
연령					
0세	82.8	12.6	4.6	–	100.0(8)
1세	35.1	23.3	7.7	34.0	100.0(7)
2세	7.5	32.5	60.0	–	100.0(7)
3세	–	–	18.6	81.4	100.0(7)
4세	–	–	49.4	50.6	100.0(9)
5세	–	–	83.4	16.6	100.0(17)
지역규모					
대도시	10.8	7.4	46.4	35.4	100.0(32)
중소도시	28.2	4.2	67.6	–	100.0(16)
읍·면	–	18.9	23.7	57.5	100.0(7)
모취업 여부					
취업	7.0	5.6	52.2	35.2	100.0(43)
휴직중	63.1	23.9	13.0	–	100.0(8)
미취업	–	30.2	47.0	22.8	100.0(4)
2018년	13.7	18.9	57.9	9.4	100.0(92)
2015년	7.0	–	69.0	24.0	100.0(31)
2012년	28.8	3.7	55.2	12.3	100.0(8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538. 〈표 Ⅸ-3-3〉.

3)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용 시간대는 '하원 후 퇴근 전'이 25.2%로 가장 큰 비중이었고, 불규칙한 경우가 22.1%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영아의 경우, 이용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24.1%로 유아(20.9%)보다 비중이 높았으며, 유아들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이 33.7%로 영아(10.1%)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하원 후 퇴근 전'이 35.6% 인 반면, 중소도시의 경우 '출근 후 등원 전'이 28.0%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읍·면지역에서는 불규칙(57.5%) 이용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이 이용 시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이용 시간은 평균 19.6시간으로 2018년 평균 21.6시간 보다 약 2시간 감소하였다. 영유아별 구분에 의할 경우 영아는 27.8시간, 유아는 15.0시간으로 영아가 이용 시간이 두 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가 중소도시인 경우 23.7시간으로 대도시 21.9시간. 읍·면지역 7.8시간 보다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직중인 경우 27.9시간을 이용하여 취업중이나 미취업중인 경우보다 이용 시간이 길었다.

〈표 Ⅸ-3-4〉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이용 빈도								이용 시간(주당)	
	하루 종일	출근후~하원후~퇴근전	출근후~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x^2(df)$		2021년	2018년
		등원전								
전체	8.9	11.6	25.2	13.8	22.1	18.5	100.0(55)		19.6	21.6
영유아구분										
영아	12.6	1.5	10.1	22.0	24.1	29.6	100.0(22)	11.4(5)*	27.8	30.2
유아	6.7	17.3	33.7	9.1	20.9	12.2	100.0(33)		15.0	16.0
지역규모										
대도시	15.2	2.2	35.6	16.4	11.4	19.0	100.0(32)		21.9	23.6
중소도시	2.0	28.0	16.6	14.9	17.8	20.6	100.0(16)	8.6(10)	23.7	15.8
읍·면	-	16.2	7.5	4.8	57.5	14.1	100.0(7)		7.8	21.0
모취업 여부										
취업	9.9	13.8	27.6	16.4	18.6	13.7	100.0(43)	15.4(10)*	19.0	21.8

구분	이용 빈도								이용 시간(주당)	
	하루 종일	출근후~하원후~등원전	출근후~퇴근전	등원전, 하원후~퇴근전	불규칙 (필요시)	기타	계(수)	$x^2(df)$	2021년	2018년
휴직중	4.6	–	8.7	–	25.9	60.8	100.0(8)		27.9	34.8
미취업	–	–	22.8	–	77.2	–	100.0(4)		9.4	9.8
부재 등	–	–	–	–	–	–	–		–	4.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39. 〈표 Ⅸ-3-4〉.
* $p < .05$.

4) 서비스 장소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95.2%가 아이 집이었으며 아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영아(97.4%)가 유아(93.9%)보다 높았으며, 대도시의 경우는 100%가 아이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 취업(95.7%), 모 미취업(72.7%)보다 휴직중(100.0%)인 경우에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아이의 집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3-5〉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명)

구분	영유아구분		지역규모			모 취업여부			전체	2018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아이 집	97.4	93.9	100.0	84.9	95.2	95.7	100.0	72.7	95.2	97.8
돌보는 사람 집	2.6	6.1	–	15.1	4.8	4.3	–	27.3	4.8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	(33)	(32)	(16)	(7)	(43)	(8)	(4)	(55)	(81)
$x^2(df)$	0.4(1)		4.4(2)			3.5(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40. 〈표 Ⅸ-3-5〉.
* $p < .05$.

나. 이용 비용

1)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비용 지불 여부 및 지불 형태를 살펴보았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78.5%로 나타났고 부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중이 1.2%였다. 현물로 지불한다는 비중은 0.5%였고, 지불을 안한다는 비중이 19.8%를 차지한 점이 2018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읍면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응답이 26.3%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도 정기적 지불이 19.7%로 상당히 낮게 응답되었다.

〈표 Ⅸ-3-6〉 비혈연 양육지원자 비용 지불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지불	부정기적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계(수)
전체	78.5	1.2	0.5	19.8	100.0(55)
영유아구분					
영아	86.6	-	1.5	11.9	100.0(22)
유아	73.9	1.9	-	24.2	100.0(33)
지역규모					
대도시	90.1	-	-	9.9	100.0(32)
중소도시	93.2	4.7	2.0	-	100.0(16)
읍·면	26.3	-	-	73.7	100.0(7)
모취업 여부					
취업	79.3	-	-	20.7	100.0(43)
휴직중	95.4	-	4.6	-	100.0(8)
미취업	19.7	27.3	-	53.0	100.0(4)
이용유형					
비혈연 단독	96.0	-	4.0	-	100.0(10)
혈연 보완	84.6	-	-	15.4	100.0(5)
기관 보완	87.3	2.6	-	10.1	100.0(27)
비혈연+혈연+기관	55.5	-	-	44.5	100.0(13)
2018년	87.2	9.3	-	3.5	100.0(81)
2015년	94.7	4.7	0.5	-	100.0(31)
2012년	75.0	1.4	2.8	20.8	100.0(84)
2009년	90.1	4.2	1.4	4.2	100.0(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41-542. 〈표 Ⅸ-3-7〉.

2) 비용 지불 수준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유형별 비용 지불 수준은 다음과 같다. 지불 비용 평균은 84.8만원으로 2018년 조사 당시 금액 79.1만원보다 증가하였다.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2018년 250만원에서 2021년 260만원으로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제공자별로는 민간육아도우미에 평균 115.1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웃·지인에게 80.0만원, 공공 아이돌보미에게는 41.7만원을 지불하여 인력별 지불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에 대한 이웃지인에 지불하는 비용은 표준편차가 17.3만원으로 이외 양육지원자들에 비해 비용 지불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3-7〉 비혈연 양육지원자별 지불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공공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웃·지인	전체	2018년	2015년	2012년
10만원 이하	3.9	–	–	1.5	1.4	–	0.5
10~19만원 이하	11.4	–	–	4.5	13.9	5.9	2.3
20~29만원 이하	35.4	–	–	13.8	6.2	1.3	1.4
30~39만원 이하	10.0	12.1	–	10.7	13.8	7.7	0.3
40~49만원 이하	4.5	–	–	1.8	2.7	0.2	–
50~59만원 이하	20.4	3.9	25.0	11.3	12.7	16.2	3.1
60~69만원 이하	3.2	14.8	–	9.6	2.6	5.2	0.3
70~79만원 이하	2.1	–	–	0.8	4.9	4.3	0.9
80만원 이상	9.1	69.2	75.0	46.0	41.7	59.1	91.0
계(수)	100.0(23)	100.0(22)	100.0(2)	100.0(47)	100.0(77)	100.0(31)	100.0(68)
평균	41.7	115.1	80.0	84.8	79.1	88.9	58.0
표준편차	39.6	62.8	17.3	63.9	66.6	52.6	47.1
최고	170.0	260.0	90.0	260.0	250.0	200.0	18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42-543. 〈표 Ⅸ-3-8〉.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에 대해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94.1만원으로 유아 78.7만원보다 비용이 높았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87.1만원, 중소도시 88.1만원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44.8만원인 경우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중인 경우 86.8만원으로 휴직중인 경우 87.0와 유사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모미취업 가구의 경우 7.1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Ⅸ-3-8〉 비혈연 양육지원자 지불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t/F*	(수)
전체	84.8	63.9	260.0		(47)
영유아구분					
영아	94.1	56.7	250.0	0.3	(20)
유아	78.7	67.5	260.0		(27)
지역규모					
대도시	87.1	67.7	260.0		(28)
중소도시	88.1	59.1	250.0	0.6	(16)
읍·면	44.8	21.7	65.0		(3)
모취업 여부					
취업	86.8	67.1	260.0		(37)
휴직중	87.0	35.8	125.0	1.2	(8)
미취업	7.1	2.5	10.0		(2)
2018년	79.1	66.6	250.0		(77)
2015년	88.9	52.6	200.0		(31)
2012년	58.0	47.1	180.0		(6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43. 〈표 Ⅸ-3-9〉.

3) 비혈연 인력의 결근 시 대처 방법

비혈연 양육지원자의 결근 빈도 및 결근 시 대처 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결근은 거의 없음이 62.5%였으나 결근 시에는 부모가 돌보는 경우(59.8%),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31.3%) 가 높은 비중이었고 모가 취업인 경우 '결근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62.1%로 휴직중인 경우(50.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결근 시 부모가 돌보는 경우(52.0%), 조부모 및 친인척에 맡긴다(37.3%)의 비율로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Ⅸ-3-9〉 비혈연 양육지원자 결근 빈도 및 결근시 대처

단위: %(명)

구분	결근 빈도					결근시 대처			
	자주 있음	가끔 있음	거의 없음	비해당 (비혈연인이 집에서 숙박)	계(수)	부모가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	아이 돌보미 이용	계(수)
전체	–	35.4	62.5	2.2	(55)	59.8	31.3	8.9	(18)
영유아구분									
영아	–	49.6	50.4	–	(22)	68.1	31.9	–	(10)
유아	–	27.4	69.2	3.4	(33)	51.3	30.7	18.1	(8)
지역규모									
대도시	–	40.3	55.8	3.9	(32)	61.2	38.8	–	(12)
중소도시	–	23.4	76.6	–	(16)	81.9	18.1	–	(3)
읍·면	–	37.7	62.3	–	(7)	37.3	19.8	42.9	(3)
모취업 여부									
취업	–	35.3	62.1	2.6	(43)	52.0	37.3	10.7	(14)
휴직중	–	49.8	50.2	–	(8)	100.0	–	–	(4)
미취업	–	–	100.0	–	(4)	–	–	–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구분: 생활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4. 시사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성 및 이용 실태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11.5%이며, 이들 중 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 단독 이용하는 아동은 20.7%로 2018년 32.0% (혈연 31.2%, 비혈연 0.8%) 보다 감소하였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기관 등의 중복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79.4%였으며, 특히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 병행을 통한 양육은 67.0%로 전반적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도 줄었으며, 개인양육지원서비스와 기관양육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 혹은 기관서비스의 단독 이용만으로는 자녀 양육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육아가정에서는 개인과 기관서비스 병행 이용을 통해 부모의 양육공백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대부분 혈연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다.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91.4%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

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영유아 가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공공 아이돌보미의 경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용보조를 시행중이나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에 애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기관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적응 애로에 대해 경험했던 혹은 예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 아이돌보미 확충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공인화 정책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동거 외조부모와 친조부모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혈연에 의한 양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가 공공이나 민간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혈연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재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혈연 양육지원자에게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46.4%였는데 황혼 육아의 가치 내지는 경제적 부담 효과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양육지원자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있어 출근 후부터 등원 전, 하원 후부터 퇴근 전에 이용한다는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차원의 노동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불규칙(필요시) 비혈연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도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코로나 19의 발생과 확산으로 노동환경과 기관을 통한 보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기관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였기에 양육 공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필요시에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해서도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에 있어 긴급돌봄 형태의 탄력성 확보가 요구된다.

X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0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0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03 개별교육 이용 실태

04 시사점

X.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

본 장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과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본 조사에서의 시간제 교육기관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한 아동의 특기교육을 위한 학원, 보습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교육은 개인 또는 그룹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 예체능 교육, 학습지 등을 모두 포괄한다.

1.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아동 특성

본 절에서는 아동의 연령, 거주지역, 모취업 여부,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가구소득 등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기관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0.1%,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4.9%, '수학/과학 관련' 3.6%, '영어' 3.5%, '기타' 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0세의 경우 '예능(미술,음악)'(0.8%)과 '기타'(0.8%), 1세와 2세의 경우 체육관련(각각 2.6%), 3세와 4세 '예능(미술,음악)'(각각 4.3%, 11.5%), 5세 '체육관련'(23.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250~299만원'(9.1%), '300~349만원'(10.4%), '350~399만원'(10.9%), '400~499만원'(10.3%), '600~699만원'(15.8%)의 경우, 체육관련 교육이 가장 높고, '249만원 이하'(5.2%), '500~599만원'(11.6%), '700만원 이상'(16.9%)에서는 '예능(미술,음악)'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등의 개별교육에 대한 이용비율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개별교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1-1〉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10.1	11.0	3.6	4.9	3.5	1.7	(3,471)
영유아구분							
영아	1.7	2.1	0.2	0.9	0.5	1.0	(1,374)
유아	14.5	15.6	5.4	7.0	5.0	2.0	(2,097)
연령							
0세	0.8	–	–	–	–	0.8	(424)
1세	2.0	2.6	0.1	0.1	–	0.9	(515)
2세	2.0	2.6	0.4	2.1	1.3	1.3	(435)
3세	4.3	2.9	1.1	1.9	1.5	0.5	(442)
4세	11.5	11.1	3.3	6.5	3.7	1.4	(556)
5세	20.8	23.9	8.5	9.6	7.3	2.9	(1,099)
지역규모							
대도시	10.1	11.2	3.8	5.3	3.6	1.3	(1,565)
중소도시	10.1	11.4	3.5	4.2	3.8	1.7	(1,324)
읍·면	10.1	9.2	3.5	5.6	2.3	2.3	(582)
모취업 여부							
취업	13.1	12.7	4.2	5.9	4.4	1.6	(1,340)
휴직중	8.7	10.6	2.9	4.1	3.6	1.6	(430)
미취업	7.8	9.6	3.3	4.1	2.7	1.7	(1,670)
부재 등	10.3	6.7	5.2	7.3	–	–	(3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5.2	4.1	0.3	0.7	1.0	2.4	(196)
250~299만원	8.2	9.1	2.0	4.1	1.9	1.4	(198)
300~349만원	7.1	10.4	2.2	3.5	2.0	1.3	(480)
350~399만원	6.3	10.9	4.0	4.3	3.1	2.2	(311)
400~499만원	8.6	10.3	2.4	3.9	2.6	1.8	(675)
500~599만원	11.6	11.2	4.3	5.0	3.9	1.4	(655)
600~699만원	9.9	15.8	2.1	9.5	3.5	1.1	(349)
700만원이상	16.9	12.4	7.9	6.3	6.8	1.6	(560)
모름/무응답	4.2	0.7	–	–	–	5.7	(47)
2018년	10.9	11.5	2.9	3.3	2.6	1.8	(3,7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48. 〈표 X-1-1〉.

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이 4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43.0%, '반일제 이상 학원' 6.5%, '가정양육' 3.7%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여부별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64.9%로 유아의 경우(40.4%)보다 높았고, 유아의 경우 '유치원' 이용 응답 비율이 52.4%로 영아(0.0%)보다 높았다. 지역 규모 별로, 읍·면의 경우, '어린이집' 응답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이용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도시(47.7%)였다. 휴직중인 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응답은 37.2%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5년, 2018년에 비해서는 이용 비중이 상승하였고, 2012년 45.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2102년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 2018년 보다는 감소한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의 경우는 2021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X-1-2〉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의 반일제 기관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양육	계(수)
전체	43.0	46.9	6.5	3.7	100.0(692)
영유아구분					
영아	64.9	-	4.0	31.1	100.0(81)
유아	40.4	52.4	6.7	0.5	100.0(611)
$x^2(df)$		139.6(3)***			
지역규모					
대도시	39.8	47.7	8.2	4.4	100.0(315)
중소도시	44.5	46.9	5.6	3.0	100.0(264)
읍·면	46.8	45.3	4.4	3.5	100.0(113)
$x^2(df)$		14.4(6)**			
모취업 여부					
취업	47.1	46.7	5.6	0.6	100.0(338)
휴직중	48.2	37.2	5.2	9.3	100.0(62)
미취업	36.7	49.3	7.9	6.0	100.0(287)
부재 등	24.1	75.9	-	-	100.0(5)
$x^2(df)$		15.5(9)**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가정양육	계(수)
2018년	32.6	49.8	5.7	-	100.0(741)
2015년	35.1	48.6	3.3	-	100.0(522)
2012년	45.2	43.3	5.8	-	100.0(614)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2012년, 2015년,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에서 해당 문항의 구분은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기타/이용안함'으로 보고됨. 따라서 동일 항목인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항목만 표기하였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50-551. 〈표 X-1-3〉.
** $p < .01$, *** $p < .001$.

2.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실태, 즉 이용하는 시간제 프로그램 수와 종류, 이용 시간, 지출 비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 수

이용하는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 영유아 중 78.9%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할 경우 '1개' 이용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11.3%), '2개' 4.7%, '3개' 3.2%, '4개' 1.3%, '5개 이상' 0.6%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용 비율 및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3세 이상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시간제 교육기관 미이용 아동은 2018년도에는 77.3% 정도였던 것에 비해 2021년도에는 1.2%p 정도 증가한 78.9%로 나타났다.

〈표 X-2-1〉 이용하는 총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수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78.9	11.3	4.7	3.2	1.3	0.6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95.5	3.0	0.5	0.6	0.2	-	100.0(1,374)
유아	70.2	15.7	6.9	4.5	1.8	0.9	100.0(2,097)
연령							
0세	98.3	1.5	0.2	-	-	-	100.0(424)
1세	95.7	3.0	0.9	0.3	0.1	-	100.0(515)
2세	93.9	3.9	0.4	1.3	0.5	-	100.0(435)
3세	92.0	4.3	3.1	0.4	-	0.3	100.0(442)
4세	76.0	14.0	5.5	2.2	1.1	1.1	100.0(556)
5세	57.1	21.9	9.4	7.6	3.0	1.2	100.0(1,099)
지역규모							
대도시	79.2	10.3	5.3	3.5	1.2	0.5	100.0(1,565)
중소도시	79.1	11.7	4.0	3.0	1.4	0.8	100.0(1,324)
읍·면	78.0	13.0	4.9	2.8	1.1	0.3	100.0(582)
모취업 여부							
취업	74.7	13.9	5.6	3.7	1.2	0.9	100.0(1,340)
휴직중	82.4	8.0	3.1	4.5	1.7	0.2	100.0(430)
미취업	81.7	9.9	4.4	2.4	1.1	0.5	100.0(1,670)
부재 등	86.1	8.7	-	-	5.2	-	100.0(3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91.2	3.9	3.0	-	1.9	-	100.0(196)
250~299만원	84.0	8.9	2.5	4.7	-	-	100.0(198)
300~349만원	82.3	12.6	2.5	0.6	1.1	0.9	100.0(480)
350~399만원	79.2	13.6	3.2	2.8	1.2	-	100.0(311)
400~499만원	80.8	10.8	4.3	3.1	0.8	0.1	100.0(675)
500~599만원	76.6	11.9	5.8	4.4	0.9	0.5	100.0(655)
600~699만원	74.8	12.5	7.8	3.4	1.3	0.2	100.0(349)
700만원이상	73.4	11.5	6.0	4.6	2.5	2.1	100.0(560)
모름/무응답	89.4	10.6	-	-	-	-	100.0(47)
2018년	77.7	13.6	5.5	1.7	1.0	0.5	100.0(3,775)
2015년	82.5	12.0	3.9	1.1	0.4	0.2	100.0(3,56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52. 〈표 X-2-1〉.

나. 이용 프로그램 종류

시간제 교육 기관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48.0%,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23.2%, '수학/과학 관련' 17.2%, '영어' 16.5%, '기타' 7.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세를 제외하고 '체육'과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1세의 경우에는 '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54.2%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고, 3세 이상은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참여가 높아져 특히 5세에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수학 프로그램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규모,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체육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이 높은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58.5%, '700만원 이상'인 가구 63.5%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여 2018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표 X-2-2〉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의 제 특성별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전체	48.0	52.1	17.2	23.2	16.5	7.8	(692)
영유아구분							
영아	39.2	46.2	4.4	20.0	12.1	23.5	(59)
유아	48.7	52.5	18.2	23.4	16.9	6.6	(633)
연령							
0세	47.0	47.7	-	-	-	29.1	(26)
1세	24.1	54.2	8.7	29.5	12.4	20.4	(25)
2세	60.9	36.7	8.6	35.3	17.7	10.6	(30)
3세	44.0	44.6	12.2	24.1	23.1	5.8	(93)
4세	46.7	54.1	15.8	22.5	14.0	8.5	(209)
5세	51.0	54.3	22.4	23.1	17.7	5.4	(309)
지역규모							
대도시	48.5	53.7	18.4	25.6	17.3	6.3	(315)
중소도시	48.3	54.7	16.6	19.9	18.2	8.2	(264)

구분	예능 (미술, 음악)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영어	기타	(수)
읍·면	46.0	41.7	16.0	25.2	10.5	10.6	(113)
모취업 여부							
취업	51.8	50.0	16.5	23.4	17.3	6.4	(338)
휴직중	49.4	60.1	16.6	23.3	20.4	8.9	(62)
미취업	42.5	52.6	18.1	22.5	14.8	9.5	(287)
부재 등	73.8	48.5	37.4	52.5	-	-	(5)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58.5	47.0	3.7	8.2	11.8	26.7	(18)
250~299만원	51.1	56.8	12.5	25.7	11.6	9.0	(29)
300~349만원	39.9	58.7	12.3	19.6	11.3	7.5	(76)
350~399만원	30.2	52.5	19.1	20.4	14.9	10.5	(56)
400~499만원	45.1	53.6	12.4	20.6	13.6	9.5	(134)
500~599만원	49.5	47.9	18.2	21.4	16.5	6.1	(141)
600~699만원	39.1	62.6	8.2	37.5	13.8	4.4	(80)
700만원이상	63.5	46.6	29.7	23.5	25.5	5.8	(152)
모름/무응답	39.6	6.9	-	-	-	53.5	(6)
2018년	49.0	51.7	13.0	14.7	11.7	8.1	
2015년	41.7	53.0	9.4	12.3	7.5	18.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53-554. 〈표 X-2-2〉.

다.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간

시간제 교육기관의 주당 총 이용 시간은 평균 3.7시간으로 2018년과 평균 이용 시간이 동일하다. 이용 시간 비율은 1~2시간이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6시간 22.9%, 3~4시간 20.9% 순이었으며, 9시간 이상도 7.4%로 나타났다. 영아(2.0시간)보다는 유아(3.8시간)의 이용 시간이 길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례수가 많지는 않지만 0세의 평균 이용 시간도 1.2시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3.7시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2.6시간) 주당 총 이용 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결국 기관 이용 여부와 관련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일제 이상 기관 중에서는 '기타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당 5.7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주당 총 3.8시간을 이용하여 미취업 3.7시간, 휴직중 3.0시간에 비해 영유아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시간이 길었으나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낮은 가구보다 시간제 교육기관 총 이용 시간이 긴 경향이 있으나 크게 일관성은 없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평균 3.8시간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길었다.

〈표 X-2-3〉 시간제 교육기관 주당 총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8 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44.5	20.9	22.9	4.3	7.4	100.0 (692)	3.7
영유아구분							
영아	73.1	20.4	3.2	-	3.2	100.0 (59)	2.0
유아	42.3	20.9	24.4	4.6	7.8	100.0 (633)	3.8
생활연령							
0세	92.9	7.1	-	-	-	100.0 (9)	1.2
1세	82.4	12.6	-	-	5.0	100.0 (22)	2.0
2세	64.4	27.3	5.7	-	2.6	100.0 (28)	2.1
3세	77.4	9.7	4.8	1.8	6.4	100.0 (40)	3.0
4세	51.6	19.4	20.6	0.4	8.0	100.0 (133)	3.4
5세 이상	36.5	22.3	27.2	6.1	7.8	100.0 (460)	4.0
지역규모							
대도시	44.5	22.5	21.0	5.2	6.8	100.0 (315)	3.8
중소도시	43.9	19.2	25.7	2.6	8.6	100.0 (264)	3.6
읍·면지역	46.1	21.3	20.3	6.3	6.0	100.0 (113)	3.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이용	43.3	21.1	23.7	4.4	7.6	100.0 (657)	3.7
미이용	76.9	15.9	1.2	3.0	3.1	100.0 (35)	2.6
반일제 이상 이용 기관							
어린이집	49.1	23.5	16.3	3.0	8.0	100.0 (237)	3.4
유치원	40.7	18.3	29.1	5.4	6.4	100.0 (379)	3.8
반일제 이상 학원	23.2	24.8	33.1	5.7	13.2	100.0 (41)	5.7
미이용	76.9	15.9	1.2	3.0	3.1	100.0 (35)	2.6
모취업 여부							
취업	42.4	18.9	27.1	3.6	8.0	100.0 (338)	3.7
휴직중	52.1	33.1	10.3	2.3	2.2	100.0 (62)	3.0
미취업	45.6	20.3	20.2	5.8	8.1	100.0 (287)	3.8
모부재	15.1	24.1	60.7	-	-	100.0 (5)	3.9

구분	1~2 시간	3~4 시간	5~6 시간	7~8 시간	9시간 이상	계(수)	평균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51.8	29.6	18.6	-	-	100.0 (18)	2.7
250~299만원	46.1	22.8	17.8	-	13.3	100.0 (29)	4.1
300~349만원	53.0	14.4	26.1	-	6.4	100.0 (76)	3.1
350~399만원	50.4	14.2	19.4	6.9	9.1	100.0 (56)	3.6
400~499만원	43.0	25.4	18.7	5.5	7.4	100.0 (134)	3.5
500~599만원	48.0	19.5	21.9	6.1	4.5	100.0 (141)	3.5
600~699만원	39.5	17.7	23.0	7.6	12.2	100.0 (80)	4.1
700만원이상	36.8	25.2	28.3	2.1	7.5	100.0 (152)	4.1
모름/무응답	66.0	20.7	13.3	-	-	100.0 (6)	2.1
2018년	47.3	15.2	24.4	4.7	8.4	100.0 (741)	3.7
2015년	45.8	14.4	28.4	5.0	6.3	100.0 (510)	3.6
2012년	41.8	10.9	33.6	5.1	8.7	100.0 (614)	4.0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55. 〈표 X-2-3〉.

라.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비용

시간제 교육 기관의 각 프로그램별 부모의 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149.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26.7천원, '체육 관련' 124.8천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14.3천원, '기타' 110.3천원, '수학/과학 관련'이 101.4천원 순이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 비용은 연령별 편차가 컸으며, 영아보다는 유아의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과 질이 비용에 반영되어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경향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X-2-4〉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연령별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년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수)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표준편차)	
2021	예능(미술, 음악)	80.5	129.6	42.2	78.5	90.7	110.4	111.4	136.6	126.7 (68.4)	(329)
	체육관련	94.3	126.9	-	126.1	65.1	85.2	113.1	132.5	124.8 (60.3)	(346)
	수학/과학 관련	72.6	101.9	-	100.0	63.6	141.7	101.2	99.7	101.4 (76.5)	(113)
	언어(한글, 한자, 기타외국어 등)	64.6	117.6	-	100.0	62.6	148.6	129.0	110.7	114.3 (83)	(151)
	영어	83.2	152.8	-	-	83.2	144.4	116.4	163.1	149.1 (83)	(108)
	기타	96.6	114.2	79.1	96.9	102.4	48.1	114.0	119.5	110.3 (79.8)	(56)
2018	예능(미술, 음악)	64.8	105.5	68.9	64.9	62.7	77.7	97.0	113.2	100.2 (64.6)	(363)
	체육관련	64.9	108.6	126.7	61.0	58.3	77.3	107.7	113.5	102.5 (64.5)	(375)
	수학/과학 관련	52.7	91.9	-	-	52.7	104.5	102.6	88.9	91.0 (60.5)	(85)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53.9	80.6	-	-	53.9	79.5	93.9	77.3	79.3 (49.6)	(101)
	영어	22.5	121.2	-	30.0	15.0	121.6	147.8	114.0	119.0 (74.9)	(80)
	기타	56.4	77.0	35.9	62.4	90.9	38.6	87.1	87.0	70.3 (56.3)	(5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56-557. 〈표 X-2-4〉.

시간제 교육 기관 프로그램 이용 비용은 월평균 202.9천원이었으며,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10~15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만원 이상' 21.1%, '20~30만원 미만' 16.2%, '15~20만원 미만' 12.0%, '5~10만원 미만' 8.7%, '5만원 미만' 6.4%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124천원)보다는 유아(209.1천원)의 비용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224.2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모가 휴직중인 가정인 경우,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212.4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195.6천원)나 미취업모(209.7천원) 가정에 비해 많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262.9천원으로 이용 비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49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213.4천원,

'600~699만원'인 가구에서 197.1천원으로 이용 비용이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경향성은 찾을 수 없었다. 2018년도 비교해볼 때, 가장 많은 비용 분포는 10~15만원으로 유사하였으나, 10만원 미만 분포는 줄어든 반면 20만 원 이상의 비용 분포는 증가하였다.

〈표 X-2-5〉 시간제 교육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 비용

단위: %(명),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6.4	8.7	35.7	12.0	16.2	21.1	100.0(692)	202.9
영유아구분								
영아	30.5	21.8	27.4	-	6.7	13.6	100.0(59)	124.0
유아	4.5	7.6	36.3	13.0	16.9	21.7	100.0(633)	209.1
$x^2(df)$				78.3()***				
연령								
0세	64.4	24.0	-	-	11.6	-	100.0(9)	60.7
1세	27.9	33.7	18.3	-	3.1	17.0	100.0(22)	140.8
2세	27.2	13.8	37.3	-	8.3	13.4	100.0(28)	122.5
3세	18.6	16.8	29.8	9.5	17.1	8.2	100.0(40)	175.7
4세	6.0	10.0	37.9	17.5	14.0	14.7	100.0(133)	179.8
5세	2.9	6.2	36.4	12.0	17.7	24.9	100.0(460)	220.5
$x^2(df)$				122.5(25)***				
지역규모								
대도시	7.5	7.0	30.6	12.8	17.2	24.8	100.0(315)	224.2
중소도시	5.1	10.5	38.2	12.3	14.1	19.8	100.0(264)	194.7
읍·면	6.9	8.2	41.5	9.3	18.7	15.4	100.0(113)	172.4
$x^2(df)$				10.7(10)*				
모취업 여부								
취업	5.6	6.0	39.7	12.9	16.5	19.3	100.0(338)	195.6
휴직중	8.4	12.7	31.7	5.9	12.4	28.8	100.0(62)	212.4
미취업	6.8	10.9	31.6	12.6	16.9	21.2	100.0(287)	209.7
모부재	15.1	11.1	36.4	-	-	37.4	100.0(5)	193.9
$x^2(df)$				17.3(15)*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21.6	8.4	6.6	21.9	8.1	33.3	100.0(18)	213.4
250~299만원	8.5	15.4	29.5	15.3	6.6	24.8	100.0(29)	189.3
300~349만원	6.6	8.1	53.0	9.5	10.7	12.2	100.0(76)	164.5
350~399만원	12.2	10.3	36.3	13.2	14.4	13.5	100.0(56)	160.3
400~499만원	7.0	8.2	33.8	15.0	20.4	15.6	100.0(134)	190.9
500~599만원	5.7	7.6	36.7	11.6	15.4	22.9	100.0(141)	196.1
600~699만원	1.5	10.5	40.1	6.5	22.4	19.0	100.0(80)	197.1
700만원 이상	4.9	7.9	27.1	12.6	16.4	31.2	100.0(152)	262.9
모름/무응답	13.8	-	79.8	6.4	-	-	100.0(6)	111.3
$x^2(df)$				59.2(40)*				
2018년	19.6	13.2	32.8	9.8	13.8	10.9	100.0(741)	145.2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2015년	20.8	21.6	34.4	10.2	7.4	5.7	100.0(510)	116.8
2012년	25.6	28.8	30.3	7.0	4.8	3.5	100.0(614)	99.7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58. 〈표 X-2-5〉.
* $p < .05$, *** $p < .001$.

시간제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별 월 평균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시간제 교육 기관의 이용 비용을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지역규모, 모 취업 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 특성, 모취업 여부에 따른 일반적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대도시나 미취업모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체육 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영어' 프로그램 비용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고,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읍·면에서의 비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6〉 제 특성별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여부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부재	
예능	평균	126.0	123.0	137.7	128.5	109.7	129.3	105.0	126.7
	(수)	(154)	(126)	(49)	(172)	(36)	(118)	(3)	(329)
체육관련	평균	134.3	120.5	109.3	116.0	121.8	136.0	119.5	124.8
	(수)	(160)	(137)	(49)	(165)	(31)	(148)	(2)	(346)
수학/과학 관련	평균	115.1	91.3	89.2	91.5	82.1	117.6	70.0	101.4
	(수)	(54)	(39)	(20)	(56)	(9)	(47)	(1)	(113)
언어	평균	129.8	104.8	94.9	104.6	157.5	117.2	61.4	114.3
	(수)	(68)	(54)	(29)	(74)	(12)	(63)	(2)	(151)
영어	평균	172.9	138.0	102.1	139.7	119.2	172.8	-	149.1
	(수)	(52)	(44)	(12)	(56)	(10)	(42)	-	(108)
기타	평균	104.7	100.1	137.7	115.2	118.6	104.4	-	110.3
	(수)	(23)	(22)	(11)	(21)	(7)	(28)	-	(56)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프로그램별 월평균 비용을 살펴본 결과도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아 개별 프로그램의 특성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X-2-7〉 가구소득별 시간제 교육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249만원 이하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전체
예능	평균	125.3	109.6	115.1	122.1	118.3	127.2	134.0	136.1	86.0	126.7
	(수)	(9)	(14)	(31)	(20)	(57)	(68)	(35)	(92)	(3)	(329)
체육관련	평균	105.6	136.1	105.2	117.4	146.5	123.7	110.9	131.9	100.0	124.8
	(수)	(10)	(16)	(43)	(26)	(67)	(69)	(47)	(67)	(1)	(346)
수학/과학 관련	평균	40.0	80.0	84.7	73.5	75.6	94.8	78.2	130.3		101.4
	(수)	(1)	(2)	(10)	(10)	(18)	(21)	(8)	(43)		(113)
언어	평균	79.4	90.2	110.0	87.7	113.7	126.5	122.2	112.7		114.3
	(수)	(2)	(7)	(15)	(12)	(32)	(24)	(26)	(33)		(151)
영어	평균	244.3	97.3	135.7	127.8	126.3	138.1	138.2	176.7		149.1
	(수)	(2)	(3)	(9)	(7)	(19)	(22)	(10)	(36)		(108)
기타	평균	200.9	126.9	127.0	103.7	96.8	107.5	90.5	81.6	131.5	110.3
	(수)	(3)	(3)	(3)	(8)	(12)	(10)				(56)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 학원의 프로그램별 이용 시간당 비용을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종류 중 이용 시간 대비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으로 시간당 비용이 6만 3,300원이었으며, 다음은 '영어' 5만 8,400원, '기타' 5만 7,300원, '예능' 5만 6,700원, '언어' 5만 5,800원, '체육 관련' 5만 600원 순이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능' 4.3점, '체육 관련'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4.1점이었다.

〈표 X-2-8〉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별 이용비용, 이용 시간, 전반적 만족도 비교

단위: 천원, 시간, 점

구분	월평균 이용 비용(A)		주당 이용 시간(B)		이용 시간대비 비용(A/B)	전반적 만족도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능	126.7	68.4	2.2	1.6	56.7	4.3(0.6)
체육관련	124.8	60.3	2.5	1.8	50.6	4.2(0.7)
수학/과학 관련	101.4	76.5	1.6	1.1	63.3	4.1(0.6)
언어	114.3	83.0	2.0	1.9	55.8	4.1(0.6)
영어	149.1	83.0	2.6	2.1	58.4	4.1(0.6)
기타	110.3	79.8	1.9	1.5	57.3	4.1(0.7)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마. 시간제 교육기관 만족도

시간제 학원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예능' 4.3점, '체육 관련' 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모두 4.1점이었다.

〈표 X-2-9〉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계(수)
예능	-	-	10.5	51.4	38.2	4.3(0.6)	100.0(329)
체육관련	0.2	-	14.2	51.4	34.2	4.2(0.7)	100.0(346)
수학/과학 관련	-	-	16.0	59.9	24.1	4.1(0.6)	100.0(113)
언어	-	-	14.2	63.7	22.0	4.1(0.6)	100.0(151)
영어	-	-	11.5	62.4	26.1	4.1(0.6)	100.0(108)
기타	0.6	-	13.5	56.9	29.0	4.1(0.7)	100.0(56)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만족도가 대도시 4.1점, 중소도시 4.2점이나 읍·면지역은 4.0점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가 휴직중인 가정의 만족도가 4.4점으로 다른 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영유아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학 관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만족도 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X-2-10〉 제 특성별 시간제 학원 프로그램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예능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영어	기타
전체	4.3	4.2	4.1	4.1	4.1	4.1
영유아구분						
영아	4.2	4.1	4.4	4.0	4.2	4.3
유아	4.3	4.2	4.1	4.1	4.1	4.1
t	-0.2	0.2	0.6	-0.3	0.7	-0.1
연령						
0세	3.9					3.5

구분	예능	체육관련	수학/과학 관련	언어	영어	기타
1세	4.6	4.1	3.0	3.0		4.1
2세	4.3	4.2	4.8	4.1	4.2	4.7
3세	4.3	4.2	4.1	4.3	3.9	3.7
4세	4.2	4.2	4.3	4.1	4.2	4.3
5세	4.3	4.2	4.0	4.0	4.1	4.1
F	0.4	0.3	2.1	1.4	0.4	2.0
지역규모						
대도시	4.2	4.2	4.0	4.1	4.1	4.5
중소도시	4.3	4.2	4.2	4.1	4.2	4.1
읍·면	4.3	4.2	4.2	4.2	4.0	3.8
F	1.0	0.1	2.1	0.4	0.5	2.2
모취업여부						
취업	4.3	4.1	4.2	4.2	4.1	4.1
휴직중	4.4	4.2	4.2	4.1	4.3	3.9
미취업	4.3	4.3	4.0	4.0	4.2	4.2
모부재	3.5	3.2	3.0	3.3		
F	2.8*	1.8	1.7	2.5	0.6	0.1
(수)	(329)	(346)	(113)	(151)	(108)	(56)
2018년	3.9	4.0	4.1	3.8	4.0	3.8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1. 〈표 X-2-9〉.

3. 개별교육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개별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의 구체적인 이용 실태, 즉 이용하는 종류별 개별교육 이용률 및 이용 개수, 이용 시간, 지출 비용,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개별교육 이용 현황

학습지 등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지 12.7%, 교재교구활용 3.1%,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통신교육 동일하게 2.3% 순이었다. 학습지의 경우 2018년에는 영유아의 83.5%가 이용했던 매우 보편적인 개별교육으로 나타

났으나 2021년에는 이용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서비스별 평균 이용 개수는 학습지가 1.4개, 다른 서비스는 평균 1.1~1.3개로 나타났다. 개별교육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종류별로 '개별 또는 그룹지도'프로그램이 164,1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신교육 101,900원, 교재교구 활용 93,600원, 학습지 84,900원 순이었다. 2018년도에 비해 개별교육 월평균 비용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통신교육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X-3-1〉 개별 교육 이용 현황

단위: %(명), 개, 천원

구분	이용 비율			이용 평균 개수	월평균비용	(수)
	2015년	2018년	2021년			
개별 또는 그룹지도	-	12.0	2.3	1.3	164.1	(84)
학습지	81.0	83.5	12.7	1.4	84.9	(422)
교재교구활용	12.2	11.5	3.1	1.1	93.6	(104)
통신교육	1.5	2.1	2.3	1.1	101.9	(7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3. 〈표 X-3-1〉.

제 특성별 개별교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와 유아 모두 학습지 이용률이 각각 2.1%, 18.2%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두 영아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학습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3세, 4세, 5세에서 학습지의 이용률이 9.4%, 15.9%, 23.5% 로 다른 개별교육에 비해 매우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개별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2.0%로 가장 낮았고, 학습지 이용은 읍·면 지역에서 13.7%로 가장 높았으며, 교재교구 활용은 대도시가 3.9%로 가장 높았고, 통신교육은 읍·면 지역에서 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지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와 비교해볼 때,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개별 교육 이용이 줄었으며, 특히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와 교재교구 활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통신교육 이용은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X-3-2〉 제 특성별 개별 교육 이용 유무

단위: %(명)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수)
전체	2.3	12.7	3.1	2.3	(3,471)
영유아구분					
영아	0.9	2.1	1.4	0.3	(1,374)
유아	3.1	18.2	4.0	3.3	(2,097)
연령					
0세	-	-	0.3	-	(424)
1세	1.0	0.9	0.4	0.2	(515)
2세	1.3	4.3	2.9	0.5	(435)
3세	1.7	9.4	2.9	1.2	(442)
4세	2.5	15.9	3.7	2.9	(556)
5세	4.0	23.5	4.6	4.5	(1,099)
지역규모					
대도시	2.0	12.1	3.9	2.2	(1,565)
중소도시	2.1	12.8	3.0	1.9	(1,324)
읍·면	3.7	13.7	1.4	3.6	(582)
모취업 여부					
취업	3.3	14.4	3.7	2.4	(1,340)
휴직중	1.7	12.1	3.8	2.1	(430)
미취업	1.6	11.3	2.3	2.3	(1,670)
부재 등	-	8.1	6.4	-	(31)
2018년	2.4	16.4	2.3	0.4	(3,77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63-564. 〈표 X-3-2〉.

조사대상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 본 결과,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 이용 12.0%, 2개 4.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들은 대체로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거나 2개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규모에서는 읍·면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모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취업모 자녀가 이용하는 비율이 미취업모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1개 이상의 개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Ⅹ-3-3〉 개별 교육 이용 개수

단위: %(명)

구분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전체	81.8	12.0	4.1	1.5	0.4	0.2	100.0(3,471)
영유아구분							
영아	95.7	3.4	0.7	0.2	–	–	100.0(1,374)
유아	74.5	16.5	5.9	2.2	0.6	0.3	100.0(2,097)
$x^2(df)$			314.8(5)***				
연령							
0세	99.7	0.3	–	–	–	–	100.0(424)
1세	97.8	1.7	0.6	–	–	–	100.0(515)
2세	91.8	6.7	1.1	0.5	–	–	100.0(435)
3세	86.6	9.8	1.7	1.6	0.3	–	100.0(442)
4세	77.1	15.2	5.6	1.4	0.5	0.2	100.0(556)
5세	67.6	20.2	8.0	2.9	0.8	0.5	100.0(1,099)
$x^2(df)$			423.0(25)***				
지역규모							
대도시	82.2	11.3	4.4	1.6	0.5	0.1	100.0(1,565)
중소도시	82.3	11.8	3.6	1.6	0.5	0.2	100.0(1,324)
읍·면	79.7	14.3	4.7	1.1	–	0.3	100.0(582)
$x^2(df)$			14.7(10)				
모취업 여부							
취업	78.9	14.3	4.8	1.3	0.4	0.4	100.0(1,340)
휴직중	81.9	11.9	4.1	1.5	0.4	0.2	100.0(430)
미취업	84.3	10.0	3.5	1.7	0.4	–	100.0(1,670)
부재 등	85.6	9.7	3.2	1.5	–	–	100.0(31)
$x^2(df)$			42.3(15)***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9.1	5.7	4.1	1.2	–	–	100.0(196)
250~299만원	90.4	8.4	0.7	–	0.5	–	100.0(198)
300~349만원	82.4	12.4	3.1	1.8	0.1	0.1	100.0(480)
350~399만원	81.5	13.6	1.7	2.7	0.5	–	100.0(311)
400~499만원	80.7	10.8	6.0	2.1	0.1	0.3	100.0(675)
500~599만원	81.0	14.2	3.6	1.0	–	0.3	100.0(655)
600~699만원	80.0	12.5	5.3	0.9	1.4	–	100.0(349)
700만원이상	79.6	12.3	5.1	1.6	0.9	0.4	100.0(560)
모름/무응답	88.7	9.7	1.5	–	–	–	100.0(47)
$x^2(df)$			60.1(40)**				
2018년	80.4	10.6	6.5	1.6	0.6	0.3	100.0(3,775)
2015년	83.4	9.1	5.5	1.4	0.5	0.1	100.0(3,560)
2012년	66.2	15.5	13.5	3.6	0.6	0.4	100.0(3,343)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64-565. 〈표 Ⅹ-3-3〉.

** $p < .01$, *** $p < .001$.

나. 개별교육 이용비용

1) 아동연령별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이 월평균 164,1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신교육 101,900원, 교재교구활용 93,600원, 학습지 84,900원 순이었다. 영아보다는 유아의 평균 월평균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통신교육의 경우에는 영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학습지와 교재교구활용의 경우 0세를 제외한 연령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습지의 경우 1세에서 106,900원으로 학습지 전체 평균비용인 84,900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교육의 비용은 3세에서 120,300원으로 전체 평균비용 101,900원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연령별로 개별교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특정 연령에서 높은 비용을 나타내는 것은 연령에 따른 개별교육 선호도나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와 비교해볼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개별교육 이용비용이 늘었으며, 특히 개별 또는 그룹지도, 통신교육 이용비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재교구 활용 이용비용은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표 X-3-4〉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년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21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109.0	172.5	-	102.0	114.1	83.6	186.5	185.7	164.1
		(수)	(11)	(73)	-	(6)	(5)	(8)	(18)	(47)	(84)
	학습지	평균	76.0	85.4	-	106.9	69.9	69.9	83.5	89.0	84.9
		(수)	(20)	(402)	-	(5)	(15)	(43)	(86)	(273)	(422)
	교재교구 활용	평균	62.6	99.5	100.0	104.2	55.0	103.2	87.9	103.1	93.6
		(수)	(15)	(89)	(1)	(3)	(11)	(15)	(23)	(51)	(104)
	통신교육	평균	53.6	103.9	-	15.0	67.1	120.3	89.1	106.8	101.9
		(수)	(4)	(66)	-	(1)	(3)	(4)	(16)	(46)	(70)
2018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94.8	157.1	-	79.9	99.8	160.6	118.8	171.1	148.5
		(수)	(12)	(68)	-	(4)	(8)	(9)	(17)	(42)	(80)
	학습지	평균	65.4	75.5	60.0	68.5	65.1	74.2	69.4	78.7	74.9
		(수)	(33)	(551)	(1)	(6)	(26)	(89)	(146)	(316)	(584)

년도	구분		영유아구분		연령						전체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교재교구 활용	평균	88.0	96.8	32.6	93.0	94.2	93.3	112.9	91.5	94.3
		(수)	(23)	(55)	(2)	(5)	(16)	(16)	(14)	(25)	(78)
	통신교육	평균	87.9	79.8	–	30.0	150.0	159.0	30.2	74.3	80.9
		(수)	(2)	(11)	–	(1)	(1)	(2)	(2)	(7)	(13)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6. 〈표 X-3-4〉.

2) 부모 및 가구특성별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평균 이용비용은 개별교육 종류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월 평균비용이 높은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 가구소득이 600~699만원인 경우에 월 평균 222,1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소득이 300~349만원인 가구에서도 월 평균 170,600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가구소득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가구소득 250~299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통신교육, 개별 또는 그룹지도, 교재교구활용, 학습지 순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가구소득 400~499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교재교구활용, 개별 또는 그룹지도, 통신교육, 학습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소득 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 통신교육, 교재교구 활용, 학습지의 순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에 따라 개별교육 유형에 대한 이용비용의 지출 순위도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표 X-3-5〉 개별교육 이용 아동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249만원 이하	250~ 299만원	300~ 349만원	350~ 399만원	400~ 499만원	500~ 599만원	600~ 699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79.5	107.5	170.6	92.9	98.3	205.6	222.1	155.8	–
	(수)	(3)	(3)	(4)	(3)	(16)	(19)	(16)	(20)	–
학습지	평균	90.0	68.5	86.6	92.6	90.4	74.7	72.8	90.8	106.7
	(수)	(15)	(9)	(57)	(39)	(92)	(93)	(42)	(70)	(5)
교재교구 활용	평균	80.6	80.2	75.3	73.1	106.1	90.7	84.6	104.0	–
	(수)	(3)	(3)	(10)	(9)	(17)	(22)	(9)	(31)	–

구분		249만원 이하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통신	평균	-	135.2	108.4	75.2	95.4	103.7	74.6	111.4	-
교육	(수)	-	(2)	(14)	(6)	(12)	(17)	(5)	(14)	-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8. 〈표 X-3-7〉.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가구별 월평균 이용비용은 108,700원이었으며, 이는 2018년 월평균 이용비용 93,000원보다 15,700원 정도 상승한 수치이다. 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5~1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15만원 28.3%, 5만원 미만 20.2%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84,400원)보다는 유아(110,800원)의 월평균 비용이 높았고, 읍·면지역 거주 영유아의 지출이 103,300원으로 대도시(108,800원), 중소도시(110,900원)에 비해 낮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미취업중인 경우 11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취업이거나(108,000원) 휴직 중인 경우(93,700원)에 비해 개별교육 비용 지출 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개별교육 월 평균 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개별교육 월 평균 이용비용은 2012년(65,900원)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에는 75,900원, 2018년에는 93,000원이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한 108,700원이다. 또,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응답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이용비용이 5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012년(44.7%) 이후로 2015년에는 33.7%, 2018년 29.4%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X-3-6〉 부모 및 가구 특성별 개별교육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명), 천원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0.2	31.0	28.3	9.0	7.2	4.3	100.0(598)	108.7
영유아구분								
영아	43.1	14.9	26.3	8.9	5.6	1.2	100.0(44)	84.4
유아	18.2	32.4	28.5	9.1	7.3	4.6	100.0(554)	110.8
연령								
0세	-	-	100.0	-	-	-	100.0(1)	100.0
1세	8.3	28.0	39.2	11.7	12.8	-	100.0(13)	111.7
2세	52.5	12.0	21.7	8.4	3.9	1.6	100.0(30)	77.4
3세	29.0	34.9	18.0	7.4	8.7	2.0	100.0(61)	92.4
4세	19.6	32.2	29.7	8.8	5.8	3.8	100.0(127)	104.1

구분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수)	평균
5세	15.5	32.0	30.1	9.5	7.6	5.3	100.0(366)	116.8
지역규모								
대도시	17.3	36.6	25.7	7.4	8.8	4.1	100.0(266)	108.8
중소도시	21.5	27.9	30.2	9.6	5.9	4.9	100.0(230)	110.9
읍·면	23.7	25.5	29.7	11.4	6.5	3.2	100.0(102)	103.3
모취업 여부								
취업	17.0	33.6	30.2	9.6	5.5	4.1	100.0(296)	108.0
휴직중	26.9	31.9	29.9	4.7	4.1	2.5	100.0(62)	93.7
미취업	22.3	27.2	25.6	9.5	10.2	5.2	100.0(235)	114.0
부재 등	–	53.5	23.3	23.3	–	–	100.0(5)	99.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3.2	51.4	13.8	21.6	–	–	100.0(19)	95.3
250-299만원	17.2	43.9	22.4	–	16.6	–	100.0(15)	97.0
300-349만원	18.9	39.0	24.1	8.2	8.5	1.2	100.0(74)	100.0
350-399만원	21.3	28.3	32.5	9.9	8.0	–	100.0(51)	97.0
400-499만원	22.1	25.0	33.2	9.2	7.1	3.3	100.0(123)	103.2
500-599만원	20.5	33.3	25.6	6.3	8.0	6.3	100.0(131)	110.4
600-699만원	22.7	23.9	33.9	10.1	3.3	6.1	100.0(68)	110.0
700만원 이상	18.3	30.2	25.2	10.9	7.8	7.6	100.0(112)	126.4
모름/무응답	17.8	20.6	61.6	–	–	–	100.0(5)	106.7
2018년	29.4	35.8	20.2	7.6	4.4	2.7	100.0 (698)	93.0
2015년	33.7	45.5	11.2	5.3	3.4	0.9	100.0(521)	75.9
2012년	44.7	38.7	11.7	3.0	1.6	0.3	100.0(1,053)	65.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66-567. 〈표 X-3-5〉.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 프로그램과 통신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개별교육에서 조금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취업 여부별로는 교재교구 활용을 제외하고는 미취업모 가구의 영유아가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보다 전반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일반적인 경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표 X-3-5, X-3-6 참조). 2018년에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 응답이 148,5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재교구활용(94,300원), 통신교육(80,900원), 학습지(74,900원) 순이었는데 반해, 2021년의 응답 비중은 개별 또는 그룹지도 응답(164,100원), 통신교육(101,900원), 교재교구활용(93,600원), 학습지(84,900원) 순으로 나타나났다.

〈표 X-3-7〉 개별교육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년도	구분		지역규모			모취업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부재 등	
2021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149.0	192.9	142.4	131.9	149.6	225.9	-	164.1
		(수)	(35)	(27)	(22)	(49)	(8)	(27)	-	(84)
	학습지	평균	86.4	83.8	84.3	85.7	76.4	86.3	86.5	84.9
		(수)	(184)	(171)	(67)	(209)	(38)	(172)	(3)	(422)
	교재교구 활용	평균	93.9	98.4	65.8	97.3	88.8	89.4	115.0	93.6
		(수)	(58)	(38)	(8)	(52)	(14)	(36)	(2)	(104)
	통신교육	평균	106.4	104.2	91.9	105.3	83.1	103.0	-	101.9
		(수)	(28)	(25)	(17)	(29)	(8)	(33)	-	(70)
2018	개별 또는 그룹지도	평균	154.2	149.9	89.7	164.2	66.6	140.7	113.2	148.5
		(수)	(45)	(21)	(14)	(35)	(3)	(40)	(2)	(80)
	학습지	평균	68.4	80.4	76.8	77.1	63.5	72.9	85.1	74.9
		(수)	(217)	(181)	(186)	(300)	(15)	(261)	(8)	(584)
	교재교구 활용	평균	88.9	107.6	73.0	110.7	66.8	74.3	50.0	94.3
		(수)	(40)	(22)	(16)	(46)	(9)	(22)	(1)	(78)
	통신교육	평균	68.5	78.4	188.8	89.1	159.0	50.0	-	80.9
		(수)	(5)	(6)	(2)	(7)	(1)	(5)	-	(13)

주: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8. 〈표 X-3-6〉.

다. 개별교육 이용 만족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3.7점~4.3점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4.3점으로 가장 높고, 교재교구활용교육 4.0점, 학습지 3.9점, 통신교육은 3.7점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할 때,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교재교구 활용, 통신교육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X-3-8〉 개별 교육 프로그램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SD)	계(수)	5점 평균	
								2018년	2015년
개별 또는 그룹지도	-	1.9	11.8	44.1	42.2	4.3(0.7)	100.0(84)	4.1	4.0
학습지	0.4	0.9	30.0	49.5	19.2	3.9(0.7)	100.0(422)	3.7	3.7
교재교구활용	-	0.8	27.3	43.8	28.1	4.0(0.8)	100.0(104)	4.1	3.9
통신교육	-	6.6	31.2	49.5	12.7	3.7(0.8)	100.0(70)	3.9	3.9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69. 〈표 X-3-8〉.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통신교육 프로그램에서 유아보다는 영아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교육은 유아(3.7점)보다는 영아(3.8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학습지 만족도가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지역규모별로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서 중소도시의 만족도가 4.5로 대도시(4.1), 읍·면지역(4.1)보다 크게 높았으며 통신교육의 만족도는 대도시(3.8)와 중소도시(3.8)가 읍·면 지역(3.4)보다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에서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일관성 있는 경향은 없었으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통신교육에 대한 만족 점수가 가장 낮았고,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가구에서 교재교구활용 만족도가 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에는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가 4.1점, 3.7점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각각 4.3점, 3.9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교재교구활용과 통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각각 4.1점, 3.9점)에 비해 2021년에(각각 4.0점, 3.7점) 더 낮아졌다.

〈표 X-3-9〉 제 특성별 개별 교육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명)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전체	4.3	3.9	4.0	3.7
영유아구분				
영아	4.1	3.7	3.7	3.8
유아	4.3	3.9	4.0	3.7
t	0.7	-0.4	-0.8	0.7

구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학습지	교재교구활용	통신교육
연령				
0세			4.0	-
1세	3.7	4.5	4.0	4.0
2세	4.3	3.6	3.7	3.7
3세	4.5	4.0	4.1	4.2
4세	4.1	3.8	4.2	3.4
5세	4.3	3.9	4.0	3.7
F	0.6	1.5	0.5	0.6
지역규모				
대도시	4.1	3.8	4.0	3.8
중소도시	4.5	3.9	4.0	3.8
읍·면	4.1	3.9	3.9	3.4
F	1.4	0.2	0.7	1.2
모취업 여부				
취업	4.3	3.8	4.1	3.7
휴직중	3.6	4.0	3.8	3.9
미취업	4.3	3.9	3.9	3.6
부재 등	-	3.6	5.0	-
F	3.2*	0.5	1.2	0.5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4.7	3.6	4.6	-
250~299만원	3.7	4.0	4.2	4.0
300~349만원	5.0	3.9	3.5	3.6
350~399만원	4.6	3.9	4.1	3.6
400~499만원	4.2	3.9	3.6	4.0
500~599만원	4.1	3.8	4.2	3.8
600~699만원	4.5	3.7	3.9	3.6
700만원 이상	4.2	3.9	4.2	3.3
모름/무응답	-	4.3	-	-
F	1.8	0.5	2.0	1.4
(수)	(84)	(422)	(104)	(70)
2018년	4.1	3.7	4.1	3.9
2015년	4.0	3.7	3.9	3.9
2012년	3.9	3.8	4.0	3.8

주: 1)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5점 평균은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역코딩하여 산출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69-570. 〈표 X-3-9〉.
** p 〈 .01.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시간제 교육 및 개별교육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에서 '체육 관련' 시간제 학원이나 개별 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11.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대상 영유아 중 78.9%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할 경우 '1개' 이용 중인 경우가 11.3%로 가장 높았고, '2개' 4.7%, '3개' 3.2%, '4개' 1.3%, '5개 이상' 0.6% 순으로 응답했다. 이용 비율 및 이용 프로그램의 수는 연령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3세 이상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읍·면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 시간제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제 교육 프로그램 이용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이 2018년도에는 22.3% 정도였던 것에 비해 1.2%p 정도 감소했다.

시간제 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에 있어서 각 프로그램별 부모의 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영어'가 149.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능(미술, 음악)' 126.7천원, '체육 관련' 124.8천원,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114.3천원, '기타' 110.3천원, '수학/과학 관련'이 101.4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교육의 경우 2018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그 이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지와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 2018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교육은 대부분 방문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개별 또는 그룹지도의 경우도 대면방식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2020~2021년에 코로나 19의 확산이 대면방식 교육을 크게 축소시킨 사유가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유아의 개별교육 서비스의 이용 개수를 살펴 본 결과, 영유아들은 대체로 개별교육을 이용하지 않거나 2개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교육에 대한 연령별 비용에서 가정보육 비율이 가장 높은 0세가 학습지와 교재교구 활용에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연령(1~5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모 취업 가구에서 개별교육 이용 비율과 이용 개수가 더 많은 반면 가구소득에 따른 개별교육 이용 비율과 이용비용에 대한 경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가구소득과 개별교육 이용 비용간의 경향성이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은 영유아를 양

육하는 가구에서 개별교육 이용은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재의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의 개별교육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를 통해 신규 혹은 추가 출산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개별교육 서비스의 만족도는 2018년과 비교할 때, 개별 또는 그룹지도와 학습지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교재교구 활용, 통신교육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개별교육 서비스의 제 특성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재교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유아보다는 영아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교육은 영아의 만족도가 유아보다는 상당히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통신교육의 만족도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읍·면 지역보다 높았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영유아의 바깥 활동의 기회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환경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통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의 내용이나 질 보다는 통신 교육도구를 활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만족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신교육의 이용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영유아 가정에서 건전하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수준의 국가적 기준과 심의 도입과 적용이 요구된다.

XI

육아정책 관련 인식

0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0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0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0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0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06 시사점

Ⅺ. 육아정책 관련 인식

제11장에서는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인식, 보육교육서비스의 접근성,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지와 이용, 그리고 육아지원에 관한 의견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가구의 인식과 공감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2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에 관한 의견, 제3절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대한 인지, 제4절에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인식 및 만족도, 제5절에서는 육아지원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각각 다루었다.

1.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 육아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영유아부모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부담 의향 등 영유아 가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필요한 정도를 표하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가 평균 6.2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6.1점, '영유아가구 양육비 경감 지원 확대'와 '육아서비스 질 제고'가 각각 6.0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는 '가정 양육 지원 확대'로 5.7점이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필요성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전히 높은 항목의 순위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Ⅺ-1-1〉 영유아 가구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단위: %(명), 점

구분	필요성 점수 (7점 척도)							계(수)	평균	2018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확대	0.6	0.8	1.7	11.1	17.6	23.7	44.4	100.0(2,500)	5.9	6.0
영유아가구 양육비 경감 지원확대	0.7	1.1	2.2	8.2	17.3	21.7	48.9	100.0(2,500)	6.0	6.1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	0.5	1.2	1.4	8.9	16.1	25.1	46.8	100.0(2,500)	6.0	6.2
가정 양육 지원 확대	0.7	1.6	3.7	12.5	19.5	21.7	40.3	100.0(2,500)	5.7	6.0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 다양화	0.7	0.8	2.4	10.6	17.9	23.9	43.6	100.0(2,500)	5.9	6.1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0.7	1.2	1.1	8.2	12.6	19.8	56.5	100.0(2,500)	**6.2**	6.3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1.0	1.1	1.5	8.8	12.5	20.4	54.6	100.0(2,500)	**6.1**	6.2

주: 1) 7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평균의 표준편차는 1.2~1.3 범위에 모두 있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577. 〈표 Ⅺ-1-1〉.

가. 보육료 부모 자부담 의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가구의 49.5%로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7%로, 2018년과 비교하여 자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잘 모름'의 응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는 응답 가구의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료를 자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응답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54.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부담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모휴직/모취업 집단에서 자부담 의사가 좀 더 높게 응답되었다.

〈표 Ⅺ-1-2〉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

단위: %(명)

구분	없다	있다	잘 모름	계(수)	$x^2(df)$
전체	24.8	49.5	25.7	100.0(1,16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0.2	25.5	24.3	100.0(823)	0.4(2)

구분	없다	있다	잘 모름	계(수)	$x^2(df)$
유아	48.1	23.5	28.3	100.0(337)	
지역규모					
대도시	27.4	47.6	25.0	100.0(509)	
중소도시	22.6	54.0	23.4	100.0(455)	13.9(4)**
읍·면	24.4	42.3	33.3	100.0(196)	
모취업 여부					
취업	22.6	53.4	24.1	100.0(529)	
휴직	26.2	53.6	20.3	100.0(100)	12.0(6)
미취업	27.1	44.6	28.3	100.0(520)	
부재 등	33.4	32.3	34.4	100.0(11)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30.2	25.5	44.3	100.0(66)	
250~299만원	28.7	35.5	35.8	100.0(61)	
300~349만원	29.1	40.5	30.4	100.0(167)	
350~399만원	27.4	42.9	29.7	100.0(97)	
400~499만원	35.7	42.8	21.4	100.0(225)	63.2(16)***
500~599만원	18.9	55.4	25.8	100.0(219)	
600~699만원	20.2	54.9	24.9	100.0(130)	
700만원 이상	15.7	67.8	16.5	100.0(180)	
모름/무응답	38.7	41.1	20.2	100.0(15)	
2018년	38.3	44.0	17.7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78-579. 〈표 XI-1-2〉.
** $p < .01$, *** $p < .001$.

2. 영유아 보육·교육 인프라 관련 인식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질적 충분성 인식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충분성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XI-2-1〉과 같다.

근거리에 보낼 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은 42.7%, 유치원은 28.8%로 응답하였고, '불충분하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40.9%와 48.6%로 나타났다. 2015-2018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불충분'의 응답이 모두 감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줄고 '잘 모름'의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불충분의 의견이 40% 이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유치원의 경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감소하였으나) 불충분 응답이 우세하여 유치원 부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서는 '1~2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양 기관에서 가장 높아, 어린이집은 56.0%, 유치원은 47.1%로 나타났다. 2015-2018년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고, '1~2곳 있다',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모두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Ⅺ-2-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반적 설치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2021년								
어린이집	40.9	42.7	16.4	8.8	56.0	10.8	24.4	100.0(2,500)
유치원	48.6	28.8	22.7	11.0	47.1	8.8	33.2	100.0(2,500)
2018년								
어린이집	44.5	45.0	10.5	14.0	60.2	9.8	16.1	100.0(2,533)
유치원	55.4	27.7	16.9	16.5	54.1	6.0	23.4	100.0(2,533)
2015년								
어린이집	37.3	51.8	10.8	12.1	60.2	13.7	14.0	100.0(2,593)
유치원	46.5	33.7	19.8	13.8	49.9	9.6	26.7	100.0(2,593)
2012년								
어린이집	36.9	57.1	6.0	18.1	62.2	10.3	9.3	100.0(2,528)
유치원	49.4	38.5	12.1	21.0	55.8	6.1	17.1	100.0(2,52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82-583. 〈표 Ⅺ-2-1〉.

1) 어린이집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대)도시지역, 기관미이용 부모에서 많았으며, 어린이집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영아부모, 읍면지역,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600만원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에 대해 '없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유아부모, 가구소득 249만원이하 저소득가구에서 많았으며, '1~2곳 있음' 응답은 유아부모, 취업모와 모부재 가구, 가구소득 600만원이상에서 많았다. 전반적으로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에 대해 '잘 모름'의 응답이 약 1/4에 해당하고, '없음' 응답이 저소득가구와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2018년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5.0%, '불충분하다' 응답은 44.5%로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였는데, 2021년에도(각각 42.7%, 40.9%)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잘 모름'의 응답이 2018년(10.5%)에 비해 2021년 16.4%로 증가했다. 또, 믿고 보낼만한 기관에 대해 '없다'는 응답과 '1~2곳 있다'는 응답이 2018년(각각 14.0%, 60.2%)에 비해 2021년(8.8%, 56.0%)에 감소했다. 한편, '많다'는 응답과 '잘 모른다'는 응답은 2018년에 각각 9.8%, 16.1%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 각각 10.8%, 24.4%로 증가하였다.

〈표 Ⅺ-2-2〉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40.9	42.7	16.4	8.8	56.0	10.8	24.4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8.6	44.9	16.5	8.9	54.0	10.1	27.0	100.0(1,450)
유아	47.4	36.2	16.4	13.1	58.4	7.3	21.2	100.0(1,050)
$x^2(df)$		13.8(2)**			17.8(3)***			
지역규모								
대도시	44.6	40.5	14.9	8.9	56.7	11.8	22.5	100.0(1,141)
중소도시	39.5	42.8	17.7	8.6	54.7	9.4	27.3	100.0(952)
읍·면	34.6	48.5	16.9	8.9	57.9	12.0	21.2	100.0(407)
$x^2(df)$		16.5(4)**			8.8(6)			
모취업 여부								
취업	40.2	45.6	14.1	6.4	61.2	12.5	19.9	100.0(997)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휴직	49.3	32.3	18.4	14.0	49.5	5.7	30.8	100.0(303)
미취업	39.2	43.3	17.5	9.6	53.0	10.9	26.5	100.0(1,174)
부재 등	29.7	30.2	40.1	3.0	61.9	7.7	27.4	100.0(26)
$x^2(df)$		26.0(6)***			50.6(9)***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0	43.7	21.4	26.9	50.2	8.2	19.4	100.0(147)
250~299만원	39.8	41.4	18.8	6.0	53.2	7.3	33.5	100.0(146)
300~349만원	35.4	44.0	20.6	9.1	44.8	14.3	31.9	100.0(350)
350~399만원	34.1	44.3	21.6	8.0	56.2	6.9	28.9	100.0(226)
400~499만원	42.4	41.3	16.3	6.3	61.0	9.3	23.5	100.0(474)
500~599만원	43.3	40.3	16.4	9.4	53.4	11.6	25.6	100.0(480)
600~699만원	38.6	45.8	15.6	5.0	62.5	10.9	21.6	100.0(240)
700만원 이상	49.1	41.4	9.4	10.1	63.2	12.5	14.2	100.0(406)
모름/무응답	27.3	46.6	26.1	7.8	56.4	20.5	15.2	100.0(31)
$x^2(df)$		31.6(16)*			69.4(24)***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0.8	48.3	10.9	6.8	64.6	12.3	16.3	100.0(970)
유치원만 이용	34.9	46.6	18.5	5.5	59.1	12.6	22.8	100.0(737)
둘 다 이용	37.4	58.1	4.4	3.6	66.3	20.0	10.1	100.0(190)
미이용	48.1	28.4	23.5	15.9	39.6	5.4	39.2	100.0(603)
$x^2(df)$		118.4(6)***			251.2(9)***			
2018년	44.5	45.0	10.5	14.0	60.2	9.8	16.1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84-585. 〈표 Ⅺ-2-2〉.
* $p < .05$, ** $p < .01$, *** $p < .001$.

2) 유치원 공급수준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유치원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유치원의 공급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8.8%인 반면 '불충분하다'는 48.6%로 조사되었고, 믿고 보낼만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1~2곳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믿고 보낼만한 유치원이 '없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대)도시지역, 기관미이용 부모에서 많았으며,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응답 또한 유아부모, 읍면지역, 취업모, 두 기관

다 이용하는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유아부모, 기관 미이용그룹에서 많았으며, '1~2곳 있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잘 모름 응답은 영아부모,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유치원이 '충분하다'는 응답(28.8%)은 2018년(27.7%)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2015년(33.7%) 보다는 적었다. '불충분하다'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또. '믿고 보낼만한 유치원'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015년(13.8%)과 2018년(16.5%)에 비해 11.0%로 적었다. '1~2곳 있다'는 응답도 2015년(49.9%), 2018년(54.1%), 2021년(47.1%)로 2021년에 가장 적었다. '많다'는 응답은 2021년(8.8%)에 2015년(9.6%)보다는 적지만, 2018년(6.0%)에 비해 증가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2021년 33.2%로 2015년(26.7%)과 2018년(23.4%)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Ⅺ-2-3〉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전체	48.6	28.8	22.7	11.0	47.1	8.8	33.2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7.3	22.0	30.7	6.7	36.5	12.4	44.4	100.0(1,450)
유아	50.1	36.7	13.2	11.2	59.4	9.3	20.1	100.0(1,050)
$x^2(df)$	92.0(2)***			38.9(16)**				
지역규모								
대도시	53.0	25.9	21.1	11.7	49.4	8.3	30.6	100.0(1,141)
중소도시	46.0	29.9	24.1	10.2	44.0	9.0	36.8	100.0(952)
읍·면	43.7	33.4	23.0	11.0	49.5	9.3	30.3	100.0(407)
$x^2(df)$	8.4(4)			15.8(6)*				
모취업 여부								
취업	49.0	32.1	18.9	10.3	52.2	10.7	26.9	100.0(997)
휴직	53.3	16.5	30.2	13.3	37.3	3.6	45.7	100.0(303)
미취업	47.1	29.4	23.6	11.0	45.0	8.5	35.5	100.0(1,174)
부재 등	34.8	27.1	38.1	6.3	60.2	7.7	25.7	100.0(26)
$x^2(df)$	30.1(6)***			49.5(9)***				
가구소득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있음	많음	잘 모름	
249만원 이하	29.2	39.4	31.4	4.4	35.3	15.7	44.6	100.0(147)
250~299만원	43.1	26.3	30.6	7.6	36.6	5.8	49.9	100.0(146)
300~349만원	43.5	29.8	26.8	11.8	37.6	11.2	39.4	100.0(350)
350~399만원	45.0	29.6	25.4	9.3	48.4	4.5	37.8	100.0(226)
400~499만원	50.5	29.3	20.2	9.8	51.6	8.3	30.3	100.0(474)
500~599만원	48.8	27.5	23.7	11.9	45.7	9.0	33.4	100.0(480)
600~699만원	47.6	32.4	20.0	4.8	53.8	10.2	31.2	100.0(240)
700만원 이상	57.1	27.3	15.7	14.0	53.3	11.1	21.5	100.0(406)
모름/무응답	49.5	24.2	26.3	16.3	47.9	4.5	31.3	100.0(31)
$x^2(df)$	115.5(3)***			92.1(24)***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8.7	25.0	26.3	12.5	41.1	7.5	38.8	100.0(970)
유치원만 이용	50.6	41.7	7.7	5.7	70.3	12.4	11.6	100.0(737)
둘 다 이용	49.8	45.8	4.4	6.4	61.8	20.9	10.8	100.0(190)
미이용	45.9	16.9	37.3	15.3	27.2	4.4	53.1	100.0(603)
$x^2(df)$	259.2(6)***			423.4(9)***				
2018년	55.4	27.7	16.9	16.5	54.1	6.0	23.4	100.0(2,533)
2015년	46.5	33.7	19.8	13.8	49.9	9.6	26.7	100.0(2,5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85-586. 〈표 Ⅺ-2-3〉.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여성가족부의 주관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시간제 돌봄이 52.8%, 종일제 돌봄 53.9%이나,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는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인지율 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시간제 돌봄이 8.1%로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이었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4.7%,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는 0.8%로 가장 낮았으나, 2015년에 대비각 유형별 서비스 이용률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XI-2-4〉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경험

단위: %(명)

구분	이용 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2021년 조사					
시간제 돌봄	2.8	5.3	52.8	39.1	100.0(2,500)
영아종일제 돌봄	1.9	2.8	53.9	41.4	100.0(2,500)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2	0.6	43.4	55.8	100.0(2,500)
2018년 조사					
시간제 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 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조사					
시간제 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 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2012년 조사					
시간제 돌봄	1.1	3.5	95.4	-	100.0(1,468)
영아종일제 돌봄	0.2	1.9	97.9	-	100.0(1,4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87. 〈표 XI-2-4〉.

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1) 시간제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전혀 모름' 46.2%, '들어본적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41.2%, '알고 있으나 이용경험 없음' 9.4%, 그리고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유아 부모, 대도시지역, 부모 연령이 많을수록 시간제보육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이하 부모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모름 52.6%)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6.2%로 2015년(40.0%)과 2018년(35.9%)에 비해 증가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41.2%로 2015년(25.4%)

과 2018년(21.5%)에 비해 증가했다. 한편,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4%로 2015년(31.3%), 2018년(35.4%)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로 2015년(3.3%)과 2018년(7.1%)에 비해 낮았다.

〈표 Ⅺ-2-5〉 영아 대상 시간제보육반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 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계(수)
전체	46.2	9.4	41.2	3.2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8.9	7.7	40.5	2.8	100.0(1,231)
유아	43.8	10.8	41.9	3.5	100.0(1,269)
$x^2(df)$		6.6(3)			
지역규모					
대도시	47.3	8.7	40.6	3.5	100.0(1,141)
중소도시	44.0	11.1	41.8	3.1	100.0(952)
읍·면	49.1	6.7	41.4	2.9	100.0(407)
$x^2(df)$		7.8(6)			
모연령					
29세 이하	52.6	6.0	40.2	1.2	100.0(215)
30~34세	46.4	9.7	41.2	2.6	100.0(706)
35~39세	45.3	10.1	40.9	3.7	100.0(1,042)
40~44세	44.4	9.6	42.6	3.4	100.0(455)
45세 이상	44.2	6.6	44.7	4.5	100.0(66)
모 부재	72.8	–	17.3	9.9	100.0(16)
$x^2(df)$		15.1(15)			
모취업 여부					
취업	43.1	10.7	42.9	3.3	100.0(997)
휴직중	50.7	8.4	37.7	3.2	100.0(303)
미취업	47.2	8.7	41.1	3.0	100.0(1,174)
부재 등	66.5	1.6	24.7	7.2	100.0(26)
$x^2(df)$		8.9(9)			
2018년	35.9	35.4	21.5	7.1	100.0(2,533)
2015년	40.0	31.3	25.4	3.3	100.0(2,593)

자료: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88-589. 〈표 Ⅺ-2-5〉.

2) 시간제보육 인지 경로

시간제보육 인지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에 대해 알게된 경로를 질문한 결과, '맘카페/밴드 등 인터넷 모바일 매체' 3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 24.5%로 나타났다. 지인의 소개 18.0%, 시간제보육 기관 홍보물 16.2%, 보건복지부/지자체 홍보물 8.4%로 홍보물에 의해 알게된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 알게된 경로에 차이가 있어, (대)도시지역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과 '보건복지부/지자체 홍보물'을 통해 알게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시간제보육 기관 홍보물', '맘카페/밴드 등 인터넷 모바일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중소도시의 경우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고, '맘카페/밴드 등 인터넷 모바일 매체'는 14.8% 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 '맘카페/밴드 등 인터넷 모바일 매체'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표 Ⅺ-2-6〉 거주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알게 된 경로

단위: %, (명)

구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홍보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전체	24.5	8.4	16.2	30.9	18.0	2.0	100.0(1,38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7.4	9.3	12.8	30.8	17.2	2.5	100.0(653)
유아	22.2	7.7	18.9	31.0	18.6	1.7	100.0(727)
$x^2(df)$			10.0(5)				
지역규모							
대도시	28.1	10.5	16.6	28.3	14.6	1.8	100.0(615)
중소도시	23.1	7.0	15.2	31.0	22.2	1.6	100.0(551)
읍·면	18.4	6.8	18.3	38.0	14.5	4.0	100.0(214)
$x^2(df)$			25.3(10)**				
모취업 여부							
취업	25.9	7.2	18.9	30.3	15.6	2.0	100.0 (578)

구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홍보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홍보물	맘카페, 밴드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	지인의 소개	기타	계(수)
휴직중	25.9	10.0	17.5	27.8	16.6	2.4	100.0(162)
미취업	22.9	9.0	13.1	32.3	20.7	1.9	100.0(629)
부재 등	4.8	15.3	26.3	31.5	22.2	-	100.0(11)
$x^2(df)$			13.7(15)				
2018년	31.6	8.5	19.0	14.8	21.4	4.7[1)]	100.0(424)

주: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의 경우 '이용보육기관(2.5)', '기타(2.2)' 항목으로 보고되어 이를 2021년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589. 〈표 XI-2-6〉.
** $p < .01$.

시간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들 중 42.1%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시간제보육 이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4.1%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 종일 보육 이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경우 아이가 어려서 종일보육 이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도시지역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이 필요했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슷한 경향성이 모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나타났는데 미취업이나 휴직의 경우는 긴급상황시 시간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취업모의 경우는 자녀가 어려서 시간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지역규모나 모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되지는 못했다. 2018년 결과에 비해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응답비율은 높아지고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 부담'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XI-2-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 부담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향후 종일제 기관 이용할 생각	기타	계(수)
전체	24.1	14.8	42.1	15.8	3.2	100.0(101)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9.9	14.9	27.6	22.0	5.6	100.0(46)
유아	20.2	14.7	52.0	11.5	1.6	100.0(55)

구분	아이가 어려서 종일 이용 부담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향후 종일제 기관 이용할 생각	기타	계(수)
$x^2(df)$			7.0(4)			
지역규모						
대도시	17.4	13.9	50.4	16.6	1.7	100.0(44)
중소도시	17.7	15.3	41.0	20.1	5.9	100.0(42)
읍·면	65.5	16.1	18.4	-	-	100.0(15)
$x^2(df)$			13.5(8)			
모취업 여부						
취업	37.4	9.7	32.0	15.1	5.8	100.0(43)
휴직중	3.3	9.5	83.7	3.5	-	100.0(11)
미취업	15.7	20.0	41.5	21.0	1.8	100.0(45)
부재 등	57.2	42.8	-	-	-	100.0(2)
$x^2(df)$			12.3(12)			
2018년	27.9	24.4	40.7	4.5	2.7	100.0(18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91. 〈표 XI-2-7〉.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다수인 62%가 종일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4.3%는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하여 여전히 홍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집에서 멀어서 3.7%, 신청절차가 어려워서 1.6%, 비용부담 1.2% 등은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고, 아이가 낯설어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8.8%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모취업여부는 시간제보육 미이용 이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과 2021년 모두 '종일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응답이 각각 71.0%, 62.0%로 가장 많았지만, 수치는 감소했다. 한편, '제도를 몰라서'라는 응답은 2018년 2.6%였는데, 2021년에는 14.3%로 크게 증가했다.

〈표 Ⅺ-2-8〉 시간제보육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종일 돌보는 사람/기관 있음	아이가 낯설어함	집에서 멀어서	제도를 몰라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음	신정절차 어려움	비용 부담	기타	계(수)
전체	62.0	8.8	3.7	14.3	4.4	1.6	1.2	4.0	100.0(1,279)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57.5	9.8	4.9	14.9	3.6	2.1	2.3	4.8	100.0(607)
유아	65.5	8.0	2.7	13.9	5.0	1.2	0.3	3.4	100.0(672)
$x^2(df)$				13.4(7)					
지역규모									
대도시	63.5	9.8	2.5	14.6	3.8	1.7	0.6	3.5	100.0(571)
중소도시	59.7	7.6	5.0	15.5	5.1	1.8	1.9	3.5	100.0(509)
읍·면	65.1	9.6	2.9	10.1	4.0	0.8	0.8	6.9	100.0(199)
$x^2(df)$				17.0(14)					
모취업 여부									
취업	59.6	7.7	3.5	16.8	6.0	1.8	0.8	3.9	100.0(535)
휴직중	62.5	8.0	3.8	9.7	4.9	1.5	1.8	7.8	100.0(151)
미취업	64.1	10.0	3.9	13.3	2.7	1.5	1.5	3.2	100.0(584)
부재 등	73.8	16.4	–	–	9.7	–	–	–	100.0(9)
$x^2(df)$				19.3(21)					
2018년	71.0	8.3	3.8	2.6	8.4	3.3	1.5	1.0	100.0(1,471)

주: 2018년 수치는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592-593. 〈표 Ⅺ-2-8〉.

3)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향후 시간제보육 이용 의사를 질문했을 때 26.1% 정도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7.8%는 이용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영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34.8%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전체 응답자 분석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여 1/3이상의 영아 가구에서 이용할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취업모 가정과 모가 휴직중인 가구에서 취업모 가정보다 시간제를 이용할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39%가 다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이용한 경험 유무에 따라 재이용 계획

비율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용한 경험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표 Ⅺ-2-9〉 시간제보육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자주 이용할 계획	가끔 이용할 계획	비정기적 이용	이용 계획 없음	잘 모르겠음	계(수)	$x^2(df)$
전체	4.0	3.7	18.4	47.8	26.0	100.0(2,5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6.0	4.9	23.9	35.9	29.3	100.0(1,231)	90.9(4)***
유아	2.3	2.7	13.8	58.0	23.3	100.0(1,269)	
지역규모							
대도시	3.7	3.6	17.0	49.1	26.6	100.0(1,141)	
중소도시	3.9	3.9	19.4	46.2	26.6	100.0(952)	7.5(8)
읍·면	5.0	3.4	19.8	48.9	22.9	100.0(407)	
모 취업여부							
취업	3.3	3.1	17.1	52.1	24.4	100.0(997)	
휴직중	7.3	5.3	22.8	38.9	25.6	100.0(303)	24.0(12)*
미취업	3.6	3.7	18.3	46.8	27.6	100.0(1,174)	
부재 등	8.1	4.8	23.3	32.2	31.6	100.0(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6.0	3.9	18.3	36.6	35.2	100.0(147)	
250~299만원	5.8	8.8	18.4	42.7	24.3	100.0(146)	
300~349만원	2.9	2.5	20.6	41.1	32.9	100.0(350)	
350~399만원	1.9	4.6	24.3	41.5	27.8	100.0(226)	
400~499만원	4.6	4.7	18.3	51.4	21.0	100.0(474)	69.0(32)***
500~599만원	2.8	2.0	17.0	49.0	29.3	100.0(480)	
600~699만원	2.1	2.4	19.7	56.7	19.2	100.0(240)	
700만원이상	6.7	3.9	15.5	51.4	22.4	100.0(406)	
모름/무응답	3.3	6.8	6.3	47.8	35.8	100.0(3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유무							
있음	16.4	9.4	13.2	37.8	23.2	100.0(101)	80.2(4)***
없음	3.6	3.5	18.6	48.2	26.1	100.0(2,399)	

주: 1) 2018년도에는 항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 없음.
2) 2015년도에는 항목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치 없음. 또한 본 문항은 2015년 아동조사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는 가구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응답단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전 조사 수치와 단순 비교는 주의를 요함. 2015년도 조사는 시간제보육 미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향후 계획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595. 〈표 Ⅺ-2-10〉.

* $p < .05$, *** $p < .001$.

3. 영유아 보육·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표준보육과정 16.5%, 누리과정 19.6%로 2018년(25.9%, 31.8%)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 또한 표준보육과정 40.4%, 누리과정 36.2%로 2018년(28.6%, 23.8%)에 비해 증가하였다.

하위집단 특성별로 표준보육과정을 '잘 안다'는 응답은 유아부모, 양 기관 이용 그룹에서 좀 더 많았으며, 표준보육과정을 '모른다'는 응답은 영아부모, 모부재/휴직중/미취업모에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관 미이용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누리과정을 '잘 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유아부모, 취업모, 양 기관 모두 이용 부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을 '모른다'는 응답은 영아부모, 모부재/휴직, 가구소득 249만 원 이하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Ⅺ-3-1〉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관련 인식

단위: %, (명)

구분	0~2세 표준누리과정					3~5세 누리과정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x^2(df)$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x^2(df)$
전체	16.5	43.0	40.4	100.0(2,500)		19.6	44.2	36.2	100.0(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14.7	35.7	49.6	100.0(1,450)	73.7 (2)***	15.6	34.4	50.0	100.0(1,231)	175.6 (2)***
유아	18.7	51.6	29.7	100.0(1,050)		24.3	55.6	20.0	100.0(1,269)	
모취업 여부										
취업	17.5	49.0	33.5	100.0(997)		21.3	49.4	29.4	100.0(997)	
휴직	13.6	36.9	49.4	100.0(303)	30.9 (6)***	16.5	36.2	47.3	100.0(303)	36.1(6) ***
미취업	16.8	39.5	43.7	100.0(1,174)		19.4	42.0	38.6	100.0(1,174)	
모 부재	3.3	34.4	62.3	100.0(26)		3.3	31.1	65.6	100.0(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0.9	35.5	53.5	100.0(147)		13.3	34.3	52.4	100.0(147)	
250~299만원	15.3	31.2	53.5	100.0(146)		22.4	27.8	49.8	100.0(146)	
300~349만원	16.9	35.8	47.2	100.0(350)	55.4 (16)***	20.3	34.8	44.9	100.0(350)	80.1 (16) ***
350~399만원	14.6	42.9	42.5	100.0(226)		15.1	47.2	37.7	100.0(226)	
400~499만원	19.9	40.3	39.8	100.0(474)		23.4	43.1	33.5	100.0(474)	
500~599만원	15.8	48.8	35.4	100.0(480)		19.2	50.2	30.5	100.0(480)	

구분	0~2세 표준누리과정					3~5세 누리과정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x^2(df)$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x^2(df)$
600~699만원	17.5	48.5	34.0	100.0(240)		19.6	48.7	31.7	100.0(240)	
700만원 이상	15.9	47.6	36.5	100.0(406)		19.1	49.1	31.9	100.0(406)	
모름/무응답	20.1	41.0	38.9	100.0(31)		22.2	44.0	33.8	100.0(31)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8.9	46.8	34.3	100.0(970)		20.4	46.7	32.9	100.0(970)	
유치원만 이용	17.6	52.8	29.6	100.0(737)	227.5	25.4	56.5	18.2	100.0(737)	324.3
둘 다 이용	27.9	52.3	19.8	100.0(190)	(6)***	29.4	53.3	17.3	100.0(190)	(6)***
미이용	10.4	25.8	63.8	100.0(603)		10.8	25.8	63.4	100.0(603)	
2018년	25.9	45.6	28.6	100.0(2,533)		31.8	44.4	23.8	100.0(2,533)	
2015년	29.9	47.0	23.1	100.0(1,480)		33.5	48.6	17.8	100.0(1,48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00. 〈표 XI-3-1〉.
*** $p < .001$.

4.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인식 및 만족도

본 절에서는 영유아 대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의 수혜 경험 및 만족도에 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비용 지원 정책 인지도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 전체에 대해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가장 인지 비율이 높은 지원제도는 '가정양육수당(95.2%)'과 '0-2세 보육료(92.7%)'로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해 매우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또한 유아가 해당되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도 약 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수당, 연장반 보육료 등도 비교적 인지율이 높았다.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인지 정도의 응답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에만 해당하는 '장애아 보육료'는 제외하고라도 '시간제보육료'나 '야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인지율은 20~30% 수준에 머물렀다. 연장보육에 대해서는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제공에 지역편차가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인지율에 대한 설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Ⅺ-4-1〉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모름	계(수)
0~2세 보육료	40.8	51.9	7.4	100.0(2,500)
연장반 보육료	20.5	42.4	37.2	100.0(2,500)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31.4	48.4	20.2	100.0(2,500)
0~5세 가정양육수당	48.3	46.9	4.7	100.0(2,500)
장애아 보육료	4.1	13.4	82.4	100.0(2,500)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6.0	22.9	71.1	100.0(2,500)
시간제보육료	7.8	31.8	60.3	100.0(2,500)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13.3	32.5	54.1	100.0(2,500)
지방정부 수당	31.8	44.8	23.4	100.0(2,500)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표 Ⅺ-4-2〉 제 특성별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인지 비율

단위: %(명)

구분	0~2세 보육료 지원	연장반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0~5세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방 정부수당	(수)
전체	92.6	62.8	79.8	95.3	17.6	28.9	39.7	45.9	76.6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91.6	58.0	63.9	96.9	15.8	26.8	38.2	33.3	77.0	(1,231)
유아	93.9	68.5	98.6	93.4	19.7	31.4	41.4	60.6	76.2	(1,269)
$x^2(df)$	4.4(1)*	24.0(1)***	349.6(1)***	22.5(1)***	7.3(1)**	7.0(1)**	2.9(1)	160.3(1)***	2.0(1)	
지역규모										
대도시	93.7	64.3	81.7	94.7	18.1	31.3	41.2	46.7	75.6	(1,141)
중소도시	91.9	63.1	77.7	96.0	16.8	27.3	40.1	45.6	77.6	(952)
읍·면지역	91.7	57.9	80.8	94.7	18.1	26.8	34.3	44.5	76.6	(407)
$x^2(df)$	3.6(2)	4.4(2)	3.4(2)	6.9(2)*	3.1(2)	7.1(2)*	5.9(2)	3.1(2)	2(2)	
모취업 여부										
취업	95.8	72.0	87.1	93.0	20.0	34.7	43.5	51.6	77.5	(997)
휴직중	89.3	50.4	62.5	96.2	14.5	23.2	39.1	35.6	78.0	(303)
미취업	91.1	58.5	78.0	97.0	16.4	25.4	36.5	43.7	75.9	(1,174)
모부재 등	71.1	41.4	91.5	96.9	10.6	23.5	29.9	42.8	55.6	(26)
$x^2(df)$	28.2(3)***	54.5(3)***	92.2(3)***	16.0(3)**	10.1(3)*	25.3(3)***	8.3(3)*	30.6(3)***	5.2(3)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88.0	55.1	67.5	95.9	20.5	28.1	31.5	37.5	74.9	(147)
250~299만원	89.2	60.5	74.4	98.7	15.4	24.8	38.9	37.1	76.5	(146)
300~349만원	88.4	55.6	73.4	96.4	14.8	24.3	36.0	40.5	77.9	(350)
350~399만원	90.6	64.3	74.7	96.3	19.0	35.6	46.0	48.7	78.2	(226)
400~499만원	92.9	63.7	83.4	96.7	18.0	26.0	39.5	46.3	78.3	(474)

구분	0~2세 보육료 지원	연장반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0~5세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방 정부수당	(수)
500~599만원	93.9	61.3	83.9	92.5	16.5	28.1	39.0	48.3	75.4	(480)
600~699만원	95.5	77.3	84.3	97.2	21.8	37.0	44.1	49.3	78.4	(240)
700만원 이상	96.3	63.6	81.1	93.0	17.1	29.9	39.4	47.8	73.8	(406)
모름/무응답	88.3	58.8	93.2	97.9	15.4	28.6	52.0	55.5	78.0	(31)
$x^2(df)$	23.1(8)**	28.6(8)***	56.7(8)***	17.6(8)	8.1(8)	9.9(8)	6.9(8)	21.7(8)**	8.9(8)	
기관이용경험										
어린이집만 이용	99.6	73.2	83.7	93.4	18.3	35.1	44.2	35.3	76.4	(970)
유치원만 이용	92.6	69.0	100.0	93.2	18.8	29.3	42.3	70.1	79.0	(737)
둘 다 이용	100.0	86.7	100.0	95.6	20.6	34.4	47.1	70.4	84.1	(190)
미이용	82.2	38.3	49.3	100.0	14.7	19.3	29.5	29.4	73.2	(603)
$x^2(df)$	219.6(3)***	273.3(3)***	627.5(3)***	37.7(3)***	7.4(3)	53.7(3)***	42.2(3)***	303.4(3)***	11(3)*	
2018년	94.9	80.5	60.0	86.1	95.5	29.0	49.1	43.7	48.6	77.8
2015년	98.0	-	-	96.1	97.5	-	59.8	53.9	53	-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603-604. 〈표 XI-4-2〉.
* $p < .05$, ** $p < .01$, *** $p < .001$.

나. 비용 지원 정책 수혜 경험 및 만족도

1)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수혜 경험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먼저 0~2세 보육료의 경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19.8%는 수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인지도가 있었던 '0~5세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17.5%가 수혜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앞서 표 〈표 XI-4-1〉〈표 XI-4-2〉를 참조하여 보면, 전체 조사 참여자 중 95.2%가 알고 있고 이중 82%가 수혜경험이 있으므로, 총 2,500표본 가구 중 1,952 가구(78.6%)가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0~2세 보육료 수혜경험은 76.1%, 연장반 보육료는 21.8%,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는 64.2%가 수혜한 것으로 계산된다. 0~5세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하면 모든 지원 정책에 대해 수혜 비율이 2018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정양육보다는 아주 어린시기부터 어린이집에 양육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표 Ⅺ-4-3〉 정부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수혜 경험						만족도(5점 척도)			
	현재 받음	과거 받음	받은 적 없음	계(수)	표본 대비 2021년	표본 대비 2018년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0~2세 보육료	31.3	48.9	19.8	100.0(2,344)	76.1	74.6	67.1	3.9	0.9	(1,908)
연장반 보육료	14.4	18.8	66.8	100.0(1,637)	21.8	–	71.2	4.0	0.9	(529)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69.5	9.1	21.4	100.0(2,049)	64.2	63.4	70.6	3.9	0.8	(1,644)
0~5세 가정양육수당	38.5	44.0	17.5	100.0(2,398)	78.6	84.4	56.5	3.6	0.9	(1,970)
장애아 보육료	2.2	1.7	96.1	100.0(462)	0.7	1.3	82.7	4.0	0.7	(17)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	3.0	4.4	92.5	100.0(771)	2.3	6.0	67.1	3.9	0.9	(54)
시간제보육료	2.7	5.5	91.8	100.0(1,022)	3.4	3.4	75.7	3.9	0.9	(95)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4.7	9.2	66.1	100.0(1,153)	15.6	15.0	71.8	3.9	0.8	(391)
지방정부 수당	13.8	63.1	23.1	100.0(1,991)	61.2	54.0	54.3	3.6	1.1	(1,59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05. 〈표 Ⅺ-4-3〉.

정부의 비용 지원 제도의 혜택을 현재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가 6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0-5세 가정양육수당 38.5%, 0~2세 보육료 31.3%, 방과후과정비 지원 24.7% 순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2021년 9월 1일)에서 시간제보육표를 지원 받고 있는 비율은 2.7%, 방과후 과정비 수혜비율은 24.7%였다.

〈표 Ⅺ-4-4〉 정부 비용지원 현재 수혜 비율

단위: %(명)

구분	0~2세 보육료	연장반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	0~5세 가정 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야간 연장형	시간제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방정부 수당
전체	31.3	14.4	69.5	38.5	2.2	3.0	2.7	24.7	13.8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53.6	20.1	44.5	53.0	1.0	3.6	3.2	11.7	21.1
유아	5.7	8.7	88.5	20.8	3.4	2.5	2.1	33.1	5.2
$x^2(df)$	782.9***	89.9***	376.4***	270.3***	1.4	1.4	3.6	57.3***	122.2***
지역규모									
대도시	29.8	12.6	69.0	38.4	0.7	2.3	2.6	24.0	10.4
중소도시	32.7	15.7	70.6	38.0	4.7	3.8	2.5	26.3	15.5
읍·면	31.4	15.7	68.2	39.8	–	3.1	3.5	22.6	18.2

구분	0~2세 보육료	연장반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	0~5세 가정 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야간 연장형	시간제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방정부 수당
$x^2(df)$	5.4	54.4	9.0	5.4	11.2**	0.6	2.2	3.8	32.0***
모취업 여부									
취업	28.5	23.8	75.6	24.1	1.2	4.5	2.9	28.8	10.3
휴직	37.4	3.2	53.2	61.1	1.7	0.3	3.7	23.6	21.7
미취업	32.2	6.7	66.8	44.7	3.5	1.7	2.0	20.1	14.7
부재 등	31.7	13.6	84.1	29.1	-	10.9	10.3	50.2	17.4
$x^2(df)$	84.8	96.3***	55.0***	175.2***	0.5	75.2	6.1	13.6**	28.3***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31.0	14.4	68.1	46.0	5.5	1.6	2.6	22.1	9.3
250~299만원	41.5	7.9	57.3	49.5	-	1.2	1.2	23.1	16.4
300~349만원	32.3	8.8	68.3	44.3	-	4.9	2.4	28.8	17.3
350~399만원	24.5	7.8	70.7	42.1	-	0.9	0.7	18.6	13.7
400~499만원	32.0	12.8	68.5	40.1	4.0	2.4	2.3	26.0	15.5
500~599만원	26.5	15.4	76.9	35.8	1.7	3.6	4.9	27.0	13.4
600~699만원	42.8	21.8	61.4	28.3	5.7	6.5	5.8	22.6	11.0
700만원 이상	29.3	19.4	70.0	33.4	0.7	2.0	0.6	23.8	12.0
모름/무응답	34.9	8.8	77.9	31.1	-	-	2.8	23.5	13.5
$x^2(df)$	17.4	29.6***	28.6*	53.5***	44.8***	7.3	12.6	11.8	9.9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52.0	25.7	77.5	21.5	2.2	5.5	3.9	2.9	11.1
유치원만 이용	5.4	4.3	100.0	14.7	2.1	0.8	1.6	43.7	8.4
둘 다 이용	52.9	25.4	100.0	8.2	2.0	2.1	2.4	48.0	10.0
미이용	25.6	1.6	26.7	88.5	2.5	1.2	2.0	0.9	24.8
$x^2(df)$	396.8***	165.5***	1018.7***	944.2***	1.0	79.2	2.8	274.2***	68.5***
(수)	(2,344)	(1,637)	(2,049)	(2,398)	(462)	(771)	(1,022)	(1,153)	(1,991)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07. 〈표 XI-4-4〉.
* $p < .05$, ** $p < .01$, *** $p < .001$.

전체 아동 3,471명 중 어린이집·유치원의 정규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현재 받고 있는 지원 수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수혜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동수당' 97.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료지원 50.3%, 교육비 지원 26.5%,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23.3%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유아 대상 각종 사회서비스(학습지 등) 바우처 지원 1.6%,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0.9%, 시간제보육료

지원 0.2%로 나타났다. 새로 제도화 된 아동수당이 보편적인 현금지원으로 자리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 지원 수혜에는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Ⅺ-4-5〉 정규적 보육료·교육비 외 지원 수혜여부 및 액수

단위: %, 천원(명)

구분	2021년도 현재 수혜율 (수)	2018년도 현재 수혜율 (수)	지원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시간제보육료	0.2(3,471)	1.0(3,775)	67.4	79.9	3.0	250.0	(7)
양육수당	23.3(3,471)	26.8(3,775)	148.4	41.0	100.0	200.0	(966)
아동수당	97.0(3,471)	–[1)]	100.0	–	100.0	100.0	(3,395)
아이돌보미 비용	0.9(3,471)	0.7(3,775)	253.9	236.9	1.0	1,000.0	(30)
바우처(학습지 등)	1.6(3,471)	1.3(3,775)	137.8	76.2	30.0	343.0	(59)
보육료	50.3(3,471)	–[1)]	332.9	76.1	260.0	484.0	(1,464)
교육비	26.5(3,471)	–[1)]	206.8	82.2	80.0	260.0	(1,041)
기타	2.5(3,471)	– (3,775)	203.8	144.7	41.0	502.0	(143)

주: 1) 2018년도 조사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었음.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08. 〈표 Ⅺ-4-5〉.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만족 20.6%, 매우 불만족·불만족 41.0%, 보통 38.5%로 불만족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유아 부모, 미취업모에서 불만족 응답이 많았으며,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와 600~699만원 부모에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적정 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N=367) 평균 59.6만원으로 응답되었다. 2018년 43.1만원, 2015년 33.4만원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부모 약 65만원, 유아부모 약 44만원으로 응답하여,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금액이 큰 경향을 보였다.

〈표 Ⅺ-4-6〉 제 특성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및 적정 금액

단위: %(명), 만원

구분	만족도						적정 금액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수)
전체	7.2	33.8	38.5	18.3	2.3	100.0(958)	59.6	(367)
영유아구분								
영아	1.8	21.3	39.5	31.7	5.6	100.0(794)	64.7	(390)
유아	3.9	9.2	35.2	39.9	11.8	100.0(164)	44.2	(77)
$x^2(df)$			21.1(4)***				1.2	
연령								
0세	2.8	22.1	38.2	31.2	5.7	100.0(395)	66.4	(142)
1세	0.9	21.0	41.6	32.2	4.3	100.0(306)	60.1	(109)
2세	1.9	19.8	37.0	31.8	9.5	100.0(93)	62.6	(39)
3세	3.4	12.5	28.6	46.7	8.8	100.0(44)	46.6	(22)
4세	4.2	11.5	41.4	37.3	5.6	100.0(36)	50.8	(13)
5세	4.0	6.7	35.4	38.0	15.9	100.0(84)	36.4	(42)
$x^2(df)$			32.2(20)*				2.1	
모취업 여부								
취업	5.8	31.6	40.2	19.3	3.1	100.0(172)	71.2	(58)
휴직중	5.8	32.6	42.1	17.1	2.3	100.0(215)	63.2	(78)
미취업	8.0	34.9	36.5	18.5	2.1	100.0(566)	54.9	(228)
부재 등	25.4	34.7	39.9	-	-	100.0(5)	50.0	(3)
$x^2(df)$			6.9(12)				0.4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3	13.5	35.1	40.2	9.8	100.0(69)	75.1	(32)
250~299만원	10.6	28.4	41.1	19.4	0.4	100.0(80)	52.4	(31)
300~349만원	7.1	31.5	39.6	19.5	2.3	100.0(143)	50.9	(55)
350~399만원	7.6	35.2	40.4	14.5	2.3	100.0(110)	51.9	(39)
400~499만원	8.9	40.6	30.5	17.3	2.7	100.0(184)	57.9	(89)
500~599만원	6.6	28.8	43.0	18.7	2.9	100.0(147)	48.8	(48)
600~699만원	-	39.4	29.9	29.5	1.2	100.0(72)	64.2	(24)
700만원 이상	6.8	30.4	41.0	19.0	2.8	100.0(138)	77.9	(45)
모름/무응답	-	26.9	67.3	-	5.8	100.0(15)	40.4	(4)
$x^2(df)$			36.6(32)				0.5	
2018년	6.9	23.6	32.7	34.0	2.7	100.0(1,013)	43.1	(319)
2015년	4.8	30.8	37.5	25.9	1.0	100.0(1,022)	33.4	(336)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p. 611-612. 〈표 Ⅺ-4-8〉.

2)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 만족도

영유아 보육료·교육비를 과거 또는 현재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5점 척도 기준으로 장애아 무상보육은 제외하고, '연장반 보육료'가 4.0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시간제보육료 지원'이 모두 3.9점, '가정양육수당 지원' 3.6점, '지방정부수당' 3.6점으로 나타났다.

〈표 Ⅺ-4-7〉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수혜 비율	만족 정도						만족도(5점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2021년	2018년	2015년
0~2세 보육료 지원	80.2	24.7	42.4	28.2	4.0	0.7	100.0 (1,908)	3.9	3.9	3.9
0~2세 영아 맞춤형 보육료 지원	–	–	–	–	–	–	– –	–	3.7	–
0~2세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	–	–	–	–	– –	–	3.7	–
연장반(16:00~19:30)보육료	33.2	31.5	39.8	23.7	3.6	1.4	100.0 (529)	4.0	–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80.8	23.1	49.5	23.9	3.2	0.3	100.0 (1,644)	3.9	3.8	3.8
가정양육수당 지원	83.2	17.3	41.4	31.2	8.3	1.8	100.0 (1,970)	3.6	3.5	3.6
장애아 무상보육	3.9	23.5	52.9	17.6	5.9	–	100.0 (17)	4.0	3.5	4.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7.0	27.8	40.7	24.1	7.4	–	100.0 (54)	3.9	3.8	4.1
시간제보육료 지원	9.5	29.5	43.2	20.0	5.3	2.1	100.0 (95)	3.9	3.6	3.9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34.3	25.8	47.6	23.8	2.3	0.5	100.0 (391)	3.9	3.8	3.9
지방정부수당	80.7	20.7	35.3	29.8	10.1	4.1	100.0 (1,592)	3.6	3.4	3.6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수혜비율은 전체응답가구 수(2,533가구) 대비 비용 지원 수혜가구(현재 받음+과거 받음) 수 비율로, 〈표 Ⅺ-4-3〉에서 '현재 받음' 혹은 '과거 받음'으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3) '잘 모름' 응답은 제외함.
4) 만족도 평균은 '매우 만족' 1점 ~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를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리코딩하여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09. 〈표 Ⅺ-4-6〉.

자녀의 연령(영/유아)별로 정부 비용지원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만족+매우 만족)을 보면,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고, 시간제 보육료 지원 75.7%,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71.8%, 연장반 보육료 지원 71.2%, 3~5세 누리과정 지원 70.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정부 수당 지원'

과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54.3%, 56.5%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 비율이 낮은 비용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XI-4-8〉 제 특성별 정부 비용지원 정책 만족 비율

단위: %(명)

구분	0~2세 보육료	연장반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가정양육 수당	장애아 보육료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	시간제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방정부 수당
전체	67.1	71.2	70.6	56.5	82.7	67.1	75.7	71.8	54.3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68.4	78.1	72.4	59.0	100.0	61.3	77.3	81.4	53.7
유아	65.9	65.8	69.8	53.2	72.4	73.2	74.2	69.2	55.1
$x^2(df)$	4.6(1)*	7.9(1)**	2.1(1)	6.0(1)*	3.7(1)	0.1(1)	-6(1)	3.9(1)*	0.1(1)
지역규모									
대도시	68.5	69.0	68.5	56.4	59.9	55.2	70.0	72.6	51.5
중소도시	65.5	71.7	70.6	57.9	93.0	72.1	76.7	69.2	55.2
읍·면지역	67.9	75.6	75.7	52.8	69.2	71.6	86.4	77.8	58.6
$x^2(df)$	0.3(2)	3.6(2)	10.1(2)**	0.6(2)	3.6(1)	1.2(2)	0.9(2)	2.1(2)	6.4(2)*
모취업 여부									
취업	69.0	74.4	72.8	57.1	100.0	67.6	70.1	71.4	57.2
휴직중	61.2	59.1	64.7	61.3	91.5	25.2	91.6	78.3	51.0
미취업	66.6	66.5	69.0	54.3	-	69.8	72.9	71.4	52.4
모부재 등	65.6	100.0	73.8	67.5	-	54.4	100.0	49.3	79.2
$x^2(df)$	2.2(3)	3.1(3)	1.2(3)	2.2(3)	1.7(2)	0.7(3)	2.1(3)	1.3(3)	5.4(3)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62.7	52.4	74.7	55.3	66.1	70.2	61.5	89.4	46.6
250~299만원	69.1	75.8	68.1	54.1	-	84.9	93.2	75.1	51.5
300~349만원	62.5	70.5	68.3	50.4	-	41.2	81.3	67.5	48.7
350~399만원	61.7	64.8	67.2	55.3	-	49.7	35.9	61.4	54.2
400~499만원	67.4	73.5	68.5	55.9	100.0	87.6	65.4	72.3	51.5
500~599만원	71.5	68.8	72.0	59.7	40.0	67.7	90.8	69.9	60.5
600~699만원	64.8	63.5	64.7	57.3	100.0	79.1	81.1	76.5	55.3
700만원 이상	69.0	79.7	76.7	59.6	76.0	47.9	66.5	75.1	58.8
모름/무응답	63.1	74.5	71.7	65.1	-	0.0	59.0	64.6	41.6
$x^2(df)$	6.2(8)	6.4(7)	4.0(8)	4.1(8)	5.9(4)	4.4(8)	8.6(8)	2.3(8)	16.4(8)*
(수)	(1,908)	(529)	(1,644)	(1,970)	(17)	(54)	(95)	(391)	(1,592)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응답 대상은 〈표 XI-4-3〉에서 '현재 받음', '과거 받음' 으로 응답한 경우임.
3) '만족비율'은 〈표 XI-4-4〉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4) 영유아 구분: 보육연령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5.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본 절에서는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2.0%가 응답하였으며, 이외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2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양육수당 인상' 11.3%, '유연근무제 확대' 7.9%, '보육유형다양화 확대' 4.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8%, '육아정보상담 제공' 0.9%, 기타 0.4%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8년에는 그 수치가 35.9%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22.0%로 감소하였다.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응답은 2018년(11.7%)에 비해 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8년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응답이 17.5%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14.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최연소 자녀 연령, 거주 지역, 모의 취업 여부, 월가구소득, 기관 이용 경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우선,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2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20.5%,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14.7% 순이었다. 반면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에 대한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8.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7.2% 순이었다. 특히,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이는 2018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영아 가구에 비해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22.9%) 중소도시(22.0%) 읍·면지역(19.3%)에 비해 높았으며,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18.1%)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2.5%), '육아정보상담제공'(1.0%)가 높았다. 또,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보육유형 다양화',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읍·면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7.1%),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2.1%)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가정양육수당의 인상' 요구(23.0%)가 더 높았다. 또, 휴직중인 경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19.8%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특히 '비용' 지원 관련한 요구에 소득수준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 가구소득 400~499만원에 해당하는 가구가 '비용 지원(보육료교육비 지원 인상)'에 대한 요구가 27.3%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에 대한 요구는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고, 전체적으로 상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Ⅺ-5-1〉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 이집 확충	보육 교육 지원금 인상	양육 수당 인상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 유형 다양화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 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육아 정보 상담 제공	유연 근무제 확대	기타	(수)
전체	22.0	21.7	11.3	14.4	4.8	1.8	14.8	0.9	7.9	0.4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4.7	20.5	13.6	12.0	4.4	1.5	14.7	1.0	6.9	0.6	(1,450)
유아	18.8	23.2	8.5	17.2	5.3	2.2	14.8	0.8	9.1	0.2	(1,050)
지역규모											
대도시	22.9	19.6	12.3	14.4	4.3	1.7	14.0	0.9	9.3	0.6	(1,141)
중소도시	22.0	24.0	9.2	13.1	5.8	1.7	15.9	0.8	7.4	0.1	(952)
읍·면	19.3	21.3	14.0	18.1	3.3	2.5	13.9	1.0	5.7	0.8	(407)
모취업 여부											
모취업	21.9	20.4	6.6	11.7	7.1	2.1	18.8	0.7	10.4	0.4	(997)
휴직중	19.2	19.0	9.7	13.1	4.7	1.2	19.8	0.3	11.8	1.1	(303)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	양육수당 인상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육아정보 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확대	기타	(수)
미취업	22.9	23.0	16.1	17.2	2.7	1.8	9.9	1.2	4.7	0.3	(1,174)
부재 등	15.9	55.5	4.9	18.0	4.1	-	1.6	-	-	-	(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18.1	22.6	21.7	18.0	3.6	0.8	10.6	0.8	3.9	-	(147)
250~299만원	20.2	25.5	13.2	15.9	4.5	4.1	5.5	1.1	9.3	0.5	(146)
300~349만원	21.9	24.1	16.6	14.3	3.1	2.1	10.1	1.4	5.9	0.6	(350)
350~399만원	23.0	22.9	12.5	9.6	6.6	3.8	14.3	1.4	5.9	-	(226)
400~499만원	20.6	27.3	8.9	13.8	5.5	1.1	15.3	0.8	5.4	1.3	(474)
500~599만원	23.0	19.0	9.4	15.9	3.7	1.2	16.8	1.1	9.8	0.1	(480)
600~699만원	20.5	21.5	7.8	15.2	5.2	1.6	17.7	-	10.6	-	(240)
700만원 이상	24.3	15.1	8.8	14.3	5.9	1.9	18.0	0.6	10.7	0.2	(406)
모름/무응답	22.7	21.8	20.1	10.2	4.7	-	18.5	-	1.9	-	(31)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21.9	21.4	7.0	15.2	5.4	2.6	16.0	1.1	9.2	0.4	(970)
유치원만 이용	17.9	24.7	7.2	18.2	5.0	1.6	16.3	0.3	8.7	0.1	(737)
둘 다 이용	20.5	27.4	5.1	15.5	3.3	3.3	15.0	1.1	7.9	0.9	(190)
미이용	26.8	17.9	22.4	9.1	4.1	0.9	11.5	1.2	5.4	0.8	(603)
2018년	35.9	11.7	7.8	17.5	5.7	3.7	10.2	0.9	6.5	-	(2,533)
2015년	23.3	19.5	8.0	26.6	3.9	4.5	9.0	0.3	4.7	0.3	(2,59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15. 〈표 XI-5-1〉.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인상이 5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살펴보았는데, '보육료·교육비 지원 인상'이 54.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48.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45.5%,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41.8%, '양육수당 인상' 30.8%, '유연근무제 확대' 28.5%, '보육유형다양화 확대' 19.9%,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4.6%, '육아정보상담제공' 11.2%, 기타 1.2% 순이었다. 1순위의 응답 비중의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최연소 자녀 연령, 거주 지역, 모의 취업 여부, 월가구 소득, 기관 이용 경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48.8%,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44.4% 순이었다. 한편,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는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에 대한 응답이 55.6%로 영아(53.7%)보다 많았고,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인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54.9%)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응답은 평균에 비해 높았다. 영아 가구에 비해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정보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에 대한 요구가(57.8%) 대도시(54.5%)와 중소도시(53.4%)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43.5%)에 대한 요구가 낮았다. 한편, 대도시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요구가 29.9%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응답도 46.3%로 가장 높았다. 또, 대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읍·면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응답되었다. 한편,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23.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14.9%),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48.1%), '유연근무제 확대'(32.6%)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48.7%),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56.3%), '양육 수당 인상'(38.5%), '기관 서비스 질 향상'(49.6%), '육아정보상담 제공'(14.1%) 요구들이 더 높았다. 또, 휴직중인 경우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55%)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인 소득 계층만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0만원 이상'인 소득 계층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응답과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응답이 모두 48.0%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 응답은 47.2%였다. '보육·교육비 지원 인상'에 대한 요구는 가구 소득이 '400~499만원'인 계층(59.4%)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에 대한 요구는 가구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600~699만원'인 계층(49.1%), '700만원 이상'인 계층(48.0%)에서 가장 많았다.

〈표 Ⅺ-5-2〉 정부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	양육수당 인상	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	육아정보 상담 제공	유연근무제 확대	기타	(수)
전체	45.5	54.6	30.8	48.1	19.9	14.6	41.8	11.2	28.5	1.2	(2,500)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48.8	53.7	36.2	42.2	19.9	12.4	44.4	9.8	27.2	1.5	(1,450)
유아	41.6	55.6	24.6	54.9	19.8	17.1	38.7	12.8	30.0	0.8	(1,050)
지역규모											
대도시	46.3	54.5	30.5	46.7	20.1	14.5	40.9	10.3	29.9	1.3	(1,141)
중소도시	45.4	53.4	30.2	50.7	20.5	13.5	43.1	10.9	27.9	0.5	(952)
읍·면	43.5	57.8	33.4	44.6	17.5	17.6	40.5	14.3	26.4	2.5	(407)
모취업 여부											
모취업	42.5	54.0	22.2	48.1	23.8	14.9	48.1	9.3	32.6	1.1	(997)
휴직중	43.6	48.9	31.1	42.8	18.2	12.3	55.0	7.6	35.8	2.5	(303)
미취업	48.7	56.3	38.5	49.6	16.7	14.7	32.4	14.1	23.1	0.9	(1,174)
부재 등	53.3	76.2	38.3	46.5	22.9	22.7	31.0	4.1	5.0	-	(26)
가구소득											
249만원 이하	44.6	57.5	47.3	45.6	23.8	13.4	28.9	13.8	18.8	3.1	(147)
250~299만원	47.1	55.0	39.0	38.6	16.2	24.1	34.2	14.8	30.0	0.5	(146)
300~349만원	46.8	58.6	35.6	43.8	19.6	15.4	37.4	13.3	22.8	1.4	(350)
350~399만원	47.4	54.6	30.9	49.4	22.5	14.1	43.4	12.8	22.6	-	(226)
400~499만원	46.7	59.4	28.9	48.0	17.8	13.4	43.3	12.1	24.6	1.6	(474)
500~599만원	43.3	54.7	29.3	53.4	19.2	13.3	39.6	10.0	31.0	1.3	(480)
600~699만원	38.7	50.9	26.3	52.1	19.9	13.3	49.1	11.4	33.2	0.9	(240)
700만원 이상	48.0	47.2	24.9	46.0	21.3	14.8	48.0	7.1	37.7	0.8	(406)
모름/무응답	51.8	51.1	48.2	42.8	23.4	19.1	30.3	11.1	22.2	-	(31)
기관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44.9	53.0	23.6	48.0	22.1	16.0	44.5	11.4	32.3	1.1	(970)
유치원만 이용	40.8	56.7	23.3	56.8	20.4	15.3	39.3	12.4	30.0	0.7	(737)
둘 다 이용	43.8	58.4	23.2	46.8	19.8	17.5	44.3	11.4	29.3	1.3	(190)
미이용	51.8	53.6	49.9	38.8	16.4	11.4	40.5	9.5	21.7	1.8	(603)
2018년	58.8	38.0	25.5	57.9	24.4	22.3	36.5	9.3	27.3	-	

자료: 1) 2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616. 〈표 Ⅺ-5-2〉.

나.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1) 부모교육 받은 경험 및 내용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28.3%, 없음 71.7%으로 나타났다. 유아부모, 모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모, 양 기관 이용 부모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즉 영아부모, 29세이하 부모, 미취업모, 기관이용 미경험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20.1%)에 비해 유아인 경우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35.2%),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4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어머니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많았다. 29세 이하인 경우 18.5%가 부모교육 경험이 있었으나, 40~44세의 어머니는 34.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가장 부모교육 경험이 높고(32.5%), 미취업중인 경우 26.3%, 휴직중인 경우 22.5%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11.5%)에 비해 부모교육 경험이 높았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를 이용해 본 경우에는 특히 부모교육 경험이 높았다(42.7%). 2018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없음'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Ⅺ-5-3〉 부모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8.3	71.7	100.0(2,5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	79.9	100.0(1,231)
유아	35.2	64.8	100.0(1,269)
$x^2(df)$	65.8(1)***		
모연령			
29세 이하	18.5	81.5	100.0(215)
30~34세	24.5	75.5	100.0(706)
35~39세	29.7	70.3	100.0(1,042)
40~44세	34.0	66.0	100.0(455)
45세 이상	32.5	67.5	100.0(66)
모 부재	14.9	85.1	100.0(16)
$x^2(df)$	26.4(5)***		

구분	있음	없음	계(수)
모취업 여부			
취업	32.5	67.5	100.0(997)
휴직중	22.5	77.5	100.0(303)
미취업	26.3	73.7	100.0(1,174)
부재 등	17.5	82.5	100.0(26)
$x^2(df)$	18.5(3)***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34.3	65.7	100.0(970)
유치원만 이용	34.1	65.9	100.0(737)
둘 다 이용	42.7	57.3	100.0(190)
기관 이용 경험 없음	11.5	88.5	100.0(603)
$x^2(df)$	138.3(3)***		
2018년	37.2	62.8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18. 〈표 Ⅺ-5-3〉.
*** $p < .001$.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에 대한 응답이 80.9%로 가장 많았으며(복수응답), 그 다음으로 '보호자 역할' 42.2%,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39.8%로 나타났다.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24.2%,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교육' 24.1%로 응답되었다. '가족윤리 및 예절' 응답은 9.0%, '기타'는 2.2%였다.

최연소 자녀 구분별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 교육' 응답이 27.5%로 유아의 경우(22.4%)보다 많았다. 다른 항목의 응답 비율은 모두 유아가 영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경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각각 79.8%, 45.9%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또 대도시(25.3%), 중소도시(25.6%) 등 도시지역에서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비율이 읍·면지역(16.5%)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휴직중인 가정의 경우에서 다양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보호자 역할'에 대한 경험비율(47.8%)과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경협 비율(31.4%)이 취업모 가구와 미취업모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방법 경험 비율'은 취업 상태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관 이용 경험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에서는 기고나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서는 부모교육 경험이 낮았다. 특히,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이 26.6%,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경험도 19.7%로 로 다른 가구에 비해 낮았다. '보호자 역할',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등의 항목의 비중은 2018년에 비하여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 Ⅺ-5-4〉 부모교육 경험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 방법	보호자역할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기타	계(수)
전체	80.9	42.2	39.8	9.0	24.1	24.2	2.2	(747)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85.1	37.9	33.6	8.3	27.5	16.8	0.8	(275)
유아	78.8	44.3	42.8	9.3	22.4	27.7	2.8	(472)
지역규모								
대도시	79.8	45.9	37.2	9.1	25.3	23.1	0.6	(344)
중소도시	83.8	39.4	41.6	10.4	25.6	27.6	2.5	(280)
읍·면	75.9	39.7	42.3	4.7	16.5	17.8	5.6	(123)
모연령								
29세 이하	94.6	56.8	46.7	13.4	23.9	13.2	-	(42)
30~34세	79.0	35.0	38.7	9.7	27.6	22.2	1.1	(189)
35~39세	78.0	44.9	40.8	8.3	23.7	22.3	2.4	(324)
40~44세	83.4	40.6	38.8	8.5	21.9	32.4	3.5	(167)
45세 이상	94.0	51.2	32.9	10.2	23.1	23.5	-	(22)
모 부재	71.6	-	28.4	-	-	-	-	(3)
모취업 여부								
취업	80.2	41.0	41.7	8.6	25.2	24.4	2.8	(344)
휴직중	87.0	47.8	34.1	12.3	27.8	31.4	-	(73)
미취업	80.2	42.8	39.4	8.7	22.2	22.4	1.9	(324)
부재 등	73.2	-	17.6	-	9.1	-	-	(6)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82.5	38.4	41.2	9.1	23.1	21.3	2.1	(337)
유치원만 이용	77.6	48.7	43.1	8.5	23.8	28.8	3.3	(262)
둘 다 이용	86.2	38.5	35.3	11.2	29.8	25.6	-	(81)
기관 이용 경험 없음	81.8	38.4	26.6	8.8	25.5	19.7	-	(67)
2018년	78.7	48.2	35.8	10.9	26.7	15.6	0.1	(965)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0. 〈표 Ⅺ-5-4〉.

2)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복수응답),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 53.1%, 2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응답이 16.5%로 나타났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14.5%, 지자체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직장 4.6%, 건강가정지원센터 4.1%, 종교기관 2.0%로 응답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을 받은 응답이 29세이하 부모, 취업모,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서 좀 더 많았으며, '유치원'에서 받은 응답은 유아부모, 읍면지역, 모 연령이 많을수록, 미취업모, 유치원이용자에서 많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경우는 영아부모, 중소도시지역, 어린이집이용 부모에서, '지자체'에서 받은 경우는 모부재등/휴직중모와 기관 미이용 부모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은 경우는 영아부모, 29세이하 부모 등 부모연령이 젊을수록, 휴직중 모에서 좀 더 많았다.

〈표 Ⅺ-5-5〉 부모교육을 받은 기관(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	종교기관	지자체	기타	계(수)
전체	53.1	29.8	14.5	4.1	4.6	2.0	12.2	16.5	(747)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53.5	15.1	17.4	6.8	4.5	2.1	12.4	21.4	(275)
유아	52.9	37.0	13.1	2.8	4.7	1.9	12.1	14.1	(472)
지역규모									
대도시	56.0	26.2	12.6	4.2	6.1	2.4	13.4	15.3	(344)
중소도시	50.4	30.2	17.7	4.9	4.1	1.2	11.3	20.2	(280)
읍·면	52.3	38.7	11.2	1.7	1.7	3.0	11.3	9.7	(123)
모연령									
29세 이하	60.3	14.2	12.4	11.7	13.2	0.7	13.0	29.3	(42)
30~34세	58.0	15.8	15.3	5.2	5.7	-	7.6	20.7	(189)
35~39세	52.5	31.3	14.5	4.9	4.0	1.9	13.9	16.9	(324)
40~44세	51.9	42.5	14.4	0.7	2.4	4.3	12.6	7.1	(167)
45세 이상	25.1	47.1	14.7	-	7.7	3.3	15.8	27.2	(22)
모 부재	33.6	-	-	-	-	-	38.0	28.4	(3)
모취업 여부									
취업	57.2	29.1	13.6	4.0	7.5	0.8	9.0	14.5	(344)
휴직중	42.9	19.9	16.9	6.1	5.2	1.4	17.6	28.7	(73)
미취업	51.0	33.6	15.1	3.7	1.3	3.5	14.4	15.7	(324)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직장	종교기관	지자체	기타	계(수)
부재 등	49.6	-	-	9.1	-	-	23.6	17.6	(6)
기관 이용 여부									
어린이집만 이용	72.8	8.5	17.8	5.5	3.6	1.9	10.9	12.0	(337)
유치원만 이용	37.2	60.5	9.9	2.3	5.4	0.6	11.9	14.3	(262)
둘 다 이용	68.5	31.8	21.9	2.7	0.8	0.5	10.8	6.5	(81)
기관 이용 경험 없음	17.3	13.4	12.1	5.3	8.5	8.1	19.6	47.5	(67)
2018년	55.1	29.3	12.1	3.7	5.3	4.1	8.5[1)]	1.0[1)]	(965)

주: 1) 2018년 자료의 경우, '공공기관', '의료기관' 항목이 있었고, '지자체' 항목이 없었음. 따라서 2018년도의 '공공기관' 수치를 '지자체' 항목에 작성하고, 2018년도의 '의료기관(0)' + 기타(1.0)' 항목을 '기타' 항목에 기입하여 작성함.

자료: 1)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2. 〈표 Ⅺ-5-5〉.

3) 부모교육 필요성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2%로 많은 가운데, '잘 모름' 11.9%, '필요없음' 8.0%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중소도시지역, 휴직중모,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부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지역, 모부재,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부모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81.6%) 보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했지만, '필요없음' 응답도 2018년(12.7%)에 비해 8.0%로 많이 감소하였다.

〈표 Ⅺ-5-6〉 부모교육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전체	80.2	8.0	11.9	100.0(2,5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80.2	7.6	12.2	100.0(1,231)
유아	80.1	8.3	11.6	100.0(1,269)
$x^2(df)$		0.8(2)		
지역규모				
대도시	77.2	10.3	12.5	100.0(1,141)
중소도시	83.0	6.3	10.8	100.0(952)
읍·면	80.5	6.3	13.2	100.0(407)
$x^2(df)$		16.6(4)**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계(수)
모취업 여부				
취업	80.1	8.5	11.4	100.0(997)
휴직중	85.5	6.8	7.7	100.0(303)
미취업	78.9	7.8	13.2	100.0(1,174)
부재 등	67.1	7.6	25.3	100.0(26)
$x^2(df)$		14.3(6)*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92.8	4.0	3.1	100.0(747)
없음	75.2	9.5	15.3	100.0(1,753)
$x^2(df)$		126.5(2)***		
2018년	81.6	12.7	5.8	100.0(2,533)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3. 〈표 Ⅺ-5-6〉.
* $p < .05$, ** $p < .01$, *** $p < .001$.

4) 부모교육 희망 내용 및 방식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으로는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이 7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호자 역할' 12.8%,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4.5%,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3.9%의 순으로, 실제 부모교육을 받은 내용의 순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에 대해서는 영아부모, 29세이하 부모, 등 부모연령이 젊을수록, 휴직중 모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호자 역할에 대해서는 유아부모, 45세이상 부모와 모 부재 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특성과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에 대한 응답은 2018년(69.4%)에 비해 74.0%로 증가했다. 반면, '보호자 역할' 응답은 2018년(17.1%)에 비해 12.8%로 감소했다. 그 외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항목을 제외한 모든 교육 내용에서의 응답은 2018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반해, 2021년 조사에서는 '영유아 성장에 관한 정보와 양육방법' 74.0%, '보호자 역할' 12.8%,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4.5%,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Ⅺ-5-7〉 교육받기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성장관련 정보·양육 방법	보호자역할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기타	계(수)
전체	74.0	12.8	4.5	2.2	2.1	3.9	0.5	100.0(1,965)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81.9	9.6	3.8	1.1	1.4	1.9	0.4	100.0(966)
유아	67.3	15.5	5.1	3.2	2.6	5.6	0.6	100.0(999)
$x^2(df)$				49.0(6)***				
모연령								
29세 이하	83.1	10.9	4.1	-	0.4	0.6	0.9	100.0(161)
30~34세	79.6	12.3	3.7	1.7	1.5	1.2	-	100.0(557)
35~39세	72.5	13.2	3.8	2.7	3.0	4.2	0.6	100.0(832)
40~44세	67.3	12.2	6.6	3.0	1.7	8.3	1.0	100.0(351)
45세 이상	68.2	19.2	4.8	1.5	-	6.2	-	100.0(54)
모 부재	48.0	22.8	29.2	-	-	-	-	100.0(10)
$x^2(df)$				68.6(30)***				
모취업 여부								
취업	72.3	13.4	4.5	2.3	2.6	4.4	0.6	100.0(781)
휴직중	82.5	9.9	4.4	1.3	0.3	1.6	-	100.0(259)
미취업	73.3	12.9	4.3	2.5	2.2	4.2	0.6	100.0(906)
부재 등	55.9	25.5	18.7	-	-	-	-	100.0(19)
$x^2(df)$				29.7(18)*				
2018년	69.4	17.1	4.9	2.5	2.8	3.1	0.3	100.0(2,07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4. 〈표 Ⅺ-5-7〉.
* $p < .05$, *** $p < .001$.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으로는 '온라인교육'과 '1:1 컨설팅'의 형태에 대한 선호가 각 43.1%, 42.3%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는 14.5%를 보였다. '온라인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 의견은 영아부모, 부모연령이 젊을수록, 휴직중 모,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1:1 컨설팅 방식에 대한 선호는 유아부모, 45세이상 부모와 모 부재 시 좀 더 많았다. 집합교육은 읍면지역, 45세이상 부모와 모 부재, 부모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2018년 조사에서는 48.8%로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14.5%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는 2018년(17.5%)에 비해 43.1%로 대폭 증가했다. 응답 비중 순위도 2018년과 달라졌다. 2018년에는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4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1 컨설팅’ 33.5%, ‘온라인 교육’ 17.5%, ‘기타’ 0.2% 순이었다.

〈표 Ⅺ-5-8〉 원하는 부모교육 방식

단위: %, (명)

구분	집합교육	1:1 컨설팅	온라인 교육	기타	$x^2(df)$	계(수)
전체	14.5	42.3	43.1	0.1		100.0(1,965)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14.2	38.4	47.3	-	13.0(3)**	100.0(966)
유아	14.7	45.7	39.5	0.2		100.0(999)
지역규모						
대도시	12.7	43.3	43.7	0.2		100.0(866)
중소도시	14.8	41.3	43.9	-	12.9(6)*	100.0(777)
읍·면	18.0	42.9	39.1	-		100.0(322)
모연령						
29세 이하	13.9	42.6	43.5	-		100.0(161)
30~34세	13.8	38.1	48.1	-		100.0(557)
35~39세	13.7	43.8	42.5	-	55.2(15)***	100.0(832)
40~44세	16.1	44.0	39.9	-		100.0(351)
45세 이상	20.7	43.8	32.4	3.1		100.0(54)
모 부재	24.5	75.5	-	-		100.0(10)
모취업 여부						
취업	13.4	40.3	46.3	-		100.0(781)
휴직중	13.4	33.4	53.2	-	32.1(9)***	100.0(259)
미취업	15.5	46.6	37.7	0.2		100.0(906)
부재 등	30.0	66.8	3.2	-		100.0(19)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19.0	43.7	37.4	-	20.2(3)***	100.0(692)
없음	12.3	41.7	45.9	0.1		100.0(1,273)
2018년	48.8	33.5	17.5	0.2		100.0(2,072)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5. 〈표 Ⅺ-5-8〉.
* $p < .05$, ** $p < .01$, *** $p < .001$.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로는 부모의 직장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 40.2%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은 5.8%, 기타 5.0%로 응답되었다.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며, 휴직중/모부재 시,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 '직장'에서 부모교육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취업모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응답이 67.3%, 다음으로 '전문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26.4%, '직장' 5.8%, '기타' 0.5%순이었다. 이에 반해, 2021년 응답 순위가 바뀌었다. '직장'에 대한 응답 비중이 크게 늘어 48.9%이고, '자녀가 다니는 기관' 응답은 감소해서 40.2%였다. '전문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응답도 크게 감소하여 5.8%였다.

〈표 Ⅺ-5-9〉 선호하는 부모교육 장소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다니는 기관	직장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기타	$x^2(df)$	계(수)
전체	40.2	48.9	5.8	5.0		100.0(1,124)
모취업 여부						
취업	40.9	44.6	9.6	4.8	24.6(9)**	100.0(466)
휴직중	35.9	54.8	5.3	4.0		100.0(168)
미취업	41.3	51.0	2.2	5.5		100.0(483)
부재 등	28.6	57.9	-	13.5		100.0(7)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51.0	39.5	5.3	4.2	18.0(3)***	100.0(388)
없음	35.1	53.4	6.1	5.4		100.0(736)
2018년	67.3	5.8	26.4	0.5		100.0(1,050)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5. 〈표 Ⅺ-5-8〉.
** $p < .01$, *** $p < .001$.

5) 정부 지원 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

양육수당/아동수당/보육료 등 선호하는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을 받은 의

향을 질문한 결과, 있음 76.9%, 없음 23.1%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중소도시지역에서,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없음' 응답이 82.2%로 '있음'(17.8%)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2021년 조사에서는 '있음' 응답이 76.9%로 크게 증가해 '없음'(23.1%) 보다 많았다.

〈표 Ⅺ-5-10〉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 받을 의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x^2(df)$	계(수)
전체	76.9	23.1		100.0(2,500)
지역규모				
대도시	74.5	25.5		100.0(1,141)
중소도시	80.0	20.0	9.7(2)**	100.0(952)
읍·면	75.0	25.0		100.0(407)
부모교육 경험 여부				
있음	79.7	20.3	3.2(1)	100.0(747)
없음	75.8	24.2		100.0(1,753)
2018년	17.8	82.2		100.0(328)

자료: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27. 〈표 Ⅺ-5-9〉.
** $p < .01$.

6. 시사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 가구의 49.5%로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4.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5.7%로, 2018년과 비교하여 자부담 의사가 '있다'는 응답과 '잘 모름'의 응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료 일부 자부담 의사는 응답 가구의 지역규모,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육료를 자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긍정응답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54.0%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부담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료를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경우, 보육료를 일부 부담하게 한다면 가장 적절한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제시된 기준 중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44.0%), 다음으로 가구소득(35.1%), 취약계층 여부(20.8%) 순으로 응답되었다.

과거 보다 부모들의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규모별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충분성과 관련하여서는 근거리에 보낼 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은 42.7%, 유치원은 28.8%로 응답하였고, '불충분하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40.9%와 48.6%로 나타났다. 2015년, 2018년과 비교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불충분'의 응답이 모두 감소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줄고 '잘 모름'의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별 충분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향후 각 기관의 확대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표준보육과정 16.5%, 누리과정 19.6%로 2018년(25.9%, 31.8%)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 또한 표준보육과정 40.4%, 누리과정 36.2%로 2018년(28.6%, 23.8%)에 비해 증가하였다. 아동중심/놀이중심의 보육·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긴급돌봄의 운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 전체에 대해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가장 인지 비율이 높은 지원제도는 '가정양육수당(95.2%)'과 '0~2세 보육료(92.6%)'로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해 매우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또한 유아가 해당되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비'도 약 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수당, 연장반 보육료 등도 비교적 인지율이 높았다.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라는 인지 정도의 응답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에만 해당하는 '장애아 보육료'는 제외하고라도 '시간제보육료'나 '야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한 인지율은 20~30% 수준

에 머물렀다. 연장보육에 대해서는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제공에 지역편차가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인지율에 대한 설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인지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활용도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인가를 설문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2.0%가 응답하였으며, 이외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2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14.8%,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14.4%, '양육수당 인상' 11.3%, '유연근무제 확대' 7.9%, '보육유형 다양화 확대' 4.8%,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8%, '육아정보상담제공' 0.9%, 기타 0.4%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에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18년에는 그 수치가 35.9%였던 것에 반해 2021년에는 22.0%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중앙 및 지방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부모교육 방식으로는 '온라인교육'과 '1:1 컨설팅'의 형태에 대한 선호가 각 43.1%, 42.3%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집합교육'에 대한 선호는 14.5%를 보였는데, 이는 젊은 부모 세대의 생활양식과 팬데믹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온라인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 의견은 영아부모, 부모연령이 젊을수록, 휴직중 모,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1:1 컨설팅 방식에 대한 선호는 유아부모, 45세 이상 부모와 모 부재 시 좀 더 많았다. 집합교육은 읍면지역, 45세 이상 부모와 모 부재, 부모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수당/아동수당/보육료 등 선호하는 정부 지원 신청 시 부모교육을 받은 의향을 질문한 결과, 있음 76.9%, 없음 23.1%로 나타나 부모교육에 대한 자발적 필요도가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XII

정책적 시사점

01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육지원 방향성 재정립

02 취약가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03 영유아 부모 역량 강화

04 코로나 등 위기상황 대처 보육 기능 강화

05 보육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향성

Ⅻ.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2021년 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부문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장별로 검토해본 시사점을 정책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추려 간략히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보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육지원 방향성 재정립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 취업률은 54.1%(휴직포함)로, 2018년도와 비교하여 모 취업률(51.3%)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연소 자녀가 0세인 경우 14.5%로 가장 낮았으나 3세 이후에 51%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에는 부모의 직접 돌봄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하겠으나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과반 이상의 모가 경제활동을 하며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2018년 대비 부와 모의 휴직 비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 특히 영아를 둔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으로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므로 현재 영유아 자녀 부모 세대의 이러한 욕구가 가능한 한 충족되어 가정에서 영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환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

한편, 부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 46시간 24분, 모의 주당 근로시간 38시간으로 부모 근로시간이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근로시간 축소 등의 영향이 반영되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로제 등 시간 중심의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정책

의 설계가 기관보육 운영뿐만 아니라 가정내 부모돌봄을 포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동연령별로 달라지는 양육형태(부모 직접돌봄, 기관이용 등)와 부모의 취업/휴직 및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해 부모의 자녀 직접돌봄에 대한 선호와 가치부여가 증가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접돌봄의 선호와 선택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력단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경력단절 없이 부모 직접돌봄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성별격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육아지원의 설계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2. 취약가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이주민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교육 지도가 5점 평균 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 3.1점으로 나타났다. 아이와의 의사소통, 양육방식 갈등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부모 가정의 아동이 학습지원과 발달에서 격차를 경험하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의 역량 관점에서 이주민가족/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부모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가구 중 장애영유아 수는 24명으로(유아 15명, 영아 9명),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55.1%, 유치원 33.7%로 어린이집 재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가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다니지 않음 23.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9%, 유치원 일반학급 8.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 유치원 특수학급 3.2% 순으로 응답되었다. 장애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N=6)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32.5%, '아이가 어려서' 5.9%로 응답됨에 따라 장애통합 보육이 어린이집 이용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의 장애 보육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 부모 역량 강화

2021년 조사에 나타난 영유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정서를 2018년과 비교하면, 양육 시 혼란스러움(54.1%→52.1%), 귀찮고 짜증스러움(34.4%→18.6%), 자기계발 포기(50.1%→44.8%)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52.1%, '아이 때문에 자기계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44.8%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보육서비스 외에 육아정보의 제공과 상담 및 상호교육, 일-돌봄의 균형을 위한 지원 설계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육아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는 것을 활용하여 질 좋고 활용성 높은 교육을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부모가 쉽게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자녀 양육 시 육아 관련 지식과 조언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얻는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동료 26.9%, 집안어른 13.9%, 그 외 서적, 형제자매, 전문가 등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육아사이트 이용률이 높음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관련 서비스 연계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육아포털을 통한 육아정보의 제공과 연계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상담 등 실시간 상호 비대면 교류를 통해 부모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코로나 등 위기상황 대처 보육 기능 강화

2021년은 기존 보육실태조사가 진행되었던 어느 해와도 달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크게 겪은 시기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모의 근무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을 우려하는 측면에서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도 일면 해석이 가능하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의 대응 또한 충분치 못했음은 사회적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반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수요는 여전히 지속적이었고 이에 대해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시설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확인하였다.

코로나 시기와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적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 환아 보호, 시간제 보육, 비대면 프로그램 내실화 등에 관련한 체계 정비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대, 지역 보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육정책의 효과와 향후 방향성

가. 공보육의 지속적 강화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현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4.4%, 2018년 21.7%였던 국공립 이용률이 2021년 29.1%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15년 대비로는 202% 증가율을 보여 6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비율을 보인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영유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증가로,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에 지속적으로 근접해 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그간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설비 및 주변환경 등의 개선에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시설 개선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고, 특히 공공 보육 비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국공립 전환이 시설 환경 수준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정착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이전 연도 조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일 이용 시간 평균은 7시간 12분으로, '18년 7시간 24분보다 12분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18년 조사에서는 영아 맞춤형 보육 제도(15시까지 맞춤형)가 적용되었던 데 비해 '21년 조사 시에는 '20년부터 도입된 기본보육-연장보육 제도 운영으로, 오후 4시까지 즉, 일일 7시간이 영아-유아 모두에게 기본 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희망하는 보육시간 또한 줄어든 점,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에 미루어볼 때 기본-연장 보육시간 이용은 필요한 보육시간 현실과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히 안착되어 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장보육 이용 비율이 26.8%로 잡힌 것을 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어린이집의 장시간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는 기본보육만 이용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의 만족도 파악을 위한 질문을 통해 보면,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적절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만족도 또한 다소 만족하는 수준(4점)에 수렴한다. 그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의 관계, 연장보육 일과의 소통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연장보육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 또한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비용보다 보육의 질에 대한 요구 우선 대응으로 전환

2021년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용에 대해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월평균 부모부담 보육료가 2018년 61,000원에서 2021년 56,000원으로 5,000원이 줄어들었고(8.2%↓), 부모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인데, '18년도에는 20.6%가 부담이 된다고 한 반면 '21년에는 17.6%가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가구소득 대비 지출비용 또한 '15년 1.9%, '18년 1.6%였던 데 비해 '21년은 1.3%로 감소되었음 또한 부담감 감소를 지지해 주는 증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의 국

가 지원이 커지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요구에서 비용 절감보다는 보육·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더 크게 필요로 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향성과 더불어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 또한 귀 기울여야 할 정책 지향이다. 지금까지 부모의 보육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하였고 점차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보다 급진적으로 집중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경기도(2018). 2018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0a).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시설 이용률. 내부자료.

보건복지부(2017b).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2021a). 보육정책 DW 시스템(2021. 11. 기준).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c).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2021). 2021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2021). 2021 보육사업 시행계획.

〈홈페이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angw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6778935&bsIdx=469&bcIdx=0&menuId=1547&keyfield=SUBJECT&keyword=%EB%B3%B4%EC%9C%A1&page=1 (2021. 7. 21 인출).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gyeo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네 (2021. 7.21 인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2021.7. 21 인출).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aej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050121(2021. 7. 16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prog/publicNotice/kor/sub02_0303/C1/view.do?pageIndex=1&not_ancmt_mgt_no=384118(2021. 7. 21 인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cheon.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21 인출)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lsan.childcare.go.kr/lulsan/d8_20000/d8_20023/d8_30027.jsp(2021. 7. 21 인출).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s://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18251&infoReturn=&menuId=jeonnam0203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B%B3%B4%EC%9C%A1&pageIndex=1&boardId=J0203&displayHeader= (2021. 7.21 인출).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2&menuCd=DOM_000000103001002001&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B%B3%B4%EC%9C%A1&categoryCode1=jeonbuk&dataSid=526042 (2021. 7. 21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jeju.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 (2021. 7. 21 인출).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cnnet/board.do?mnu_url=/integeratedBoardView.do&board_seq=354047&field01=30678&field02=A&mnu_cd=CNNMENU02364&searchCnd=0&searchWrd=%EB%B3%B4%EC%9C%A1%EC%A0%95%EC%B1%85&srtdate=20210101&enddate=20210722&pageNo=1&pageGNo=0&showSplitNo=10&code=601(2021. 7. 21 인출).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hungbuk.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jsp(2021. 7. 21 인출).

〈통계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2021. 7. 기준).

교육통계(2021). 행정구역별 유치원 학생 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5465&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8&uppCd1=010108&uppCd2=010108&flag=A(2021.11. 기준).

부록

부록 1. 가구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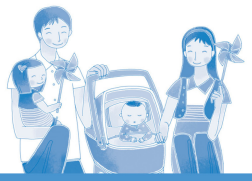
승인번호 제331007호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아동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전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구 중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귀 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 소장 박상희

조사진행 문의처: 한국통계진흥원 조사총괄본부 콜센터(042-485-2228)

조사표 종류	가구번호					시도번호	
1							

주 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 _____ (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아파트, 빌라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세 대 주)		응답자 성명		자녀 수	자녀 총( )명 만5세 이하 영유아자녀 ( )명
조 사 표 작 성 방 법	① 조사원 면접식 (방문면접, 화상면접) ② 자기기입식 (유치조사, 온라인조사)		전 화 번 호 *		집 ( ) - 휴대폰 ( ) -
조사원 성명	(인)		응 답 날 짜		2021년 ( )월 ( )일

* 전화번호 :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사기준일 :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통계진흥원

Ⅰ 가구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가구원 일련번호		2 이름	3 성별	4 생년월	5 교육정도		6 건강상태	7 혼인상태	8 경제활동	
					5-1 학교	5-2 졸업여부	장애 및 질병여부		8-1 취업여부	8-2 활동분야
		현재 댁에 함께 살고 있는 영유아(미취학) 자녀의 부모와 친(외)조부모, 영유아의 이름을 가장 어린 자녀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연소 아동의 부모는 비동거 중이라도 조사에 포함합니다.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분의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조사원은 출생년도를 모를 경우 따를 물어서 정확한 생년월을 기입함) 년 / 월	이 분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 (3년제 이하)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⑦ 미취학(영유아) (▶ 질문 6) ⑧ 무학 (▶ 질문 6)	이 분은 졸업을 하셨습니까?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휴학 ⑤ 재학	이 분은 장애 또는 질병이 있으십니까? ① 장애 있음 ② 질병 있음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④ 없음 ⑤ 모르겠음	이 분은 결혼하셨습니까? 사실상의 결혼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있음 (사실혼 포함) ② 사별 ③ 별거 (이혼 전제) ④ 이혼 ⑤ 미혼 부·모	이 분은 취업하셨습니까? ① 취업 ② 휴직중 ③ 미취업(미취학) (▶ 질문 9) ⑨ 모름 (▶ 질문 9)	현재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조사원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하는 일을 질문하여 지침서의 직업분류표에서 확인하고 기입함)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⑲ 모름
자녀	01									
자녀	02									
자녀	03									
자녀	04									
부	05									
모	06									
친조부	07									
친조모	08									
외조부	09									
외조모	10									

(※ 아동이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별거 부	11										
별거 모	12										

9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 )명

10 가족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① 조부모+부모+자녀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⑤ 부부+자녀 ⑥ 어머니 한부모+자녀
⑦ 아버지 한부모+자녀 ⑧ (한)조부모+자녀 ⑨ 친인척+자녀
⑩ 기타( )

11 이 댁에 동거하는 가구원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① 자녀 ② 부 ③ 모
④ 친조부 ⑤ 친조모 ⑥ 외조부
⑦ 외조모 ⑧ 부의 형제자매 ⑨ 모의 형제자매
⑩ 부 형제자매의 자녀 ⑪ 모 형제자매의 자녀 ⑫ 친조부모의 형제자매
⑬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⑭ 기타 친족 ⑮ 비혈연 동거인
⑯ 기타(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표)

Ⅱ 아동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연소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	모
※ 조사원 확인 최연소 아동의 부모가 현재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가를 구분합니다. ① 동거 (▶ 질문 2 로) ② 비동거 (▶ 질문 1 로) ③ 비해당(부재)		
1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혼 및 별거 ② 직장 때문에 ③ 사망 ④ 입대(병역 의무) ⑤ 기타( ) ⑧ 비해당(부재)		
2 아동의 현재 부모는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입니까? ① 그렇다(▶ 질문 2-1 로) ② 아니다(▶ 질문 3 으로) ⑧ 비해당(부재)(▶ 질문 3 으로)		
2-1 부모의 출신지는? ① 한국 ② 중국 ③ 중국(한국계) ④ 일본 ⑤ 대만/홍콩 ⑥ 베트남 ⑦ 필리핀 ⑧ 그 외 동남아시아 ⑨ 남부아시아 ⑩ 몽골/러시아/중앙아시아 ⑪ 미주/유럽/대양주 ⑫ 기타 ⑱ 비해당(이주민 아님)		
☞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인 경우에만 응답(3~9번)		
3 아동의 부모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조사기준 기간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코로나19에 따른 불규칙한 재택 포함)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 농어민) ④ 휴직 중 ⑧ 비해당(부재, 미취업) ⑨ 모름		
4 아동 부모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기입함, 조사기준 기간의 취업형태를 응답함) ①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② 정규직 임금근로자 ③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④ 무급가족 종사자 ⑧ 비해당(부재, 미취업) ⑨ 무응답, 모름		
5 토요일에 일을 하십니까? ① 매주 전일 ② 매주 반일 ③ 격주 전일 ④ 격주 반일 ⑤ 휴무 ⑧ 비해당(부재, 미취업, 휴직중) ⑨ 무응답, 모름		
6 일요일에 일을 하십니까? (※ 보기는 5 번 질문과 동일함.)		
7 평일 출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0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집에서 출발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경우 일상적인 시간으로 기입)	___시___분	___시___분
8 평일 퇴근시각을 기록합니다. (※ 예 18:00,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집에 도착하는 시각**을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의 경우 일상적인 시간으로 기입)	___시___분	___시___분

	부	모
9 1주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무직과 부재, 휴직중은 8888, 모름은 9999 기입) (※ 출퇴근, 휴식시간은 제외하고 평일(월~금)기준으로 기입)	___시___분	___시___분
10 (부 또는 모가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향후 취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현재 구직 중 (▶ 질문 10-1) ② 취업교육, 학업, 훈련 중 (▶ 질문 10-1) ③ 아이가 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 (▶ 질문 10-1) ④ 기타( ) (▶ 질문 10-1) ⑤ 계획 없음 (▶ 질문 11) ⑧ 비해당(부재, 취업중) (▶ 질문 11) ⑨ 모름 (▶ 질문 11)		
10-1 (부 또는 모가 취업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언제쯤 취업할 계획입니까? ① 3개월 이내 ② 6개월 이내 ③ 1년 이내 ④ 2년 이내 ⑤ 3년 이내 ⑥ 5년 이내 ⑦ 10년 이내		

11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부 또는 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① 어머니가 그만둔 적 있음 (▶ 질문 11-1로) ② 아버지가 그만둔 적 있음 (▶ 질문 11-1로)
③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있음 (▶ 질문 11-1로) ④ 부모 모두 그만둔 적 없음 (▶ 질문 12 로)

11-1 (부 또는 모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① 소득 보다 아이를 외부에 맡기는 비용이 큼
② 직장에서 일 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서
③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④ 일이 많아서 육아에 지장을 주어
⑤ 육아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⑥ 직장 내 육아지원 서비스가 없어서
⑦ 동시에 여러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⑧ 기타( )

부	모

11-2 (부 또는 모가 그만둔 경험이 있다면) 직장을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최초로 그만둔 시기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 기준으로 응답).

자녀 (둘 이상의 경우는 가장 어린 자녀)	
어머니	**아버지**
① 임신했을 때 ②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③ 만 1세 이전 ④ 만 1~2세 때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⑥ 취학 이후 ⑧ 기타( )	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② 배우자의 출산·출산휴가 후 바로 ③ 만 1세 이전 ④ 만 1~2세 때 ⑤ 만 3세~취학 전까지 ⑥ 취학 이후

12 자녀 양육을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어머니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2-1로) ② 아버지가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2-1로)
③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있음 (▶ 질문 12-1로) ④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한 적 없음 (▶ 질문 13으로)

12-1 (있다면) 부모님이 육아휴직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육아휴직의 **주 이유가 된 자녀를 선택하고** 그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시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첫째 자녀	□ ② 둘째 자녀	□ ③ 셋째 자녀
어머니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출산 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아버지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① 배우자의 출산휴가 후 바로~생후 6개월 이전 ② 생후 6개월 이후~만 1세 이전 ③ 만 1~2세 때 ④ 만 3세~취학 전까지 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⑥ 초등학교 2학년

12-2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여러 자녀에 대해 여러 번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면 총 기간을 합산해 답해 주십시오)

부	모
총 ___년 ___개월	총 ___년 ___개월

13 (응답자가 아동의 주양육자이며 현재 취업중인 경우) 응답자가 현재 직업에 종사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 주양육자가 미취업중이거나 휴직중일 경우 비해당 8을 기입함.)

구분	① 매우 어려움	② 약간 어려움	③ 보통	④ 별로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⑧ 비해당
1 이른 출근으로 아침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애로						
2 늦은 퇴근(야간근무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애로						
3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애로						
4 토요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애로						
5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애로						
6 아이 보육·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에 대한 부담으로 겪는 애로 (※ 기관 미이용시 비해당)						

※ 다음은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이주민 부모 가구만 응답)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각 질문에 대해 어려운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어려움	② 약간 어려움	③ 보통	④ 별로 어렵지 않음	⑤ 전혀 어렵지 않음
1 아이와 의사소통능력 부족(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한)					
2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3 양육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4 대외적 자신감 결여					
5 아이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대응					
6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 없음					
7 (영유아 포함)자녀지도·교육					
8 대인관계 관련 부적응					

Ⅲ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 정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⑧ 비해당 (부재)
1 아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2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3 아이 때문에 자기개발, 자아실현 기회를 포기할 때가 있다						

2 평소 자녀돌보기(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공부 봐주기,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등)에 부부가 각각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① 적극 참여함 ② 대체로 참여함 ③ 보통 정도로 참여함
④ 거의 참여하지 않음 ⑤ 전혀 참여하지 않음

어머니	아버지

3 현재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 한 부모, 조손 가정인 경우 비해당)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4 현재 아동의 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이외에 아동양육 등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번호	【보기】
1 아이 직접 돌보기		① 아동의 친조부모 ② 아동의 외조부모 ③ 아빠의 형제자매 ④ 엄마의 형제자매 ⑤ 이웃, 엄마·아빠 친구 ⑥ 기타( ) ⑨ 없음
2 경제적인 지원		
3 가사 지원 등		

5 아동의 연령별로 귀하가 선호하는 양육형태는 무엇입니까? 연령별로 다음의 양육 형태 중 선호하는 양육 형태를 기입해 주십시오 (※ 모든 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① 만1세 미만	② 만1세 이상 2세 미만	③ 만2세 이상 3세 미만	④ 만3세 이상 4세 미만	⑤ 만4세 이상 5세 미만	⑥ 취학전 (만 5세 이상)

【보기】
① 가정 양육 ② 어린이집 ③유치원 ④ 학원 등 사설 기관(영어학원유치부 등) ⑤ 잘 모르겠음

6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집안어른(시부모, 친정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 동료
④ 육아관련 사이트 ⑤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⑥ 관련 서적
⑦ 육아종합지원센터 ⑧ 기타( ) ⑨ 없음

7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도 또는 구에서 운영하며, 영유아기 자녀양육 및 보육 정보와 교육서비스 및 체험공간 등을 제공함.)

① 알고 있음 (▶ 질문 7-1) ② 모름 (▶ 질문 8)

7-1 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1) 인지여부	2) 이용경험	3) 이용 시 자녀양육 도움정도
	① 안다 ② 모른다 (▶ 질문 8)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3회 ③ 분기별(3개월에) 1~3회 ④ 연 1~3회 ⑤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8)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안 됨 ⑤ 전혀 안됨
1 육아정보 제공			
2 부모상담 및 검사			
3 부모교육			
4 놀이·체험 프로그램			
5 장난감·도서 대여			
6 육아 카페			

8 귀하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www.childcare.go.kr)에 대해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1 인지여부	① 안다 ② 모른다 (▶ 질문 9)
2 이용경험	① 주 1회 이상 ② 월 1~3회 ③ 분기별(3개월에) 1~3회 ④ 연 1~3회 ⑤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9)
3 주로 이용하는 정보 (1가지 선택)	① 육아 및 보육 정보 ② 어린이집 이용 관련(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 찾기 등) ③ 비용 지원 정보 및 신청, 결제 ④ 온라인 상담 ⑤ 커뮤니티(블로그 등) ⑥ 기타( )
4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귀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여성가족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공공아이돌보미)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1) 인지 및 이용 경험	2) 만족도
	① 현재 이용 ② 과거 이용 경험 있음 ③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④ 잘 모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⑧ 비해당(이용 경험 없음)
1 시간제 돌봄(일반, 종합)		
2 종일제 돌봄(영아, 보육교사형)		
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Ⅳ 보육·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육아지원 정책 방향	필요성 ← 낮음						높음 →
1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예: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예: 가정 양육 가구 이용 서비스 확충, 부모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예: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다음과 같은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0-2세 보육료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 연장반 (16:00-19:30) 보육료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4 0~5세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5 장애아 보육료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6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이용 시 지원) * (야간연장) 19:30~24:00, (야간12시간) 19:30~익일07:30, (24시간) 07:30~익일07:30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7 시간제 보육료(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8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9 지방정부 수당(출산 시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축하금 등 지원금)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3 귀댁에서는 보육료·교육비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1) 수혜 경험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2)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⑧ 비해당(이용 경험 없음)
1 0-2세 보육료		
2 연장반 (16:00-19:30) 보육료		
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4 0~5세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5 장애아 보육료		
6 야간연장형 등 보육료(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이용 시 지원) * (야간연장) 19:30~24:00, (야간12시간) 19:30~익일07:30, (24시간) 07:30~익일07:30		
7 시간제 보육료(기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원)		
8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 지원)		
9 지방정부 수당(출산 시 지자체에서 일시금이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축하금 등 지원금)		

4 귀하께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② 보육료·교육비 지원금액 인상
③ 기관 미이용자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인상
④ 보육·교육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⑤ 야간연장형 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⑥ 공공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 보장
⑧ 육아정보·상담 제공
⑨ 유연근무제 확대(시차출근제, 단시간근로 등)
⑩ 기타( )

V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어린이집	① 과거에 이용함	② 현재 이용 중	③ 이용한 적 없음
2 유치원	① 과거에 이용함	② 현재 이용 중	③ 이용한 적 없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없을 경우(▶ 질문 18 로 이동)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질문 2~17번)

2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20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 휴원기간 긴급보육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한 해당 기간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① 2020년 1분기 ② 2020년 2분기 ③ 2020년 3분기 ④ 2020년 4분기 ⑤ 2021년 1분기
⑥ 2021년 2분기 ⑦ 2021년 3분기 ⑧ 2021년 4분기 ⑪ 긴급보육 이용한 적 없음 (▶ 문항 3 으로)

2-1 (이용한 경우) 휴원기간 긴급보육 이용 이유를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맞벌이/취·학업으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인해
② 어린이집 소독과 감염예방의 방역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어
③ 주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④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 제한이 없어서
⑤ 기타(적어주세요:)

3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어린이집 휴원조치와 긴급보육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상당히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 어린이집 휴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2 휴원기간 **긴급돌봄의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3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위험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대응과 지원**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4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매우 만족	만족한 편	보통	불만족한 편	매우 불만족	비해당 /잘모름
	①	②	③	④	⑤	⑥
1 어린이집 소독/방역 실시						
2 어린이집 등원 아동에 대한 긴급보육을 충실히 수행						
3 어린이집 미등원 아동에 대한 놀이 활동 정보 제공 등 가정 내 돌봄 지원						

5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제공이 휴원기간 동안 보육이 필요한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2020년 3월부터 정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반과 연장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함 (▶ 질문 6-1)
② 적절한 편임 (▶ 질문 6-1)
③ 보통임 (▶ 질문 6-1)
④ 부적절한 편임 (▶ 질문 6-1)
⑤ 매우 부적절함 (▶ 질문 6-1)
⑥ 잘 모름 (▶ 질문 7)

6-1 귀하께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 이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함	다소 만족함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함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1 어린이집 등원시각					
2 어린이집 하원시각					
3 기본보육(9:00-16:00)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4 기본보육(9:00-16:00) 이용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5 연장보육(16:00-19:30) 이용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6 연장보육(16:00-19:30) 이용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7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아이의 하루일과에 관한 소통					
8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9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의 연장보육일과에 대한 소통					
10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아이와의 관계					
11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및 알림 서비스 이용					

6-2 귀하께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 이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좋아짐	다소 좋아짐	보통	별로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비해당
	①	②	③	④	⑤	⑧
1 눈치안보고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 이용하게 됨						
2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연장보육의 질 개선						
3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알림서비스로 등·하원 사고로부터 안심						

6-3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 이후)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연장반 이용 자격기준 완화 ② 연장반 보육프로그램 구성
③ 연장반 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④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⑤ 다양한 반으로 연장반 편성 ⑥ 기본보육반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하원시간 연장
⑦ 연장보육 이용시간(월 1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는 부담 ⑧ 기타( )

7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인어린이집(공공형, 서울형)을 아십니까?

※공공형 : 민간, 가정, 법인·단체 어린이집 중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서울형 : 서울시에서 보육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① 들어봤고 내용도 알고 있음(▶ 질문 7-1) ② 명칭 정도만 들어봤음(▶ 질문 8)
③ 잘 모름(▶ 질문 8)

7-1 귀하는 공인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공보육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비슷하다 ② 약간 다르다 ③ 전혀 다르다

7-2 귀하는 공인(공공형, 서울형)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1 운영비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③ 잘 모름
2 보육료	① 잘 알고 있음	②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③ 잘 모름

7-3 공인어린이집(공공형, 서울형)을 안다면, 공인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유사 ② 약간 유사 ③ 약간 다름 ④ 매우 다름 ⑤ 잘 모름

8 정부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인지 여부	2) 이용 경험	3) 전반적 만족도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앎 ③ 들어본 적 있음 ④ 모름	① 1주일에 1회 이상 ② 한 달에 1~3회 ③ 분기별(3개월에) 1~3회 ④ 연 1~3회 ⑤ 이용 경험 없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1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어린이집의 위반사실(보조금 부정 수령, 허위아동 등록, 운영기준 위반 등)을 공표하여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고, 어린이집 위반 사실을 포털에서 조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조회해 본 적 있음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조회해 본 적 없음
③ 전혀 알지 못함

9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찾아본 적 있음 (▶ 질문 9-1) ② 찾아본 적 없음 (▶ 질문 10) ③ 잘 모름 (▶ 질문 10)

9-1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귀댁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 됨 (▶ 질문 10) ② 도움 됨 (▶ 질문 10) ③ 보통 (▶ 질문 10)
④ 별로 도움 안 됨 (▶ 질문 9-2) ⑤ 전혀 도움 안 됨 (▶ 질문 9-2)

9-2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서 어떠한 정보가 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교직원 관련 (▶ 질문 9-3-1) ② 특별활동 관련 (▶ 질문 9-3-2) ③ 급식 관련 (▶ 질문 9-3-3)
④ 환경안전 관련 (▶ 질문 9-3-4) ⑤ 보육과정 관련 (▶ 질문 9-3-5) ⑥ 경비 관련 (▶ 질문 9-3-6)
⑦ 회계 관련 (▶ 질문 9-3-7) ⑧ 기타(　　)

9-3 (질문 9-2에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9-3-1) 교직원	① 교사 자격	② 교사 근무기간	③ 기타 교직원 현황	④ 기타(　　)
9-3-2) 특별활동	① 제공업체	② 주당 운영횟수	③ 1회 운영시간	④ 기타(　　)
9-3-3) 급식	① 급식운영방식	② 식중독발생여부	③ 조리인력 관련 정보	④ 기타(　　)
9-3-4) 환경안전	① 비상재해대비 시설 설치	② 환경위생관리	③ 전기가스소방안전점검	④ 기타(　　)
9-3-5) 보육과정	① 공통과정	② 주당 운영시간	③ 보육과정 운영계획	④ 기타(　　)
9-3-6) 경비	① 보육비용	② 연령별 최대 수납액	③ 필요경비 이외	④ 기타(　　)
9-3-7) 회계	① 예산서	② 결산서	③ 공시시기	④ 기타(　　)

10 귀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자원봉사 어린이집 참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는 보육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또한 앞으로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용	1) 참여 여부	2) 도움 정도	3) 앞으로 참여 의향
	① 적극 참여 ② 소극 참여 ③ 미참여 ④ 모름(▶ 질문 11) ⑤ 코로나로 미시행(▶ 질문 11) ⑧ 없음(▶ 질문 11))	① 매우 도움 됨 ②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 안 됨 ⑤ 전혀 도움 안 됨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2 부모모니터링단			
3 부모 자원봉사			

11 귀하는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열린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을 개방하여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정하는 어린이집 부모의 자유로운 방문과 참여가 가능함.

① 잘 알고 있음 ② 대충 앎 ③ 들어본 적 있음 ④ 모름

12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13 정부는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평가등급, 평가결과서, 평가이력)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음 (▶ 질문 13-1) ② 대충 앎 (▶ 질문 13-1) ③ 들어본 적 있음 (▶ 질문 13-1) ④ 모름

13-1 귀하는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가 보육서비스 수준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느 정도 일치 ② 아닌 편 ③ 전혀 관계가 없음 ④ 잘 모름

14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의무화 및 열람범위 확대가 아동학대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됨 ② 어느 정도 도움 ③ 별로 도움 안 됨 ④ 전혀 도움 안 됨

15 어린이집 내 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른 아동 및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 방지 위해 전혀 문제될 게 없음
② 다른 아동 또는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잘 모르겠다

16 귀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열람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요건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음(▶ 질문 17) ② 모름(▶ 질문 18)

17 귀댁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열람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질문 17-1, 17-2로) ② 없음(▶ 질문 18로)

17-1 (열람신청 경험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동학대 의심 ② 안전사고 의심 ③ 단순 의심

17-2 (열람신청 경험 있다면) 열람 신청 후 언제 열람하셨습니까?

① 즉시 열람함 ② 신청 당일 열람함
③ 신청 후 10일 이내 열람함 ④ 신청 후 10일 이후 열람함
⑤ 열람을 거부당함 (▶ 질문 17-3으로)

17-3 (열람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CCTV 열람 신청이 거부당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간 경과(60일) ② 사생활 침해 ③ 영상자료 훼손 ④ 신청 사유 부적합 ⑤ 단순 거부

※ 모든 영유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8 현재 집 또는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아이들을 믿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기관의 수	아이를 믿고 보낼만한 곳
	① 충분 ② 불충분 ③ 잘 모름	① 많음 ② 1~2곳 있음 ③ 없음 ④ 잘 모름
1 어린이집		
2 유치원		

19 정부는 어린이집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공통교육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이를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 0-2세 표준보육과정(2019 개정)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 3-5세 누리과정(2019 개정)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20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6~36개월 미만)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육료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이용 경험 있음 (▶ 질문 20-1, 20-3, 20-4)
② 잘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20-2, 20-3, 20-4)
③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 질문 20-2, 20-3, 20-4)
④ 전혀 모름 (▶ 질문 20-4)

20-1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자) 귀댁에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 연령이 어려 종일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서
② 자녀 양육 이외의 개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
③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필요해서
④ 입소 대기 등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생각이라서
⑤ 기타( )

20-2 (시간제 보육 이용 미경험자)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① 종일 이용하는 기관이 있거나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② 아이가 낯설어 해서
③ 시간제 보육기관이 집에서 멀어서
④ 이런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⑤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어서
⑥ 신청절차가 어려워서
⑦ 비용이 부담되어서
⑧ 기타(　　)

20-3 귀하는 시간제 보육 및 그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다음 중 시간제 보육 등 정보를 알게 된 가장 주된 방법을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②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홍보물
③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홍보물
④ 맘카페,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모바일 매체의 게시물
⑤ 이용했던 지인의 소개
⑥ 기타(　　)

20-4 귀댁에서는 향후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자주 이용할 것임(주 2회 이상)
② 가끔 이용할 것임(주 1회 정도)
③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것임(필요시)
④ 이용 계획 없음
⑤ 잘 모르겠음

21 귀하는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 질문 22)　　② 있음 (▶ 질문 21-1)

21-1 귀하가 받은 '부모교육'은 다음 중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모두** 골라주십시오(중복응답).

①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② 보호자의 역할
③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④ 가족윤리 및 예절
⑤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⑥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⑦ 기타(　　)

21-2 (부모교육을 받아온 경험이 있다면) 귀하는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모교육'을 받았습니까? 받아본 경험이 있는 기관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온라인 포함).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건강가정지원센터
⑤ 직장(강사파견 등)
⑥ 종교기관
⑦ 지자체(군·구청,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 포함)
⑧ 기타(사설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
(　　)

22 귀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음(▶ 질문 22-1, 22-2) ② 없음(▶ 질문 23) ③ 잘 모름(▶ 질문 23)

22-1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교육 내용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 방법(대화법, 놀이방법 포함)
② 보호자의 역할
③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④ 가족윤리 및 예절
⑤ 가족의 건강·영양·안전교육
⑥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⑦ 기타(　　)

22-2 부모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가장 희망하는 방식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집합 교육 (▶ 질문 22-2-1 로) ② 1:1 컨설팅 방식 (▶ 질문 22-2-1 로)
③ 온라인 교육(▶ 질문 23 으로) ④ 기타(　　)

22-2-1 부모교육이 실시될 장소로 귀하는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① 자녀가 다니는 기관(예: 어린이집, 유치원 등) ② 직장(강사 파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④ 기타(　　)

23 만약,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Ⅵ 기타 질문입니다.

1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질문 1-1) ② 없다(▶ 질문 1-3) ③ 생각 중(▶ 질문 1-3)

1-1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출산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현재 임신 중 ② 1년 이내 ③ 1년~2년 이내
④ 2년~3년 이내 ⑤ 3년 이후 ⑥ 잘 모르겠음

1-2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함.)

총 ( )명

1-3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생각 중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영유아기 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취학 후 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부모 나이가 많아서
⑦ 자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 )

2 귀댁 미취학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미취학 자녀 모두에게 지출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다소 부담됨 ⑤ 매우 부담됨

※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Ⅶ 가구의 주택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기타( )

2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양육관련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총 소득을 의미함
※ 소득은 지난 3개월 평균 금액이며, 세금 공제 전의 금액임

가구 총 소득 월 _____ 만원

2-1 아동 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 평균 '세전'소득으로 기입.
(※ 무직과 부재는 8888, 모름은 9999 기입)

부	모
_____만원	_____만원

3 귀댁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지출액(소비+비소비)은 얼마나 되는지요?

※ 제외사항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저축성 보험, 펀드, 증권, 부동산 구입, 귀금속 구입 등) 및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부동산 대출 상환, 기타대출상환 및 전세금 반환, 자산이전 등)은 제외

가구 총 지출액 | 월 _____ 만원

3-1 귀댁이 지난 1년 동안 귀댁의 '영유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소비+비소비)은 얼마나 되는지요? 귀댁의 자녀 중 미취학 영유아 자녀에 한정하여 지출한 양육비를 답하여 주십시오.

※ 양육비: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모든 항목(보육·교육, 사교육비, 식비·의류 구입비, 자녀 관련 보험 지출액 등 모두 포함,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의미함)

월 만원

4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질문 4-1 로) ② 아니다

4-1 받고 계신다면 현금으로 월 얼마를 받으십니까?

월 총 _____ 만원

※ 조사원 확인사항

5 현재 응답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여 표시하십시오.

①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 주택
④ 영업용 건물 내 주택 ⑤ 기타( )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례품 수령 확인

본인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참여에 동의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답례품( )을 수령하였음.

응답자: _____(인)

부록 2. 아동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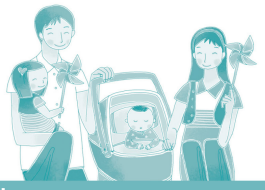
승인번호 제331007호

작성기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기관	한국통계진흥원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표)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의뢰로 보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와 아동 개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선정은 전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가구 중 무작위 추출되었으며, 귀 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육아정책연구 소장 박상희

조사진행 문의처: 한국통계진흥원 조사총괄본부 콜센터(042-485-2228)

조사표 종류	가구번호					아동 가구원 번호		아동조사 일련번호		
2										

주 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로 _____(길) _____ 공동주택명 _____아파트, 빌라 _____ 동 _____ 호		
가구주 성명 (세 대 주)		아 동 성 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집 ( ) - 휴대폰 ( ) -
조사원 성명	(인)	응 답 날 짜	2021년 ( )월 ( )일

* 전화번호 :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조사원은 가구원 사항에서 아동의 가구원 번호와 이름을 옮겨 적고, 이 아동에 관하여 질문하십시오.

조사기준일 :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통계진흥원

Ⅰ 보육·교육 이용과 지원 개요

※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는 몇 번째 자녀입니까? ( ) 명의 자녀 중, ( )번째 자녀

2 현재 낮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 ② 모 ③ 부모의 형제자매 ④ 친조부모
⑤ 외조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비혈연(민간아이돌보미 등) ⑧ 공공아이돌보미
⑨ 주로 기관에 맡김 ⑩ 없음(혼자, 형제끼리 지냄)

3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용한 기관(반일제 이상)은 무엇입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④ 기타( ) ⑤ 기관 이용경험 없음(▶ 질문 **4** 로)

3-1 이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반일제 이상)을 이용한 것은 몇 개월 때부터입니까?

( )개월 때

3-2 이 아이가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신체, 정서, 인지 등 전체적·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예체능 등 취미, 특기 개발 교육)을 위하여
④ 부모가 취업으로 돌보기 어려워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주위에 놀이 상대가 없어서
⑦ 보육료·교육비가 전액 지원되어서
⑧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⑨ 부 또는 모가 미취업상태이나 다른 일로 바빠서
⑩ 기타( )

4 이 아이의 각 연령대별로 보육 또는 교육을 위하여 주로 어디 또는 누구를 이용했습(합)니까? 그리고 이때 부모가 취업 중이었습니까? 각 순위에 해당되는 번호를 세 개까지 기록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많이 돌보는 사람 또는 이용시간이 긴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 2021년 9월 1일 기준이며 현재 연령 이후는 비해당 88 기입함.)

구분	【보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④ 시간제 사교육 기관 (시간제 특기보습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⑥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⑦ 조부모 ⑧ 기타 친인척 ⑨ 비혈연 육아인력(베이비시터 등), 아이돌보미, 기타 비혈연(비전문인력) ㊽ 비해당(부모가 돌봄)			모의 취업상태 ① 전일제 취업중 ② 시간제 취업중 ③ 학업 및 취업 훈련중 ④ 미취업 ⑤ 휴직 및 출산 휴가중 ⑧ 비해당(모부재)	부의 취업상태 ① 전일제 취업중 ② 시간제 취업중 ③ 학업 및 취업 훈련중 ④ 미취업 ⑤ 휴직 및 출산 휴가중 ⑧ 비해당(부부재)
	1순위	2순위	3순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3세 미만					
만3세 이상 4세 미만					
만4세 이상 5세 미만					
만5세 이상 취학 전					

5 이 아이가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5-1 그때 다니던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그만 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입함.)

① 다니던 어린이집 관련 불만 때문에(시설, 실내 환경, 프로그램, 원장, 교사, 주변 환경 등)
②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
③ 가정과 어린이집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집과의 거리가 멂, 이용시간이 맞지 않음,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④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부담돼서
⑤ 기관의 폐원이나 이전 때문에
⑥ 다른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원, 학원 등)에 보내려고
⑦ 집에서 양육하고 싶어서
⑧ 안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⑨ 기타(　　)

6 이 아이는 2021년 9월 현재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지원받는 액수는 월 얼마입니까?
(※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비용 수혜여부	지원 액수
	① 현재 받음 ② 현재 받고 있지 않음	월 총 ( )천원
1 시간제보육료(시간제보육 이용 시 이용료 3,000원 지원, 1,000원 자부담)		천원
2 가정양육수당		천원
3 아동수당		천원
4 아이돌보미 비용		천원
5 바우처(학습지 등)		천원
6 보육료		천원
7 교육비(유아학비)		천원
8 기타( )		천원
총계		**천원**

6-1 (가정양육수당 수혜 시) 현재 받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질문 6-1-1 로) ⑤ 매우 불만족(▶ 질문 6-1-1 로)
⑧ 비해당(가정양육수당 안받음)

6-1-1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 )만원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표)

Ⅱ 미취학 아동의 하루 중 시간 단위 이용 기관 및 돌보는 사람 등

※ 이 아이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반까지 보통 어떠한 보육·교육 기관과 누구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합니까? (30분 간격으로 기입합니다.)

※ 기준일은 방문 전날이며, 방문날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경우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준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중 평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아이가 잠자는 경우 해당시간에 돌봐주는 양육자 기입)

기준일: 2021년 월 일 (요일)

【보기】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④ 시간제 사교육 기관(특기·보습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⑥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 기관
⑦ 조부모
⑧ 기타 친인척
⑨ 비혈연 육아인력(베이비시터 등), 아이돌보미, 기타 비혈연(비전문인력)
⑩ 비해당(부모가 돌봄)

시각	번호	시각	번호
07:00 ~ 07:30		15:00 ~ 15:30	
07:30 ~ 08:00		15:30 ~ 16:00	
08:00 ~ 08:30		16:00 ~ 16:30	
08:30 ~ 09:00		16:30 ~ 17:00	
09:00 ~ 09:30		17:00 ~ 17:30	
09:30 ~ 10:00		17:30 ~ 18:00	
10:00 ~ 10:30		18:00 ~ 18:30	
10:30 ~ 11:00		18:30 ~ 19:00	
11:00 ~ 11:30		19:00 ~ 19:30	
11:30 ~ 12:00		19:30 ~ 20:00	
12:00 ~ 12:30		20:00 ~ 20:30	
12:30 ~ 13:00		20:30 ~ 21:00	
13:00 ~ 13:30		21:00 ~ 21:30	
13:30 ~ 14:00		21:30 ~ 22:00	
14:00 ~ 14:30		22:00 ~ 22:30	
14:30 ~ 15:00			

※ 조사원은 기준일이 무슨 요일인지 기록합니다.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1 이 아이가 어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이었습니까?
(※ 부모 부재일 경우 해당 칸에 88 기입함. 아이가 잠자는 시간은 제외함.)

어머니	최근 평일(하루)	(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 시간
아버지	최근 평일(하루)	(	) 시간
	지난 주말(하루)	(	) 시간

※ 조사원은 가구조사표에 의거하여 해당아동에게 조사할 내용의 해당여부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조사하십시오. (※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음.)

Ⅲ.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Ⅳ. 미취학 아동 전체	① 해당	
Ⅴ.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보습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Ⅵ. 전체 아동 중, 현재 개별/그룹지도·학습지 등 교육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Ⅶ.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Ⅷ.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용 아동	① 해당	⑧ 비해당

Ⅲ 미취학 아동 중 현재 보육·교육 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을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시간제보육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이용 기관 일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⑩ 반일제 이상 기관(영어학원 등)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협동어린이집		

2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예체능 등)을 위하여
④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질문 2-1 로)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⑦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⑧ 비용 부담이 적어서
⑨ 기타(　　)

2-1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집에 돌볼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아무데도 안 보냄　② 기관에 계속 보냄

3 이 아이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 2021년 9월 1일 기준)
(　　)개월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 (　　)개월째 다니고 있음

4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번	2순위 (　　)번

① 원장　② 교사　③ 운영시간
④ 비용　⑤ 프로그램　⑥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⑦ 기관 학급 규모(아동 수)　⑧ 기관 실내·외 환경　⑨ 안전한 보호(CCTV설치 여부 등)
⑩ 집과의 거리　⑪ 기관 시설·설비　⑫ 국공립 여부
⑬ 주변의 평판　⑭ 주변환경　⑮ 평가 결과(평가등급, 평가결과서 내용 등) (※어린이집만 응답)
⑯ 차량운행 여부　⑰ 특별활동(방과후특성화활동)　⑱ 형제 재원 여부
⑲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어린이집만 응답)　⑳ 기타(　　)

[기관 이용 일수 및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현재 이 아이가 기관을 이용하는 요일은 일주일 중 무슨 요일입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요일을 모두 표기해 주십시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중 정기적 이용일 수
이용여부 표기 ① 이용 ② 미이용								주_____일

5-1 (어린이집 이용자 중 토요보육 미이용자에 질문) 귀댁에서 이 아동에 대해 토요일에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① 자주 있음(6개월간 3회 이상)　② 가끔 있음(6개월간 3회 미만)　③ 없음

6 평상시에 이 아이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예: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4시 00분인 경우, 09시 00분 ~ 16시 00분(24시간 기준으로 작성)
※ 이용시간은 기관에 도착하는 시간부터 기관에서 하원 하는 시간까지를 작성합니다.

(　　)시 (　　)분 ~ (　　)시 (　　)분

7 이 기관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시작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
2) 끝나는 시각	① 만족	② 너무 이르다	③ 너무 늦다	④ 기타( )

8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정하고 싶으십니까?
(※ 예: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4시 00분인 경우, 09시 00분 ~ 16시 00분)

( )시 ( )분 ~ ( )시 ( )분

[이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이나 입학금은 얼마를 내셨습니까? 원복과 체육복 비용 등 입학할 때에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작성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지불한 금액이 없으면 금액에 0을 기입해 주십시오.)

(20)년도에 ( ) 천원

10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매월 부모님이 별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아래 표에 해당 비용을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현재 다니는 기관을 어린이집과 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기관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조사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천원 단위로 기입함. 없으면 0 기입함.) (※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용기관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외(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등)	
항목	금액	항목	금액
1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 (정부지원금 제외, 차액 보육료)	월평균 ( )천원	1 부모가 지불하는 교육비 (정부지원금 제외)	월평균 ( )천원
2 특별활동비	월평균 ( )천원	2 특성화 활동비	월평균 ( )천원
3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월평균 ( )천원	3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월평균 ( )천원
		4 급간식비	월평균 ( )천원
		5 차량이용비	월평균 ( )천원
		6 (유치원)방과후과정비(종일반비)	월평균 ( )천원
		7 교재비(특별활동비 제외)	월평균 ( )천원
7 (어린이집)시도특성화비	월평균 ( )천원		
8 기타( )	월평균 ( )천원	8 기타( )	월평균 ( )천원
총계	**월평균 ( )천원**	**총계**	**월평균 ( )천원**

11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적당함
④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1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13 으로)

12-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 최고 얼마까지 추가로 더 부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현재보다 추가로 월 최고 ( )천원까지 더 부담할 수 있음

13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로 어떻게 등원, 하원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등원시 ( )	하원시 ( )

【보기】

① 기관 차량을 이용해서 (▶ 질문 13-1, 13-2 로) ② 보호자와 자가용으로 (▶ 질문 13-1 로)
③ 보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 질문 13-1 로) ④ 보호자와 동반하여 걸어서 (▶ 질문 13-1 로)
⑤ 자녀 혼자 걸어서 (▶ 질문 14 로) ⑥ 기타( ) (▶ 질문 13-1 로)

13-1 등하원 시, 원장 또는 교사와 이 아이의 개별사항 또는 기관 이용 관련 정보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교류합니까?

① 매일 ② 주 1~2회 ③ 월 1~2회 ④ 전혀 안함

13-2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원 하는 경우, 교직원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습니까?

① 등하원시 모두 동승한다 ② 등원시만 동승한다
③ 하원시만 동승한다 ④ 동승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14 위의 방법으로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4-1. 등원	14-2. 하원
( ) 분	( )분

15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 정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교직원(원장, 교사)					
2 주변환경					
3-1 시설환경(건축물 관련)					
3-2 실내환경(교재·교구 등)					
4 비용					
5 건강관리					
6 급간식관리					
7 안전관리					
8-1 교육내용(평상시)					
8-2 교육내용(코로나 등 위기 시기)					
9 생활지도					
10 부모참여 및 교육					

16 귀하께서는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제공받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서비스 내용	1) 제공/참석 ① 매일 ② 매주 1회 ③ 월 1회 ④ 분기 1회 ⑤ 연 1~2회 ⑥ 제공 안함 ⑦ 모름	2)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⑧ 비해당(제공 안함/모름)
1 보육·교육 계획표 제공		
2 급식·간식 식단제공		
3 가정통신문(안내문 등) 제공		
4 자녀발달평가 결과지 제공		
5 부모상담		
6 부모교육 자료 제공		
7 부모참여 프로그램 제공		
8 양방향 알림장		

17 다음은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0일 경우, 2) 문항에 프로그램 수 0만 기입하고 3)번 문항 이후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음)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1) 운영 여부	2)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기록	3)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4) 월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5) 일주일간 몇 회 이용합니까?	6) 해당 특별활동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① 운영 ② 미운영 ③ 모름	(미이용시 0을 기입하고 이후 빈칸)	① 선택 가능 ② 무조건 이용	※ 비용을 천원 단위로 기록 (미지불 888)	※ 일주일 기준으로 횟수 기입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예능 (미술, 음악 등)		개		천원	회	
2 체육 관련		개		천원	회	
3 수학/과학 관련		개		천원	회	
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개		천원	회	
5 영어		개		천원	회	
6 기타		개		천원	회	
총계		**총 개**		**총 천원**	**총 회**	

18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중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17번 질문에 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번호 기입. 특별활동(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해당 8 기입함)

( )

19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만 질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안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③ 전혀 모른다
⑧ 비해당(특별활동 미운영)

20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인력	① 인력 증원	② 인력의 질 제고
시설	③ 노후 시설 정비	④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비용	⑤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⑥ 안전관리 강화	⑦ 교육내용 다양화

※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질문 1~6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이 아이는 올해(2021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건강검진 여부	① 받음	② 받지 않음	③ 잘 모름
2 사전안내 여부	① 사전 안내 받았음	② 사전 안내 받지 않음	③ 잘 모름

2 만약에 정부가 가정양육수당을 현 지원수준보다 인상한다면, 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계속 다님
② 그만두고 사설 영어유치원 등 보냄 (▶ 질문 2-1)
③ 그만두고 집에서 보겠음 (▶ 질문 2-1)
④ 잘 모름

2-1 (②와 ③을 응답한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어느 정도 인상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는 연령에 따라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지원수준보다 (　　)만원 더 인상하면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것임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질문 3~6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3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공공형 또는 서울형 어린이집입니까?

① 공공형 (▶ 질문 3-1) ② 서울형 ③ 잘 모름 ⑧ 비해당(공공형 또는 서울형이 아닌 어린이집)

3-1 (공공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여부가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매우 그러함
② 대체로 그러함
③ 그렇지 않음
④ 전혀 그렇지 않음

3-2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추가 보육료 지원
②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③ 질 높은 교사
④ 원장의 보육철학
⑤ 기타(　　)
⑧ 장점 없음

4 이 아이는 열린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질문 4-1)
② 아니오

4-1 (열린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20년 2월 이전) 맞춤형 보육제도 운영 시, 이 아이의 보육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맞춤반 ② 종일반 ③ 20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 처음 이용

6 이 아이는 현재 기본보육만 이용합니까, 연장보육까지 이용합니까?

① 기본보육만 이용 (▶ 6-1 으로)　② 연장보육까지 이용 (▶ 6-3 으로)

6-1 이 아이가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체크 가능)

① 연장보육이 필요하지 않아서
②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
③ 연장보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④ 어린이집이 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아서
⑤ 어린이집 외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⑥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장시간 보육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_____)

6-2 이 아이가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연장보육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6-2-1 로)　② 아니오 (▶ Ⅳ영역으로)

6-2-1 이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① 예 (▶ 6-2-2 로)　② 아니오 (▶ Ⅳ영역으로)

6-2-2 이 경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응답 후 Ⅳ영역으로)

① 담임교사에게 직접 하원지도를 받지 못하는 점
② 낯선 교사와 환경으로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③ 어린이집 눈치가 보임
④ 신청방식(또는 절차)이 불편함
⑤ 기타(_____)

6-3 이 아이가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 체크 가능)

①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어서
②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심되어서
③ 연장보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④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마음에 들어서
⑤ 기타(_____)

6-4 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영유아를 위한 **저녁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저녁 급·간식 모두 제공 (▶ 6-4-1 로)
② 저녁 간식 제공 (▶ 6-4-1 로)
③ 저녁 급식 제공 (▶ 6-4-1 로)
④ 미제공 (▶ Ⅳ영역으로)

6-4-1 저녁 급·간식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① 부모 부담 (▶ 6-4-2 로)
② 어린이집에서 제공 (▶ Ⅳ영역으로)
③ 집에서 도시락 등을 지참해 보냄 (▶ Ⅳ영역으로)
④ 기타(　　) (▶ Ⅳ영역으로)

6-4-2 한 달 평균 저녁 급·간식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달 평균_____원

Ⅳ 미취학 아동 전체에 질문

※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대기 신청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 1-1) ② 없다 (▶ 질문 2)

※ 대기한 곳이 여러 곳일 경우, 가장 오랜기간 동안 대기한 기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 문1-4-2)

1-1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대기하였습니까?

( )개월 (※개월 수로 환산하여 작성함.)

1-2 (대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1곳 선택)

① 국공립어린이집 (▶ 질문 1-3)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질문 1-3)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질문 1-3) ④ 민간어린이집 (▶ 질문 1-3)
⑤ 가정어린이집 (▶ 질문 1-3) ⑥ 협동어린이집 (▶ 질문 1-3)
⑦ 직장어린이집 (▶ 질문 1-3) ⑧ 국공립 유치원 (▶ 질문 2)
⑨ 사립 유치원 (▶ 질문 2) ⑩ 기타( )

1-3 (어린이집 대기경험 있다면) 이 아이의 입소대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수기 신청: 입소 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

① 수기 신청 (▶ 질문 2) ②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질문 1-4)

1-4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통해 입소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만족(▶ 질문 1-4-1) ② 대체로 만족(▶ 질문 1-4-1) ③ 보통(▶ 질문 1-4-2)
④ 불만족(▶ 질문 1-4-2) ⑤ 매우 불만족(▶ 질문 1-4-2)

1-4-1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기기간 단축 ② 투명한 입소자 관리 ③ 우선순위 임의조정 방지
④ 맞벌이자녀 입소거부 차단 ⑤ 기타( )

1-4-2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이용 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부모에 대한 예외 신청 방법 필요
② 입소 신청 시 시스템을 통해 서류 첨부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③ 입소 아동 중 일부 기관 재량권, 특별전형 인원 부여
④ 기타( )

2 앞으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시기에 이용할 의향이 있는 기관의 번호를 한 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아이가 이용하고자 할 때 모든 기관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응답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 미이용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⑩ 반일제 이상 기관 (영어학원 등)	⑪ 가정양육

기준년도	출생연도별 기관 이용 의향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2019년생		2020년생		2021년생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보육연령	기관
2022년	5세		4세		3세		2세		1세		0세	
2023년			5세		4세		3세		2세		1세	
2024년					5세		4세		3세		2세	
2025년							5세		4세		3세	
2026년									5세		4세	
2027년											5세	

3 (위 2번에서 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보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

4 (위 2번에서 ⑧ 국공립유치원에 보내시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비용이 저렴해서 ② 신뢰가 가서 ③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교사가 우수해서 ⑤ 교육내용이 좋아서 ⑥ 기타( )

5 현재 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보육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근 6개월 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등은 어떻게 되십니까?

※ 야간연장 보육은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며,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에 이용할 수 있음.

구분	필요성 정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요일 및 이용시간
	① 상시 ② 1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년에 1~2번 ⑤ 필요 없음	① 주당 3회 이상 ② 주당 1~2번 ③ 월 3~4회 ④ 월 1~2회 ⑤ 없음	※ 주로 이용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
1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			① 월~금 (:) ~ (:) ② 토요일 (:) ~ (:)
2 기준 보육시간 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야간12시간보육)			
3 1박 2일 등 2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24시간보육)			
4 휴일(일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휴일보육)			

6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상황이나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누가(어디서) 돌보아줍니까?

1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못할 상황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베이비시터 등)
	④ 시간제보육반	⑤ 공공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⑥ 기타( )
2 아이가 아플 때	① 부모	② 조부모 및 친인척	③ 비혈연
	④ 어린이집	⑤ 공공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⑥ 기타( )

※ 공공아이돌보미 :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개별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놀이 활동 등을 해줄 수 있음(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

7 (자녀 연령이 6~36개월 미만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이 아이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내용에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1) 이용 주기	2) 이용 건당 평균 이용 시간	3) 서비스 제공기관 (주 이용기관)	4) 방문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5) 이용 시 만족도	6) 이용 시 자녀양육 도움정도
보기	① 매일 ② 1주일에 2~3번 ③ 1주일에 1번 ④ 한 달에 1~2번 ⑤ 1년에 1~2번 ⑥ 이용경험 없음 (▶ V의 질문 1로)	( )분	① 어린이집 ② 육아종합 지원센터 ③ 기타( )	① 도보 ( )분 ② 대중교통 ( )분 ③ 자가용 ( )분 ④ 기타( ) ( )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① 매우 도움 됨 ② 어느 정도 도움 됨 ③ 보통 ④ 도움되지 않음 ⑤ 전혀 도움되지 않음

V 전체 아동 중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보습학원 및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특기교육학원 또는 일반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의 시간제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특기교육을 위해 다니는 시간제 학원 및 문화센터 등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이며, 1주간 평균 이용시간과 1개월간 학원에 내는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또한 다니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이용하지 않는 종류의 경우, 프로그램 수에는 0을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는 모두 공란으로 비워둠
※ 각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임.)

이용	1) 프로그램 수	2) 이용시간	3) 비용	4) 전반적 만족도
	( )개	주 평균 ( ) 시간	월 총( )천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예능(미술, 음악 등)	개	시간	천원	
2 체육관련	개	시간	천원	
3 수학/과학 관련	개	시간	천원	
4 언어(한글, 한자, 기타 외국어 등)	개	시간	천원	
5 영어	개	시간	천원	
6 기타	개	시간	천원	
총 계	**총 개**	**총 시간**	**총 천원**	

VI 전체 아동 중 현재 개별·그룹지도 및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 현재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개별·그룹 교육 지도 및 학습자교재교구 활용교육을 받는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이 아이가 학습지, 교재교구 방문지도, 개별 또는 그룹지도, 통신교육을 받는 경우 종류별로 몇 개의 지도를 받고 있고, 지난 1개월간 낸 비용은 모두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유료로 이용한 경우에만 응답하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수 0 기입하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 공란으로 비워둠.)

항목	1) 개수	2) 이용시간	3) 비용	4) 만족도
	( ) 개 (0개는 이후 공란)	주 평균 ( ) 분	월 총( )천원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 개별 또는 그룹지도	개	분	천원	
2 학습지	개	분	천원	
3 교재교구활용	개	분	천원	
4 통신교육(전화인터넷)	개	분	천원	
총 계	**총 개**	**총 분**	**총 천원**	

Ⅶ 전체 아동 중 장애 아동에 질문

※ 일반 아동의 경우 질문 1~4번까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영유아가 장애가 있는 경우) 이 아이의 등록장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판정받은 장애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 상위등급 2가지에만 표시해주십시오.)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의사소통 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심장장애 ⑨ 안면장애
⑩ 기타( ) ⑪ 특수교육진단평가 결과통지서

1-1 장애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경증 □ ② 중증 (※ 특수교육진단평가를 받은 경우는 88 기입함.)

2 현재 이 아이는 보육·교육기관에 다닙니까? 다닌다면 기관유형은 무엇이고, 1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합니까? 또한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기관 유형	2) 1일 평균 이용시간	3) 이용 시 만족도
① 일반 어린이집 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③ 장애아통합어린이집 ④ 유치원 일반학급 ⑤ 유치원 특수학급 ⑥ 유아특수학교 ⑦ 특수학교 유치원(부) ⑧ 기타( ) ⑨ 다니지 않음 (▶ 질문 2-1 로)	평균 ( )시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 기관에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잘 몰라서 ②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③ 기관을 믿지 못해서
④ 비용이 부담돼서 ⑤ 등하원이 힘들어서 ⑥ 아이가 어려서
⑦ 기타( )

2-2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에 다니는 경우)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① 교사의 이해 부족, 편견 ② 다른 아동부모의 이해 부족, 편견 ③ 교사의 지나친 관심
④ 편의시설 부족 ⑤ 보육·교육 내용 부적합 ⑥ 특수교사 부족
⑦ 등·하원 시 불편 ⑧ 기타( ) ⑨ 어려움 없음
⑱ 비해당(미이용)

3 이 아이는 언제 장애를 발견하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까? 최초로 진단받은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장애등록(복지카드 발급), 병원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진단 및 평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① 출생 이전 ② 출생 ~ 만1개월 미만
③ 만1개월 이상 ~ 만12개월 미만 ④ 만12개월 이상 ~ 만24개월 미만
⑤ 만24개월 이상 ~ 만36개월 미만 ⑥ 만36개월 이상 ~ 만48개월 미만
⑦ 만48개월 이상 ~ 만60개월 미만 ⑧ 만60개월 이상

4 이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중복 장애의 경우 최초로 진단받은 장애에 대해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부모(나와 배우자)의 판단 ② 조부모 및 기타 가족의 권유
③ 원장 및 교사의 권유 ④ 지인의 권유
⑤ 영유아건강검진 ⑥ 기타 ( )

Ⅷ 전체 아동 중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에 질문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인 등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 문1~문14는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 ※ 조사원 확인: 보육·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 이상 학원) 및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동거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포함) 중복 확인

① 혈연 ② 비혈연 ③ 혈연+비혈연
④ 혈연+기관 ⑤ 비혈연+기관 ⑥ 혈연+비혈연+기관

2 (1번에서 ①~③번에 응답한 경우) 주변에 있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⑥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⑦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⑧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⑨ 기관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⑩ 기타( )
⑱ 비해당(기관 이용)

3 현재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 분께서는 이 아이를 포함하여 몇 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까? (※ 본인 영유아 자녀 포함하여 아동 수 기입)

조사 대상 아동을 포함하여 총 ( ) 명

※ <u>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는 경우</u>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4~7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4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① 동거 친조부모 ② 동거 외조부모 ③ 비동거 친조부모
④ 비동거 외조부모 ⑤ 동거 친인척 ⑥ 비동거 친인척

5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아이의 집 (▶ 질문 6) ② 돌보는 사람의 집 (▶ 질문 5-1)

5-1 (돌보는 사람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 아이를 매일 데려오십니까?

① 매일 데려오거나 가서 봄 ② 가끔 데려옴 (▶ 질문 5-1-1 로)
③ 가끔 가서 봄 (▶ 질문 5-1-1 로)

5-1-1 며칠에 한 번씩 데려오거나 가서 보십니까? 평균 ( )일에 한번

6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주로 언제 돌보고 있습니까?

① 하루 종일 ②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③ 이용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④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⑤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⑥ 기타( )

7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지불 안 함 (▶ 질문 8)

7-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돌봄으로 지급하는 비용만 대답해주세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주십시오.

월 ( ) 만원

※ **비혈연인이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비혈연인이 돌봐주지 않는 경우 8~14번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8 다음 중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비혈연인은 누구입니까?

① 공공 아이돌보미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이웃·지인 ④ 기타( )

9 이 아이는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아이 집 ② 돌보는 사람 집

10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지인 소개로 ③ 지역신문 광고로
④ 인터넷으로 ⑤ 사설 인력전문기관 소개로 ⑥ 기타( )

11 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주로 언제 돌봐 줍니까?

① 하루 종일 ②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③ 이용 기관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④ 부모 출근 후~이용 기관 등원 전, 하원 후~부모 퇴근 전
⑤ 필요할 때마다(불규칙적으로) ⑥ 기타( )

12 돌보는 시간은 1주일에 총 몇 시간이나 됩니까?

1주일에 총 ( ) 시간

13 이 아이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비용을 주로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④ 숙식만 제공(▶ 질문 14)
⑤ 지불 안 함(▶ 질문 14)

13-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 월 평균을 내어 주십시오.

월 ( ) 만원

14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비혈연인이 아이의 집에서 숙박 시 비해당 8 기입)

① 자주 있음 (▶ 질문 14-1) ② 가끔 있음 (▶ 질문 14-1)
③ 거의 또는 전혀 없음 ⑧ 비해당(비혈연인이 집에서 숙박)

14-1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① 아이의 부모가 돌봄 ② 아이의 형제자매에게 부탁
③ 조부모 및 친인척에게 부탁 ④ 이웃에게 부탁
⑤ 시간제 보육 이용 ⑥ 아이돌보미 이용
⑦ 기타( )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